

遼史·金史·元史 外國傳 譯註

譯註 中國 正史 外國傳 14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간행사

동북아역사재단은 전통시대 중국의 정사(正史)에서 외국이나 인근 종족과 관련된 열전(列傳)을 추려 ‘외국전(外國傳)’으로 정의하고, 2007년부터 장기적으로 외국전 전체를 번역, 주석하여 역주서를 발간하는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미 『사기(史記)』부터 『신오대사(新五代史)』까지 각 정사의 외국전을 역주하여 18권으로 출판하였고, 그 뒤를 이어 『송사(宋史)』부터 『명사(明史)』까지의 외국전을 역주하여 순차적으로 출판하고 있습니다.

전한(前漢)의 『사기』 이래 중국 왕조에서는 기전체(紀傳體) 형식으로 이전 왕조의 역사를 편찬하여 이를 정사라 하고, 중화민국(中華民國) 시기에 편찬한 『신원사(新元史)』까지 포함하여 ‘25사(史)’라고 통칭하였습니다. 이들 정사에는 이웃 국가나 종족에 관한 기록이 열전으로 별도 편제되어 있습니다. 열전의 명칭은 종족의 이름을 따서 붙이기도 하고, 지역적 구분에 따라 붙이기도 하고, 사방을 중국 중심의 관념체제로 이념화한 ‘사이(四夷)’ 의식에 따라 붙이기도 하였습니다. ‘외국전’이라는 명칭은 『송사(宋史)』 이후 분명히 나타나지만, 이후에도 ‘외국’과 더불어 ‘사이’, ‘만이(蠻夷)’, ‘외이(外夷)’라는 명칭이 쓰였습니다.

중국 정사를 편찬한 목적은 기본적으로 국가권력으로 통일적 역사인식을 확립하는데 있었기 때문에 그 체제와 내용에 중국 왕조의 입장을 강하게 반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외국이나 다른 종족과 관련 있는 부분은 철저하게 중국 왕조의 시각에서 정리하고

표현하였습니다. 이것은 외국전에 나타난 외국에 대한 인식이 단순히 당시의 실제 상황만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 중심의 당위적 이념을 크게 반영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런 점에서 중국 정사 외국전은 중국 중심 역사인식, 변경인식, 세계인식의 실체를 담고 있는 자료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동아시아에서 역사 귀속을 둘러싼 갈등이나 분쟁을 해소하고 상호 이해를 증진하고 공동 발전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역사를 존중하면서 객관적 시각에서 역사 연구를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역대 중국 왕조들이 정사에 ‘외국전’을 두어 상대적으로 풍부한 기록을 남긴 데 비해, 인접 국가나 종족들은 그들의 입장에서 정리한 역사 기록을 충분히 남기지 못했습니다. 이런 점에서 중국 정사 외국전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연구는 전근대 동아시아 각국의 역사와 문화는 물론, 한중관계를 포함하여 다양한 층위의 동아시아 국제관계를 이해하는 데 절대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역주 중국 정사 외국전은 바로 외국전에 실려 있는 외국의 실체에 대한 이해와 함께, 외국 인식의 이념적 원리와 구조를 정확히 파악하려는 목적에서 기획되었습니다. 아울러 다른 국가나 종족에 대한 서술을 통하여 중국 사서에 기록된 한중관계에 관한 내용이 어떠한 이념적 원리에 의해 서술되었는지 파악하려는 목적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국사 특히 한국 고대사와 한중관계 연구에 매우 중요한 사료인 중국 정사 ‘조선전(朝鮮傳)’은 이미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역주하여 출간하였습니다. 그러나 조선전만으로는 한중관계의 실체를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중국 정사 외국전 전체의 맥락 속에서 조선전을 이해할 필요가 있으며, 그렇게 할 때 전근대 한국의 대외관계 및 한중관계의 실상을 보다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국내외적으로 중국 정사 외국전에 대한 전체적인 역주는 처음으로 시도되는 일입니다. 중국 정사 외국전 기사의 방대한 분량과 원문의 난해함, 걸쳐 있는 시간적 길이와 공간적 폭을 생각할 때, 외국전 전체를 역주하는 것은 결코 용이한 일이 아닙니다. 처음인 만큼 번역상의 오류나 체제상의 미비점도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역주 중국 정사 외국전은 한문 원사료에 대한 가독성을 높이고 전근대 동아시아 여러 국가와 종족에 대한 전문 지식을 제공하여, 전문 연구자에게는 연구 분야의 확대와 연구 수준의 심화를 가능하게 하고, 일반 시민에게는 동아시아 각국의 역사와 문화 및 교류에 대한 보다 정확한 이해를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중국 정사 외국전은 외국전 상호간에 내용적, 시대적, 지역적 연계성이 두드러져 그 역주에는 개별 작업과 더불어 공동 작업이 병행되어야 하며 그런 만큼 많은 시간과 노력을 필요로 합니다.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외국전 역주에 참여해주신 학계 연구자들과 재단의 김정희 연구위원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동북아역사재단은 역주 중국 정사 외국전이 중국의 역사인식과 세계인식 연구, 민족문제와 변경문제 연구, 전근대 동아시아 국제관계 연구 등 관련 분야의 연구기반 확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학문적으로 수준 높은 역주가 이루어지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앞으로 더욱 좋은 역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이 역주서들이 학문 발전에 유용한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 김학균

역자 서문

이 역주서는 전통시대 중국의 정사(正史)에서 외국이나 인근 종족과 관련된 열전을 추려 ‘외국전(外國傳)’으로 정의하고 번역 주해한 것이다. 『송사(宋史)』 이후 열전의 편명으로 나타난 「외국전」만이 아니라 지역, 종족 명칭이 붙여진 모든 열전이 여기에 포함된다. 역대 중국 왕조에서는 기전체(紀傳體) 형식의 정사를 만들어 왔는데, 이것은 『사기(史記)』 이래 ‘25사(史)’ 혹은 『청사고(淸史稿)』도 포함하면 ‘26사’로 근대까지 계속 이어진다. 이들 정사에는 대부분 인근의 종족이나 국가권력과 관계에 대한 기록이 열전 가운데 편제되어 있다. 그리고 중국의 인접 국가나 종족들은 자신들에 의해 정리된 고대사 기록이 충분하지 못하여 중국 정사의 내용에 의존하여 역사를 복원하는 경우가 많았다. 우리나라에서도 『삼국사기(三國史記)』나 『삼국유사(三國遺事)』의 찬술 때 이들 중국 정사를 이용하기도 하였고, 현재까지도 삼국시대 이전의 역사에 대해서는 중국 정사의 기록이 매우 중요한 사료로 간주되고 있다.

중국 정사들의 편찬 동기나 과정은 시대별 편차가 없지 않지만, 결과적으로 국가권력에 의해서 최종적으로 정사로 흥정되었다. 이에 따라 『후한서(後漢書)』나 『진서(晉書)』가 최종적인 정사로 뒤늦게 확정된 뒤 기왕에 편찬되었던 많은 사서들이 모두 인멸되어 버린 예에서 볼 수 있듯이, 정사의 편찬은 원칙적으로 국가권력에 의한 통일적 역사인식의 확립이라는 의미가 강하였다. 물론 위진남북조시대 각 개별 왕조사와 함께 『남사(南史)』와 『북사(北史)』가 편찬되었고, 신·구의 『당서(唐書)』와 『오대사(五代史)』가

병존하기도 하지만, 이는 왕조적 관점에서 두 가지 정사가 모두 유용하다는 판단에 기인하였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사의 체제나 내용도 중국 왕조의 입장이 강하게 반영될 수밖에 없었다. 특히 외국이나 다른 종족과 관련된 부분은 대상 종족의 선택, 그 호칭, 풍습이나 사회구조, 대외관계와 교류 등에 대해서 철저하게 중국 왕조의 시각에서 정리되고 표현되었다. 더욱이 정사라는 역사 서술 체제 자체가 시간과 공간적으로 ‘천하일가(天下一家)’의 왕조적 정통성을 확립하기 위한 이념적 역사 인식에 근거하였기 때문에, 중국의 다른 기록에 비해서도 중화주의(中華主義)적 관념이 더욱 두드러지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중국 정사 외국전은 초기에 ‘흉노(匈奴)’, ‘남월(南越)’, ‘오환(烏桓)’ 등과 같이 종족단위, 혹은 ‘서역(西域)’, ‘서남이(西南夷)’, ‘동이(東夷)’ 등 지역 관념에 입각하여 독립된 열전으로 편제되었다. 그러나 7세기 당왕조(唐王朝)에서 편찬된 정사에서는, 『진서』 「사이전(四夷傳)」, 『양서(梁書)」 「제이전(諸夷傳)」, 『남사』 「이맥전(夷貊傳)」, 『주서(周書)」 「이역전(異域傳)」처럼 외국과 인근 종족을 통합적으로 파악하는 개념으로 편제되었다. 또 『수서(隋書)」에서는 「동이전(東夷傳)」, 「남만전(南蠻傳)」, 「서역전(西域傳)」, 「북적전(北狄傳)」으로 나누어 사방을 중국 중심의 관념체제로 이념화한 편제를 채택하였다. 이는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대외관계의 실상보다는 천하질서를 당왕조 중심으로 이념화하여 파악하려는 의지의 표현이었다.

그러나 오대(五代)와 송초(宋初)에 편찬된 『구당서(舊唐書)」와 『신당서(新唐書)」에서는 중국 중심의 사이(四夷) 구분 외에 ‘돌궐(突厥)’, ‘토번(吐蕃)’, ‘회궤(回鶻)’, ‘사타(沙陀)’ 등이 별도의 열전으로 편제되었다. 이는 관념적인 사이의식(四夷意識)과 왕조의 현실적인 대외관계가 혼합된 의식을 반영한다. 특히 당왕조가 자기중심의 천하질서를 강조한 것과는 달리, 오대와 송대에서는 국제질서의 현실을 인정하였기 때문에, 자신들의 관점에서 당대(唐代)를 서술하면서 나타난 절충적인 인식이었다.

민족국가적 의식이 강한 송대(宋代)에 들어서 현실적인 이해관계에 입각한 국제관계를 중시하였는데, 이를 반영한 것이 원대에 편찬된 『송사』였다. 여기에 처음으로 ‘외국

전'이란 명칭으로 대외관계를 모두 포괄하는 체제가 나타나, 청초에 편찬한 『명사(明史)』에 이르기까지 정사의 일반적인 편제방식으로 지속되었다. '외국(外國)'이라는 표현은 『사기』에서부터 보이는데, 대체로 '이적(夷狄)', '만이(蠻夷)'와는 구분되는 국가 혹은 종족집단으로, 중국 왕조와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범위에 국한하여 사용되는 개념이었다. 적대적인 관계 혹은 전쟁 상황에서는 곧바로 '이적'으로 그 호칭이 변화되었다.

'외국'이라는 개념에는 예적(禮的) 관념도 포함되어 있었으므로, 외국도 만이와 동일하게 직공(職貢)의 주체로 파악되었다. 이는 국제관계의 현실 상황과 이념적인 천하질서의 개념을 이중적으로 설정하는 중화주의 관념의 독특한 수사(修辭)였다. 청대에 편찬된 『명사』에서는 유럽의 국가들도 대거 '외국전'에 포함되는데, 청말에 전통적인 천하질서의 관념과 현실적인 국제관계가 충돌하는 의례분쟁이 나타났던 것은 바로 '외국'에 대한 이러한 이중적 관념이 그 요인이었다.

물론, 이 와중에도 비교적 가치관념이 배제된 외국이라는 개념을 부정하는 기류도 나타났다. 화이(華夷) 관념을 특별히 강조한 구양수(歐陽脩)에 의해 다시 편찬된 『신오대사(新五代史)』에서는 「사이부록(四夷附錄)」이라는 명칭으로 바뀌기도 한다. 또 명초에 편찬된 『원사(元史)』에서는 '외이전(外夷傳)'이라는 명칭을, 민국초에 편찬된 『청사고(淸史稿)』에서는 '속국(屬國)'과 '번부(藩部)'의 개념을 채택하기도 하였다. 이들의 공통점은 한족의 민족적 위기가 커지거나 혹은 중화주의적 관념이 강조되는 시기에 편찬되었다는 점이다. 즉 한족의 위기가 확대되고 중화주의적 관념이 강조될 경우에 외국과 주변 종족에 대한 표현을 감정적으로 비하하는 경향이 확대되었다.

한편, 『송사』에서는 「외국전」 외에 「만이전(蠻夷傳)」이 별도로 설정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과거 '남만(南蠻)'의 후예인 운남(雲南)·귀주(貴州)·광서(廣西)의 여러 종족들이 포함되어 있다. 이들은 독자적인 정치체제를 확보하지 못하고 생활공동체 단위로 분산 거주하였고, 송왕조의 입장에서는 중앙조정에서 관장하는 국제교류가 아니라 지방조직에 의해 통제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외국과 차이가 있었다. 이는 송대에 들어

독립된 정치체제가 확고해진 북방 지역의 종족 상황과는 달리, 남방의 제종족은 종족적 통합이 확대되지 못한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 분명하다. 그래서 역대로 남월, 서남이, 남만의 후예로 크게 만이의 범주에 들어 있었지만, 송대에 독립적인 국가권력을 형성하였던 교지(交趾), 대리(大理) 등은 『송사』에서는 「외국전」에 포함되게 되었다.

『명사』에서는 이전에 「외국전」에 편제되어 있던 서역 지역을 분리하여 별도로 「서역전」으로 편제하였다. 명대 들어 서역과의 관계에서 공식적인 교류와 관계가 축소되면서 나타난 변화를 반영하는 것이었다. 이와 함께 『송사』에서 「만이전」에 포함되었던 남방의 종족에 대한 기록을 위해 『명사』에서는 새로이 「토사전(土司傳)」을 설정하였다. 토사(土司)는 일정 지역 종족집단의 수령을 명조가 지방관으로 임명한 자로서, 결국 종족집단을 하급 지방으로 포섭하여 더 적극적으로 통제하는 방식이었다. 이러한 통치방식은 이미 남조 송(宋), 제(齊) 시기에 시행된 ‘좌군(左郡)’, ‘좌현(左縣)’에서 그 기원을 찾을 수 있는데, 명대 들어 토사제도(土司制度)로 남방의 여러 민족에게 통일적으로 시행하였다. 이러한 정책의 변화가 반영된 정사의 편제는 『청사고』에서도 계승되었다.

이처럼 외국전의 편제가 해당 왕조의 다른 종족이나 국가에 대한 인식과 정책에 입각하기도 하였지만, 때로는 훗날 편찬 당시의 관념이 반영된 경우도 있었다. 이것은 외국전에 나타난 외국에 대한 인식이 단순히 당시의 실제적인 상황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 중심의 당위적 이념을 위해 편제되고 기술되었음을 의미한다.

그럼에도 이를 역주하고자 하였던 것은 정사에 나타나 있는 외국의 실체에 대한 이해와 함께 그 이념의 원리와 구조를 정확히 파악하려는 이유 때문이다. 즉 이 역주작업은 일차적으로 해당 종족에 대한 연구와 이해를 추구하는 것을 지향하지만, 한편으로는 다른 국가와 종족에 대한 서술을 통하여 한중관계(韓中關係)에 대해 중국 사서에 기록된 내용이 어떠한 이념적 원리하에 서술되었는가를 파악하려는 목적도 있다. 따라서 가능하면 중국과 여타 국가나 종족의 관계에 주목하고 이를 서로 비교함으로써 한중관계의 본질과 특징을 규명할 수 있는 근거를 찾고자 한다.

중국 정사 외국전 모두에 대한 전체적인 역주는 기왕에 출간된 것이 확인되지 않는다. ‘25사’ 중 『신원사(新元史)』를 제외한 ‘24사’가 『이십사사전역(二十四史全譯)』(北京漢語大詞典出版社, 2004)으로 번역되어 있지만 자세한 주석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단 『사기』, 『한서』, 『후한서』가 별도로 역주본이 출간되어 있고, 고대를 중심으로 하여 「서역전」과 「흉노전」 등 부분적으로 중국, 일본 및 영어의 역주본이 나와 있다. 우리의 역주작업에서는 이들 역주본은 물론 기타 관련연구들은 가능하면 최대한 참고하여 최상의 역주가 되도록 노력하였다. 국내에서는 우리나라와 관련된 부분만을 모아서 『중국정사조선전역주(中國正史朝鮮傳譯註)』 전5책(국사편찬위원회, 1986~1990)이 출간되어 있다. 이는 매우 상세하게 주석하면서 번역하였기 때문에 여기에 포함된 부분은 이번 역주작업에서는 제외하였다.

이 역주작업은 사업의 목적에 부합하고 정확성을 확대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공동의 작업으로 진행되었다. 전체 사업의 1차 단계로는 김정희, 김유철, 하원수의 책임하에 『사기』에서 『신오대사』까지를 그 범주로 하여 진행하였고, 이를 이어 2차 단계는 김정희, 박지훈, 송정수의 책임하에 『송사』에서 『명사』까지를 그 범주로 하여 역주원칙을 정하고, 편장별로 역주 담당자를 선정 의뢰하였다. 그리고 일부분의 가역주(假譯註)를 통하여 문제점을 파악한 다음 역주원칙을 수정, 확정하였다. 역주작업은 편장별 담당자에 의해 초벌 역주가 진행된 다음 관련 지역별로 나누어 윤독을 통하여 정확성과 통일성을 기하려고 노력하였고, 최종적으로 『송사』에서 『원사』까지는 박지훈과 이근명이, 『명사』는 송정수와 송미령이 각각 교열하였다. 그렇지만 역주에 대한 최종적인 공과는 역주 담당자의 몫이다.

전체적인 역주는 다음의 원칙하에 진행하였다.

첫째, 역주작업은 외국전 전체를 철저히 자료에 근거하여 당시의 역사적 상황과 관념을 한글의 현대적 관념과 용어로 번역한다. 다만, 사서별로 심하게 중복된 부분은 이를 설명하고 차이를 정리한 다음 중복된 부분에 한하여 생략할 수 있다.

둘째, 역주의 텍스트는 원칙적으로 중화서국(中華書局)의 표점교감본(標點校勘本)

을 저본으로 사용한다. 문장의 교감과 표점에 대해 견해를 달리할 경우, 주석을 통하여 이를 설명하도록 한다.

셋째, 역주 대상은 원칙적으로 모두 본문에 한정한다. 중화서국본에 나와 있는 주를 비롯하여 본문에 대한 이전의 주석은 역자의 주석에 포함하여 알기 쉽게 설명하고, 필요한 경우 주석의 원문을 제시하고 번역한다. 다만, 사실관계의 내용이 많이 포함된 『삼국지(三國志)』 배송지(裴松之)의 주는 원문과 동일하게 역주한다.

넷째, 한자로 표시된 인명과 지명에 대해 번역문에서는 원문을 살리되 주석에서는 당시 현지 언어와 문자에 의한 표현과 발음을 복원하는 데 노력하여 한글 발음으로 적고 괄호 안에 로마자 알파벳으로 표시한다. 특히 지명은 현재의 지명으로 정확하게 고증하도록 한다.

다섯째, 가능한 현대의 개념으로 번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시대나 지역성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특수 용어나 개념 그리고 표현법은 원래의 용어를 번역문에서 살리되 주석을 통하여 현대적 관점에서도 이해가 가능하도록 한다. 인명, 역사적 사건, 종족의 관직이나 사회조직, 풍속 등 주요사항에 대해서는 주석에서 전체적인 이해를 돕도록 설명한다.

여섯째, 중국의 문화나 국가권력의 입장에서 설정된 가치 관념이 반영된 표현들에 대해 번역에서는 원문에 충실하되, 주석을 통하여 그 실체를 설명하도록 한다. 특히 이들 종족들의 신화나 전설, 역사에서 중국 정사 외국전의 기술뿐만 아니라 그 종족 식자층까지도 중국의 고전에 입각하여 서술하는 경향이 자주 나타난다는 점에 주의하여, 이에 대한 역사적 실체를 가능한 한 확인하여 주석에서 설명하도록 한다.

일곱째, 외국전 이외에 다른 사서나 정사 내 다른 열전기록 등을 주석에서 보충하고 그 차이를 설명한다. 특히 해당 국가나 종족의 역사기록이나 고고유물을 최대한 검토하여 중국 정사 외국전이 갖는 한계를 넘어서는 이해를 추구한다. 이때 필요한 경우 다른 문헌의 원문을 전재하고 번역하도록 한다. 다만, 내용상 큰 차이가 없을 경우 번역을 생략할 수 있다.

여덟째, 역주는 철저하게 원문의 이해를 돕는 데 한정하고, 세밀한 사항에 대한 주관적 의견은 가능하면 배제한다. 다만, 학계에서 논란이 되는 문제는 대표적인 참고문헌과 함께 이를 소개한다.

아홉째, 각 편별로 해당 종족의 실상에 대한 간단한 소개, 편장 전체의 줄거리와 구성 그리고 저술과정의 특징, 이전 정사와 중복된 부분이나 차이, 사료적 가치 등을 설명하는 〈해제〉를 포함한다. 아울러 말미에 참고문헌을 덧붙이고, 〈연표〉, 〈세계표〉와 〈지도〉를 작성하여 본문의 이해를 돕도록 한다.

2014년 11월 1일

김유철·하원수·박지훈·송정수·김정희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일러두기

1. 역주문의 순서는 저본의 문단 단위로 한문 원문을 앞에 두고 이어서 본문 역주를 배치한다.
2. 원문의 구두점은 중화서국 표점본의 체제를 따르되, 전각기호는 모두 반각기호와 띄어쓰기로, ‘.’은 ‘.’로, ‘,’는 ‘.’로 바꾼다. 서명과 인명에 대한 기호는 없앤다.
3. 번역은 직역을 원칙으로 하되, 문투를 어색하게 하지 않기 위하여 가급적 현대적 표현으로 바꾼다. 번역문에서 내용의 이해와 문맥의 순조로운 연결을 위해 말을 보충할 경우에는 []에 넣어 처리하고, 부연설명일 경우에는 ()에 넣는다.
4. 번역문의 문단은 기본적으로 저본에 따르지만, 한 문단이 너무 길어 읽기에 불편한 곳은 단락 전체의 내용 이해에 곤란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절히 문단을 나눈다.
5. 번역문도 원본의 표점과 구두에 맞추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전체적인 문장의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에 따라 문장을 끊어 번역할 수 있다.
6. 모든 번역문은 한글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인명, 지명, 국명, 서명, 개념어, 역사적 용어 등의 경우, 그 의미가 명확해질 수 있도록 ()에 한자를 병기한다. 주석문의 경우 전문가를 대상으로 내용 이해에 중점을 두기 위해 국한문을 혼용한다.
7. 번역문과 주석문에서는 일반적으로 한글의 구두점을 사용한다. 서명은 『 』로, 편명은 「 」로 표기한다.
 - 예1) 『史記』「西南夷傳」, 편명 안에서 내용을 구분할 필요가 있을 때: 『史記』「西南夷傳」〈노래명〉
‘노래구절’
 - 예2) 주석문의 사례: 원문은 ‘必’인데 안사고는 그 뜻이 ‘極’이라고 했다. 그에 따라 해석하였다
([顏]師古曰, “必, 極也. 極保之也”).
8. 번역문이나 주석문에서 황제나 인물 그리고 연호에 대해 그 생졸년이나 재위 기간 등을 ()에 병기하여 이해를 돕는다.
 - 예) 광무제(光武帝: 劉秀, 전6~후57; 재위 25~57), 유흠(劉歆, ?~25), 영제(靈帝: 劉宏, 재위 168~189)
9. 왕조명(王朝名)은 번역문에서는 원문의 표현법을 따르고, 주석문에서는 前漢, 後漢, 曹魏, 孫吳, 蜀漢, 西晉, 東晉, 劉宋, 南齊, 梁, 陳, 北魏, 北周, 北齊로 통일한다.

10. 번역문의 숫자 표기방법은 일, 십 단위까지 구체적으로 나열되어 있을 경우 아라비아숫자로 표기하지만, 관용적이거나 포괄적인 범위를 나타내는 경우 원칙상 한글로 표기한다(예: ‘천만인’, ‘팔십만 병사’, ‘천승지국’).
11. 번역문에서의 연도 표시는 ‘본문의 연도표기법(서력기원)’으로 표기한다. 연월일(年月日)이 모두 나타날 경우 사료에 표시된 대로 음력을 그대로 표기하되, 정월, 이월, 시월 등의 표현으로 음력임을 나타낸다.
- 예) “건초(建初) 원년(76)”, “원봉(元封) 6년(전15) 시월 5일”, “영수(永壽) 3년(157, 후한 환제)”
12. 주석의 항목이 인명, 지명, 관명, 역사적 사건, 개념어 등 구체적인 용어에 해당될 경우, 이를 먼저 표기하고 쌍점을 찍은 뒤 설명하여 이해의 편의를 돕는다.
- 예) 吳起: 전국시대 군사전략가.
13. 주석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과거 주석가들의 주석내용이나 다른 문헌을 소개하는데, 그 내용의 요점을 정리하여 설명한다. 자세한 소개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원문과 함께 제시하고 번역문을 병기한다. 이때 보기 편하도록 괄호 안에 원문을 제시하거나 해설을 첨가할 수도 있다.
- 예1) 寶布: 李賢注에서는 『說文解字』를 인용하여 南蠻의 賦라고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드러난 것은 晉代 戶調之式이다. 戶調之式에서는 “丁男之戶, 歲輸絹三匹, 縣三斤, 女及次丁男爲戶者半輸. 其諸邊郡或三分之二, 遠者三分之一. 夷人輸寶布, 戶一匹, 遠者或一丈.” (『晉書』卷26 「食貨志」: 790)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夷人寶布가 戶當 1匹이라고 하여, 寶布는 전국시대 이래 1匹로 고정된 것으로 보인다.
- 예2) 武谿: 李賢은 『後漢書』 다른 곳의 주석에서 武谿는 강 이름으로, 辰州 盧谿縣에 있다고 하였다(『後漢書』卷18 「吳蓋陳臧列傳」: 695). 史書에선 ‘武谿’라고도 표현되어 있는데, 武陵의 五谿 중의 하나이다. 五谿는 沅水유역의 雄谿, 楠谿, 辰谿, 酉谿, 武谿를 가리키는데, 蠻夷의 거주지로 이를 五谿蠻으로 불렀다(『南史』卷79 「夷貊」 下 〈荊雍州蠻〉: 1980).
14. 주석과정에서 다른 문헌을 인용하거나 참고문헌이 필요한 경우, 일반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방식으로 단순하게 병기하고 반드시 말미의 〈참고문헌〉에 그 책의 자세한 서지사항을 밝힌다. 이때 쌍점(:) 뒤의 아라비아 숫자는 쪽수를 의미한다. 제자서나 유교 경전일 경우 권수와 쪽수를 생략한다. 다만, 사전이나 일반적인 공구서에 나와 있는 연대나 단순한 사실에 관한 설명은 특수한 내용이 아닌 경우 구체적 근거를 생략하되, 〈참고문헌〉에는 그 책을 포함시킨다.
- 예) (方國瑜, 1927: 34~39), (內藤湖南, 1944: 55), (다니카와, 1988: 37~40), (디코스모, 2005: 123), (Hartwell, 1977: 12), (『南史』卷79 「夷貊」 下 〈荊雍州蠻〉: 1980), (『鹽鐵論』卷14 「論功篇」, “刻骨卷木, 百官有以相記.”), (『孟子』 「梁惠王」)

차 례

- 요사 이국외기전 해제 20



- 서하전
 - 해제 / 25
 - 서하의 풍속, 토산품, 군제 / 28
 - 요 성종(聖宗) 시기의 서하 관계 / 36
 - 요 흥종(興宗) 시기의 서하 관계 / 41
 - 요 도종(道宗) 시기의 서하 관계 / 50
 - 요 천조제(天祚帝)의 시기 서하 관계 / 53
 - 참고문헌 / 55

- 금사 외국전 해제 62

- 외국전 상 서하전
 - 해제 / 67
 - 서하 건국까지의 과정 / 70
 - 금 태조(太祖) 시기의 서하 관계 / 74



금 태종(太宗) 시기의 서하관계 / 75

금 희종(熙宗) 시기의 서하관계 / 82

금 해릉왕(海陵王) 시기의 서하관계 / 84

금 세종(世宗) 시기의 서하관계 / 85

금 장종(章宗) 시기의 서하관계 / 92

금 위소왕(衛紹王) 시기의 서하관계 / 94

금 선종(宣宗) 시기의 서하관계 / 95

금 애종(哀宗) 시기의 서하관계 / 108

논찬 / 109

참고문헌 /114

• 원사 외이전 해제119

• 외이 1 일본전

해제 / 127

후한에서 송대까지 일본의 조공 / 131

동북아역사재단 몽골의 일본 초유 / 133

몽골 사신 조양필(趙良弼)의 일본 사행 / 139

몽골의 1차 일본정벌 / 147

몽골의 2차 일본정벌 / 149

참고문헌 / 160

- **외이 2 안남전**

해제 / 169

몽골제국 이전의 안남 / 175

몽골의 제1차 안남 침공 / 177

세조 초기의 사신왕래와 교섭 / 182

육사(六事)의 요구와 그 이후의 교섭 / 186

지원 15년 시춘(柴春)의 파견 / 195

제2차 침공 준비와 진조의 대응 / 200

제2차 침공의 경과 / 207

제3차 침공의 준비 / 222

제3차 침공의 경과 / 225

세조 말기의 사신 왕래 / 233

성종(成宗) 시기의 사신 왕래 / 238

무종(武宗)·인종(仁宗) 시기의 사신 왕래 / 239

참고문헌 / 245

- 외이 3 면·점성·섬·조왜·유구·삼서·마팔아등국전

해제 / 251

면(緬) / 256

점성(占城) / 277

섬(暹) / 290

조왜(爪哇) / 292

유구(瑠求) / 300

동북아역사재단 삼서(三嶼) / 304

마팔아 등국(馬八兒 等國) / 305

참고문헌 / 312

세계표 317

연표 319

지도 330

색인 339



『요사(遼史)』 이국외기전 해제

중국의 역대 왕조들은 전대(前代) 왕조가 남긴 사료들을 정리하여 정사(正史)를 편찬함으로써, 역사적 계승의식과 정통성을 강조해왔다. 원조(元朝) 역시 남송 멸망 이전인 중통(中統) 2년(1261)부터 이미 요·금사의 편찬사업을 기획한 바 있으며, 지원(至元) 13년(1276)에는 남송의 도성 임안(臨安)을 정복함과 동시에 황실도서의 완전한 보존을 명령하면서 사서 편찬의 의지를 드러내었다. 하지만 통일 후의 정사 편찬사업은 정통론 시비로 지체되었다. 송을 본기(本紀)에 기록하고 요와 금은 각각 재기(載記)에 기록해야 한다는 주장과 요와 금을 북사(北史)로 편찬하고, 송은 송사(宋史)·남송사(南宋史)로 분찬하자는 견해 등 다양한 의견이 팽팽하게 맞섰다. 결국 “삼국 모두에게 정통성을 부여하고 각각의 연호를 사용한다(三國各與正統, 各繫其年號)”는 원칙이 확정되었고, 순제(順帝) 지정(至正) 3년(1343) 2월부터 요·송·금 삼국 정사의 편찬사업이 시작되었다. 그해 3월에는 당대(唐代) 이래로 확립된 ‘설관수사(設館修史)’의 전통을 계승하여 정사를 편찬하기 위한 정식기구를 설립하였고, 중서우승상(中書右丞相) 탈탈(脫脫)이 도총재관(都總裁官) 겸 감수국사(監修國史)를, 철목아탑식(鐵木兒塔識)·장기암(張起岩)·구양현(歐陽玄)·여사성(呂思誠)·갈혜사(搆僖斯) 등이 총재관을 맡아서 찬수사업을 시작하였다. 삼국 정사의 편찬사업은 신속하게 진척되었다. 지정 4년(1344) 3월에 『요사』 116권이 완성되었고, 11월에는 『금사』 135권이, 지정 5년(1345) 10월에는 『송사』 496권이 차례로 완성되었다.

거질(巨帙)의 사서들이 단기일 내에 집체작업을 통해서 연달아 완성된 탓에 부실을 지적하는 비평도 시대를 넘어서 이어졌다. 그중에도 『요사』에 대해서는 내용과 체제·사료·용어선택 등 모든 방면에서 문제점이 지적되었고, 이십사사(二十四史) 가운데 가장 수준이 떨어진다고

는 혹평까지 제기되었다. 그렇다고 사서로서의 가치를 완전히 부정할 것만은 아니다. 조익(趙翼)은 『이십이사차기(二十二史劄記)』에서 225년간 전개된 복잡다단한 역사적 사건과 많은 인물들을 간명하게 정리했다고 호평했다. 열전(列傳)의 입전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상황 하에, 적극적으로 표(表)를 활용해서 사건과 인물들을 누락 없이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영위(營衛)」, 「날발(捺鉢)」, 「부족(部族)」, 「병위(兵衛)」 등 새롭게 설정한 지(志)에 대해서도, 다민족 사회의 특징과 거란 고유의 풍속을 드러낼 수 있었다는 점에서 좋은 평가를 내렸다.

『요사』와 『금사』의 〈국어해(國語解)〉에 대해서도 그 평가가 긍정적이다. 사서의 내용 중에 거란어와 여진어로 출현하는 성씨·부족·지명·관직·국명·제도 등과 관련된 용어에 대해서는 한어(漢語)로 해석을 부기(附記)하여, 해당시기의 역사와 언어를 이해하는 데 적지 않은 도움이 되었기 때문이다. 전반적으로 촉박하게 진행된 탓에 체제와 내용이 영성하고 구조 또한 체계적이지 못하다는 부정적인 평가가 지배적이지만, 일부 독창적인 항목들은 민족사적인 특징을 잘 반영하고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그렇다면 정복왕조로 일컬어지는 원대에 편찬된 『요사』의 「외국전(外國傳)」은 어떤 특징을 지닐까? 탈탈을 위시한 다양한 민족적 배경을 가진 학자들은 「외국전」을 어떻게 집필했을까? 이 문제는 형식과 내용의 취사선택 과정 중에, 정통에 대한 인식과 계승의식 등이 표출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흥미롭다. 『사기(史記)』 이래로, 기전체로 작성된 중국 정사는 기본적으로 이웃 국가나 주변민족의 역사를 열전 부분에 기록해왔다. 『요사』와 『금사』 역시 각각 「이국외기(二國外記)」와 「외국전」을 별도로 입전하여, 서하(西夏)와 고려(高麗) 양국의 역사를 다루고 있다. 그중 「이국외기」에 보이는 서술상의 특징을 간단하게 정리해보면 아래와 같다.

첫 번째로 주목되는 특징은 「이국외기」의 국가별·시기별 안배가 요·송·금 삼국사 전체를 염두에 두고 설계되었다는 점이다. 우선 국가별로 보자면 『송사』 「외국전」에는 고려와 서하 이외에도 일본, 토번, 당항, 대식, 안남과 도서부 동남아시아, 인도 등 다양한 국가들을 두루 망라하고 있는데, 『요사』와 『금사』는 고려와 서하만을 다루고 있다. 이는 요와 금의 주변국가 중에서 두 나라가 그만큼 중요한 위상을 가졌음을 시사해주는 것이지만, 일정 정도는 『송사』 외국전과의 중복을 피하려는 편찬진의 의도를 반영해주는 것이기도 하다. 이러한 의도는 시기의 확분에도 그대로 적용되었다. 『송사』 〈하국전〉은 상·하 양 권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대체

로 상권은 『요사』 「이국외기」 〈서하전〉, 하권은 『금사』 「외국전」의 〈서하전〉과 맞물리도록 설정되었다.

두 번째로는 내용적인 측면에서 접근해볼 때, 『요사』와 『금사』의 〈서하전〉이 ‘관계사적 서술’에 치중하고 있다는 점이 『송사』와 뚜렷이 대비된다. 우선 『요사』 〈서하전〉을 살펴보면 서두에서 서하의 연원과 입국과정에 대해 간략하게 언급한 뒤 요가 멸망할 때까지, 외교와 통혼 등을 중심으로 전개된 요와 서하 양국 간의 관계사를 다루고 있다. 『요사』 〈서하전〉의 분량이 『송사』 〈하국전〉에 비해 현격하게 적은 것도 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물론 정사 외국전 대부분이 중국과 외국 혹은 주변민족 간에 전개된 조공과 사신의 왕래, 전쟁 등 관계사적 부분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지만, 내용 가운데 각국의 연원·제도·지리·풍속 등에 대해서도 상술하고 있어서 해당국의 역사를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이에 반해 『요사』와 『금사』의 〈서하전〉에서는 서하사 자체에 관한 중요한 기록은 찾아보기 힘들다. 이 점 역시 일정 정도는 『송사』 〈하국전〉과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기획된 것으로 추정된다.

세 번째로는 정통론적 입장에서, 요·금·송 삼국사 「외국전」의 편찬이 기본적으로 요와 금을 정통으로 삼고 이를 원이 계승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었다는 점이 주목된다. 일례로 『요사』 〈위의지(威儀志)〉의 국가의례 절차와 도구에 관한 기록을 살펴보면, ‘국여(國輿)’와 ‘한여(漢輿)’, ‘국복(國服)’과 ‘한복(漢服)’, ‘국장(國杖)’과 ‘발해장(渤海杖)’, ‘한장(漢杖)’ 등으로 분장하여 기록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요를 중심으로 삼고 발해와 한을 부수적인 지위로 구분하여 서술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송사』 〈하국전〉과 비교할 때 『요사』와 『금사』에서는 〈서하전〉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점도 주목된다. ‘서하’라는 명칭이 ‘하국’에 비해 비칭으로 사용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외국전의 표제에 ‘서하’와 ‘하국’이라는 명칭을 대비시켜 사용함으로써 결국 송과 하국을 동격화하고, 요·금과 송 사이의 국격의 차이를 직접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요사』와 『금사』의 「외국전」 서술은 그 형식에서는 기전체 사서의 특징을 그대로 전승하여 문화적 계승의식을 반영하면서도, 내용에서는 역사적 정통성의 소재가 요-금-원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분명하게 강조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요사(遼史) 권115 이국외기(二國外記)

서하전(西夏傳)

- 역주: 박지훈
- 교열: 이근명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서하전(西夏傳)」 해제

『요사』 권115 「이국외기」 중 〈서하전〉은 서하의 연원과 개국에 대해 간단하게 서술한 후, 천조제(天祚帝) 때 요가 멸망하기까지 요와 서하의 관계사가 주된 내용을 이루고 있다. 원대에 『요사』와 『금사』는 독립된 사서로 편찬하였고, 서하사는 『송사』에 포함시켰기 때문에 『송사』에서 서하의 역사내용에 대한 서술도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요사』 〈서하전〉은 분량 면에서 비슷한 시기를 대상으로 하는 『송사』 〈하국전〉 상과 비교했을 때 3분의 1이 채 안 될 정도로 적다. 물론 『요사』가 『송사』 전체의 양에 비해 10분의 1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그렇게까지 적은 비율은 아니다. 또한 서술의 초점이 요와 서하의 관계사를 위주로 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송사』 〈하국전〉에 기술된 요와 서하의 관계사에 대한 내용에서도 누락된 부분이 적지 않기 때문에 내용이 소략하다는 평가를 피할 수는 없을 것이다. 『송사』 〈하국전〉은 상하로 나누어져 있는데 상권은 『요사』 「이국외기」 〈서하전〉, 하권은 『금사』 「외국전」 〈서하전〉과 다루는 시기가 대체로 비슷하다.

한편 『송사』 「외국전」에는 〈하국전〉 이외에도 안남, 동남아시아 여러 나라, 일본, 당항, 서역의 대식국, 토번 등이 입전되어 있는데 『요사』에는 명칭도 「이국외기」라 하고 고려와 서하만을 다루고 있다. 이는 요의 주변국가 중에서 두 나라가 가장 중요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고려와 비교했을 때 6 대 4로 서하에 대한 서술이 많아서 그래도 서하와의 관계가 우선시되었다는 것을 반영한다.

다음으로 『요사』 〈서하전〉은 『송사』 〈하국전〉 상의 서술 차례와 차이가 있다. 즉, 먼저 서하의 습속이나 토산물, 군제 등을 적고 관계사를 배열한 후 짧은 논평이 있다. 『송사』 〈하국전〉에서는 습속이나 토산물, 군제 등이 〈하국전〉 하의 끝부분에 부기되고 아주 간단한 논찬이

있는 것과는 다르다.

『요사』〈서하전〉 서술에는 일관성이 없는 경우가 적지 않다. 예를 들어 제목은 ‘서하’라고 하였으나 내용에서는 ‘서하’ 혹은 ‘하’라고 지칭하는 경우가 혼용되어 나타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서술이 정연하지 않고 『송사』〈하국전〉의 내용과 차이가 나는 서술이 적지 않다. 이는 『속자치통감장편』 등 기타 송대의 사료와 대조했을 때 대부분 『송사』〈하국전〉의 내용이 보다 정확한 것으로 판단된다. 예를 들어 『송사』〈하국전〉이나 『속자치통감장편』에는 이원호(李元昊)에 대한 관련 서술이 『요사』〈서하전〉에서는 그의 아버지 이덕명(李德明)에 대한 내용으로 바뀌어 있기도 하다. 주된 내용이 서하의 요에 대한 내공 사실만 간단하게 기록한 것인데 기록하지 않은 부분도 상당수 있다.

『요사』〈서하전〉의 내용을 보면 먼저 서하의 원조(遠祖)인 [탁발]사공(拓拔思恭)은 당(唐) 말에 이(李)씨 성을 하사받았다는 기록이 있고, 이후 바로 이계천(李繼遷)·이덕명을 기술했다. 당항족의 세계는 모두 생략하고 있다. 즉 『송사』〈하국전〉 상과는 달리 간단하게 서술되어 있다. 풍속과 군제 등에 대해서는 『송사』〈하국전〉 하의 마지막 부분과 대동소이하다.

요 성종(聖宗) 통화(統和) 4년(986), 이계천이 송에 반항한 이후로 요와 가깝게 지내지 시작하여 특진(特進) 검교(檢校) 태사(太師)·도독(都督) 하주제군사(夏州諸軍事)를 수여하고 통화 7년(989)에 충실인 야율양(耶律襄)의 딸을 의성공주(義成公主)에 책봉한 다음 이계천에게 시집보냈다. 통화 8년(990) 요에서 사신을 보내 이계천을 하국왕(夏國王)으로 책봉하였다. 이후 송과의 관계를 보고하고 내공한 사실을 기록하였다. 통화 9년(991)에는 정난군(定難軍) 절도사(節度使) 이계봉(李繼捧)이 내부(來附)하여 서평왕에 책봉하기도 하였다.

통화 21년(1003), 이계천이 죽은 다음 이듬해에 이덕소(李德昭, 즉 이덕명)를 서평왕(西平王)으로 책봉하였다. 통화 28년(1010)에는 이덕소를 하국왕으로 책봉한 후, 태평 11년(1031), 성종이 죽을 때까지 요와 서하의 관계사가 간략하게 정리되어 있다. 흥종(興宗)이 즉위하면서 흥평공주(興平公主)를 이원호에게 시집보내고 이원호를 부마도위(駙馬都尉)로 삼았다. 이덕소가 죽자 그의 아들 하국공(夏國公) 이원호가 왕이 되었다. 이원호는 흥평공주와 사이가 나빴는데 공주가 죽자 북원승지(北院承旨) 야율서성(耶律庶成)을 파견하여 그를 문책하도록 하였다. 이후 이원호가 송과 전쟁을 치르는 시기에 요와의 관계사를 서술하였다.

중희(重熙) 13년(1044) 4월, 당항과 산서부족(山西部族) 절도사인 굴열(屈烈)이 5부(部)를 데리고 요를 배반하고 서하에게 들어갔다. 이 과정에서 요와 이원호는 사이가 좋지 않았고,

전투가 벌어지다가 이원호는 직접 당항의 3부족을 이끌고 와서 항복하고 다시 내공하였다. 중희 17년(1048), 이원호가 죽자 그의 아들 이양조(李諫祚)가 사신을 보내어 알려주고, 그 아버지가 남긴 유물을 바쳤다. 중희 18년(1049), 흥종이 서하에 친정(親征)하였는데 10월에 초토사(招討使) 야율적고(耶律敵古)는 하란산(賀蘭山)에 이르러, 이원호의 부인과 그 관료, 가솔들을 사로잡고 패배시켰다. 다시 중희 19년(1050)에 서하 장수 와보(洼普) 등이 금숙성(金肅城)을 공격하였는데 야율고가노(耶律高家奴) 등이 그들을 패배시켰다. 결국 서하가 투항하였고, 당시 수렴청정을 하던 이양조의 모친은 사신을 보내어 예전대로 칭신하겠다고 빌었다. 요가 계속 서하를 압박하자 중희 22년(1053)에 이양조는 항복하는 표문을 올렸고 요는 그들을 안무하고 회유하였다.

중희 24년(1055), 흥종이 죽고, 도종(道宗)이 즉위한 다음에는 주로 서하의 내공 기록이 이어지다가 함옹(咸雍) 4년(1068) 12월, 이양조가 죽자 이양조의 아들 이병상(李秉常)을 하국왕으로 책봉하였다. 이후로도 대체적으로 내공이 이어졌는데 대안(大安) 2년(1086) 10월, 이병상이 죽자 요는 그 아들 이건순(李乾順)이 국사를 맡으라는 조서를 내렸다. 대안 4년(1088)에는 이건순을 하국왕으로 책봉하였다. 대안 8년(1092)부터 서하가 송의 침략을 받아 사신을 파견하여 구원을 요청하였다. 이후로도 계속 요에 구원을 청하고, 수릉(壽隆, 혹은 壽昌) 6년(1100)에는 요의 공주와 혼인을 청하였다. 수릉 7년(1101), 도종이 죽자 서하에 사신을 보내 상사를 알렸는데 서하에서는 사신을 보내와 위전(慰奠)하였다.

천조제(天祚帝)가 즉위한 건통(乾統) 원년(1101) 이후에 서하는 요의 공주와 혼인을 거듭 청하였다. 또한 송의 침략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을 청하였다. 이후 구원 요청과 청혼이 거듭되자 요는 중실의 딸인 남선(南仙)을 성안공주(成安公主)로 봉하여 이건순에게 시집보냈다. 보대(保大) 2년(1122), 천조제가 도성을 떠나 피난하자 이건순은 군대를 이끌고 도우러 왔지만 금의 군대에게 패배당하였고, 사신을 보내서 이건순을 하국 황제로 책봉하였으나 천조제는 사로잡혀 금으로 가게 되면서 막을 내리고 있다.

논(論)에 보면 고려와 서하를 함께 평하여 반복무상하다고 하였다. 특히 서로의 전쟁에 대해 아쉬움을 표시하고 금에게 멸망당한 역사적인 사실을 지적하는 것으로 짧게 부기하여 끝내고 있다. 고려나 서하 역사에 대한 나름대로의 평가는 보이지 않는다.

「서하전(西夏傳)」역주

— 『요사(遼史)』 권115 「이국외기(二國外記)」 1 <고려(高麗)>는 국사편찬위원회, 『중국정사조선전역주(中國正史朝鮮傳譯註)』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생략한다. —

西夏，本魏拓跋氏後，其地則赫連國也。遠祖思恭，唐季受賜姓曰李，涉五代至宋，世有其地。至李繼遷始大，據夏·銀·綏·宥·靜五州，緣境七鎮，其東西二十五驛，南北十餘驛。子德明，曉佛書，通法律，嘗觀太一金鑑訣·野戰歌，制番書十二卷，又制字若符篆。

서하(西夏)는 본래 [북]위(北魏)¹⁾ 탁발씨(拓跋氏)의 후손으로, 그 지역은 곧 혁련국(赫連國)²⁾이었다. 원조(遠祖)인 [탁발]사공(思恭)³⁾은 당(唐) 말에 이(李)씨 성을 하사받았다. 오

- 1) 魏(386~534): 위진남북조 시대 5호16국을 통일한 왕조. 흔히 北魏, 後魏, 元魏라고도 칭한다.
- 2) 赫連國: 원래의 명칭은 夏로써 匈奴의 일파인 鐵弗의 赫連勃勃이 건국한 五胡十六國의 하나이다(407~431). 赫連勃勃은 陝西省의 북부에서 세력을 얻어, 407년 天王大單於라 칭하고 나라를 大夏라 하였다. 417년 長安을 공략하였고, 418년 關中을 평정해서 帝位에 올랐다. 최대 판도는 陝西·甘肅를 장악하여 北魏와 대립하였으나, 赫連勃勃이 죽은 뒤 北魏 太武帝의 공격을 받고 멸망하였다.
- 3) 拓跋思恭: 唐朝末年 党項族의 首領으로 夏州(治所는 오늘날 陝西省 靖邊 북쪽)의 偏將이었다. 咸通 연간(860~873) 末에 宥州(治所는 오늘날 內蒙古自治區 鄂托克旗)에서 刺史로 自稱하였다. 黃巢가 長安에 들어오자 拓跋思恭은 鄜州(治所는 오늘날 陝西省 富縣)의 李孝昌과 함께 賊을 토벌하기로 서약하여 唐 僖宗은 그를 左武衛將軍, 權知夏綏銀節度使로 삼았다. 達王橋에서 黃巢軍에게 격퇴당한 후에 鄭畋 등과 四節度 同盟을 맺고 渭橋에서 屯兵하였다. 中和 2년(882)에 皇帝는 그를 京城西面都統, 檢校司空,

대(五代)를 거쳐 송(宋)에 이르기까지 대대로 그곳에 거주하였다. 이계천(李繼遷)⁴⁾ 때에 이르러 강대해지기 시작하여 하(夏)⁵⁾·은(銀)⁶⁾·수(綏)⁷⁾·유(宥)⁸⁾·정(靜)⁹⁾ [등] 다섯 주(州)

同中書門下平章事 등으로 명하는 조서를 내렸다. 그 후 四面都統, 權知京兆尹으로 進封하였다. 黃巢가 토벌된 다음 拓跋思恭은 太子太傅를 겸하고 夏國公에 봉해졌으며 李氏 姓을 받았고, 夏州節度使를 배수하였다. 襄王 李焜의 亂에 僖宗은 拓拔思恭에게 出兵을 명하였으나 發兵하기 전에 죽었다. 乾寧 2년(895) 그의 동생 李思諫을 定難節度使로 李思孝와 李思敬은 保大節度로 삼았다.

그가 李氏 姓을 받은 다음 대부분의 史書에서는 이후 拓跋이라는 성 대신 李氏로 표기하고 있지만, 이후 송대 雍熙 연간(984-987)에 다시 李繼捧에게는 趙保忠이라는 姓名을, 李繼遷에게는 趙保吉이라는 姓名을 내렸기 때문에 이후에 李元昊를 趙元昊로 표기하기도 한다. 李元昊가 칭제한 다음 송 조정에서 趙氏 姓을 거두어갔기 때문에 본 역주에서는 혼란을 피하기 위해 『宋史』 원문에 성이 명기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씨로 통일하였다.

- 4) 李繼遷(963~1004): 西夏를 개국한 李元昊의 조부로 서하왕조를 건립하는데 기반을 제공한 인물이다. 党項族 平夏部의 수령 李繼奉의 族弟인데 송 태종 太平興國 7년(982)부터 송에 저항하면서 독립하여 점차 강대해졌다. 雍熙 2년(985)에는 송의 장군 曹光實을 유인하여 살해하고 銀州(오늘날 陝西省 榆林 남쪽)를 공략하였다. 至道 2년(996) 浦洛河에서 송의 군대를 격파한 후 靈州(오늘날 寧夏回族自治區 靈武 서남쪽)를 포위하고 공격하였다. 송 군대는 5갈래로 나뉘어 출격하였으나 패배하였다. 이듬해, 송에 사절을 파견하여 화친을 구하자 定難軍節度軍節度使에 더하여 夏州·銀州·綏州·宥州·靜州 등 州의 觀察處置押蕃落使에 임명되었다. 하지만 송 眞宗 咸平 5년(1002), 靈州를 공략하고 西平府라고 명칭을 고친 후 도읍으로 정하였다. 이듬해에는 西涼府(오늘날 甘肅省 武威)를 공격하였다. 또한 吐蕃의 수령 潘羅支를 공격하다가 실패하고 이듬해 죽었다. 아들 李德明이 수령의 지위를 계승하였다. 손자 李元昊가 나라를 세운 후 이계천의 諡號를 神威로, 廟號는 太祖라고 하였다.
- 5) 夏州: 北魏 太和 11년(487) 統萬鎮으로 승격되었으며, 治所는 현재의 陝西省 靖邊縣 북쪽 白城子村이다. 隋 大業 3년(607) 朔方郡으로 개칭되었으며, 唐 貞觀 2년(628) 다시 夏州로 되었다. 天寶 원년(742) 朔方郡으로 개칭하였다가 乾元 원년(758) 다시 夏州라 하였다. 唐末 이래, 党項族 탁발씨가 이곳에서 대대로 거주하면서 서하 정권을 건립하는 지역적 근거지로 되었다.
- 6) 銀州: 처음 北周 保定 3년(563)에 설치되었으며, 治所는 聰馬城이었다. 현재의 陝西省 橫山縣 동쪽 黨岔鎮의 大寨梁이다. 『元和志』 권4 〈銀州〉에는 “因穀爲名, 舊有人牧聰馬於此穀, 虜語聰馬爲乞銀”이라 되어 있다. 관할 구역은 오늘날 陝西省의 橫山·米脂·佳縣 북쪽 지역이다. 天寶 원년(742) 銀川郡으로 되었다가 乾元 원년(758) 다시 銀間으로 되었고 五代 때에는 西夏의 영역이 되었다. 北宋 元豐 4년(1081) 송이 회복하여 그다음 해에 치소를 永樂城(현재 陝西省 米脂縣 西北의 馬湖峪)으로 옮겼다. 崇寧 5년(1106)에 폐지하였다.
- 7) 綏州: 西魏 廢帝 원년(552)에 설치되었다. 治所는 安寧郡 安寧縣으로, 현재 陝西省 綏德縣 동남쪽 부근이다. 관할 구역은 현재 陝西省 綏德·清澗·子長·子洲·米脂·佳縣·吳堡 등의 현과 橫山縣 동부, 榆林市 남부 지역을 포함한다. 隋 大業 원년(605) 上州라 고쳤으며, 대업 3년(607)에 雕陰郡이라 改置하였다. 唐 武德 3년(620) 다시 綏州를 설치하였다. 이후 治所가 여러 차례 변하다가 貞觀 2년(628)에 이르러

를 거느리고 있었다. 7진(鎭)에 접경하여 동서로는 25[개의] 역참(驛站)에 이르는 거리¹⁰⁾에, 남북으로는 10여 역참의 거리에 달하였다. 아들 [이]덕명(李德明)¹¹⁾은, 불서(佛書)를 잘 알고 법률에 통달하였으며 일찍이 『태일금감결(太一金鑑訣)』과 『야전가(野戰歌)』 [같은 병서]를 보았다.¹²⁾ 번서(番書) 12권(卷)을 짓고 또한 부진(符篆)¹³⁾과 비슷한 글자를 만들었다.

처음으로 上縣(오늘날 綏德縣)으로 옮겨졌다. 당시 관할 영역이 축소되었는데, 현재 綏德·吳堡·清澗의 세 縣과 子長·子洲의 일부 지역이다. 天寶 원년(742)에 上郡으로 고쳤으며, 乾元 원년(758) 다시 綏州라 하였다. 西夏 건국 이래 서하의 영토가 되었다가 북송 仁宗 治平 4년(1067)에 宋에 점령되었다. 神宗 熙寧 2년(1069) 폐지하여 綏德城으로 하였다. 이후 서하와 북송의 영토분쟁의 핵심 지역으로 되었다. 현재 陝西省 榆林市 綏德縣이다.

- 8) 宥州: 西夏에서 설치하였으며, 治所는 오늘날 內蒙古 鄂托克前旗 동남쪽 城川鄉 古城이다.
- 9) 靜州: 西夏의 靜州는 唐代의 保靜縣이다. 현재의 寧夏回族自治區 永寧縣 일대를 관할하였다. 治所는 현재 寧夏回族自治區 永寧縣 남쪽 望洪鄉 부근이다. 『송사』 「외국전」 〈하국전〉에 따르면 靜州는 唐末 拓跋思恭이 차지하였다가 한때 포기했던 곳인데, 咸平 4년(1001)에 이르러 서하가 최종적으로 획득했던 곳이라 되어 있다. 같은 내용이 『西夏書事』 卷7에도 나와 있다.
- 10) 驛: 일반적으로 중앙과 지방 사이의 명령 전달, 관리의 使行 및 運輸를 뒷받침하기 위해 설치된 교통·통신 기관인 驛站을 지칭하는데 여기에서는 驛路의 거리를 계산하는 單位로 사용되었다. 즉 1驛은 두 驛站 사이의 路程이다. 『唐律疏議』 「職制」 〈驛使稽程〉에는 “量事緩急, 注驛數於符契上, 據此驛數, 以爲行程”이라 하였고, 明 歸有光은 〈唐行鎮免役夫記〉에서 “蘇州至松江, 由姑蘇驛過吳江之境, 凡四驛而至”라고 한 바 있다. 또한 清 顧祖禹의 『讀史方輿紀要』 「河南」 2 〈開封府〉에는 “大梁距魏, 不過十驛”이라 되어 있다.
- 11) 李德明(980~1031): 西夏 王國의 기틀을 만든 인물로 李繼遷의 아들이다. 宋이 내린 賜姓에 따라 趙德明으로 부르기도 하고, 원문 아래쪽에서는 避諱하여 德昭로 표기하였다. 小字는 阿移이며 송 眞宗 景德 원년(1004) 李繼遷이 죽은 후 왕위를 이어받았을 당시 24세였다. 대내적으로 西夏 太宗 李德明은 영토를 보전하고 백성들을 쉬도록 하여 생산을 회복하는 데 주력하였고, 대외적으로는 遼와 宋과는 가까이 하고 서쪽으로 발전시키는 데 힘을 쏟았다고 평가되고 있다. 景德 2년(1005), 遼는 그를 西平王으로 冊封하였다. 이듬해에 宋은 그에게 定難軍 節度使를 부여하고 西平王에 봉했으며, 銀 1만 兩·絹 1만 匹·錢 2만 貫·茶 2만 斤을 내려주었다. 아울러 保安軍에 榷場을 設立하도록 허락하였다. 李德明의 統治 후기는 서하의 農業經濟가 확실하게 발전한 모습을 보여준다. 서쪽으로 進兵해서는 吐蕃의 大首領 潘羅支를 죽이고 西涼府(오늘날 甘肅省 武威)를 奪取하였다. 또한 甘州(오늘날 甘肅省 張掖 북쪽) 回鶻을 공격하였으나 처음 전쟁에서는 승리하지 못했지만 그들이 宋朝와 通貢하는 道路를 막았다. 天聖 6년(1028), 아들 李元昊를 보내어 드디어 甘州 回鶻을 멸망시키고, 2년 후에는 瓜州(오늘날 甘肅省 安西 동쪽)과 沙州(오늘날 甘肅省 敦煌 동쪽)를 略取하였다. 이에 따라 西夏의 세력은 직접 玉門關에까지 이르고 河西走廊을 거머쥐게 되었다. 그는 宮室을 짓고, 館驛과 橋道를 만들었으며, 禮儀制度를 정하였다. 李繼遷을 皇帝로 追尊하고 李元昊를 皇太子로 삼았다. 그의 사후 景宗 李元昊 때에 光聖皇帝로 追諡하였고, 廟號는 太宗, 陵號는 嘉陵이다.

其俗，衣白窄衫，毳冠，冠後垂紅結綬。自號嵬名，設官分文武。其冠用金縷貼，間起雲，銀紙帖，緋衣，金塗銀帶，佩蹠躡·解錐·短刀·弓矢，穿靴，禿髮，耳重環，紫旋欄六襲。出入乘馬，張青蓋，以二旗前引，從者百餘騎。民庶衣青綠。革樂之五音爲一音，裁禮之九拜爲三拜。凡出兵先卜，有四：一灸勃焦，以艾灼羊胛骨；二擗弄，擗竹於地求數，若撲著然；三咒羊，其夜牽羊，焚香禱之，又焚穀火於野，次晨屠羊，腸胃通則吉，羊心有血則敗；四矢擊弦，聽其聲，知勝負及敵至之期。病者不用醫藥，召巫者送鬼，西夏語以巫爲「廝」也；或遷他室，謂之「閃病」。喜報仇，有喪則不伐人，負甲葉於背識之。仇解，用雞豬犬血和酒，貯於髑髏中飲之，乃誓曰：「若復報仇，穀麥不收，男女禿癩，六畜死，蛇入帳。」有力小不能復仇者，集壯婦，享以牛羊酒食，趨讎家縱火，焚其廬舍。俗曰敵女兵不祥，輒避去。訴于官，官擇舌辯氣直之人爲和斷官，聽其屈直。殺人者，納命價錢百二十千。

그 풍속은 흰색 좁은 옷을 입고, 전관(毳冠)을 썼으며, 관(冠)의 뒤에는 붉은색으로 매듭을 진 끈을 드리웠다. 스스로 외명(嵬名)이라고 부르고 문무(文武)로 나누어 관직을 두었다.¹⁴⁾ 그 관에는 금실로 짠 장식을 하였는데 중간에는 구름이 일어나는 것처럼 풍성하였고, 은종이를 써서 붙였다. 붉은 옷(緋衣)에 도금한 은 허리띠를 두르고, 접섭(蹠躡)¹⁵⁾·해추(解錐)·단도(短刀)·궁시(弓矢)를 찼다. 가축신을 신고, 독발(禿髮)을 하였으며, 귀에는 이중의 귀걸이[重環]¹⁶⁾를 하고, 자선란(紫旋欄)을 여섯 겹으로 입었다. 출입할 때에는 말을 타고,

12) 이 부분은 『宋史』 卷485 「夏國傳」 상에 따르면 이원호에 대한 설명이다. 즉 “佛學에 밝았고 번한 문자에 정통하였으며 책상 위에는 법제와 율령을 두었고 항상 『野戰歌』, 『太乙金鑑訣』을 휴대하였다”고 되어 있다(동북아역사재단 역음, 『송사외국전역주』 1, 85쪽).

13) 符篆: 보통 符號나 圖形의 형태로 天神에게 의사를 전달하는 기록을 가리킨다. 일반적으로 黃色의 종이 나 비단에 쓰는데 이를 이용하여 신을 부르거나 귀신을 쫓고, 병을 치료하거나 재해를 없애고자 하는 것이다. 본문에서는 서하의 문자가 符籍과 같이 생겼다는 것을 의미한다.

14) 『송사』 〈하국전〉 상에 따르면 이원호는 “스스로 嵬名 吾祖라고 불렀다. 대체로 6일, 9일에는 官屬을 접견하였고, 그 관원은 文武班으로 나누었다”고 되어 있다(동북아역사재단 역음, 『송사외국전역주』 1, 87쪽).

15) 蹠躡: 허리띠 위에 차서 장식하는 물건. 宋 司馬光 『涑水記聞』 卷9에 “元昊 遣使戴金冠, 衣緋, 佩蹠躡, 奉表納旌節告敕”이라 하였고, 宋 張樞 〈調金門〉 詞에는 “重整金泥蹠躡, 紅皺石榴裙褶”이라 하였다.

청개(靑蓋)¹⁷를 펼치면서, 앞에서는 두 개의 깃발로 인도하고 백여 기(騎)가 그 뒤를 따랐다. 일반 백성들은 청록색 옷을 입었다. 악(樂)의 5음(音)을 1음으로 바꾸고, 예(禮)에서는 9배(拜)를 3배로 바꾸었다. 대개 출병(出兵)하기에 앞서 짐을 쳤는데 네 가지 방법이 있었다. 첫째 자발초(灸勃焦)로써 양(羊)의 어깨뼈를 태우는 것이다. 두 번째는 벽룡(擗弄)인데 대나무를 땅에다 두드려서 운세를 보는 것으로 설시(揲蓍)¹⁸하는 것과 같은 방법이다. 세 번째는 주양(咒羊)으로 밤에 양을 끌어와서 향을 태우며 빌었다. 그 한편으로 들에서 곡식을 불태운 다음 이튿날 새벽에 양을 도살하여 위장이 통하면 길하고, 양의 심장에 피가 있으면 [전쟁에서] 패배한다고 보았다. 네 번째는 시격현(矢擊弦)으로 화살로 줄을 치고 그 소리를 듣고서 승패의 여부나 적(敵)이 도달하는 시간을 알아보는 것이다. 병이 들어도 의약(醫藥)을 쓰지 않고, 무자(巫者)를 불러서 귀신을 내쫓았는데 서하 말에는 무(巫)을 ‘시(厮)’라고 하였다. 때로는 병자를 다른 방에 옮겨놓았는데 그것을 ‘섬병(閃病)’이라고 하였다. 원수 갚는 것을 좋아했지만, 상(喪)을 당하면 다른 사람을 공격하지 않았다. 등 뒤에 갑엽(甲葉)¹⁹을 저서 식별하도록 하였다. 원수와 화해하면 닭이나 돼지, 개의 피를 술과 섞어 해골[髑髏]²⁰ 속에

16) 重環: 雙環, 즉 이중으로 된 반자나 귀걸이를 뜻한다. 『詩經』「齊風」〈盧令〉에는 “盧重環, 其人美且鬻”이라 하였고, 이에 대한 毛傳에는 “重環, 子母環也”, 또한 高亨의 注에는 “重環, 兩個環, 一個大環套在犬的脖子上, 一個小環聯在大環上, 牽犬的繩子繫在小環上”이라 하였는데 子母環이란 大環 가운데에 小環이 있어서 이르는 말이다.

17) 靑蓋: 첫째, 靑色의 수레 덮개를 뜻한다. 漢의 제도에서는 皇太子와 皇子가 사용하였다. 『後漢書』「輿服志」上에는 “皇太子, 皇子皆安車, 朱班輪, 靑蓋”라고 하였다. 두 번째, 帝王을 뜻한다. 漢 阮瑀의 〈琴歌〉에서 “靑蓋巡九州, 在東西人怨”이라고 한 데서 알 수 있다. 세 번째, 宋의 제도에서는 宰相의 儀仗에 靑色 傘蓋를 펼쳤다. 宋 蘇軾의 〈召還至都門先寄子由〉라는 詩에는 “已飛靑蓋在河梁, 定餉黃封兼賜名”이라 하였다. 이 외에도 특별히 荷葉을 지칭하기도 하는데 宋 范成大的 〈新津道中〉이라는 詩에 “曲沼擎靑蓋, 新畦藝綠針”이라고 하였다. 여기에서는 풍속이라고 되어 있지만 『송사』〈하국전〉 상에 따르면 李元昊가 황제가 되려고 했기 때문에 황태자와 황자들이 썼던 靑蓋를 사용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18) 揲蓍: 揲蓍草라고도 하는데 蓍草 짐을 보는 것으로써 古代에 점치는 방법의 하나다. 『關尹子』「八籌」에는 “古之善揲蓍灼龜者, 能於今中示古, 古中示今”이라 하였고 元代 鄭光祖의 「倩女離魂」 第一折에는 “從今後只合題恨寫芭蕉, 不索占夢揲蓍草”라고 적고 있다.

19) 甲葉: 甲割 혹은 甲紮이라고도 한다. 鎧甲 위의 葉片을 뜻한다. 『宋史』「兵志」 11에는 “若甲葉——依元領分兩, 如重輕差殊, 卽棄不用, 虛費工材”라 하였고 『金史』「字術魯阿魯罕傳」에는 “軍人有以甲葉貿易諸物……皆一切禁絕之”라는 용례가 보인다.

20) 髑髏: 頭骨. 일반적으로 죽은 사람의 骸骨을 지칭한다. 唐 杜甫의 「戲作花卿歌」에는 “子璋髑髏血模糊, 手提擲還崔大夫”라는 구절이 있고, 魯迅의 『故事新編』〈起死〉에서는 “阿呀! 一個髑髏. 這是怎的?”이라

넣어 마셨다. 그리고 나서 맹세하기를, “만약 다시 원수를 갚는다면 곡식을 수확할 수 없으며, 남녀가 모두 대머리나 병신이 되고, 가족들이 사망할 것이며 뱀이 집안으로 들어올 것이다”라고 하였다. 힘이 없어 원수를 갚지 못하는 사람은 씩씩한 부녀를 모아서 소와 양, 술과 음식을 대접하여 원수의 집에 쫓아가서 불을 지르고 그 집을 태워버리게 하였다. 속설에는 여자 병사와 적이 되는 것은 상스럽지 못하다 하여 번번이 피해버리곤 하였다. 관부에 고소하면 관부에서는 말을 잘하고 기개가 곧은 사람을 뽑아서 화단(和斷)²¹⁾하는 관리로 삼아서 그 곡절을 판단하도록 하였다. 살인자는 12만 전(錢)에 해당하는 값어치를 납부해야 하였다.

土產大麥·藜豆·青稞·床子·古子蔓·鹹地蓬實·菘蓉苗·小蕪蕒·席雞草子·地黃葉·
登廂草·沙蔥·野韭·拒灰蓀·白蒿·鹹地松實。

토산품으로는 보리[大麥]·필두(藜豆)·청과(青稞)²²⁾·화자(床子)·고자만(古子蔓)·함지붕실(鹹地蓬實)·충용묘(菘蓉苗)·소무이(小蕪蕒)·석계초자(席雞草子)·지황엽(地黃葉)·등상초(登廂草)·사총(沙蔥)·야구(野韭)·거회조(拒灰蓀)·백호(白蒿)·함지송실(鹹地松實)이 있다.

民年十五爲丁。有二丁者，取一爲正軍。負提雜使一人爲抄，四丁爲兩抄。餘人得射它丁，皆習戰鬪。正軍馬駝各一，每家自置一帳。團練使上，帳·弓·矢各一，馬五百疋，橐駝一，旗鼓五，槍·劍·棍棒·抄袋·雨氈·渾脫·鍬·鑊·箭牌·鐵笊籬各一；刺史以下，人各一駝，箭三百，毛幕一；餘兵三人共一幕。有炮手二百人，號「潑喜」。勇健者

고 하였다.

21) 和斷: 公斷 혹은 裁決, 즉 재량하여 결단하거나 裁斷하는 것을 의미한다. 『宋史』〈范仲淹傳〉에는 “若讎已和斷, 輒私報之及傷人者, 罰羊百, 馬二, 已殺者斬”이라 하였다.

22) 青稞: 青稞麥, 혹은 그것의 낱알을 가리킨다. 『清史稿』「德宗紀」1에는 “賞附居青海番衆八族青稞歲八百餘石”이라는 기록이 있다. 青稞麥은 보리의 일종으로, 낱알이 크고 껍질이 얇으며 찌꺼기가 적게 나온다. 주요 산지는 西藏·青海 등으로 그곳의 주요 식량이고 술을 담글 수도 있다. 北魏 賈思勰의 『齊民要術』「大小麥」에는 “青稞麥與大麥同時熟, 堪作飯及餅飢, 甚美. 磨, 總盡無麩”라 하였다.

號「撞令郎」. 齋糧不過一旬. 晝則舉煙·揚塵, 夜則篝火爲候. 若獲人馬, 射之, 號曰殺鬼招魂. 或射草縛人. 出軍用單日, 避晦日. 多立虛寨, 設伏兵. 衣重甲, 乘善馬, 以鐵騎爲前鋒, 用鈎索絞聯, 雖死馬上不落.

백성들의 나이가 15[세]가 되면 정(丁)이 된다. 정이 둘 있으면 하나를 골라 뽑아서 정군(正軍)으로 삼는다. [군대의] 잡역을 부담하는 사람을 초(抄)라고 하는데 4정 가운데 2초가 있다. 나머지 사람은 기타의 정역(丁役)을 담당하는데 모두 전투훈련을 해야 한다.²³⁾ 정군에게는 낙타(馬駝) 각 1마리가 있고, 1가(家)마다 1장(帳)²⁴⁾을 직접 둔다. 단련사(團練使)²⁵⁾ 이상에게는 군막·활·화살 각각 한 세트, 말 500필, 낙타(橐駝) 1마리, 깃발과 북 다섯, 창(槍)·검(劍)·곤봉(棍棒, 몽둥이)·사대(紗袋)·우전(雨氈)²⁶⁾·혼탈(渾脫)²⁷⁾·초(鍬, 가래)·괘(鑊, 팽

23) 餘人得射它丁, 皆習戰鬪: 『송사』〈하국전〉 하에는 이 부분과 관련하여 “民 1家を 1帳이라 부르며, 남자가 나이 15세가 되면 丁이라 하는데, 대개 2丁에서 正軍 1인이 나온다. 매 정군 1인을 부양하는 것을 1抄라 한다. 부양하는 자는 군대에 따라다니는 雜役이다. 매 4丁이 2抄가 되며 그 나머지는 空丁이라 칭한다. 正軍에 소속되기를 원하는 자는 다른 丁을 구해 부담시킬 수 있어야 하며, 없다면 정군 중에 피로하고 약한 자를 충당하는 것을 허락한다. 따라서 젊은 사람들은 모두 전투를 익혀서 정군으로 되는 경우가 많다”라고 서술되어 있다(동북아역사재단 역음, 『송사외국전역주』 1, 197쪽). 『遼史』「校勘記」에도 『송사』의 기술이 옳다고 하였다.

24) 帳: 유목민의 집이나 軍幕, 혹은 천막이나 휘장을 가리킨다.

25) 團練使: 唐에서 元代까지 설치되었던 地方 軍事長官이다. 唐代 團練使의 全稱은 團練守捉使로 都團練使와 州團練使 두 종류가 있었다. 唐朝 都團練使와 州團練使는 원래 方鎮 혹은 한 개 州의 軍事를 담당하는 것이었으나 觀察使가 都團練使를 겸임하기도 하였고 刺史가 州團練使를 겸임하기도 하여 실제로는 하나의 方鎮 혹은 州의 軍政長官이었다. 都團練使는 節度使 혹은 都防禦使와 관장 임무는 서로 같은 것이었다(州團練使는 州防禦使와 同一). 그 구별은 地位의 高低와 遷轉의 先後, 俸錢의 多少 및 旌節을 수여하는가의 여부였다. 따라서 節度使와 都防禦使가 설치된 곳에는 都團練使를 두지 않았다. 또한 州防禦使가 설치된 곳에도 州團練使를 두지 않았다. 宋은 諸州의 團練使를 武臣의 寄祿官으로 삼아 定員과 職掌이 없었고 本州에 거주하지 않도록 하였다. 遼는 南面 各州에 團練使司를 두어 團練使가 한 州의 軍政을 담당하게 하였다. 元末에 농민반란을 진압하는 데 團練安撫使를 두기도 하였는데 明代에는 폐지하였다.

26) 雨氈: 비를 막기 위해 털로 짠 모직물. 『元史』「世祖紀」13에는 “播州安撫使楊漢英進雨氈千”이라는 기사가 있다.

27) 渾脫: 원래 北方民族 사이에서 유행하던 동물의 가죽으로 만든 주머니 혹은 부대를 가리킨다. 음료를 담거나 공기를 넣어 강을 건너는 데 사용하였던 용기이다. 宋 蘇轍의 〈請戶部夏三司諸案劄子〉에는

이)·전패(箭牌)·철조리(鐵箠籬) 각각 하나씩이 있고,²⁸⁾ 자사(刺史)²⁹⁾ 이하는 사람마다 낙타 1마리, 화살 300개, 모막(毛幕) 하나가 있으며, 나머지 병사들은 3명이 하나의 군막을 함께 쓴다. 포수(炮手) 200명이 있었는데 ‘발희(撥喜)³⁰⁾’라고 불렀다. 용감하고 건장한 자는 ‘당령랑(撞令郎)’이라고 불렀다. [전투에 나설 때] 휴대하는 식량은 열흘치를 넘지 않았다. 낮에는 연기를 피우거나 먼지를 날렸고, 밤에는 불을 피워서 신호로 삼았다. 만약 [적의] 사람이나 말을 포획하면 쏘아 죽이면서 귀신을 죽이고 혼을 부른다고 말하였다. 혹은 풀로 묶인 사람을 쓰기도 하였다. 군대의 출동은 매월의 초순에 하였고 그믐날은 피하였다. 가짜 성채를 많이 세워서 복병을 두기도 하였다. 중무장을 하고 말 타는 것을 좋아했는데 철기(鐵騎)를 선봉으로 삼고 새끼줄을 갈고리에 걸어서 서로 연결시켜서 비록 죽어도 말 위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하였다.

其民俗勇悍，衣冠·騎乘·土產品物·子姓傳國，亦略知其大概耳。

서하 백성들은 용감하고 사나웠으며, 의관·승마·토산물품·자성(子姓)이 나라에 전해졌

“訪聞河北道頃歲爲羊渾脫，動以千計。渾脫之用，必軍行乏水，過渡無船，然後須之”라고 하였고, 『續資治通鑑』〈宋 神宗 元豐 4년〉조에는 “其濟渡之備，軍中自有過索·渾脫之類”라고 되어 있다.

- 28) 團練使上, 帳·弓·矢各一, 馬五百疋, 橐駝一, 旗鼓五, 槍·劍·棍棒·紗袋·雨氈·渾脫·鍬·鑿·箭牌·鐵箠籬各一: 『송사』〈하국전〉 하에는 이 부분이 “團練使 이상에게는 帳 하나, 弓 하나, 箭 5백, 말 한 필, 橐駝 다섯 마리, 旗·鼓·槍·劍·棍棒·紗袋·披氈·渾脫·背索·鍬鑿·斤斧·箭牌·鐵箠籬가 각각 하나씩 지급된다”라고 되어 있다(동북아역사재단 역음, 『송사외국전역주』 1, 197쪽). 상식적으로 말 5백 필이라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遼史』 「校勘記」에서도 『송사』의 기술이 옳다고 하였다.
- 29) 刺史: 漢代 武帝 元封 5년(전106)에 처음으로 두었으며 ‘刺’는 일에 대해 그 핵심을 검사한다는 의미이다. 원래 郡·國을 감독하기 위하여 각 州에 둔 검찰관이었다. 행정장관이 아니므로 정해진 위치 없이 항상 관내를 이동하였다. 처음에는 직위가 郡의 太守보다 낮았으나 점차 지위가 높아져 한 州의 장관으로서 군사·민정을 관장하는 軍閥로 발전하였다. 唐·宋을 거쳐 明代에 폐지되었으나, 후에 地主의 존칭으로 쓰였다.
- 30) 撥喜: 西夏 炮兵의 호칭이다. 炮兵은 步兵, 騎兵, 炮兵의 3軍 중에서 인원수가 가장 적다. 西夏는 宋·遼 양국의 炮兵과 비교해서 수와 질적인 측면에서 가장 많이 낙후되었다. 西夏의 炮兵은 화약류 폭탄을 사용하지 않았으며, 겨우 돌덩이를 던지는 수준이었다. 다만 西夏의 炮兵은 낙타를 탄 기병이 던졌기 때문에 보병이 던졌던 송·요에 비해 기동성의 장점을 가지고 있었다.

다. 이렇게 그 대강을 알 수 있다.

初, 西夏臣宋有年, 賜姓曰趙; 迨遼聖宗統和四年, 繼遷叛宋, 始來附遼, 授特進檢校太師·都督夏州諸軍事, 遂復姓李. 十月, 遣使來貢. 六年, 入貢. 七年, 來貢, 以王子帳耶律襄之女封義成公主, 下嫁繼遷. 八年正月, 來謝. 三月, 又來貢. 九月, 繼遷遣使獻宋俘. 十月, 以敗宋軍來告. 十二月, 下宋麟·鄜等州, 來告, 遣使封繼遷爲夏國王. 九年二月, 遣使告伐宋之捷. 四月, 遣李知白來謝封冊. 七月, 復綏·銀二州, 來告. 十月, 繼遷以宋所授敕命, 遣使來上. 是月, 定難軍節度使李繼捧來附, 授開府儀同三司·檢校太師, 兼侍中, 封西平王, 仍賜推忠效順啟聖定難功臣. 十二月, 繼遷潛附于宋, 遣韓德威持詔諭之. 十年二月, 韓德威還, 奏繼遷托故不出, 至靈州俘掠以還. 西夏遣來奏德威俘掠, 賜招撫諭. 十月, 來貢.

▲ 애초에 서하가 송에게 신하로 복종하고 몇 년 지나서 조(趙)씨 성을 하사받았다. 요(遼) 성종(聖宗)³¹ 통화(統和) 4년(986), 이계천이 송에 반항한 이후로 요에 가깝게 지내기 시작하여 특진(特進)³² 검교(檢校)³³ 태사(太師)³⁴·도독(都督) 하주제군사(夏州諸軍事)를 수여

31) 聖宗(耶律隆緒, 971~1031; 재위 982~1031): 遼의 제6대 황제. 제5대 景宗의 맏아들로 12세에 즉위하여, 어머니 承天皇后의 攝政 하에 국력의 충실을 도모하였다. 治世 50년 동안에 요는 정치조직과 군사조직이 정비되어 굳건한 중앙집권 체제를 확립하였다고 평가되고 있다. 이러한 국력에 힘입어 성종은 동으로는 定安國을 치고, 서로는 티베트계의 탕구트[西夏] 및 西域의 위구르 등 여러 나라를 朝貢하게 하였다. 또 그 무렵, 중국을 통일한 宋에 대해서도 공세를 취하여 黃河의 北岸까지 원정군을 진군시켰다. 그 때문에 요와 송 양군은 澶州에서 황하를 사이에 두고 대치하였으나, 결국 統和 22년(1004)에 澶淵의 盟約을 맺고 화해하였다. 그 뒤로 요와 송의 관계도 평화로워져서 양국 사이에는 사절의 교환과 무역이 활발해졌다. 이에 따라 요는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으로 크게 발전하여, 성종의 뒤를 이은 興宗(재위 1031~1055), 道宗(재위 1055~1101)의 3대를 통한 약 120년 동안 전성기를 구가하였다. 시호는 文武大孝宣皇帝이다.

32) 特進: 官名. 前漢 말부터 두기 시작하였는데 列侯 중 특수한 지위의 사람에게 수여하였고 지위는三公의 아래에 있었다. 後漢에서 南北朝 시기에는 加官이었고 實職은 없었다. 隋에서는 文散官의 명칭이 되었고 開府儀同三司의 위에 있었으나 唐宋 대에는 正二品으로 開府儀同三司의 아래에 두었다. 金元 시기에는 開府儀同三司, 儀同三司의 아래였지만 官品은 같아서 金은 從一品, 元은 正一品이었다. 明에서는 特進光祿大夫가 文散官의 최고 官階였는데 特進이라는 관명을 단독으로 쓰지는 않았다. 淸 대에는

하고 이씨 성을 회복하였다. 10월에는 사신을 보내어 공물을 바쳤다. [통화] 6년(988) 입공하였다. [통화] 7년(989)에 [이계천이] 와서 공물을 바치자 왕자장(王子帳) [절도사인] 야율양(耶律襄)³⁵의 딸을 의성공주(義成公主)³⁶에 책봉한 다음 [이]계천에게 시집보냈다. [통화] 8년(990) 정월에 와서 감사를 표했고, 3월에는 다시 입공하였다. 9월에 [이]계천은 사신을 보내어 송의 포로를 바쳤다. 10월, 송의 군대를 패배시켰다고 보고하였다. 12월, 송의 인주(麟州)³⁷와 부주(鄜州)³⁸를 함락시켰다고 보고하자, [요에서는] 사신을 보내어 [이]계천을 하국왕(夏國王)으로 책봉하였다. [통화] 9년(991) 2월, 사신을 보내어 송을 정벌하여 승리하였고 보고하였다. 4월, 이지백(李知白)을 파견하여 책봉에 감사하였다.³⁹ 7월, 수주(綏州)와

폐지되었다.

33) 檢校: 사실을 조사한다는 뜻으로 檢校官이란 官員에 대해 尊崇을 표시하기 위한 虛銜(실제 직무가 없는 官銜)이었다. 檢校官 제도가 최초로 출현한 東晉 시기에는 職事官이었으나 唐 玄宗 이후 虛銜이 되어 지방의 使職에 三公·三師 및 臺省官 등을 檢校官으로 수여하게 되었다. 이때의 檢校官은 官職의 이력을 표시하고 아울러 해당관원에 대한 존중을 의미하는 성격을 띠었다. 송대에는 唐 후기의 제도를 이어서 宋에서는 太師, 太尉에서 國子祭酒 등까지 19等に 모두 檢校의 官을 더하여 散官으로 삼아서 正職과 並存시켰다. 그러다가 神宗의 元豐 改制 이후 檢校太尉·司徒·司寇의 6階를 남기고 나머지 13階는 모두 없었다.

34) 太師: 고대 三公 중에 가장 높았던 관직. 西周에서 國君을 보필하는 역할을 하였다. 秦에서는 폐지되었다가 漢代에 다시 두었다. 후대에는 대개 重臣에 대한 加銜으로써 최고의 영예였으나 實職은 없었다. 한편 太子를 가르치는 太子太師를 지칭하기도 한다.

35) 『요사』의 본문에는 ‘王子帳耶律襄’이라 되어 있는데, 『資治通鑑後編』 卷12에는 ‘李繼遷乞昏於契丹, 契丹以王子帳節度使耶律襄女, 封義成公主, 歸之’(「宋紀」 12 太宗 雍熙 3년 12월)라 적고 있다.

36) 義成公主: 이름은 耶律汀. 王子 耶律襄의 딸로 義成公主에 봉해져 遼 聖宗 統和 7년(989) 西夏 太祖 李繼遷에게 下嫁하였다.

37) 麟州: 唐 開元 12년(724)에 설치되었으며, 治所는 新秦縣으로 현재의 陝西省 神木縣 북쪽 10리에 위치하고 있다. 開元 14년(726)에 폐지되었다가 天寶 원년(742) 다시 新秦郡으로 되었으며, 乾元 원년(758) 麟州로 바뀌었다. 관할 영역은 현재의 陝西省 神木縣 지역이다. 五代 後周 때 小堡로 치소가 옮겨졌으며, 北宋 乾德 원년(963) 때 치소가 吳兒堡(오늘날 神木縣 서북 楊家城)로 옮겨졌다. 金 皇統 8년(1148)에 西夏에 편입되어 폐지되었다.

38) 鄜州: 혹은 敷州라고도 하며 오늘날 陝西省 富縣이다. 西魏 廢帝 3년(554)에 北華州를 바꾸어 설치하였고, 治所는 杏城(현재 陝西省 黃陵縣 서남쪽 5리)이었다. 隋 大業 3년(607)에 치소를 洛交縣(현재 陝西省 富縣)으로 옮기고 鄜城郡이라 하였다. 唐 武德 원년(618)에는 鄜州라 하고 여전히 洛交縣을 포함하였다. 관할 영역은 오늘날 陝西省 富縣·甘泉·洛川 등의 縣 지구였다. 天寶 원년(742)에 洛交郡으로 바꾸었다가 乾元 원년(758)에 다시 鄜州라고 하였다.

39) 遣李知白來謝封冊: 李知白은 『遼史』 卷13 「聖宗本紀」 4 〈通和 9년 4월 甲戌〉조에는 杜白으로 되어

은주(銀州)를 수복하였다고 보고하였다. 10월, [이]계천은 송에서 받은 칙명을 가지고 사신을 보내어 올렸다. 같은 달에, 정난군(定難軍)⁴⁰ 절도사(節度使)⁴¹ 이계봉(李繼捧)⁴²이 내부(來附)하여, 개부의동삼사(開府儀同三司)·검교태사(檢校太師) 및 시중(侍中)을 제수하고 서평왕에 책봉하였다. 거듭 추충효순계성정난공신(推忠效順啟聖定難功臣)이라는 칭호를 내렸다. 12월, [이]계천이 몰래 송에 붙자 한덕위(韓德威)에게 조서를 갖고 가서 회유시키도록 하였다. [통화] 10년(992) 2월, 한덕위가 돌아와서 [이]계천이 핑계를 대고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영주(靈州)⁴³에 가서 노략질하고 돌아왔다고 상주하였다. 서하는 [사신을] 보내어

있다.

- 40) 定難軍: 唐·五代의 方鎮名. 唐 中和 2년(882)에 夏·綏·銀 節度使를 定難軍으로 칭하였고 治所는 夏州(오늘날 陝西省 靖邊縣 북쪽 白城子)였다. 관할 지역은 변화가 많았는데, 장기적으로 夏·綏·銀·宥 등 4州 지역으로 오늘날 陝西長城·淸澗河 이북·尙尾河 이남 및 內蒙古 伊克昭盟 南部에 해당한다. 당 말부터 党項族 拓跋思恭 및 그 子孫이 차지하였고 북송 때 西夏를 세웠다.
- 41) 定難軍節度使: 夏綏節度使라고도 칭한다. 원래 唐朝가 오늘날 西北 지구에 설치했던 節度使였다. 당 僖宗 中和 원년(881) 党項 首領 拓跋思恭이 이 지역에서 할거하여 西夏 왕조의 前身이 되었다. 定難軍 拓跋思恭이 唐朝를 도와서 黃巢의 난을 진압했을 때 定難軍節度使로 봉해지고 李氏 姓을 받아서 대대로 定難軍을 영유하는 기초가 되었다. 宋初에 李繼遷이 起兵하여 宋에 반기를 들고 宋朝에서 독립하고, 遼를 향해 구원을 청하였다. 李繼遷의 孫子 李元昊는 稱帝하였다. 歷代 定難節度使는 韓潭(787~798)·韓全義(798~805)·楊惠琳(805~806)·李演(806~810)·張煦(810~813)·田進(816~824)·李祐(824~826)·傅良弼(826~828)·李寶(828~?)·米暨(846~851)·李福(851~?)·諸葛爽(880~881)·李思恭(881~895)·李思諫(895~908)·李彝昌(908~909)·李仁福(909~933)·李彝超(933~935)·李彝殷(935~967)·李光睿(967~978)·李繼筠(978~980)·李繼捧(980~982)·李繼遷(982~1004)·李德明(1004~1032)·李元昊(1032~1038) 등이었다. 또한 관할 구역은 夏州(治所는 오늘날 陝西省 靖邊 북쪽)·宥州(治所는 오늘날 內蒙古自治區 鄂托克旗)·銀州(治所는 오늘날 陝西省 榆林)·綏州(治所는 오늘날 陝西省 綏德)·靜州(治所는 오늘날 陝西省 米脂) 등이었다.
- 42) 李繼捧(962~1004): 趙保忠이라고도 한다. 宋朝 초기 党項族의 首領이자 定難 節度使였던 李光睿의 아들이다. 太平興國 5년(980), 당시 定難 節度使이자 李繼捧의 형인 李繼筠이 죽자 嗣位하여 留後로 自立하였다. 宋 太宗은 그에게 定難軍 節度使를 수여하였다. 太平興國 7년(982), 李繼捧은 자신의 나이가 어리고 아랫사람들이 복종하지 않자 東京 開封府에 朝覲할 것을 주동하였다. 이는 世襲的으로 割據하지 않겠다는 의미였다. 宋 太宗은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彰德軍 節度使와 重賞을 내렸다. 그 후에 李繼捧의 族弟였던 李繼遷이 反宋하자 宋 太宗은 趙普의 제안에 따라 李繼捧을 다시 定難 節度使로 임명하고 趙保忠이라는 성명을 내려주었다. 이후에 이계봉이 李繼遷과 사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혐의가 있어 宋 太宗은 그를 免官시키고 宥罪侯에 봉하며 京師에 거처를 주고 후에 右金吾衛上將軍으로 옮겨주었다. 景德 원년(1004), 宋 眞宗은 永州 別駕를 수여하고 監軍에게 감시하도록 하였다. 그가 얼마 안 있어 죽자 威塞軍 節度使를 追贈하였다.

와 [한]덕위가 노략질한 것을 아뢰니, 안무하고 타이르라는 조서를 내렸다. 10월에 와서 공물을 바쳤다.

十二年，入貢。十三年，敗宋師，遣使來告。十四年，又來貢。十五年三月，以破宋兵來告，封繼遷爲西平王。六月，遣使來謝封冊。十六年，來貢。十八年，授繼遷子德明朔方軍節度使。十九年，遣李文冀來貢。六月，奏下宋恒·環·慶三州，賜詔褒美。二十年，遣使來進馬·駝。六月，遣劉仁勗來告下靈州。

[통화] 12년(994), [요에] 입공하였다. 13년(995)에는 송의 군대를 패배시키고 나서 사신을 보내어 보고하였다. [통화] 14년(996) 다시 와서 공물을 바쳤다. [통화] 15년(997) 3월에 송의 군대를 패배시켰다고 와서 보고하여 [이]계천을 서평왕으로 책봉하였다. 6월에는 [이계천이] 사신을 보내서 책봉에 대해 사례하였다. [통화] 16년(998), 와서 공물을 바쳤다. [통화] 18년(1000), [이]계천의 아들 [이]덕명에게 삭방군(朔方軍)⁴⁴ 절도사를 수여하였다. [통화] 19년(1001), 이문기(李文冀)를 보내어 공물을 바쳤다.⁴⁵ 6월, [이계천이] 송의 항(恒)⁴⁶·환

43) 靈州: 北魏 孝昌 연간(525~527)에 설치되었으며, 治所는 舊薄骨律鎮으로 오늘날 寧夏回族自治區 吳忠市 북쪽이다. 北周에서는 回樂縣을 설치하였으며, 州治로 되었다. 隋 大業 3년(607) 다시 靈武郡으로 하였다가 唐 武德 원년(618) 다시 靈州로 하였다. 관할 구역은 현재 寧夏回族自治區의 中衛·中寧 두 현의 북쪽 지역이다. 開元 연간(713~741) 후에 朔方節度使가 다스리는 곳으로 되었다. 天寶 원년(742) 다시 靈武郡으로 되었다가 乾元 원년(758) 다시 靈州로 되었다. 11세기 무렵 西夏에 속했으며, 西平府로 이름을 바꾸었다.

44) 朔方: 唐代 중요한 方鎮 가운데 하나로서 靈鹽·靈武·靈州라고도 부른다. 唐 開元 9년(721)에 설치되었으며, 현종 시기의 邊防 十節度使 가운데 하나로 손꼽힌다. 治所는 현재 寧夏回族自治區 吳忠市 북부에 위치했던 靈州이다. 『舊唐書』 「地理志」에 삭방절도사는 北狄을 방어하며 7개의 군부를 관할한다고 기록되어 있다(“朔方節度使, 捍御北狄, 統經略·韋安·定遠·西受降城·東受降城·安北都護·振武等七軍府.”). 처음에는 관할하는 범위가 매우 넓었으나 점차 축소되어 후에는 주로 지금의 寧夏回族自治區 일대로 제한되었다. 光啓 3년(887) 이후에는 韓遵과 韓遜 세력이 할거했으며, 五代 後唐 天成 4년(929) 이후 후당에 병합되었다.

45) 遣李文冀來貢: 여기에서 ‘文冀’는 『遼史』 卷14 「聖宗本紀」 5 〈統和 19년 3월〉조에 ‘文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맞다. 『宋史』 卷485 「夏國傳」에도 李文貴는 일찍이 송에 사신으로 갔다가 구류되어 있다가 서하에 돌아간 후 또 송에 사신으로 갔던 것으로 되어 있다. 즉 “경력 2년(1042), [방]적에게 [이원호를]

(環)⁴⁷·경(慶)⁴⁸ 3주(州)를 함락시켰다고 보고하여 잘하였다고 칭찬하는 조서를 내렸다. [통화] 20년(1002), 사신을 보내어 말과 낙타를 진상하였다. 6월, 유인욱(劉仁勗)을 보내어 영주(靈州)를 함락시켰다고 보고하였다.

二十一年，繼遷薨，其子德昭遣使來告。六月，贈繼遷尚書令，遣西上閣門使丁振弔慰。八月，德昭遣使來謝弔贈。二十二年三月，德昭遣使上繼遷遺留物。七月，封德昭爲西平王。十月，遣使來謝封冊。二十三年，下宋青城，來告。二十五年，德昭母薨，遣使弔祭，起復。二十七年，承天皇太后崩，遣使報哀于夏。二十八年，遣使冊德昭爲夏國王。開泰元年，德昭遣使進良馬。二年，遣引進使李延弘賜夏國王李德昭及義成公主車馬。太平元年，來貢。十一年，聖宗崩，報哀于夏，德昭遣使來進賻幣。

[통화] 21년(1003), [이]계천이 죽고, 그 아들 [이]덕소(李德昭, 즉 李德明)가 사신을 보내어 보고하였다. 6월, [이]계천을 상서령(尙書令)으로 추증하고, 서상합문사(西上閣門使) 정진(丁

불러들이라는 조서를 내리니 [방]직은 [이]문귀를 불러들여 [화의를 설득시킨 후에 이원호에게] 돌려보냈다. 한 달여가 지나서 [이]원호는 [이]문귀와 왕승에게 그 신하 [야리]왕영(野利旺榮), 그 동생 [야리]왕령(野利旺令)과 외명양(嵬名穰), 와예쟁(臥譽諍) [등] 세 사람의 서신을 가지고 화의를 논의하라고 시켰다”(동북아역사재단 역음, 『송사외국전역주』 1, 106쪽).

- 46) 恒州: 西魏 大統 원년(535)에 설치하였는데 治所는 歸德縣(오늘날 甘肅省 環縣 북쪽 백리에 있는 歸德堡)이었다. 혹은 陝西省 吳旗縣 서북쪽이라고도 한다. 관할 지역은 현재 甘肅省 環縣 북부의 지역이었다.
- 47) 環州: 五代 시기 後周 廣順 2년(952)에 威州를 고쳐 환주를 두었다. 治所는 通遠縣(오늘날 甘肅省 環縣)이다. 『輿地廣記』 卷14 <環州>조에는 “以大河環曲爲名”이라 되어 있다. 관할 영역은 오늘날 甘肅省 環縣 및 慶陽縣 서북부이다. 後周 顯德 4년(957) 通遠軍으로 강등되었다가 北宋 淳化 5년(994) 다시 環州로 승격되었다. 元代에는 鞏昌路에 속했으며, 明 洪武 연간(1368~1398) 초에 環縣으로 강등되었다.
- 48) 慶州: 隋 開皇 16년(596)에 두었고. 治所는 合水縣(唐代에 安化라 改名, 오늘날 甘肅省 慶陽縣)이었다. 『元和志』 卷3 <慶州>조에는 “(隋)割寧州好德縣置慶州, 立嘉名也”라고 하였는데 관할 영역은 현재 甘肅省 西峰·慶陽·環縣·合水·華池 등의 市縣 및 陝西省 志丹縣 서부이다. 大業 3년(607)에 弘德郡으로 바꾸었다가 唐 武德 원년(618) 다시 慶州라고 하였다. 天寶 원년(742)에 安化郡으로 바꾸고, 至德 원년(756)에는 順化郡으로 바꾸었다가 乾元 원년(758)에 다시 慶州라고 하였다. 北宋代에는 관할 영역이 축소되어 현재 慶陽·西峰·合水·華池 등 市縣 지역이었다. 慶曆 원년(1041) 이후에 環慶路에 속하였는데 宣和 7년(1125)에는 慶陽府로 바꾸었다.

振)을 보내어 조문하고 위로하도록 하였다. 8월, [이]덕소는 사신을 보내어 조문과 추증한데 대해 감사를 표하였다. [통화] 22년(1004) 3월, [이]덕소는 사신을 보내어 [이]계천이 남긴 유품을 헌상하였다. 7월, [이]덕소를 서평왕으로 책봉하였다. 10월, [서하에서는] 사신을 보내어 책봉에 감사하였다. [통화] 23년(1005) 송의 청성(靑城)을 함락시켰다고 보고하였다. [통화] 25년(1007), [이]덕소의 모친이 죽자 사신을 파견하여 조제(弔祭)를 보내고 기복(起復)해주었다. [통화] 27년(1009), 승천황태후(承天皇太后)⁴⁹가 붕어하자 [서하에] 사신을 보내어 상을 알렸다. [통화] 28년, 사신을 파견하여 [이]덕소를 하국왕으로 책봉하였다. [성종] 개태(開泰) 원년(1012), [이]덕소는 사신을 보내어 좋은 말을 진상하였다. [개태] 2년(1013), 인진사(引進使) 이연홍(李延弘)을 파견하여 하국왕 이덕소 및 의성공주에게 거마(車馬)를 하사하였다. 태평(太平) 원년(1021), 내공하였다. [태평] 11년(1031), 성종이 붕어하자 [서]하에 상(喪)을 알렸고, [이]덕소는 사신을 보내와 부의 예물[賻幣]을 헌상하였다.

興宗即位，以興平公主下嫁李元昊，以元昊爲駙馬都尉。重熙元年，夏國遣使來賀。李德昭薨，冊其子夏國公元昊爲王。二年，來貢。十二月，禁夏國使沿路私市金鐵。七年，來貢。李元昊與興平公主不諧，公主薨，遣北院承旨耶律庶成持詔問之。九年，宋遣郭禎以伐夏來報。十年，夏國獻所俘宋將及生口。十一年，遣使問宋興師伐夏之由。十二月，禁吐渾鬻馬於夏，沿邊築障塞以防之。十二年正月，遣同知析津府事耶律敵烈·樞密都承旨王惟吉諭夏國與宋和。二月，元昊以加上尊號，遣使來賀。耶律敵烈等使夏國還，奏元昊罷兵，遣使報宋。四月，夏國遣命名進馬·駝。七月，元昊上表請伐宋，不從。十月，夏人侵党項，遣延昌宮使高家奴讓之。

49) 承天皇太后(953~1009): 요 景宗 耶律賢의 皇后. 이름은 綽이고, 小字는 燕燕이다. 거란 귀족 출신으로 蕭思溫의 딸이다. 황제가 즉위하자 貴妃로 선발되고, 얼마 뒤 황후에 책봉되었다. 요 景宗 乾亨 4년(982) 聖宗이 제위를 잇자 섭정하면서 承天皇太后로 불렸다. 韓德讓과 耶律斜軫에게 의지하였고, 耶律休哥가 南面의 일을 총괄하였다. 나라 이름을 고쳐 요에서 大契丹이라 하였다. 統和 4년(986) 성종과 함께 남하하여 송나라의 北伐軍을 막아 대승을 거두었다. 통화 22년(1004) 성종과 함께 송나라를 공격하여 澶州에 이르러 송과 澶淵之盟을 체결하고 우호 관계로 돌아섰다. 그녀가 죽은 뒤 성종이 비로소 親政을 시작하였다. 시호는 宣獻인데, 나중에 睿智로 바뀌었다

흥종(興宗)⁵⁰)이 즉위하면서 흥평공주(興平公主)⁵¹)를 이원호(李元昊)⁵²)에게 시집보내고

50) 興宗(耶律宗眞, 1016~1055; 재위 1031~1055): 요나라의 제7대 황제. 시호는 神聖孝章皇帝이다. 요 成宗의 장남으로 1021년, 그의 나이 6세에 황태자가 되었다. 1031년에 성종이 죽자 즉위하였는데 흥종의 치세부터 요나라는 쇠퇴의 길을 걸어 정부는 부패하였고 군대는 약화되었다. 그는 서하를 여러 차례 공격하였고 송과도 교전하였다. 그러나 잦은 전쟁은 높은 세금으로 이어졌고 자신은 불교를 내세우며 사치하였다.

51) 興平公主(? ~1035): 遼 興宗이 즉위한 지 얼마 안 되어 夏와 友好關係를 돈독하게 하기 위해 宗室女를 興平公主로 삼아서 夏王 李德明의 아들 李元昊에게 시집보냈다. 李元昊는 父命을 따라서 興平公主를 처로 맞은 것이다. 그는 興平公主가 평범한 외모라 매력을 느끼지도 못했고 또한 자신이 요의 駙馬地位라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다. 이원호는 즉위 후에 정치·문화적인 개혁을 진행하면서 또한 지나친 사치와 淫逸에 빠져서 妃嬪이 구름과 같이 많은 생활을 하였다고 한다. 자연히 興平公主와 관계가 좋지 않았다. 遼 興宗 重熙 4년(1035) 興平公主는 죽었다. 一說에는 元昊가 衛慕族을 誅滅하기 위해 生母 衛慕氏를 毒酒로 독살했는데 興平公主가 이러한 사정을 알았기 때문에 그녀를 감금해서 獄中에서 죽었다고도 한다.

52) 李元昊(景宗, 1003~1048; 재위 1038~1048): 서하의 개국 황제이다. 탕구트족이며, 원래 拓跋氏였다. 李氏 성은 唐에서 하사받은 것이다. 李繼遷의 손자이자 李德明의 큰아들이며, 生母는 衛慕氏이다. 그는 어릴 때부터 기골이 장대하였을 뿐만 아니라 학문에도 크게 힘써서 손에 책을 놓지 않을 정도였다고 한다. 특히 법률서와 병서를 좋아했으며, 漢語와 蕃語에 능통하고 회화에도 조예가 깊은 등 다재다능한 모습을 보였다. 그의 부친이 재위할 때 계속 출전하면서 세력을 확대해갔다.

송 인종 明道 원년(1032, 요 重熙 원년) 10월에 이덕명이 죽고 이원호가 즉위하였다. 이원호는 태자 시절에 이미 그 야심을 토로하여, 그의 아버지 이덕명에게 송을 등지고 자립하자고 권하였다. 그는 칭제 건국을 위하여 일련의 준비 작업을 하였다. 그는 당·송의 賜姓인 李·趙 씨를 버리고 당항 성인 '鬼名'으로 바꾸어 스스로 '嵬名吾祖'라고 하였다. 동시에 자칭 '兀卒'이라고 하였다. '울졸'은 당항어의 중국식 발음으로 의미가 '靑天子'로써 이는 송조 황제인 '黃天子'와 서로 구별되는 것이다. 같은 해 그는 자신의 연호를 사용하고 북송의 紀年을 사용하지 않기 시작하였다. 이는 이원호가 이미 송의 통치에서 이탈하여 독립을 향하여 자주적으로 매진하는 일보를 밝기 시작한 것이다. 여기에 더하여 관제를 세우고 服式과 兵制를 정하며 蕃書를 제정하였다. 또한 禮樂을 다시 정비하고 諡號를 올리고 朝儀를 정하였다. 그러나 원호의 이러한 칭제 준비 공작은 총체적으로나 실질적으로 단지 중원왕조 典章 제도 및 문화를 본뜬 것이라고 볼 수 있지만 그 목적은 송의 중화문화 정통성에 대한 도전을 의미하는 것이다. 아울러 엄격하고 철저하게 수구파를 제거하였다.

송 인종 寶元 원년(1038, 요 重熙 7년), 이원호는 자립하여 황제가 되어 국호를 '大夏'라 하였다. 天授禮法延祚 원년으로 개원하였고 수도를 興慶府에 정하였다. 大臣 野利仁榮에게 명령하여 문자를 만들도록 하여 크게 서하의 문화를 발전시켰다. 또한 건국 이후 교육을 발전시키고 蕃學을 진흥하면서 文教를 일으켰다. 특히 대외적으로 3차에 걸쳐서 각각 三川口(현재 陝西省 延安의 서북), 好水川(현재 寧夏回族自治區 隆德의 동쪽) 및 定川砦(현재 甘肅省 固原 서북)의 전투에서 북송을 크게 패배시켰다. 아울러 賀蘭山에서 요에 대승을 거두면서 서하가 요·송 양국과 정립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원래

[이]원호를 부마도위(駙馬都尉)로 삼았다. 중희(重熙) 원년(1032), 하국은 사신을 보내어 축하하였다. 이덕소(李德昭)가 죽자 그의 아들 하국공(夏國公) [이]원호가 왕이 되었다. [중희] 2년(1033), 내공(來貢)하였다. 12월, 하국 사신들이 큰길 근처에서 개인적으로 금이나 철을 거래하는 것을 금지하였다. [중희] 7년(1038), 내공하였다. 이원호는 흥평공주와 사이가 나뉘는데 공주가 죽자 북원승지(北院承旨) 야율서성(耶律庶成)을 파견하여 조서를 가지고 가서 그를 문책하도록 하였다. [중희] 9년(1040), 송은 곽정(郭禎)을 파견하여 [서]하를 토벌한 것을 보고하였다. [중희] 10년(1041), 하국은 사로잡은 송의 장령과 포로(生口)⁵³⁾를 바쳤다. [중희] 11년(1042), 사신을 파견하여 송이 군대를 일으켜 [서]하를 토벌한 이유를 물었다. 12월, 토[옥]혼(吐谷渾)⁵⁴⁾이 [서]하에게 말을 파는 것을 금지하고 연변에 보루를 쌓아서 그들

이원호는 關中 지역을 공격하여 長安을 점령하려는 뜻을 가지고 있었지만 송군의 완강한 저항으로 인한 패배로 실현하지 못하였다. 여러 차례에 걸친 전쟁으로 서하의 경제와 국력 등이 타격을 받아 慶曆 4년(1044), 마침내 북송과 慶曆和議를 맺어 송에 대해 칭신하고 하국왕으로 책봉을 받았다.

이렇게 그는 서하의 건국에 많은 기초를 쌓았던 일세의 영웅이라 할 만하다. 특히 문무 두 방면에서 모두 탁월한 성과를 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그의 단점 중 하나는, 예컨대 재위한 지 16년 만에 공신들을 질시하여 약간이라도 불만이 있으면 즉각 파직시키거나 죽여버렸다. 이리하여 공신집단이 거의 제거된 가운데 이후 母黨이 전권을 휘두르는 기회를 제공해주었다. 이 외에 그의 만년에 주색에 빠지고 규모가 큰 공사와 공치사하는 것을 좋아하면서 서하 내부의 부패를 야기하였으며, 결국 이반하는 자들이 많아지게 되었다. 이원호는 황후 野利氏를 폐하고 太子 寧令哥(혹은 寧林格)의 부인인 沒移氏를 빼앗아 새 황후로 삼았다. 송 慶曆 8년(1048) 1월에 아들 영령가가 아버지를 증오한 끝에 이원호가 술에 취한 틈을 타서 그의 숙소에 난입하여 칼로 그의 코를 베어버렸다. 이원호는 도망갔지만 그다음 날 출혈이 과다하여 사망하니 향년 46세였다. 諡號는 武烈皇帝이며 廟號는 泰陵이다. 이후 이원호의 두 번째 부인인 몰장씨의 동생인 沒藏訛龐이 조정을 장악하고, 임금을 시해한 죄로 영령가와 그의 모친이자 폐위된 野利皇后를 죽이고, 누나 몰장씨의 겨우 1살된 아들 李諒祚를 제위에 올렸으니 바로 서하의 毅宗이다.

53) 生口: 우선 사로잡힌 포로를 지칭한다. 『漢書』「西域傳」上 〈鄯善〉에 “時漢軍正任文將兵屯玉門關，爲貳師後距，捕得生口，知狀以聞”이라 하였고, 唐 李翱의 〈論事疏表〉에는 “至如淄青生口夏侯澄等四十七人，皆所宜誅斬者也”라는 용례가 있다. 『金史』「婁室傳」에도 “[婁室]獲生口問之，其帥李良輔也”라고 기록하였으며 『續資治通鑑』〈宋太宗 太平興國 4년〉조에 “捕得生口，云北漢主城中市所射之箭”이라고 되어 있다. 다음으로 奴隸를 의미한다. 『後漢書』「東夷傳」〈倭〉의 “倭國王帥升等獻生口百六十人，願請見”과 『北史』〈房謨傳〉의 “前後賜其奴婢，率多免放，神武後賜其生口，多黥面爲房字而付之” 및 金 元好問의 〈大司農丞康君墓表〉의 “大父諱成，嘗與昆弟分財。他田宅定無所問，止取南中生口十餘人，縱爲民而已”， 또한 元 張翥의 〈城南〉詩， “盡驅丁男作生口，鬼妾鬼馬充其家” 등에 나와 있다. 끝으로 희생에 사용하는 동물을 뜻하기도 하는데 여기에서는 포로의 의미로 해석된다.

을 막았다. [중희] 12년(1043) 정월, 동지석진부사(同知析津府事)인 야율적렬(耶律敵烈)·추밀도승지(樞密都承旨) 왕유길(王惟吉)를 파견하여 하국이 송과 강화하라고 권유하였다.⁵⁵⁾ 2월, [이]원호가 존호(尊號)를 더하자 사신을 보내 축하하였다. 사신으로 갔던 야율적렬 등이 돌아와서 [이]원호가 파병(罷兵)하였다고 아뢰자 사신을 보내어 송에 보고하였다. 4월, 하국은 사신을 보내어 말과 낙타를 진상하였다. 7월, [이]원호가 송을 토벌하자고 청하는 표문을 올렸으나 따르지 않았다. 10월, [서]하인들이 당항(党項)⁵⁶⁾을 침략해서 연창궁사(延昌宮使)

54) 吐(谷)渾: 원래 吐谷渾을 건립한 인물(?~317?)로, 鮮卑 慕容涉歸의 庶長子이다. 동생 慕容廆와 원래 사이가 좋았으나 자신의 말과 모용외의 말이 싸운 것을 계기로 점차 사이가 멀어져, 晉 武帝 太康 4년(283) 1,700호를 거느리고 지금의 內蒙古自治區 陰山으로 옮겨갔다. 晉 愍帝 建興 원년(313)을 전후 음산에서 내려와 隴西郡 枹罕縣에 이르렀다. 본문에서의 토욕혼이라는 나라는 토욕혼의 손자 葉延(329~351)이 세웠는데, 唐 高宗 龍朔 3년(663) 吐蕃에게 멸망당할 때까지 300여 년간 존속하였다. 토번이 쳐들어왔을 때 군주였던 諾曷鉢(635~688, 22대)은 涼州로 달아났다가 이후 唐에 귀부하여 安樂州 刺史에 제수되었다. 吐谷渾은 吐蕃에게 멸망당한 후 河東으로 옮겨 거주하였는데 ‘退渾’, ‘吐渾’ 등으로 불렸다. 吐谷渾이 전성시기였을 때 영역은 지금의 甘肅省 동부, 四川省 서부, 남으로는 青海省 남부, 서로는 新疆省 若羌·且末, 북으로는 祁連山과 河西走廊과 접하였다. 吐谷渾의 역사는 크게 전기와 후기로 나누는데, 전기는 11대 慕利延이 죽었을 때(452년)까지, 후기는 12대 拾寅의 등극에서 시작한다. 전기는 吐谷渾의 발전시기라 할 수 있다면 후기는 吐谷渾의 쇠락시기라 할 수 있다. 전기의 관제는 후기와 많이 다른데, 전기에는 長史·司馬·將軍·博士·侍郎 등이 자주 보이며, 후기에는 王·公·僕射·尚書·郎中·將軍 등의 관함이 자주 보인다고 한다. 胡三省은 史家들이 欲으로 읽는다고 하였다(『資治通鑑』 卷90).

55) 遣同知析津府事耶律敵烈樞密都承旨王惟吉諭夏國與宋和: 『遼史』 「校勘記」에 따르면 ‘同知析津府事耶律敵烈’ 10글자가 없었는데, 『遼史』 卷19 「興宗本紀」 2 〈重熙 12년 정월〉조 및 원문의 ‘耶律敵烈等使夏國還’에 의거하여 보충한 것이다.

56) 党項: 탕구트(Tangut)의 한역 명칭으로 『隋書』에 처음 등장한다. 6세기 무렵부터 14세기경까지 중국 북서부를 중심으로 활약한 민족이다. 이들 탕구트족의 族源에 대해 대체로 고대 羌族의 일파라 여기지만 일부 학자들은 鮮卑族에 두기도 한다. 남북조와 수 왕조 시대부터 탕구트족은 현재의 청해성 동남부와 서북부를 중심으로 한 넓은 산림과 초원에 거주하였다. 그들은 수렵과 목축을 영위하면서 상무적인 기풍을 지녔다고 한다. 여러 부족으로 나뉘어 7세기 초부터 吐蕃(티베트)과 青海 지방의 강국 吐谷渾 사이에 있는 지역에 거주하였다. 拓跋部의 수령 拓跋赤辭가 토욕혼의 왕가와 통혼하면서 최강의 부족으로 군림하여 탕구트족의 주도권을 장악하였다. 그러나 탁발적사는 토욕혼을 도와 당과 전쟁하였으나 당에 패배하였다. 이에 당 태종의 회유책에 따라 탕구트족은 당에 복종하고 탁발적사는 이씨 성을 받고 西戎州都督으로 봉해졌다. 그 후 토번이 흥성하여 토욕혼을 패배시키고 청해 지방을 영유하자 탕구트족도 그 지배하에 들어갔다. 이렇게 토번의 침략과 위협 아래 점점 감속의 동부, 영하의 남부, 섬서의 북부로 옮겨서 거주하였다. 당조는 靜邊州 都督府를 慶州(오늘날 甘肅省 慶陽)로 옮기고 그

고가노(高家奴)를 사신으로 보내어 그들을 꾸짖었다.

十三年四月，党項及山西部族節度使屈烈以五部叛入西夏，詔徵諸道兵討之。六月，阻卜酋長烏八遣其子執元昊所遣求援使窟邑改來。八月，夏使對不以情，羈之。使復來，詢事宜不實對，答之。十月，元昊上表謝罪，欲收集叛黨以獻，從之；進方物，命北院樞密副使蕭革迓之。元昊親率党項三部來降，詰其納叛背盟，元昊伏罪。初，夏人執蕭胡覲，至是，請以被執者來歸。詔所留夏使還其國。十二月，胡覲來歸，又遣使來貢。

[중희] 13년(1044) 4월, 당항 및 산서부족(山西部族) 절도사인 굴열(屈烈)이 5부(部)를 데리고 [요를] 배반하여 서하에게 들어갔다.⁵⁷⁾ 각 도(道)의 병사를 징발하여 그들을 토벌하라

관할 아래 있던 25개 당항족의 州 역시 이주하였다. 원래 거주하던 지역의 당항족은 토번족의 지배를 받으면서 弭藥人이라고 지칭되었다.

북쪽으로 이주한 당항은 8부로 나누어졌다. 당 代宗 때에 토번과 당항족들이 소요를 일으키자 당항인들을 銀州(오늘날 陝西省 米脂) 이북, 夏州(오늘날 陝西省 橫山縣) 동쪽 지방으로 이주시켰다. 이에 綏州(오늘날 陝西省 綏德縣), 延州(오늘날 陝西省 延安) 일대에 또한 많은 당항인들이 이주해 들어왔다. 그 가운데 비교적 강한 拓跋部 수령 拓跋思恭이 당 咸通 14년(873)경 宥州(오늘날 陝西省 靖邊縣 동쪽)를 점거하고 刺史라고 자칭하였다. 당 中和 원년(881) 탁발사공은 黃巢의 난을 진압한 공으로 당 僖宗에게서 夏州節度使에 임명되었고 이씨 성을 받았으며 夏國公에 봉해졌다. 뿐만 아니라 그 자손은 대대로 夏州 定難軍 절도사를 세습하였다. 당나라 말기에 이르러 東山·南山·平夏의 3개 부족으로 대별되고, 오대의 藩鎮 할거 시대를 거치면서 당항족은 점점 강대해지고 발전하였다.

송 초에 이르러 하주의 이씨와 송조 사이에는 여러 차례 전쟁이 발생하였다. 탁발사공부터 9대에 그 계승을 두고, 송에 복종한 형 李繼捧과 송에 반항한 아우 李繼遷 사이에 분쟁이 일어났다. 그 후 이계천의 아들 李德明이 뒤를 잇고 송 眞宗 景德 2년(1005, 요 統和 23년)에 송과 강화하였으나, 이계봉의 후계들은 계속 당항으로 남아 있었다. 당항족에 대해 『宋史』에는 卷485, 「외국전」 1의 〈하국전〉 상과 별도로 卷491, 「외국전」 7에 입전되어 있다. 여기에는 서하가 건국하기 전 송 眞宗 시기까지 송과의 관계사가 주로 기술되어 있다. 여기에 등장하는 부족의 명칭은 백 개가 넘는다. 송 眞宗 天聖 9년(1031, 요 景福 원년)에 이원호가 이덕명의 위를 이어 송 仁宗 寶元 원년(1038, 요 重熙 7년)에 서하를 건국하였다. 서하는 중국의 서북 지역을 약 200년에 걸쳐 통치하였다. 특히 국가의 성립 이후 민족의식의 고양과 함께 자신들의 문자를 창제한 것과 중국의 제도를 차용하면서 나름대로의 불교 문화를 꽃피웠던 점은 당시 송·요·금 등의 왕조들과 비교해서도 결코 뒤떨어지지 않는 수준을 보여준다. 서하는 몽고제국에게 멸망당한 후 당항족은 몽고인들에게 ‘唐兀’이라고 지칭되어 색목인의 하나에 속하였다. 원대에는 부분적으로 활약하기도 했지만 점점 기타 여러 민족과 융합되어 탕구트라는 명칭은 점점 사라져버렸다.

는 조서를 내렸다.⁵⁸⁾ 6월, 조복(阻卜) 주장 오팔(烏八)이 그의 아들을 보내서 [이]원호가 과연 구원사(求援使) 와읍개(窩邑改)를 잡아가지고 왔다.⁵⁹⁾ 8월, [서]하의 사신이 사실대로 대답하지 않아서 그를 잡아두었다. 사신이 다시 왔는데 그 일에 대해 물어도 또 사실대로 대답하지 않아 그를 매질하였다. 10월, [이]원호는 사죄한다는 표문을 올리고 반역한 무리들을 모아서 바치려고 하여 [그의 건의를] 따라주었다. [다시 와서] 토산품을 진상하여 북원추밀부사(北院樞密副使) 소혁(蕭革)에게 그들을 맞이하라고 명하였다. [이]원호는 직접 당항의 3부족을 이끌고 와서 항복하였는데 그들이 반역한 자들을 받아들이고 맹약을 배반한 것을 따지자, [이]원호는 죄를 인정하였다. 예전에 [서]하인들이 소호도(蕭胡覲)를 잡아두었는데 이때에 잡혔던 자를 데리고 와서 돌려준다고 청한 것이다. 잡아두었던 [서]하 사신을 자기나라로 돌려보내라는 조서를 내렸다. 12월, [소]호도가 돌아왔고, [이원호는] 다시 사신을 보내어 내공하였다.

57) 党項及山西部族節度使屈烈: 『遼史』 「校勘記」에 따르면 원래 ‘族’字가 빠져 있었는데 『遼史』 卷19 「興宗本紀」 2 〈重熙 13년 4월〉조에 의거하여 보충한 것이다.

58) 『西夏書事』 卷17과 『宋史』 卷485 「夏國傳」 상 등을 종합해보면, 慶曆 2년(1042) 3월에 이원호는 서하의 대송 공격을 위해 요에게 송을 공격할 것을 청하였다. 요는 幽州(오늘날 天津市 薊縣)까지 출병하고 더 이상 前進하지 않았다. 이원호는 이뿐만 아니라 거란이 단독으로 송과 강화하는 것에 대해서도 매우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한편 서하 인구의 요곡 경내에 일찍이 党項 부족들이 거주하고 있었다. 이들은 서하의 세력이 확대되면서 요를 배반하고 서하에 귀부하는 추세였다. 하지만 景曆 3년(1043, 요 重熙 12년) 8월에 서하는 요가 夾山 朮兒族의 반란을 진압하는 데 돕기 위해 출병하였다. 그러나 요의 장수들은 노획물들을 모두 차지하여 이원호가 요에 대해 더욱 원한을 가지게 되었다. 하와 요 양국관계는 날이 갈수록 더 악화되고 있었다. 11월에는 이원호가 요 통치하의 山南 党項의 여러 부족과 태아족이 요에 반기를 들고 하에 귀부하도록 선동하고 이끌었다. 또한 태아족의 降戶로 하여금 요의 邊境을 어지럽히도록 사주하였다. 景曆 4년(1044) 4월, 요의 節度使로 임명되었던 山西族 수령 屈烈이 다섯 부족을 이끌고 하에 투항하였다. 요는 돌려보내줄 것을 요구했지만 이원호는 듣지 않았다. 5월에 요 興宗은 요에 반기를 든 당항 부족들을 토벌하기 위해 派兵했는데 이원호가 당항족을 돕기 위해 출병하였다. 결과는 요의 招討使 蕭普達 등이 살해당하는 등 요가 패배하였다. 요 興宗은 크게 노하여 각지의 수십만 대군을 징발하여 西南 변경에 모아놓고 서하 토벌을 준비하였다. 당시 이원호는 송과의 경력화이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두 차례 사신을 보내 강화를 청했지만 興宗은 듣지 않고 10월에 출병한 것으로 되어 있다.

59) 阻卜酋長烏八遣其子執元昊所遣求援使窩邑改來: 여기에는 원래 ‘阻卜子烏八執元昊’ 8글자가 빠져 있었으나, 『遼史』 卷19 「興宗本紀」 2 〈重熙 13년 6월〉조 및 『遼史』 卷70 「屬國表」에 의거하여 바로잡은 것이다.

十七年，元昊薨，其子諒祚遣使來告，上其父遺留物。鐵不得國乞以本部軍助攻夏國，不許。十八年，復議伐夏，留其賀正使不遣，遣北院樞密副使蕭惟信以伐夏告宋。六月，夏國遣使來貢，留之。七月，親征。八月，渡河，夏人遁。九月，蕭惠爲夏人所敗。十月，招討使耶律敵古率阻卜軍至賀蘭山，獲元昊妻及其官屬。遇其軍三千來拒，殲之；詳穩蕭慈氏奴·南剋耶律斡里歿于陣。十九年正月，遣使問罪于夏。夏將注普等攻金肅城，耶律高家奴等破之，注普被創遁去，殺猥貨乙靈紀。三月，殿前都點檢蕭迭里得與夏軍戰于三角川，敗之。招討使蕭蒲奴·北院大王宜新等帥師伐夏，都部署別古得爲監戰。五月，蕭蒲奴等入夏境，不遇敵，縱軍俘掠而還。夏國注普來降。十月，李諒祚母遣使乞依舊稱臣。十二月，諒祚上表如母訓。

[중희] 17년(1048), [이]원호가 죽자 그의 아들 [이]양조(李諒祚)⁶⁰가 사신을 보내어 알려 주고, 그 아버지가 남긴 유물을 바쳤다. 철부득국(鐵不得國)이 본부의 군대를 내어 하국을 공격하는데 도와달라고 청하였으나 허락하지 않았다. [중희] 18년(1049), 다시 [서]하를 정벌 하지는 논의가 있어 서하의 하정사(賀正使)를 돌려보내지 않고 머무르게 하면서, 북원추밀부사(北院樞密副使) 소유신(蕭惟信)을 송에 파견하여 [서]하 정벌 소식을 고하였다. 6월, 하국이 사신을 보내어 내공하였으나 그를 머무르게 하였다. [홍종이] 친정(親征)하였다. 8월,

60) 李諒祚(毅宗, 1047~1067; 재위 1048~1067): 서하의 2대 황제이다. 景宗의 사생아였으며, 생모는 党項族 沒藏氏이다. 송 慶曆 8년(1048, 요 重熙 17년), 景宗이 피살되자 毅宗은 1살의 어린 나이로 재위를 이었는데, 그 모친인 沒藏太后 및 그 가족들이 전권을 휘둘렀다. 즉위한 다음 해(1049)에 景宗이 사망한 틈을 타서 서하와 遼 사이에 두 번째 賀蘭山의 전쟁이 벌어졌는데, 서하가 대패하면서 요에 청신하게 되었다. 송 인종 嘉祐 원년(1056, 요 淸寧 2년), 太后가 피살되자 외삼촌인 沒藏訛龐이 집정하였다. 12살이 되어서 비로소 정치에 참여하게 되었다. 가우 6년(1061, 요 청녕 7년), 訛龐 父子가 그를 해치려고 모의하자 마침내 訛龐 및 皇后(訛龐의 딸)를 죽이고, 梁氏를 황후로 삼았으며, 국정을 친히 장악하였다. 그리고는 蕃禮를 폐하고 漢儀로 개혁하여 사용하였다. 아울러 각 部의 尙書, 侍郎 등 각종 관직을 두어 중앙행정체제를 완비하였다. 州軍을 조정하여 지방통치를 강화하였다. 이러한 조치는 황제의 군정에 대한 통제를 강화시켜주었다. 그는 여러 해 동안 송에 대해 군사를 일으켜 인근 주현을 약탈하였다. 그리고는 吐蕃의 수령인 瞎斡의 아들 木征과 靑唐 吐蕃部의 항복을 받았다. 그의 집권 후기에는 요 및 송의 관계를 좋게 유지하여 전쟁이 적었다. 송 英宗 治平 3년(1066, 요 咸雍 2년), 북송과 전투를 벌이다가 화살을 맞아 상처를 입어 그다음 해에 사망했으니 향년 겨우 21살이었으며 諡號는 昭英皇帝이다.

황하를 건너자 [서]하인들이 달아났다. 9월, 소혜(蕭惠)⁶¹⁾는 [서]하인들에게 패배당하였다. 10월, 초토사(招討使) 야율적고(耶律敵古)는 조복군(阻卜軍)을 이끌고 하란산(賀蘭山)⁶²⁾에 이르러, [이]원호의 부인과 그 관료, 가족들을 사로잡았다. 서하의 군대 3천 명이 와서 저항하였으나 그들을 모두 쓰러뜨렸다. 상은(詳穩)⁶³⁾ 소자씨노(蕭慈氏奴)·남극(南契) 야율알리(耶律斡里)가 진중에서 죽었다. [중희] 19년(1050) 정월, [서]하에 사신을 보내어 죄를 물었다. [서]하 장수 와보(洼普) 등이 금숙성(金肅城)을 공격하였는데 야율고가노(耶律高家奴) 등이 그들을 패배시켰다. 와보는 상처를 입고 도망갔으며, 외화을령기(猥貨乙靈紀)를 죽였다. 3월, 전전도점검(殿前都點檢) 소질리득(蕭迭里得)이 [서]하 군대와 삼각천(三角川)에서 싸워서 그들을 패배시켰다. 초토사(招討使) 소포노(蕭蒲奴)·북원대왕(北院大王) 의신(宜新) 등이 군대를 이끌고 [서]하를 토벌하였다. 도부서(都部署) 별고득(別古得)이 전쟁을 감독하였다. 5월, 소포노 등이 [서]하의 국경에 진입하였는데도 적을 만나지 않자 군대가 멋대로 약탈하고 돌아왔다. [서]하국 와보가 와서 투항하였다. 10월, 이양조의 모[친]⁶⁴⁾은 사신을 보내어 예전

61) 蕭惠(983~1056): 遼 중기의 重臣. 字는 伯仁, 또는 貫寧·管寧이었다. 小字는 脫古思라고 하였다. 契丹族으로 淳欽皇后의 동생 阿古只의 五世孫이다. 젊었을 때에는 伯父인 蕭排押을 따라서 高麗 정벌에 참가하여 공을 세우고 契丹行宮 都部署를 맡았다. 요 聖宗 開泰 연간(1012~1021)에 南京 統軍使, 東京 留守事·西北路 招討使를 역임하고 魏國公에 봉해졌다. 이후 南京 統軍使, 順義軍 節度使·東京 留守·南院樞密使·北府宰相·同知元帥府事, 北樞密使를 거치면서 韓國王에 봉해졌다. 興宗 重熙 연간(1032~1055)에는 洪종이 西夏를 정벌하는데 따라가서 河南으로 진군하였다가 서하 군대의 습격을 받고 패배하여 사상자가 많이 발생하였다. 이후에 다시 魏王에 봉해졌다.

62) 賀蘭山: 寧夏回族自治區와 內蒙古自治區의 交界에 있는 하란산맥에 위치하고 있다. 북으로는 巴彥敖包에서 시작하여, 남쪽으로 毛土坑敖包 및 青銅峽에 이른다. 山勢가 웅장하고 軍馬가 뛰어오는 것 같은 형태를 하고 있어서 蒙古語로 駿馬를 ‘賀蘭’이라고 하기 때문에 賀蘭山이라고 불렀다는 설이 있다. 그러나 唐代 韋蟾의 詩에 “賀蘭山下果園成”이라는 구절이 있는 것으로 보아 蒙古人은 13세기에 되어서 위세를 떨쳤기 때문에 어원이 몽고어라는 말은 확실하지 않다. 賀蘭山脈은 해발 2,000~3,000m 정도인데 主峰인 敖包圪塔은 銀川의 서북쪽에 있으며 해발 3,556m로 寧夏回族自治區 境內의 最高峰이다. 11세기 초에서 13세기 전반까지 약 200여 년 동안 賀蘭山에서 발생한 전투는 기본적으로 党項人과 契丹 사이에 일어난 것이었다.

63) 詳穩: 遼의 代官名으로 官府에서 長官을 감독하고 다스리는 역할을 하였다. 『遼史』〈韓匡嗣傳〉에는 “匡嗣以善醫, 直長樂宮, 皇后視之猶子. 應曆十年, 爲太祖廟詳穩”이라 기록하였다.

64) 李諒祚 母(? ~1056): 景宗 李元昊의 寵妃 沒藏氏이다. 본래 李元昊의 大臣 野利遇乞의 妻였는데 李元昊와 私通하다 발각되어 출가하여 沒藏大師라 칭하였다. 慶曆 7년(1047, 요 重熙 16년) 2월에 沒藏氏가 李諒祚를 낳으면서 오빠인 沒藏訛龐의 집에서 양육해주도록 하였다. 3월에 이원호는 沒藏訛龐을 國相

대로 청신하겠다고 빌었다. 12월, [이]양조는 어머니의 가르침대로 하겠다는 표서를 올렸다.

二十年二月，遣使索党項叛戶。五月，蕭爻括使夏回，進諒祚母表：乞代党項權進馬駝牛羊等物；又求唐隆鎮，仍乞罷所建城邑。以詔答之。六月，獲元昊妻，及俘到夏人置于蘇州。二十一年十月，諒祚遣使乞弛邊備，遣爻括賫詔諭之。二十二年七月，諒祚進降表，遣林牙高家奴賫詔撫諭。二十三年正月，貢方物。五月，乞進馬·駝，詔歲貢之。七月，諒祚遣使求婚。十月，進誓表。二十四年，興宗崩，遣使報哀于夏。

[중희] 20년(1051) 2월, 사신을 보내어 당항의 반역자들을 찾아내라고 하였다. 5월, 소효괄(蕭爻括)이 [서]하에 사신으로 갔다가 돌아와서 [이]양조 모친의 표서를 올렸다. [거기에서] 당항이 잠정적으로 말이나 낙타, 소나 양 등 물품을 진상하는 것을 대체해주시기를 청하였다. 또한 당룡진(唐隆鎮)⁶⁵⁾을 찾기 위하여 짓고 있는 성읍(城邑)을 없애달라고 청하였다. 조서를 내려서 거기에 답해주었다. 6월, [이]원호의 처자와 사로잡은 [서]하인들을 소주(蘇州, 원래는 薊州)에 안치하였다. [중희] 21년(1052) 10월, [이]양조는 사신을 파견하여 변경의 방비를 느슨하게 해달라고 청하여 [소]효괄을 보내서 조서를 내려 그들을 회유하였다. [중희] 22년(1053) 7월, [이]양조는 항복하는 표문을 올렸다. 임아(林牙) 고가노(高家奴)를 보내서 조서를 내려 그들을 안무하고 회유하였다. [중희] 23년(1054) 정월, 방물을 진공하였다. 5월, 말과 낙타를 진상한다고 요구하여 매해 진상하라는 조서를 내렸다. 7월, [이]양조가 사신을 파견하여 구혼(求婚)하였다. 10월, 서표를 올렸다. [중희] 24년(1055), 흥종이 붕어하자 [서]하에

으로 승진시켜 주었다. 이때 이미 野利 황후의 아들 寧令哥가 太子로 있었는데 沒藏訛龐은 沒藏氏의 형제들과 더불어 寧令哥를 죽이고 이양조를 太子로 삼는 음모를 꾸몄다. 이원호가 죽으면서 沒藏氏는 宣穆惠文皇太后가 되었고 이양조가 어렸기 때문에 太后가 攝政하였다. 『長編』 卷184 <嘉祐 원년> 조와 『涑水紀聞』 卷11, 『東都事略』 卷128, 『西夏書事』 卷18 등을 종합해보면 李諒祚가 한 살도 안 된 어린아이였기 때문에 조정의 대권은 실제로 완전히 沒藏氏 남매가 장악하고 있었다. 송 인종 嘉祐 원년(1056, 淸寧 2년) 이양조의 모친 몰장씨는 이원호의 신임을 받았던 保細吃多己와 私通하여 10월에 또 다른 私通 관계에 있던 李守貴에게 살해당하였다. 몰장외방은 크게 노하여 이수귀를 죽이고 그의 全家를 주멸하였다.

65) 唐隆鎮: 唐龍鎮이라고도 불렸으며 오늘날 內蒙古 准格爾旗 동남쪽, 黃河의 서쪽 20리에 위치한다. 遼는 여기에 寧邊州의 治所를 두었다.

사신을 보내어 알렸다.⁶⁶⁾

道宗即位，清寧元年，遣使來賀。九月，以先帝遺物賜夏。四年四月，遣使會葬。九年正月，禁民鬻銅于夏。咸雍元年五月，來貢。三年十一月，遣使進回鶻僧·金佛·梵覺經。十二月，諒祚薨。四年二月，諒祚子秉常遣使報哀，即遣使弔祭。秉常上其父遺物。十月，冊秉常爲夏國王。十二月，來貢。五年七月，遣使來謝封冊。閏十一月，秉常乞賜印綬。九年，遣使來貢。

도종(道宗)⁶⁷⁾이 즉위한 청녕(淸寧) 원년(1055)⁶⁸⁾에 사신을 보내어 축하하였다. 9월에 선제(先帝, 흥종)의 유물을 [서]하에 하사하였다. [청녕] 4년(1058) 4월, 사신을 파견하여 [태황태후의] 장례에 참석하였다.⁶⁹⁾ [청녕] 9년(1063) 정월, 민간에서 [서]하에 구리를 파는 것을 금지하였다. 함옹(咸雍) 원년(1065) 5월, 내공하였다. [함옹] 3년(1067) 11월, 사신을 파견하여 회골(回鶻)⁷⁰⁾의 승려·금불상[金佛]·『범각경(梵覺經)』을 진상하였다. 12월, [이]양조가

66) 興宗崩遣使報哀于夏: 『遼史』 『校勘記』에 따르면 이 아홉 글자가 원래는 ‘二十四年’의 앞에 있었으나 『遼史』 卷20 『興宗本紀』 3에 興宗이 重熙 24년(1055) 8월에 죽고, 동시에 道宗이 즉위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24년 뒤로 옮겨놓은 것이다.

67) 道宗(耶律洪基, 1032~1101; 재위 1055~1101): 요의 제8대 황제로 제7대 興宗의 장자이다. 시호는 仁聖大孝文皇帝. 그의 治世 47년은 요대 문화의 난숙기였으나, 정치적으로는 기강이 차츰 문란해지고 쇠락의 빛을 보이기 시작하였다. 요 도종 咸雍 2년(1066)에는 요 태종이 사용하였던 ‘大遼’라는 이름을 부활시켰다. 함옹 10년(1074) 宋이 西夏를 견제하는 목적으로 방어 진지를 증축하고, 遼의 경계를 침범한 것을 구실로 출병하여 山西省 代州의 경계에서 송에서 영토를 획득하는 데 성공하기도 하였다. 불교의 열광적 신자로 佛寺의 造營에 막대한 국비를 소비하여 재정난을 초래하였다. 아들 耶律濬은 그보다 일찍 사망하였고 天祚帝 乾統 원년(1101)에 죽은 후 손자 천조제가 황위를 계승하였다.

68) 연호는 대부분 새로 황제로 즉위한 다음 해에 바꾸는데 이 경우 道宗이 즉위하면서 淸寧으로 改元하여 興宗 重熙 24년과 같은 해이다.

69) 四年四月遣使會葬: 『遼史』 卷21 『道宗本紀』에는 淸寧 3년 12월 己巳에 “太皇太后崩”이라 하였고, 淸寧 4년 정월 壬申에 “遣使報哀于宋·夏”라고 기록되어 있으므로 이번에 사신을 보낸 것은 太皇太后的 장례에 참석시키기 위한 것이다.

70) 回鶻: 中國 서북쪽에 존재하였던 民族의 하나이다. 원래 回紇이었으나 唐 德宗 때 “鶻과 같이 빠르고 날쌔다”는 뜻으로 回鶻이라 개칭하였다. 唐 초에 漠北에 있던 9姓 鐵勒 중의 하나였다. 回鶻의 部落聯盟에서 藥羅葛이 수령이었으며, 이후 回鶻의 可汗은 대다수가 이 氏族에서 나왔다. 唐 天寶 3년(744)에

죽었다. [함웅] 4년(1068) 2월, [이]양조의 아들 [이]병상(李秉常)⁷¹⁾이 사신을 보내 상사를 보고하자 곧 사신을 보내어 조문하였다. [이]병상이 그 부친의 유물을 진상하였다. 10월, [이]병상을 하국왕으로 책봉하였다. 12월, 내공하였다. [함웅] 5년(1069) 7월, 사신을 보내와 책봉에 감사하였다. 윤11월,⁷²⁾ [이]병상은 인수(印綬)를 하사해주기를 청하였다. [함웅] 9년(1073), 사신을 보내어 내공하였다.

大康二年正月，仁懿皇后崩，遣使報哀于夏，以皇太后遺物賜之。遣使來吊祭。五年，

骨力裴羅를 수령으로 하는 回紇聯盟이 당군의 지휘 하에 突厥汗國을 무너뜨리고 漠北回紇汗國을 건립하여 王庭(牙帳)을 鄂爾渾河 유역에 두었다. 나라를 세운 후 回紇과 당의 관계는 비교적 양호하여 다른 유목민족 정권처럼 중국에 대해 침략하거나 약탈하지 않았다. 回紇은 또한 唐이 安史의 亂을 평정하는 데 도움을 주기도 하였다. 최대 영역은 동으로는 室韋에, 서로는 金山(현재의 알타이산맥)에 이르렀고 남으로는 大漠까지였다. 回紇은 이후 장기간 吐蕃과 전쟁을 벌였으며, 더욱이 통치도 난맥상을 보이고 내분이 끊임없이 일어나다가 당 武宗 會昌 6년(846) 소속 部인 黠戛斯에게 멸망하였다. 그 이후 서쪽으로 옮겨갔는데, 대략 세 갈래로 나누어졌다. 하나는 투르판(吐魯番)분지로 갔는데, 高昌回鶻 또는 西州回鶻·北庭回鶻·和州回鶻·阿薩蘭回鶻로도 칭하였다. 관할 영역은 동으로는 哈密(哈密), 서로는 庫車(庫車), 남으로는 於闐, 북으로는 天山을 넘어섰다. 수도는 高昌(현재 新疆省 투르판 동쪽)이며, 國王은 阿薩蘭汗이었는데 그 뜻은 獅子王(이후 亦都護로 개칭)이다. 겨울에는 高昌에 거주하였고, 여름에는 北庭(현재 新疆省 吉木薩爾破城子)에 거주하였다. 주로 농업에 종사하면서, 곡식·면화·과일(주로 참외·포도) 등의 작물을 심었다. 목축도 겸하였다. 관개시설이 특색이 있는데, ‘坎爾井’으로 이름이 높다. 佛教를 믿었으며, 마니교와 祆教를 함께 믿기도 하였다. 문자는 回鶻文을 사용하였고, 歌舞에 능하였을 뿐 아니라 목각 인쇄술과 벽화예술이 뛰어났다. 10~11세기에 오대 북송과의 관계는 아주 밀접하였다. 12세기 초 西遼에 예속되었다가 13세기 초 蒙古에 귀부하였다. 명 永樂 18년(1420)부터 차가타이한국에 속하였다가 17세기 후반 준가르부에게 점령당했으며, 18세기 중엽 청 정부의 관할로 들어갔다.

71) 李秉常(惠宗, 1061~1086; 재위 1068~1086): 西夏의 세 번째 皇帝이며 毅宗의 아들이다. 요 道宗 咸雍 3년(1067)년 의종이 갑자기 병사하자 재위를 계승하였으며, 모친인 태후 梁氏가 정권을 장악하였고, 梁乙埋가 國相으로 되었다. 요 도종 太康 2년(1076) 16살 때 친정을 시작하였다. 하지만 요 태강 6년(1086), 梁太后와 梁乙埋가 李秉常을 興州(寧夏回族自治區銀川市)의 木峁에 구금하였다가 요 태강 9년(1083) 윤6월, 장군들의 반대로 양태후는 이병상을 복위시켜주었다. 요 도종 太安 2년(1086) 7월 병사했으며, 묘호는 惠宗이며 시호는 康靖皇帝이다.

72) 閏十一月: 『遼史』「校勘記」에 따르면 ‘閏’자가 원래 없었으나, 『遼史』卷22 「道宗本紀」 2, 咸雍 5년과 卷43 「曆象志」〈閏考〉에 의거하여 보충한 것이다.

來貢. 八年二月, 遣使以所獲宋將張天益來獻. 大安元年十月, 秉常遣使報其母哀. 二年十月, 秉常薨, 遣使詔其子乾順知國事. 十二月, 李乾順遣使上其父秉常遺物. 四年七月, 冊乾順爲夏國王. 五年六月, 遣使來謝封冊. 八年六月, 夏爲宋所侵, 遣使乞援. 壽隆三年六月, 以宋人置壁壘于要地, 遣使來告. 四年六月, 求援. 十一月, 遣樞密直學士耶律儼使宋, 諷與夏和. 夏復遣使來求援. 五年正月, 詔乾順伐拔思母等部. 十一月, 夏以宋人罷兵, 遣使來謝. 六年十一月, 遣使請尙公主. 七年, 道宗崩, 遣使告哀于夏. 遣使來慰奠.

[도종] 대강(大康) 2년(1076) 정월, 인의황후(仁懿皇后)가 붕어하자 [서]하에 사신을 보내어 알려주고 황태후의 유물을 그들에게 하사하였다.⁷³⁾ [서하에서는] 사신을 보내어 조문하였다. [대강] 5년(1079), 내공하였다. [대강] 8년(1082) 2월, 사신을 보내서 [포로로] 잡은 송의 장군 장천익(張天益)을 바쳤다. 대안(大安) 원년(1085) 10월, [이]병상은 사신을 보내어 모친의 상사를 알려왔다. [대안] 2년(1086) 10월, [이]병상이 죽자 [요는] 사신을 파견하여 그 아들 [이]건순⁷⁴⁾이 국사를 맡으라는 조서를 내렸다. 12월, 이건순은 사신을 파견하여 그 부친 [이]병상의 유물을 바쳤다. [대안] 4년(1088) 7월, [이]건순을 하국왕으로 책봉하였다. [대안] 5년(1089) 6월, 사신을 파견하여 책봉에 대해 감사하였다. [대안] 8년(1092) 6월, [서]하가 송의 침략을 받자 사신을 파견하여 구원을 요청하였다. 수릉(壽隆, 혹은 壽昌) 3년(1097) 6월, 송인(宋人)들이 요지(要地)에 보루를 쌓자 사신을 파견하여 보고해왔다. [수릉] 4년(1098) 6월, 구원을 청하였다. 11월, 추밀직학사(樞密直學士) 야율엄(耶律儼)을 송에 사신으로 파견하여 [서]하와 강화를 맺으라고 설득하였다. [서]하는 다시 사신을 보내어 구원을 청하였다. [수릉] 5년(1099) 정월, [이]건순에게 발사모(拔思母) 등 부족을 토벌하라는 조서를 내렸다.⁷⁵⁾ 11월, [서]하는 송인들이 철군한 것에 대해 사신을 보내 감사하였다. [수릉] 6년

73) 大康二年正月至以皇太后遺物賜之: 『遼史』 卷23 「道宗本紀」 3에는 大康 2년 3월로 되어 있다.

74) 李乾順(崇宗, 1084~1139; 재위 1086~1139): 혜종 李秉常의 큰아들이다. 3세에 즉위하여 모후 梁氏가 專權을 가지고 수렴청정하였다. 그가 16세 때 양씨가 죽으면서 친정하기 시작하였다. 그가 친정한 후에는 요와 연합하여 송에 대항하는 정책을 취했고, 요가 금에 멸망당한 후에는 다시 금과 연합하여 송에 대항하였다.

75) 詔乾順伐拔思母等部: 『遼史』 「校勘記」에 따르면 원래 '詔'자가 없고, '拔思母'는 '拔母思'로 되어 있었는데

(1100) 11월, 사신을 파견하여 [요의] 공주와 혼인을 청하였다. [수릉] 7년(1101), 도종이 붕어하여 [서]하에 사신을 보내 상사를 알리자 사신을 보내와 위전(慰奠)하였다.

天祚即位，乾統元年，夏遣使來賀。二年，復請尚公主。又以爲宋所侵，遣李造福·田若水來求援。三年，復遣使請尚公主。十月，使復來求援。四年·五年，李造福等至，乞援。以族女南仙封成安公主下嫁乾順。六年正月，遣牛溫舒使宋，令歸所侵夏地。六月，遣李造福來謝。八年，乾順以成安公主生子，遣使來告。九年，以宋不歸地來告。十年，遣李造福等來貢。天慶三年六月，來貢。保大二年，天祚播遷，乾順率兵來掇，爲金師所敗，乾順請臨其國。六月，遣使冊乾順爲夏國皇帝，而天祚被執歸金矣。

천조[제](天祚帝)⁷⁶가 즉위한 건통(乾統) 원년(1101)에 [서]하는 사신을 보내어 축하하였다. [건통] 2년(1102), [요의] 공주와 혼인을 거듭 청하였다. 또한 송의 침략을 받았기 때문에 이조복(李造福)·전약수(田若水)를 파견하여 구원을 청하였다. [건통] 3년(1103), 사신을 파견하여 [요의] 공주와 혼인을 거듭 청하였다. 10월, 사신이 다시 와서 구원을 청하였다. [건통] 4년(1104)·5년(1105), 이조복 등이 와서 구원을 청하였다. 종실의 딸인 남선(南仙)을 성안공주(成安公主)로 봉하여 [이]건순에게 시집보냈다. [건통] 6년(1106) 정월, 우온서(牛溫舒)를 송에 사신으로 보내어 침범한 [서]하 영토를 돌려주라고 하였다. 6월, 이조복을 보내어 감사하였다. [건통] 8년(1108), [이]건순은 성안공주가 아들을 낳았다고 사신을 보내 보고하였다. [건통] 9년(1109), 송이 영토를 돌려주지 않는다고 보고해 왔다. [건통] 10년(1110), 이조복 등을 파견하여 내공하였다. 천경(天慶) 3년(1113) 6월, 내공하였다. 보대(保大) 2년(1122),

『遼史』卷26「道宗本紀」6〈壽隆 5년 정월〉조에 의거하여 바로잡은 것이다.

76) 天祚帝(耶律延禧, 1075~1128; 재위 1101~1125): 遼 왕조 최후의 황제로 전 황제 8대 道宗의 손자이다. 재위기의 연호는 乾統(1101~1110), 天慶(1111~1120), 保大(1121~1125)이다. 어려서 政爭으로 아버지를 잃었다. 이를 안타깝게 여긴 道宗은 그를 梁王으로 책봉했으며, 이어 皇太孫으로 삼았다. 乾統 원년(1101) 도종이 죽은 뒤에 황위를 계승하였다. 天慶 5년(1115) 女眞族의 阿骨打(1068~1123)가 독립하여 金(1115~1234)을 세우자, 토벌군을 파견했으나 크게 패배하였다. 이후 遼의 국력은 政爭 등을 겪으며 급격히 쇠퇴했으며, 保大 원년(1121)에는 영토의 절반 가까이를 빼앗겼다. 보대 5년(1125) 금과 北宋이 海上同盟을 맺고 공격해오자 천조제는 금의 포로가 되었고, 遼는 멸망하였다. 그 뒤 천조제는 海濱王으로 봉해졌으나, 금 태종 天會 6년(1128), 54세 때 病死하였다.

천조[제]가 도성을 떠나 피난하자[播遷], [이]건순은 군대를 이끌고 도우러 왔지만 금의 군대에 패배당하였고, [이]건순은 자기 나라로 가겠다고 청하였다. 6월, 사신을 보내서 [이]건순을 하국 황제로 책봉하였으나 천조[제]는 사로잡혀 금으로 가게 되었다.⁷⁷⁾

論曰：高麗·西夏之事遼，雖嘗請婚下嫁，烏足以得其固志哉？三韓接壤，反覆易知；涼州負遠，納叛侵疆，乘隙輒動；貢使方往，事費隨生。興師問罪，屢煩親征。取勝固多，敗亦貽悔。昔吳趙咨對魏之言曰：「大國有征伐之兵，小國有備禦之固。」豈其然乎！先王柔遠，以德而不以力，尚矣。遼亡，求援二國，雖能出師，豈金敵哉。

논하여 말하자면, 고려와 서하가 요를 섬기면서 비록 일찍부터 [공주를] 시집보내달라고 청혼하였지만 어떻게 그들의 본심을 얻을 수 있었겠는가? 삼한(三韓)이 국경을 접해 있어 그들의 반복무상은 쉽게 알 수 있다. 양주(涼州)는 멀리 있어 [요에서] 반역한 무리들을 받아들이고 변강을 침략하며 기회를 보아서 바로 군대를 일으켰다. 진공하는 사신들이 왕래를 해도 틈만 있으면 사단이 일어났다. [이에] 군대를 일으켜 죄를 묻고 여러 차례 [황제가] 친정하였다. 승리할 때가 물론 많았지만 패전은 또한 후회를 남긴다. 예전에 오(吳)의 조자(趙咨)가 위(魏)가 한 말에 대답하기를, “대국에는 정벌하는 군대가 있지만 소국은 견고하게 방어할 수 있다”고 하였다. 어찌 그렇지 아니한가! 선왕(先王)은 먼 곳을 회유함에 있어 덕으로써 하지 무력을 사용하지 않는 것을 숭상할 만하다. 요가 멸망할 때 두 나라에 구원을 요청하였지만 비록 출병할 수 있었다 해도 어떻게 금을 대적할 수 있었겠는가?

77) 保大二年至天祚被執歸金矣：『遼史』卷29「天祚皇帝本紀」3에는 '乾順請臨其國'한 것이 保大 3년(1123) 5월 乙卯의 일로 되어 있고, '遣使册李乾順爲夏國皇帝'한 것 또한 역시 保大 3년 6월의 일로 기록되어 있다. 하지만 본문의 '天祚被執歸金'은 『遼史』卷30「天祚皇帝本紀」4에는 保大 5년(1125) 8월에 금으로 가서 강등되어 海濱王에 봉해졌다가 병으로 54세에 죽은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 참고문헌 |

동북아역사재단 편, 『譯註 中國 正史 外國傳』 1~13, 동북아역사재단, 2009~2013
『二十五史』, 北京: 中華書局, 1959~1977

羅福成, 『西夏國書類編』, 東山學社鉛印本, 1915

羅福成, 『西夏國書略說』, 東山學社鉛印本, 1915

羅福成, 『西夏國書字典音同』, 遼寧庫籍整理處影印本, 1935

羅福萇·羅福頤, 『宋史夏國傳集注』, 『國立北平圖書館館刊』 4-3, 1932

羅福萇·羅福頤 集注, 彭向前 補注, 『宋史夏國傳集注』, 陳育寧 主編, 西夏研究叢書 第4輯, 銀川: 寧夏人民出版社, 2004

戴錫章·羅矛昆 校點, 『西夏紀』, 西北史地資料叢書, 銀川: 寧夏人民出版社, 1988

杜佑, 『通典』, 北京: 中華書局, 1988

馬端臨, 『文獻通考』, 北京: 中華書局 影印本, 1986

史金波·白濱·黃振華, 『文海研究』, 中國社會科學出版社, 1983

史金波·黃振華·聶鴻音, 『類林研究』, 銀川: 寧夏人民出版社, 1993

史金波·聶鴻音·白濱, 『西夏天盛律令譯注』, 『中國珍稀法律典籍集成』 甲編第5冊, 科學出版社, 1994

史金波·白濱·聶鴻音 譯注, 『天盛改舊新定律令』, 法律出版社, 2000

司馬光·胡三省 音注, 『資治通鑑』, 北京: 中華書局, 1976

徐松, 『宋會要輯稿』, 北京: 中華書局 影印本, 1957

楊仲良, 『皇宋通鑑長編紀事本末』, 哈爾濱: 黑龍江人民出版社, 2006

葉隆禮, 『契丹國志』, 上海古籍出版社, 1985

吳廣成, 『西夏書事』, 龔世俊 校點, 甘肅文化出版社, 1995

王仁俊, 『西夏藝文志』, 清光緒20年 刊本

王欽若 等, 『冊府元龜』, 北京: 中華書局, 1982

李燾, 『續資治通鑑長編』, 北京: 中華書局, 1979~1995

李心傳, 『建炎以來繫年要錄』, 北京: 中華書局, 1988

李鴻儀 編纂, 李培業 整理, 『西夏李氏世譜』, 遼寧民族出版社, 1998

- 佚名, 『宋史全文』, 哈爾濱: 黑龍江人民出版社, 2005
- 張鑒, 『西夏紀事本末』, 龔世俊·陳廣恩·朱巧雲 校點, 甘肅文化出版社, 1998
- 陳邦瞻, 『宋史紀事本末』, 北京: 中華書局, 1977
- 韓蔭晨, 『党項與西夏資料彙編』, 寧夏人民出版社, 2000
- 저자미상, 『西夏志略』, 胡玉冰 校證, 甘肅文化出版社, 1998
-
- 金渭顯, 『契丹 東方經略使 研究』, 명지대학교출판부, 2004
- 김한규, 『고대중국적세계질서연구』, 일조각, 1982
- 김한규 외, 『中國의 天下思想』, 민음사, 1988
- 김한규, 『遼東史』, 문학과지성사, 2004
- 王枷 지음, 김정희 역, 『민족과 국가—중국 다민족통일국가 사상의 계보』, 동북아역사재단, 2005
- 윤영인 외, 『10~18세기 북방민족과 정복왕조 연구』, 동북아역사재단, 2009
- 이근명 외, 『동북아 중세의 한족과 북방민족: 최근 중국 학계의 연구동향과 그 성격』,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총서 55, 동북아역사재단, 2010
- [德]傅海波, [英]崔瑞德 主編, 『檢校中國遼西夏金元史』, 中國社會科學出版社, 1998
- 杜建錄, 『西夏與周邊民族關係史』, 甘肅文化出版社, 1995
- 杜建錄, 『20世紀西夏學』, 寧夏人民出版社, 2004
- 白濱, 『党項史研究』, 吉林教育出版社, 1989
- 史金波, 『西夏文化』, 吉林教育出版社, 1986
- 史金波, 『西夏佛教史略』, 寧夏人民出版社, 1988
- 楊樹森, 『遼史簡編』, 遼寧人民出版社, 1984
- 吳天墀, 『西夏史稿』, 四川人民出版社, 1980
- 王克孝, 『黑城出土漢文遺書敘錄』, 寧夏人民出版社, 1994
- 王靜如, 『西夏研究 1·2·3輯』, 中央研究院曆史語言研究所集刊鉛印本, 1932
- 王天順, 『西夏學概論』, 甘肅文化出版社, 1995
- 李范文·种侃·吳雲峰, 『西夏簡史』, 寧夏人民出版社, 1979
- 李蔚, 『簡明西夏史』, 人民出版社, 1997
- 李華瑞, 『宋夏關係史』, 河北人民出版社, 1998
- 周偉洲, 『唐代党項』, 三秦出版社, 1988
- 朱學淵, 『中國北方諸族的源流』, 中華書局, 2002
- 陳炳應, 『西夏文物研究』, 寧夏人民出版社, 1985

- 陳炳應, 『西夏諺語—新集錦成對諺語』, 山西人民出版社, 1993
- 漆俠·喬幼梅, 『遼夏金經濟史』, 河北大學出版社, 1994
- 西田龍雄, 『西夏語研究: 西夏語の構擬と西夏文字の解讀1·2』, 東京: 座右寶刊行會, 1964·1966
- Franke, Herbert and Twitchett, Denis eds., *The Cambridge History of China, Volume 6: Alien Regimes and Border States, 907~1368*,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4
- Luc, Kwanten, *The Timely Pearl, A 12th Century Tangut Chinese Glossary*, Bloomington: Indiana University Press, 1982
- Sinor, Denis ed., *The Cambridge History of Early Inner Asia*,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0
- 金容完, 「北宋과 遼·夏 邊境上의 密貿易 問題」, 『濟州史學』 3, 1987
- 金渭顯, 「契丹의 對西夏政策」 1, 『白山學報』 32, 1985
- 金渭顯, 「契丹의 對西夏政策」 2, 『白山學報』 33, 1986
- 金渭顯, 「西夏與宋·契丹之關係(986~1048)」, 『明知史論』 7, 1995
- 金渭顯, 「宋史筌·西夏列傳」, 『宋史研究論文集』, 河北大學出版社, 2002
- 朴志焄, 「北宋의 對外經濟關係의 華夷觀: 對遼·西夏關係를 中心으로」, 『梨花史學研究』 19, 1990
- 박지훈, 「西夏의 자국인식과 중국관: 元昊 치세기를 중심으로」, 『중국학연구』 56, 2011
- 申採湜, 「北宋 仁宗期에 있어서 對西夏政策의 變遷에 관하여」, 『歷史教育』 8, 1964
- 申採湜, 「宋·西夏貿易考」, 『歷史教育』 10, 1967
- 安俊光, 「宋·夏7年戰爭에 對하여」, 『陸軍3士官學校論文集』 44, 1997
- 유원준, 「복송초 송·서하전쟁의 발발과 확진」, 『동북아역사논총』 34, 2011
- 윤영인, 「거란·요 연구—21세기 연구성과를 중심으로」, 『중국학계의 북방민족·국가 연구』, 동북아 역사재단, 2008
- 賈敬顏, 「西夏學研究的回顧與展望」, 『歷史研究』, 1986-1
- 顧吉辰, 「宋—夏交聘表」, 『固原師專學報』, 1986-3
- 顧吉辰, 「宋人西夏著作考」, 『天水師專學報』, 1989-4
- 顧頡剛, 「從古籍中探索我國的西部民族: 羌族」, 『社會科學戰線』, 1980-1
- 龔煌城, 「西夏文字衍生過程的重建」, 『國立政治大學邊政研究所年報』 15, 1984
- 龔煌城, 「西夏文的意符和聲符及其衍生過程」, 『中央研究院歷史語言研究所集刊』 57-4, 1986
- 郭琳, 「淺談韓琦的對夏策略」, 『安徽師範大學學報』, 1999-1

- 郭文佳, 「論韓琦在禦夏戰爭中貢獻」, 『信陽師範學院學報』, 2000-2
- 霍升平·胡迅雷·李大同, 「西夏諺語初探」, 『寧夏大學學報』, 1986-3
- 霍升平, 「論北宋與西夏的貿易」, 『中州學刊』, 1988-1
- 郭正忠, 「青白鹽使與青白鹽刑律: 兼論夏宋青白鹽貿易」, 『寧夏社會科學』, 1995-2
- 求實, 「論所謂復制宋本西夏地圖問題」, 『西北歷史資料』, 1980-1
- 金寶祥, 「西夏的建國和封建化」, 甘肅師範大學, 『歷史教學與研究』, 1959-5
- 唐嘉弘, 「關於西夏拓跋氏族屬問題」, 『四川大學學報』, 1955-2
- 杜建錄, 「論西夏與周邊民族關係及特點」, 『民族研究』, 1996-2
- 羅矛昆, 「李繼遷攻取靈州對西夏建國的作用」, 『寧夏社會科學』, 1981-3
- 羅福頤, 「西夏護國寺感應塔碑介紹」, 『文物』, 1981-4·5
- 隴夫, 「試論宋·夏與吐蕃關係的幾個問題」, 『甘肅民族研究』, 1991-4
- 呂卓民, 「試論李繼遷舍夏取靈與西夏建國的關係」, 『寧夏大學學報』, 1991-3
- 閔春新·張穩, 「正統觀念與宋夏和戰」, 『山東大學學報』(哲學社會科學版), 2007-6
- 林文勳, 「宋代食鹽與周邊民族關係」, 『雲南民族學院學報』, 1993-2
- 林英津·安可思, 「類林'西夏譯本之研究」, 『大陸雜誌』84-5, 1992
- 孟楠, 「論克烈人與西夏的關係」, 『內蒙古社會科學』, 1998-3
- 穆鴻利, 「試論西夏黨項文化傳統及其與周邊各族文化的交流」, 『寧夏大學學報』, 1999-2
- 房建昌, 「流傳在日本的『西夏志略』」, 『寧夏社會科學』, 1984-2
- 白濱, 「『西夏志略』考」, 『民族研究』, 1985-4
- 白濱, 「俄藏黑水城文獻漢文部分述要」, 『宋史研究論文集』, 寧夏人民出版社, 1999
- 白濱, 「20世紀西夏文文獻研究」, 『20世紀西夏學』, 寧夏人民出版社, 2004
- 史金波, 「西夏文'官階封號表'考釋」, 『中國民族古文字研究論文集』, 天津古籍出版社, 1992
- 史金波, 「西夏境內民族考」, 『慶祝王鍾翰先生80壽辰學術論文集』, 遼寧大學出版社, 1993
- 徐莊, 「試論李繼遷的歷史作用」, 『寧夏大學學報』, 1981-4
- 聶鴻音, 「西夏史料簡說」, 『文史知識』, 1989-4
- 聶鴻音, 「戴錫章的『西夏紀凡例』未刊稿」, 『寧夏社會科學』, 1990-1
- 聶鴻音, 「西夏文'夏聖根贊歌'考釋」, 『民族古籍』, 1990-1
- 聶鴻音, 「西夏文'新修太學歌'考釋」, 『寧夏社會科學』, 1990-3
- 聶鴻音, 「補'西夏藝文志」」, 『古籍整理研究學刊』, 1990-6
- 聶鴻音, 「西夏'天盛律令'成書年代辨析」, 『尋根』, 1998-6
- 聶鴻音, 「西夏文學史料說略」, 『文史』, 1999-4

- 聶鴻音,「西夏文‘天下共樂歌’·‘勸世歌’考釋」,『寧夏社會科學』,2000-3
- 聶鴻音,「關於黑水城的兩件西夏文書」,『中華文史論叢』63,2000
- 孫宏開·聶鴻音,「20世紀西夏語言研究」,『20世紀西夏學』,寧夏人民出版社,2004
- 楊作山,「北宋時期西蕃與西夏關係述評」,『西北第2民族學院學報』,1990-1
- 楊志玖,「西夏是不是羌族」,『歷史教學』,1956-4
- 吳光耀,「爲李繼遷辯」,『寧夏社會科學』,1978-3
- 吳峰雲,「20世紀西夏考古重大發現」,『20世紀西夏學』,寧夏人民出版社,2004
- 吳天墀,「論党項拓跋氏族屬及西夏國名」,『西北史地』,1986-1
- 王靜如,「西夏國名考」,『西夏史論文集』,寧夏人民出版社,1984
- 王天順,「試論宋夏戰爭中雙方戰略地位的變化」,『寧夏社會科學』,1994-3
- 王忠,「論西夏的興起」,『歷史研究』,1962-5
- 牛達生,「20世紀西夏錢幣和官印研究」,『20世紀西夏學』,寧夏人民出版社,2004
- 劉建麗,「宋夏戰爭中的秦州吐蕃」,『寧夏社會科學』,1996-4
- 劉建麗,「論儒學對西夏社會的影響」,『西北師範大學學報』,2000-3
- 劉建麗,「夏金使臣交聘述論」,『國家圖書館學刊』2002年增刊『西夏研究專號』,2002
- 劉建麗,「20世紀西夏與周邊民族關係研究」,『20世紀西夏學』,寧夏人民出版社,2004
- 劉建麗·湯開建,「夏金關係述評」,『西北師院學報』,1986-2
- 劉興全,「夏宋通使制度考述」,『首屆西夏學國際學術會議論文集』,1998
- 李克武,「李繼棒‘入覲納土’析論」,『華中師大學報』,1988-3
- 李范文,「宋西事案:國內罕見的一部西夏史書」,『寧夏大學學報』,1983-2
- 李范文,「試論党項族的來源與變遷」,『西夏研究論集』,寧夏人民出版社,1983
- 李范文,「西夏國名辨」,『西夏研究論集』,寧夏人民出版社,1983
- 李范文,「西夏文官階封號表考釋」,『社會科學戰線』,1991-3
- 李范文,「再論西夏党項族的來源與變遷」,『首屆西夏學國際學術會議論文集』,寧夏人民出版社,1998
- 李范文,「西夏在中國歷史中的地位」,『寧夏社會科學』,2002-3
- 李蔚,「周春『西夏書』評價」,『寧夏大學學報』,1982-3
- 李蔚,「宋夏橫山之爭述論」,『民族研究』,1987-6
- 李蔚,「談李繼遷」,『西北民族研究』,1994-1
- 李志清,「西夏諸名稱音義析辨及其族源探索」,『西夏文史論叢』1,寧夏人民出版社,1992
- 李華瑞,「貿易與西夏侵宋的關係」,『寧夏社會科學』,1997-3
- 張國慶,「略論遼夏和親與遼夏關係的惡化」,『史學月刊』,1988-5

- 張雲, 「党項名義及族源考證」, 『首屆西夏學國際學術會議論文集』, 寧夏人民出版社, 1998
- 張慧等, 「西夏黃河沿岸的樵場經濟: 兼論西夏與中亞地區的貿易往來」, 『內蒙古地方志』, 1995-3
- 趙繼顏, 「北宋仁宗時的宋夏陝西之戰」, 『齊魯學刊』, 1980-4
- 趙繼顏, 「范仲淹的‘答趙元昊書’及其招撫政策」, 『山東大學學報』, 1983-4
- 趙一匡, 「宋夏對立與河湟地區的民族關係」, 『蘭州學刊』, 1987-4
- 朱筱新, 「評遼在夏宋關係中的作用」, 『寧夏大學學報』, 1988-1
- 周蓮弟, 「富弼與北宋的禦夏政策」, 『寧夏社會科學』, 1999-4
- 陳炳應, 「遼夏關係及其相互政策」, 『寧夏社會科學』, 1991-4
- 陳育寧, 「蒙古與西夏關係略論」, 『民族研究』, 1988-5
- 湯開建, 「張澍『西夏姓氏錄』訂誤」, 『蘭州大學學報』, 1982-4
- 湯開建, 「李繼遷領導的反宋戰爭是一場反對民族壓迫的正義鬥爭嗎?」, 『西北民族文叢』, 1984-2
- 湯開建, 「試論元昊對宋作戰屢勝的原因」, 『西北民族學院學報』, 1985-1
- 湯開建, 「關於元昊領導的反宋戰爭性質的探討」, 『青海民族學院學報』, 1985-2
- 湯開建, 「關於西夏拓跋氏族源的幾個問題」, 『中國史研究』, 1986-4
- 湯開建, 「党項源流新證」, 『寧夏社會科學』, 1996-1
- 湯開建·羅矛昆, 「西夏史料概述」, 『寧夏社科通訊』, 1985-6
- 馮繼欽, 「西夏與蒙古高原諸部的關係」, 『寧夏社會科學』, 1985-4
- 胡玉冰, 「『西夏志略』考略」, 『寧夏社會科學』, 1999-1
- 橋本萬太郎, 「掌中珠の夏漢對音研究方法」, 『中國語學』 109, 1961
- 橋本萬太郎, 「文海韻の韻組織と西夏語音論」, 『言語研究』 41, 1962
- 橋本萬太郎, 「西夏の國書字典‘音同’の同居韻」, 『言語研究』 43, 1963
- 橋本萬太郎, 「文海韻の音韻組織」, 『東方學』 30, 1965
- 西田龍雄, 「西夏語韻圖の‘五聲切韻’について研究」, 『京都大學文學部研究紀要』 20·21·22, 1981~1983
- 佐藤貴保, 「西夏の二つの官僚集團: 十二世紀後半における官僚登用法」, 『東洋史研究』 66-3, 2007
- 畑地正憲, 「宋代における麟府路について」, 『東洋史研究』 51-3, 1992
- 向本健, 「西夏の仏教とその政治的背景」, 『大谷大学大学院 研究紀要』 23, 2006
- Dunnell, Ruth W., “Who Are the Tanguts? Remarks on Tangut Ethnogenesis and the Ethnonym Tangut,” *Journal of Asian History*, 18, 1984

Kwanten, Luc, "The Structure of the Tangut [Hsi Hsia] Characters", 『亞非言語文化研究』 36, 1988
Nevsky, N. A., "A Brief Manual of the Si-hia Characters with Tibetan Transcriptions," *Research Review of Osaka Asiatic Society*, 4, 1926

龔延明 主編, 『宋代官制辭典』, 北京: 中華書局, 1997
紀大椿 主編, 『新疆歷史事典』, 烏魯木齊: 人民出版社, 1993
羅竹風 主編, 『漢語大詞典』, 上海: 漢語大詞典出版社, 1990~1993
譚其驤 主編, 『中國歷史地圖集』, 北京: 中國地圖出版社, 1982
雪梨 主編, 『中國絲綢之路辭典』, 烏魯木齊: 新疆人民出版社, 1994
臧勵蘇 等編, 『中國古今地名大辭典』, 臺灣: 商務印書館, 1972, 原刊 1931
諸橋轍次, 『大漢和辭典』, 東京: 大修館書店, 1966
馮承鈞 原編, 陸峻嶺 增訂, 『西域地名(增訂本)』, 北京: 中華書局, 1980
『アジア歴史事典』 全10卷, 東京: 平凡社, 1962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금사(金史)』 외국전 해제

중국의 역대 왕조들은 전대(前代) 왕조가 남긴 사료들을 정리하여 정사(正史)를 편찬함으로써, 역사적 계승의식과 정통성을 강조해왔다. 원조(元朝) 역시 남송 멸망 이전인 중통(中統) 2년(1261)부터 이미 요·금사의 편찬사업을 기획한 바 있으며, 지원(至元) 13년(1276)에는 남송의 수도 임안(臨安)을 정복함과 동시에 황실도서의 완전한 보존을 명령하면서 사서 편찬의 의지를 드러내었다. 하지만 통일 후의 정사 편찬사업은 정통론 시비로 지체되었다. 송을 본기(本紀)에 기록하고 요와 금은 각각 재기(載記)에 기록해야 한다는 주장과 요와 금을 북사(北史)로 편찬하고, 송은 송사(宋史)·남송사(南宋史)로 분찬하자는 견해 등 다양한 의견이 팽팽하게 맞섰다. 결국 “삼국 모두에게 정통성을 부여하고 각각의 연호를 사용한다(三國各與正統, 各繫其年號)”는 원칙이 확정되었고, 순제(順帝) 지정(至正) 3년(1343) 2월부터 요·송·금 삼국 정사의 편찬사업이 시작되었다. 그해 3월에는 당대(唐代) 이래로 확립된 ‘설관수사(設館修史)’의 전통을 계승하여 정사를 편찬하기 위한 정식기구를 설립하였고, 중서우승상(中書右丞相) 탈탈(脫脫)이 도총재관(都總裁官) 겸 감수국사(監修國史)를, 철목아탑식(鐵木兒塔識)·장기암(張起岩)·구양현(歐陽玄)·여사성(呂思誠)·갈혜사(揭傒斯) 등이 총재관을 맡아서 찬수사업을 시작하였다. 삼국 정사의 편찬사업은 신속하게 진척되었다. 지정 4년(1344) 3월에 『요사』 116권이 완성되었고, 11월에는 『금사』 135권이, 지정 5년(1345) 10월에는 『송사』 496권이 차례로 완성되었다.

거질(巨帙)의 사서들이 단기일 내에 집체작업을 통해서 연달아 완성된 탓에 부실을 지적하는 비평도 시대를 넘어서 이어졌다. 『금사』는 『요사』와 비교할 때는 상대적으로 나은 편이지만, 전반적인 평가는 역시 부정적이다. 다만 「태조본기(太祖本紀)」 앞 편에 「세기(世紀)」를

신설하여, 아홉아보기 이전 선조들의 역사를 기술하여 왕조성립의 배경을 분명하게 제시한 점, 「교빈표(交賓表)」를 통해서 송·금 관계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점 등에 대해서는 대체로 호평이 이어졌다. 『요사』와 『금사』의 〈국어해(國語解)〉에 대해서도 그 평가가 긍정적이다. 사서의 내용 중에 거란어와 여진어로 출현하는 성씨·부족·지명·관직·국명·제도 등과 관련된 용어에 대해서는 한어(漢語)로 해석을 부기(附記)하여, 해당시기의 역사와 언어를 이해하는데 적지 않은 도움이 되었기 때문이다. 전반적으로 촉박하게 진행된 탓에, 체제와 내용이 영성하고 구조 또한 체계적이지 못하다는 부정적인 평가가 지배적이지만, 일부 독창적인 항목들은 민족사적인 특징을 잘 반영하고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그렇다면 정복왕조로 일컬어지는 원대에 편찬된 『요사』와 『금사』의 「외국전(外國傳)」은 어떤 특징을 지닐까? 탈탈을 위시한 다양한 민족적 배경을 가진 학자들은 「외국전」을 어떻게 집필했을까? 이 문제는 형식과 내용의 취사선택 과정 중에, 정통에 대한 인식과 계승의식 등이 표출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흥미롭다. 『사기(史記)』 이래로, 기전체로 작성된 중국 정사는 기본적으로 이웃 국가나 주변민족의 역사를 열전 부분에 기록해왔다. 『요사』와 『금사』 역시 각각 「이국외기(二國外記)」와 「외국전」을 별도로 입전하여, 서하(西夏)와 고려(高麗) 양국의 역사를 다루고 있다. 『금사』 「외국전」에 보이는 서술상의 특징을 간단하게 정리해보면 아래와 같다.

첫 번째로 주목되는 특징은 「이국외기」와 「외국전」의 국가별·시기별 안배가 요·송·금 삼국사 전체를 염두에 두고 설계되었다는 점이다. 우선 국가별로 보자면 『송사』 「외국전」에는 고려와 서하 이외에도 일본, 토번, 당항, 대식, 안남과 도서부 동남아시아, 인도 등 다양한 국가들을 두루 망라하고 있는데, 『요사』와 『금사』는 고려와 서하만을 다루고 있다. 이는 요와 금의 주변국가 중에서 두 나라가 그만큼 중요한 위상을 가졌음을 시사해주는 것이지만, 일정 정도는 『송사』 「외국전」과의 중복을 피하려는 편찬진의 의도를 반영해주는 것이기도 하다. 이러한 의도는 시기의 획분에도 그대로 적용되었다. 『송사』 「외국전」의 〈하국전〉은 상·하 양 권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대체로 상권은 『요사』 「이국외기」 〈서하전〉, 하권은 『금사』 「외국전」의 〈서하전〉과 맞물리도록 설정되었다.

두 번째로는 내용적인 측면에서 접근해볼 때, 『요사』와 『금사』의 〈서하전〉이 ‘관계사적 서술’에 치중하고 있다는 점이 『송사』와 뚜렷이 대비된다. 『금사』 〈서하전〉은 탁발사공(托跋思恭)이 당 희종(僖宗)에게서 절도사 직을 하사받는 중화(中和) 원년(881)부터 남송 이종(理

宗) 보경(寶慶) 3년(1227) 서하 멸망까지 서하와 금의 관계를 집중적으로 기술하고 있다. 물론 정사 외국전 대부분이 중국과 외국 혹은 주변민족 간에 전개된 조공과 사신의 왕래, 전쟁 등 관계사적 부분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지만, 내용 가운데 각국의 연원·제도·지리·풍속 등에 대해서도 상술하고 있어서 해당국의 역사를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이에 반해 『요사』와 『금사』의 〈서하전〉에서는 서하사 자체에 관한 중요한 기록은 찾아보기 힘들다. 이 점 역시 일정 정도는 『송사』 〈하국전〉과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기획된 것으로 추정된다.

세 번째로는 정통론적 입장에서, 요·금·송 삼국사 「외국전」의 편찬이 기본적으로 요와 금을 정통으로 삼고 이를 원이 계승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었다는 점이 주목된다. 일례로 『요사』 「위의지(威儀志)」의 국가의례 절차와 도구에 관한 기록을 살펴보면, ‘국여(國輿)’와 ‘한여(漢輿)’, ‘국복(國服)’과 ‘한복(漢服)’, ‘국장(國杖)’과 ‘발해장(渤海杖)’, ‘한장(漢杖)’ 등으로 분장하여 기록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요를 중심으로 삼고 발해와 한을 부수적인 지위로 구분하여 서술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송사』 〈하국전〉과 비교할 때 『요사』와 『금사』에서는 〈서하전〉의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점도 주목된다. ‘서하’라는 명칭이 ‘하국’에 비해 비칭으로 사용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외국전의 표제에 ‘서하’와 ‘하국’이라는 명칭을 대비시켜 사용함으로써, 결국 송과 하국을 동격화하고, 요·금과 송 사이의 국격의 차이를 직접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요사』와 『금사』의 「외국전」 서술은 그 형식에서는 기전체 사서의 특징을 그대로 전승하여 문화적 계승의식을 반영하면서도, 내용에서는 역사적 정통성의 소재가 요-금-원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분명하게 강조하고 있다.

금사(金史) 권134 외국(外國) 상

서하전(西夏傳)

- 역주: 이석현
- 교열: 박지훈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서하전(西夏傳)」 해제

『금사』 권134 「외국」 상 〈서하전〉은 금대에 존재했던 서하에 관한 기록이다. 서술의 범위는 금과 접촉했을 때의 서하 군주인 이건순(李乾順)의 선조인 탁발사공(拓拔思恭)이 당 희종(僖宗)에게 하주(夏州)·수주(綏州)·유주(宥州) 등의 절도사를 수여받은 881년의 상황부터 시작하여 1227년 서하 멸망에 이르기까지이지만 주로 서하와 금의 관계를 기술하고 있다.

서하는 중국의 송과 북방의 요가 함께 대치하고 있던 송 인종(仁宗) 보원(寶元) 원년(1038)에 건국되어 약 190년 동안 오늘날 중국의 영하 회족 자치구를 중심으로 감숙성·섬서성·내몽고자치구를 포함한 광대한 지역을 다스렸던 국가였다. 물론 이것은 그들이 정식 국가를 세운 이후의 시기만을 산정한 것이며, 본 열전에도 나오듯이 당 말 황소(黃巢)의 난을 진압했던 탁발사공에서부터 본다면 약 300년간 중국의 서북 지역을 다스렸던 중요한 민족과 국가다.

서하가 멸망하고 곧 금과 남송이 원에게 멸망당한 후 원의 사관들이 역사를 편찬하면서 요·금은 정통왕조로 승인하면서 정사로 기술하였지만 서하에 대해서는 대등한 지위로 서술하지 않았다. 그 이유는 원대 사관들이 같은 이민족 왕조지만 정통사상에 따라 서하에 대해 낮게 보는 태도를 보였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둘째, 몽골이 서하를 정벌할 때 서하의 통치자들이 완강하게 저항하였기 때문에 몽골 통치자들의 서하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서하전〉의 본문에서도 “서북쪽의 지리(地理)를 기술할 때 왕왕 모두 억측(臆測)하여 이야기를 하곤 한다”고 하면서 당시 서하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았음을 반영하고 있다. 셋째, 서하 멸망 때 실록(實錄)·보첩(譜牒) 등이 남아 있었지만 후대의 전란으로 인해 남아 있던 서하의 실록 등도 송·요·금사를 편찬할 당시 별로 남아 있지 않았던 상황이었다. 때문에 송·요·금사의 편찬자들이 서하사에 관한 제대로 된 완전한 역사를 편찬할 수

없었던 것이다. 즉 정복과정과 그 이후의 많은 전란으로 인해 서하의 저작들이 사라져 버리게 되었다.

이런 이유로 인해 『금사』뿐만 아니라 『요사』와 『송사』에 들어 있는 서하에 관한 기록은 거의 대부분 송인(宋人)들의 저작에 의지할 수밖에 없었다. 『송사』·『요사』·『금사』의 〈하국전〉과 〈서하전〉의 기록이 서하 역사에 대한 본격적인 서술이라기보다는 관계사에 보다 많이 치중되어 있는 것은 이러한 이유에서 비롯된 것이다. 특히 『금사』 〈서하전〉의 경우는 금과의 관계에 관한 기술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송사』 〈하국전〉의 경우에도 송과의 관계에 관한 내용이 다수를 차지하지만 중간 부분이나 마지막 부분에 서하의 내부적 상황이나 제도·지리·풍속에 관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어 서하를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준다. 하지만 『금사』 〈서하전〉의 경우에는 거의 금과의 관계를 위주로 서술되어 있어 서하사 자체 연구와 관련한 중요한 기록은 찾아볼 수 없다. 이것은 『송사』·『요사』·『금사』의 편찬자가 탈탈(脫脫) 등 동일한 인물들이었기 때문에 서술의 중복을 피하기 위한 일종의 방법으로 채택된 것인지도 모른다.

그럼에도 송사와 요·금사의 편찬자들이 동일한 인물 내지는 인식을 공유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존재한다. 그것은 『금사』와 『요사』의 경우는 〈서하전〉이라 되어 있지만 『송사』의 경우는 〈하국전〉이라 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명칭이 이민족 왕조였던 몽고제국의 상황에서 요·금에 대한 정통성을 더욱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송인들의 인식을 반영하여 나온 것인지는 확실치 않다. 분명한 것은 서하라는 명칭은 하국이라는 명칭보다는 약간 비하적인 뉘앙스를 지니고 있다는 점이다. 동일한 편찬책임자 아래에서 어루어졌던 『송사』·『요사』·『금사』에서 〈하국전〉과 〈서하전〉의 명칭이 다르게 표현되고 있는 것은 관심을 끄는 부분이다.

『금사』 〈서하전〉의 내용은 앞서 기술했듯이 금과 서하 사이에 벌어졌던 외교적 갈등과 사신의 왕래, 여러 차례의 크고 작은 전투에 관한 기술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첫 번째는 북송 멸망 후 금과의 경계 획정에 관한 부분이다. 당시 금은 섬서 지역을 황하를 경계로 나누어 서쪽 지역을 서하에 할양해준 내용이 기술되어 있다. 두 번째는 금과의 의례에 관한 부분이다. 원래 서하는 요에 대한 의례로 금을 대하려 하였지만 요·서하는 숙질관계였고, 금·서하는 군신관계라는 차이에 따른 의례적 내용이 기술되어 있다. 외교적 부분에서 양국의 국경선에서의 각장(榷場)의 설치와 폐지, 회복에 관한 내용도 들어 있다.

또한 서하의 내정과 관련한 금과의 외교적 왕래에 관한 부분이 눈에 띈다. 먼저 서하 인종(仁宗) 이인효(李仁孝) 시기에 대신인 한득경이 서하를 분할하여 책봉해줄 것을 청했지만 그것을 허락하지 않은 내용도 있다. 또한 환종(桓宗) 이순우(李純佑)가 일족인 이안전(李安全)에게 폐립되어 사망한 사건도 주목된다. 일종의 쿠데타라 할 수 있는 사건인데, 이순우의 모친이 폐립에 대해 직접 상주문으로 고하자 이안전을 하국왕으로 책봉해준 내용이다. 이런 상황은 비록 금과 서하가 군신관계에 따른 책봉 조공을 주고받는 사이였지만 국내의 정치적 사건에 대해서는 자주적 결정권을 침해하지 않고 존중해주는 모습으로 해석된다.

〈서하전〉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금과의 경계지역에 있는 성채(城寨)를 둘러싼 갈등이다. 이런 내용들은 특히 후반기에 갈수록 집중되고 있는데, 그것은 1206년 이안전이 즉위한 이후 친몽골 정책에 따라 금과 크고 작은 여러 차례의 전쟁을 일으킨 것에 기인한다. 결과적으로 이안전의 이러한 정책은 금과 서하 양국에 막대한 피해를 가져왔고 몽골의 흥기를 촉진시킨 것으로 평가된다. 이안전을 폐립하고 들어선 이준욱(李遵頊)도 기본적으로 금과의 대결상태를 지속하면서 여러 차례 금을 공격하였지만 오히려 전투에 크게 패하면서 서하의 국력이 기울어지고 마침내 서하가 멸망하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서하전〉의 본문에 “정우(貞祐) 연간(1213~1217)의 초기에 작은 규모의 침략과 노략질이 있었는데 10년이 되도록 얽히고설킨 전란이 되기에 이르렀고, 승리와 패배를 거듭하면서 정예병이 다 소진되어 양국이 모두 폐해지게 되었다”고 한 것은 이런 사실에 대한 찬자의 평가이기도 하다. 결국 〈서하전〉에서 서하 역사의 마지막 부분은 대부분 서하의 국경 침공과 금의 대응, 금의 서하 정벌과 서하군의 반격으로 이루어진 내용이 반복적으로 서술되고 있다. 마지막 부분은 서하 건국 이전의 역사와 영토, 자연환경과 풍속 등을 기술하고 있고, 오대의 전란으로 중국에서 사라진 예악과 제도가 오히려 하국에 남아 있다는 기술도 보이지만 전반적으로 내용은 『송사』 〈하국전〉에 비해 너무 소략한 상황이다.

『금사』 〈서하전〉은 서하에 관한 중요 기록의 하나지만 기록의 풍부함, 내용의 정교함, 원사료의 인용 등 『송사』 〈서하전〉과 비교하여 매우 소략하게 기술되어 있다. 이런 점으로 인해 〈서하전〉의 내용은 서하사 자체에 대한 전체적 이해를 도모하는 데 부족하다. 다만 금과의 외교적 관계에 관한 내용에서 참고할 수 있는 자료임에는 틀림없다. 이외에 『금사』의 「본기」, 「식화지(食貨志)」, 「교빙표(交聘表)」와 각 열전에 서하와의 관계와 관련된 내용이 산견되니 참고할 수 있다.

「서하전(西夏傳)」역주

夏國王李乾順. 其先曰托跋思恭, 唐僖宗時, 爲夏·綏·銀·宥節度使, 與李茂貞·李克用等破黃巢, 復京師, 賜姓李氏. 唐末, 天下大亂, 藩鎮連兵, 惟夏州未嘗爲唐患. 歷五代至宋, 傳數世至元昊, 始稱帝. 遼人以公主下嫁李氏, 世修朝貢不絕, 事具遼史.

하국(夏國)¹⁾의 왕(王) 이건순(李乾順)²⁾의 선조는 탁발사공(托跋思恭)³⁾으로 당(唐) 희종

1) 夏國: 본 『금사』 「외국전」 상의 소제목은 西夏로 되어 있으나 본문에서는 대부분 夏, 혹은 夏國으로 지칭하고 있다. 『송사』 「외국전」에서는 〈하국〉 상하로 되어 있는데 본문에서는 서하와 하를 함께 사용하고 있다. 『遼史』 「二國外記」에도 서하라 하였다. 원래 명칭은 夏인데 원대 이후에 서하라고 통칭하였기 때문에 『송사』·『요사』·『금사』에서 구별하지 않고 사용한 것으로 보이나, 『송사』에서는 〈하국전〉으로, 『요사』·『금사』에서는 〈서하전〉으로 한 이유는 명확하지 않다.

2) 李乾順(崇宗, 1083~1139; 재위 1086~1139): 서하의 제4대 황제로, 부친은 惠宗 李秉常, 모친은 梁皇后이다. 어릴 때 祖母인 梁太后가 그를 매우 총애하였다고 한다. 서하 崇宗 天安禮定 원년(1086) 8월 21일 父親인 李秉常이 서거하자 그는 겨우 3세의 어린 나이로 즉위하면서 梁氏들의 專政이 시작되었다. 梁氏의 통치기간 동안 西夏의 정치가 부패하고 군대가 쇠약해지자 북송은 이를 틈타 공격하니 서하군은 연전연 패하였다. 어릴 때부터 재능이 뛰어났던 이건순은 이런 상황을 알게 되자 송종 永安 원년(1099), 바로 그의 나이 16세 때 梁氏를 몰아내고 친정을 시작하였다. 그가 친정한 후 吏治가 정돈되고 賦稅가 줄어들었으며, 農桑을 중시하였을 뿐 아니라 水利 사업에 힘을 쏟았다. 이렇게 李乾順이 정치에 대해 공을 들이자 서하의 국세가 강성해지고 정치·사회·경제가 모두 발전되었다. 이 외에도 李乾順은 외교정책을 매우 잘 구사하였다. 당시 遼와 宋이 모두 쇠락해지자 이건순은 遼와 손잡고 宋을 침공하여 제법 큰 지역을 탈취하였다. 또한 遼의 天祚帝가 西夏를 항할 때 구원을 요청하였지만 거절하였고, 金朝와 연합하여 遼·宋을 멸망시키면서 이 기회를 틈타 河西 천여 리의 땅을 획득하였다. 서하 崇宗 大德 5년(1139)

(僖宗)⁴ 때에 하(夏)⁵·수(綏)⁶·은(銀)⁷·유(宥)⁸[州]의 절도사(節度使)⁹를 맡았고, 이무

음력 6월 4일에 사망하였다. 李乾順의 廟號는 崇宗이며, 諡號는 聖文皇帝이다.

3) 拓跋思恭: 唐末 党項族의 首領으로 夏州(치소는 오늘날 陝西省 靖邊 북쪽)의 偏將이었다. 唐 懿宗 咸通 연간(860~873) 끝무렵에 宥州(치소는 오늘날 內蒙古 鄂托克旗)에서 刺史로 自稱하였다. 黃巢가 長安에 들어오자 拓跋思恭은 鄜州(치소는 오늘날 陝西省 富縣)의 李孝昌과 함께 황소를 토벌하기로 서약하니 唐 僖宗은 그를 左武衛將軍, 權知夏綏銀節度事로 삼았다. 達王橋에서 黃巢軍에게 격퇴당한 후에 鄭畋 등과 四節度 同盟을 맺고 渭橋에서 屯兵하였다. 唐 中和 2년(882)에 皇帝는 그를 京城西面都統, 檢校司空, 同中書門下平章事 등으로 명하는 조서를 내렸다. 그 후 四面都統, 權知京兆尹으로 進封되었다. 황소가 토벌된 다음 拓跋思恭은 太子太傅를 겸하고 夏國公에 봉해졌으며 李氏 姓을 받았고, 夏州節度使에 배수되었다. 襄王 李煜의 亂이 일어나자 僖宗은 拓跋思恭에게 出兵을 명하였으나 出兵하기 전에 죽었다. 乾寧 2년(895) 그의 동생 李思諫을 定難節度使로, 李思孝와 李思敬은 保大節度使로 삼았다. 그가 李氏 姓을 받은 다음 대부분의 史書에서는 이후 拓跋이라는 성 대신 李氏로 표기하고 있지만, 宋 태종 雍熙 연간(984~987)에 다시 李繼捧에게는 趙保忠이라는 姓名을, 李繼遷에게는 趙保吉이라는 姓名을 내렸기 때문에 이후에 李元昊를 趙元昊로 표기하기도 한다. 李元昊가 칭제한 다음 宋 조정에서 趙氏 姓을 거두어 갔기 때문에 본 역주에서는 혼란을 피하기 위해 『宋史』 원문에 성이 명기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씨로 통일하였다.

4) 唐 僖宗(李儂, 862~888; 재위 873~888): 唐朝의 19대 황제다. 毅宗의 다섯 번째 아들로 처음 이름은 儂이고, 晉王으로 책봉되었다. 咸通 14년(873) 7월 懿宗이 죽자 환관 劉行深 등이 翁립하였다. 어린 나이에 황제가 되었기 때문에 환관들이 정권을 장악하였다. 乾符 원년(880) 王仙芝, 건부 2년(881)에 黃巢의 난이 일어났고, 황소가 長安을 함락하자 蜀으로 蒙塵을 가기도 하였다. 中和 5년(885)에 장안으로 귀환하였지만 河東節度使 李克用이 京畿 지역을 압박하자 다시 도망갔다. 이후에도 藩鎮 간의 전쟁이 격화되어 황실이 약화되었다. 文德 원년(888) 3월에 죽었다. 靖陵에 묻혔고, 諡號는 惠聖恭定孝皇帝이다.

5) 夏州: 北魏 太和 11년(487) 統萬鎮에서 승격되어 설치되었으며, 치소는 당시 化政郡 岩綠縣이며, 현재의 섬서성 靖邊縣 북쪽 白城子村이다. 隋 大業 3년(607) 朔方郡으로 개칭되었으며, 唐 貞觀 2년(628) 다시 夏州로 되었다. 天寶 원년(742) 朔方郡으로 개칭하였다가 乾元 원년(758) 다시 夏州라 하였다. 唐末 이래 党項族 탁발씨가 이곳에서 대대로 거주하면서 서하정권을 건립하는 지역적 근거지가 되었다.

6) 綏州: 西魏 廢帝 원년(552)에 설치되었다. 치소는 安寧郡 安寧縣인데 현재 陝西省 綏德縣 동남 50리쯤에 위치한다. 관할 구역은 현재 陝西省의 綏德·清澗·子長·子洲·米脂·佳·吳堡 등의 縣과 橫山縣 동부, 榆林市 남부 지역을 포함한다. 隋 大業 원년(605) 上州라 고쳤으며, 3년에 雕陰郡이라 바꾸었다. 唐 武德 3년(620) 다시 綏州를 설치하였다. 이후 치소가 여러 차례 변하다가 貞觀 2년(628)에 이르러 처음으로 上縣(현재 綏德縣)으로 옮겨졌다. 당시 관할 영역이 축소되었는데, 현재 綏德·吳堡·清澗의 세 縣과 子長·子洲의 일부 지역이다. 天寶 원년(742)에 上郡으로 고쳤으며, 乾元 원년(758) 다시 綏州라 하였다. 西夏 건국 이래 서하령으로 되었다가 北宋 인종 治平 4년(1067)에 송에게 점령되었다. 神宗 熙寧 2년(1069) 폐지하여 綏德城으로 하였다. 이후 서하와 북송의 영토분쟁의 핵심 지역으로 되었다. 현재 陝西省 榆林市 綏德縣이다.

7) 銀州: 처음 北周 保定 3년(563)에 설치되었으며, 치소는 聽馬城으로 현재의 陝西省 橫山縣 동쪽 党岔鎮의

정(李茂貞)¹⁰·이극용(李克用)¹¹ 등과 함께 황소(黃巢)¹²를 격파하고 경사(京師)를 수복하여 이씨(李氏) 성을 하사받았다. 당 말기에 천하에 큰 난리가 나고 번진(藩鎮)이 연이어 군사를 일으켰는데, 하주(夏州)만이 당나라의 우환을 겪지 않았다. 오대(五代)에서 송(宋)에 이르는 동안 여러 세대를 거쳐 [이]원호(李元昊)¹³에 이르렀을 때 처음으로 황제라 칭하였다.

大寨梁이다. 『元和志』卷4〈銀州〉조에는 “因谷爲名，舊有人牧聽馬於此谷，虜語聽馬爲乞銀”이라고 되어 있다. 관할 영역은 오늘날 陝西省의 橫山·米脂·佳縣의 북쪽 지역이다. 天寶 원년(742) 銀川郡으로 되었다가 乾元 원년(758)에 다시 銀間으로 되었고 五代 시기 서하의 땅이 되었다. 북송 원풍 4년(1081) 송이 회복하여 치소를 永樂城(현재 陝西省 米脂縣 西北의 馬湖峪)으로 옮겼다. 崇寧 5년(1106)에 폐지하였다.

- 8) 宥州: 西夏에서 설치하였으며, 치소는 오늘날 內蒙古 鄂托克前旗 동남쪽 城川鄉 古城이다.
- 9) 節度使: 여기에서는 구체적으로 定難節度使 또는 夏綏節度使이다. 唐 中和 원년(881)에 拓跋思恭이 여기에서 割據하며 서하왕조의 前身이 되었다. 拓跋思恭이 唐朝를 도와서 黃巢의 난을 진압했을 때 定難軍節度使로 봉해지고 李氏 姓을 받아서 대대로 定難軍을 영유하는 기초가 되었다.
- 10) 李茂貞(856~924): 본명은 宋文通이다. 당 말 博野의 사졸 출신으로 황소의 난을 토벌하는 데 공을 세워 神策軍指揮使로 되었고, 이후 朱玫의 亂 때 哀宗을 구한 공으로 武定節度使가 되어 李氏 성을 하사받아 이무정으로 개명하였다. 907년 주진충이 당을 멸하고 후량을 건립하자 이무정은 스스로 岐王 府를 세우고 百官을 두고 그의 妻를 皇后라 하는 등 겉으로는 황제와 같은 면모를 보이기도 했지만 후량과 王建이 건국한 前蜀에게 계속 패배하여 세력이 작아졌다. 924년 후량을 멸망시킨 후당 莊宗 이준욱에게 稱臣하면서 이무정은 秦王에 봉해지면서 독립된 정권으로서의 수명을 다했다. 진왕으로 봉해진 몇 개월 후에 이무정은 사망하였다. 시호는 忠敬王으로, 秦忠敬王이라 불린다.
- 11) 李克用(856~908): 당 말 돌궐계 沙陀族 출신의 최대 군벌이자 군사지도자이다. 후당의 건국자 李存勗(재위 923~926)은 그의 아들로 太祖 武帝라 추증되었다. 훗날 明宗이 된 李嗣源의 義父이기도 하다. 당 말기 갈가마귀군[鴉軍]이라 불리는 정예병을 이끌고 황소의 난을 평정하는 큰 공적을 세워 당 조정으로부터 晉王에 봉해졌다. 이후 동료이자 라이벌인 朱全忠과 격렬한 쟁탈전을 벌였다.
- 12) 黃巢(?~884): 당 말 曹州 冤句 사람이며, 반란의 지도자이다. 본래 私鹽을 팔았는데, 進士 시험에 응시했지만 떨어졌다. 5살 때 시를 지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진다. 僖宗 乾符 2년(875) 王仙芝가 반란을 일으키자 무리를 모아 호응하였다. 건부 5년(878) 왕선지가 전사하자 전군을 통솔하면서 衝天大將軍이라 하면서 王霸로 건원하였다. 중원과 강남 등 전국 각지를 전전하면서 전투를 벌였다. 다음 해 嶺南으로 들어가 廣州를 함락하는 등 가는 곳마다 관군을 격파하면서 그를 따르는 무리가 1백만 명을 넘어섰다. 이후 군사를 돌려 북진을 시작해 湖南에 들어가고 湘江을 따라 내려가 鄂州를 지나 동진하였다. 廣明 원년(880) 연이어 饒州와 信州 등지를 장악하였다. 淮水를 건너 북상하면서 率土大將軍이라 부르고 얼마 뒤 天補大將軍으로 바꾸었다. 낙양과 潼關을 함락하고 長安에 입성하여 스스로 황제에 올라 국호를 大齊, 연호를 金統이라 하였다. 부장인 朱溫이 반란을 일으켜서 長安에서 나왔다가 내부의 반란으로 약화되어 中和 4년(884)에 泰山에 이르러 죽었다.
- 13) 李元昊(景宗, 1003~1048; 재위 1038~1048): 서하의 개국황제이다. 탕구트족으로 원래 拓跋氏였다. 李氏

요국(遼國)에서 공주(公主)를 이씨(李氏)에게 시집보내자¹⁴⁾ 대대로 끊이지 않고 조공(朝貢)

姓은 唐에서 하사받은 것이다. 李繼遷의 손자이자 李德明의 큰아들이며, 生母는 衛慕氏이다. 그는 어릴 때부터 기골이 장대하였을 뿐만 아니라 학문에도 크게 힘써서 손에 책을 놓지 않을 정도였다고 한다. 특히 법률서와 병서를 좋아했으며, 漢·蕃 언어에 능통하고 繪畫에도 조예가 깊은 등 다재다능한 모습을 보였다. 그의 부친이 재위할 때 계속 출전하면서 세력을 확대해갔다. 1032년 아버지로부터 계승한 이후 송에 대해 稱藩했지만 이후 독립을 표명하면서 唐과 宋에서 각각 하사받았던 李氏 姓과 趙氏 姓을 버리고 嵬名氏로 성을 고쳤다. 大慶 3년(1038) 10월 11일(11월 10일) 자립하여 황제를 칭하고 송조로부터 분리하여 국호를 '大夏'라 하며 수도를 興慶府에 정하였다. 大臣 野利仁榮에게 명하여 西夏 문자를 만들도록 하여 크게 西夏의 문화를 발전시켰다. 건국 이후 교육을 발전시키고 蕃學을 창달하면서 西夏에서 文教의 풍조를 열었다. 또한 '李王渠'를 개착하면서 西夏의 농경을 촉진시켰다. 특히 3차에 걸쳐서 각각 三川口(오늘날 陝西省 延安의 서북), 好水川(오늘날 寧夏省 隆德의 동쪽) 및 定川砦(오늘날 甘肅省 固原 서북)의 전투에서 북송을 크게 패배시켰으며, 아울러 賀蘭山에서 요와 전투를 벌여서 대승을 거두면서 서하가 요·송 양국과 정립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원래 이원호는 關中 지역을 공격하여 長安을 점령하려는 뜻을 가지고 있었지만 송군의 완강한 저항으로 인한 패배로 실현하지 못하였다. 이렇듯 여러 차례에 걸친 전쟁으로 서하의 경제와 국력이 훼손되자 송 경력 4년(1044)에 마침내 북송과 慶曆和議을 맺고는 宋에 대해 칭신하고 하국왕으로 책봉을 받았다. 그는 서하의 건국에 많은 기초를 쌓았던 일세의 영웅이라 할 만하다. 특히 文武 양 방면에서 모두 탁월한 성과를 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다만 그에게도 단점은 있었는데, 예컨대 재위한 지 16년 만에 공신을 질시하여 약간이라도 불만이 있으면 즉각 파직시키거나 죽였다. 이리하여 공신집단이 거의 제거된 가운데 이후 母黨이 전권을 휘두르는 단초를 제공해주었다. 이 외에 晩年에 酒色에 빠지고 규모가 큰 공사와 공치사하는 것을 좋아하면서 서하 내부의 부패를 야기하였으며, 이반하는 자가 많아지게 되었다. 전하는 말에 따르면 그가 民夫에게 능묘 한 기를 만들도록 하여 가는 족족 360개의 능묘를 만들도록 하여 그의 疑塚으로 삼도록 하였다고 한다. 그 후 이 능묘를 조성했던 민부들을 모두 죽여버렸다 한다. 이원호는 황후 野利氏를 폐하고 太子 寧林格의 妻인 沒藏氏를 빼앗아 새 황후로 삼았지만 이것은 스스로 화를 자초한 꼴이 되어버렸다. 延祚 11년 정월 초(1048. 1. 19) 아들 寧林格이 아버지를 증오한 끝에 이원호가 술에 취한 틈을 타서 그의 숙소로 난입하여 칼로 그의 코를 베어버렸다. 이원호는 도망갔지만 그다음 날 출혈 과다로 사망하니 향년 46세였다. 이후 이원호의 두 번째 부인인 沒藏氏의 동생인 沒藏訛龐이 朝政을 장악하고는 임금을 시해한 죄로 寧林格과 寧林格의 모친이자 이원호에게 폐위된 野利皇后를 죽이고, 沒藏氏의 겨우 한 살된 아들 李諒祚를 皇帝 자리에 올렸으니 바로 西夏의 毅宗이다. 이원호의 재위기간 동안의 尊號는 1. 風帝或風角城皇帝(風角歌皇帝), 2. (始文)盛武(興)法建禮主孝皇帝, 또는 世祖始文本武興法建禮仁孝皇帝, 3. 聖文英武崇仁至孝皇帝이며, 廟號는 景宗이고 諡號는 武烈皇帝이며 泰陵에 장사지냈다.

14) 『遼史』 卷115 「二國外紀」에는 “[통화] 7년(989)에 [이계천이] 와서 공물을 바치자 王子 耶律襄의 딸을 義成公主에 책봉한 다음 이계천에게 시집보냈다”는 기록이 있다. 또한 『宋史』 卷485 「夏國傳」 上에도 “송 태종 옹희 3년(986)에 요는 의성공주(義成公主)를 [이]계천에게 시집보내고 하국왕으로 책봉하였다”고 하였다.

했다는 사실이 『요사(遼史)』에 기재되어 있다.

天輔六年，金破遼兵，遼主走陰山，夏將李良輔將兵三萬來救遼，次天德境野谷，幹魯·婁室敗之于宜水，追至野谷，澗水暴至，漂沒者不可勝計。宗望至陰山，以便宜與夏國議和，其書曰：「奉詔有之：夏王，遼之自出，不渝終始，危難相救。今茲已舉遼國，若能如事遼之日以效職貢，當聽其來，毋致疑貳。若遼主至彼，可令執送。」

[금 태조] 천보(天輔) 6년(1122) 금(金)이 요의 군대를 깨뜨리자 요의 임금인 음산(陰山)¹⁵⁾으로 도망갔다. 하(夏)의 장수인 이량보(李良輔)가 병사 3만을 데리고 와서 요를 구하러 천덕(天德)[군]¹⁶⁾의 경계인 야곡(野谷)에 이르렀다. [완안]알로(幹魯)¹⁷⁾·[완안]누실(婁室)¹⁸⁾이

15) 陰山: 현재의 內蒙古 오르도스 서북의 陰山산맥이다. 음산산맥의 동쪽은 옛날에 陽山·狼山(蘭山)이라 칭했으며, 동쪽 지역은 靑山(大靑山·大斤山)이라 칭한다. 고대에 흉노 등 유목민족과 중원왕조의 경계 지역이었다. 『史記』「匈奴列傳」에는 趙 武靈王이 “築長城，自代並陰山下，至高關爲塞”라고 되어 있고, 『漢書』「匈奴傳」에도 “臣聞北邊塞至遼東，外有陰山，東西千餘里，草木茂盛，多禽獸，本冒頓單于依阻其中，治作弓矢，來出爲寇，是其苑囿也。至孝武世，出師征伐，斥奪此地，攘之於幕北。……邊長老言，匈奴失陰山之後，過之未嘗不哭也”라는 기록이 있다.

16) 天德軍: 唐 乾元 연간(758~759) 大安軍을 바꾸어 설치하였으며, 豐州에 속하였다. 치소는 현재의 內蒙古 烏拉特前旗 동북쪽의 額爾登布拉格 蘇木[som]의 阿拉奔 古城이다. 이후에 서남쪽 3리에 있는 永濟柵로 옮겼다가 다시 서북쪽 180리에 있는 西受降城(현재 烏拉特中旗 話南烏加河的 北岸)으로 옮겼다. 元和 8년(813) 西受降城이 강물에 잠겨서 이듬해에 치소를 大同川 서쪽 舊城으로 옮겼다. 遼 초에 폐지되었다가 다시 설치되었다. 그러다가 얼마 있지 않아 永濟柵로 옮겼으며, 본문에 나오듯이 요의 天祚帝가 이곳으로 도망왔다. 금대에 폐지되었다.

17) 完顏幹魯(?~1128): 金 太祖 阿骨打的 伯父인 韓國公 完顏劼의 셋째 아들이며, 完顏撒改의 동생이고, 秦王 完顏宗翰(粘罕)의 친숙부이다. 金 태조의 형인 康宗 完顏烏雅東이 女眞 完顏部를 다스릴 때 完顏幹魯(金太祖의 동생)을 보좌하면서 曷國部 幹豁의 반란을 토벌하였다. 이후 고려에 출병하여 공을 세우기도 하였다. 金 태조가 金 왕조를 건립하자 完顏闇母(金 태조의 동생), 完顏迪古는 高永昌을 토벌하고 沈州, 遼陽을 함락시키고 金源郡王, 南路都統, 迭勃極烈에 봉해졌다. 燭俛水部 實里古達의 반란을 진압하였고, 粘罕과 함께 西北을 경략하여 西夏軍을 대패시켰다. 粘罕이 북송을 정벌할 때 西路軍으로 되어 完顏幹魯는 西北의 鎮守를 책임졌다. 북송이 멸망하던 해(天會 5년, 1128) 12월 20일 사망하였다. 아들은 完顏撒八이다.

18) 完顏婁室(1078~1130): 女眞 이름은 幹里衍이며, 金初의 명장이다. 21세 때인 宋 哲宗 元符 2년(1099), 부친을 대신해서 七水部長에 임명되었다. 徽宗 政和 4년(1114)에는 完顏阿骨打가 이끄는 抗遼 軍사

그를 의수(宜水)에서 패배시키고 추격하여 야곡에 이르자 간수(澗水)¹⁹⁾가 갑자기 내려와 물에 빠져 죽은 자가 이루 헤아릴 수 없었다. [완안]종망(宗望)이 음산(陰山)에 이르러 멋대로 하국(夏國)과 화의를 의논하였는데 그가 보낸 서신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조령(詔令)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하(夏)의 왕은 요로부터 나와 건립한 이후 처음부터 끝까지 달라지지 않고 위난(危難)에서도 서로 구한다고 하였다. 지금 [우리가] 이미 요국(遼國)을 도모했으니 만약 요를 섬기던 시절을 본받아 칭신 납공[職貢]한다면 오는 것을 당연히 허락해 줄 것이니 의심하거나 다른 마음을 품지 않도록 하라. 만약 요의 임금이 그곳에 온다면 잡아서 보내도록 하라”고 하였다.

天會二年，始奉誓表，以事遼之禮稱藩，請受割賜之地。宗翰承制，割下寨以北·陰山以南·乙室耶刮部吐祿濼之西，以賜之。

[금 태종] 천회(天會) 2년(1124) 처음으로 [맹]서표(盟誓表)를 올렸는데, 요를 섬겼던 예(禮)로 번(藩)을 칭하면서 땅을 떼어 내려줄 것을 청하였다. [완안]종한(宗翰)²⁰⁾이 황제의 명을 받아 하채(下寨)의 이북, 음산(陰山)의 이남, 을실야괄부(乙室耶刮部) 토록락(吐祿濼)의 서쪽을 떼어내어 하사해주었다.

붕기에 가담하였다. 金 天會 3년(1125, 송 宣化 7년) 應州 余都谷에서 遼의 天祚帝를 생포하였다.
19) 澗水: 골짜기에서 흐르는 물.

20) 完顏宗翰(1080~1137): 본명은 黏沒喝, 粘罕이라고도 하며 어릴 때 이름은 鳥家奴였다. 國相이었던 完顏撒改의 큰아들이자 태조의 조카였다. 금의 개국 공신으로 태조·태종·희종의 세 황제를 모셨다. 용기와 지략을 겸비하였으며, 遼 天慶 5년(1115) 完顏阿骨打를 옹립하고 병사를 일으켜 요를 칠 것을 건의하여 마침내 遼軍을 達魯古城에서 대패시켰다. 금 태종이 제위를 계승하자 송을 공격할 것을 건의하였다. 금 天會 3년(1125) 대거 송을 공격하여 황하를 건넜으며, 天會 5년(1127)에 遼의 말제와 북송의 휘종·흠종 두 황제를 포로로 사로잡았다. 天會 14년(1136)에 병으로 사망하였다. 金 正隆 2년(1157)에 金源郡王에 봉해졌으며, 금 世宗 大定 연간(1161~1189)에 秦王으로 추증되고, ‘桓忠’이라는 시호가 더해졌으며, 태조의 묘에 배향되었다. 『金史』 卷74 「宗翰傳」에 “안으로는 나라를 능히 도모하고, 밖으로는 적을 도모하였으며, 결정적인 대책으로 승리를 이끌어내는 옛 명장의 풍모를 지녔다. 그의 자태와 외모는 영웅호걸의 그것으로 말 위에서 검을 다루는 것을 매우 잘하였다(內能謀國, 外能謀敵, 決策制勝, 有古名將之風. 他姿貌雄傑, 善於馬上用劍)”고 평하고 있다.

天會二年三月，乾順遣把里公亮等來上誓表，曰：「臣乾順言：今月十五日，西南·西北兩路都統遣左諫議大夫王介儒等齎牒奉宣，若夏國追悔前非，捕送遼主，立盟上表，仍依遼國舊制及賜誓詔，將來或有不虞，交相救援者。臣與遼國世通姻契，名係藩臣，輒爲援以啟端，曾犯威而結讐。既速違天之咎，果罹敗績之憂。蒙降德音以寬前罪，仍賜土地用廣藩籬，載惟含垢之恩，常切戴天之望。自今已後，凡於歲時朝賀·貢進表章·使人往復等事，一切永依臣事遼國舊例。其契丹昏主今不在臣境，至如奔竄到此，不復存泊，卽當執獻。若大朝知其所在，以兵追捕，無敢爲地及依前援助。其或徵兵，卽當依應。至如殊方異域朝覲天闕，合經當國道路，亦不阻節。以上所敘數事，臣誓固此誠，傳嗣不變，苟或有渝，天地鑒察，神明殛之，禍及子孫，不克享國。」所謂西北·西南兩路都統者宗翰也。蓋宗望以太祖命與之通書，而宗翰以便宜割地議和云。

[태종] 천회(天會) 2년(1124) 3월²¹⁾ [이]건순이 파리공량(把里公亮) 등을 파견하여 서표(誓表)를 올려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신(臣) [이]건순이 말씀드립니다. 이번 달 15일 [금]의 서남·서북 양로(兩路) 도통(都統)²²⁾이 좌간의대부(左諫議大夫) 왕개유(王介儒) 등에게 공문을 가지고 보내어 명령하기를, 만약 하국(夏國)이 이전의 과오를 뉘우쳐 요 임금을 붙잡아 보내고, 맹서하여 표문을 올린다면 요국(遼國)의 옛 제도에 따라 서조(誓詔)를 하사할 것이며, 장래에 혹시 좋지 않은 일이 있더라도 서로 구원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신은 요국(遼國)과 대대로 통혼하며 인연을 맺으며 명목상 번신(藩臣)으로 되었지만 빈번히 문제가 생겨 일찍부터 사단이 생겨 사이가 벌어졌습니다. 이미 하늘의 뜻을 어긴 허물을 받아들였으며, 마침내 거듭된 패배의 우환에 빠져 있습니다. 덕음(德音)을 내려주셔서 예전의 죄과를 너그러이 해주시는 은혜를 입었으며, 토지를 하사해주셔서 경계가 넓어지게 되었으니 잘못된 것을 용서해주신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항상 깊이 하늘의 은혜를 입은 것에 대해 우러러보고 있습니다.

21) 天會二年三月：『金史』「校勘記」에 따르면 원래는 3월이 빠져 있었는데, 그렇게 하면 다음 문장의 ‘今月十五日’에서 ‘今月’이 어떤 달인지 알 수 없게 된다. 뿐만 아니라 『金史』卷3「太宗紀」天會二年三月‘辛未，夏國王李乾順遣使上誓表’와 『金史』卷60「交聘表」에도 ‘三月，夏使把里公亮來上誓表’라 되어 있다. 이에 의거해서 3월을 보충하였다.

22) 都統：唐 후기에 諸道行營都統을 두어 各道の 군대가 藩鎮을 토벌하는 일을 통령하도록 했던 것이어서, 遼·金에서도 변방을 토벌할 때 都統이라는 직책을 주어 임무를 총괄하도록 하였다.

지금 이후 해마다 조하(朝賀)²³⁾를 드리고 표장(表章)²⁴⁾을 바치고 사인(使人)을 왕복하는 등의 모든 일을 일체 신하로서 요국(遼國)을 섬기던 구례(舊例)에 영원히 따르도록 하겠습니까. 거란의 어리석고 용렬한 군주는 지금 신의 나라의 경계 안에 있지 않으며, 만약 이곳으로 취새끼처럼 도망쳐온다면 다시는 머물지 못할 것이며 즉시 잡아 올릴 것입니다. 만약 대조(大朝, 금)에서 그의 소재를 알아서 병사를 동원해 추격하여 잡으려 한다면 감히 배후에서 지지하거나 이전처럼 도와주지 않을 것입니다. 혹시 병사를 보내어 정벌하려 하신다면 즉시 의례에 따라 응할 것입니다. 만약 멀리 떨어진 이역(異域)에서 천조(天朝)의 궁궐에 조근(朝覲)하기 위해 마땅히 우리나라의 도로(道路)를 경유해야 한다면 또한 막지 않을 것입니다. 이상에 서술한 바의 몇 가지 일은 신(臣)이 이토록 정성을 다하여 굳게 맹서하며 세대가 바뀌어도 변하지 않을 것이며, 만약 여기는 바가 있으면 천지(天地)가 알아차리고神明(神明)이 죽일 것이며, 그 화가 자손에까지 미쳐서 나라를 유지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른바 서북·서남 양로 도통이라는 자는 [완안]종한(完顏宗翰)이다. 대개 [완안]종망(完顏宗望)²⁵⁾은 [금]태조(太祖)의 명을 그에게 주어 서찰로 통보한 것이지만 [완안]종한은 멋대로 땅을 떼어준다는 것으로 화의를 논의하였다.²⁶⁾

太宗使王阿海·楊天吉往賜誓詔曰：「維天會二年歲次甲辰，閏三月戊寅朔，皇帝賜誓詔於夏國王乾順；先皇帝誕膺駿命，肇啟鴻圖，而卿國據夏臺，境連遼右，以效力於昏主，致結釁於王師。先皇帝以謂忠於所事，務施恩而釋過，迨眇躬之纂紹，仰遺訓以遵

23) 朝賀: 朝廷에 나아가 임금에게 賀禮하는 것.

24) 表章: 신하가 임금에게 바치는 문장.

25) 完顏宗望(?~1127): 본명은 翰魯補 또는 翰離不이다. 金太祖(完顏阿骨打)의 차남이자 건국 공신이다. 金 건국 이전, 完顏阿骨打의 원정에 종사하면서 항상 측근으로 있었다. 金 天輔 6년(1122), 병사를 이끌고 遼의 天祚帝(耶律延禧)를 추격하여 공을 세웠다. 太祖를 따라 燕都를 평정하여 副都統으로 되었다. 다음 해에 천조제의 군대를 대파하였다. 天會 3년(1125), 平州에서부터 진격하여 宋을 공격하였는데, 三河縣에 이르러 郭藥師의 軍을 白河에서 깨뜨렸다. 다음 해 정월, 汴京을 포위하여 宋을 압박하여 姪이라 칭하게 하였다. 8월에는 右副元帥로 되어 다시 宋을 공격하였다. 12월 左副元帥 完顏宗翰과 함께 북송을 멸망시켰다. 군사를 북으로 귀환시킨 얼마 후 병으로 사망하였다.

26) 본문에서는 나오지 않지만 『송사』〈하국전〉 하에 “天德軍, 雲內軍, 金肅軍, 河清軍 등 4軍 및 武州 등 8館을 할양해줄 것을 허락하였다”고 되어 있다(동북아역사재단 편, 2011: 172~173).

行, 卿乃深念前非, 樂從內附, 飭使輶而奉貢, 效臣節以稱藩. 載錫寵光, 用彰復好, 所有割賜地土·使聘禮節·相爲援助等事, 一切恭依先朝制詔. 其依應徵兵, 所請宜允. 三辰在上, 朕豈食言, 苟或變渝, 亦如卿誓. 遠垂戒諭, 毋替厥誠。」

[금] 태종(太宗)²⁷⁾은 왕아해(王阿海)·양천길(楊天吉)을 사신으로 보내어 서조(誓詔)를 하사하여 말하였다. 즉, “[태종] 천회(天會) 2년(1124) 갑진(甲辰)년 윤 3월 무인(戊寅) 초하루에 황제(皇帝)가 하국왕(夏國王) [이]건순(乾順)에게 서조(誓詔)를 내려준다. 선황제(先皇帝)께서 하늘의 명(駿命)을 이어받아²⁸⁾ 대업(鴻圖)을 여셨는데, 너희 나라는 하(夏) 땅에 근거해 요나라 서쪽 지역과 국경이 이어져 있었다. [요나라의] 어리석은 임금을 섬기는 데에는 힘을 다하면서 우리 군대와 적대시하기에 이르렀다. 선황제(先皇帝)께서 너희들이 모시던 데에 충성한다고 여기시며 은혜를 베풀고 죄과를 용서하여 주셨으니, 내가 선제의 위업을 이어받기에 이르러, 유훈(遺訓)을 받들어 그에 따라 행할 것이다. 경(卿)은 이에 이전의 과오를 깊이 생각하여 즐겁게 내부(內附)하여 따를 것이며, 사신의 수레를 정비하여 조공을 바치도록 하고 번(藩)으로 칭(稱)하도록 하라. 은총(恩寵)과 광휘(光輝)를 내려줄 것이니 그것으로 다시 좋아졌다는 사실을 드러내도록 하라. 떼어내서 하사해준 모든 영토, 사신이 조빙(朝聘)하는 예절, 서로 돕기로 하는 일 등은 일체 선조의 제조(制詔)에 따라 공순하게 따라 하여야 할 것이다. 당연히 병사를 징발해야 하는 경우 청하는 바에 따라 마땅히 윤택해 줄 것이다. [해와 달, 별] 삼신(三辰)이 하늘에 있으니 짐(朕)이 어찌 헛된 말을 하겠는가. 만약 변하는 바가 있다면 또한 경(卿)의 맹서대로 될 것이다. 영원히 계유(戒諭)²⁹⁾를 잊지 말고 그 성의를 변치 않도록 하라”고 하였다.

27) 金太宗(完顏晟, 1075~1135; 재위 1123~1135): 금의 제2대 황제로, 여진족 본명은 吳乞買이며 시호는 體元應運世德昭功哲惠仁聖文烈皇帝이다. 금 태조 阿骨打的 동복 동생으로 烏古廝의 손자 劄里鉢의 4남으로 태어났다. 백부로는 劄者, 숙부로는 高宗으로 추증된 旽歌가 있었다. 형인 금 태조를 보좌하다가 형의 사후 황제로 즉위하였다. 재위기간 동안 송과 동맹을 맺고 요를 멸망시키고 천회 5년(1127) 북송의 수도인 開封을 공격하여 휘종·흠종 등을 금나라로 데리고 왔다. 이처럼 그는 요와 북송을 멸망시키는 업적을 이루어내었지만 종실 내에서의 권력기만이 취약하여 결국 형인 태조의 적손에 해당하는 熙宗에게 황위를 양위하였다.

28) 駿命: 大命. 하늘 또는 帝王의 명령.

29) 戒諭: 경계함을 알려주고, 깨우침을 인도한다는 뜻.

於是，宋人與夏人俱受山西地，宋人侵取之，乾順遣使表謝賜誓詔·并論宋所侵地。詔曰：「省所上表，具悉，已命西南·西北兩路都統府從宜定奪。」是時，宗翰朝京師未還，錄夏國奏付權都統幹魯，宋人侵略新受疆土·及使人王阿海爭儀物事，與夏通問以便宜決之。

이때에 송인(宋人)과 하인(夏人)들이 모두 산서(山西)의 땅을 받게 되자 송인들은 [하인들이 받은] 지역을 침범해서 차지하려 하였다. [이]건순이 사신을 보내어 하사해준 [금 태조의] 서조(誓詔)에 대해 감사를 표하고 아울러 송이 침범한 땅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에 금 황제가] 조를 내려 말하기를 “올려 보낸 표문(表文)은 모두 이해했으며, 이미 서남·서북 양로도통부(兩路都統府)에 명하여 적당하게 탈환하라고 하였다”고 하였다. 이때 [완안]종한(完顏宗翰)은 경사(京師)³⁰에 조견(朝見)하러 갔다가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 하국의 상주문을 초록하여 권도통(權都統)인 [완안]알로(完顏幹魯)에게 보내어 송인들이 [하나라가] 새로 받은 강토(疆土)를 침략한 일과 사인(使人) 왕아해(王阿海)가 의물(儀物)에 대해 다툰 일 등을 하와 통문(通問)하여 상황에 따라 처리하도록 하였다.

初，以山西九州與宋人，而天德遠在一隅，緩急不可及，割以與夏。後破宋都獲二帝，乃畫陝西分界，自麟府路洛陽溝東距黃河西岸·西歷暖泉堡，廊延路米脂谷至累勝寨，環慶路威邊寨過九星原至委布谷口，涇原路威川寨略古蕭關至北谷川，秦鳳路通懷堡至古會州，自此直距黃河，依見今流行分熙河路盡西邊以限封域。復分陝西北鄙以易天德·雲內，以河爲界。

이전에 산서(山西)의 아홉 주(州)를 송인(宋人)에게 주었지만 천덕(天德)은 멀리 한구석에 치우쳐 있어 긴급할 때 미치지 못하자 떼어내어 하에게 주었다.³¹⁾ 이후 송의 수도를 공격하여

30) 여기서는 당시 금의 수도인 상경회녕부를 의미한다.

31) 『宋史』卷486「夏國傳」 하에는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欽宗이 즉위하자 사신을 보내와서 正日을 축하 해주었다. 이보다 앞서 金인들이 遼를 멸하였으며, 黏罕은 撒扈를 하국에 사신으로 파견하여 보내

두 황제를 사로잡자³²⁾ 이에 섬서를 나누어 경계로 삼았다. 인부로(麟府路)³³⁾의 낙양구(洛陽溝)에서 동쪽으로 황하(黃河) 서안에 이르기까지 서쪽으로는 난천보(暖泉堡)를 거쳐 부연로(鄜延路)³⁴⁾의 미지곡(米脂谷)에서 누승채(累勝寨)에 이르기까지, 환경로(環慶路)³⁵⁾는 위변채(威邊寨)를 지나 구성원(九星原)을 경유하여 위포곡(委布谷) 입구에까지, 경원로(涇原路)³⁶⁾는 위천채(威川寨)를 돌아 옛 소관(蕭關)에서 북곡천(北谷川)³⁷⁾까지, 진봉로(秦鳳

天德·雲內·金肅·河清의 네 軍 및 武州 등의 8館의 땅을 할양해줄 것을 허락하였으며, 麟州를 쳐서 河東의 형세를 견제할 것을 약속하였다. 靖康 원년(1126) 3월 하인들이 마침내 금숙·하청에서 황하를 건너 천덕·운내·무주·하동 [등] 8관의 땅을 취하였다(欽宗即位, 遣使來賀正旦. 先是, 金人滅遼, 黏罕遣撒母使夏國, 許割天德·雲內·金肅·河清四軍及武州等八館之地, 約攻麟州, 以牽河東之勢. 靖康元年三月, 夏人遂由金肅·河清渡河取天德·雲內·武州·河東八館之地).”(동북아역사재단 편, 2011: 172~173)

- 32) 北宋 欽宗 靖康 연간(1126~1127)에 수도인 開封이 金 군대의 공격을 받아 함락되고 휘종과 흠종이 金의 군대에 사로잡혀 가면서 북송이 멸망하게 된 사건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靖康의 變'이라 한다.
- 33) 麟府路: 송은 지방 일급 행정구역인 路와 별도로 변경 지역의 군사 방위를 강화하기 위해 軍事路를 구획하였다. 이 軍事路는 행정상의 路를 세분화한 것이다. 慶曆 원년(1041)에 설치된 秦鳳·涇原·環慶·鄜延 등의 陝西省 4路와 慶曆 8년(1048)에 설치된 大名府·高陽關·鎮定府·定州 등의 河北 4路와 熙寧 5년(1072)에 설치된 熙河路 등은 經略安撫使를 장관으로 하는 軍事路이다. 麟府路는 麟州와 府州 지역을 핵심으로 설치되었으며, 豐州가 宋의 영역에 들어오면서 풍주도 관할 지역으로 되었다. 인부로 지역은 황하가 오르도스를 돌아 南流하는 河曲 지역의 서쪽 지역인 이른바 河外의 땅에 위치하면서 党項族과 遼 지배하의 蕃夷들이 교잡하는 지역이었다. 麟府路에서 黃河의 도하지가 바로 府州이다. 인부로의 치소는 府州에 설치되었으며, 설치 시기는 태종 지도 2년(996)에 이계천이 송의 서북 변경지대를 침공하자 송이 도총관 등의 관을 파견하여 군정계획으로서 麟府路를 설치하였다. 이 인부로는 지도 3년(997) 전국 행정구획 지역구분으로 설치되었던 15로가 성립된 이후에도 하동로의 서북 변경지대의 군정구획으로서 존속하면서 국방상의 전진기지로 되었다(畑地正憲, 1992: 414~418).
- 34) 鄜延路: 북송 慶曆 원년(1041)에 설치되었으며, 치소는 延州에 있었다. 관할 구역은 오늘날 陝西省 宜川·黃龍·洛川·宜君縣의 북쪽과 淸澗河 남쪽 지역이다.
- 35) 環慶路: 북송 慶曆 원년(1041) 陝西路를 나누어 環慶路 經略安撫使를 두었으며, 치소는 慶州(후에 慶陽府로 승격, 오늘날 甘肅省 慶陽縣)이다. 관할 구역은 현재 陝西省의 長武·武功·旬邑·禮泉 등 현의 지역과 甘肅省 環江, 馬蓮河 유역 동쪽이다. 元豐 연간(1078~1085) 및 宣和 연간(1119~1125) 이후에 轉運使가 설치되었다. 金 皇統 2년(1142)에 慶源路로 바꾸었다.
- 36) 涇原路: 북송 康定 2년(1041)에 經略安撫使가 설치되었으며, 치소는 涇州(오늘날 甘肅省 平涼市)이다. 관할 영역은 지금의 甘肅省 蒲河 서쪽, 葫蘆河 동쪽, 張家川 回族自治縣 북쪽 및 寧夏의 固原·隆德·涇源·西吉 등 지역이다. 철종 元符 연간(1098~1100) 이후 관할 영역이 확대되었다. 元豐 연간(1078~1085)과 宣和 연간(1119~1125) 이후 각각 한번 轉運使가 설치되기도 하였다. 金 皇統 2년(1142) 폐지되

路)³⁸⁾는 통회보(通懷堡)에서 옛 창주(倉州)에 이르며, 여기에서부터 직선으로 황하까지, 현재 물길의 흐름에 따라 희하로(熙河路)³⁹⁾를 나누어 모든 서쪽⁴⁰⁾ 지역은 봉역(封域)으로 나누어 정해주었다. 또한 다시 섬서의 북쪽 귀툽이를 천덕(天德)⁴¹⁾·운내(雲內)⁴²⁾와 바꾸었는데, 황하를 경계로 한 것이다.

及婁室定陝西，婆盧火率兵先取威戎城。軍至威戎東與敵遇，擊走之，生致二人，問之，乃知爲夏將李遇取威戎也，乃還其人而與李遇通問。李遇軍威戎西，蒲察軍威戎東，而使使議事於婁室。婁室報曰：「元帥府約束，若兵近夏境，則與夏人相爲犄角，毋相侵犯。」李遇使人來曰：「夏國旣以天德·雲內歸大國，大國許我陝西北鄙之地，是以至此。」蒲察等遂旋軍。睿宗旣定陝西，元帥府不欲以陝西北鄙與夏國，詔曰：「卿等審處所宜從事。」

었다. 한편 원래 涇原路의 '路'가 빠져 있었다. 이것을 『金史』 卷26 「地理志」에 이 사건이 '涇原路威川寨 略古蕭關至北谷川'라 되어 있어 '路'를 보충하였다. 『金史』 「校勘記」 참조.

37) 원문에서 '涇原路'의 '路'字가 빠져 있었는데, 『金史』 卷26 「地理志」에 '涇原路威川寨'이라 되어 있어 고친 것이다. 『金史』 「校勘記」 참조.

38) 秦鳳路: 북송 熙寧 5년(1072)에 陝西路에 설치하였으며, 熙寧 23路의 하나이다. 치소는 秦州(오늘날의 甘肅省 天水市)이다. 관할 영역은 현재의 寧夏 苦水溝, 雲霧山과 甘肅省의 蒲河, 陝西省의 賈趙河 서쪽 長城 남쪽, 秦嶺·蟠塚山·岷山 북쪽과 青海의 日月山·達阪山 동쪽 지역이다. 金 皇統 2년(1142)에 폐지되었다.

39) 熙河路: 북송 熙寧 5년(1072)에 설치하였으며, 經略安撫使를 두었다. 치소는 熙州로 오늘날 甘肅省 臨洮縣이다. 관할 영역은 熙·河·洮·岷 등 4州 및 通遠軍이었으며, 오늘날 甘肅省 大夏河·洮河 유역 및 渭河 상류 甘穀縣 서쪽 지역, 西漢水와 白龍江 상류의 西和·禮縣·宕昌 등의 縣 지역이다. 이후 蘭·會 2州가 더해져, 熙河蘭會路로 되었다. 元祐 연간(1086~1093)에는 熙河蘭岷路로 되었다가 元符 연간(1098~1100)에 다시 환원되었다. 이후 또 熙河蘭廓路로 되었다가 宣和 연간(1119~1125)에 다시 熙河隴廓路로 복귀되었다. 이후 隴州를 고쳐 樂州로 하였다가 다시 熙河蘭樂路로 하였고, 얼마 있다가 熙河蘭廓路로 고쳤다. 관할하였던 영역은 서쪽으로는 오늘날 青海 湟水 유역과 黃河 상류 貴德縣 일대이다. 金 皇統 2년(1142) 秦鳳路·熙河路를 합하여 熙秦路가 되었다.

40) 원문에서 '西邊'은 '四邊'으로 되어 있었다. 그런데 『金史』 卷26 「地理志」에 '依見流分熙河路盡西邊'이라 되어 있다. 이에 근거해 '西邊'으로 고친 것이다. 『金史』 「校勘記」 참조.

41) 天德軍: 오늘날 內蒙古 烏拉特前旗 북쪽 五加河 동안에 위치한다.

42) 雲內軍: 오늘날 內蒙古 土默特左旗이다.

[완안]누실(完顏婁室)이 섬서를 평정할 때 파로화(婆盧火)가 군대를 이끌고 먼저 위용성(威戎城)⁴³⁾을 취하였다. 군대의 행렬이 위용[성]의 동쪽에 이르렀을 때 적군과 조우하자 그들을 격퇴시키고 두 명을 사로잡아 물어보았는데, 이에 하의 장수인 이우(李遇)가 위용을 취하려 한 것임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사람을 보내서 이우와 통하여 물어보도록 하였다. 이우의 군대는 위용의 서쪽에서, 포찰(蒲察)의 군대는 위용의 동쪽에서 사자(使者)를 보내 [완안]누실과 함께 일을 의논하였다. [완안]누실이 알려주기를 “원수부(元帥府)에서 [우리]와 약속하기를 만약 병력이 하의 국경에 가까이 가면 하인(夏人)들과 서로 도와 적을 견제하도록 하며, 침범하지 않도록 하였다”고 하였다. 이우는 사람을 보내와 말하기를 “하국(夏國)은 이미 천덕(天德)·운내(雲內)를 대국(大國, 金)에 귀속시켰는데, 대국은 우리에게 서북쪽의 귀퉁이 땅만 허락해주었습니다. 이로 인해 이렇게 된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포찰 등이 마침내 군대를 돌렸다. 예종(睿宗)⁴⁴⁾이 이미 섬서를 평정했는데, 원수부(元帥府)가 섬서 북쪽의 귀퉁이 땅을 하국에 주려고 하지 않자 [태종이] 조(詔)를 내려 “경(卿) 등이 잘 살펴서 마땅한 바대로 일을 처리하도록 하라”고 하였다.

동북아역사재단

天眷二年，國王乾順薨，子仁孝立，遣使冊命，加開府儀同三司上柱國。皇統元年，請置權場許之。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희종] 천권(天眷) 2년(1139) [하의] 국왕인 [이]건순(李乾順)이 죽자 아들인 [이]인효(仁孝)⁴⁵⁾가 즉위하였다. 사신을 파견하여 책명(冊命)⁴⁶⁾하였으며, 개부의동삼사상주국(開府儀

43) 威戎城: 北宋에서 설치하였고, 延安府에 속하였다. 현재의 陝西省 子長縣 북쪽이다. 『宋史』 「地理志」 〈延安府〉에 威戎城은 “地本升平塔, 紹聖四年賜名”이라 되어 있다.

44) 金 睿宗(1096~1135): 은 그의 아들인 금 세종이 즉위한 후 諡號를 立德顯仁啟聖廣運文武簡肅皇帝로, 廟號를 睿宗으로 추존한 것에 따른 명칭이며, 실제 황제는 아니었다. 본명은 完顏宗輔이며, 이후 完顏宗堯로 개명하였다. 여진 이름은 訛里朵이며, 金 太祖 完顏阿骨打的 셋째 아들이다.

45) 李仁孝(1124~1194; 재위 1139~1194): 서하의 仁宗으로 5대 황제이다. 崇宗의 장자이며 모친은 漢人이다. 16세에 즉위하였다. 재위기간에 금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외부환경을 안정화시켰다. 학술과 문화를 중시하여 학교를 설립하였고, 과거를 시행하여 인재를 선발하였다. 유학을 존숭하여 孔廟를 건립하고 공자를 文宣帝라 칭하고 받들었다. 翰林學士院을 건립하여 역조의 실록을 편찬하였고, 예악을 중시하였으며 樂書를 수찬하였다. 『新律』과 함께 天盛 연간(1149~1170)에 『天盛年改新定律令』이라

同三司上柱國)을 더해주었다. [희종] 황통(皇統) 원년(1141) 각장(樵場)⁴⁷⁾을 설치해줄 것을 청하자 허락해주었다.

初，王阿海等以太宗誓詔賜夏國，乾順以契丹舊儀見使者，阿海不肯曰：「契丹與夏國甥舅也，故國王坐受，使者以禮進。今大金與夏國君臣也，見大國使者當如儀。」爭數日不能決，於是始起立受焉。厥後不遣賜生日使，至是始遣使賜之。

이전에 왕아해(王阿海) 등이 태종(太宗)의 서조(誓詔)를 하국에 하사해줄 때 [이]건순은 거란(契丹)의 옛 의례로 사자(使者)를 접견하였는데, [왕]아해가 수긍하지 않으면서 말하기를 “거란과 하국은 아저씨와 조카 관계였기 때문에 국왕이 앉아서 명을 받았고, 사자도 예로 나아가 뵈었습니다. 지금 대금(大金)과 하국은 군신(君臣)관계입니다. 대국의 사자를 만나면 마땅히 의례(儀例)에 따라야 합니다”라고 하면서 며칠을 다투었지만 해결되지 않았다. 그래서 이때 처음으로 일어서서 명을 받았다. 그 후에는 생일 예물을 보내주는 사신을 파견하지 않았다가 이때에 이르러 비로소 사신을 파견하여 하사해주었다.

初，慕洵以環州降，及割陝西·河南與宋人，洵奔夏國，夏人以為山訛首領。及撒離喝再定陝西，洵思歸，夏人知之，遂族洵，以表聞，詔書責讓之。及海陵弒熙宗，遣使報諭

는 법전을 간행하였다. 佛教도 존중하여 西藏의 라마교 승려를 國師로 삼고 아울러 각종 불경을 간행하였다. 乾祐 원년(1171), 금의 도움으로 權相 任得敬을 처단하여 그가 나라를 쪼개려는 음모를 막았다. 그의 통치기간은 서하의 전성기라고 할 수 있다. 54년 동안 재위하였으며, 시호는 聖德皇帝, 廟號는 仁宗이다.

46) 冊命: 황제가 자신의 계승자나 후비, 제왕 등을 봉하는 명령 또는 그 일을 의미함.

47) 樵場: 송대에 북쪽과 서쪽에 있는 이민족과 교역하기 위해 국경에 둔 시장을 지칭하던 용어로, 樵畺라고도 한다. 북송 태종 太平興國 2년(977) 거란과의 교역을 위해 설치한 것을 시초로, 관무역과 밀무역이 함께 이루어졌다. 진종 景德 4년(1008)에 西夏와의 경계에 두었고, 남송 고종 紹興 12년(1142)에는 金과의 경계에 설치하였다. 고려와 거란, 금과 서하 등 다른 왕조에서도 국경무역에서의 시장을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하였다.

至境上，夏人問曰：「聖德皇帝何爲見廢。」不肯納。朝廷乃使有司以廢立之故移文報之。天德二年七月，夏使禦史中丞雜辣公濟等來賀，如舊禮。

이전에 모유(慕洧)가 환주(環州)를 들어 투항하자 섬서(陝西)·하남(河南)을 송인(宋人)들에게 주자 [모]유가 하국(夏國)으로 도망갔는데, 하인(夏人)들은 산와(山訛)의 수령(首領)이라 여겼다. 살리갈(撒離喝)이 다시 섬서를 평정했을 때 [모]유가 돌아갈 생각이 있었는데, 하 사람들이 그것을 알고 [모]유의 일족들을 주살하고는 사신을 파견하여 보고하자 [희종은] 조서(詔書)를 내려 책망하였다. 해릉왕(海陵王)⁴⁸이 희종(熙宗)⁴⁹을 시해한 다음 알려주려고 사신을 보내 국경에 도착하였는데, 하인들이 “성덕황제(聖德皇帝)는 왜 폐위되었습니까?”라고 묻고는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다. 조정에서는 이에 유사(有司)를 보내어 폐립(廢立)의 원인을 문서로 만들어 통보하였다. [해릉왕] 천덕(天德) 2년(1150) 7월 [서]하는 어사중승(御史中丞) 잡랄공제(雜辣公濟) 등을 파견하여 축하하러 보내왔는데, 예전의 의례대로 하였다.

正隆末伐宋，宋人入秦·隴，夏亦乘隙攻取盩厔·通峽·九羊·會川等城寨，宋亦侵入夏境。世宗即位，夏人復以城寨來歸，且乞兵復宋侵地，詔書嘉獎，仍遣吏部郎中完顏達吉體究陝西利害。邊吏奏，夏人已歸城寨，而所侵掠人口財畜尚未還，請索之。大定四年二月甲申，夏遣其武功大夫紐臥文忠等賀萬春節，入見，附狀奏告，略曰：「衆軍破蕩之時，幸而免者十無一二，繼以凍餒死亡，其存幾何。兼夏國與宋兵交，人畜之被俘戮

48) 海陵王(完顏亮, 1122~1161; 재위 1149~1161): 금나라의 제4대 황제로 金太祖完顏阿骨打庶長子인 遼王宗幹의 차남이다. 자는 元功, 迪古乃[디구나이]이며, 황제 즉위 전의 왕호가 해릉왕이다. 시호는 楊, 또는 廢皇帝, 연호는 天德이며, 어머니는 大氏이고 황후는 여진 귀족 徒單斜也의 딸인 從單皇后이다. 28살의 나이에 사촌형제인 熙宗을 살해하고 황위를 찬탈했다. 열렬한 중국 문화 애호가였으며, 중국인을 중용하여 국가기구의 중국화와 황제권의 독재화를 도모하였다. 南宋 평정을 꾀해 남벌군을 일으켜 출병하였으나, 실패로 돌아갔고 오히려 반란군에게 시해당한 뒤 폐위되었다.

49) 金熙宗(完顏亶, 1119~1150; 재위 1135~1150): 금의 3대 황제로 여진 이름은 劄剌。金太祖完顏阿骨打的 嫡長孫이며, 아버지는 太祖의 嫡長子인 完顏宗峻이고, 어머니는 蒲察氏이다. 皇統 9년 12월 9일(1150. 1. 9) 右丞相인 海陵王完顏亮에게 시해당했으나, 당시 31세였다.

亦多，連歲勤動，士卒暴露，勢皆賸削。又坐爲宋人牽制，使忠誠之節無由自達，中外咸知，願止約理索，聽納臣言，不勝下國之幸。」其後屢以爲請，詔許之。

[해릉왕] 정릉(正隆) 연간(1156~1169) 말엽에 송을 정벌하자 송인들이 진(秦)⁵⁰·농(隴)⁵¹으로 [공격하여] 들어왔으며, 하도 이 틈을 타서 탕강(盪羌)⁵²·통협(通峽)⁵³·구양(九羊)⁵⁴·회천(會川)⁵⁵ 등의 성채(城寨)를 공격하여 취하였으며, 송도 하의 경계를 침입하였다. 세종(世宗)⁵⁶이 즉위하자 하인들이 다시 성채를 가지고 돌아왔으며, 또한 [금의] 군대가 송이 [하의 영역을] 침범한 지역을 회복시켜줄 것을 청하였다. 가상하다고 칭찬하는 조서(詔書)를 내렸으며, 이에 이부랑중(吏部郎中)인 완안달길(完顏達吉)⁵⁷를 파견하여 섬서 지역의 이해

50) 秦: 陝西省 지역을 의미함.

51) 隴: 甘肅省 지역을 의미함.

52) 盪羌: 北宋 秦鳳路 懷德軍에 속하는 성채이다.

53) 通峽: 北宋 秦鳳路 懷德軍에 속하는 성채이다.

54) 九羊: 北宋 秦鳳路 懷德軍에 속하는 성채이다.

55) 會川: 北宋 秦鳳路 會州에 속하는 성채이다.

56) 金 世宗(完顏雍, 1123~1189; 재위 1161~1189): 금의 제5대 황제이다.太祖 阿骨打的 손자로 금 제일의 명군으로 평가된다.兵部尙書를 거쳐 海陵王 때에 東京留守로 임명되었다. 1161년 해릉왕이 南宋을 침공하자 거란인들이 고된 전쟁에 불만을 품고 반란을 일으켰다. 혼란의 와중에 해릉왕의 전제정치에 반대하는 반란이 일어나 해릉왕 正隆 6년(1161)에 황제로 옹립되었다. 즉위 후 세종은 국내외의 안정에 주력해 대외적으로는 남송군을 패배시킨 다음 강화조약을 체결하여 평화로운 국제관계를 정립했으며 거란인의 반란을 진압하여 국내 질서를 회복하였다. 국가재정 방면에서도 중앙의 지출을 줄이고 부패한 관리를 숙정하였으며 농민을 보호하여 농업생산을 발전시켰다. 새로운 조세제도를 만들어 재정수입을 늘이고 백성의 세금을 감면시켜주었다. 광산세와 상세를 폐지시켜 수공업과 상업도 크게 발전되었다. 이런 정책으로 인해 나라의 재정이 풍족해졌고 정치적 상황도 안정되어갔다. 이리하여 세종은 고대의 이상군주인 堯舜에 비유되는 영예를 얻기도 했다. 세종은 중국적인 정책을 펴면서도 한편으로는 이민족 지배자로서 중국인에게 동화되어가는 女眞人을 보호하는 데도 힘썼다. 토지정리를 단행해 몰락해가던 猛安謀克戶에게 토지를 지급했고, 女眞의 풍속을 장려하고 여진인의 관리 등용의 길도 넓혔다. 대정 29년(1189) 병으로 세상을 떠났으니 재위 29년만이었다.

57) 完顏達吉: 원문에서 '完顏達吉'은 원래 '完顏達吉'라 되어 있었다. 하지만 完顏達吉는 宣宗 때의 인물이며, 深州刺史·陝西按撫使 등의 관직을 지냈던 인물로, 『金史』 卷113에도 「完顏賽吉不傳」이 있지만 연대가 맞지 않다. 그런데 『金史』 卷61의 「交聘表」에 “大定二年十二月辛未, 以夏乞兵復宋侵地, 遣尙書吏部郎中完顏達吉體究陝西利害”라고 되어 있다. 이에 의거해서 '完顏達吉'로 고쳤다. 『金史』 卷134

(利害)에 대해 직접 조사해보도록 하였다. 변방의 관리가 상주하기를 하인(夏人)들이 이미 성채는 돌려주었지만 침략하여 노략질해간 사람들과 재산, 가축 등은 아직 돌려주지 않았다고 하면서 찾아야 한다고 청하였다. [세종] 대정(大定) 4년(1164) 2월 갑신(甲申)일에 하는 무공대부(武功大夫)인 유와문충(紐臥文忠)⁵⁸⁾ 등을 파견하여 만춘절(萬春節)⁵⁹⁾을 축하하러 입견(入見)하면서 상주문을 올려 말했는데, 대략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중군(衆軍)이 탕(蕩)을 깨뜨렸을 때에 요행히 난을 면한 자가 열에 한둘도 되지 않았으며, 계속해서 춥고 배고파서 사망했으니 살아남은 자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것과 함께 하국은 송의 군대와 교전하였으니 사람이나 가축이 포로가 되고 살육된 것 또한 많으며, 여러 해 동안의 빈번한 군사 행동으로 사졸(士卒)들이 풍찬노숙(風餐露宿)⁶⁰⁾하였으니 그 형세가 모두 줄어들었습니다. 또한 송인들의 견제를 당하여 충성하고자 하는 절개를 스스로 지킬 수 없게 되었던 것은 중외(中外)의 사람들이 모두 아는 바입니다. 원컨대 [우리에게서 사람·재산·가축을] 찾아내준다는 약속을 중지시키고 신(臣)의 말을 받아들인다면 우리 아랫 나라에 무궁한 행운이 될 것입니다.” 그 후에도 여러 차례 청해오자 조서를 내려 그것을 허락해주었다.

久之，其臣任得敬專國政，欲分割夏國。因賀大定八年正旦，遣奏告使殿前太尉芭里昌祖等以仁孝章乞良醫爲得敬治疾，詔保全郎王師道佩銀牌往焉，詔師道曰：「如病勢不可療，則勿治。如可治，期一月歸。」得敬疾有瘳，遣謝恩使任得聰來，得敬亦附表進禮物，上曰：「得敬自有定分，附表禮物皆不可受。」並却之。

「校勘記」 참조.

- 58) 紐臥文忠: 원문에는 '紐臥文忠'이 '細臥文忠'으로 되어 있었다. 이것을 『金史』 卷61 「交聘表」의 “大定四年三月丙戌朔，夏武功大夫紐臥文忠等賀萬春節”에 의거해 고친 것이다. 『金史』 卷134 「校勘記」 참조.
- 59) 萬春節: 金 世宗 大定 2년부터 28년 동안(1162~1188) 황제의 탄신을 경축하던 명절 명칭이다. '春'은 글자의 뜻에서 '年'과 '歲'의 의미이며, 따라서 '萬春'은 '萬壽'와 同意語이다. 『大金集禮』 卷23에 따르면 大定 원년(1161) 12월 26일 金 世宗은 “御前批劄三月一日爲萬春節”이라 하여 황제의 탄신일의 이름을 '萬春節'로 하게 하였다고 하면서 이전에 사용하던 '萬壽節'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 명칭은 금 세종이 사거할 때까지 사용되었다. 『金史』 卷6 「世宗本紀」와 卷11 「交聘表」에 비교적 자세한 기록이 있다.
- 60) 風餐露宿: 바람을 피하지 못하고 이슬을 맞으면서 먹고 잔다는 뜻.

오랜 기간이 지난 다음 [하국의] 신하인 임득경(任得敬)⁶¹이 국정(國政)을 전횡하면서 하국(夏國)을 분할하려 하였다. 때문에 [세종] 대정(大定) 8년(1168)의 정단(正旦)을 축하하면서 주고사(奏告使)로 전전태위(殿前太尉)인 파리창조(芑里昌祖) 등을 파견하여 [이]인효(李仁孝)의 주장(奏章)으로 양의(良醫)를 얻어 [임]득경의 병을 낫게 할 수 있도록 청하자, 조를 내려 보전랑(保全郎)인 왕사도(王師道)가 은패(銀牌)를 차고 그곳에 가도록 하였다. [왕]사도에게 조를 내려 말하기를 “만약 병세가 치료할 수 없는 정도라면 치료하지 말도록 해라. 만약 치료할 수 있다면 한 달만 하고 돌아오도록 하라”고 하였다. [임]득경의 질환에 차도가 있자 사은사(謝恩使)로 임득충(任得聰)을 보내왔는데, [임]득경은 또한 표문을 올려 예물(禮物)을 바치자 황제가 말하기를 “[임]득경은 스스로 정해진 직분이 있는데, 올린 표문과 예물 모두 받을 수 없다”고 하면서 물리쳤다.

初, 仁孝嗣位, 其臣屢作亂, 任得敬抗禦有功, 遂相夏國二十餘年, 陰蓄異志, 欲圖夏

61) 任得敬(?~1170): 서하의 대신이다. 원래 그는 송의 西安州의 通判이었다. 서하 崇宗 大德 3년(1137), 西夏가 西安州를 격파하자 병사들을 이끌고 투항하였다. 당시의 서하 황제인 이진순이 그를 權知州事로 임명하였다. 임득경은 자신의 친딸을 궁중에 들여서 妃로 삼게 했는데, 이로 인해 그는 靜州 防禦使로 제수되었다. 그는 많은 뇌물을 朝廷 大臣들에게 뿌리면서 그의 딸이 황후의 자리에 앉을 수 있도록 설득하였다. 御史中丞 芑里祖仁 등이 황제 앞에서 任氏의 才德을 칭찬하자 서하 대덕 4년(1138), 황제는 그녀를 황후로 세웠고, 任得敬은 황제의 장인이 되어 靜州의 都統軍으로 발탁되었다. 서하 仁宗 大慶 원년(1139)에는 서하의 崇宗이 사망하고 그의 아들인 이인효가 계위하였다. 任氏는 그의 생모가 아니었지만 太后로 봉해졌다. 서하 대경 2년(1140), 夏州의 統軍인 蕭合達이 반란을 진압한 공으로 인해 西平公에 봉해졌다. 서하 天盛 2년(1150), 임득경은 國相이 되었으며, 동생인 任得聰이 殿前太尉로, 임득공은 興慶府尹이 되면서 임씨 형제들이 서하의 국정을 농단하였다. 그 후 임씨의 세력이 계속 강해져 임득경이 楚王이 되자 출입할 때 황제와 나란히 걸어갈 정도였다. 서하 天盛 17년(1165), 임득경은 西平府(지금의 寧夏 靈武)에 宮殿을 건축하면서 西平府와 夏州를 그의 영지로 삼으려 하였다. 서하 乾祐 원년(1170), 任得敬은 인종을 협박하여 國土의 반을 나누어 스스로 다스리려 하였다. 서하의 인종이 어쩔 수 없이 이를 허락하여 西南路 및 西平府, 靈州 羅龐嶺(현재 甘肅省 武威의 영역) 등의 지역을 나누어 楚國에 귀속시켜주었다. 임득경은 인종에게 재촉하여 金에 表文을 올리게 하여 楚國을 승인해주도록 요청하였지만 金의 세종은 이를 거절하였다. 그러자 임득경은 金에 원한을 품고 남송과 연락하여 金을 협공하려는 약속을 하였다. 이후 음모가 폭로되면서 서하의 인종은 金의 지지를 얻어 任氏 형제를 주살하면서 임득경의 分國 시도는 실패로 돌아갔다.

國，誣殺宗親大臣，其勢漸逼，仁孝不能制。大定十年，乃分西南路及靈囉龐嶺地與得敬，自爲國，且上表爲得敬求封。世宗以問宰相，尚書令李石等曰：「事繫彼國，我何預焉，不如因而許之。」上曰：「有國之主豈肯無故分國與人，此必權臣逼奪，非夏王本意。況夏國稱藩歲久，一旦迫於賊臣，朕爲四海主，寧容此邪？若彼不能自正，則當以兵誅之，不可許也。」乃却其貢物，賜仁孝詔曰：「自我國家戡定中原，懷柔西土，始則畫疆於乃父，繼而錫命於爾躬，恩厚一方，年垂三紀，藩臣之禮旣務踐修，先業所傳亦當固守。今茲請命，事頗靡常，未知措意之由來，續當遣使以詢爾。所有貢物，已令發回。」

이전에 [이]인효가 제위를 계승하자 신하들이 여러 차례 반란을 일으키자 임득경이 막아내는데 공을 세워 마침내 20여 년 동안 서하의 재상을 지내며, 몰래 다른 뜻을 품어 하국을 도모하려 했으며, 종친 대신들을 무고하여 죽이면서 그 기세가 점점 커지니 [이]인효도 제어할 수 없었다. [세종] 대정 10년(1171) 서남로(西南路)⁶² 및 영주(靈州)⁶³의 나방령(囉龐嶺) 지역을 [임]득경에게 주려는 스스로 국(國)이라 하면서 또한 표문을 올려 [임]득경을 봉해줄 것을 청하였다. 세종이 그것을 재상(宰相)들에게 묻자 상서령(尙書令)인 이석(李石) 등이 말하기를 “그 사건은 저 나라의 것이니 우리가 어떻게 간여할 수 있겠습니까, 요청하는 대로 허락해주는 게 좋겠습니다”고 하였다. 황제가 말하기를 “나라의 임금이 있는데 어찌 아무 까닭도 없이 나라를 다른 사람과 나눈다는 말인가? 이것은 필시 권신(權臣)이 꾀박하여 뺏는 것이며, [서]하 왕의 본래 의도가 아닐 것이다. 하물며 하국이 칭번(稱藩)한 세월이 오래되었는데, 하루아침에 적신(賊臣)에게 꾀박당한다면 짐은 사해(四海)의 군주로서 어찌 이를 용납하겠는가? 만약 그들이 스스로 바로 잡을 수 없다면 마땅히 병사를 보내어 주륙(誅戮)하도록

62) 西南路: 西南路招討司이다. 요대에 설치되었으며, 당시에는 西京道에 속하였다. 치소는 豊州(현재 內蒙古 呼和浩特市 동쪽 白塔村 서남의 古城)이다. 金에서는 西京路에 속했으며, 元代에 폐지되었다.

63) 靈州: 北魏 孝昌 연간(525~527) 설치되었으며, 치소는 옛 薄骨律鎮으로 현재의 寧夏省 吳忠市 북쪽이다. 北周에서는 回樂縣을 설치하였으며, 州治로 되었다. 隋 大業 3년(607)에는 靈武郡으로 하였다가 唐 武德 원년(618) 다시 靈州라 하였다. 관할 구역은 현재 寧夏의 中衛, 中寧縣의 북쪽 지역이다. 현종 開元 연간(713~741) 이후 朔方節度使가 다스리는 곳으로 되었다. 天寶 원년(742) 다시 靈武郡으로 개편하였다가 乾元 원년(758) 靈州로 개편하였다. 11세기 무렵 西夏에 속했으며, 西平府로 이름을 바꾸었다.

해야 할 것이니, 허락할 수 없다”고 하였다. 이에 그 공물(貢物)을 물리치고 [이]인효에게 조(詔)를 내려 말하기를 “우리나라가 중원(中原)을 평정한 이래로 서쪽 지역을 회유하였으니 처음에는 너의 부친에게 강토를 나누어주었고, 이어서 후한 은혜를 내렸던 것이 수십 년이 되었으며, 번신(藩臣)의 예(禮)로 이미 힘써 실천하였으니, 선인의 업적이 전해진 것은 마땅히 지켜나가야 한다. 지금 분부를 청하였으나, 그 일이 자못 정상이 아닌데, 의도한 이유를 알지 못하겠으니 바로 사신을 파견하여 묻고자 한다. 모든 공물(貢物)은 이미 돌려보냈다”라고 하였다.

得敬密通宋人求助，宋以蠟丸書答得敬，夏人得之。得敬始因求醫附表進禮物，欲以嘗試世宗，既不可行，而求封又不可得，仁孝乃謀誅之。八月晦，仁孝誅得敬及其黨與，上表謝，并以所執宋人及蠟丸書來上。其謝表曰：「得敬初受分土之後，曾遣使赴大朝代求封建，蒙詔書不爲俞納，此朝廷憐愛之恩，夏國不勝感戴。夏國妄煩朝廷，冒求賊臣封建，深虧禮節。今既賊臣誅訖，大朝不用遣使詢問。得敬所分之地與大朝熙秦路接壤，恐自分地以來別有生事，已根勘禁約，乞朝廷亦行禁約。」

[임]득경이 송인들과 몰래 통하여 도와달라고 하자 송에서 납환(蠟丸)⁶⁴으로 봉한 문서로 [임]득경에게 보내어 답하였지만 하인들이 이를 손에 넣었다. [임]득경은 처음에 의사를 청한다는 구실로 표문와 예물을 올리면서 세종을 시험해보려 했던 것인데 이미 이루어지지 않았고, 또한 책봉(冊封)을 요구한 것도 불가능하게 되자 [이]인효가 그를 주살할 것을 도모하였다. 8월 그믐 무렵 [이]인효는 [임]득경 및 그의 도당들을 주멸하고는 [금에] 표(表)를 올려 고마움을 표시하였고, 아울러 사로잡은 송인 및 납환으로 봉한 문서를 보내왔다. 그 감사의 표문(表文)에 이르기를 “[임]득경이 처음에 땅을 나누어받은 이후 일찍이 관리를 대조(大朝, 金)에 보내어 봉건(封建)해줄 것을 요구했는데, 조서(詔書)를 내려 받아들이지 않아 주셨으니, 이것은 조정(朝廷)이 [저를] 어여뻐 여겨주신 은혜이니 하국은 그 감사함을 다 표현하지 못할 정도입니다. 하국이 망령되어 조정에 걱정을 끼치고 적신(賊臣)이 봉건을 함부로 요구하

64) 蠟丸: 일반적으로 蜂蠟으로 껍질을 만든 환제를 가리킨다. 고대에는 蜂蠟의 껍질 속에 전하고자 하는 機密 문서를 넣었다.

도록 하여, 심각하게 예절(禮節)을 훼손하였습니다. 지금 이미 적신이 주멸되기에 이르렀으니, 대조에서 사신을 파견하여 물어보실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임]득경이 나눈 땅은 대조의 희진로(熙秦路)와 경계가 붙어 있는데, 스스로 나눈 지역이어서 별도로 일이 생길까 염려되어 이미 금약(禁約)에 따라 단속해놓았으니 청하건대 조정에서도 금약(禁約)을 행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하였다.

十二年，上謂宰臣曰：「夏國以珠玉易我絲帛，是以無用易我有用也。」乃減罷保安·蘭州榷場。

[세종 대정] 12년(1173), 황제가 재신(宰臣)에게 이르러 말하기를 “하국은 주옥(珠玉)으로 우리의 비단을 바꾸는데, 이것은 쓸모없는 것으로 우리의 필요한 것과 바꾸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이에 보안(保安)⁶⁵과 난주(蘭州)⁶⁶의 각장(榷場)을 줄여 없앴다.

仁孝深念世宗恩厚，十七年，獻本國所造百頭帳，上曰：「夏國貢獻自有方物，可却之。」仁孝再以表上曰：「所進帳本非珍異，使人亦已到邊，若不蒙包納，則下國深誠無所展效，四方鄰國以爲夏國不預大朝眷愛之數，將何所安。」乃許與正旦使同來。

[이]인효는 세종의 두터운 은혜를 깊이 유념하였다가 [대정] 17년(1178), 본국(本國)에서 만든 백두장(百頭帳)을 헌납하니 황제가 말하기를 “하국에서 조공하여 바친 방물(方物)은 물리치도록 하라”고 하였다. [이]인효가 다시 표문을 올려 말하기를 “올려드린 장(帳)은 본래 진기하고 색다른 보물이 아니며, 사인(使人) 또한 이미 변경에 도착하였으니, 만약 받아들이지 않으신다면 하국(下國)에서는 깊은 정성을 표시할 방법이 없고, 사방의 이웃국가들도 하국(夏國)이 대조(大朝)가 돌보아주시는 행렬에도 넣어주지도 않을 것이니 장래 어떻게 안

65) 保安軍은 현재의 陝西省 志丹縣이다.

66) 蘭州: 『金史』 『校勘記』에 따르면 원문에는 ‘蘭州’가 원래 ‘蘭安’으로 되어 있었다. 하지만 아래 문장에 ‘蘭州·保安·綏德 榷場’이라는 문장이 여러 차례 나오고, 『金史』 卷50 『食貨志』에도 ‘蘭州’라 되어 있어 ‘蘭安’을 ‘蘭州’로 고쳤다.

녕할 수 있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이에 [그 사인이] 정단사(正旦使)와 함께 오는 것을 허락하였다.

先是，尚書奏：「夏國與陝西邊民私相越境，盜竊財畜，姦人托名榷場貿易，得以往來，恐爲邊患。使人入境與富商相易，亦可禁止。」於是，復罷綏德榷場，止存東勝·環州而已。仁孝表請復置蘭州·保安·綏德榷場如舊，并乞使人入界相易用物。詔曰：「保安·蘭州地無絲枲，惟綏德建關市以通貨財。使副往來，聽留都亭貿易。」章宗卽位，詔曰：「夏使館內貿易且已。」明昌二年，復舊。

이보다 앞서 상서[성](尙書省)⁶⁷⁾에서 상주하기를 “하국과 섬서 변방의 백성들이 서로 사사로이 국경을 넘어서 재산과 가축을 도둑질하며, 간사한 자들은 다른 사람의 명의로 각장(榷場)에서 무역을 하면서 왕래를 할 수 있으니, 변방의 우환이 될까 두렵습니다. 사인(使人)들이 국경으로 들어와 부상(富商)들과 서로 무역하는 것을 금지하여야 합니다”라고 하였다. 그래서 수덕(綏德)⁶⁸⁾의 각장을 다시 폐지하고 동승주(東勝州)⁶⁹⁾·환주(環州)만 남겨두었을 뿐이다. [이]인효는 표문으로써 다시 난주(蘭州)⁷⁰⁾·보안(保安)·수덕의 각장을 예전과 같이 다시 설치해줄 것과 아울러 사인(使人)들이 국경으로 들어와서 서로 물건을 바꿀 수 있도록 청하였다. 조(詔)를 내려 말하기를 “보안·난주의 지역은 비단과 모시가 나지 않으니 수덕에만 관시

67) 尙書: 『金史』 「校勘記」에 따르면 문장의 뜻으로 볼 때 당연히 ‘尙書省’에서 ‘省’이 빠진 것이다.

68) 綏德軍: 북송 熙寧 2년(1069)에 綏德城이 설치되었으며, 延州에 속하였다. 오늘날 陝西省 綏德縣이다. 哲宗 元符 2년(1099)에 綏德軍으로 바뀌었다.

69) 東勝州: 遼에서 설치하였으며 치소는 현재의 內蒙古 托克托縣 서쪽의 城關鎮이다. 관할 영역은 현재의 內蒙古 托克托縣 및 准格爾旗 동북부 지역이다. 金에서는 附郭에 東勝縣을 두어 州治로 삼았으며 관할 경계는 축소되어 현재의 托克托縣 지역으로 한정되었다.

70) 蘭州: 隋 開皇 원년(581)에 설치되었으며, 치소는 子城縣으로 현재의 甘肅省 蘭州市이다. 관할 영역은 현재의 甘肅省 蘭州市와 臨洮縣 등 지역이다. 大業 연간(605~616) 초에 金城郡으로 고쳤다. 唐 武德 2년(619) 다시 蘭州로 고쳤으며, 치소는 五泉縣으로 현재의 蘭州市이며, 이후 金城縣으로 고쳤다. 天寶 원년(742) 다시 金城郡으로 고쳤다가 乾元 원년(758) 다시 蘭州라 하였다. 廣德 원년(763) 吐蕃에게 함락되었다. 북송 元豐 4년(1081) 다시 회복하였다. 崇寧 3년(1104) 蘭泉縣을 치소로 삼았으며 鞏昌路에 속하였다.

(關市)를 설치하여 재화를 통하도록 하고, 사신(使臣) 부사신(副使臣)이 왕래할 때 도정(都亭)⁷¹⁾에서 머무르면서 무역하는 것을 허락해주어라”라고 하였다. 장종(章宗)⁷²⁾이 즉위하자 조를 내려 말하기를 “하사관(夏使館) 내에서 무역하는 것을 또한 그만두어라”고 하였다. 명창(明昌) 2년(1191), 다시 예전과 같이 회복해주었다.

頃之，夏人肆牧於鎮戎之境，邏卒逐之，夏人執邏卒而去。邊將阿魯帶率兵詰之，夏廂官吳明契·信陵都·卜祥·徐餘立等伏兵三千於潤中，阿魯帶口中流矢而死，取其弓甲而去。詔索殺阿魯帶者，夏人處以徒刑。詔索之不已，夏人乃殺明契等。

얼마 지나자 하인(夏人)들이 마음대로 진용(鎭戎)의 경계 안으로 들어와 방목을 해서 나졸(邏卒)들이 쫓아내자 하인들이 나졸들을 사로잡아 가버렸다. 변방의 장수인 아로대(阿魯帶)가 병사를 이끌고 그들을 힐문하려 하니, [서]하의 상관(廂官)인 오명계(吳明契)·신릉도(信陵都)·복상(卜祥)·서여립(徐餘立) 등이 병사 3천 명을 윤중(潤中)에 매복시켜 아로대가 그 입구에서 날라온 화살에 맞아 사망하자 그의 활과 갑주(甲冑)을 가지고 가버렸다. 조를 내려 아로대를 죽인 자를 찾으라 하자 하인들이 도형(徒刑)에 처하였다. 조를 내려 그를 찾는 것을 그만두지 말라고 하니, 하인들이 이에 [오]명계 등을 죽여버렸다.

明昌四年，仁孝薨，子純佑嗣立。承安二年，復置蘭州·保安權場。承安五年，純佑母病風求醫，詔太醫判官時德元及王利貞往，仍賜御藥。八月，再賜醫藥。泰和六年三月，仁孝弟仁友子安全，廢純佑自立，再閱月死于廢所。七月，使純佑母羅氏爲表，言純佑不能嗣守，與大臣定議立安全爲王，遣使奏告。夏使私問館伴官：「奏告事詔許否？」館伴官曰：「此不當問也。」夏使曰：「明日當問諸客省，若又不答，則升殿奏請。」上聞之，使客省諭以許所祈之意，乃賜羅氏詔詢其意，夏人復以羅氏表來，乃封安全爲夏國王。

71) 都亭: 고대 도시에서 여행객들이 머무르는 곳.

72) 金 章宗(完顏璟, 1168~1208; 재위 1189~1205): 女真 이름은 麻達葛으로 金朝의 여섯 번째 皇帝이다. 金 世宗 完顏雍의 적손이며, 후세에 '明昌之治'라 일컬어지는 금대 문화의 전성기를 연출하였다.

[장종] 명창(明昌) 4년(1193) [이]인효(李仁孝)가 죽고 아들인 [이]순우(李純佑)⁷³가 뒤를 이어 즉위하였다. [장종] 승안(承安) 2년(1197) 다시 난주(蘭州)·보안(保安)의 각장을 두었다. 승안 5년(1200),⁷⁴ [이]순우의 모친이 풍(風) 병으로 의사를 청하자 태의판관(太醫判官)인 시덕원(時德元) 및 왕리정(王利貞)에게 조를 내려, (병을 치료하러) 가보도록 하였으며, 어약(御藥)도 하사해주었다. [승안 5년] 8월, 다시 의약(醫藥)을 하사해주었다. [장종] 태화(泰和) 6년(1206) 3월 [이]인효의 동생인 [이]인우(李仁友)의 아들인 [이]안전(李安全)⁷⁵이 [이]순우를 폐하고 자립(自立)하였는데, 2개월이 지나서 [이]순우가 폐치된 장소에서 사망하였다. [태화 6년] 7월, [이]안전이 [이]순우의 모친인 나씨(羅氏)로 하여금 표문(表文)을 작성하도록 하여 [이]순우는 [선업]을 계승하여 지킬 수 없었으니, 대신들과 의논하여 [이]안전을 왕으로 세우기로 정하였다고 하면서 사신을 파견하여 상주문으로 고하였다. 하의 사신은 개인적으로 관반관(館伴官)⁷⁶에게 묻기를 “상주문으로 고한 일을 조를 내려 허락하였습니까?”라

73) 李純佑(1177~1206; 재위 1193~1206): 서하의 6대 황제 桓宗으로 시호는 昭簡帝이다. 서하의 5대 황제 李仁孝의 아들로 서하 仁宗 乾祐 23년(1193) 왕위를 계승하였다. 선대 인종의 정책을 계승하여 국내에 서는 경제력의 안정과 대외적으로 친남송과 친금의 정책을 취하였다. 금 장종 明昌 5년(1194) 금에서 夏國王에 책봉하였다. 금 泰和 5년(1205)에 칭기즈칸이 이끄는 몽골군이 침공해오자 국내가 혼란스럽게 되었다. 태화 6년(1206), 李安全이 그를 죽이고 정권을 탈취하였다.

74) 원문에서 5년은 원래는 6년으로 되어 있었다. 그런데 『金史』 卷62 「交聘表」에는 “承安五年正月戊子, 夏武節大夫連都敦信貢正旦, 附奏爲母疾求醫, 詔太醫時德元·王利貞往診治”라 되어 있어 이에 따라 5년으로 고친 것이다. 『金史』 「校勘記」 참조.

75) 李安全(1170~1211; 재위 1206~1211): 서하의 7대 황제 襄宗으로 시호는 敬穆帝이다. 서하 崇宗의 손자이며, 그 부친은 서하 인종의 동생인 월왕 이인우이다. 서하 인종 乾祐 21년(1190) 이인우가 서거하자 이안전은 월왕의 작위를 이어받을 것을 요구하였지만 桓宗이 허락하지 않자 불만을 가지면서 황제 자리를 탈취하려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 서하 襄宗 應天 원년(1206) 사촌인 환종의 친금 외교에 반대하여, 환종의 생모인 羅太后와 협력하여 폐위시키고 스스로 황제로 즉위하였다. 즉위한 후에는 장기간에 걸친 금과의 동맹관계를 바꾸어 신흥 몽골에 의부하면서 금과 10여 년에 걸친 전쟁에 돌입하였다. 이것은 하와 금 양국에 막대한 경제·군사상의 손실을 가져왔으며 몽골의 흥기를 촉진시킨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서하의 친몽골 정책과 상관없이 몽골은 서하를 침공의 목표로 삼아 마침내 서하 양종 應天 3년(1208)에 칭기즈칸이 이끄는 몽골은 서하를 침공하였다. 양종은 칩거전 끝에 몽골을 격퇴하였지만 다음 해인 應天 4년(1209), 몽골군에 항복하였다. 항복 조건으로 황녀를 헌상하고, 막대한 낙타와 공물을 헌상하여 화친하였다. 양종 皇建 원년(1210) 몽골에 종속된 이안전은 다시 금과 전쟁을 계획하지만, 다음 해 堂姪인 李遵頊에 의해 폐위되어 1개월 후에 사망하였다

76) 館伴官: 본래 송의 관명이다. 遼·金·西夏와 사신을 왕래할 때 상대방의 관할 구역에 들어오면 상대방에서 사람을 파견하여 접대하게 했던 것을 接伴使라 했으며, 경사에 도착한 후 다른 사람을 보내 함께

고 하자 관반관이 말하기를 “이런 일은 물을 수 없습니다”라고 하였다. 하의 사신이 말하기를 “내일 마땅히 제객성(諸客省)에 물을 것이며, 만약 대답해주지 않는다면 대전에 가서 주청(奏講)할 것입니다”고 하였다. 황제가 이를 듣고는 객성(客省)으로 하여금 유(諭)를 내려 원하는 바의 뜻을 허락해주도록 하였다. 이에 나씨에게 조를 내려 그 뜻을 묻도록 하였는데, 하인들이 다시 나씨의 표문(表文)을 가지고 오자 이에 [이]안전을 하국왕으로 봉해주었다.

大安三年，安全薨，族子遵頊立。遵頊先以狀元及第，充大都督府主，立在全安薨前一月，衛紹王無實錄，不知其故。然是時金兵敗績於會河堡，夏人乘其兵敗侵略邊境，而通使如故。

[위소왕] 대안(大安) 3년(1211), [이]안전이 사망하자 일족의 아들인 [이]준욱(李遵頊)⁷⁷⁾이 즉위하였다. [이]준욱은 이전에 장원(狀元) 급제하여 대도독부주(大都督府主)에 임명되었고, [이]안전이 죽기 한 달 전에 즉위하였는데, 위소왕(衛紹王)⁷⁸⁾의 실록(實錄)이 없기 때문에 그 까닭을 알지 못한다. 그러나 이때 금의 군대가 회하보(會河堡)에서 패전을 거듭하자, 하인들이 (금이) 전쟁에 패한 틈을 타 변경을 노략질하였지만 사신의 왕래는 예전처럼 하였다.

하게 하였는데, 이를 館伴使라 하였다. 館伴官은 館伴使를 맡은 官을 의미한다.

- 77) 李遵頊(1163~1226; 재위 1211~1223): 西夏의 神宗·崇宗의 증손으로, 李安全의 사촌형제 李彥宗의 아들이다. 비록 항렬은 桓宗·襄宗보다 낮지만 나이는 그들보다 많다. 여러 책을 두루 익혔으며 서하 天慶 10년(1203) 이후 서하의 군사를 통령하였다. 그는 과거 장원출신으로 황제가 된 역사상 전례가 없는 기록을 남겼다. 이후 몽고·송과의 전쟁에서 여러 번 패하자 현종 乾定 원년(1223)에 퇴위하였고, 1226년 65세의 나이로 죽었다. 光定 원년(1211) 양종을 폐하고 자립하였으나 전반적으로 양종의 정책을 계승하여 금과의 우호관계를 무시하고 금과의 전쟁을 발동하였다. 이에 금의 선종도 서하를 공격하면서 서하군은 여러 차례 패하였다. 하지만 신종은 물러서지 않고 전쟁을 계속하여 국세가 계속 하강하게 되었다. 그가 재위하는 기간 동안 금과 화의할 생각이 전혀 없었으며, 이에 대해 직언하는 신하들에 대해 일일이 비판을 가하곤 하였다. 乾定 2년(1224) 그의 아들인 李德旺에게 자리를 물려주어 서하 유일의 太上皇으로 되었다. 서하 寶慶 원년(1226) 병으로 죽으니 향년 64세였다. 시호는 英文皇帝이다.
- 78) 衛紹王(?~1213): 본명은 完顏允濟이며 小字는 興勝이다. 金 章宗 때 章宗의 父 完顏允恭을 피휘하여 完顏永濟로 고쳤다. 그는 金의 일곱 번째 皇位(1208. 12. 29~1213. 9. 11)에 있었다.

崇慶元年三月，攻葭州。至寧元年六月，攻保安州。貞祐元年十一月，攻會州，都統徒單醜兒擊走之。十二月，陷涇州。二年八月，歸國人喬成齋夏國書，大概言金邊吏侵略，乞禁戰。詔移文答之，宰臣言：「既非公牒，今將責問，彼必飾詞，徒爲虛文，無益於事。」乃止。未幾，夏人攻慶原·延安·積石州，乃詔有司移文責問。

[위소왕] 송경(崇慶) 원년(1212) 3월, 가주(葭州)⁷⁹를 공격하였고, 지녕(至寧) 원년(1213) 6월에는 보안주(保安州)⁸⁰를 공격해왔다. [선종] 정우(貞祐) 원년(1213) 11월에는 회주(會州)⁸¹를 공격하였다. 도통(都統)인 도단추아(徒單醜兒)가 격파하여 패주시켰다. 12월에는 경주(涇州)⁸²가 함락되었다. [선종 정우] 2년(1214) 8월에 귀국인(歸國人)⁸³인 교성(喬成)이 하의 국서(國書)를 가져왔는데, 대략 금의 변리(邊吏)들이 침략하곤 하니 전쟁을 금할 것을 청하는 말이었다. 조를 내려 문서를 이관시켜 답하도록 하자 재신(宰臣)들이 말하기를 “공식문서도 아닐 뿐더러 지금 책문한다면 그들은 반드시 꾸민 말로 할 것이니 [답장을 하는 것은] 헛된 문장이 될 뿐이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하자 이에 그만두도록 하였다. 얼마 있지 않아 하인들이 경원(慶原)·연안(延安)⁸⁴·적석주(積石州)를 공격하자 이에 유사

79) 葭州: 金 大定 24년(1184)에 晉寧州를 고쳐 설치한 것으로 치소는 현재 陝西省 佳縣이다. 관할 영역은 陝西省 吳堡·佳縣과 神木縣 등지이다.

80) 保安州: 金 大定 22년(1182) 保安縣을 승격하여 설치하였으며, 치소는 현재 陝西省 志丹縣이다. 蒙古 至元 6년(1269)에 保安縣으로 바꾸었다.

81) 會州: 西魏 廢帝 때 처음 설치되었으며, 이후 唐 廣德 2년(764)에 吐蕃에 함락되어 폐지되었다가 북송 초에 다시 설치되었다. 天聖 연간(1023~1031) 이후에는 西夏로 들어갔다가 元符 2년(1099) 다시 會州가 설치되었다. 崇寧 3년(1104)에는 敷川縣(현재의 靖遠縣)을 설치하여 치소로 삼았다. 관할 영역은 대략 현재의 甘肅省 靖遠·定西·會寧縣 등지이다. 金 大定 22년(1182) 敷川縣을 保川縣으로 바꾸었다가 다시 西夏로 들어가니 會川城(현재 靖遠縣 서남쪽)으로 옮기고 이름을 新會州로 바꾸었다.

82) 涇州: 치소는 오늘날 甘肅省 涇川 西北이었으며 大安 3년(1211)에 서하에 함락되었다가 바로 금이 수복하였다. 한편 『金史』 「校勘記」에 따르면 ‘涇州’는 ‘鞏州’의 誤記일 수도 있다. 『金史』 卷62 「交聘表」 참조.

83) 歸國人: 본래 금국인인데 西夏로 갔다가 금으로 되돌아온 사람.

84) 延安府: 북송 元祐 4년(1089)에 延州가 승격되어 설치되었고, 치소는 膚施縣(현재 陝西省 延安市)에 있었다. 관할 영역은 현재의 陝西省 延安·甘泉·延長·延川·安塞 등의 市縣 지역과 延河·大埋河의 상류 유역에 걸쳐 있었다. 宋·金 시대에 西夏의 침입을 방어하던 주요 군사기지였다.

(有司)에게 조를 내려 문서를 보내 책문(責問)하도록 하였다.

十一月，蘭州譯人程陳僧結夏人以州叛，邊將敗其兵三千。三年正月，夏兵攻武延川，宣宗曰：「此不足慮，恐由他道入也。」既而聞邊吏侵夏境，夏人乃攻環州，詔治邊吏罪。夏兵攻積石州，都統姜伯通敗之。夏兵入安鄉關，都統曹記僧·萬戶忽三十却之。二月，攻環州，刺史烏古論延壽敗之于境上。

[선종 정우 2년] 11월에 난주(蘭州)의 통역인 정진승(程陳僧)이 하인들과 결탁하여 난주에서 반란을 일으키자 변방의 장수가 그 병사 3천 명을 격파하였다. [정우] 3년(1215) 정월 하의 군대가 무연천(武延川)⁸⁵을 공격해오자 선종(宣宗)⁸⁶이 말하기를, “이번 일은 염려할 바 못된다. 아마 다른 길로 들어올 것이다”라고 하였다. 얼마 있다가 변방 관리가 하의 국경을 침입했다는 소식이 들려오자, 하인들이 이에 환주(環州)⁸⁷를 공격하였다. 조를 내려 변방 관리의 죄를 다스리도록 하였고, 하의 군대가 적석주(積石州)⁸⁸를 공격해오자 도통(都統)인 강백통(姜伯通)이 격파하였다. 하의 군대가 안향관(安鄉關)으로 들어오자 도통(都統)인 조기승(曹記僧), 만호(萬戶)인 홀삼십(忽三十)이 물리쳤다. 2월에⁸⁹ 환주를 공격해오자 [환주]

85) 武延川: 현재 寧夏省 西吉縣 남쪽의 葫蘆河이다.

86) 宣宗(完顏珣, 1163~1223; 재위 1213~1223): 금의 8대 황제로 여진 이름은 朮補이다. 금 장종의 庶兄에 해당되며, 宣孝太子 顯宗 允恭의 庶長子이다. 금 貞祐 원년(1213) 衛紹王이 다스리던 금 조정에 궁정분란이 일어나 위소왕이 紇石烈胡沙虎에게 암살당하였고, 紇石烈胡沙虎는 위소왕의 조카인 朮補(금 선종)를 재위에 앉혔다. 그는 몽골의 위협으로 수도를 開封으로 옮겼으며, 그의 재위 도중 금의 영역은 지금의 섬서성 일부와 하남성 지역으로 축소되었다. 시호는 繼天興統述道勤仁英武聖孝皇帝이다.

87) 環州: 五代 시기 後周 廣順 2년(952)에 威州를 고쳐 환주를 두었다. 치소는 通遠縣(오늘날 甘肅省 環縣)이다. 『輿地廣記』 卷14 <環州>조에는 “以大河環曲爲名”이라 되어 있다. 관할 영역은 오늘날 甘肅省 環縣 및 慶陽縣의 서북부이다. 後周 顯德 4년(957) 通遠軍으로 강등되었다가 北宋 淳化 5년(994) 다시 環州로 승격되었다. 元代에는 鞏昌路에 속했으며, 明 洪武 연간(1368~1398) 초에 環縣으로 강등되었다.

88) 積石州: 金 大定 22년(1182)에 積石軍을 승격하여 설치하였으며, 치소는 현재의 青海 貴德縣 서쪽 10리에 있는 黃河의 남쪽이다. 西夏에서는 치소를 현재 青海省 循化撒拉族自治縣(현재의 積石鎮)으로 옮겼다.

89) 원문의 2월은 원래 3월로 되어 있었다. 『金史』 卷14 宣宗紀, “二月辛卯, 環州刺史烏古論延壽及斜卯毛良虎

자사(刺史)인 오고론연수(烏古論延壽)가 국경에서 그들을 물리쳤다.

三月，詔議伐夏，陝西宣撫司奏：「往者，夏人侵我環·慶，河·蘭·積石以兵應之，悉皆遁去，遽還巢穴，蓋爲我備也。今蘭州潰兵猶未集，軍實多不完，沿邊地寒，春草始生，未可芻牧，兩界無煙火者三百餘里，不宜輕舉。」從之。

[선종 정우 3년] 3월에⁹⁰⁾ 조(詔)를 내려 하의 정벌을 논의하자, 섬서 선무사(宣撫司)가 상주하기를 “예전에 하인(夏人)들이 우리의 환주(環州)·경주(慶州)⁹¹⁾·하주(河州)⁹²⁾·난주(蘭州)·적석주(積石州)를 침범했을 때 군사로 대응하면 [그들이] 모두 다 도망가 재빠르게 소굴로 돌아갔던 것은 대개 우리가 방비(防備)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난주의 병사들이 궤멸되어 정비되지도 않았고, 군사 물자도 다 완비되지 못하였습니다. 변방 지역의 기후가 추워서 봄의 풀들이 이제야 나기 시작하니 놓아먹일 수도 없으며, 국경 양쪽의 300여 리에 사람이 피운 연기조차 없으니 경거망동하지 않아야 합니다”라고 하니 이를 따랐다.

等敗夏人於州境”에 의거해 ‘二月’로 고친 것이다. 『金史』「校勘記」 참조.

90) 三月 詔議伐夏: 『金史』卷14「宣宗紀」에는 “(貞祐三年五月)戊子, 謀伐西夏, 遣大臣鎮撫京兆”라 하여 5월로 되어 있다. 『金史』「校勘記」 참조.

91) 慶州: 隋 開皇 16년(596)에 두었고, 치소는 合水縣(唐代에 安化라 改名, 오늘날 甘肅省 慶陽縣)이었다. 『元和志』卷3〈慶州〉조에는 “(隋)割寧州好德縣置慶州, 立嘉名也”라고 하였는데 관할 영역은 현재 甘肅省 西峰·慶陽·環縣·合水·華池 등의 市縣 및 陝西省 志丹縣 서부이다. 大業 3년(607)에 弘德郡으로 바꾸었다가 唐 武德 원년(618) 다시 慶州라고 하였다. 天寶 원년(742)에 安化郡으로 바꾸고, 至德 원년(756)에는 順化郡으로 바꾸었다가 乾元 원년(758)에 다시 慶州라고 하였다. 북송대에는 관할 영역이 축소되어 현재 慶陽·西峰·合水·華池 등 縣市 지역이었다. 慶曆 원년(1041) 후에 環慶路에 속하였는데 宣和 7년(1125)에는 慶陽府로 바꾸었다.

92) 河州: 5호 16국 시기의 前涼에서 설치하였으며, 치소는 袍罕縣(현재의 甘肅省 臨夏市 서남쪽)에 있었다. 謠秦乞伏熾盤이 이곳에 도읍을 옮겼다. 北魏 초에는 袍罕鎮으로 고쳤다가 현재의 臨夏市로 옮겼다. 太和 16년(492)에 다시 河州로 하였다. 관할 영역은 현재의 洮河·大夏河 중하류 유역과 湟水 하류 및 桑困岐 積石峽 사이의 黃河 유역 지역이다. 隋 大業 3년(607)에 梳罕郡으로 하였다가 唐初에 다시 河州로 하였다. 天寶 원년(742)에 安鄉郡이라 하였다가 乾元 원년(758)에 다시 河州로 하였다. 寶應 초에 吐蕃으로 들어갔다. 북송 熙寧 6년(1073)에 다시 河州를 설치하였다. 元 至元 6년(1269)에 河州路로 되었다.

四月，詔河州提控曹記僧·通遠軍節度使完顏狗兒討程陳僧，夏人援之。九月，遂破西關堡。夏人復攻第五將城，萬戶楊再興擊走之。詔陝西宣撫司及沿邊諸將，降空名宣敕，臨陣立功，五品以下並聽遷授。十月，攻保安及延安，都統完顏國家奴破之。既而深入臨洮，總管陀滿胡土門不能禦，陝西宣撫副使完顏胡失來救臨洮，大敗於渭源堡，城破，胡失來被執。十一月，夏兵敗于克戎寨，復敗于熟羊寨，宰相入賀，宣宗曰：「此忠賢之力也。」夏兵進圍臨洮，陀滿胡土門破之。四年四月，夏葩俄族總管汪三郎率衆來降，進羊千口，詔納之，優給其直。來遠鎮獲諜人，言宋·夏相結來攻，詔陝西行省備之。

[정우 3년] 4월에 하주(河州)의 제공(提控)인 조기승(曹記僧), 통원군절도사(通遠軍節度使) 완안구아(完顏狗兒)에게 정진승(程陳僧)을 토벌하라는 조를 내렸는데 하인(夏人)들이 그를 구원하였다. 9월에는 마침내 서관보(西關堡)⁹³를 무너뜨렸다. 하인들이 다시 제오장성(第五將城)을 공격해오자 만호(萬戶)인 양재흥(楊再興)이 그들을 격퇴하였다. 섬서 선무사 및 연변의 제 장수에게 조(詔)를 내려 이름이 써 있지 않은[空名] 선칙(宣敕)을 발급해주어 전투에서 공을 세우면 5품 이하의 경우는 승진시킬 수 있도록 해주었다. 10월에는 보안(保安)⁹⁴과 연안(延安)을 공격해오자 도통(都統)인 완안국가노(完顏國家奴)가 격파하였다. 얼마 있다가 임조(臨洮)⁹⁵까지 깊숙이 들어오자 총관(總管)인 타만호토문(陀滿胡土門)이 막을 수 없어 섬서 선무부사(宣撫副使)인 완안호실래(完顏胡失來)가 임조를 구원하러 갔지만 위원보(渭源堡)⁹⁶에서 크게 패하고 성이 격파되어 [완안]호실래가 붙잡혔다. 11월에 하의 군대가 극용채(克戎寨)⁹⁷에서 패하였고, 다시 숙양채(熟羊寨)⁹⁸에서 패하였다. 재상들이 [조정

93) 西關堡: 북송 元豐 5년(1082)에 설치하였고, 蘭州에 소속되었다. 현재 甘肅省 蘭州 서쪽 20리에 위치한다.

94) 保安州: 금 大定 22년(1182)에 保安縣이 승격되어 설치되었고, 치소는 현재 陝西省 志丹縣이다.

95) 臨洮府: 금 皇統 2년(1142)에 熙州가 승격되어 설치되었고, 臨洮路에 속하였다. 치소는 狄道縣(현재 甘肅省 臨洮縣)이다. 관할 영역은 현재의 甘肅省 臨洮·康樂·渭源縣이다.

96) 渭源堡: 북송 熙寧 5년(1072)에 설치하였으며 熙州에 속하였다. 현재 甘肅省 渭源縣이다.

97) 克戎寨: 원래는 浮圖峯이며, 오늘날 陝西省 子洲縣의 동북쪽에 있었다. 본래 서하에서 설치한 것이며, 송에서 克戎峯라 바꿔 불렀다.

98) 熟羊寨: 북송 熙寧 원년(1068)에 설치했으며, 이후 通遠軍에 속하였다. 현재 甘肅省 隴西縣 서쪽 40리에

에] 들어와서 경하하자 선종(宣宗)이 말하기를, “이는 충신(忠臣)과 현사(賢士)들의 힘이다”라고 하였다. 하(夏)의 군대가 들어와서 임조를 포위하자, 타만호토문이 그들을 격파하였다. [정우] 4년(1216) 4월 하의 파아족(葩俄族) 총관(總管)인 왕삼랑(汪三郎)이 무리를 이끌고 투항하였는데 양(羊) 천 마리를 바치자 조를 내려 받아들이도록 하고, 그 값을 후하게 쳐주도록 하였다. 내원진(來遠鎮)⁹⁹에서 첩자를 잡았는데 송과 하가 서로 결탁하여 공격한다고 말하자 섬서행성(陝西行省)에 조를 내려 대비하도록 하였다.

夏於來羌城界河起折橋，元帥右都監完顏賽不焚之，斬馘甚衆。六月，鄜延路奏，夏人牒報用彼國光定年號，詔封還其牒。閏月，慶陽總管慶山奴伐夏，出環州，陝西行省請中分其軍，令慶山奴出第三將懷安寨，環州刺史完顏胡魯出環州，宣宗曰：「聞夏人移軍備其王城，尚恐詐我，勿墮其計中也。」提控完顏狗兒抵蘭州西關堡，招得舊部曲九人。掩擊夏兵于阿彌灣，殺其將士百餘人。八月，左監軍烏古論慶壽敗夏兵于安塞堡。右都監賽不擊走夏兵于結耶醬川，復破之於車兒堡。十一月，提控石蓋合喜·楊幹烈解定西之圍。

하가 내강성(來羌城)¹⁰⁰의 경계에 있는 강에 굽은 교량(折橋)을 놓자 원수우도감(元帥右都監)인 완안새불(完顏賽不)이 이를 불태워버리고 매우 많은 [적의] 수급을 베었다. 6월에는 부연로(鄜延路)에서 상주하기를 하인들이 공문서를 보내어 자기네 나라의 광정(光定)¹⁰¹ 연호를 사용한다고 통보하였다고 하였다. 조를 내려 그 공문서를 봉해서 돌려보내도록 하였다. 윤6월에 경양[부](慶陽府)¹⁰²의 총관(總管)인 경산노(慶山奴)가 하를 토벌하려고 환주

위치한다. 북송 이후 폐지되었다.

99) 來遠鎮: 北宋 天禧 원년(1017)에 설치했으며, 秦州에 속하였다. 현재의 甘肅省 武山縣 서남쪽 30리 灘歌鄉에 위치한다. 신종 희녕 5년(1072)에 通遠軍으로 소속이 바뀌었다가 희녕 7년(1074)에 폐지되어 來遠鎮으로 되었다.

100) 來羌城: 북송 崇寧 2년(1103)에 설치하였는데 河州에 속하였다. 현재의 甘肅省 臨夏縣 동북쪽이며, 금대에 폐지되었다.

101) 光定: 서하 神宗의 연호로, 1210년 한 해 동안만 사용되었다.

102) 慶陽府: 북송 宣和 7년(1125)에 慶州를 바꾸어 설치하였으며, 치소는 安化縣(현재 甘肅省 慶陽縣)이었다. 관할 영역은 현재 甘肅省 西峰·慶陽, 合水 북쪽, 環縣의 동쪽, 陝西省 志丹縣 서쪽, 定邊縣 남쪽

(環州)를 나서자 섬서행성에서 그의 부대를 반으로 나누자고 청하였다. 경산노에게 제삼장(第三將)으로 회안채(懷安寨)에서 출발하도록 명령하였고, 환주 자사(刺史)인 완안호로(完顏胡魯)는 환주에서 출발하도록 하였다. 선종(宣宗)은 “하인(夏人)들이 부대를 옮겨서 그들의 왕성(王城)을 방비한다고 하는데, 아마도 우리를 속이려는 것으로 보이니 그 계략에 속아 넘어가지 않아야 할 것이다”라고 하였다. 제공(提控)인 완안구아(完顏狗兒)가 난주의 서관보(西關堡)에 도착하여 옛 부대 사람 9명을 불러들여서 아미만(阿彌灣)에 있는 하의 부대를 급습하여 장수와 사병 100여 명을 죽였다. 8월에 좌감군(左監軍)인 오고론경수(烏古論慶壽)가 안새보(安塞堡)¹⁰³에서 하의 부대를 패퇴시켰다. [원수]우도감인 [완안]새불은 결야자천(結耶觜川)에서 하의 부대를 격파하여 패주시키고 나서 다시 거아보(車兒堡)에서도 승리를 거두었다. 11월 제공인 석잔합희(石盞合喜)·양알렬(楊斡烈)이 정서(定西)¹⁰⁴의 포위를 뚫었다.

十二月丙寅，宣宗與皇太子議伐夏，左監軍陀滿胡土門·延安總管古里甲石倫攻鹽·宥·夏州，慶陽總管慶山奴·知平涼府移刺荅不也攻威·靈·安·會等州。

[정우 4년] 12월 병인(丙寅)일에 선종과 황태자가 하를 정벌할 것을 논의하자, 좌감군(左監軍) 타만호토문(陀滿胡土門), 연안부(延安府)의 총관(總管) 고리갑석륜(古里甲石倫)이 염주(鹽州)¹⁰⁵·유주(宥州)¹⁰⁶·하주(夏州)를, 경양부(慶陽府)의 총관인 경산노·지평량부(知

지역이다. 금에서는 慶原路의 치소로 되었다.

103) 안새보: 원래 '安塞堡'가 '寇安堡'라 되어 있었다. 하지만 『金史』卷14 「宣宗紀」에는 貞祐 4년(1216) 8월에 “夏人入安塞堡，元帥左監軍烏古論慶壽遣軍敗之”라 하였고, 또한 卷101 「烏古論慶壽傳」에도 “(貞祐)四年，遷元帥左監軍兼陝西統軍使。駐兵延安，敗夏人于安塞堡”라 하여 이에 '安塞堡'로 고친 것이다. 한편 「교감기」에서는 “元帥右監軍兼陝西統軍使”로 되어 있으나 실제 卷101 「烏古論慶壽傳」에는 '元帥左監軍兼陝西統軍使'라 되어 있다. 「烏古論慶壽傳」에는 본래 '左監軍'이었지만 교감을 통해 '右監軍'으로 교정했음이 「교감기」 주11)에 명시되어 있다. 각각 『金史』(中華書局本) 2241쪽과 2879쪽의 「교감기」 내용을 참조.

104) 定西縣: 金初에 定西城이 승격되어 縣으로 되었고, 鞏州에 속하였다. 치소는 현재의 甘肅省 定西縣 남쪽 27리에 위치한다. 貞祐 4년(1216)에 定西州로 승격되었다.

105) 鹽州: 西魏 廢帝 3년(554) 西安州를 고쳐 설치하였다. 치소는 五原縣으로 현재의 섬서 定邊縣이다.

平涼府)인 이랄답불야(移刺答不也)가 위주(威州)¹⁰⁷·영주(靈州)·안주(安州)·회주(會州)¹⁰⁸ 등을 공격하였다.

興定元年正月，夏兵三萬自寧州還，慶山奴以兵邀擊，敗之。詔河東行省胥鼎選兵三萬五千，付陀滿胡土門伐夏，鼎馳奏不可，遂止，語在鼎傳。右都監完顏仲元請試兵西夏，出其不意必獲全勝，兵威旣振，國力益完。詔下尚書省·樞密院議。

[선종] 흥정(興定) 원년(1217) 정월에 하의 병사 3만 명이 영주(寧州)에서 돌아오자 경산노가 병사를 데리고 맞이하여 싸워 패배시켰다. 조를 내려 하동행성(河東行省) 서정(胥鼎)이 병사 3만 5천 명을 선발하여 타만호토문에게 주어 하를 정벌하도록 하였는데 [서]정이 불가하다고 상주하자 마침내 중단하였다는 말이 [『금사』] 「서정전」에 있다.¹⁰⁹ 우도감(右都監)인

『元和志』卷4 〈鹽州〉조에는 “似其北有鹽池，故名”이라 하여 염지로 인해 이름이 유래되었음을 알 수 있다. 隋 大業 3년(607) 鹽川郡으로 하였다가 唐 初에 다시 鹽州라 하였다. 天寶 원년(742) 五原郡이라고 고쳤다가 乾元 원년(758) 다시 鹽州라 하였다. 建中 연간(780~783) 이후 吐蕃에 속하였다가 乾元 연간(758~760)에 수복하였다. 11세기 이후에는 西夏에 속했으며, 蒙古제국 시기에 폐지되었다.

106) 宥州: 서하가 설치했던 宥州路의 치소이며 오늘날 內蒙古自治區 鄂托克前旗 동남쪽 城川鄉 古城이다.

107) 威州: 五代 後晉 天福 4년(939)에 설치하였으며, 치소는 通遠縣(현재 甘肅省 環縣)이다. 관할 영역은 현재의 甘肅省 環縣 및 慶陽縣 서북부 지역이다. 後周 廣順 2년(952)에는 태조 郭威를 避諱하여 環州로 이름을 바꾸었다.

108) 會州: 西魏 廢帝 때 설치되었으며, 치소는 會寧縣으로 현재의 甘肅省 靖遠縣 동북쪽이다. 北周 保定 2년(562) 會寧防으로 되었으며, 隋 開皇 원년(581) 會寧鎮으로 고쳤다. 唐 武德 2년(619) 西會州로 고쳤으며, 貞觀 8년(634) 粟州라 하였다가 같은 해에 다시 會州로 고쳤다. 관할 구역은 대략 현재의 甘肅省 靖遠·景泰·會寧과 寧夏·海原 등의 縣 지역이다. 天寶 연간(742~756) 초 다시 會寧郡으로 되었으며, 乾元 연간(758~760) 초에 다시 會州로 바꾸었다. 廣德 2년(764) 吐蕃에 함락되어 폐지되었다가 北宋 초에 다시 설치되었다. 天聖 연간(1022~1032) 이후 西夏가 차지했으며, 元符 2년(1099) 다시 會州를 설치하였다. 崇寧 3년(1104) 敷川縣을 설치하여 州治로 삼았다. 관할 구역은 현재의 甘肅省 靖遠·定西·會寧 등의 縣 지역이다. 金 大定 22년(1182) 敷川縣을 保川縣으로 고쳤는데 다시 西夏가 점령하였다.

109) 『金史』卷108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즉, “……又言‘近偵知北兵駐同·耀，竊慮梗吾東西往來之路，遂委河中經略使陀滿胡土門領軍赴援。今兵勢將叩關矣，前此臣嘗奏聞，北兵非止欲攻河東·陝西，必將進取河南。雖已移文陝州行院及陝西鄰境，俱令設備，恐未即遵行。乞詔河南行院統軍司，議所以禦

완안중원(完顏仲元)이 서하에 대한 용병(用兵)을 시도할 것을 청하면서, 예상치 못하게 출격하면 반드시 전승을 거둘 수 있으며 군대의 위력이 떨쳐지며 국력이 더욱 완비될 것이라 하였다. 상서성(尙書省)과 추밀원(樞密院)에 의논해보라는 조를 내렸다.

夏人福山以俘戶來降，除同知澤州軍州事。

하인(夏人) 복산(福山)이 포로가 되었던 민호(民戶)를 데리고 항복해오자 동지택주군주사(同知澤州軍州事)를 제수해주었다.

五月，夏兵入大北岔，都統紇石烈豬狗掩擊，敗之。宣宗欲與夏議和，右都監慶山奴屯延安，奏曰：「夏國決不肯和，徒見欺耳。」既而，獲諜者言，遵頊聞大金將約和，戒諭將士無犯西鄙。宰臣奏曰：「就令如此，邊備亦不宜弛。」宣宗以爲然。

[홍정 원년] 5월에 하의 군대가 대북차(大北岔)로 들어오자 도통(都統) 흘석열저구(紇石烈豬狗)가 기습하여 패배시켰다. 선종이 하와 화의(和議)를 논의하려 하자 우도감(右都監)인 경산노가 연안(延安)에서 주둔하고 있으면서 상주하여 말하기를 “하국과는 결단코 화의를 해서는 안 될 일로, 헛되이 속임만 당할 뿐입니다”라고 하였다. 얼마 있다가 붙잡은 첩자가 말하기를, [이]준욱(李遵頊)이 대금(大金)이 장차 화의를 약조하리라는 것을 듣고 장사(將士)들에게 서북 변방을 침범하지 말 것을 계유(戒諭)하였다고 하였다. 재신(宰臣)들이 상주하여 말하기를 “이렇게 명령했다면 변방의 방비를 늦추지 말아야 합니다”라고 하였다. 선종은 그렇다고 여겼다.

右都監完顏閻山敗夏兵于黃鶴岔。夏人圍羊狼寨，都統党世昌與戰，完顏狗兒遣都統夾谷瑞夜斫夏營，遂解其圍，猶駐近地，左都監白撒發定西銳兵·龔谷副統包孝成緋翎翹軍，合擊走之。八月，安定堡馬家平總押李公直敗夏兵三千。九月，都統羅世暉却夏兵

備之策.’上以示尙書省，宰臣奏，‘兵已踰關，惟宜嚴責所遣帥臣趨迎擊之，及命鼎益兵渡河以 掣其肘.’”

于克戎寨.

우도감(右都監)인 완안려산(完顔闐山)이 황학차(黃鶴岔)에서 하의 군대를 패배시켰다. 하인(夏人)들이 양한채(羊狼寨)를 포위하자 도통(都統)인 당세창(党世昌)이 그들과 전투를 벌였다. 완안구아(完顔狗兒)가 도통 협곡서(夾谷瑞)를 보내어 야간에 하의 병영을 공격하여 마침내 포위를 풀었으나 [하의 군대는] 계속 가까운 곳에 머무르고 있었다. 좌도감(左都監)인 백철(白撒)이 정서(定西)의 정예 부대를 뽑아 감곡(龔谷)의 부통(副統)인 포효성(包孝成)의 비핵시군(緋翮翅軍)과 함께 격파하여 패주시켰다. 8월에는 안정보(安定堡) 마가평(馬家平)의 총압(總押)인 이공직(李公直)이 하의 군사 3천 명을 패배시켰다. 9월에는 도통인 나세휘(羅世暉)가 하의 부대를 극용채(克戎寨)에서 물리쳤다.

興定二年三月，右都監慶山奴奏：「夏人有乞和意，保安·綏德·葭州得文報，乞復互市，以尋舊盟。以臣觀之，此出於遵頊，非邊吏所敢專者。」朝廷不以爲然。

[선종] 흥정(興定) 2년(1218) 3월 우도감인 경산노가 다음과 같이 상주하였다. 즉, “하인들이 화의를 요청하는데, 보안주(保安州)·수덕주(綏德州)·가주(葭州)에서 공문을 받아 보고하기를 호시(互市)¹¹⁰⁾를 회복해준다면 옛 맹서(盟誓)를 다시 회복할 것이라 합니다. 신(臣)이 보건대 이것은 [이]준욱에게서 나온 것이며 변방의 관리가 감히 전적으로 할 수 있는 소행이 아닙니다”라고 하였다. 조정에서는 그렇게 여기지 않았다.

110) 互市: 중원의 여러 왕조와 북서쪽 여러 민족 내지는 정치세력과의 육상무역을 일컫는다. 이에 대해 해상무역은 互市船 혹은 市船이라 하였다. 주로 북방 유목국가인 匈奴·鮮卑·突厥·위구르 등을 비롯하여 서방의 唐古트·티베트 및 중앙아시아 제국 사이에서 이루어졌다. 唐代까지는 互市를 胡市 또는 關市라 하여 북방의 말·양·소·모피에 대해 중국의 견직물·곡류·鐵器 등이 거래되었다. 그러나 수량도 적었으며, 오히려 북방민족의 침입을 조정하기 위해 중국의 왕조가 그들이 원하는 것을 내주는 형식이 되었다. 宋 이후에는 변경에 遼·西夏·金·몽골 등 강력한 국가 또는 민족이 일어나 시장 수도 많아졌고 무역액도 커지게 되었다.

五月，夏人入葭州，慶山奴破之于馬吉峰。七月，犯龕谷，夾谷瑞·趙防敗之，追至質孤堡。三年閏月，夏人破通秦寨，提控納合買住擊敗之，自葭盧川遁去。華州元帥完顏合達出安寨堡至隆州，敗其兵二千。進攻隆州，克其西南，會暮乃還。十二月，詔有司移文夏國。

[흥정 2년] 5월에는 하인들이 거주(葭州)로 들어오니 경산노가 이를 마길봉(馬吉峰)에서 격파하였다. 7월에는 [하의 군대가] 감곡을 침범하자 협곡서(夾谷瑞)와 조방(趙防)이 격파하고는 질과보(質孤堡)¹¹¹⁾까지 추격하였다. [흥정] 3년(1219) 윤달에 하인들이 통진채(通秦寨)를 깨뜨리자 제공(提控)인 납합매주(納合買住)가 격파하여 패주시키자 가로천(葭盧川)에서도 망쳐 달아났다. 화주(華州)¹¹²⁾의 원수(元帥)인 완안합달(完顏合達)이 안채보(安寨堡)에서 나아가 용주(隆州)까지 이르러 병사 2천 명을 패배시켰다. 용주를 진공하여 그 서남쪽을 깨뜨리고는 해가 저물 무렵이 되자 돌아왔다. 12월에 유사(有司)에게 조를 내려 하국에 공문을 보내도록 하였다.

四年二月，夏人犯鎮戎，金師敗績，夏人公移語不遜，詔詞臣草牒折之。四月，夏兵犯邊，元帥石蓋合喜遇於鹿兒原，提控烏古論世顯以偏師敗之，都統王定復破其聚于新泉城。元帥慶山奴攻宥州，圍神堆府，穴其城，士卒有登者，援兵至，擊走之，斬首二千，俘百餘人，獲雜畜三千餘。八月，夏人陷會州，刺史烏古論世顯降，復犯龕谷，夾谷瑞連戰敗之，夏人乃去。是月，詔有司移文議和，事竟不克。

111) 質孤堡: 북송 元豐 5년(1082)에 설치하였으며, 蘭州에 속하였다. 현재 甘肅省 蘭州市 동쪽 50리 부근에 있었다. 원대에 폐지되었다.

112) 華州: 西魏 廢帝 3년(554)에 東雍州를 고쳐 설치하였으며, 치소는 華山郡 原鄭縣城(현재 陝西省 華縣 서쪽)에 있었다. 隋 大業 연간(605~617) 초에 폐지되었다가 唐 武德 연간(618~626) 초에 다시 설치하였으며, 치소는 鄭縣(현재 陝西省 華縣)에 두었다. 垂拱 원년(685) 太州로 고쳤다가 神龍 원년(705) 다시 華州라 하였다. 天寶 원년(742) 華陰郡으로 고쳤다가 乾元 원년(758) 다시 華州라 하였다. 上元 원년(760) 다시 太州로 바꾸었다가 寶應 원년(762) 華州로 하였다. 乾寧 4년(897) 德興府로 승격하였다가 光化 3년(900) 華州로 하였다. 관할 영역은 현재의 陝西省 華縣·華陰·潼關 등의 3縣市와 渭南市 북부, 臨潼縣 동북부 일대이다.

[홍정] 4년(1220) 2월 하인(夏人)들이 진용(鎭戎)을 공격하여 금의 장수가 패배를 거듭하자 하인들이 공문으로 전달하는 말이 불손(不遜)해지니, 사신(詞臣)에게 [하에 보내는] 초첩(草牒)을 찢어버리라는 조를 내렸다. 4월에 하의 병사들이 변방을 침범하자 원수(元帥)인 석잔합희(石盞合喜)가 녹아원(鹿兒原)에서 맞닥뜨렸는데 제공(提控)인 오고론세현(烏古論世顯)이 비주력군(偏師)으로 그들을 패배시켰고, 도통(都統)인 왕정(王定)은 다시 그 무리들을 신천성(新泉城)에서 물리쳤다. 원수(元帥)인 경산노가 유주(宥州)를 공격하고 신퇴부(神堆府)를 포위하여 그 성[벽]에 구멍을 내어 사졸들이 올라가는 자가 있었다. [하의] 원병(援兵)이 도착하였지만 그들을 무찔러 쫓아보냈으며, 2천 명을 참수하고 백여 명을 포로로 잡고 여러 종류의 가축 3천여 마리를 얻었다. [홍정 4년] 8월, 하인들이 회주(會州)를 함락시키자 자사(刺史)인 오고론세현(烏古論世顯)이 투항하였다. 다시 감곡(龕谷)을 침범하였는데 협곡서(夾谷瑞)가 전투에서 연달아 그들을 패배시키자 이에 하인들은 가버렸다. 이달에 유사에게 조를 내려 화의를 논의하는 공문을 보내도록 했지만 [그] 일은 끝내 이루어지지 않았다.

夏人三萬自高峰鎭圍定西，刺史愛申阿失刺·提控烏古論長壽·溫敦永昌擊走之。九月，夏人圍綏平寨·安定堡，未幾，陷西寧州，遂攻定西，烏古論長壽擊却之。乃襲鞏州，石盞合喜逆戰，一日十餘戰，乃解去。

하인 3만 명이 고봉진(高峰鎭)에서부터 정서(定西)를 포위하자 자사(刺史)인 애신아실라(愛申阿失刺)·제공(提控)인 오고론장수(烏古論長壽)·온돈영창(溫敦永昌)이 격파하여 패주시켰다. [홍정 4년] 9월 하인(夏人)들이 수평채(綏平寨)¹¹³⁾와 안정보(安定堡)¹¹⁴⁾를 포위했으며, 얼마 있다가 서녕주(西寧州)¹¹⁵⁾를 함락시키고 드디어 정서를 공격하였지만 오고론장수가 이를 물리쳤다. 이에 공주(鞏州)를 급습하자 석잔합희가 맞아 싸웠는데, 하루에 10여 차례

113) 綏平寨: 북송에서 설치하였으며, 延川縣에 속했다. 현재의 陝西省 子洲縣 서남쪽 淮寧河 근처이다. 元符 2년(1099)에 綏德軍으로 거쳤다. 金 正大 3년(1226)에 綏平縣으로 승격되었다.

114) 安定堡: 북송에서 설치하였으며, 오늘날 陝西省 子長縣 서북쪽의 安定鎭이다.

115) 西寧州: 金 貞祐 4년(1216)에 西寧縣을 승격하여 설치하였으며, 치소는 현재의 甘肅省 會寧縣 동쪽 30리에 위치한 張城堡이다. 관할 영역은 현재의 甘肅省 會寧·通渭縣 등의 일부 지역이며, 金 말엽에 西寧縣으로 강등되었다.

전투를 치르고는 포위를 풀고 가버렸다.

五年正月，詔樞密院議夏事，奏曰：「夏人聚兵境上，欲由會州入，已遣行省白撒伏兵險要以待之。鄜延元帥府伺便發兵以綴其後，足以無慮。」二月，寧遠軍節度使夾谷海壽破夏兵于搜嵬堡。三月，復取來羌城。十月，攻龕谷，白撒連敗之。元光元年正月，夏人陷大通城，復取之。三月，提控李師林敗夏兵於于木嶺。八月，攻寧安寨，十月，攻神林堡，十二月，入質孤堡，提控唐括昉敗之。

[홍정] 5년(1221) 정월, 추밀원(樞密院)에 조를 내려 하의 일을 의논하게 하자 상주하여 말하기를, “하인(夏人)들이 국경에서 병력을 모으는 것은 회주(會州)로부터 들어오려는 생각 때문인데, 이미 행성(行省)인 백철(白撒)을 파견하여 병력을 험한 요지에 매복시켜 기다리도록 해놓았습니다. 부연로(鄜延路) 원수부(元帥府)에서도 때를 살피 병력을 내어 그 후방을 견제하도록 할 터이니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라고 하였다. 2월에 영원군(寧遠軍) 절도사인 협곡해도(夾谷海壽)가 하의 군대를 수외보(搜嵬堡)에서 격파하였다. 3월에 다시 내강성(來羌城)을 차지하였다. 10월에 감곡을 공격하니 백철이 그들을 연달아 패배시켰다. [선종] 원광(元光) 원년(1222) 정월, 하인들이 대통성(大通城)¹¹⁶⁾을 함락하고는 다시 차지하였다. 3월에 제공(提控)인 이사림(李師林)이 하의 군대를 영목령(永木嶺)에서 패배시켰다. 8월에는 영안寨(寧安寨)¹¹⁷⁾를 공격하였고, 10월¹¹⁸⁾에는 신림보(神林堡)¹¹⁹⁾를 공격하였으며, 12월¹²⁰⁾에는 질과보로 들어오자 제공인 당괄방(唐括昉)이 패배시켰다.

116) 大通城: 북송 崇寧 2년(1103)에 達南城을 고쳐 설치하였으며, 河州에 속하였다. 현재의 青海省 循化撒拉族自治縣 서쪽의 黃河 남안에 위치한다. 宣和 원년(1119)에는 樂州에 속하였다.

117) 寧安寨: 북송 崇寧 5년(1106)에 설치하였으며, 西安州에 속하였다. 현재의 寧夏省 西吉縣 서북쪽의 白城子鄉의 上白城子이다.

118) 『金史』 「校勘記」에 따르면 원문에는 ‘十月’이 없었으나 『金史』 卷14 「宣宗紀」에 “元光元年冬十月 丁丑，夏人掠德順之神林堡”라 되어 있어 ‘十月’을 추가한 것이다.

119) 神林堡: 현재의 寧夏省 隆德縣 서남쪽의 神林鄉이다. 『方輿紀要』 卷58 〈隆德縣·六盤關〉條에 “又神林堡在縣西四十里，亦舊時戍守處也。今有神林堡遞運所”라고 하였다.

120) 『金史』 「校勘記」에 따르면 원문에는 ‘十二月’이 없었으나 『金史』 卷14, 「宣宗紀」에 “元光元年十二月己丑，蘭州提控唐括昉敗夏人于質孤堡”라 되어 있어 ‘十二月’을 보충한 것이다.

二年，遵頊使其太子德任來伐，德任諫曰：「彼兵勢尚強，不若與之約和。」遵頊笑曰：「是非爾所知也。彼失蘭州竟不能復，何強之有。」德任固諫不從，乞避太子位，願爲僧。遵頊怒，幽之靈州，遣人代將，會天旱不果。

[원광] 2년(1223)에 [이]준욱이 태자(太子) [이]덕임(李德任)으로 하여금 (금을) 정벌하라고 하자 [이]덕임이 간(諫)하여 말하기를, “저들의 병세(兵勢)는 늘 (우리보다) 강하니 그들과 화약(和約)하는 것보다 못할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이]준욱이 웃으며 말하기를 “이것은 네가 모르는 바이다. 그들은 난주를 잃어버려도 끝내 되찾지도 못하는데 어찌 강하다고 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였다. [이]덕임이 계속 간하며 따르지 않고 태자의 자리를 그만두어 승려가 되기를 원한다고 하였다. [이]준욱이 노하여 영주(靈州)에 그를 유폐시키고 다른 사람을 보내어 대신 이끌도록 하였는데, 마침 하늘에 가뭄이 들어 실행하지 못하였다.

是歲，大元兵問罪夏國，延安·慶原元帥府欲乘夏人之困弊伐之，陝西行省白撒·合達以爲不可，乃止。

이 해에 대원(大元)의 군대가 하국(夏國)의 죄를 묻자 연안(延安)·경원(慶原)의 원수부(元帥府)에서 하인들이 곤란한 틈을 타서 정벌하려 했지만 섬서행성(陝西行省)인 백철(白撒)과 합달(合達)이 불가하다 하여 그만두었다.

隴安軍節度使完顏阿鄰日與將士宴飲，不治軍事，夏人乘之，掠民五千餘口·牛羊雜畜數萬而去。

농안군(隴安軍) 절도사(節度使)인 완안아린(完顏阿鄰)이 매일 장사(將士)들과 잔치를 벌이며 마셔대면서 군대 사무를 잘 다스리지 않자 하인들이 그 틈을 노리고 백성 5천여 명과 소·양 등 여러 가축 수만 마리를 노략질해갔다.

自天會議和，八十餘年與夏人未嘗有兵革之事。及貞祐之初，小有侵掠，以至構難十年不解，一勝一負精銳皆盡，而兩國俱弊。

천회(天會) 연간(1123~1137)부터 강화를 논의한 이래로 80여 년간 하인(夏人)들과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다. 정우(貞祐) 연간(1213~1217)의 초기에 작은 규모의 침략과 노략질이 있었는데 10년이 되도록 얽히고설킨 전란으로 되기에 이르렀고, 승리와 패배를 거듭하면서 정예 병이 다 소진되어 양국이 모두 피폐해지게 되었다.

是歲，遵頊傳位於子德旺。正大元年，和議成，自稱兄弟之國。

이 해에 [이]준욱이 [임금의] 자리를 아들인 [이]덕왕(李德旺)에게 물려주었다. [애중] 정대(正大) 원년(1224) 화의가 달성되자 형제(兄弟)의 나라로 스스로 칭하였다.

三年二月，遵頊死，七月，德旺死，嗣立者史失其名。明年，夏國亡。

[애중 정대] 3년(1226) 2월 [이]준욱이 죽고, 7월에는 [이]덕왕이 사망하였는데, 계위한 자는 역사에 그 이름이 남겨져 있지 않다. 그 다음해(1227)에 하국(夏國)이 망하였다.

先是，夏使精方匭匣使王立之來聘，未復命國已亡，詔於京兆安置，充宣差彈壓，主管夏國降戶。八年五月，立之妻子三十餘口至環州，詔以歸立之，賜以幣帛。立之上言，先世本申州人，乞不仕，居申州。詔如所請，以本官居申州，主管唐·鄧·申·裕等處夏國降戶，聽唐·鄧總帥府節制，給上田千畝·牛具農作云。

이전에 하(夏)가 사신으로 정방궤갑사(精方匭匣使)인 왕립지(王立之)를 보내서 방문하였

는데 아직 명을 수행하지도 않은 채 나라가 이미 망하였다. [애중은] 경조부(京兆府)¹²¹⁾에 조를 내려 [왕립지를] 안치시키고 선차탄압(宣差彈壓)¹²²⁾으로 충임(充任)하여 하국에서 투항해온 호(戶)을 주관하게 하였다. [정대] 8년(1231) 5월 [왕]립지의 처와 자식 30여 명이 환주(環州)에 이르자 조(詔)를 내려 [왕]립지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고는 폐백(幣帛)을 하사해주었다. [왕]립지가 상언하기를 (그의) 선대는 본래 신주(申州)¹²³⁾ 사람이니 벼슬하지 않고 신주에 살겠다고 청하였다. 조(詔)를 내려 청하는 바대로 해주고 본관(本官)에 따라 신주(申州)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당주(唐州)·등주(鄧州)·신주(申州)·유주(裕州) 등의 하국에서 투항해온 호(戶)를 주관하도록 하고, 당주·등주의 총수부(總帥府) 절제(節制)를 따르도록 하고 상전(上田) 1천 무(畝)와 소·농기구를 주어 직접 농사짓도록 하였다고 한다.

贊曰：夏之立國舊矣，其臣羅世昌譜敘世次稱，元魏衰微，居松州者因以舊姓爲托跋氏。按唐書党項八部有托跋部，自党項入居銀·夏之間者號平夏部。托跋思恭以破黃巢功賜姓李氏，兄弟相繼爲節度使，居夏州，在河南。繼遷再立國，元昊始大，乃北渡河，城興州而都之。

찬자(贊者)는 말한다. 하(夏)는 나라가 세워진 지 오래되었는데, 그 산하인 나세창(羅世昌)이 역대의 계보를 차례로 정리해보니, 원위(元魏)¹²⁴⁾가 쇠약해질 때 송주(松州)¹²⁵⁾에 거주하던 자가 옛 성(姓)에 따라 탁발씨(托跋氏)라 한 것이었다고 한다. 『당서(唐書)』에 따르면 당항(党項)¹²⁶⁾ 8부(部)에 탁발부(托跋部)가 있는데, 당항에서 은주(銀州)·하주(夏州) 사이

121) 京兆府: 唐 開元 원년(713)에雍州를 고쳐 설치하였으며, 치소는 長安縣·萬年縣(현재 陝西省 西安市)이다. 관할 영역은 오늘날 陝西省 秦嶺 북쪽, 乾縣 동쪽, 銅川市 남쪽, 渭南市 서쪽이며, 그 후 증감이 있었다. 현종 開元 21년(733)에 關內道로 되어 京畿道의 치소가 되었다. 五代 後梁 때에는 大安府로 되었다가 後唐에서 다시 京兆府라 하였다. 元 至元 16년(1279)에 安西路로 바꾸었다.

122) 彈壓: 송·금·원 시대 규찰을 담당하던 하급관리.

123) 申州: 金 말기에 설치하였으며, 치소는 南陽縣으로 현재 河南省 南陽市이다.

124) 元魏: 선비 탁발씨가 세운 北魏(386~534)를 말한다. 옛 사서에서는 元魏라 되어 있으나 일반적으로 北魏라 한다. 창업자는 拓跋珪이며, 平城(현재의 山西省 大同市)에 도읍했으며, 漢化政策으로 유명한 孝文帝 때 洛陽으로 도읍을 옮겼다. 534년 東魏와 西魏로 분열되었다.

125) 松州: 오늘날 四川省 松潘縣.

로 들어온 자들을 평하부(平夏部)라 했으며, 탁발사공(拓跋思恭)이 황소(黃巢)를 격파한 공으로 인해 이씨(李氏) 성을 하사받아 형제간에 서로 이어 절도사(節度使)가 되어 하주(夏州)에 거주하다가 황하의 남쪽에 [이]계천(李繼遷)¹²⁷이 다시 나라를 세웠으며, [이]원호(李元昊)가 비로소 강대해져서 이에 북쪽으로 황하를 건너 흥주(興州)에 성을 쌓고 도읍하였다고 한다.

其地初有夏·綏·銀·宥·靈·鹽等州， 其後遂取武威·張掖·酒泉·燉煌郡地， 南界橫山， 東距西河， 土宜三種， 善水草， 宜畜牧， 所謂涼州畜牧甲天下者是也。 土堅腴， 水清冽， 風氣廣莫， 民俗強梗尚氣， 重然諾， 敢戰鬪。 自漢·唐以水利積穀食邊兵， 興州有

126) 党項: 탕구트(Tangut)족의 한자 명칭. 6세기 무렵부터 14세기경까지 중국 북서부를 중심으로 활약한 민족이다. 티베트계 羌族의 일족으로, 여러 부족으로 나뉘어 7세기 초부터 吐蕃(티베트)과 青海 지방의 강국 吐谷渾 사이에 있는 지역에 거주하였다. 拓跋部의 수령 拓跋赤辭가 토욕혼의 왕가와 통혼하면서 최강의 부족으로 군림하여 탕구트족의 주도권을 장악하였다. 唐太宗의 회유책에 따라 탕구트족은 당에 복종하고 拓跋赤辭는 李氏 姓을 받았다. 그 후 토번이 흥성하여 吐谷渾을 과하고 청해 지방을 영유하자 탕구트족도 토번에 흡수되어 그 지배하에 들어갔으나 당나라 말기에 이르러 東山·南山·平夏의 3부족으로 대별된다. 9세기 후반 평하부의 수령 拓跋思恭이 黃巢의 난을 진압한 공으로 당나라 조정에서 절도사에 임명되고 李氏 성을 받았으며 그 자손은 대대로 夏州 定難軍 절도사를 세습하였다. 拓跋思恭부터 9대에 이르러 계승문제를 둘러싸고 宋에 복종한 형 李繼捧과 송에 반항하고 契丹에 臣屬의 예를 취한 아우 李繼遷 사이에 분쟁이 일어났다. 그 후 이계천의 아들 李德明이 뒤를 잇고 송과 화해하였으나, 이계봉의 후계들은 계속 당항으로 남아 있었다.

127) 李繼遷(963~1004): 탕구트족의 지도자이며 西夏의 초대 군주(재위 983~1004)이다. 宋에서 하사받은 이름은 趙保吉이며 李繼捧의 族弟이다. 平夏部 사람으로 銀州防禦使인 李光儼의 아들이며, 拓跋思忠이 그의 고조부이다. 그의 선조는 5대조 拓跋重建이 당에서 安撫平下蕃落使에 임명된 뒤 종고조부 拓跋思恭(李思恭으로 개명)이 定難軍節度使 夏國公의 직위를 받아 대대로 세습했다. 탁발사공이 당나라로부터 이씨 성을 하사받아 이씨라 하였다. 그는 이사공의 동생 李思忠의 4대손이다. 아버지 李光儼은 後周로부터 銀州防禦使에 임명되었다. 당 멸망 후 정난군과 하국은 별도의 세력을 형성하였으나 982년 그의 8촌 族兄인 이계봉이 송에 귀순하였다. 이계천은 983년 친동생 李繼沖과 측근 張浦와 함께 반발, 983년 송에서 독립하고 거란에 귀부하였으며, 거란에게서 夏國王에 봉작되었다. 요 성종의 딸 義成公主와 결혼하여 그의 부마가 되었다. 992년 요 성종에게서 西平王에 봉해졌고, 1002년 자신의 선조를 서평왕에 추봉하였다. 1004년 1월 26일에 아들 이덕명이 왕위를 계승하였다. 이덕명은 그를 應運法天神智仁聖至道廣德孝光皇帝로 추존하였고, 손자 이원호가 1032년 칭제하면서 廟號를 太祖라 하고, 諡號를 神武皇帝라 하였다.

漢·唐二渠, 甘·涼亦各有灌溉, 土境雖小, 能以富強, 地勢然也.

그들의 땅은 처음에는 하주(夏州)·수주(綏州)¹²⁸·은주(銀州)·유주(宥州)¹²⁹·영주(靈州)·염주(鹽州)¹³⁰ 등이 있었고, 그 후에는 점차 위주(威州)·장액(張掖)¹³¹·주천(酒泉)¹³²·돈황(燉煌)¹³³ 군(郡) 등의 지역을 차지하여 남으로는 횡산(橫山)¹³⁴을 경계로 삼았고, 동으로

128) 綏州: 西魏 廢帝 원년(552)에 설치되었다. 치소는 安寧郡 安寧縣인데 현재 陝西省 綏德縣 동남쪽 59리쯤에 위치한다. 관할 구역은 현재 陝西省의 綏德·清澗·子長·子洲·米脂·佳縣·吳堡 등의 縣과 橫山縣 동부, 榆林市 남부 지역을 포함한다. 隋 大業 원년(605) 上州라 고쳤으며, 대업 3년(607)에 雕陰郡으로 바꾸었다. 唐 武德 3년(620) 다시 綏州를 설치하였다. 이후 치소가 여러 차례 변하다가 貞觀 2년(628)에 이르러 처음으로 上縣(오늘날 綏德縣)으로 옮겨졌다. 당시 관할 영역이 축소되었는데, 현재의 綏德·吳堡·清澗의 세 縣과 子長·子洲의 일부 지역이다. 天寶 원년(742)에 上郡으로 고쳤으며, 乾元 원년(758) 다시 綏州라 하였다. 서하 건국 이래 서하령으로 되었다가 북송 仁宗 治平 4년(1067)에 宋에 점령되었다. 神宗 熙寧 2년(1069)에 폐지하여 綏德城으로 하였다. 이후 서하와 북송의 영토분쟁의 핵심 지역으로 되었다.

129) 宥州: 西夏가 설치했던 宥州路의 치소이며 오늘날 內蒙古自治區 鄂托克前旗 동남쪽 城川鄉 古城이다.

130) 鹽州: 西魏 廢帝 3년(554) 西安州를 고쳐 설치하였다. 치소는 五原縣으로 현재의 陝西省 定邊縣이다. 『元和志』卷4〈鹽州〉條에는 “似其北有鹽池, 故名”이라 하여 염지로 인해 이름이 유래되었음을 알 수 있다. 隋 大業 3년(607) 鹽川郡으로 하였다가 唐 초기에 다시 鹽州라 하였다. 天寶 원년(742) 五原郡이라 고쳤다가 乾元 원년(758) 다시 鹽州라 하였다. 建中 연간(780~783) 이후 吐蕃에 속하였다가 唐 肅宗 建元 연간에 수복하였다. 11세기 이후에는 西夏에 속했으며, 蒙古제국 시기에 폐지되었다.

131) 張掖: 漢 武帝가 武威郡을 나누어 설치한 郡으로 ‘張國臂掖(나라의 팔과 겨드랑이를 펼친다)’이라는 표현에서 비롯된 명칭이다. 치소는 麟得縣(오늘날 甘肅省 張掖市 서북쪽)에 있었으며, 관할 구역은 甘肅省 高臺縣 이동, 弱水 上流, 內蒙古自治區 額濟納旗 지역이었다. 일설에 따르면 酒泉에서 분리되어 나온 것이며, 관할 영역은 이보다 후에 설치된 武威郡의 관할 구역까지 포함했었다고 한다.

132) 酒泉: 前漢 元狩 2년(전121) 匈奴 渾邪王이 투항한 뒤에 설치된 郡名. 郡의 치소가 있는 곳 아래에 샘이 있었고 그 물맛이 술과 같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며 河西回廊의 서부를 관할하였다. 치소는 祿福縣. 일설에 따르면 元鼎 2~3년(전115~114) 혹은 원정 6년(전111)에 처음 설치되어 河西回廊 전체를 관할하다가 후일 武威와 酒泉의 지역을 분할하여 張掖·敦煌을 두면서, 酒泉은 현재 甘肅省 疏勒河 이동, 高臺縣 이서 지역만을 관할하게 되었다고 한다.

133) 敦煌: 전한 元鼎 6년(전111) 酒泉郡에서 분리되어 설치된 郡이다. 치소는 敦煌縣(현재 甘肅省 敦煌市 서쪽)이다. 관할 영역은 현재의 甘肅省 疏勒河 서쪽 및 남쪽 지역이다. 16국 시기에는 前涼이 이곳에 沙州를 설치했으며, 이후에는 西涼國의 도읍으로 되었다. 北魏 太武帝는 敦煌鎮으로 고쳤다가 이후

는 서하(西河)¹³⁵에 이르렀다. 토양은 세 가지 곡식¹³⁶을 경작하기에 적합하며, 물이 좋고 풀이 많아, 가축의 방목에도 적합하니 이른바 양주(涼州)의 가축 방목은 천하(天下)의 으뜸이라는 것은 이를 말하는 것이다. 토양이 단단하면서 기름지고, 물은 맑고 시원하며, 바람 기운은 광막(廣漠)하였다. 백성들의 풍속은 강인하면서 기개를 숭상하였고 약속을 중시하였으며 전투를 하는데 용감하였다. 한(漢)·당(唐) 이래로 수리(水利)를 이용하여 곡식을 비축하여 변방의 병사에게 먹었는데, 흥주(興州)¹³⁷에는 한·당대의 두 즐기 수로[渠]가 있고, 감주(甘州)¹³⁸·양주(涼州)¹³⁹에서도 역시 각각 관개(灌溉) 시설이 있었다. [하국의] 영토가 비록

다시 郡으로 하였다. 隋 開皇 3년(583)에 폐지하였다가 大業 3년(607)에 다시 敦煌郡을 두었다. 唐 武德 2년(619)에 瓜州로 고쳤다가 무덕 5년(622)에 다시 西沙州라고 하였다. 貞觀 7년(633)에 다시 沙州로 하였다가 天寶 원년(742)에 敦煌郡으로 하였으며, 乾元 원년(758)에 다시 沙州로 고쳤다.

134) 橫山: 현재의 陝西省 橫山縣 남쪽에 동서로 걸쳐 있으며, 해발 약 1,400여 미터이다. 『宋史』 卷335 「種諤傳」에 “……諤言, ‘橫山延袤千里, 多馬宜稼, 人物勁悍善戰, 且有鹽鐵之利, 夏人恃以爲生. 其城壘皆控險, 足以守禦. 今之興功, 當自銀州始. 其次遷宥州, 又其次修夏州, 三郡鼎峙, 則橫山之地已囊括其中. 又其次修鹽州, 則橫山疆兵戰馬, 山澤之利, 盡歸中國. 其勢居高, 俯視興, 靈, 可以直覆巢穴’”이라고 하였다.

135) 西河: 黃河의 한 부분이다. 주로 현재 山西省과 陝西省 사이 남북 방향으로 흐르는 황하를 가리킨다. 이 부분의 황하는 夏·商 및 산동 諸國의 도성에서 보면 서쪽이었던 까닭에 이런 이름이 붙었다. 하지만 본문에서의 西河는 寧夏省과 內蒙古自治區 사이에서 남에서 북으로 흐르는 황하의 일부분을 의미한다. 『史記』 卷111 「衛將軍驃騎傳」에는 “度西河, 至高關”이라는 구절이 있다.

136) 三種: 黍·稷·稻를 의미한다. 한편 본문에서의 세 가지 곡식이란 실제 기장과 쌀뿐만 아니라 그 당시 보편화되었던 밀과 쌀 등을 포함한 다양한 곡물이 재배 가능하였다는 의미이다. 『周禮』 「夏官」〈職方氏〉에 “東北曰 幽州, 其畜宜四擾, 其穀宜三種”이라 하였는데 이에 대한 鄭玄의 注에 “三種, 黍, 稷, 稻”라고 되어 있다.

137) 興州: 송 天禧 4년(1020)에 서하의 李德明이 설치하였으며, 수도로 삼았다. 치소는 懷遠鎮(현재 寧夏省 銀川市)이며, 관할 영역은 오늘날 寧夏省 銀川市 지역에 해당한다. 『宋史』 「外國傳」 1 〈夏國〉 上에는 “仍居興州, 阻河依賀蘭山爲固”라 되어 있다. 북송 仁宗 明道 2년(1033) ‘興慶府’로 승격하였다.

138) 甘州: 西魏 廢帝 3년(554) 西涼州를 고쳐서 설치하였다. 치소는 永平縣으로 현재의 甘肅省 張掖市 서북쪽이다. 『元和郡縣圖志』 卷40 「甘州」에는 “因州東甘峻山爲名. 或言地多甘草, 故名”이라 하였는데 현재 甘肅省 高台縣 이동 駒水 상류 지역을 관할하였다. 그 후에도 여러 차례 변화가 있었다. 隋 大業 3년(607) 張掖郡으로 바꾸었다. 唐 武德 2년(619) 다시 甘州라 하였고, 치소는 張掖縣으로 현재의 張掖市이다. 天寶 원년(742) 張掖郡으로 고쳤다가 乾元 원년(758) 다시 甘州라 하였다. 永泰 2년(766) 吐蕃에게 함락되었다. 大中 연간(847~860) 후에는 다시 回鶻이 점령하였다. 북송 天聖 6년(1028) 西夏가 차지했으며, 宣化府라 하였다.

139) 涼州: 後漢 元封 5년(전106)에 설치되었던 13州 刺史部의 하나이다. 後漢 때 치소는 隴縣으로 현재

작아도 능히 부강할 수 있었던 것은 땅의 형세가 그러하기 때문이다.

五代之際，朝興夕替，制度禮樂，盡爲灰燼，唐節度使有鼓吹，故夏國聲樂清厲頓挫，猶有鼓吹之遺音焉。然能崇尚儒術，尊孔子以帝號，其文章辭命有可觀者。立國二百餘年，抗衡遼·金·宋三國，徇鄉無常，視三國之勢強弱以爲異同焉。故近代學者記西北地理，往往皆臆度言之。聖神有作，天下會于一，驛道往來視爲東西州矣。

오대(五代) 무렵 [왕조의] 교체가 빈번하니 제도(制度)와 예악(禮樂)이 [전란에] 휩쓸려 들어가 재가 되어 버렸다. 당(唐)의 절도사(節度使)에게는 북과 피리가 있었는데 그 때문에 하국(夏國)의 음악은 고요하게 높아지다가 꺾어지는 것이, 오히려 북과 피리의 음악이 남겨진 셈이 되었다. 하지만 능히 유술(儒術)을 숭상하고 공자(孔子)를 존숭하여 황제의 존호를 사용하였고, 예악(禮樂)과 제도[文章], 외교적 수사[辭命] 같은 것에 불 만한 바가 있었다. 나라를 세운지 2백여 년 동안 요(遼)·금(金)·송(宋) 세 나라와 대항하여 겨루며 향배(向背)가 일정하지 않았으니, 세 나라의 국세가 강하고 약함을 견주어 [그 태도가] 일정하지 않았다. 때문에 근래의 학자들이 서북쪽의 지리(地理)를 기술할 때 왕왕 모두 억측(臆測)하여 [좋지 않은] 이야기를 하곤 한다. 성명(聖明)한 군주가 나타나서 천하가 모두 하나로 되어 역도(驛道)로 왕래하니 이전의 [나라는] 동주(東州)·서주(西州)로 간주될 뿐이다.

— 『금사(金史)』 권135 외국(外國) 하 「고려(高麗)」는 국사편찬위원회, 『중국정사조선전역주(中國正史朝鮮傳譯註)』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생략한다. —

甘肅省 張家川 回族自治縣이다. 隋 大業 연간(605~617) 초에 武威郡으로 고쳤다. 唐 武德 2년(619)에 다시 涼州로 하였으며, 관할 구역은 현재 甘肅省 永昌縣 동쪽, 天祝藏族自治縣 서쪽 일대이다. 天寶 원년(742) 다시 武威郡으로 고쳤다가 乾元 원년(758) 다시 涼州로 고쳤다. 廣德 2년(764) 吐蕃에 함락되었으며, 五代와 西夏 때는 西涼府라 하였다.

| 참고문헌 |

동북아역사재단 편, 『譯註 中國 正史 外國傳』 1~13, 동북아역사재단, 2009~2013

『二十五史』, 北京: 中華書局, 1959~1977

羅福成, 『西夏國書類編』, 東山學社鉛印本, 1915

羅福成, 『西夏國書略說』, 東山學社鉛印本, 1915

羅福成, 『西夏國書字典音同』, 遼寧庫籍整理處影印本, 1935

羅福萇·羅福頤, 『宋史夏國傳集注』, 『國立北平圖書館館刊』 4-3, 1932

羅福萇·羅福頤 集注, 彭向前 補注, 『宋史夏國傳集注』, 陳育寧 主編, 西夏研究叢書 第4輯, 銀川: 寧夏人民出版社, 2004

戴錫章·羅矛昆 校點, 『西夏紀』, 西北史地資料叢書, 銀川: 寧夏人民出版社, 1988

杜佑, 『通典』, 北京: 中華書局, 1988

馬端臨, 『文獻通考』, 北京: 中華書局 影印本, 1986

史金波·白濱·黃振華, 『文海研究』, 中國社會科學出版社, 1983

史金波·白濱·聶鴻音 譯注, 『天盛改舊新定律令』, 法律出版社, 2000

史金波·聶鴻音·白濱, 『天盛改舊新定律令譯注』, 法律出版社, 2000

史金波·黃振華·聶鴻音, 『類林研究』, 銀川: 寧夏人民出版社, 1993

司馬光·胡三省 音注, 『資治通鑑』, 北京: 中華書局, 1976

徐松, 『宋會要輯稿』, 北京: 中華書局 影印本, 1957

楊仲良, 『皇宋通鑑長編紀事本末』, 哈爾濱: 黑龍江人民出版社, 2006

吳廣成, 『西夏書事』, 龔世俊 校點, 甘肅文化出版社, 1995

王仁俊, 『西夏文綴』, 清光緒20年 刊本

王仁俊, 『西夏藝文志』, 清光緒20年 刊本

王欽若 等, 『冊府元龜』, 北京: 中華書局, 1982

李范文, 『夏漢字典』, 中國社會科學出版社, 1997

李心傳, 『建炎以來繫年要錄』, 北京: 中華書局, 1988

佚名, 『宋史全文』, 哈爾濱: 黑龍江人民出版社, 2005

張鑾, 『西夏紀事本末』, 龔世俊·陳廣恩·朱巧雲 校點, 甘肅文化出版社, 1998

- 陳邦瞻, 『宋史紀事本末』, 北京: 中華書局, 1977
- 韓蔭晨, 『党項與西夏資料彙編』, 寧夏人民出版社, 2000
- 저자미상, 『西夏志略』, 胡玉冰 校證, 甘肅文化出版社, 1998
- 김한규, 『고대중국적세계질서연구』, 일조각, 1982
- 김한규, 『遼東史』, 문학과지성사, 2004
- 王枷 지음, 김정희 역, 『민족과 국가—중국 다민족통일국가 사상의 계보』, 동북아역사재단, 2005
- 윤영인 외, 『10~18세기 북방민족과 정복왕조 연구』, 동북아역사재단, 2009
- 이근명 외, 『동북아 중세의 한족과 북방민족: 최근 중국 학계의 연구동향과 그 성격』,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총서 55, 동북아역사재단, 2010
- [德]傅海波, [英]崔瑞德 主編, 『檢校中國遼西夏金元史』, 中國社會科學出版社, 1998
- 杜建錄, 『西夏與周邊民族關係史』, 甘肅文化出版社, 1995
- 杜建錄, 『20世紀西夏學』, 寧夏人民出版社, 2004
- 史金波, 『西夏文化』, 吉林教育出版社, 1986
- 史金波, 『西夏佛教史略』, 寧夏人民出版社, 1988
- 聶鴻音, 『西夏文德行集研究』, 甘肅文化出版社, 2002
- 吳天墀, 『西夏史稿』, 四川人民出版社, 1980
- 王克孝, 『黑城出土漢文遺書敘錄』, 寧夏人民出版社, 1994
- 王靜如, 『西夏研究 1·2·3輯』, 中央研究院歷史語言研究所集刊鉛印本, 1932
- 王天順, 『西夏學概論』, 甘肅文化出版社, 1995
- 王天順, 『西夏地理研究』 蘭州: 甘肅文化出版社, 2002
- 李范文·种侃·吳雲峰, 『西夏簡史』, 寧夏人民出版社, 1979
- 李蔚, 『簡明西夏史』, 人民出版社, 1997
- 張博泉, 『金史簡編』, 遼寧人民出版社, 1984
- 朱學淵, 『中國北方諸族的源流』, 中華書局, 2002
- 陳炳應, 『西夏文物研究』, 寧夏人民出版社, 1985
- 西田龍雄, 『西夏語研究: 西夏語の構擬と西夏文字の解讀1·2』, 東京: 座右寶刊行會, 1964·1966
- Sinor, Denis ed., *The Cambridge History of Early Inner Asia*,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0
- Franke, Herbert and Twitchett, Denis eds., *The Cambridge History of China, Volume 6: Alien Regimes and Border States, 907~1368*,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4

Luc, Kwanten, *The Timely Pearl, A 12th Century Tangut Chinese Glossary*, Bloomington: Indiana University Press, 1982

金渭顯, 「宋史筌西夏列傳」, 『宋史研究論文集』, 河北大學出版社, 2002

김위현, 「금 연구」, 『중국학계의 북방민족·국가 연구』, 동북아역사재단, 2008

민병훈, 「서하·금의 교빙관계에 대하여」, 『중앙아시아사연구』 1, 1996

박지훈, 「西夏의 자국인식과 중국관: 元昊 치세기를 중심으로」, 『중국학연구』 56, 2011

申採湜, 「宋·西夏貿易考」, 『歷史教育』 10, 1967

賈敬顏, 「西夏學研究的回顧與展望」, 『歷史研究』, 1986-1

顧吉辰, 「宋人西夏著作考」, 『天水師專學報』, 1989-4

龔煌城, 「西夏文字衍生過程的重建」, 『國立政治大學邊政研究所年報』 15, 1984

喬衍瑄, 「宋西事案」, 『國立中央圖書館館刊』 新1卷 3·4期, 1968

唐嘉弘, 「關於西夏拓跋氏族屬問題」, 『四川大學學報』, 1955-2

杜建錄, 「論西夏與周邊民族關係及特點」, 『民族研究』, 1996-2

羅矛昆, 「李繼遷攻取靈州對西夏建國的作用」, 『寧夏社會科學』, 1981-3

呂卓民, 「試論李繼遷舍夏取靈與西夏建國的關係」, 『寧夏大學學報』, 1991-3

林英津·安可思, 「類林西夏譯本之研究」, 『大陸雜誌』 84-5, 1992

穆鴻利, 「試論西夏黨項文化傳統及其與周邊各族文化的交流」, 『寧夏大學學報』, 1999-2

孟楠, 「論克烈人與西夏的關係」, 『內蒙古社會科學』, 1998-3

白濱, 「『西夏志略』考」, 『民族研究』, 1985-4

白濱, 「西夏雕版印刷初探」, 『文獻』, 1996-4

白濱, 「俄藏黑水城文獻漢文部分述要」, 『宋史研究論文集』, 寧夏人民出版社, 1999

白濱, 「20世紀西夏文文獻研究」, 『20世紀西夏學』, 寧夏人民出版社, 2004

史金波, 「西夏文『官階封號表』考釋」, 『中國民族古文字研究論文集』, 天津古籍出版社, 1992

史金波, 「西夏境內民族考」, 『慶祝王鍾翰先生80壽辰學術論文集』, 遼寧大學出版社, 1993

聶鴻音, 「西夏史料簡說」, 『文史知識』, 1989-4

聶鴻音, 「戴錫章的『西夏紀凡例』未刊稿」, 『寧夏社會科學』, 1990-1

聶鴻音, 「補『西夏藝文志』」, 『古籍整理研究學刊』, 1990-6

聶鴻音, 「西夏『天盛律令』成書年代辨析」, 『尋根』, 1998-6

聶鴻音, 「關於黑水城的兩件西夏文書」, 『中華文史論叢』 63, 2000

- 孫宏開·聶鴻音,「20世紀西夏語言研究」,『20世紀西夏學』,寧夏人民出版社,2004
- 楊志玖,「西夏是不是羌族」,『歷史教學』,1956-4
- 吳天墀,「論党項拓跋氏族屬及西夏國名」,『西北史地』,1986-1
- 王靜如,「西夏國名考」,『西夏史論文集』,寧夏人民出版社,1984
- 王天順,「試論宋夏戰爭中雙方戰略地位的變化」,『寧夏社會科學』,1994-3
- 王忠,「論西夏的興起」,『歷史研究』,1962-5
- 袁曉陽,「金朝與西夏關係初探」,『黃河科技大學學報』,2011-03
- 劉建麗,「論儒學對西夏社會的影響」,『西北師範大學學報』,2000-3
- 劉建麗,「20世紀西夏與周邊民族關係研究」,『20世紀西夏學』,寧夏人民出版社,2004
- 劉建麗,「略論西夏與金朝的關係」,『寧夏社會科學』,2005-3
- 劉建麗·湯開建,「夏金關係述評」,『西北師院學報』,1986-2
- 李范文,「宋西事案:國內罕見的一部西夏史書」,『寧夏大學學報』,1983-2
- 李范文,「西夏國名辨」,『西夏研究論集』,寧夏人民出版社,1983
- 李范文,「西夏文官階封號表考釋」,『社會科學戰線』,1991-3
- 李范文,「西夏在中國歷史中的地位」,『寧夏社會科學』,2002-3
- 李蔚,「宋夏橫山之爭述論」,『民族研究』,1987-6
- 李蔚,「蒙夏戰爭特點及西夏滅亡的原因」,『固原師專學報』,2000-4
- 李志清,「西夏諸名稱音義析辨及其族源探索」,『西夏文史論叢』1,寧夏人民出版社,1992
- 李浩楠,「金朝與西夏關係研究的幾個問題」,『西夏研究』,2011-1
- 張國慶,「略論遼夏和親與遼夏關係的惡化」,『史學月刊』,1988-5
- 張雲,「党項名義及族源考證」,『首屆西夏學國際學術會議論文集』,寧夏人民出版社,1998
- 張慧等,「西夏黃河沿岸的榷場經濟:兼論西夏與中亞地區的貿易往來」,『內蒙古地方志』,1995-3
- 趙一匡,「宋夏對立與河湟地區的民族關係」,『蘭州學刊』,1987-4
- 朱筱新,「評遼在夏宋關係中的作用」,『寧夏大學學報』,1988-1
- 陳炳應,「遼夏關係及其相互政策」,『寧夏社會科學』,1991-4
- 陳育寧,「蒙古與西夏關係略論」,『民族研究』,1988-5
- 蔡東洲,「試論南宋與西夏的關係」,『四川師範學院學報』,1992-1
- 湯開建,「李繼遷領導的反宋戰爭是一場反對民族壓迫的正義鬥爭嗎?」,『西北民族文叢』,1984-2
- 湯開建,「關於元昊領導的反宋戰爭性質的探討」,『青海民族學院學報』,1985-2
- 湯開建·羅矛昆,「西夏史料概述」,『寧夏社科通訊』,1985-6
- 湯開建,「關於西夏拓跋氏族源的幾個問題」,『中國史研究』,1986-4

湯開建, 「党項源流新證」, 『寧夏社會科學』, 1996-1

馮繼欽, 「西夏與蒙古高原諸部的關係」, 『寧夏社會科學』, 1985-4

胡玉冰, 「『西夏志略』考略」, 『寧夏社會科學』, 1999-1

橋本萬太郎, 「掌中珠の夏漢對音研究方法」, 『中國語學』 109, 1961

橋本萬太郎, 「文海韻の韻組織と西夏語音論」, 『言語研究』 41, 1962

橋本萬太郎, 「西夏の國書字典‘音同’の同居韻」, 『言語研究』 43, 1963

橋本萬太郎, 「文海韻の音韻組織」, 『東方學』 30, 1965

佐藤貴保, 「西夏の二つの官僚集團: 十二世紀後半における官僚登用法」, 『東洋史研究』 66-3, 2007

畑地正憲, 「宋代における麟府路について」, 『東洋史研究』 51-3, 1992

向本健, 「西夏の仏教とその政治的背景」, 『大谷大学大学院 研究紀要』 23, 2006

Luc, Kwanten, “The Structure of the Tangut [Hsi Hsia] Characters”, 『亞非言語文化研究』 36, 1988

Nevsky, N. A., “A Brief Manual of the Si-hia Characters with Tibetan Transcriptions,” *Research Review of Osaka Asiatic Society*, 4, 1926

龔延明 主編, 『宋代官制辭典』, 北京: 中華書局, 1997

羅竹風 主編, 『漢語大詞典』, 上海: 漢語大詞典出版社, 1990~1993

譚其驥 主編, 『中國歷史地圖集』 第5冊: 隋·唐·五代十國時代, 北京: 中國地圖出版社, 1982

臧勵蘇 等編, 『中國古今地名大辭典』, 臺灣: 商務印書館, 1972, 原刊 1931

諸橋徹次, 『大漢和辭典』, 東京: 大修館書店, 1966

馮承鈞 原編, 陸峻嶺 增訂, 『西域地名(增訂本)』, 北京: 中華書局, 1980

『アジア歴史事典』 全10卷, 東京: 平凡社, 1962

『원사(元史)』 외이전 해제

명을 건국하고 원조(元朝)를 중원에서 몰아낸 태조 홍무제(洪武帝)는, 명을 개창한 바로 그해에 명령을 내려 『원사』를 찬수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이듬해인 홍무 2년(1369) 2월 사국(史局)이 개설되어 188일 만인 8월에 일단 원 일대(一代)의 역사가 완성되었다. 이때의 찬술 책임자로는 중서성 좌승상인 이선장(李善長)이 감수(監修), 한림학사 송렴(宋濂)과 대제(待制) 왕위(王禕)가 총재(總裁)를 맡았으며, 찬술의 실무는 유사(儒士)인 조훈(趙燾)·왕극관(汪克寬) 등 16명이 담당하였다.

하지만 이때 완성된 『원사』는 마지막 황제인 순제(順帝) 시기를 제외한 것이었다. 순제 시기에는 사관직이 폐지되어 찬수의 근거가 될 만한 자료가 없었기 때문이다. 이에 추가적인 자료의 수집 기간을 거쳐 홍무 3년(1370) 2월 다시 사국을 열어 보완 작업에 들어갔다. 이렇게 하여 『원사』가 최종적으로 완성되는 것은 그로부터 143일이 지난 7월의 일이었다. 결국 총분량 210권의 『원사』는 두 차례의 찬술 기간을 모두 합하여도 채 1년이 걸리지 않은 기간에 완성되었던 것이다.

역대 정사를 통해 『원사』만큼 이른 시기에, 그리고 짧은 기간 내에 저술된 것은 없다. 그 이전 가장 단기간에 완성된 정사인 『송사』·『요사』·『금사』와 비교할 때도 오히려 편찬 과정이 신속하였다. 더욱이 『송사』의 편찬 당시는 송대 사학의 흥성으로 말미암아 『국사(國史)』를 비롯한 다양한 관찬·사찬 사서가 남아 있었다. 또 『요사』나 『금사』는 『원사』에 비교될 만큼 빠른 기간에 편찬이 종료되었으나, 분량면에서 『원사』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소략하였다.

이렇게 『원사』가 단기간에, 가히 졸속이라 칭하여도 무방할 정도로 신속하게 편찬된 것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우선 첫째는 명 태조 주원장의 지엄한 독촉 때문이었다. 그리하여 홍무

2년(1369)에 편찬의 명령을 받은 송렴 등은 지체될 경우 장차 견책받을 것이 두려워, 불과 6개월여 만에 순제 시기 부분에 대해서는 손도 대지 아니하고 작업을 종결지었다. 다음으로는 편찬을 담당할 명대 지식인들의 원조에 대한 경원의 관념 내지 이적시(夷狄視)하는 태도가 큰 영향을 미쳤다. 이는 태조 홍무제 역시 마찬가지였다. 홍무제에게 있어 『원사』의 편찬 목적은 일차적으로 오랑캐 왕조의 붕괴와 새로운 왕조 명의 건립을 선포하는 것에 있었다. 이러한 자세로 말미암아 자료의 수집이나 체제의 확정과 같은 기본적인 절차도 흘시하고 편찬 작업을 서둘렀다.

『원사』의 편찬은 주로 각 황제의 실록과 『경세대전(經世大典)』·『공신열전(功臣列傳)』·『원대일통지(元大一統志)』 등 원대의 관찬 전적(典籍)을 대조하여 초록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특히 순제 이전 시기까지는 실록에 크게 의존하였다. 홍무 2년(1369)의 1차 편찬 당시 순제 부분을 저술하지 아니한 것도 마지막 황제라서 실록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홍무 3년(1370)의 2차 편찬 시기에는 범례를 만들고, 구양우(歐陽佑) 등을 각지로 파견하여 다양한 자료를 수집하였다. 이로써 조령(詔令)과 장주(章奏), 금석문 등 적지 않은 자료가 확보되었으나, 이때의 찬술은 이전에 누락된 순제 시기를 보완하고 이전 작업분에 대해 약간 보정을 더하는 것에 그쳤다.

오늘날 『원사』의 편찬 당시에 기초 자료로 이용되었던 원대의 전적은 거의 대부분 전해지지 않고 있다. 가장 많이 의거하였을 것으로 여겨지는 역대 황제의 실록은 아무것도 남아 있지 않다. 일부의 서적만이 부분적으로 잔존할 뿐이다. 이러한 점에서 『원사』는 몽골제국 및 원대의 역사를 인식하는 데 일차적인 자료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사료적 가치와는 별도로, 『원사』는 졸속 편찬으로 인해 많은 약점을 보이고 있다. 가장 큰 문제점은 자료 수집과 검토가 철저하지 못하였다는 점이다. 당시 편찬자들은 몽골어에 대한 조예가 부족하여 주로 한문 자료에만 의거하였다. 몽골 지식인들은 몽골어로 된 적지 않은 역사서와 전적을 남겼다. 하지만 이러한 자료 대부분이 『원사』의 편찬 과정에서 참조되지 않았다. 랏시드 앓 딘의 『집사』는 물론이려니와 『원조비사』와 같은 책들도 제한적으로 이용되었을 뿐이다. 이러한 관계로 한문 자료가 많지 않은 몽골제국 시기에 대해서는 서술도 간략할 뿐더러 그조차 착오를 적지 않게 내포하고 있다.

다음으로는 체제에 대한 검토가 미비되어 사서로서의 통일성에 현저한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 본기 중에 한 가지 사실이 거듭 기록되고, 열전에서 한 인물을 두 사람으로 착각하여

두 개의 전기를 두는 예도 있다. 이를테면 고염무(顧炎武)의 『일지록(日知錄)』에서는, 「열전」 제8의 속불태(速不苔)는 제9의 설불태(雪不兌)이며 제18의 완자도(完者都)는 제20의 완자발도(完者拔都)이고, 제30의 석말야(石抹也)는 제39의 석말아신(石抹阿辛)인데도 한 사람에게 대하여 두 개의 전(傳)을 지었다고 지적하고 있다. 뿐만 아니다. 「재상표」에는 성만 있고 이름은 적혀 있지 않은 경우도 있다. 나아가 「후비표(后妃表)」에서는 부자 관계에 있는 서로 다른 황제의 후비를 뒤섞어 한 황제의 동렬 비빈(妃嬪)으로 적고 있기도 하다. 또 한문으로 번역된 몽골인 이름도 통일되지 않아서, 예컨대 제사인 파스파(八思巴)는 「석노전(釋老傳)」에서는 ‘팔사파(八思巴)’로, 「세조기(世祖紀)」에서는 ‘팔합사파(八合思巴)’로, 그리고 「공예전(工藝傳)」에서는 ‘팔합사파(八合思巴)’로 되어 있다. 인명뿐만 아니라 지명도 마찬가지여서, 발주나 강(班珠尼河)은 어떤 때는 ‘반술니하(班術尼河)’로, 어떤 때는 ‘반진하(班眞河)’로, 또 때로는 ‘변둔하(辨屯河)’로 적혀 있어 대단한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원사』가 이처럼 허다한 문제점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완성 직후부터 개수와 보완의 작업이 경주되었다. 홍무제 스스로도 『원사』에 대한 보정을 명하였던 듯하며, 홍무 연간에 이미 주우(朱右)의 『습유(拾遺)』와 해진(解縉)의 『정오(正誤)』가 저술되었다. 청대가 되면 『원사』의 개수서 및 보완 저작이 한층 많아져서, 대표적인 것만 꼽더라도 위원(魏源)의 『원사신편(元史新編)』, 증렴(曾廉)의 『원서(元書)』, 왕휘조(汪輝祖)의 『원사본증(元史本證)』, 소원평(邵遠平)의 『원사유편(元史類編)』 등이 나왔다. 이러한 작업은 근인에 이르러서도 지속되어 20세기 전후에는 도기(屠寄)의 『몽골아사기(蒙兀兒史記)』 및 가소민(柯劭忞)의 『신원사(新元史)』와 같은 우수한 저작이 편찬되었다. 특히 가소민의 『신원사』는 그 우수성이 인정되어 1920년대 초 군벌 정권에서 정사로 공인하기도 하였다.

『원사』의 「외이전(外夷傳)」은 전체 3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외국전의 구성은 『송사』(12권)와 『명사』(23권)는 물론이려니와 『구당서』·『신당서』 등에도 현격히 미치지 못한다. 구체적으로 권208(「외이」 1)에서는 고려·탐라(耽羅)·일본을, 권209(「외이」 2)에서는 안남(安南)을, 그리고 권210(「외이」 3)에서는 면(緬, 미얀마)·점성(占城, 베트남 중부의 참파)·섬(暹, 타이)·조왜(爪哇, 자와)·유구(瑠求, 타이완)·삼서(三嶼, 필리핀 일대)·마팔아등국(馬八兒等國, 벵골만과 인도 서부)을 수록하고 있다. 대략 동아시아(권208), 베트남(권209), 동남아시아의 여러 나라(권210)만으로 그 서술 대상을 국한시키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그 실제의 내용 또한 고려와 안남, 일본을 제외하고는 의례적이라 여겨질 정도로 간략하다.

다만 그 가운데 〈고려전〉 이외에 〈탐라전〉을 별도로 설정하고 있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중국 역대의 정사 가운데 한반도 부속 도서에 대해 별도의 열전을 설정하고 있는 사례는 『원사』가 유일하다. 이처럼 『원사』에서 〈탐라전〉을 특설하고 있는 것은 몽골 정권이 고려 충렬왕 시기에 탐라를 직할지로 삼았기 때문이다. 당시 동아시아 일대에서 몽골에 복속되지 않은 나라는 남송과 일본뿐이었다. 몽골 정권은 이들 지역을 공략하기 위한 전초기지로서 탐라의 중요성에 주목하였던 것이다. 그리하여 원 세조 지원(至元) 7년(1270) 탐라를 직할지 화하고, 이어 지원 16년(1279)에는 목마장을 설치하기에 이르렀다.

몽골은 유라시아 대륙에 걸쳐 광대한 영역을 지배하였다. 몽골 시기에는 주지하듯이 동서의 교류가 전례 없이 활발하였으며, 몽골 기마병은 초원길 및 사막길(비단길)을 따라 빈번하게 서방에 원정하였다. 또한 원조와 직간접적으로 관계를 맺으며 조공을 한 나라가 광범위하게 분포하였다. 따라서 이 시기에는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주변 제국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을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기대와는 달리 『원사』의 외국에 대한 관심은 대단히 실망스럽다 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원사』가 세조 쿠빌라이 이후의 원조뿐만 아니라 칭기즈칸 이래의 몽골제국 전체의 역사에 대해 기록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원사』의 외국 관련 기록이 이처럼 간략하다는 것은 매우 의외라 여겨진다. 『원사』의 외국전은 고려와 일본 등 동아시아의 국가, 남방의 베트남, 그리고 미얀마·참파·자바·타이 등 동남아시아에 대해서만 언급하고 있을 뿐이다. 남아시아와 서아시아, 그리고 중앙아시아 및 서방의 여러 나라에 대해서는 거의 관심을 두고 있지 않다.

이렇게 『원사』에 외국 관련 기술이 적은 것을 두고, 원대에 외국과의 접촉이 빈번해지고 제민족에 대한 서적이 많아져서 굳이 정사에서 다시 되풀이하여 소개할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이라 설명하기도 한다(高柄翹, 1970). 하지만 이는 다분히 편의적인 해석일 뿐이다. 『원사』의 편찬 과정이라든가 서술 내용을 통해 판단할 때, 외국 관련 기술이 소략한 것은 편찬자들이 지니고 있었던 여건과 인식의 한계에서 기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동아시아 및 동남아 일대를 제외한 지역의 경우 일차 자료가 한자가 아니라 몽골어를 위시하여 중앙아시아·서아시아 언어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명 초의 지식인들이 『원사』의 편찬에 반영할 수 없었을 것이다. 비단 「외이전」 뿐만 아니라 「본기」와 「지」, 그 밖의 「열전」에서도 서술 내용은 원조가 지배하는 영역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몽골제국 시기의 유럽 원정이나 서아시아

원정, 그리고 4한국(汗國)과 관련하여서도 극히 제한된 범위에서만 언급하고 있다. 「외이전」의 빈약한 구성은 찬술자들의 역량 한계, 그리고 편찬 일정의 촉박함에 따른 자료 수집과 검토상의 불비점에서 기인하는 것이라 보아야 할 것이다.

『원사』의 「외이전」은 총 3권의 분량으로 동아시아로부터 동남아시아에 걸친 지역에 대해 서술해가고 있는데, 고려와 안남에 대한 서술이 3분의 2를 상회한다. 특히 안남에 대한 기술은 대단히 이례적이라 할 정도로 많다. 안남은 「외이전」에서 고려와 탐라, 일본에 뒤이어 네 번째로 위치하지만, 그 분량은 고려와 일본을 합한 것보다도 많다.

중국 역대 정사의 외국전은 공히 정치·군사·외교적 접촉을 중심으로 서술하고 있다. 해당 국가나 민족의 사회, 풍속 등에 대해서는 거의 관심을 두지 않는다. 그런데 이러한 일반적 성격에 비추어 보더라도 『원사』의 「외이전」은 매우 특별한 면모를 보인다. 〈일본전〉과 〈안남전〉·〈점성전〉·〈면전〉·〈조왜전〉이 모두 몽골과 해당 국가 사이의 전쟁에 대한 서술로 점철되어 있다시피 하다. 〈안남전〉의 분량이 이례적으로 많은 것도 사실, 몽골과 베트남 사이의 수차에 걸친 전쟁 때문이다. 진조(陳朝) 베트남은 1257년, 1284년~1285년, 그리고 1287년~1288년 세 차례에 걸쳐 몽골의 침공을 받았다. 특히 세 번째의 침공은 원이 10만에 가까운 군대를 동원할 정도로 전면전이였다. 〈안남전〉은 이러한 전쟁의 경과 및 그 사이의 외교적 절충에 대해 언급하기 위해 많은 분량을 할애하고 있는 것이다.

권210(「외이」 3)의 일부, 즉 〈점전〉·〈유구전〉·〈삼서전〉·〈마팔아등국전〉만이 몽골 정권의 정복전쟁이 아닌 조공외교의 내용을 수록하고 있을 뿐이다. 몽골은 이들 섬국·유구·삼서·마팔아 등에 대해서는 원정군을 파견하지 않았다. 이는 원거리라는 지리적 여건(馬八兒 등)이나 해당 국가의 복잡한 사정 내지 왜소함(琉球, 三嶼), 혹은 자발적인 복속(暹國) 등으로 말미암은 것이었다.

이렇듯 「외이전」은 주로 정복전쟁의 경과에 대한 기록이라는 매우 선명하면서도 일견 단순한 내용을 담고 있지만, 『원사』 전반에 걸쳐 보이는 사실 관계의 부정확성이나 혼란은 여기에서도 곳곳에서 산견된다. 〈안남전〉에서 나타나는 사실 관계의 착오 및 오류, 그리고 〈점성전〉·〈면전〉 등에서 드러나는 전후 맥락의 혼란 등이 그것이다. 특히 〈안남전〉은 심각하여 그 오류가 경우에 따라 전쟁의 경과를 호도하는 정도에 이르기도 한다. 『원사』 「외이전」은 13세기 및 14세기 몽골 정권과 동아시아, 동남아시아 각국 간의 관계에 대한 기본 자료이지만, 그 정확한 이용을 위해서는 세심한 이해와 검토가 병행되어야만 할 것이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원사(元史) 권208 외이(外夷) 1

일본전(日本傳)

- 역주: 고명수
- 교열: 박지훈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일본전(日本傳)」 해제

『원사』 권208에서 권210에 이르는 「외이전」에는 고려·일본·안남을 비롯해 동남아·인도양의 여러 해상국가에 관한 기록이 수록되어 있다. 그중 〈일본전〉은 〈고려전〉과 〈탐라전〉 다음 세 번째 자리에 위치해 있다. 「외이전」이 몽골의 대외관계에 미친 영향과 그 중요성 정도에 따라 입전 순서가 결정되었다고 가정할 때 그 시기 몽골이 고려 다음으로 일본을 중요한 외교대상으로 인식했음을 짐작해볼 수 있다. 특히 「외이전」에 수록된 모든 나라·지역 중 오직 일본만 몽골에 복속하거나 조공관계를 맺지 않은 사실을 감안한다면 〈일본전〉의 입전 위치는 그 시기 일본이 몽골과 공식 외교관계를 수립하지 않았음에도 그들에게 중요한 인접국으로 인식되었음을 알려준다.

중국 역대 정사에서 〈왜국전〉이나 〈일본전〉은 『후한서(後漢書)』부터 등장하지만 그 내용이 다소 소략했는데, 『송사』에 이르러 분량이 대폭 늘어나고, 내용 또한 매우 상세해졌다. 이는 단연 그 편찬자가 송 태종 옹희(雍熙) 원년(984) 일본 승려 조연(喬然)이 도래하여 바친 『직원령(職員令)』과 『왕년대기(王年代記)』를 주요 자료로 활용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송사』 〈일본전〉에는 양국 간 교류에 관한 기록뿐 아니라 천황의 가계와 주요 행적, 지리와 행정구역 등 일본 국내 사정에 관한 정보가 풍부하게 담겨 있다.

그와 달리 『원사』 〈일본전〉은 철저하게 자국 중심 사관에 의거하여 서술되었기 때문에 일본의 국내 사정이 전혀 언급되지 않고, 그 시기 몽골이 일본을 상대로 진행한 외교교섭과 양국 사이에 벌어진 두 차례 전쟁에 관한 내용만 실려 있다. 특히 그중 대부분이 쿠빌라이 치세 시기 중 일본에 대한 교섭과 전쟁이 가장 활발하게 진행되었던 1260년대 중엽부터 1280년대 중엽에 이르는 20여 년 기간에 집중되어 있다. 이러한 내용의 편증과 공백은 그 후

몽골이 일본 정벌계획을 철회하고, 정식 외교관계를 수립하지 않은 데 따른 자연스러운 결과였을 것이다. 또한 『원사』가 명 건국 직후 1년에 불과한 단기간에 조급하게 만들어져 편찬자가 일본에 관한 자료를 충분히 수집·활용할 만한 시간과 여유를 갖지 못했던 사정과도 무관하지 않다.

『원사』 〈일본전〉의 전체 내용 구성은 다음과 같다. 서두에 일본 국호에 관한 설명이 나오고, 후한대부터 북송 신종(神宗) 희녕(熙寧) 연간(1068~1077)까지 중국과 일본 간 교류 역사가 간략하게 소개된다. 다음 지원(至元) 2년(1265)부터 쿠빌라이가 일본을 초유하기 위해 진행한 사신 파견과 그들의 활동 그리고 지원 11년(1274)과 지원 18년(1281) 두 차례 단행한 일본 정벌의 추진과정과 결과가 서술된다. 이어 원정실패 후에도 변함없이 전쟁을 준비하면서 한편으로 일본에 지속적으로 사신을 파견한 기사가 등장하고, 대덕(大德) 3년(1299) 승려 일산일녕(一山一寧)의 사행을 마지막으로 그 후 일본인이 끝내 오지 않았다고 언급하면서 내용이 마무리된다.

몽골과 일본은 줄곧 공식 외교관계를 맺지 않았기 때문에 오랜 기간 대화가 단절된 상태에 놓여 있었다. 단지 일본의 민간상인이 강남지역에 도래하여 무역 활동을 행하거나 그들이 기대했던 수익을 얻지 못했을 경우 이를 만회하고자 곳곳에서 약탈·살인·방화와 같은 소란을 일으킨 행위와 몇몇 구법승들이 몽골에 와서 행한 종교 활동이 일부 자료에서 확인될 뿐이다. 따라서 『원사』 〈일본전〉은 그 시기 몽골에 복속하거나 조공관계를 맺고 활발하게 교류한 고려·안남에 관한 기록에 비해 그 내용이 매우 소략하다.

그러나 한편으로 〈일본전〉에는 다른 자료에서 확인하기 어려운 중요한 정보가 담겨 있다. 우선 쿠빌라이가 지원 4년(1267)과 지원 8년(1271) 두 차례 일본을 초유하기 위해 보낸 첩장의 내용 전문을 들 수 있다. 첫 번째 첩장은 『원사』 「본기」나 『고려사』 「세가」에도 수록되어 있지만 두 번째 첩장은 〈일본전〉 외에 어느 기록에서도 확인되지 않는다. 이 두 편의 첩장 전문은 그 시기 몽골의 일본 인식과 일본에 대한 교섭 방식을 선명하게 제시한다. 따라서 이를 통해 일본에 대한 몽골의 정책기조뿐 아니라 몽골 지배층의 전통적 대외관념과 대외정책의 형태·특징을 이해할 수 있다.

다음으로 일본을 초유하거나 침략하기에 앞서 정부 안에서 쿠빌라이와 신료들이 벌인 생생한 논의내용을 들 수 있다. 그 역시 당대 몽골 지배층의 일본에 대한 인식·입장·정책의 실제 모습에 관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공한다. 특히 여러 신료와 백성들이 몽골 정부에 제출한

보고내용과 2차 일본 정벌 직전 일본의 배가 고려로 떠나려오자 그 뱃사공으로 하여금 지도를 그리게 하여 태재부(太宰府) 인근 해안 지형을 파악했다는 수록기사는 그 시기 몽골이 매우 적극적인 자세로 일본에 관한 정보를 수집했음을 알려준다.

마지막으로 지원 14년(1277) 일본 상인이 금을 갖고 와서 동전과 바꾸기를 청하자 몽골 정부가 그것을 허락했다는 기사가 주목된다. 그때는 몽골이 1차 일본 정벌 실패 후 2차 정벌을 준비하면서 집요하게 일본에 통호를 요구하고, 일본 역시 몽골의 재침에 대비하기 위해 분주하게 방어체계를 구축하여 양국 간 전운이 감도는 불안한 시기였다. 그럼에도 몽골 정부는 일본의 민간상인에게 입국과 교역활동을 허가했다. 전쟁 후 일본의 민간상인에게 교역을 허가한 사례는 본 기사 외에도 『원사』 「본기」와 「열전」에서 적지 않게 확인된다. 이는 전쟁을 준비하는 한편 그것과 무관하게 자유로운 민간무역 활동을 보장하는 몽골의 개방적 대외정책의 성격을 여실히 나타낸다.

이와 같이 『원사』 〈일본전〉에는 13세기 후반 몽골·일본 관계와 몽골의 보편적 대외정책 연구에 유효하게 활용될 수 있는 귀한 정보가 실려 있다. 그러나 분량상의 한계로 말미암아 그것만을 자료로 삼아 양국관계의 구체적 실상을 조명하기에는 다소 부족함이 있다. 그러나 다른 관련 자료를 추가로 활용한다면 〈일본전〉의 내용상 공백을 충분히 보완할 수 있다. 먼저 『원사』의 「본기」·「지」·「열전」, 〈고려전〉에는 〈일본전〉에 누락된 여러 관련 기사가 수록되어 있다. 그 기사들을 철저하게 검토하여 다방면으로 활용한다면 양국관계의 실제상을 더욱 충실하게 복원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그 시기 양국관계를 탐구하는 데 『고려사』와 『고려사절요』를 비롯한 고려 측 자료가 반드시 함께 활용되어야 한다. 몽골이 대일본 초유와 정벌에 관한 사무의 상당부분을 고려에 위탁하거나 고려의 적극적인 협력을 구한 사실은 잘 알려져 있다. 따라서 몽골의 일본 정책을 대행하고 이에 협조하는 일은 그 시기 몽골에 복속한 고려가 부담해야 할 가장 중요한 국가사업이었다. 그러므로 고려 측 기록에는 몽골의 일본 정책과 양국관계에 관한 기사가 풍부하게 수록되어 「일본전」의 공백을 메울 수 있는 좋은 자료가 된다.

몽골의 교섭·전쟁 대상이었던 일본의 기록도 양국관계를 탐구하는 데 반드시 검토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 몽골의 지속적인 통교 요구와 두 차례에 걸친 몽골·고려 연합군의 대규모 침공은 일본이 유사 이래 처음 겪는 강력한 외교적 압박과 외침이었다. 이에 따라 일본의 지배층·지식인은 몽골·고려와 접촉 과정에서 형성된 그들에 대한 인식과 자신이 직접 목도

한 전쟁의 실상을 다양한 형태의 기록으로 남겼다. 이 자료는 철저하게 일본의 관점에 의거하여 서술되었기 때문에 몽골·고려 측 기록에서 간과하거나 사실 확인이 불가능하여 기재되지 못한 정보와 초유의 국난에 직면한 일본의 입장이 여과 없이 반영된 기사를 풍부하게 담고 있다. 따라서 이는 균형적·객관적 시각을 견지하면서 양국관계를 조명하는 데 유효하게 활용될 수 있다. 근래에 다행히 그 시기 일본 측 자료에 수록된 몽골·고려관계 기사를 발췌·정리한 자료집이 출간되어 많은 편의를 제공한다(장동익, 2004; 김기섭 외, 2005).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일본전(日本傳)」역주

— 『원사(元史)』 권208 외이(外夷) 1 「고려(高麗), 탐라(耽羅)」는 국사편찬위원회, 『중국정사조선전역주(中國正史朝鮮傳譯註)』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생략한다. —

日本國在東海之東，古稱倭奴國，或云惡其舊名，故改名日本，以其國近日所出也。其土疆所至與國王世系及物產風俗，見宋史本傳。日本爲國，去中土殊遠，又隔大海，自後漢歷魏·晉·宋·隋皆來貢。唐永徽·顯慶·長安·開元·天寶·上元·貞元·元和·開成中，並遣使入朝。宋雍熙元年，日本僧裔然，與其徒五六人浮海而至，奉職貢，并獻銅器十餘事。裔然善隸書，不通華言。問其風土，但書以對，云其國中有五經書及佛經·白居易集七十卷。裔然還後，以國人來者曰滕木吉，以僧來者曰寂照。寂照識文字，繕寫甚妙。至熙寧以後，連貢方物，其來者皆僧也。

일본(日本)¹⁾국은 동해의 동쪽에 있어 예전에 왜노국(倭奴國)²⁾이라 불렸으나 어떤 사람들

1) 日本: 日本이라는 국호가 정식으로 사용된 시기는 명확하지 않다. 『隋書』 「倭國傳」에 大業 3년(607) 推古(스이코) 천황이 隋에 보낸 국서에 자신을 해 뜨는 곳의 천자(日出處天子)라고 칭하였다는 기록이 있는데, 이러한 발상에서 일본이라는 국호가 만들어졌을 것으로 추정된다. 『新唐書』와 『三國史記』에 唐 高宗 咸亨 원년(670)경 왜인이 해 뜨는 곳에 가깝다는 의미로 국호를 일본으로 바꾸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일본 국호가 처음 등장하는 문헌은 唐 玄宗 開元 8년(720)에 편찬된 『日本書紀』이다. 唐 太宗 貞觀 19년(645) 大化(다이카) 改新 후 천황 중심의 율령국가 체제가 수립되면서 자국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일본으로 국호를 바꾼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그 후에도 중국과 한국에서는 일본을 칭할 때 왜나 倭國이라는 호칭을 보편적으로 사용하였다.

이 그 옛 이름을 싫어한다고 하여 일본으로 이름을 바꾸었는데, 이는 그 나라가 해 뜨는 곳에 가깝기 때문이다. 그 강토가 이르는 곳과 국왕의 세계(世系) 및 물산과 풍속은 『송사(宋史)』 본전(本傳)³⁾에 나와 있다. 일본이라는 나라는 중국 땅과 매우 멀고 또한 큰 바다로 가로막혀 있어도 후한부터 위(魏)·진(晉)·송(宋)·수(隋)에 걸쳐 모두 내공(來貢)하였다. 당(唐) 영휘(永徽)·현경(顯慶)·장안(長安)·개원(開元)·천보(天寶)·상원(上元)·정원(貞元)·원화(元和)·개성(開成)⁴⁾ 시기에도 모두 사신을 보내와 입조하였다. 송 [태종] 옹희(雍熙) 원년(984), 일본 승려 조연(喬然)⁵⁾이 그 무리 5~6인과 함께 바다를 건너와 조공을 하고, 동기(銅器) 10여 점을 바쳤다. 조연은 글자(隸書)를 잘 썼으나 중국말은 하지 못하였다. 그 나라의 풍토를 물으니 단지 글로 써서 대답하였는데, 그 나라에 오경서(五經書)와 불경(佛經)·『백거이집(白居易集)』 70권이 있다고 하였다. 조연이 돌아간 후 그 나라 사람으로 온 자가 등목길(滕木吉)⁶⁾이라 하였고, 승려로 온 자가 적조(寂照)⁷⁾라고 하였다. 적조는 문자를

- 2) 倭奴國: 1~3세기 현재 福岡(후쿠오카) 인근에 존재하였던 倭人의 나라이다. 『後漢書』 「東夷傳」에 後漢 光武帝 中元 2년(57) 倭奴國이 조공하여 光武帝가 印章을 하사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淸 乾隆 49년(1784) 후쿠오카 志賀島(시카노시마)에서 발견된 ‘漢倭奴國王’이라고 새겨진 金印이 그것으로 추정된다.
- 3) 『宋史』 本傳: 『宋史』 卷491 「日本傳」을 가리킨다.
- 4) 永徽는 唐 제3대 황제 高宗 때의 연호(650~665), 顯慶은 唐 제3대 황제 高宗 때의 연호(656~660), 長安은 周의 초대 황제 則天武后 때의 연호(701~705), 開元은 唐 제6대 황제 玄宗 때의 연호(713~741), 天寶는 唐 제6대 황제 玄宗 때의 연호(742~755), 上元은 唐 제7대 황제 肅宗 때의 연호(760~761), 貞元은 唐 제9대 황제 德宗 때의 연호(785~804), 元和는 唐 제11대 황제 憲宗 때의 연호(806~820), 開成은 唐 제14대 황제 文宗 때의 연호(836~840). 唐代 日本의 조공에 관해 『舊唐書』 卷199上 「倭國傳」 및 『新唐書』 卷145 「日本傳」 참조.
- 5) 喬然(938~1016): 奈良(나라) 東大寺의 승려. 속성은 藤原(후지와라)씨이다. 京都(교토)에서 출생하여 어린 나이에 동대사에 들어가 불법을 닦고 請燈大法師의 지위에 올랐다. 宋 太宗 太平興國 8년(983) 상선을 타고 송에 가서 天台山 國淸寺를 순례하고 開封에 이르렀다. 다음 해(984) 송 태종을 알현하고 일본 銅器 10여 점과 더불어 일본 64대 천황의 이름과 사적, 일본의 지리를 수록한 『王年代記』와 일본의 문물제도를 기록한 『職員令』, 중국에서 이미 실전된 『孝經鄭氏注』 등을 바쳤다. 송 태종이 그에게 일본의 국내정세에 관해 자문을 구하고, 法濟大師라는 칭호를 내렸다. 조연은 송에 3년간 체류하면서 개봉의 여러 사찰과 五臺山 國淸寺, 洛陽의 白馬寺 등을 순례하였다. 雍熙 3년(986) 많은 중국의 불교경전과 송 태종이 하사한 최신각본 開寶敕版 『大藏經』 1천여 권을 갖고 귀국하였다. 또한 여러 물품을 들여왔는데, 가장 귀한 것이 현재 京都 淸涼寺 안에 보존되어 있는 석가여래상으로 현재 일본의 국보로 지정되어 있다(『宋史』 卷491 「日本傳」).
- 6) 滕木吉(?~?): 宋 眞宗 咸平 5년(1002) 宋商 周世昌과 함께 송에 온 일본인이다. 宋 眞宗을 알현하고 동전과 의복을 받아 귀국하였다(『宋史』 卷491 「日本傳」).

알고 있었고, 바르게 기록하는 것이 매우 뛰어났다. [송 신종] 희녕(熙寧) 연간(1068~1077) 이후에 이르기까지 잇달아 방물(方物)을 바쳤는데, 온 자들은 모두 승려였다.

元世祖之至元二年，以高麗人趙彝等言日本國可通，擇可奉使者。三年八月，命兵部侍郎黑的，給虎符，充國信使，禮部侍郎殷弘給金符，充國信副使，持國書使日本。書曰：

원 세조(世祖)⁸⁾ 지원(至元) 2년(1265), 고려 사람 조이(趙彝)⁹⁾ 등이 일본과 통교할 수 있다고 하여 명을 받들어 사신으로 갈 수 있는 사람을 선발하였다. [지원] 3년(1266) 8월, 병부시랑(兵部侍郎)¹⁰⁾ 흑적(黑的)¹¹⁾에게 호부(虎符)¹²⁾를 주어 국신사(國信使)¹³⁾로 삼고,

7) 寂照(962~1034): 일본 天台宗의 승려이자 문인이다. 寂昭라고도 표기된다. 京都 출생이고, 俗名은 大江定基·三河聖이다. 속세에서 文章博士라고 칭해졌다. 젊은 시절 부인을 잃고 슬퍼하다가 宋 太宗 端拱 원년(988) 출가하여 승려가 되었다. 여러 종교와 학문을 섭렵하고 많은 지역을 순수하다가 宋 眞宗 咸平 6년(1003) 宋에 가서 眞宗을 알현하고 자색 의복과 圓通大師 칭호를 받았다. 이후 天台山을 순례하고 일본으로 돌아가려 하였으나 송 승려들이 만류하여 이루지 못하였다. 宋 仁宗 景祐 원년(1034)에 73세의 나이로 杭州에서 사망하였다(『宋史』 卷491 「日本傳」).

8) 世祖(쿠빌라이, 1215~1294; 재위 1260~1294): 칭기즈칸의 손자이자 몽골제국의 5대 칸 쿠빌라이의 중국식 묘호이다. 그는 南宋 理宗 淳祐 11년(1251) 형 몽케가 칸에 즉위한 후 漢地(화북 농경지대) 총독에 임명되었다. 이후 막남에 위치한 金蓮川 지역에 開平府를 세워 근거지로 삼고, 淳祐 12년(1252) 몽케의 명을 받아 오늘날 운남지역에 위치한 大理를 정복하였다. 開慶 원년(1259) 몽케가 남송 정벌 중 사망하자 다음 해 개평에서 칸에 즉위하고 中統이라는 연호를 선포하였다. 이후 동시기 수도 카라코룸에서 칸에 즉위한 동생 아릭부케와 분쟁을 벌였다. 至元 원년(1264)에 아릭부케를 제압하여 몽골제국의 유일한 칸 지위를 확보하였다. 이후 수도를 大都(오늘날 北京)로 정하고, 至元 8년(1271) 大元이라는 국호를 선포하였다. 至元 16년(1279)에는 南宋을 멸망시켜 화북과 강남을 통일하였다. 이후 일본·안남·참파·미얀마·자바 등에 대한 해상원정을 단행하여 일본을 제외한 동아시아 해양세계 대부분을 장악하였다.

9) 趙彝(?~?): 몽골의 문관. 본관은 咸安이고 초명은 藺如이다. 고려 출신으로 일찍이 승려가 되었다가 후에 환속하여 進士科에 합격하였다. 몽골에 가서 여러 나라 말을 습득하여 秀才라는 칭호를 얻었다. 쿠빌라이에게 고려가 일본과 선린관계를 맺고 있다고 하여 일본을 회유하는 데 고려를 앞세울 것을 중용하였다. 黑的과 殷弘을 파견한 첫 번째 사행이 실패한 후에도 고려를 앞세워 일본을 정벌하도록 권유하는 등 항상 고려를 훼방하고 중상하였다(『高麗史』 卷130 「趙彝傳」).

10) 兵部侍郎: 元의 兵部에 속한 관직으로 정4품 2인을 두었다(『元史』 卷85 「百官志」 1 〈兵部〉).

11) 黑的(?~?): 몽골의 문관. 至元 3년(1266) 11월과 5년(1268) 11월에 일본을 초유하기 위해 고려에

예부시랑(禮部侍郎)¹⁴⁾ 은홍(殷弘)¹⁵⁾에게 금부(金符)¹⁶⁾를 주어 국신부사(國信副使)로 삼아 국서를 가지고 일본에 사신으로 갈 것을 명령하였다.¹⁷⁾ 국서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大蒙古國皇帝奉書日本國王。朕惟自古小國之君，境土相接，尚務講信修睦。況我祖宗，受天明命，奄有區夏，遐方異域畏威懷德者，不可悉數。朕即位之初，以高麗無辜之民久瘁鋒鏑，即令罷兵還其疆域，反其旄倪。高麗君臣感戴來朝，義雖君臣，歡若父子。計王之君臣亦已知之。高麗，朕之東藩也。日本密通高麗，開國以來亦時通中國，至於朕躬，而無一乘之使以通和好。尚恐王國知之未審，故特遣使持書，布告朕志，冀自今以往，通問結好，以相親睦。且聖人以四海爲家，不相通好，豈一家之理哉。以至用兵，夫孰所好。王其圖之。」

“대몽고국(大蒙古國) 황제가 일본 국왕에게 국서를 보낸다. 짐이 생각하기에 예로부터 작은 나라의 임금은 경계가 서로 접해 있으면, 오히려 믿음을 얻고 화목함을 닦는 데 힘썼다. 허물며 우리 조상은 하늘의 밝은 명을 받아 구하(區夏)¹⁸⁾를 모두 차지하여 먼 곳의 땅에서 위엄을 두려워하고 은덕을 생각하는 자가 모두 셀 수 없을 정도이다. 짐이 즉위하고 처음에 고려의

파견되었고, 다음 해(1269) 林衍의 元宗 폐위를 추궁하는 쿠빌라이의 조서를 가지고 고려에 왔다. 至元 11년(1274)부터 12년(1275)까지 고려의 達魯花赤(다루가치)로 재임하였다.

- 12) 虎符: 몽골 시대 국내 각 지역이나 외국에 파견되는 사신에게 역참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급되는 金虎符를 가리킨다.
- 13) 國信使: 두 나라가 사신을 통교할 때 믿음의 징표로 삼는 符節文書를 國信이라 하고, 국신을 가지고 외국으로 사행 가는 사신을 國信使라 한다.
- 14) 禮部侍郎: 元 禮部에 속한 관직으로 정4품 2인을 두었다(『元史』卷85 「百官志」1 〈禮部〉).
- 15) 殷弘(?~?): 몽골의 문관. 字는 獻臣으로 至元 3년(1266)과 5년(1268)에 일본을 초유하기 위해 黑的과 함께 고려에 파견되었다.
- 16) 金符: 虎符를 지급받는 사신보다 한 단계 낮은 지위의 신료에게 지급되는 符信이다.
- 17) 『元史』卷208 「高麗傳」에는 그때 黑的·殷弘과 더불어 計議官 伯德孝先이 함께 파견되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八月，遣國信使兵部侍郎黑的·禮部侍郎殷弘·計議官伯德孝先等使日本，先至高麗諭旨。
- 18) 區夏: 華夏의 땅. 화북과 강남을 포함한 中國 전역 또는 中原 지역을 가리키는 역사적 용어이다. 위서한이 작성된 시기는 강남의 南宋을 정복하기 전이기 때문에 거기에 쓰여진 區夏는 몽골이 금나라를 멸망시키고 차지한 화북지역을 가리킨다고 여겨진다.

허물없는 백성들이 오래도록 전쟁에 고통스러워하여 즉시 군대를 거두어 그 강역에서 돌아오게 하고 노인과 아이들을 돌려보냈다. 고려의 임금과 신하가 이에 감격하여 내조(來朝)하였는데 의리는 비록 군신이었지만 부자와 같이 기뻐하였다. 헤아려 보면 왕의 군신들도 이미 그것을 알고 있을 것이다. 고려는 짐의 동번(東蕃)¹⁹⁾이다. 일본은 고려와 가깝게 지냈고 개국 이래 또한 때때로 중국과 통교하였으나 짐의 시기에 이르러서는 한 번도 사신을 보내 화친을 맺지 않았다. 오히려 왕국에서 우리를 제대로 알지 못할까 걱정되어 특별히 국서를 갖고 사신을 보내 짐의 뜻을 포고하니, 지금부터 내왕하여 화친을 맺고 서로 친목하기 바란다. 또한 성인이 사해(四海)를 한집안으로 만들었는데 서로 화친을 맺지 않으면 어찌 한집안의 도리라 할 수 있겠는가. 전쟁에 이르는 것을 대체 누가 좋아하겠는가. 왕은 그것을 헤아리도록 하라.”²⁰⁾

黑的等道由高麗，高麗國王王禎以帝命遣其樞密院副使宋君斐·借禮部侍郎金贊等導詔使黑的等往日本，不至而還。

흑적(黑的) 등이 고려에 오자, 고려 국왕 왕식(王禎)²¹⁾은 황제의 명에 따라 추밀원부사(樞

19) 東蕃: 동쪽을 지키는 藩屏이라는 뜻으로 몽골 시대 고려를 가리킨다.

20) 至元 5년(1268) 고려 사신 潘阜 등이 일본에 전달한 이 국서의 사본이 東大寺 尊勝院에 소장되어 있다. 그 사본은 冒頭에 “上天眷命,” 末尾에 “不宣 至元三年八月 日”이라는 어구가 추가되어 있고, 자구에서 약간의 차이를 보인다(장동익, 2004: 193~196).

21) 王禎(1219~1274; 재위 1259~1274): 고려 24대 국왕 元宗의 본명이다. 초명은 俛이고 후에 禎으로 개명하였다. 字는 日新이다. 高宗의 장자로서 모친은 安惠太后 柳氏이고, 妃는 莊翼公 金若先의 딸 靜順王后로 충선왕 즉위 후 順敬太后로 추존되었다. 남송 理宗 端平 2년(1235) 태자로 책봉되었다. 南宋 理宗 開慶 원년(고려 高宗 46년, 1259) 강화를 맺기 위해 몽골에 갔다가 몽케가 사망하여 돌아오던 중 쿠빌라이를 만났고, 고종이 승하하자 다음 해(1260) 귀국하여 즉위하였다. 그 직후 왕자 謙을 태자에 책봉하고, 다음 해(1261) 몽골에 보내 아립부케 평정을 축하하게 하였다. 至元 원년(고려 元宗 5년, 1264) 몽골에서 사신을 보내 親朝를 요구하자 이를 이행하였다. 至元 5년(고려 元宗 9년, 1268) 林衍이 권신 金俊을 살해한 戊辰政變을 배후에서 주도하였다. 친몽 정책을 표방하고 몽골의 지지를 받아 왕정복고를 추구했다. 至元 6년(고려 元宗 10년, 1269) 권신 林衍에 의해 폐위되었다가 몽골이 개입하여 다음 해(1270) 복위하였다. 그 후 국왕폐위사건의 진상을 해명하라는 몽골의 요구에 따라 입조하여 쿠빌라이를 만나 왕실혼인과 몽골군의 파견을 청하였다. 다음 해(1271) 돌아와 開京還都를 단행하였다. 三別抄를 동원해

密院副使)²²⁾ 송군비(宋君斐)²³⁾·차예부시랑(借禮部侍郎)²⁴⁾ 김찬(金贊)²⁵⁾ 등을 보내 사신 흑적 등을 인도하여 일본에 가게 하였으나 이르지 못하고 돌아왔다.

四年六月，帝謂王植以辭爲解，令去使徒還，復遣黑的等至高麗諭植，委以日本事，以必得其要領爲期。植以爲海道險阻，不可辱天使，九月，遣其起居舍人潘阜等持書往日本，留六月，亦不得其要領而歸。

[지원] 4년(1267) 6월, 황제[세조]는 왕식이 핑계를 대어 해명한다고 생각하여 사신 일행을 모두 돌아오게 하였다. 다시 흑적 등을 고려에 보내 [왕]식을 설득하여 그에게 일본에 관한 사무를 맡기고 반드시 제대로 임무를 완수하기를 기대하였다.²⁶⁾ [왕]식은 바닷길이 험하다고

환도에 반대하는 임연의 아들 林惟茂를 제거하여 100여 년에 걸친 무신집권을 종식시켰다. 그 후 삼별초의 해산을 명하자 삼별초가 裴仲孫을 중심으로 대몽항쟁을 선언하고 반란을 일으켰으나 至元 10년(고려 元宗 14년, 1273) 여몽연합군에게 평정되었다. 몽골로부터 일본 정벌을 위한 전함 300척을 만들라는 요구를 받았고, 다음 해(1274) 몽골의 일본 정벌군이 고려에 들어왔으나 출병 직전 사망하였다.

22) 樞密院副使: 出納·宿衛·軍機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樞密院의 속관으로 정3품이고 2인을 두었다(『高麗史』 卷76 「百官志」 1 〈密直司〉).

23) 宋君斐(?~?): 고려의 무관. 南宋 理宗 寶祐 4년(고려 高宗 43년, 1256) 車羅大가 이끄는 몽골군이 전라도의 여러 섬에 침입하였을 때 수군 300인을 거느리고 내려와 笠巖山城에 들어간 후 기지를 발휘하여 몽골군을 크게 격퇴하였다. 至元 3년(고려 元宗 7년, 1266) 흑적·은홍과 함께 사신단의 일원으로 일본에 파견되었다. 다음 해(1267) 거제도에서 되돌아와 풍랑의 협함을 이유로 몽골의 일본 침입을 막기 위해 노력하였다. 이후 樞密院副使를 역임하였고, 至元 7년(고려 元宗 11년, 1270) 임유무가 제거될 때 일당으로 몰려 유배되었다.

24) 借禮部侍郎: 禮部侍郎은 禮儀·祭享·朝會·交聘·學校·科擧의 업무를 담당하는 정4품 관직이다(『高麗史』 卷76 「百官志」 1 〈禮曹〉). 借職은 정식 관직체계 안에 속하는 직위가 아니고, 국가에서 특별한 업무를 맡길 때 임시로 현재보다 높은 관직을 제수하는 것이다(박용운, 1997: 211). 『高麗史』 卷26 「元宗世家」 〈元宗 7년 11월〉조에 당시 김찬의 관직이 侍御使로 기재되어 있다. 시어사는 御史臺의 종5품 관직으로 고려가 그에게 일본사행 임무를 부여하면서 임시로 예부시랑에 임명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25) 金贊(?~?): 고려의 문관. 삼별초 지휘관 金通精의 조카로 侍御史와 郎中을 역임하였다. 至元 3년(고려 元宗 7년, 1266) 흑적 일행과 함께 일본에 파견되었으나 풍랑을 만나 거제도에서 되돌아왔다. 이후 至元 8년(고려 元宗 12년, 1271) 삼별초군이 김통정의 지휘 아래 탐라로 들어가자 다음 해 李邵·吳仁節·桓文伯 등과 함께 탐라로 파견되어 항복을 권유하였다. 그때 김찬은 억류되고 나머지는 모두 살해당하였다.

여겼으나 황제의 사신을 육보일 수 없어 9월, 기거사인(起居舍人)²⁷⁾ 반부(潘阜)²⁸⁾ 등에게 [국]서를 가지고 일본에 가도록 하였다.²⁹⁾ [그들은 일본에서] 6개월간 체류하였으나 역시 성공하지 못하고 돌아왔다.³⁰⁾

26) 『高麗史』卷26 「元宗世家」〈元宗 8년 8월〉조에 그때 쿠빌라이가 원종에게 보낸 조서의 내용이 다음과 같이 실려 있다. “전번에 사신을 보내 일본을 회유하려고 경에게 길안내를 맡겼는데도 뜻밖에 경은 이리저리 핑계를 대어 결국 헛되이 돌아오게 만들었다. 일본이 이미 그대 나라와 외교관계를 맺고 있어 그 허실을 속속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대가 탄말로 구실을 붙여 그리되었을 것으로 짐작한다. 그러나 우리 수도에 있는 그대 나라 사람들이 적지 않으니 경의 속임수는 곧 탄로나게 마련이다. 또 천명은 항시 변하는 것이며 사람의 도리는 성실함이 중요한 법인데도 경은 앞뒤로 식언을 자주하니 차제에 스스로 반성해야 할 것이다. 일본에 관계된 일은 모두 경에게 위임하니 경은 짐의 이러한 뜻을 잘 헤아려 일본에 알려줌으로써 반드시 중요한 결과를 얻어내도록 기약해야 할 것이다. 경은 진작 ‘폐하의 성은이 하늘같이 크오니 늘 그 은혜에 보답할 것을 맹세합니다’라고 했는데 지금이야말로 은혜에 보답할 때가 아니겠는가?”

27) 起居舍人: 中書門下省의 종5품 관직이다(『高麗史』卷76 「百官志」1 〈起居舍人〉). 본래 唐에서 起居郎과 같은 史官職이었으나 고려에서 주로 諫官의 역할을 담당하였다(박용운, 1980: 71~73).

28) 潘阜(1230~?): 고려의 문관. 字는 君秀, 號는 海旅齋이고, 巨濟 潘氏의 시조이다. 至元 4년(고려 元宗 8년, 1267) 門下平章事 李藏用이 몽골 사신 흑적에게 글을 보내 일본과 通好하지 말 것을 청한 행위가 문제시되는 사건이 일어났다. 그때 이를 보고하지 않은 죄로 彩雲島로 유배당할 처지에 놓였으나 흑적의 만류로 무사하였다. 그리고 그해 起居舍人으로 일본에 통호를 요구하는 몽골과 고려의 국서를 가지고 일본에 갔다. 그러나 몽골 국서의 내용이 불손하다는 이유로 반 년 이상 억류되었다가 답서를 받지 못하고 다음 해(1268) 돌아왔다. 이에 몽골이 고려에게 다시 사신 보낼 것을 촉구하자 知門下省事 申思佺, 侍郎 陳子厚 등과 함께 몽골 사신 흑적·은홍 등을 인도하여 일본에 갔으나 대마도에서 입국하지 못하고 倭人 2명을 사로잡아 이듬해(1269) 돌아와서 몽골에 보냈다. 至元 7년(고려 元宗 11년, 1270) 祕書丞이 되고, 至元 11년(고려 元宗 15년, 1274) 國子司業이 되어 일본 정벌을 위해 西海道에 가서 전함을 만들 工匠과 役徒를 징집하였다. 그해 知兵馬事 羅裕와 朴保의 副使가 되어 1차 일본 정벌에 참전해 壱岐島(잇키도)를 함락시키고 北九州(기타규슈)를 공략하다가 태풍을 만나 배가 많이 부서져 되돌아왔다. 至元 18년(1281) 左司議로서 왕명을 받아 2차 일본 정벌에서 실패하고 돌아온 몽골 장군 忻都·洪茶丘·范文虎 등을 위로하였다(『高麗史』卷124 「潘福海傳」).

29) 『高麗史』卷26 「元宗世家」〈元宗 8년 8월〉조에 그때 일본으로 보낸 몽골과 고려의 국서 내용이 실려 있다. 또한 『元史』卷208 「高麗傳」에는 당시 潘阜와 더불어 書狀官 李挺이 함께 파견되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그들이 太宰府에 도착하여 守護 小貳資能(쇼니 스케요시)에게 몽골·고려의 국서를 직접 일본 국왕에게 전달하기 위해 京都로 갈 수 있도록 주선해줄 것을 청하는 문서가 東大寺 尊勝院에 보관되어 있는데, 거기에 李挺이 李仁挺으로 표기되어 있다(김기섭 등, 2005: 591~592). 이인정은 至元 17년(1280) 殿中侍史, 이후 正言을 지냈다(『高麗史』卷106 「秋適 附 李仁挺傳」).

30) 近衛基平(고노에 모토히라, 1246~1268)이 저술한 『探心院關白記』에 이때 일본 측에서 潘阜로부터 전달

五年九月，命黑的·弘復持書往，至對馬島·日本人拒而不納，執其塔二郎·彌二郎二人而還。

[지원] 5년(1268) 9월, 흑적·은홍에게 다시 [국]서를 가지고 가도록 명하였다.³¹⁾ [그들은] 대마도(對馬島)³²⁾에 이르렀으나 일본 사람들이 거절하여 들어가지 못하고,³³⁾ 탑이랑(塔二郎)·미이랑(彌二郎) 두 사람을 잡아서 돌아왔다.³⁴⁾

받은 몽골과 고려의 국서가 鎌倉(가마쿠라)막부와 公家(즉 조정)에 전달되는 과정과 답書 문제를 둘러싸고 막부와 공가가 활발하게 진행한 논의의 내용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반부가 오기 전에 이미 일본에서 異國賊이 침략해온다는 풍문이 돌았다는 기록이 있어 주목된다.(장동익, 2004: 134~139). 결국 막부와 공가가 답서를 보내지 않기로 결정하고, 막부는 九州의 모든 지역에 몽골의 침입에 대비하여 방어체계를 갖추라는 명을 내렸다.

31) 『高麗史』 卷26 「元宗世家」〈元宗 9년 12월〉조에 그때 고려에서 知門下省事 申思佺, 侍郎 陳子厚, 起居舍人 潘阜로 하여금 흑적·은홍과 함께 일본으로 가게 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그런데 『元史』 卷208 「高麗傳」에는 侍郎 陳子厚가 禮部侍郎 陳井으로 표기되어 있다.

32) 對馬島: 한반도 남단과 九州 사이의 대한해협 중간에 있는 섬이다. 오늘날 행정구역 상 長崎(나가사키)縣 對馬(쓰시마)市에 속한다. 삼국시대 초 津島라고 불렸다. 고려 말부터 고려에 조공하고 쌀 등의 답례를 받아갔다. 이러한 관계를 바탕으로 평화 시기에는 한반도와 일본 간 교역을 독점하고, 전쟁이 일어나면 두 나라 사이의 징검다리 역할을 하였다. 고려 말 이곳이 왜구의 소굴이 되자, 明 太祖 洪武 22년(고려 恭讓王 원년, 1389) 朴葦가 대마도를 토벌하였다. 조선 초기 왜구의 행패가 여전하여 明 成祖 永樂 17년(조선 世宗 원년, 1419) 세종이 李從茂에게 명을 내려 군사 1만 7,285명을 이끌고 대마도를 정벌하게 하였다. 그러나 대마도주의 간청으로 왜인의 통상을 위해 3포를 개항하고, 조선 국왕이 대마도주에게 관직을 내려 조선의 영향력 아래 두기 시작하였다. 이후 조선은 대마도에 대한 영향력을 유지하였으나 임진왜란 때 일본군의 근거지가 되면서 차츰 영향력을 상실하였다.

33) 일본 자료 『蒙古信使覺書』 「蒙古來使記錄」에 따르면 다음 해인 至元 6년(1269) 2월 16일 몽골인 관인 3명과 수종인 5인, 고려인 67인이 4척의 배를 타고 대마도에 도착하였으나 24일 곧바로 돌려보냈다고 한다(김기섭 등, 2005: 602~603).

34) 『高麗史』 卷26 「元宗世家」〈元宗 10년 7월〉조에 쿠빌라이가 그때 잡아온 왜인 2명을 만나 후하게 대우한 사실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다(甲子, 蒙古使于婁大·于琮等六人, 偕倭人來, 滄出迎于郊. 初, 申思佺與倭人謁帝, 帝大喜曰, “爾國王, 祇稟朕命, 使爾等往日本. 爾等不以險阻爲辭, 入不測之地, 生還復命, 忠節可嘉.” 厚賜匹帛, 以至從卒. 又謂倭人曰, “爾國朝覲中國, 其來尙矣. 今朕欲爾國之來朝, 非以逼汝也, 但欲垂名於後耳.” 賚予甚稠, 勅令觀覽宮殿. 既而, 倭人奏云, “臣等聞有天堂佛刹, 正謂是也.” 帝悅, 又使徧觀燕京萬壽山玉殿與諸城關).

六年六月，命高麗金有成送還執者，俾中書省牒其國，亦不報。有成留其太宰府守護所者久之。十二月，又命秘書監趙良弼往使。書曰：「蓋聞王者無外，高麗與朕既爲一家，王國實爲鄰境，故嘗馳信使修好，爲疆場之吏抑而弗通。所獲二人，敕有司慰撫。俾齋牒以還，遂復寂無所聞。繼欲通問，屬高麗權臣林衍構亂，坐是弗果。豈王亦因此輟不遣使，或已遣而中路梗塞，皆不可知。不然，日本素號知禮之國，王之君臣寧肯漫爲弗思之事乎。近已滅林衍，復舊王位，安集其民，特命少中大夫秘書監趙良弼充國信使，持書以往。如卽發使與之偕來，親仁善鄰，國之美事。其或猶豫以至用兵，夫誰所樂爲也，王其審圖之。」良弼將往，乞定與其王相見之儀。廷議與其國上下之分未定，無禮數可言。帝從之。

[지원] 6년(1269) 6월, 고려의 김유성(金有成)³⁵에게 [포로로] 잡은 자(일본인)들을 돌려 보내라고 명하고, 중서성(中書省)³⁶에서 그 나라에 서한을 보내도록 하였으나 [그 나라] 역시 답하지 않았다.³⁷ [김]유성은 그 나라(일본)의 태재부(太宰府)³⁸ 수호소(守護所)³⁹에

35) 金有成(?~1307): 고려의 문관. 경기도 안성 출신. 尙書左僕射 金璫의 이복아들이며, 判典校寺事 金于鑑의 부친이다. 15세에 과거에 급제하고, 德原府書記를 거쳐 同文院錄事를 역임하였다. 至元 10년(고려 元宗 14년, 1273) 쿠빌라이가 일본을 초유하기 위해 秘書監 趙良弼을 파견할 때 書狀官으로 일본에 가서 그들을 설득시키고 귀국하여 그 공으로 監察御史에 임명되었다. 至元 29년(고려 충렬왕 18년, 1292) 몽골에서 洪君祥을 보내 고려에서 억류하던 일본인을 돌려보낼 것과 일본을 설득하여 몽골에 복속시킬 것을 중용해오자 다시 宣慰使가 되어 서장관 郭麟과 함께 일본에 갔다가 억류되어 돌아오지 못하였다. 조정에서 그의 충절을 가상히 여겨 그 집에 世祿을 주고, 그에게 僉議評理 직첩을 내렸다. 그 뒤 생사가 확인되지 않았으나 일본 승려 鉗公(깁코)를 통해 鎌倉에서 병사한 것으로 알려졌다(『高麗史』 卷106 「金有成傳」).

36) 中書省: 몽골의 최고 중앙행정기관. 장관은 中書令으로 반드시 황태자가 임명되었다. 忽必烈(쿠빌라이) 시기 眞金(친킴), 海山(카이산) 시기 愛育黎拔力八達(아유르바르와다), 아유르바르와다 시기 碩德八剌(시데발라), 妥權帖睦爾(토곤테무르) 시기 愛猷識理達臘(아유시리다라)가 중서령을 역임하였다. 그러나 대체로 중서령에게 실권이 부여되지 않고 자리가 비어 있는 경우가 많았다. 그 아래 右丞相·左丞相·平章政事·右丞·左丞·參知政事가 임명되었다. 실제로 우승상이 중서성 장관 역할을 담당하였다(『元史』 卷85 「百官志」 1).

37) 일본 자료 『關東評定傳』(저자미상)에 至元 6년(1269) 9월 사신 金有成과 高柔가 몽골·고려의 첩장을 가지고, 대마도 사람 答二郎·彌二郎을 데리고 왔다고 기록되어 있다. 또한 『異國出契』(저자미상)에 그때 김유성 등이 갖고 온 몽골 중서성이 일본을 초유하기 위해 보낸 첩장과 경상도 안찰사가 대마도

서 체류한 지 오래되었다.⁴⁰⁾ 12월, 또한 비서감(祕書監)⁴¹⁾ 조양필(趙良弼)⁴²⁾에게 사신을

사람 2명을 돌려보낸다는 사실을 통보하는 첩장 내용이 실려 있다(김기섭 등, 2005: 604~607). 이에 公家 측에서 太政官의 이름으로 답서가 작성되었지만 막부의 반대로 발송되지 못하였다. 『異國出契』에 그때 공가가 몽골과 고려에 보내기 위해 작성한 답서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장동익, 2004: 278~281).

38) 太宰府: 오늘날 일본 福岡(후쿠오카)縣 太宰府(다자이후)市에 위치했던 기관으로 장관을 太宰帥라 한다. 7세기 후반 나당연합군의 침공에 대비하여 北九州에 설치한 군정기관이다. 태재부가 위치한 北九州 지역은 예로부터 중국 및 한반도와의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일본이 외부로부터 공격받을 때 가장 먼저 적에게 노출되는 지역이었다. 이에 따라 외국의 사신을 영접하는 鴻臚館이 博多(하카다) 연안에 설치되어 태재부의 관할을 받았고, 일본 서부지역을 방어하는 군사기구도 설치되었다. 이와 같이 태재부는 주로 군사방위와 외교업무를 수행하면서 西海道 지역을 관할하였다. 이후 서일본의 정치·문화의 중심지이자 해외교류의 창구로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기록에 따르면 태재부에는 政廳, 학교, 세금을 보관하는 藏司·稅司, 의료업무를 맡는 藥司, 장인들이 모이는 匠司·修理器仗所, 손님접대를 맡는 客館, 군사를 맡아보는 兵馬所·主廚司, 선박을 관리하는 主船所, 치안을 맡는 警固所, 태재부를 방어하는 大野(오노)城의 관리를 맡는 大野城司, 직물 염색을 맡는 貢上染物所, 종이를 만드는 作紙 등이 설치되었다고 한다.

39) 守護所: 중세 일본 守護가 거주하는 館의 소재지이다. 鎌倉 막부 초기 조정에서 임명한 國司의 政廳이 있는 國衙와 다른 장소에 설치되었다. 또 수호는 세습직이 아닌 임명직이었기 때문에 수호의 교체와 함께 수호소도 바뀌었다. 그러나 鎌倉막부 후기 수호의 직위가 치안유지에서 재판까지 확대되어 그 권위가 國司를 압도하게 되고, 남북조 시대에 이르러 일국의 지배권을 갖게 되었다. 또한 수호의 세습화가 진행되어 수호소가 고정되는 경향이 강해졌다. 수호소는 해당지역 武家の 본거지 혹은 과거 國衙 소재지, 그 외 교통·상업의 중심지에 설치되는 경우가 많았다. 수호소의 고정화에 따라 수호의 居館을 중심으로 신료들의 居館이 배치되고, 그 주변에 시장·절·신사 등이 세워져 지방도시 역할을 담당하였다.

40) 일본 자료 『本朝文集』 「贈蒙古國中書省牒」에 일본에서 몽골 증서성과 고려 경상도 안찰사에 보내기 위해 작성한 첩장의 내용이 실려 있으나 그것이 실제로 양국에 전달되었는지 확인되지 않는다(김기섭 등, 2005: 609~610).

41) 祕書監: 몽골 시대 역대 圖籍과 陰陽禁書를 관장하는 祕書監의 장관으로, 품계는 정3품이다(『元史』 卷90 「百官志」 6 〈祕書監〉).

42) 趙良弼(1217~1276): 몽골의 문관. 字는 輔之로 趙州(오늘날 河北省 贊皇) 출신 여진족이다. 本姓은 尢要甲인데, 음이 趙氏로 와전되어 그것을 성씨로 삼았다. 金代 進士에 합격하여 趙州의 教授를 역임하고, 금 멸망 후 漢地 총독 쿠빌라이의 주요 막료로 활동하였다. 쿠빌라이 즉위 후 陝西等路宣撫使·江淮按撫使·經略使 등을 역임하였다. 총명하고 지략이 많았으며 항상 근면하여 쿠빌라이의 총애를 받았다. 강화선무사 재임시절 일본과 통호할 것을 주장하여 至元 7년(1270) 12월 小中大夫祕書監을 수여받고 國信使로서 일본에 파견되었다. 그때 쿠빌라이가 군사 3천 명을 동원하여 그를 호송하게 하였으나 그는 거절하고 書狀官 24명만을 동반하여 갔다. 다음 해 至元 8년(1271) 9월 일본에 도달하였으나 성과 없이 돌아왔다. 至元 9년(1272) 다시 일본에 사행하였으나 역시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였

가라고 명령하였다.⁴³⁾ 국서에서 말하기를, “모두 아는 바과 같이 왕이 되는 것은 그 범위가 지극히 넓다. 고려국과 짐은 한집안이 되었고, 왕국이 실로 가까이 있어 일찍이 사신을 보내 화친을 맺으려 하였으나 변경의 관리가 [사신을] 억류하여 통하지 않았다. 사로잡은 두 사람은 관련 기관에 명을 내려 위무하고 편지를 지니게 하여 돌려보냈으나 마침내 다시 조용해지고 소식이 없었다. 안부를 묻고자 하였으나 때마침 고려 권신 임연(林衍)⁴⁴⁾이 난을 일으켜 이 때문에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왕 또한 이 때문에 그만두어 사신을 보내지 않았는지, 혹은 이미 보냈으나 도중에 막혔는지 모두 알 수 없다. 그렇지 않으면, 일본은 원래 예의를 아는 나라라고 불리는데, 왕의 군신이 어찌 방종하여 그 일을 생각하지 않았겠는가? 근자에 이미 임연을 떨쳐야 다시 [고려의] 옛 왕위를 회복시키고, 그 백성들을 안정시켰으니, 특별히 명하여 소중대부(少中大夫)⁴⁵⁾ 비서감 조양필을 국신사로 삼아 국서를 가지고 가게 하였다. 만약 즉시 사신을 보내 그와 함께 오면 이웃 나라와 친하게 지내어 나라의 아름다운 일이 될 것이다. 혹시라도 머뭇거리려 전쟁에 이르게 된다면 도대체 누가 기뻐하겠는가? 왕은 그것을 자세히 헤아리도록 하라”라고 하였다. [조양필이 장차 가려 할 때 그 나라 왕과 서로 접견하는 의례를

다. 체류 중 일본의 君臣 爵號, 州郡 이름과 名數, 風俗과 土宜 등 중요한 정보를 기록하였다. 귀환 후 이를 쿠빌라이에게 상세하게 보고하여 당시 몽골이 일본을 이해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元史』 卷159 「趙良弼傳」).

43) 아래 본문 내용에 따르면 조양필이 일본으로 파견된 시기는 至元 6년(1269) 12월이 아니라 至元 7년(1270) 12월이다. 『元史』 本紀와 「趙良弼傳」에도 그가 至元 7년(1270) 12월 일본에 파견되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44) 林衍(?~1270): 고려의 무관. 본관은 鎭州, 初名은 承柱였다. 모친은 진주 州吏의 딸이다. 일찍이 대장군 宋彦庠의 종이었는데, 후에 향리에서 몽골군을 격퇴한 공으로 隊正에 임명되었다. 이어 金俊의 천거로 郎將이 되고, 남송 理宗 寶祐 6년(고려 고종 45년, 1258) 柳璈·朴松庇·金俊 등과 함께 崔瑄를 죽이고 정권을 왕에게 돌린 공으로 衛社功臣의 호를 받고 樞密院副使가 되었다. 이어 정권을 잡은 김준과 불화를 겪다가 至元 5년(고려 元宗 9년, 1268) 그를 제거하였다. 몽골과 고려의 화친이 진전되어 자신의 위치가 불안해지고, 원종과 소원해지자 至元 6년(고려 元宗 10년, 1269) 국왕을 폐위하고 安慶公 溍을 옹립하며, 스스로 敎定別監이 되어 정권을 장악하였다. 마침 몽골에서 돌아오는 세자(훗날 충렬왕)가 원종 폐립 소식을 듣고 돌아가 쿠빌라이에게 복위를 요청하였다. 그가 군대를 보내 임연을 위협하고 원종의 복위를 요구하자 임연은 어쩔 수 없이 원종을 복위시켰다. 원종이 입조하여 쿠빌라이를 만나 사건의 진상을 해명하고 돌아와 開京還都를 결정하자 이에 항전하려 하였으나 등창으로 죽었다. 아들 林惟茂가 청하여 參知政事를 추증하였다. 시호는 莊烈이다(『高麗史』 卷130 〈林衍傳〉).

45) 小中大夫: 文散官 42계 중 20번째로 종3품에 해당한다. 仁宗 시기 亞中大夫로 개칭되었다(『元史』 卷90 「百官志」 6 〈秘書監〉).

정해줄 것을 청하였다. 조정에서 의논하기를, 그 나라와 위아래 구분이 정해지지 않아 예절격식이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고 하였다. 황제가 그것을 따랐다.

七年十二月，詔諭高麗王植送國信使趙良弼通好日本，期於必達。仍以忽林失·王國昌·洪茶丘將兵送抵海上，比國信使還，姑令金州等處屯駐。

[지원] 7년(1270) 12월, 고려 왕 [왕]식에게 국신사 조양필을 보내 일본과 화친하는 것을 반드시 달성할 수 있도록 하라는 조서를 보냈다.⁴⁶⁾ 이에 홀림실(忽林失)⁴⁷⁾·왕국창(王國昌)⁴⁸⁾·홍차구(洪茶丘)⁴⁹⁾로 하여금 군대를 이끌고 해상으로 가서 국신사가 돌아올 때까지

46) 『高麗史』卷27 「元宗世家」〈元宗 12년 정월〉조와 『元史』卷208 〈高麗傳〉에 그때 쿠빌라이가 원종에게 보낸 조서의 내용이 실려 있다. 즉, “짐이 생각하건대 일본은 예로부터 중국과 서로 교류했으며 또한 경의 나라와 지역이 서로 가깝기에 진작 경에게 지시하여 사신을 인도하고 우호관계를 맺도록 한 바 있다. 그러나 그 나라의 국경을 지키는 관리들이 저지하는 바람에 짐의 뜻을 분명히 전달하지 못하였으며, 그 뒤에는 林衍의 일 때문에 겨를이 없었다. 이제 그대 나라가 안정을 되찾았기에 다시 趙良弼를 國信使로 보내니 반드시 일본에 당도할 수 있게 만전을 기하라. 또한 홀림실·왕국창·홍차구로 하여금 군사를 거느리고 해안까지 호송하게 하고 국신사가 돌아올 때까지 임시로 金州 등지에 주둔하게끔 조치하였다. 주둔하는 동안 소요되는 군량은 경이 전담 관리를 주둔지로 보내 가까운 곳에서 마련해 공급하게 할 것이며, 전함을 금주에 집결 대기시켜 출발이 지체되거나 물자가 부족해지는 일이 없도록 하라.”

47) 忽林失(?~?): 몽골의 무관. 忽林赤·虎林赤으로도 표기된다. 至元 7년(1270) 국신사 趙良弼을 호송하여 고려에 와 그가 일본에서 돌아올 때까지 金州에 주둔하였다. 이듬해(1271) 4월 진도의 삼별초 군대를 공격하고, 8월 鎭邊合浦縣으로 자리를 옮겼으며, 屯田經略使 史樞와 함께 둔전경영에도 관여하였다.

48) 王國昌(?~1271): 몽골의 무관. 膠州 高密人으로 中統 원년(1260) 左武衛親軍千戶를 제수받았다. 至元 5년(1268) 10월에 武德將軍 統領의 직위로서 脫朶兒·柳傑 등과 함께 고려에 와서 군사와 함선의 준비 상황을 점검하였다. 至元 6년(1269) 쿠빌라이의 명을 받아 고려와 송의 통교를 감시하기 위해 탐라와 흑산도의 海道를 시찰하였다. 至元 8년(1271) 趙良弼이 일본에 갈 때 병력을 이끌고 와서 고려에 주둔하였다. 그해 忻都·史樞와 함께 진도의 삼별초를 토벌하였다. 10월 고려 義安郡에 위치한 군영에서 죽었다(『元史』卷167 「王國昌傳」).

49) 洪茶丘(1244~1291): 몽골의 무관. 본관은 唐城(南陽)이고 본명은 俊奇였다. 조부는 몽골-고려 전쟁 시기 몽골에 투항한 洪大宣이고, 부친은 역시 몽골에 투항하여 고려 침략을 향도한 洪福源이다. 몽골에서 출생·성장하였고, 어려서부터 중군하면서 용맹을 떨쳐 쿠빌라이의 총애를 받았다. 中統 2년(1261) 아버지의 관직을 이어받아 管領歸附高麗軍民總管에 임명되었다. 中統 4년(1263) 永寧公 王綽을 참소하

한동안 금주(金州)⁵⁰⁾ 등지에 주둔하게 하였다.

八年六月，日本通事曹介升等上言：「高麗迂路導引國使，外有捷徑，倘得便風半日可到。若使臣去，則不敢同往。若大軍進征，則願爲鄉導。」帝曰：「如此則當思之。」九月，高麗王禎遣其通事別將徐僞導送良弼使日本，日本始遣彌四郎者入朝，帝宴勞遣之。

[지원] 8년(1271) 6월, 일본 통사(通事)⁵¹⁾ 조개승(曹介升)⁵²⁾ 등이 상언하기를, “고려가 먼

여 당시 그가 갖고 있던 고려 군민에 대한 관할권을 탈취하였다. 至元 6년(1269) 林衍의 원종 폐립사건이 발생하자 다음 해(1270) 國王 頭韋哥를 따라 3천 명의 군대를 이끌고 처음 고려에 왔다. 그때부터 鳳州의 屯田總管府에 주둔하면서 진도와 탐라의 삼별초 진압을 지휘하였다. 至元 11년(1274) 昭勇大將軍 安撫使 高麗軍民總管에 임명되어 일본 정벌을 위한 군량과 전함의 조달을 감독하고, 곧바로 東征右副都元帥가 되어 1차 일본 정벌에 참여하였다. 일본 정벌 실패 후 이듬해인 至元 12년(1275) 몽골로 돌아갔다. 至元 14년(1277) 鎮國上將軍 征東都元帥에 임명되어 일본 정벌을 준비하였다. 마침 몽골의 上都에서 只魯瓦歹 등이 반란을 일으켜 일본 정벌이 지체되자 승상 伯顏(바안)을 따라 상도를 공략해 공을 세웠다. 그해 金方慶 무고사건이 발생하자 다시 고려에 와서 김방경을 고문하고 고의로 사건을 확대하려다 충렬왕이 적극적인 외교활동을 벌여 몽골로 소환되었다. 至元 17년(1280) 龍虎衛上將軍 征東行省右丞에 임명되어 2차 일본 정벌에 참여하였다. 일본 정벌이 또 실패로 끝나자 몽골로 돌아가 이후 다시 고려에 오지 못하였다. 至元 21년(1284)에도 征東行省 右丞에 임명되었으나 곧 일본 정벌 계획이 무산되었다. 至元 24년(1287) 발생한 乃顏(나안)의 반란을 진압하는 데 공을 세워 遼陽行省 右丞이 되었다. 至元 27년(1290) 병을 칭하여 사직하였으나 그해 乃顏의 잔당인 哈丹(카단)의 무리가 고려를 침략하자 다시 遼陽行省 右丞에 임명되었다. 일반적으로 그의 이름을 ‘홍다구’라고 음독하는데, 그를 洪察忽 또는 察忽로 표기하므로 ‘홍차구’라고 읽는 것이 옳다고 여겨진다(『元史』 卷154 「洪福源傳」; 『高麗史』 卷130 「洪福源傳」).

50) 金州: 오늘날 경상남도 김해 지역이다. 본래 금관가야가 있었던 곳으로 신라 법흥왕 때 金官郡이라 불렀다. 文武王이 金官小京을 설치하였고, 景德王이 金海小京이라 불렀다. 고려 태조 때 金海府로 삼았으며, 그 뒤 臨海縣이라 부르다가 얼마 후 郡으로 승격시켰다. 성종 때 金州安東都護府가 되고, 현종 때 다시 金州가 되었다. 至元 7년(고려 원종 11년, 1270)에 金寧都護府로 승격되었으나, 至元 13년(고려 충렬왕 2년, 1276) 縣으로 강등되었다가 至大 4년(고려 충렬왕 34년, 1308)에 다시 金州牧이 되었다. 至大 3년(고려 충선왕 2년, 1310) 여러 牧을 폐지하면서 다시 金海府가 되었다. 조선 태종 때 都護府로 고쳤고, 세조 때 鎭을 설치하였다(『高麗史』 卷57 「地理志」 2 〈慶尙道 金州〉; 『新增東國輿地勝覽』 卷32 「慶尙道 金海都護府」).

51) 通事: 외국어의 통역을 담당하는 관직이다. 몽골식 관제에서는 怯里馬赤(켈레메치, kelemechi)라고 부른다.

길을 우회하여 사신을 인도하고 있는데, 그 외에 빠른 길이 있으니 만약 순풍을 타면 만나절이면 도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신만 간다면 감히 함께 갈 수 없지만, 대군이 정벌을 떠나면 향도가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였다. 황제가 말하기를, “그렇다면 마땅히 그것을 헤아려야 할 것이다”라고 하였다. 9월, 고려 왕 [왕]식이 통사별장(通事別將)⁵³⁾ 서칭(徐稱)⁵⁴⁾을 보내 [조]양필이 일본으로 사행 가는 것을 인도하게 하였다.⁵⁵⁾ 일본이 마침내 미사랑(彌四郎)이라는 자를 보내 입조하였다.⁵⁶⁾ 황제는 연회를 베풀어 위로하고 그를 돌려보냈다.⁵⁷⁾

52) 曹介升: 『元史』「校勘記」에 따르면 『元文類』卷41 「經世大序錄」〈征伐〉에서 ‘曹介叔’이라 되어 있으므로 ‘升’字가 잘못된 것으로 의심된다고 하였다.

53) 通事別將: 『高麗史』卷27 「元宗世家」〈元宗 13년 4월〉조에 譯語別將이라고 되어 있어 통역관임을 알 수 있다. 別將은 西班의 정7품관이다(『高麗史』卷77 「百官志」2 〈西班〉). 그들은 대체로 중국어·몽골어·거란어·여진어 등의 통역을 담당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別將을 비롯해 中郎將, 校尉 등의 직위 사례가 확인된다.

54) 徐稱(?~?): 고려의 무관. 趙良弼을 수행한 공으로 다음 해 장군직을 제수받았으나 그 외 기록은 발견되지 않는다.

55) 일본 자료 『五代帝王物語』(저자미상)에 至元 8년(1271) 9월 19일 조양필을 비롯한 사신단 100여 명이 筑前國 今津에 내조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김기섭 등, 2005: 612~613). 또한 『吉續記』에 그 시기 조양필이 전달한 몽골의 국서가 필사되어 막부와 공가에 전달된 과정과 양측에서 대응 문제에 관해 논의한 내용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이때 공가는 몽골에 답서를 보내기로 결정하였으나 막부의 반대로 실행되지 못하였다. 아울러 조양필이 국서의 필사본을 전달하면서 일본 국왕 및 막부장군에게 보낸 서한의 사본이 東福寺에 소장되어 있다(장동익, 2004: 139~147, 217~218).

56) 『高麗史』卷27 「元宗世家」〈元宗 13년 정월〉조에 원종이 書狀官 張鐸으로 하여금 일본에서 돌아온 趙良弼과 함께 그가 데리고 온 일본 사절 12명을 몽골로 인솔해 가도록 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元史』「趙良弼傳」에도 일본 측에서 사신 12명을 보내 入觀하게 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한편 『元史』本紀에는 至元 9년(1272) 2월 조양필이 장탁을 보내 일본인 26인을 인솔하여 京師에 이르러 황제 알현하기를 청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일본 자료 『薩藩舊記雜錄前編』「町田元祖常陸介忠經譜中」에 따르면 당시 조양필이 몽골과 고려의 서한을 갖고 와서 화친을 요구하자 朝議에서 답서를 작성하였으나 鎌倉 막부의 집권자 北條時宗(호조 도키무네)가 답서를 보내지 않고 사신을 물리쳤다고 한다(김기섭 등, 2005: 613). 『元史』「趙良弼傳」에도 조양필이 태재부에 이르러 일본 국왕을 만나 국서를 전하겠다고 하였으나, 막부에서 이를 거부하고 국서만을 내놓으라고 요구하자 끝내 국서를 전달하지 않고 귀국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따라서 이때 조양필이 데리고 온 일본인 일행은 일본 정부의 공식 사절이 아니었을 가능성이 크다.

57) 『高麗史』卷27 「元宗世家」〈元宗 13년 4월〉조에 고려가 御史 康之郞로 하여금 일본 사절을 호송해 본국으로 돌려보내게 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九年二月，樞密院臣言：「奉使日本趙良弼遣書狀官張鐸來言，去歲九月，與日本國人彌四郎等至太宰府西守護所。守者云，曩爲高麗所給，屢言上國來伐。豈期皇帝好生惡殺，先遣行人下示聖書，然王京去此尚遠，願先遣人從奉使回報。」良弼乃遣鐸同其使二十六人至京師求見。帝疑其國主使之來，云守護所者詐也。詔翰林承旨和禮霍孫以問姚樞·許衡等，皆對曰：「誠如聖算。彼懼我加兵，故發此輩伺吾強弱耳。宜示之寬仁，且不宜聽其入見。」從之。是月，高麗王禎致書日本。五月，又以書往，令必通好大朝，皆不報。

[지원] 9년(1272) 2월, 추밀원(樞密院)⁵⁸⁾ 신료들이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즉, “명을 받들어 일본에 사신 간 조양필이 서장관(書狀官)⁵⁹⁾ 장탁(張鐸)⁶⁰⁾을 보내와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작년 9월, 일본국 사람 미사랑 등과 함께 태재부의 서쪽 수호소에 이르렀습니다. 지키는 사람들이 말하기를, ‘지난번 고려가 속여서 누차 상국이 와서 정벌할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어찌 황제께서 살리는 것을 좋아하고 죽이는 것을 싫어하는 것을 기대하겠습니다. 먼저 사신을 보내 국서를 보였으나 왕경(王京)⁶¹⁾에서 이곳까지 너무 먼니, 바라건대 먼저 사람을 보내 사신을 따라가 회답하겠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조]양필이 이에 [장]탁을 보내 그 사신 26인과 함께 경사(京師)⁶²⁾에 이르게 하여 접견하기를 청하였다. 황제는 그 나라의 임금이 그들을 보내온 것을 의심하여 수호소에서 속이는 것이라고 하였다. 한림승지(翰林承旨)⁶³⁾ 화례곽손(和禮霍孫)⁶⁴⁾에게 명하여 요추(姚樞)⁶⁵⁾·허형(許衡)⁶⁶⁾ 등에게 자문

58) 樞密院: 몽골의 중앙 군사행정 기구로서 품계는 종1품이다. 兵甲과 機密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였다. 至元 원년(1264)에 처음 설치되어 황자 眞金(친킴)이 그 장관인 樞密使를 맡았다. 그 후 황태자가 대대로 그 자리를 맡았지만 실권은 부여되지 않았다. 한편 각 지역에 行樞密院이 설치되어 宿衛軍·萬戶府·都督府·經略司 등을 관할하였다(『元史』 卷86 「百官志」 2 〈樞密院〉).

59) 書狀官: 외국에 보내는 사신단에 소속된 기록관으로 사행 중 날마다 벌어지는 사건을 기록하여 돌아온 뒤 왕에게 보고하는 임무를 띠었다.

60) 張鐸(?~?): 고려의 문관. 당시 서장관으로 사행을 책임지는 위치에 있었다. 至元 8년(고려 元宗 12년, 1271)과 至元 9년(고려 원종 13년, 1272) 두 차례 일본으로 사행하였다.

61) 王京: 여기에서는 몽골의 수도 大都(오늘날 北京)를 가리킨다.

62) 京師: 여기에서는 몽골의 수도 大都를 가리킨다.

63) 翰林承旨: 몽골 시대 詔令의 작성·國史편찬·자문 등을 담당하던 관청인 翰林兼國史院의 수석 학사이

을 구하게 하였다. 모두 대답하여 말하기를, “진실로 폐하의 생각과 같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전쟁을 일으키는 것을 두려워하여 이 무리들을 보내 우리의 강점과 약점을 엿볼 뿐입니다. 마땅히 그들에게 관대함과 인자함을 보이되 그들이 들어와 접견하는 것을 들어주면 절대 안 됩니다”라고 하였다. 황제가 이를 따랐다. 그달, 고려 왕 [왕]식이 일본으로 서한을 보냈다.

다. 翰林兼國史院은 至元 원년(1264) 처음 설치되었고, 품계는 정2품이다. 至元 6년(1269) 承旨 3인이 임명되었고 후에 여러 차례 증감을 거쳐 6인으로 확정되었으며, 품계는 중1품이다(『元史』 卷87 「百官志」 3 〈翰林兼國史院〉).

64) 和禮霍孫(?~?): 몽골의 문관. 火魯火孫·和魯火孫이라고도 표기된다. 처음에 쿠빌라이의 怯薛(케식)이 되었고, 至元 5년(1268) 翰林待制兼起居郎에 임명되었다가 翰林學士承旨로 승진하였다. 至元 19년(1282) 阿合馬(아흐마드)가 피살된 후 中書右丞相에 임명되어 阿合馬 집권 시기의 정치적 성과를 청산하는 데 주력하고, 2년 후 과거시행을 주청하였다. 그러나 盧世榮과의 논쟁에서 패배하여 실각하고, 과거시행 논의도 잠잠해졌다.

65) 姚樞(1202~1279): 몽골의 문관으로 洛陽 출신이다. 字는 公茂, 號는 雪齋 또는 敬齋이며, 시호는 文獻이다. 어려서부터 학문을 깊이 연마하였다. 몽골 太宗 4년(1232) 楊惟中의 추천을 받아 카라코룸에 가서 窩10台(우구데이) 칸을 알현하였다. 몽골 太宗 7년(1235) 황자 10出(쿠추)가 지휘하는 몽골군이 남송을 공략할 때 양유중과 함께 군대를 따라가서 儒·道·釋·醫·卜 등에 정통한 인재를 구하라는 명을 받았다. 몽골군이 德安(현재 湖北省 安陸)을 함락시켰을 때 포로들 중 남송의 저명한 유학자 趙復을 구해내어 화북지역에서 유학을 가르치게 하였다. 이때 그도 조북에게서 程朱理學을 전수받았다. 程朱理學의 전파를 자신의 소임으로 생각하여 양유중과 함께 太極書院을 건립해 조북을 스승으로 모시고 인재를 양성하여 道學을 화북지역에 널리 전파하였다. 몽골 太宗 13년(1241) 燕京行臺郎中에 임명되었으나 상급관원과 의견이 맞지 않고 너물이 횡행하는 데 실망하여 사직하고 輝州 蘇門(현재 河南省 輝縣)에 은거하였다. 이후 잠저 시기 쿠빌라이에게 입사하여 그의 주요 막료로 활동하였다. 쿠빌라이 즉위 후 東平宣撫使에 임명되고, 大司農을 거쳐 中書左丞이 되었다. 이후 昭文館大學士와 翰林學士承旨를 역임하였다(『元史』 卷158 「姚樞傳」).

66) 許衡(1209~1281): 몽골의 문관으로 懷孟 河內(현재 河南省 沁陽) 출신이다. 字는 仲平, 號는 魯齋이며, 시호는 文正이다. 어려서부터 학문을 깊이 연마하였다. 趙復의 제자인 姚樞를 만나 그와 함께 程朱理學을 탐구하고, 道學을 실천하는 것을 소임으로 삼았다. 이후 잠저 시기 쿠빌라이에게 입사하여 京兆提學에 임명되고, 쿠빌라이 즉위 후 中統 2년(1261) 國子祭酒에 임명되었으나 얼마 후 사직하고 고향으로 돌아왔다. 至元 7년(1270) 中書左丞에 임명되었으나 집권자 阿合馬의 진형에 불만을 품고 사직하였다. 다음 해(1271) 集賢殿大學士兼國子祭酒에 임명되어 國子學에서 유학을 진흥시키는 데 힘쓰고, 至元 10년(1273) 사직하였다. 至元 13년(1276) 다시 쿠빌라이의 명을 받아 王恂·郭守敬과 함께 曆法을 제작하고, 至元 17년(1280) 사직하였다. 그는 몽골 국자학의 기초를 닦고, 程朱理學을 화북지역에 전파시키는 데 크게 기여하였으며, 제자들을 가르치면서 항시 그들에게 실천도덕을 강조하였다. 朱熹와 陸九淵의 학문을 조화시키려 노력하였고, 공담만을 일삼는 理學을 비판하였다. 저서에 『讀易私言』·『魯齋心法』·『魯齋遺書』·『許文正公遺書』·『許魯齋集』 등이 있다(『元史』 卷158 「許衡傳」).

5월, 또 서한을 보내 반드시 대조(大朝)⁶⁷⁾와 화친을 맺으라고 명하였으나 [일본은] 모두 회답하지 않았다.⁶⁸⁾

十年六月，趙良弼復使日本，至太宰府而還。

[지원] 10년(1273) 6월, 조양필이 다시 일본에 사신으로 가서 태재부에 이르러 돌아왔다.⁶⁹⁾

十一年三月，命鳳州經略使忻都·高麗軍民總管洪茶丘，以千料舟·拔都魯輕疾舟·汲水小舟各三百，共九百艘，載士卒一萬五千，期以七月征日本。冬十月，入其國，敗之。而官軍不整，又矢盡，惟虜掠四境而歸。

[지원] 11년(1274) 3월, 봉주(鳳州)⁷⁰⁾ 경략사(經略使)⁷¹⁾ 혼도(忻都)⁷²⁾와 고려군민총관(高

67) 大朝: 대몽골국(大元)을 지칭한다.

68) 일본 자료 『關東評定傳』에 至元 8년(일본 文永 8년, 1271) 12월 조양필이 사신 장탁을 본국으로 보내 다음 해(1272) 5월 장탁이 고려의 첩장을 갖고 돌아왔다고 기록되어 있다(장동익, 2004: 326~329).

69) 『高麗史』世家에 조양필이 至元 9년(고려 元宗 13년, 1272) 12월 고려를 출발해 다음 해(1273) 3월 돌아왔다고 기록되어 있다. 『元史』本紀에는 그때 그가 일본의 君臣爵號·州郡名數·風俗土宜를 쿠빌라이에게 상세히 보고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元史』「趙良弼傳」에 따르면 그가 至元 10년(1273) 5월 일본에서 돌아와 쿠빌라이를 알현하고, 이후 쿠빌라이가 그에게 일본 정벌에 관해 물었을 때 다음과 같이 진언하면서 반대하였다고 한다. 즉, “臣이 일본에 1년 정도 머물렀을 때 그 민속을 목도하였는데, (사람들이) 흥폭·용맹하고 죽이는 것을 좋아하며, ‘父子之親’과 ‘上下之禮’를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 땅에는 산과 물이 많으나 농업·양잠의 이익이 없어 그 사람들을 얻어도 부릴 수 없고, 그 땅을 얻어도 부유함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하물며 수군이 바다를 건너는데 태풍이 기약 없이 찾아오니 피해를 예측할 수도 없습니다. 이는 유용한 民力을 끝없는 구덩이로 빠뜨리는 격이니 신은 공격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70) 鳳州: 오늘날 황해도 봉산군 지역이다. 본래 고구려의 雉巖郡으로, 신라 때 栖巖郡으로 바뀌었고, 고려 초기에 鳳州라고 개칭되었다. 성종 때 防禦使를 두었는데, 현종 때 방어사를 폐지하고 黃州에 예속시켰다. 원종 때 몽골이 그곳에 鳳州經略司를 두고, 至元 22년(충렬왕 11년, 1285)에 다시 방어사를 두었다가 이어 知鳳陽郡事라고 하였으나 후에 다시 鳳州라고 불렀다. 明 成祖 永樂 11년(조선 太宗 13년, 1413) 鳳山郡으로 삼았다. 그곳은 신라 때 북방의 국경지였고, 고려 때 동쪽 慈悲嶺을 중심으로 몽골의

麗軍民總管) 홍차구에게 명하여 천료주(千料舟)⁷³⁾·발도로경질주(拔都魯輕疾舟)⁷⁴⁾·급수소주(汲水小舟)⁷⁵⁾ 각 300척씩 모두 900척에 병사 1만 5,000명을 태워 7월을 기하여 일본을 정벌하도록 하였다. 10월, 그 나라(일본)에 들어가 그들을 패배시켰다. 그러나 관군이 정비되지 않고 또한 화살을 다 써버려서 오직 사망을 노략질만 하고 돌아왔다.⁷⁶⁾

東寧路總管府와 경계를 이루어 중요한 군사적 요충지였다(『高麗史』卷58「地理」3〈西海道 黃州牧 鳳州〉; 『新增東國輿地勝覽』卷41「黃海道」〈鳳山郡〉).

71) 經略使: 몽골 시대 각 지역에 설치되어 군정과 민정을 총괄하는 관부인 經略司의 장관이다. 본 기사에서는 둔전을 관리하기 위해 설치한 屯田經略司의 장관을 가리킨다(『元史』卷100「兵志」3〈屯田 高麗國立屯〉).

72) 忻都(?~?): 몽골의 무관. 忽敦이라고도 부른다. 至元 8년(1271) 鳳州經略使에 임명되어 둔전을 관리하기 위해 고려에 왔고, 그해 김방경과 함께 진도의 삼별초 반란을 평정하였다. 그 직후 원종이 혼도에게 역적 이외의 진도 백성들을 석방하라고 요청하였지만 듣지 않았다. 이후 다루가치 脫朵兒가 황제의 명령이라고 말하면서 힐책하자 일부 백성을 석방하였다. 至元 10년(1273) 김방경·홍차구와 함께 1만의 병력을 이끌고 탐라로 출정하여 삼별초를 섬멸하였다. 至元 11년(1274) 都元帥가 되어 김방경과 함께 몽골·고려 연합군 2만 5천을 이끌고 일본을 침공하였으나 태풍을 만나 많은 군사를 잃고 돌아왔다. 이후 김방경 무고사건을 심사하고 문초하는 데 참여하였다. 至元 18년(1281) 征東行省事가 되어 다시 4만의 東路軍을 이끌고 일본을 침공하였으나 역시 태풍을 만나 실패하고 돌아왔다. 그는 몽골이 고려를 감시하고 통제하기 위해 파견한 관원이었으므로 고려 조정에서 후한 대우를 받았다. 항시 국사를 의논할 때 고려 국왕의 좌측에 앉았고, 그의 부인도 왕족의 대우를 받았다. 그의 아들 忻璘은 고려의 司空에 임명되었고 安平公 王暉의 딸과 혼인하였다.

73) 千料周: 200명 정도가 승선할 수 있는 100~300톤급 대형 함선이다.

74) 拔都魯輕疾舟: 拔都魯는 勇士를 의미하는 몽골어 바이투르(ba'atur)의 한자 음차어이다. 輕疾舟는 가볍고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쾌속정으로 군사들이 육지에 상륙하는 데 활용되었다.

75) 汲水小舟: 식수를 적재하여 군사들에게 공급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배를 가리킨다.

76) 『元史』卷208「高麗傳」에 그해(1274) 3월 몽골에서 木速塔八과 撒木舍를 고려에 보내 簽軍 5,600명을 선발하여 일본 정벌을 돕게 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高麗史』「世家」에 그해 10월 고려의 金方慶, 몽골의 忽敦·洪茶丘·劉復亨이 몽·한군 2만 5,000, 고려군 8,000, 뱃사공·바닷길안내자·선원 6,700명과 전함 900여 척으로 일본 정벌에 나섰다. 岐島에서 밤에 들이닥친 폭풍우로 많은 배가 침몰하였고, 11월 舍浦로 돌아왔는데 귀환하지 못하고 전사한 자가 1만 3,500명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이와 같이 1차 일본 원정이 참담한 실패로 끝났음에도 위의 “그들(일본)을 패배시켰다”라는 구절에서 알 수 있듯이 몽골 정부는 이를 실패로 평가하지 않았다. 『元史』「世祖本紀」〈至元 12년 2월〉조에 “일본과 전쟁하여 공을 세운 征東元帥府에게 錦綉·弓矢·鞍勒을 상으로 내렸다”라는 기사도 그것을 뒷받침한다. 한편 몽골·고려 연합군의 1차 일본 정벌 후 일본에서 異國征伐이라는 이름으로 일본 침략의 근거지인 고려를 정벌하기 위한 준비가 진행되었지만 실현되지 않았다.

十二年二月，遣禮部侍郎杜世忠·兵部侍郎何文著·計議官撒都魯丁往使，復致書，亦不報。

[지원] 12년(1275) 2월, 예부시랑 두세충(杜世忠), 병부시랑 하문저(何文著), 계의관(計議官)⁷⁷⁾ 살도로정(撒都魯丁)을 사신으로 보내서 다시 서한을 전달하였으나 [그들은] 역시 회답하지 않았다.⁷⁸⁾

十四年，日本遣商人持金來易銅錢，許之。

[지원] 14년(1277), 일본이 상인을 보내 금을 가지고 와서 동전과 바꾸기를 청하자, 그것을 허가하였다.

十七年二月，日本殺國使杜世忠等。征東元帥忻都·洪茶丘請自率兵往討，廷議姑少緩之。五月，召范文虎，議征日本。八月，詔募征日本士卒。

[지원] 17년(1280) 2월, 일본이 사신 두세충 등을 살해하였다.⁷⁹⁾ 정동원수(征東元帥)⁸⁰⁾

77) 計議官: 몽골 시대 都督府·宣撫司·都統制司 등 군사기관에 소속된 관직으로 품계는 정8품이다. 군사관련 업무를 담당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78) 『元史』 「本紀」에 兵部侍郎이 兵部郎中으로 표기되어 있고, 『高麗史』 卷28 「忠烈王世家」 〈忠烈王 원년 3월〉조에 杜世忠이 殷世忠으로 표기되어 있다.

79) 일본 자료 『關東評定傳』에 따르면 至元 12년(일본 建治 원년, 1275) 4월 15일 일본에 도착한 두세충 일행은 9월 7일 모두 침수되었다. 또한 至元 16년(일본 弘安 2년, 1279) 6월 몽골 장수 夏貴와 范文虎가 사신 周福과 欒忠을 일본으로 파견하였는데, 그들 모두 博多(하카타)에서 침수되었다(장동익, 2004: 326~329). 또한 『鎌倉年代記』에 두세충의 사신단 일행으로 참여한 고려의 통역관 徐贊이 처형 전에 남긴 詩文이 전해진다(장동익, 2004: 337~342). 至元 16년(고려 충렬왕 5년, 1279) 8월 두세충의 일행 4명이 일본에서 도망쳐와 사신단 처형 사실을 고려에 알리고, 즉시 고려가 몽골에 보고하였다(『高麗史』 卷29 「忠烈王世家」 〈忠烈王 5년 8월〉).

80) 征東元帥: 몽골이 2차 일본 정벌을 위해 至元 17년(1280) 고려에 설치한 군사기구인 征東行省에 소속된

혼도·홍차구가 직접 병사를 이끌고 토벌하기를 청하자, 조정이 의논하여 조금 늦추기로 하였다. 5월, 범문호(范文虎)⁸¹⁾를 불러 일본 정벌을 의논하였다.⁸²⁾ 8월, 일본을 정벌하는 병사를 모집한다는 조를 내렸다.

十八年正月，命日本行省右丞相阿剌罕·右丞范文虎及忻都·洪茶丘等率十萬人征日本。二月，諸將陞辭。帝敕曰：「始因彼國使來，故朝廷亦遣使往，彼遂留我使不還，故使卿輩爲此行。朕聞漢人言，取人家國，欲得百姓土地，若盡殺百姓，徒得地何用。又有一事，朕實憂之，恐卿輩不和耳。假若彼國人至，與卿輩有所議，當同心協謀，如出一口答之。」

[지원] 18년(1281) 정월, 일본행성(日本行省)⁸³⁾ 우승상(右丞相)⁸⁴⁾ 아랄한(阿剌罕),⁸⁵⁾ 우

정벌군 총사령관이다. 행성의 장관인 左丞相에는 고려의 충렬왕이 임명되었다. 일본 정벌이 실패하자 至元 19년(1282) 폐지되었다. 至元 24년(1287) 몽골이 다시 정동행성을 세워 고려에 대한 내정간섭 기구로 삼았다(『元史』 卷91 「百官志」 7 〈征東等處行中書省〉).

81) 范文虎(?~1301): 몽골의 무관. 南宋 출신 무장으로 본래 남송의 권신 賈似道의 사위였다. 至元 12년(1275) 몽골에 투항하여 쿠빌라이의 신임을 받고 兩浙大都督·中書右丞 등을 역임하였다. 至元 17년(1280) 10만의 군대와 3,500척의 전함을 이끌고 일본을 침공하였으나 중도에 폭풍을 만나 실패하고 돌아왔다. 至元 24년(1287) 쿠빌라이가 乃顔(나안)의 반란을 친히 정벌할 때 참여하여 平灤(현재 河北省 盧龍)을 진압하였다. 至元 29년(1292) 通惠河 준설을 감독하였다.

82) 『元史』 本紀에 동일한 기록이 〈至元 17년 6월〉조에 실려 있다.

83) 日本行省: 至元 16년(1279) 몽골이 2차 일본 정벌을 위해 강남의 揚州에 설치한 군사기구이다. 일본 정벌 실패 후 至元 18년(1281) 폐지되었다.

84) 右丞相: 行中書省의 장관으로 품계는 종1품이다. 행중서성의 모든 사무를 관할하였다. 단 상설직이 아니었고 반드시 左丞相과 함께 설치되지도 않았다(『元史』 卷91 「百官志」 7 〈行中書省〉).

85) 阿剌罕(1233~1281): 몽골의 무관. 阿里罕이라고도 표기된다. 몽골 札刺兒(잘라이르) 부족 출신. 父也柳干이 남송과의 전투에서 전사한 후 諸翼蒙古軍馬都元帥 직을 물려받았다. 몽골 憲宗 9년(1259) 皇弟 忽必烈(쿠빌라이)을 따라 출진하여 남송의 鄂州(현재 湖北省 武昌)를 포위하였다. 쿠빌라이 즉위 후 中統 2년(1261) 자신의 부중을 이끌고 출정하여 막북에서 阿里不哥(아릭부케) 군대를 크게 패배시켰다. 다음 해(1262) 발생한 李壇의 반란을 진압하는 데 공을 세워 都元帥 직을 수여받았다. 至元 4년(1267) 장군 阿朮(아술)을 따라 남송을 공격하였는데, 至元 10년(1273) 樊城을 함락시키고, 襄陽城의 항복을 받았다. 다음 해(1274) 승상 伯顏(바안)을 따라 남하하여 남송의 여러 주군을 함락시키는 데

승(右丞)⁸⁶ 범문호와 혼도·홍차구 등에게 명하여 군사 10만을 이끌고 일본을 정벌하게 하였다. 2월, 장군들이 출정하기 전 황제에게 인사를 올렸다. 황제가 칙을 내려 말하기를, “처음에 그 나라에서 사신을 보내와 조정 또한 사신을 보냈는데, 그들이 마침내 우리 사신을 구류하고 돌려보내지 않아 경들에게 이렇게 하라고 하는 것이다. 짐이 한인(漢人)들의 말을 들어보니 남의 나라를 얻는 것은 백성과 토지를 얻고자 하는 것인데 만약 백성을 모두 죽이면 단지 땅을 얻어도 소용이 없다고 한다. 또한 짐이 실로 걱정하는 한 가지 일은 경들이 화목하지 못하는 것이 두려울 뿐이다. 만약 그 나라 사람이 와서 경들과 논의하는 일이 있다면 마땅히 한마음으로 도와서 꾀를 내어 한 사람의 입으로 답하는 것처럼 해야 할 것이다”라고 하였다.

五月，日本行省參議裴國佐等言：「本省右丞相阿剌罕·范右丞·李左丞先與忻都·茶丘入朝。時同院官議定，領舟師至高麗金州，與忻都·茶丘軍會，然後入征日本。又爲風水不便，再議定會於一岐島。今年三月，有日本船爲風水漂至者，令其水工畫地圖，因見近太宰府西有平戶島者，周圍皆水，可屯軍船。此島非其所防。若徑往據此島，使人乘船往一岐，呼忻都·茶丘來會進討爲利。」帝曰：「此間不悉彼中事宜，阿剌罕輩必知，令其自處之。」

[지원 18년] 5월, 일본행성 참의(參議)⁸⁷ 배국좌(裴國佐) 등이 말하기를, “본성 우승상 아랄한·범우승⁸⁸·이좌승⁸⁹은 먼저 혼도·[홍]차구와 함께 입조하였습니다. 이때 원관(院官)⁹⁰

공을 세워 다음 해(1275) 昭毅大將軍 左翼蒙古漢軍上萬戶 직을 수여받고, 이후 中奉大夫 參知政事가 되었다. 몽골군을 세 부대로 나누어 남송의 수도 臨安(현재 浙江省 杭州)을 공략할 때 우익군을 통솔하여 다음 해 남송정부의 투항을 받았다. 그 공으로 參知政典行宣慰使에 임명되었다. 다음 해(1277) 行中書省左丞에 임명되고 右丞으로 승진하였다. 至元 18년(1281) 中書左丞相 직을 받아 2차 일본 정벌군의 총사가 되었으나 출정 직전에 군중에서 사망하였다(『元史』 卷129 「阿剌罕傳」).

86) 右丞: 行省에 소속된 관원으로 품계는 정2품이다. 左丞과 함께 행성장관인 丞相을 보좌하여 정무를 처리하였다. 左丞보다 높은 지위에 있었고, 항상 두 관직이 함께 설치된 것은 아니다(『元史』 卷91 「百官志」 7 〈行中書省〉).

87) 參議: 行省에 소속된 관직으로 품계는 정5품이다. 참모로서 丞相을 보좌하여 행성의 업무를 처리하였다.

88) 范右丞: 일본행성 우승 范文虎를 가리킨다.

89) 李左丞(? ~1304): 몽골의 무관 李庭을 가리킨다. 여진 蒲察氏 출신으로 金代 말기에 증원으로 이주하여

과 함께 의논하여 배와 군사를 이끌고 고려 금주에 이르러 혼도·[홍]차구 군과 회합한 연후에 일본을 정벌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바람과 파도 때문에 불편하니 다시 의논하여 일기도(一岐島)⁹¹⁾에서 회합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올해 3월, 바람과 파도로 인해 떠내려온 일본의 선박이 있어 그 뱃사람에게 지도를 그리게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태재부와 가까운 서쪽에 있는 평호도(平戶島)⁹²⁾를 보았더니 주위가 모두 바다라서 군선을 주둔시킬 만하였습니다. 이 섬에는 방어하는 사람이 없어 만약 빨리 가서 이 섬(평호도)을 점거하고, 사람들이 배를 타고 일기[도]로 가서 혼도·[홍]차구를 불러와 회합하면 토벌하기에 유리할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황제가 말하기를, "여기에서는 그 일이 어떻게 해야 맞는지 알지 못하니 아랄한의 무리가 반드시 알아서 그 일을 스스로 처리하게 하라"라고 하였다.

六月，阿剌罕以病不能行，命阿塔海代總軍事。八月，諸將未見敵，喪全師以還，乃言：「至日本，欲攻太宰府，暴風破舟，猶欲議戰，萬戶厲德彪·招討王國佐·水手總管陸文

성을 李氏로 바꾸었다. 至元 6년(1269) 官軍千戶에 임명되어 남송의 襄陽을 공략하는 데 큰 공을 세웠다. 이로써 拔都兒(바이투르, ba'atur) 칭호를 하사받고 官軍總管과 萬戶 직을 수여받았다. 몽골의 남송정복 후 漢軍都元帥가 되어 북변으로 가서 西北諸王을 방어하였다. 至元 14년(1277) 福建行省參政·福建道宣慰使로 임명되었고, 至元 17년(1280) 日本行省 左丞이 되어 몽골의 2차 일본 정벌에 참여하였으나 실패하고 돌아왔다. 至元 24년(1287) 쿠빌라이를 따라 乃顏(나안)의 반란을 평정하고, 다음 해 中書平章政事에 임명되었다. 쿠빌라이 사후 成宗(테무르)이 그를 귀하게 여겨 항시 후하게 대우하고 많은 재물을 하사하였다(『元史』 卷162 「李庭傳」).

90) 院官: 몽골의 군사를 담당하는 관청인 樞密院의 관료를 가리킨다.

91) 一岐島: 규슈와 대마도 사이에 있는 섬으로 오늘날 長崎縣 壱岐(잇키)市에 해당한다. 일본 중세시대 松浦黨의 세력 아래 놓여 있었다. 몽골의 1차 일본 원정 때 몽골군이 점령하여 큰 피해를 입혔다. 몽골의 2차 일본 원정 때에도 몽골군과 일본군이 一岐島에서 격전을 벌였는데, 폭풍으로 인해 결국 몽골군이 철수하였다.

92) 平戶島: 일본 長崎縣 북부, 北松浦(기타마쓰우라) 반도의 서쪽에 있는 섬이다. 전통시대 동아시아 해상 교통의 요충지였다. 明 世宗 嘉靖 29년(1550) 포르투갈 선박이 기항하여 예수회 선교사 사비에르(Francisco de Xavier)가 기독교를 전파하였다. 이어 스페인·네덜란드·영국의 선박이 잇달아 들어왔으며, 明 神宗 萬曆 37년(1609) 네덜란드 商館, 萬曆 41년(1613) 영국 상관이 설립되었다. 그러나 明 毅宗 崇禎 14년(1641) 네덜란드 상관이 長崎로 옮겨가면서 平戶島의 외국무역이 중단되고, 이후 城下 도시가 번영하였다.

政等不聽節制，輒逃去。本省載餘軍至合浦，散遣還鄉里。」

[지원 18년] 6월, 아랄한이 병에 걸려 [임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어 아탑해(阿塔海)⁹³에게 대신 군사를 총괄하도록 명령하였다. 8월, 장군들이 적을 보지도 못하고 모든 군사를 잃고 돌아와서 말하기를, “일본에 이르러 태재부를 공격하려 하였으나 폭풍이 배를 파괴하였습니다. 의논하여 싸우려 하였으나 만호(萬戶)⁹⁴ 여덕표(厲德彪), 초토(招討)⁹⁵ 왕국좌(王國佐), 수수총관(水手總管)⁹⁶ 육문정(陸文政) 등이 지휘에 따르지 않고 갑자기 도망쳤습니다. 본성(本省)⁹⁷이 남은 군사들을 태우고 합포(合浦)⁹⁸에 이르러 뿔뿔이 고향으로 돌려보냈습니다”

93) 阿塔海(1234~1289): 몽골의 무관. 阿答海라고도 표기된다. 몽골 遜都思氏로 父는 卜花이다. 일찍이 조부인 塔海拔都兒가 千戶가 된 후 그 직위를 세습하였다. 蒙哥(몽케) 시기 兀良合臺(우량카다이)를 따라 大理를 정벌하는 데 큰 공을 세우고, 후에 잠저 시기 쿠빌라이에게 입사하였다. 至元 9년(1272) 남송의 襄陽을 공략하여 다음 해(1273) 점령하고, 그 공으로 鎮國上將軍 淮西行樞密院副使와 行中書省 右丞을 수여받았다. 正陽의 동·서 두 성을 쌓고, 남송 장군 夏貴의 군대를 격퇴하였다. 至元 12년(1275) 승상 伯顏(바안)의 군대를 따라 진군하여 남송의 여러 지역을 점령하고 다음 해(1276) 남송을 멸망시켰다. 至元 14년(1277) 江淮行省 平章政事を 제수받고, 다음 해(1278) 左丞相으로 승진하였다. 至元 18년(1281) 2차 일본 정벌에 참여하였으나 실패하고 돌아왔다. 至元 20년(1283) 征東行省 丞相에 임명되어 다시 일본을 침공하려 하였으나 성사되지 못하였다. 다음 해(1284) 鎮南王 脫歡(토곤)이 占城을 정벌하는 데 참여하였으나 공을 세우지 못하였다. 至元 23년(1286)에 江西左丞相에 임명되었고 다음 해(1287) 乃顔(나안)의 반란을 토벌하는 데 중군하였다. 至元 26년(1289) 59세로 죽었다(『元史』 卷129 「阿塔海傳」).

94) 萬戶: 몽골 시대 行省의 관할 구역 내 각 지역에 설치된 군사기구인 諸路萬戶府의 장관이다. 諸路萬戶府는 관할하는 군대의 수에 따라 上·中·下 3등급으로 구분된다. 上萬戶府는 7천 이상의 군대를 관할하고 다루가치 1인, 정3품인 萬戶 1인, 종3품인 副萬戶 1인을 두었다. 中萬戶府는 5천 이상의 군대를 관할하고 다루가치 1인, 종3품인 萬戶 1인, 정4품인 副萬戶 1인을 두었다. 下萬戶府는 3천 이상의 군대를 관할하고 다루가치 1인, 종3품인 萬戶 1인, 종4품인 副萬戶 1인을 두었다. 각각 휘하의 鎮撫司·千戶所·百戶所를 관할하고, 만호부의 소속 관직은 세습이 허용되었다(『元史』 卷91 「百官志」 7 〈諸路萬戶府〉).

95) 招討: 招討使의 준말. 몽골이 전쟁을 수행하기에 앞서 각 요충지에 설치한 군사기구 招討司의 장관으로 품계는 정3품이다(『元史』 卷91 「百官志」 7 〈招討司〉).

96) 水手總管: 세곡을 운반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선원인 水手를 관할하는 직책이다.

97) 本省: 여기에서는 몽골이 일본을 정벌하기 위해 설치한 군사기구인 日本行省을 가리킨다.

98) 合浦: 오늘날 경상남도 馬山의 옛 이름. 신라 초기 骨浦縣이었다가 唐 肅宗 至德 2년(신라 景德王 16년,

라고 하였다.⁹⁹⁾

未幾，敗卒于闐脫歸，言：「官軍六月入海，七月至平壺島，移五龍山。八月一日，風破舟。五日，文虎等諸將各自擇堅好船乘之，棄士卒十餘萬于山下。衆議推張百戶者爲主帥，號之曰張總管，聽其約束。方伐木作舟欲還，七日，日本人來戰，盡死。餘二三萬爲其虜去。九日，至八角島，盡殺蒙古·高麗·漢人，謂新附軍爲唐人，不殺而奴之。闐輩是也。」蓋行省官議事不相下，故皆棄軍歸。久之，莫青與吳萬五者亦逃還，十萬之衆得還者三人耳。

얼마 지나지 않아, 패한 군사 우창(于闐)이 탈출하여 돌아와 말하기를, “관군이 6월에 바다로 나가 7월에는 평호도(平壺島)¹⁰⁰⁾에 도착하고 오룡산(五龍山)¹⁰¹⁾으로 이동하였습니다.

757) 합포로 고쳐 義安郡(지금의 창원)에 소속되었다. 합포 지명은 골포에서 나온 것으로 ‘큰 포구’라는 의미이다. 宋 眞宗 天禧 2년(고려 顯宗 9년, 1018) 金州(지금의 김해)에 예속되었다가 후에 監務가 두어지고, 至元 19년(충렬왕 8년, 1282) 몽골·고려 연합군이 일본을 정벌할 때 군량 등을 공급한 공로가 있어 會原縣으로 승격되었다. 明 成祖 永樂 6년(조선 太宗 8년, 1408) 昌原府에 편입되었고,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 馬山府가 설치되었으며 1949년에 마산시가 되었다. 이곳은 역사적으로 많은 전쟁을 겪은 곳이다. 고려 원종 때 삼별초가 침입하여 전함 20여 척을 불태웠다. 또한 두 차례에 걸친 몽골의 일본 정벌군이 그곳에서 출정하였다. 그 후 고려 말까지 왜구가 5차례 이상 그곳을 침략하였다. 임진왜란 시기 일본군의 침략을 받아 큰 피해를 입었다. 조선시대 이곳에서 경상도 남부지방의 세곡을 모아 남해안과 서해안을 지나 京倉으로 보냈다(『高麗史』 卷57 「地理」 2 〈金州〉; 『新增東國輿地勝覽』 卷32 「慶尙道」 〈昌原都護府〉).

99) 『高麗史』 世家에 따르면 至元 19년(충렬왕 7년, 1281) 4월 혼도·홍차구·김방경이 이끄는 군대가 고려를 출발하고, 6월 범문호가 이끄는 강남군 10만여 명이 전함 3,500여 척에 타고 일본으로 오다가 태풍을 만나 모두 익사하였다. 8월 일본 정벌에 실패한 군사들이 합포로 귀환하였다. 일본 자료 『鎌倉年代記』에 따르면 至元 18년(일본 弘安 4년, 1281) 7월 송과 고려에서 출발한 배 수천 척이 肥前國 鷹島에 집결하였는데 30일 밤에 큰 바람이 불어 함선이 모두 침몰하고 많은 군사들이 사망하였다. 그때 몽골의 함선 2,500척과 군사 15만, 고려의 함선 1,000척이 피해를 입었다고 한다(장동익, 2004: 337~342).

100) 平壺島: 平戶島의 오기로 보인다.

101) 五龍山: 平戶島의 동쪽에 위치한 鷹島를 가리킨다. 오늘날 長崎縣 松浦(마쓰우라)市에 속해 있다. 몽골의 2차 일본 정벌 때 博多(하카타)에서 상륙을 저지당한 몽골·고려 연합군이 그곳에서 강남에서 출발한 몽골군과 합류하여 체계를 정비하고 있었는데 마침 불어닥친 폭풍으로 인해 대부분의 전함이

8월 1일, 바람이 배를 파괴하였습니다. 5일, [범]문호 등 장군들이 각자 튼튼하고 좋은 배를 골라 타고, 군사 10여 만을 산 아래에 버려두었습니다. [남은 무리들이] 의논하여 장백호(張百戶)¹⁰²⁾라는 자를 뽑아 우두머리로 삼고 그를 장총관(張總管)이라고 부르며 지휘를 받았습니다. 곧바로 나무를 베어 배를 만들어 돌아가려 하였는데 7일, 일본인의 공격을 받아 모두 죽었습니다. 남은 2~3만은 그들에게 사로잡혀 갔습니다. 9일, [일본인이] 팔각도(八角島)¹⁰³⁾에 이르러 몽골인·고려인·한인을 모두 죽이고 신부군(新附軍)¹⁰⁴⁾은唐人(唐人)¹⁰⁵⁾이라 하여 죽이지 않고 노예로 삼았습니다. [우]창의 무리가 이들입니다”라고 하였다.¹⁰⁶⁾ 아마도 행정관(行省官)¹⁰⁷⁾이 일을 의논할 때 서로 합의를 보지 못하였기 때문에 모두 군대를 버리고 돌아온 것이다. 오랜 후에 막청(莫靑)과 오만오(吳萬五)라는 자들이 또한 도망쳐 돌아왔는데, 10만의 무리 중 돌아올 수 있었던 자가 [이들] 세 사람이었다.¹⁰⁸⁾

파괴되었다. 현재에도 鷹島 앞바다에 몽골군의 30~40m급 목조선이 가라앉아 있고, 鷹島에는 전쟁의 유적이 남아 있다.

102) 百戶: 몽골 시대 각 지역에 설치된 군사기구인 萬戶府 千戶所에 소속된 百戶所의 장관이다. 百戶所는 관할하는 군대 수에 따라 上百戶所와 下百戶所로 구분된다. 上百戶所에는 2명의 百戶가 두어지는데 몽골인 1명, 한인 1명이고, 품계는 종6품이다. 下百戶所에는 百戶1인이 두어지고 품계는 종7품이다. 百戶직은 모두 세습이 허용되었다(『元史』卷91「百官志」7〈諸路萬戶府〉).

103) 八角島: 일본 중세시대 기타규슈에서 무역도시로 발전한 博多(하카다)를 가리킨다. 오늘날 福岡(후쿠오카)市에 속한다. 日·宋 무역의 거점으로 크게 번창하였으나 몽골의 1차 일본 정벌 때 몽골·고려 연합군의 침입을 받아 많은 피해를 입었다. 그 후 鎌倉막부는 몽골군의 재침에 대비하여 하카다만 연안에 대규모 방어시설을 구축하였다. 몽골의 2차 일본 정벌이 실패한 후 몽골-일본 간 민간무역의 거점으로 활용되었다.

104) 新附軍: 몽골이 남송을 정복한 후 투항한 남송군을 몽골의 군사체계 안으로 편입시켜 조직한 군대이다. 대체로 侍衛親軍이나 지방 鎮戍軍의 임무를 띠었다. 몽골이 대외정벌을 수행하거나 내부반란에 직면하였을 때 각 군대 안의 신부군을 선발해 출정시키고, 전투에 참여하지 않는 군사를 둔전과 노역에 종사시켰다.

105) 唐人: 전통시대 일본에서 漢人을 부르는 명칭이다.

106) 『高麗史』卷29「忠烈王世家」〈忠烈王 8년 6월〉조에 蠻軍總把 沈聰 등 여섯 명이 일본에서 도망쳐와 다음과 같이 보고하였다고 한다. “우리는 본래 明州 사람으로 至元 18년(1281) 6월 18일에 葛刺歹 만호를 따라 배를 타고 일본에 이르렀는데, 사나운 풍랑을 만나 배가 부서졌습니다. 군사 13~14만 명이 어떤 산에 숨어들었다가 10월 8일에 일본군이 쳐들어오자 굶주려 싸우지도 못하고 모두 항복하였습니다. 일본군은 기술자와 농사지를 줄 아는 사람만 가려서 남겨두고 나머지는 다 죽였습니다.”

107) 行省官: 일본 정벌을 수행한 日本行省 관리들을 지칭한다.

二十年，命阿塔海爲日本省丞相，與徹里帖木兒右丞·劉二拔都兒左丞，募兵造舟，欲復征日本。淮西宣慰使昂吉兒上言民勞，乞寢兵。

[지원] 20년(1283), 아탑해를 일본성(日本省)¹⁰⁹ 승상으로, 철리첩목아(徹里帖木兒)¹¹⁰를 우승으로, 유이발도아(劉二拔都兒)¹¹¹를 좌승으로 삼도록 명령하고, 군사를 모집하고 배를 만들어 다시 일본을 정벌하려 하였다. 회서선위사(淮西宣慰使)¹¹² 앙길아(昂吉兒)¹¹³가 백

108) 『高麗史節要』 卷20 「忠烈王世家」 〈忠烈王 7년 윤8월〉조에 일본 원정에 나섰던 군사 중 귀환하지 못한 자가 무려 몽골군 10만, 고려군 7천여 명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109) 日本省: 몽골이 일본을 정벌하기 위해 설치한 군사기구인 日本行省을 가리킨다. 그러나 『高麗史』 卷29 「忠烈王世家」 〈忠烈王 9년 6월〉조에 몽골에서 충렬왕을 征東中書省의 左丞相으로 삼고 阿塔海(아탑해)와 함께 행정업무를 보게 하였다고 하여 그때 설치된 행정 명칭이 일본행성이 아니라 정동행성이라고 표기되어 있다. 장동익은 아탑해·유국걸에 관한 열전·묘지명 등 여러 자료에서 그 시기 그들이 정동행성 관원에 임명되었다고 기록된 사실을 근거로 위 기사의 日本省이 征東行省의 오기가 분명하고, 그 치소가 고려가 아닌 강남에 있었다고 보았다(장동익, 1994: 23~27).

110) 徹里帖木兒(?~?): 몽골의 무관. 徹里鐵木兒·濶里帖木兒·闊里帖木兒·闊里鐵木兒라고도 표기된다. 몽골 別速台氏 출신. 至元 16년(1279) 군대를 이끌고 杭州에 가서 주둔하였다. 至元 19년(1282) 고려의 요청을 받아 휘하의 몽골군 500을 金州로 보내 지키게 하였다. 다음 해(1283) 日本行省 右丞에 임명되어 일본 정벌군을 지휘하는 임무를 부여받았으나 실행되지 못하였다. 至元 24년(1287) 遼陽行省 平章政事에 임명되었고, 至元 27년(1290) 군대를 이끌고 舍丹(카단)의 군대를 패주시켰다. 大德 8년(1304) 고려로 출진하여 그곳을 진무하였다.

111) 劉二拔都兒(1234~1305): 몽골의 무관. 여진족 출신 몽골 장수 劉國傑을 가리킨다. 자는 國寶, 성은 烏古倫으로 후에 劉氏로 改姓하였다. 山東 益都 출신이다. 남송과의 전쟁 시기 千戶의 신분으로 荊南·淮南의 여러 지역에서 남송군을 크게 격파하였다. 至元 10년(1273) 襄陽·樊城을 점령할 때 공을 세워 武德將軍 管軍總管을 제수받았다. 至元 12년(1275) 몽골군이 焦山에서 남송군과 전투를 벌일 때 董文炳·劉琛과 함께 남송 장군 張世杰의 군대를 격파하여 큰 공을 세웠다. 이에 쿠빌라이로부터 懷遠大將軍을 제수받고 霸都(拔都兒, 바이투르)라는 칭호를 받았다. 이때부터 두 번째 공이 큰 霸都라는 의미로 劉二霸都(劉二拔都兒)라고 불렸다. 남송 멸망 후 鎮國上將軍 漢軍都元帥가 되어 북방 변경지역을 진수하고, 伯顏(바안)과 함께 시리기의 난을 진압하여 輔國上將軍이 되었다. 至元 20년(1283) 日本行省 左丞에 임명되어 일본을 정벌하는 임무를 부여받았으나 실행되지 못하였다. 廣陵(현재 江蘇省 揚州)에 주둔하면서 일본 해적을 방어하고 반몽골 저항운동을 진압하였다. 至元 23년(1286) 湖廣行省 左丞에 임명되고, 右丞으로 승진하였으며, 至元 28년(1291) 湖廣行樞密院副使가 되고, 元貞 원년(1295) 湖廣行省 平章政事에 임명되었다. 그 기간 중 廣東·廣西·湖南·江西 지역 漢人들의 저항운동과 四川·雲南·貴州 지역 소수민족의 저항운동을 토벌하였다(『元史』 卷162 「劉國傑傳」).

성들을 수고롭게 한다고 상언하고 전쟁을 그만둘 것을 청하였다.

二十一年，又以其俗尚佛，遣王積翁與補陀僧如智往使。舟中不願行者，共謀殺積翁，不果至。

[지원] 21년(1284), 또한 그 습속이 불교를 숭상한다고 생각하여 왕적옹(王積翁)¹¹⁴과 보타승(補陀僧)¹¹⁵ 여지(如智)를 [일본에] 사신으로 보냈다. 배 안에서 가기를 원하지 않는

112) 淮西宣慰使: 淮西道宣慰使의 준말. 淮西는 淮河의 상류 즉 오늘날 安徽·湖北省 북부, 河南省 남부를 포괄하는 지역 명칭이다. 唐代 지방행정 체계에서 淮南西道로 구획된 후 淮西라는 명칭으로 정착되었다. 至元 12년(1275) 廬州(오늘날 安徽省 合肥)에 淮西道宣撫司가 설치되고, 다음 해(1276) 宣慰司로 개칭되었다. 宣慰司는 몽골 시대 각 지역에 설치되어 軍事와 民政을 총괄하는 관청이고, 宣慰使는 宣慰司의 장관으로 3명을 두고 품계는 중2품이다(『元史』卷91「百官志」7〈行中書省〉).

113) 昂吉兒(?~1295): 몽골의 무관. 姓은 野蒲氏이고 張掖(오늘날 甘肅성 張掖) 출신이다. 西夏의 무관 집안 출신으로 칭기즈칸 시기 부친 甘卜이 몽골에 귀부하여 千戶에 임명된 후 몽골의 군사 활동에 협력하였다. 甘卜이 木華黎(무갈리)를 따라 출정하였다가 군중에서 사망한 후 그 자리를 이어 여러 지역을 점령하는 데 공을 세웠다. 至元 6년(1269) 本軍千戶에 임명되어 淮西지역에서 남송군을 공격하였다. 至元 9년(1272) 信陽軍萬戶로써 河西兵을 이끌고 淮南西道를 공략하여 남송 장수 夏貴의 군대를 크게 격퇴하였다. 至元 11년(1274) 남송의 降將 洪福이 阿塔赤(아타치)을 살해하자 군대를 동원하여 그를 사로잡았다. 남송 정복 후 至元 14년(1277) 淮西宣慰使에 임명되었고, 이후 淮西宣慰司 都元帥, 河南行省 右丞 등을 역임하였다(『元史』卷132「昂吉兒傳」).

114) 王積翁(1229~1284): 몽골의 문관. 字는 良存 또는 良臣으로 福寧(오늘날 福建省 霞浦) 출신이다. 남송 理宗 淳祐 5년(1245) 國子監에 입학하여 학문을 탐구하고, 다음 해(1246) 蔭補承務郎을 시작으로 富陽知縣·臨安府通判·徽州知事兼都督兵馬府參議 등의 직책을 역임하였다. 南宋 恭宗 德祐 2년(1276) 3월 몽골군이 임안으로 진공하자 황족 益王·信王을 따라 福州에 왔다. 그해 5월 益王 趙昰가 복주에서 즉위하여 그를 福建制置使로 삼았다. 11월 몽골군이 복주에 육박하자 全圖圖籍을 바치고 몽골에 투항하였다. 몽골은 그를 福建道宣撫副使로 삼아 복주를 지키게 하였다. 몽골군이 떠난 후 복주의 淮軍이 그를 죽이고 張世杰의 군대에 호응하려 하였으나 그에게 지지당하였다. 이에 中奉大夫 福州路總管 福州府尹에 임명되었고, 후에 福建道宣慰使로 전임되었다. 至元 15년(1278) 京師에 와서 全圖八郡圖籍을 쿠빌라이에게 헌상하고 그에게 일본 정벌을 획책하였다. 이에 刑部上書를 제수받고, 다음 해 戶部上書가 되었으며, 至元 19년(1282) 江西行省參知政事가 되었다. 두 차례에 걸친 일본 정벌이 실패한 후 중용되지 않자 쿠빌라이에게 직접 일본 초유 임무를 맡겠다고 청하였다. 이에 至元 21년(1283) 國信使로서 普陀僧 如智와 함께 일본에 파견되었으나 사행 중 반란이 일어나 뱃사람들에게 살해되었다.

자들이 공모하여 [왕]적용을 죽여서 이르지 못하였다.¹¹⁶⁾

二十三年，帝曰：「日本未嘗相侵，今交趾犯邊，宜置日本，專事交趾。」

[지원] 23년(1286), 황제가 말하기를, “일본은 일찍이 서로 침범하지 않았는데, 지금 교지(交趾)¹¹⁷⁾가 변경을 침범하니 마땅히 일본을 제쳐두고 교지에 관한 일에 전념해야 한다”라고 하였다.

成宗大德二年，江浙省平章政事也速答兒乞用兵日本。帝曰：「今非其時，朕徐思之。」

성종(成宗)¹¹⁸⁾ 대덕(大德)¹¹⁹⁾ 2년(1298), 강절성(江浙省)¹²⁰⁾ 평장정사(平章政事)¹²¹⁾ 야

115) 補陀僧: 오늘날 浙江省 舟山 군도에 위치한 普陀山(補陀山)의 승려를 말한다.

116) 『元史』本紀에는 至元 21년(1284) 정월에 일어난 사건으로 기록되어 있다. 그때 如智가 소지해 간 몽골의 국서는 중국 측 자료에 남아 있지 않지만 일본 자료 『善隣國寶記』卷上 〈弘安 9년〉條에 기재된 『海觀音寶陀禪寺住持如智海印持待庵記』에 전문이 수록되어 있다(장동익, 2004: 242).

117) 交趾: 交趾라고도 표기된다. 오늘날 베트남 북부지역에 위치하였던 安南國을 가리킨다. 交趾라는 명칭은 前漢 武帝 元鼎 6년(기원전111) 漢武帝가 南越을 정복하고 그 지역에 交趾郡을 설치한 데에서 유래되었다.

118) 成宗(1265~1307; 재위 1294~1307): 忽必烈(쿠빌라이) 사후 등극한 몽골의 6대 칸 鐵穆耳(테무르)의 중국식 묘호이다. 쿠빌라이의 둘째 아들 眞金(진킴)의 셋째 아들이다. 至元 22년(1285) 황태자 친킴이 사망한 후 쿠빌라이가 칸위 계승자를 결정하지 못하다가 乃顔(나얀)의 반란이 일어났을 때 테무르에게 카단의 무리를 토벌하도록 하고, 至元 30년(1293) 皇太子寶를 수여하여 북변을 진수하게 하였다. 다음 해(1294) 정월 쿠빌라이가 사망하자 테무르는 4월 上都에서 개최된 쿠릴타이에서 칸으로 즉위하였다. 大德 8년(1304) 장기간 몽골 정권과 대립하던 西北諸王의 귀부를 받아내어 동서화해를 이루고, 팍스 몽골리카(Pax-Mongolica)라고 불리는 동서 교통·교역의 번영을 실현시켰다.

119) 大德: 몽골 제6대 칸 成宗(테무르) 시기의 연호(1297~1307).

120) 江浙省: 몽골 시대 行省 중 하나인 江浙行省을 가리킨다. 至元 13년(1276) 몽골은 남송 수도 臨安을 함락시키고 揚州에 江淮行省을 설치하여 兩淮·兩浙 지역을 관할케 하였다. 至元 21년(1284) 치소를 杭州로 옮기고 다음 해 江浙行省이라 개칭하였다. 大德 3년(1299) 福建行省을 폐지하고 관할 지역을 강절행성에 소속시켰다. 관할 범위는 오늘날 江蘇省 남부, 浙江·福建·江西省의 일부를 포괄한다(『元史』卷91 「百官志」 7 〈行中書省〉).

속답아(也速答兒)가 일본을 정벌하기를 청하였다. 황제가 말하기를 “지금은 그 시기가 아니니, 짐이 천천히 그것을 생각해보겠다”라고 하였다.

三年，遣僧寧一山者，加妙慈弘濟大師，附商舶往使日本，而日本人竟不至。

[대덕] 3년(1299), 승려 영일산(寧一山)¹²²⁾이라는 자에게 묘자홍제대사(妙慈弘濟大師)를 더하여 상선과 함께 일본에 사신 보냈으나,¹²³⁾ 일본인은 끝내 오지 않았다.¹²⁴⁾

121) 平章政事: 몽골 시대 行省에 소속된 관직으로 품계는 종1품이다. 형식상 행정의 장관은 丞相이나 자리가 비어 있는 경우가 많아서 실제로 평장정사가 장관직을 수행하였다. 행정의 관할 구역 안에서 군정·민정·사법을 총괄하였다(『元史』 卷91 「百官志」 7 〈行中書省〉).

122) 寧一山(1247~1317): 몽골 시대 臨濟宗 楊岐派의 승려 一山一寧을 가리킨다. 俗姓은 胡氏, 號는 一山이고 台州 臨海縣(오늘날 浙江省 台州 臨海市) 출신이다. 어린 시절 출가하여 律宗과 天台宗을 배우고 후에 禪으로 귀의하였다. 大德 3년(1299) 成宗이 佛法으로 일본을 복속시키기 위해 그에게 妙慈弘濟大師라는 칭호를 내리고 사신으로 삼아 일본에 파견하였다. 그의 일행이 博多에 도착하였을 때 鎌倉 막부가 수상히 여겨 그들을 유폐시켰다. 그러나 그의 명성을 듣고 석방하여 建長寺에 입사시키고, 이어 圓覺寺에 살게 하였다. 後宇多(고우다)上皇이 명성을 듣고 그를 초청하자 皇慶 2년(1313) 南禪寺에 와서 上皇에게 禪要를 설교하고 延祐 4년(1317) 南禪寺에서 입적하였다. 그는 禪學뿐 아니라 유학과 시문에 정통하여 일본에 주자학을 전파하고 五山 문학을 발전시키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123) 『元史』 「成宗本紀」 〈大德 3년 3월〉조에 그때 몽골에서 일본에 보낸 국서의 내용이 실려 있다. 또한 일본 자료 『鎌倉年代記』에 따르면 一山一寧 일행이 그해(1299) 10월 8일 몽골의 국서를 가지고 鎌倉에 도착하였다고 한다(장동익, 2004: 337~342).

124) 일본 정부의 공식 사절이 몽골을 방문한 경우는 없지만, 大德 3년(1299) 이래 일본의 민간상인이 강남에 도래하여 교역을 행한 사례가 발견된다. 『元史』 本紀에 大德 10년(1306) 4월, 泰定 2년(1325) 11월, 天曆 원년(1328) 11월에 일본 상인이 강남에 와서 교역을 행하였다는 기사가 있다. 또한 중국·일본의 여러 자료에서 그 시대 많은 양국 승려들이 불법을 구하고 전파하기 위해 상대국을 방문한 사실이 기록되어 있다(이에 관해 魏榮吉, 1985: 281~348 참조).

| 참고문헌 |

동북아역사재단 편, 『譯註 中國 正史 外國傳』 1~13, 동북아역사재단, 2009~2013
『二十五史』, 北京: 中華書局, 1959~1977

『高麗史』, 亞細亞文化社, 1975

『高麗史節要』, 亞細亞文化社, 1973

『大德南海志』, 廣州: 廣州市地方研究所, 1986

『寶慶四明志』, 臺北: 商務印書館, 1983

『三國史記』, 한길사, 1998

『新增東國輿地勝覽』, 서경문화사, 1994

『元高麗紀事』, 臺北: 廣文書局, 1972

舍人親王, 『日本書紀』, 東京: 岩波書店, 1965

汪大淵, 『島夷志略』, 北京: 中華書局, 1981

王邦維, 『南海寄歸內法傳校注』, 北京: 中華書局, 1995

趙汝适, 『諸蕃志』, 北京: 中華書局, 2000

周去非, 『嶺外代答』, 北京: 中華書局, 1999

國史編纂委員會, 『中國正史朝鮮傳』(譯註3), 國史編纂委員會, 1989

김기섭 외, 『일본 고증세 문헌 속의 한인관계사료집성』, 혜안, 2005

金渭顯, 『高麗史中中韓關係史料彙編』, 臺北: 食貨出版社, 1983

張星烺 編注, 『中西交通史料彙編』 1~4冊, 北京: 中華書局, 2003

김호동 역주, 『마르코폴로의 동방견문록』, 사계절, 2000

라시드 앳 딘, 김호동 역, 『라시드 앳 딘의 집사(3): 칸의 후예들』, 사계절, 2005

金渭顯, 『高麗時代 對外關係史 研究』, 景仁文化社, 2004

金日宇, 『高麗時代 耽羅史 研究』, 신서원, 2000

盧啓鉉, 『高麗外交史』, 甲寅出版社, 1994

동북아역사재단·경북대학교 한중교류연구원 엮음, 『13~14세기 고려-몽골관계 탐구』, 동북아역사재단, 2011

동북아역사재단·한일문화교류기금 편, 『몽골의 고려·일본 침공과 한일관계』, 경인문화사, 2009

羅鐘宇, 『韓國中世對日本交渉史研究』, 원광대학교출판부, 1996

모리스 로사비, 강창훈 옮김, 『쿠빌라이 칸—그의 삶과 시대』, 천지인, 2008

朴龍雲, 『高麗時代 官階·官職 研究』, 고려대학교출판부, 1997

尹龍赫, 『高麗對蒙抗爭史研究』, 一志社, 1991

윤용혁, 『고려 삼별초의 대몽항쟁』, 일지사, 2000

이영, 『왜구와 고려 일본 관계사』, 혜안, 2011

張東翼, 『高麗後期外交史研究』, 一潮閣, 1994

장동익, 『일본 고종세 고려자료 연구』, 서울대학교출판부, 2004

高榮盛, 『元代海外貿易研究』, 成都: 四川人民出版社, 1998

德山, 『元代交通史』, 北京: 遠方出版社, 1995

閻明恕, 『中國古代和親史』, 貴陽: 貴州民族出版社, 2003

榮新江, 『中古文明與外來文明』, 北京: 三聯書店, 2001

王儀, 『蒙古元與高麗及日本的關係』, 臺北: 商務印書館, 1970

王儀, 『蒙古與王氏高麗及日本』, 臺北: 商務印書館, 1971

李雲泉, 『朝貢制度史論—中國古代對外關係體制研究』, 北京: 新華出版社, 2004

李治安, 『忽必烈傳』, 北京: 人民出版社, 2004

婁嵐, 『7~14世紀中日文化交流的考古學研究』, 北京: 中國社會科學出版社, 2001

周良霄, 『忽必烈』, 長春: 吉林教育出版社, 1986

陳高華·吳泰, 『宋元時代海外貿易』, 天津: 天津人民出版社, 1981

陳高華·陳尙勝, 『中國海外交通史』, 臺北: 文津出版社, 1997

蔡鴻生, 『中外交流史考述』, 鄭州: 大象出版社, 2007

榎本涉, 『東アジア海域と日中交流: 九~一四世紀』, 吉川弘文館, 2007

南基鶴, 『蒙古襲來と鎌倉幕府』, 東京: 臨川書店, 1996

對外關係史綜合年表編輯委員會, 『對外關係史綜合年表』, 東京: 吉川弘文館, 1999

藤家禮之助, 『日中交流二千年』, 東京: 東海大學出版社, 1988

山口修, 『蒙古襲來—元寇の眞実の記録』, 東京: 桃源社, 1969

- 西尾賢隆, 『中世の日中交流と禪宗』, 東京: 吉川弘文館, 1999
- 石原道博, 『譯註中國正史日本傳』, 東京: 國書刊行會, 1975
- 石井正敏 外, 『増補改訂日中・日麗關係文獻目錄』, 東京: 國書刊行會, 1996
- 愛宕松男, 『(東洋史學論集 4) 元朝史』, 東京: 三一書房, 1988
- 魏榮吉, 『元・日關係史の研究』, 東京: 教育出版センター, 1993
- 田中健夫, 『東アジア通交圏と國際認識』, 東京: 吉川弘文館, 1997
- 中村栄孝, 『日鮮關係史の研究』, 東京: 吉川弘文館, 1965
- 池内宏, 『元寇の新研究』, 東京: 東洋文庫, 1931
- 池内宏, 『滿鮮史研究』 東京: 吉川弘文館, 1963
- 川添昭二, 『蒙古襲來研究史論』, 東京: 雄山閣, 1975
- 川添昭二, 『元の襲來』(日本史の世界シリーズ), 東京: ポプラ社, 1975
- 川添昭二, 『對外關係の史的展開』, 東京: 文獻出版, 1996
- 村井章介, 『アジアのなかの中世日本』, 東京: 校倉書房, 1988
- 諏訪春雄, 『日中比較藝能史』, 東京: 吉川弘文館, 1994
- 出口晶子, 『日本と周邊アジアの傳統的船舶』, 東京: 文獻出版, 1995
- 和田清・石原道博, 『舊唐書倭國日本傳 宋史日本傳・元史日本傳』, 東京: 岩波書店, 1956
- 高柄翊, 「麗代 征東行省의 研究」(上)・(下), 『歷史學報』 14: 19, 1961・1962
- 高柄翊, 「中國 正史의 外國列傳」, 『東亞交涉史의 연구』, 서울대학교출판부, 1970
- 金渭顯, 「麗元 日本征伐軍의 出征과 麗元關係」, 『國史館論叢』 9, 1989
- 金澈珉, 「元의 日本遠征과 麗・元關係」, 『建大史學』 3, 1973
- 羅鐘宇, 「13世紀의 韓・日關係-蒙古의 日本 遠征을 中心으로」, 『釋山韓鍾萬博士華甲紀念 韓國思想史』, 釋山韓鍾萬博士華甲紀念論文集刊行委員會, 1991
- 南基鶴, 「蒙古侵入과 朝幕關係의 전개」, 『日本歷史研究』 3, 1996
- 南基鶴, 「蒙古侵入과 中世 日本의 對外關係」, 『아시아문화』 12, 1996
- 南基鶴, 「고려와 일본의 상호인식」, 『日本歷史研究』 11, 2000
- 南基鶴, 「10~13세기의 동아시아와 고려·일본」, 『인문학연구』 9, 2002
- 南基鶴, 「중세 일본의 외교와 전쟁-몽골의 일본 침략을 소재로」, 『東洋史學研究』 80, 2002
- 남기학, 「몽골의 일본 침략-연구사적 고찰과 교과서 비판」, 『한립일본학』 19, 2011
- 閔賢九, 「蒙古軍·金方慶·三別抄」, 『韓國史市民講座』 8, 一潮閣, 1991
- 柳田純孝, 「몽고의 일본 침입에 대한 소고」, 『濟州島史研究』 11, 2002

- 윤용혁, 「여원군의 일본 침입을 둘러싼 몇 문제-1274년 1차 침입을 중심으로」, 『島嶼文化』 25, 2006
- 윤용혁, 「일본에 있어서 '元寇' 연구의 현황(1976~2011)」, 『도서문화』 41, 2013
- 李銀圭, 「元의 日本征伐 考察-高麗와 元의 國際關係를 中心으로」, 『湖西史學』 창간호, 1972
- 李在範, 「麗元聯合軍의 日本征伐과 『東方見聞錄』」, 『軍史』 50, 2003
- 張東翼, 「前期 征東行省의 置廢에 대한 檢討」, 『大丘史學』 32, 1983
- 張東翼, 「征東行省의 研究」, 『東方學志』 67, 1990
- 장동익, 「14세기의 고려와 일본의 접촉과 교류」, 『대구사학』 100, 2010
- 趙啓繼, 「元軍의 高麗屯田考」, 『東亞論叢』 2, 1964
- 채상식, 「麗·蒙의 일본 정벌과 관련된 외교문서의 추이」, 『韓國民族文化』 9, 1997
- 崔根成, 「高麗 萬戶府制에 관한 研究」, 『關東史學』 3, 1988
- 崔壹聖, 「高麗의 萬戶」, 『清大史林』 4·5, 1985
- 毛德傳, 「元國信使一山一寧東渡初探」, 『史學集刊』, 1983-4
- 毛瑞明, 「忽必烈伐日及其起因」, 『贛南師範學院學報』, 1996-1
- 方安發, 「元代中日貿易簡論」, 『江西大學學報』, 1984-1
- 徐黎麗, 「元朝對日本的東征及其失敗」, 『西北民族學院學報』, 1999-1
- 余又蓀, 「元代之中日貿易」, 『銘傳學報』 1, 1965
- 薛磊, 「論忽必烈時期元日關係中高麗王朝的態度」, 『內蒙古大學學報』(人文社會科學版) 34-2, 2002
- 王啓宗, 「元世祖招諭日本始末」, 『大陸雜誌』 32-5, 1966
- 王啓宗, 「元軍第一次征日考」, 『大陸雜誌』 32-7, 1966
- 王啓宗, 「元軍第二次征日前夕政勢的分析」, 『大陸雜誌』 34-10, 1967
- 王啓宗, 「元軍第二次征日考」, 『大陸雜誌』 35-4, 1967
- 王民信, 「蒙古入侵高麗與蒙麗聯軍征日」, 『高麗史研究論文集』, 臺大出版中心, 2010
- 李迺賡, 「十三世紀末蒙元征日事件考議」, 『松遼學刊』, 1985-3
- 丁崑健, 「元代征東行省之研究」, 『史學彙刊』 10, 1980
- 陳高華, 「元朝與高麗的海上交通」, 『震檀學報』 71·72, 1991
- 陳高華, 「十四世紀來中國的日本僧人」, 『文史』 18, 1983
- 陳有和, 「忽必烈侵日的原因及其影響」, 『元史及北方民族研究集刊』 9, 1985
- 榎本涉, 「順帝朝前半期における日元交通」, 『日本歴史』 640, 2001

- 榎本涉, 「日本遠征以後における元朝の倭船対策」, 『日本史研究』 470, 2001
- 榎本涉, 「明州市舶司と東シナ海交易圏」, 『歴史研究』 756, 2002
- 榎本涉, 「日本史研究における南宋・元代」, 『史滴』 24, 2002
- 榎本涉, 「中国史料に見える中世日本の度牒」, 『禅学研究』 82, 2004
- 関周一, 「中世對外關係史研究の動向と課題」, 『史境』 28, 1994
- 大隅和雄, 「蒙古襲来の陰で—元から日本へ渡った高僧」, 『しにか』, 2001-11
- 北村秀人, 「高麗に於ける征東行省について」, 『朝鮮学報』 32, 1964
- 四日市康博, 「鷹島海底遺跡に見る元寇研究の可能性—元寇遺物実見報告」, 『史滴』 24, 2002
- 山本光朗, 「趙良弼について」, 『北海史論』 20, 2000
- 山本光朗, 「元使趙良弼について」, 『史流』 40, 2001
- 森克己, 「日元交渉」, 『歴史教育』 9-7, 1961
- 西尾賢隆, 「墨蹟にみる日中の交流」, 『京都産業大學日本文化研究所紀要』 30・31, 2001
- 石原道博, 「元代日本觀の一側面」, 『和田博士還暦記念東洋史論叢』, 講談社, 1951
- 石原道博, 「中國における隣好的日本觀の全開」, 『茨城大學文理學部紀要』, 人文學報 2, 1952
- 石原道博, 「中国における畏惡的日本觀の形成—元代の日本觀」, 『茨城大学文理学部紀要』(人文科学)3, 1953
- 栗林宣夫, 「征東行省と高麗」, 『アジアの教育と社会』, 東京: 不昧堂出版, 1983
- 愛宕松男, 「鎌倉時代の対外交渉—日元關係」, 『海外交渉史の視點1(原始・古代・中世)』, 東京: 日本書籍出版, 1975
- 伊勝幸司, 「中世對外關係史研究における禪宗の視覚」, 『中世日本の外交と禪宗』, 東京: 吉川弘文館, 2002
- 田中健夫, 「十四世紀以前における東アジア諸國との關係」, 『中世對外關係史』, 東京: 東京大學出版會, 1975
- 田中健夫 他, 「蒙古襲來」, 『日本歴史大系』 2, 東京: 山川出版社, 1985
- 足立啓二, 「中國から見た日本貨幣史の二・三の問題」, 『新しい歴史學のために』 203, 1991
- 足立啓二, 「東アジアにおける錢幣の流通」, 『アジアのなかの日本史』, 東京: 東京大學出版會, 1992
- 佐久間重男, 「中世宋元明時代の日中文化交流」, 『日中文化交流史叢書』 1, 1995
- 中村栄孝, 「文永弘安兩役間に於ける日麗元の關係」, 『史学雑誌』 37-6~8, 1926
- 池内宏, 「元の世祖と耽羅島」, 『東洋学報』 16-1, 1926
- 池内宏, 「高麗に於ける元の行省」, 『東洋学報』 20-3, 1933
- 川添昭二, 「蒙古襲來と中世文藝」, 『中世文藝の地方史』, 東京: 平凡社, 1982

川添昭二, 「中世における日本と東アジア」 上, 『福岡大學総合研究小報』 147, 1992
青山公亮, 「日元間の高麗」 1・2・3, 『史学雑誌』 32-8~10, 1921
青山公亮, 「弘安の役と高麗」, 『史学雑誌』, 1925
青山公亮, 「文永弘安両役間の倭寇と高麗の対時局策」, 『史学雑誌』 37-11, 1926
村井章介, 「高麗三別抄の叛乱と蒙古来襲前夜の日本」 上・下, 『歴史評論』 382・384, 1982
村井章介, 「元代の東アジア貿易と五山文化」, 『日本の時代史』 9, 吉川弘文館, 2003

『アジア歴史事典』 全10巻, 東京: 平凡社, 1962
邱樹森 主編, 『元史辭典』, 濟南: 山東教育出版社, 2002
羅竹風 主編, 『漢語大詞典』, 上海: 漢語大詞典出版社, 1990~1993
日中民族史料研究所 編, 『中國歷代職官辭典』, 東京: 國書刊行會, 1980
臧勵蘇 等 編, 『中國古今地名大辭典』, 臺灣: 商務印書館, 1972
諸橋轍次, 『大漢和辭典』, 東京: 大修館書店, 1966
陳佳榮・謝方・陸峻嶺 編, 『古代南海地名匯釋』, 北京: 中華書局, 1986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원사(元史) 권209 외이(外夷) 2

안남전(安南傳)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안남전(安南傳)」 해제

〈안남전〉은 『원사』 「외이전」 전체 3권 가운데 두 번째에 위치해 있다. ‘안남’은 물론 현재의 베트남을 가리키는 말이다. 베트남은 한 무제 시기인 원정(元鼎) 6년(기원전 111) 북부의 중국에 병합된 이래 위진남북조와 수당 시대를 통해 중국의 지배를 받아왔다. 전한(前漢) 시기에는 교지(交趾)라 불리다가, 후한(後漢) 시기 이 일대에 교주(交州)가 설치되어 위진남북조 시대에는 교주라 불렸다. 교주 아래에 교지군(交趾郡)이 있었다. 이후 당 초까지 여전히 교주라 지칭되었지만, 당 중엽인 숙종(肅宗) 시기에 안남도호부(安南都護府)가 설치되면서 비로소 안남이란 용어가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이때의 ‘안남’이란 말은 다분히 화이 관념이 반영된 것으로, 이른바 안동·안서·안북 등의 용어와 함께 도입되었다.

하지만 송대에는 베트남에 대해 당대 이전의 용어인 ‘교지’를 사용하였다. 『송사』 외국전에서 사용된 용어도 ‘교지’였으며, 베트남 국왕을 책봉할 때도 기본적으로 ‘교지군왕(交趾郡王)’이라 칭하였다. 반면 원대에는 일관되게 안남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간혹 교지란 말이 등장하지 않는 것은 아니나 원 조정의 공식적 표현은 ‘안남’이었다. 베트남 국왕을 책봉할 때도 ‘안남국왕’이라 지칭하였다. 원 조정에서 제2차 베트남 침공 당시 항복한 여족(黎崩)으로 하여금 베트남의 사정에 대해 소개하는 서적을 저술하게 한 다음 붙인 제목 또한 『안남지략(安南志略)』이라 하였다.

‘교지’와 ‘안남’이라는 용어는 다 같이 베트남 일대를 가리키는 용어이지만, 기본적으로 ‘교지’는 군(郡)의 명칭이며 ‘안남’은 그 상위에 있는 지역 전체의 지칭이었다. 따라서 송대에도 베트남 지배자를 국왕으로 봉할 때는 ‘교지’란 용어 대신 ‘안남’을 채택하여 ‘안남국왕’이라 칭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오늘날 베트남 역사가들은, 남송이 베트남 지배자에 대해 ‘안남국왕’

이라 칭하기 시작한 것을 두고 베트남 독립에 대한 인정이라 규정하기도 한다.

『원사』〈안남전〉은 외이전 가운데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 위치는 비록 〈고려전〉과 〈탐라전(耽羅傳)〉·〈일본전〉 뒤에 있으나, 분량은 〈고려전〉·〈탐라전〉·〈일본전〉을 합한 것에 거의 육박할 정도이다. 「외이전」 3의 〈면전(緬傳)〉·〈점성전(占城傳)〉·〈유구전(瑠求傳)〉·〈마팔아등국전(馬八兒等國傳)〉을 다 합한 것보다도 많다. 『원사』의 찬자(撰者)들은 왜 이렇게 안남 내지 〈안남전〉을 중시했던 것일까? 이것은 두말할 나위 없이 중국 정사 외국전의 전반적인 성격과 긴밀한 관련이 있다. 몽골제국에게 베트남은 매우 특별한 존재였다. 그렇다고 베트남이 몽골제국에게 대단히 중요한 정치적·경제적·문화적 의미가 있다는 것은 아니다. 몽골은 베트남을 무려 세 차례나 침공했음에도 끝내 정복하지 못하였다. 해상에 위치하여 원정에 본질적인 제약이 있는 일본이나 자바 등을 제외하고, 지상으로 연결해 있으면서도 몽골의 침략을 지속적으로 막아낸 나라는 베트남이 거의 유일하다. 중국 정사의 외국전은 주지하듯 철저히 중국 왕조의 정치적·군사적 관심에 의거하여 서술되었다. 『원사』의 〈안남전〉 기술 분량이 이례적이라 할 만큼 많은 것도 바로 이러한 세 차례 정벌전쟁 전후의 동향을 상세하게 서술하고 있기 때문이다.

〈안남전〉의 내용은 외이전의 여타 부분과 마찬가지로 안남의 역사적 변천에 대한 소개부터 시작한다. 진 시황 시기 계림군(桂林郡)·남해군(南海郡)·상군(象郡)이 설치된 것, 한 무제의 정복, 당대의 도호부 설치, 그리고 그 이후의 독립에 대해 간략히 개괄하고 있다. 그런데 이 도입부의 논조 또한 『송사』〈교지전〉과는 자못 다르다. 『송사』〈교지전〉은, 베트남이 본디 남월(南越)의 옛 땅이었다는 내용에서 시작하고 있다. 이어 한·위진남북조·수당 시대의 변천을 소개하고, 토호인 곡씨(曲氏)가 대두하여 자립의 움직임이 일어나는 과정 및 이후의 독립에 대해 비교적 소상히 서술하고 있다. 반면 『원사』〈안남전〉은 그 간략한 도입부 가운데, 징씨(徵氏) 자매의 반란이 진압된 후 마원(馬援)이 동주(銅柱)를 세워 한(漢)의 영역임을 표시하였다는 사실을 특기하고 있다. 그 다음에는 당대의 사실이 한문 문장 하나로 간략히 서술되어 있다. 이어 정조(丁朝)부터 이조(李朝)·진조(陳朝)로 이어지는 변천에 대해 ‘찬탈’을 유난히 강조한다. 베트남이 본디 중국의 영역이었다는 점, 그리고 독립 이후 베트남 제왕조가 정통성을 결여하고 있다는 점을 특기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논조는 〈안남전〉이 기본적으로 몽골제국의 세 차례에 걸친 베트남 정벌 기록이라는 사실과 좋은 조응을 이루는 것이라 여겨진다.

이러한 도입부 다음으로는 몽케 시기 우량카다이(兀良合台)의 제1차 침공[남송 보우(寶祐) 5년, 1257]이 언급된다. <안남전>의 기록에만 의거하는 한, 우량카다이의 원정은 대단히 성공적인 것이었다. 베트남은 우량카다이 군대 앞에서 우왕좌왕하다가 참패를 당하였다. 몽골의 군대는 소기의 성과를 모두 거두고 철수하였다. 반면 베트남은 원정군 앞에 속수무책으로 무너졌을 뿐더러, 몽골 측이 보낸 사자를 하옥시켜 사실상 사망에 이르게 할 정도로 몰상식한 집단으로 묘사되어 있다. 하지만 실제 사정은 다르다. 우량카다이 군대는 진조 베트남의 수도 탕롱을 점령하였지만 무더운 기후를 견디다 못해 9일 만에 철수하였다. 또 철수 과정에서도 베트남 측의 역습을 받아 많은 피해를 입었다.

제1차 침공 이후 진조 베트남은 즉시 몽골에 사신을 파견하여 조공하고 3년마다 한 차례씩 조공하는 것, 즉 3년 1공을 약속하였다. 그런데 이 직후 몽골은 베트남에 국왕이 친히 입조(入朝)할 것을 요구하였다. 보우 6년(1258) 이후 <안남전>의 기술은 이 문제, 즉 국왕의 친조(親朝)를 둘러싼 양국 간의 외교 교섭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그런데 몽골과 진조 베트남이 국교를 맺고 진조가 조공을 바치게 된 이후, 몽골의 제2차 침공이 있을 때까지의 양국 관계에 대한 서술에서 한 가지 주목을 끄는 것이 있다. 진조 베트남이 몽골의 사신을 맞을 때라든가 혹은 몽골의 요구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대단히 능란하면서도 자주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몽골의 여러 요구에 대해 거들 응하지 않으면서도 교묘한 명분과 논리를 제시하고 있으며, 몽골에서 파견된 사신을 접대하는 데 있어서도 대등한 의례를 관철시키고자 하고 있다. 이러한 것에 대해 몽골 측은 불만을 토로하며 징치(懲治)하겠다는 위협을 가하지만 진조 베트남의 자세는 거의 변하지 않는다.

원 세조 지원(至元) 17년(1280) 이후에 원과 진조 베트남 사이의 관계는 중대한 변화를 맞이한다. 원은 점성(占城)을 정벌하며 베트남에 대해 군대 파견과 군량미의 공출을 요구하였다. 이러한 요구를 베트남이 거부하면서 양국은 다시 침예한 긴장 상태로 돌입하여 이것이 제2차 침공(1284. 12~1285. 5)으로 연결되었다. 이때의 침공은 세조 쿠빌라이의 친자(親子)인 진남왕(鎮南王) 토곤이 주도하게 되는데, 제2차 침공과 관련한 <안남전>의 서술은 매우 모호하다. 점성 원정의 기록은 <점성전>에 상술되어 있으므로 그렇다 치더라도, 왜 원-베트남 사이에 전쟁이 벌어지는가에 대한 언급이 전연 등장하지 않는다. 진남왕 토곤의 남방 원정과 베트남 영내 진입 역시 전후 맥락에 대한 서술이 없다. <안남전>의 기록만을 보면, 양국 사이의 전투가 돌발적으로 발생한 것처럼 이해된다.

또한 제2차 침공의 전쟁 경과 역시 유기적으로 서술되어 있지 않다. 전쟁의 전개 자체가 여타 부분과 균형이 맞지 않는다고 여겨질 정도로 대단히 장황하게 묘사되어 있다. 하지만 전쟁의 추이나 전반적인 양상에 대한 언급은 매우 소략하다. 대부분의 중국 사서와 마찬가지로, 중국 측의 전승(戰勝)이 지속되다가 갑작스레 상대방의 역공이 전개되어 패전에 이르는 것처럼 기록되어 있다. 원군(元軍)의 진군과 승전 사실은 소상히 기록하지만 패전과 철수에 대해서는 매우 인색한 서술 태도를 취하고 있다.

이러한 서술의 태도는 제3차 침공(1287. 11~1288. 3)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원의 군대는 연전연승을 거듭하며 베트남 영내를 횡행하다가 갑작스레 철군을 결정하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다. 철군의 과정도 무리 없이 정연하게 진행된 것으로 서술하고 있다. 진조 베트남 측이 흥도왕(興道王) 진국준(陳國峻)의 주도 아래 퇴각하는 원의 대군을 맞아 백등강(白藤江)에서 괴멸적 타격을 가했던 사실 등에 대해서는 전연 언급하지 않는다.

이와 같이 <안남전>의 내용은 세 차례에 걸친 베트남 정벌의 기록이 주조를 이룬다. 여타 부분 또한 3차의 전쟁 전후 양국 사이의 외교 교섭이 태반을 차지한다. 특히 제4차 침공 준비와 포기에 대한 기술까지를 포함한다면, <안남전>은 몽골의 베트남 원정사에 대한 기록이라 하여도 무방할 정도이다. 그리하여 여타의 정사 외국전에서 관례적으로 서술하고 있는 내용, 즉 해당 국가의 풍토나 관습 등에 대한 소개가 완전히 누락되어 있다. <안남전>에는 그 서두에 안남 지방의 역사에 대한 개괄적 언급을 제외하면, 모두 몽골과 진조 베트남 사이의 정치외교적 접촉만이 기록되어 있을 뿐이다.

잘 알려져 있듯 『원사』는 그 찬술의 개시부터 채 1년도 걸리지 않은 단기간에 완성되었다. 이러한 졸속 편찬으로 말미암은 여러 가지 문제점과 내용의 오류에 대해서는 대소의 논저에서 다양하게 언급되고 있거니와, <안남전>에서도 그러한 내용상의 미비점이 상당수 산견된다. 우선 제기할 수 있는 것이 정벌전쟁에 과도하게 초점을 맞추어 서술하고 있으면서도 정벌전쟁의 전개에 대한 기본적인 검토와 확인조차 소홀히 하고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제2차 정벌과 제3차 정벌의 사이, 즉 원 세조 지원 23년(1286) 5월에 있었던 사실로서, “악주행성(鄂州行省)의 군대가 함께 안남국을 정벌하여 베트남의 군주 진일훤이 다시 수도를 버리고 도주하였다”고 적고 있다. 마치 또 한 차례의 대규모 원정이 단행되어 베트남의 수도까지 진격한 것처럼 기술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당시는 제3차의 원정을 준비하고 있던 시기였을 뿐 또 다른 전면전쟁이 벌어진 시점이 아니다. <안남전> 본문의 서술도 전후에서 그러한 정황에

대해 소상히 언급하고 있다. 그럼에도 갑작스레 원 세조 지원 23년 5월의 항목에서는 매우 돌출적이고 부정확한 기록을 삽입하고 있는 것이다.

원 조정과 진조 베트남 사이 사신의 왕래에 대한 기록 역시 매우 부정확하며 때로 심각한 착오를 보이기도 한다. 사신 왕래의 사실에 대한 기록 자체가 『안남지략』에 비하여 매우 소략할뿐더러, 〈안남전〉의 기본 관심, 즉 세 차례의 정벌전쟁과 직접 관계가 없는 사신 왕래에 대해서는 거의 관심을 두고 있지 않다. 그런데 이렇듯 사신 왕래에 대해 매우 편협한 기록의 태도를 취하면서도 그나마 사실 관계의 확인에 대해서는 매우 부주의한 모습을 보인다.

지원 31년(1294) 성종(成宗)이 즉위한 직후의 사신 왕래에 대한 서술은 그러한 모습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부분의 기술은, “지원 31년(1294) 5월, 성종이 즉위하여 정벌을 중지할 것을 명령하고 베트남 사신 도자기(陶子奇)를 송환시켰다. 진일존(陳日尊)은 사신을 보내어 국상을 위문하는 표를 올리고 아울러 토산품을 진상하였다. 6월에는 예부시랑(禮部侍郎) 이간(李衍)·병부낭중(兵部郎中) 소태등(蕭泰登)을 보내어 그들을 안무하는 조서를 보냈다”라고 되어 있다. 이 부분의 서술에 의거하는 한, 원 조정과 진조 베트남 사이의 교섭은 ㉠이전에 억류되어 있던 베트남의 사신 도자기(陶子奇)의 송환, ㉡진조 베트남 측의 사신 파견, ㉢예부시랑(禮部侍郎) 이간(李衍)·병부낭중(兵部郎中) 소태등(蕭泰登) 등의 파견이라는 순서로 진행된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실제의 사신 왕래는 ㉠과 ㉢이 동시(1294. 4)에 진행되었으며, 이에 대한 답례로서 ㉡지원 32년(1295) 2월 베트남 측이 사신을 원 조정에 파견하였던 것이다. 〈안남전〉에 수록된 이 부분의 기술은 전후 사실을 뒤섞어 선후관계를 이해할 수 없게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사신 왕래의 시점에 대해서조차 착오를 범하고 있다. 지원 31년(1294)의 사신 왕래 기록은 단적인 사례이지만 이러한 서술의 모호함이나 부정확함은 여러 군데서 발견된다.

〈안남전〉의 서술 가운데 또 하나 주목되는 것은 진조 베트남의 지배자에 대한 지칭이다. 진조 베트남 측에서는 그 군주에 대해 내부적으로 황제라 칭하고 독자적인 연호도 제정하여 사용하였다. 이러한 진조의 군주에 대해 원 측에서는 ‘국왕(國王)’이라 칭하지 않고 시종 ‘세자(世子)’라 지칭하고 있다. 원조가 안남국왕으로 책봉한 존재는 진조 베트남의 실제 지배자가 아닌 다른 인물이었다. 즉 지원 18년(1281)의 진유애(陳遺愛), 그리고 지원 22년(1285)의 진익직(陳益植), 그리고 순제(順帝) 지원(至元) 원년(1335)의 진단오(陳端午) 등, 원조에서 안남국왕으로 봉한 인물들은 모두 당시 원조의 영역 안에 존재하는 사람들이었다. 이렇듯

베트남의 군주에 대해 공식적으로 세자라 칭하는 태도는 『안남지략』에서도 동일하게 발견된다. 『안남지략』에는 이들 원조에 의해 안남국왕으로 책봉한 진익직 등이 원에서 신황제가 즉위할 때라든가 원단절(元旦節) 등의 절기에 축하의 표문(表文)을 올리는 것이 기록되어 있다.

『원사』 〈안남전〉은 비록 그 서술 내용에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으나, 현재의 시점에서 원조와 진조 베트남 사이의 교섭을 체계적으로 전해주는 몇 안 되는 자료 가운데 하나이다. 특히 양국 사이 세 차례 전쟁의 경과에 대한 서술은 현존 자료 중 단연 가장 소상하다. 『대월사기전서(大越史記全書)』와 같은 베트남 측의 저술 또한 당시의 원-베트남 관계를 이해하는데 반드시 함께 검토해야만 하는 일차 자료이다. 하지만 『대월사기전서』 등은 그 내용 자체가 『원사』 등에 비해 소략하거나, 서술의 시각 또한 중국 측 자료 못지않게 자국 중심의 자세를 취하고 있다. 이러한 시각으로 말미암아 일부 사실에 대한 서술에서는 다소 과장되거나 굴절된 서술의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원사』와 베트남 측 사서의 미비점을 보완할 수 있는 자료로 흔히 이용되는 것이 『안남지략』이다. 『안남지략』 역시 다분히 원조 중심의 자세를 취하고 있으나, 기본적으로 원조와 진조 베트남 사이 교섭과 관련한 일차적 자료를 제시한다는 관점에 입각하고 있다. 이러한 관계로 『안남지략』의 내용 역시 원-베트남 관계사를 포괄적으로 기술하는 것은 아니나, 『원사』 〈안남전〉에 등장하는 양국 간 접촉과 사신 왕래 등에 대한 구체적 사실을 확인하고 점검하는 데는 때로 매우 유용한 역할을 한다.

「안남전(安南傳)」 역주

安南國，古交趾也。秦并天下，置桂林·南海·象郡。秦亡，南海尉趙佗擊併之。漢置九郡，交趾居其一。後女子微側叛，遣馬援平之，立銅柱爲漢界。唐始分嶺南爲東·西二道，置節度，立五管，安南隸焉。宋封丁部領爲交趾郡王，其子璉亦爲王。傳三世爲李公蘊所奪，卽封公蘊爲王。李氏傳八世至吳昫，陳日煚爲吳昫壻，遂有其國。

안남국(安南國)¹⁾은 옛날의 교지(交趾)이다. 진(秦)이 천하를 통일하고 [그 땅에] 계림군(桂林郡)·남해군(南海郡)·상군(象郡)을 두었다.²⁾ 진이 멸망하자 남해위(南海尉) 조타(趙佗)³⁾가 공격하여 3군을 병합하였다. 한(漢)은 9군을 설치하였는데 교지는 그 가운데 하나였

- 1) 安南國: 安南이란 지명이 최초로 사용되는 것은 唐 高宗 調露 원년(679)의 일이다. 唐은 처음에 隋制를 계승하여 베트남에 交州總管府를 두었다가, 太宗 貞觀 2년(628) 交州都督府로 승격시켰으며, 다시 679년에 安南都護府로 격상시켰다. 이후 '安南'은 베트남의 별칭이 되어 전근대의 전 시기는 물론이러니와 제2차 세계대전 말엽까지 사용되었다. 베트남의 군주에게 중국 측에서 '安南國王'이란 칭호를 수여하기 시작하는 것은 南宋 孝宗 淳熙 원년(1174)의 일이다(이에 대해서는 유인선, 2012: 156 참조).
- 2) 秦始皇 33년(전214)의 일이다. 대략적인 관할 범위는 桂林郡은 현재의 廣西省 대부분 지역, 南海郡은 현재의 廣東省 일대였다. 象郡의 위치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으나 대략 貴州省과 廣西省 경계에 걸쳐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유인선, 2012: 25).
- 3) 南海尉 趙佗(?~전137): 秦末(전 207)에 南越을 건립하는 인물. 베트남어로는 찌에우 다. 南越 창건 당시 趙佗에 대해 『史記』 卷113 「南越列傳」에서는, 河南의 眞定人으로 秦代에 南海郡 龍川縣令으로 임용되었으며, 二世 시기 南海尉 任囂의 요청으로 그 사후 직위를 계승하였다고 적고 있다. 漢 高祖 시기 정식으로 南越王에 봉해진다.

다.⁴⁾ 그 후 징측(徵側)⁵⁾이란 여인이 반란을 일으켜 마원(馬援)을 파견하여 평정하고⁶⁾ 구리 기둥[銅柱]을 세워 한의 영역임을 표시하였다.⁷⁾ 당(唐)은 처음으로 영남(嶺南)을 동·서의 2도(道)로 나누어 절도사를 설치하였으며 5관(管)⁸⁾을 두었는데 안남은 거기에 예속되었다. 송대에는 정부령(丁部領)⁹⁾이 교지군왕(交趾郡王)에 봉해졌으며 아들인 정련(丁璉)¹⁰⁾ 역시 왕이 되었다가 3대만에 이공온(李公蘊)¹¹⁾에게 찬탈되었다. [송은] 즉시 이공온을 왕으로 봉

4) 秦末(전207) 趙佗가 세운 南越은 5대 105년간 지속되다가 한 무제 元鼎 6년(전111) 武帝의 정벌을 받아 멸망하였다. 한 무제는 南越 정복 이후 그 땅에 南海·蒼梧·鬱林·合浦·交趾·九眞·日南의 7郡을 설치하였다. 이 가운데 南海·蒼梧·鬱林·合浦는 兩廣 지역에 위치하였으며, 交趾·九眞·日南은 베트남에 설치되었다. 交趾는 대략 홍 강 델타의 중앙부터 북부를, 九眞은 델타 남부인 지금의 타인 호아(Thanh Hoa) 지방을, 그리고 日南은 오늘날 중부 베트남의 북부 지역을 관할하였다. 海南島 일대에 儋耳·珠崖의 2개 군이 추가로 설치되는 것은 이듬해인 元封 원년(전110)의 일이었다. 이들 9개 군은 交趾刺史部를 구성하여 刺史가 통할하였다(유인선, 2012: 33~34).

5) 徵側: 후한 光武帝 建武 16년(후40) 漢의 지배에 대해 반란을 일으키는 여인. 베트남어로는 쯡 짝. 交趾郡 雩泠縣 雩將의 딸로서 같은 군내 朱鸞縣 雩將인 詩索에게出嫁하였다가, 詩索이 交州太守 蘇定에게 첩포되자 여동생 徵貳(베트남어로는 쯡 니)와 함께 반란을 일으켰다. 徵 자매의 반란군이 交趾 중심부를 공격하니 交州太守 蘇定은 南海로 도주하였고, 九眞·日南·合浦의蠻들이 호응하여 徵側의 세력은 65개 城에 미치게 되었다. 이후 徵側은 고향인 雩泠에 도읍을 정하고 王을 칭하였다. 徵側과 徵貳 두 자매는 훗날 베트남인들이 영웅으로 칭송하며 독립의 상징과 같이 추앙되었다.

6) 後漢 光武帝 光武 18년(43) 1월의 일이다. 徵側과 徵貳 두 자매는 생포되어 참수당하였다.

7) 『後漢書』 卷24, 「馬援傳」의 李賢 注文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晉 顧微의 「廣州記」를 인용하여, “援到交趾, 立銅柱, 爲漢之極界也”라고 적고 있다.

8) 五管: 唐 高宗 永徽 연간(650~655)에 도입되는 嶺南道 일대의 節度使 관할 지구. 이에 대해 『舊唐書』 「地理志」 4에서는, “永徽後, 以廣·桂·容·邕·安南府, 皆隸廣府都督統攝, 謂之五府節度使, 名嶺南五管”이라 적고 있다. 이로 인해 후일 五管이란 용어는 嶺南의 別稱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9) 丁部領(925~979; 재위 968~979): 丁朝의 창건자이자 초대 황제. 송 태조 乾德 원년(963) 吳權의 사후에 12使君의 할거시대가 펼쳐졌을 때, 독자 세력을 형성하여 차례차례 使君을 멸하고 開寶 원년(968)에 베트남을 통일하였다. 이후 群臣에게 추대되어 大勝明皇帝라 칭하고 연호를 太平, 국호를 大瞿越로 정하였다. 개보 6년(973)에는 宋에 조공하여 交趾郡王에 봉해졌다. 하지만 少子 項郎을 황태자로 삼으면서 왕조가 급속히 혼란에 빠져 멸망해버린다. 丁部領에 의한 통일은 여러 제도의 창시(연호·國號·官制 등)라는 면에서 획기적인 것이었고, 이러한 면을 중시하여 正史 『大越史記全書』는 그 이전을 外紀라 하고 丁朝부터 本紀를 부여하여 베트남 독립의 완성이 丁朝부터 비롯되었다고 적고 있다.

10) 丁璉(?~?): 丁部領의 맏아들로서 베트남의 통일 및 丁朝의 창건 과정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丁朝의 창건 이후 南越王에 임명되었다(967). 丁部領이 만년에 막내 아들 項郎을 총애하자 태종 태평흥국 4년(979) 項郎을 암살시켰으나 그 이듬해 杜釋에게 부친과 함께 살해되고 만다.

11) 李公蘊(974~1028; 재위 1009~1028): 李朝의 창시자이자 초대 황제인 太祖. 李朝 건립 후 수도를 종래의

하였다. 이씨는 8대 동안 전해져서 호참(昊昌)¹²에 이르렀는데, 진일경(陳日暳)¹³이 호참의 사위가 되었다가 마침내 그 나라를 차지하였다.

元憲宗三年癸丑，兀良合台從世祖平大理。世祖還，留兀良合台攻諸夷之未附者。七年丁巳十一月，兀良合台兵次交趾北，先遣二人往諭之，不返，乃遣徹徹都等各將千人，分道進兵，抵安南京北洮江上，復遣其子阿朮往爲之援，并覘其虛實。交人亦盛陳兵衛。阿朮遣軍還報，兀良合台倍道兼進，令徹徹都爲先鋒，阿朮居後爲殿。十二月，兩軍合，交人震駭，阿朮乘之，敗其水軍，虜戰艦以還。兀良合台亦破其陸路兵，又與阿朮合擊，大敗之，遂入其國。日暳竄海島。得前所遣使於獄中，以破竹束體入膚，比釋縛，一使死，因屠其城。國兵留九日，以氣候鬱熱，乃班師。復遣二使招日暳來歸。日暳還，見國都皆已殘毀，大發憤，縛二使遣還。

원(元) 헌종(憲宗)¹⁴ 3년 계축(癸丑, 1253)에 을양합태(兀良合台)¹⁵가 세조(世祖)¹⁶를

華間에서 昇龍(오늘날의 하노이)으로 옮기고 제도를 정비하여 李朝의 기초를 쌓았다. 불교를 독실하게 믿어 재위 전 시기를 통해 불교의 보호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12) 李昊昌(?~?): 재위 1211~1224: 李朝 베트남의 제8대 황제인 惠宗이다. 부친 高宗의 사후 16세의 나이로 帝位를 계승했으나 병약해서 정치를 돌볼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얼마 후에는 정신까지 이상해졌다. 국정은 太尉 潭以蒙과 황후의 일족인 陳氏가 장악하였다. 권력은 점차 陳氏가 농단하게 되어, 마침내 황후의 오빠인 陳嗣慶이 太尉로서 軍權을 쥐고 조정을 좌지우지하게 되었다. 송 徽宗 宣化 5년(1123) 陳嗣慶이 죽자 그의 형인 陳永이 잠시 정권을 장악했으나, 곧 이어 從弟인 陳守度가 등장하여 殿前指揮使로서 禁軍을 장악하고 권력을 잡았다.

13) 陳日暳(?~?): 재위 1225~1258: 陳朝 베트남의 첫 번째 황제인 太宗이다. 陳朝의 사실상 창건자인 陳守度의 堂姪로서 李朝의 마지막 황제 昭聖과 정략 결혼하였다가 陳守度의 책략에 의해 선양을 받아 陳朝를 개창하게 된다. 宣化 7년(1225) 陳朝가 세워진 이후 陳守度에 의해 황제에 옹립되었으나 재위 전 기간을 통해 모든 政事는 陳守度가 주도하였다.

14) 元 憲宗(1209~1259; 재위 1251~1259): 몽골제국의 제4대 칸인 몽케.

15) 兀良合台(1201~1278): 몽골제국의 무장으로서 칭기즈칸 시대의 명장이었던 수베테이의 아들. 몽골어로는 우량카다이. 일찍이 구육을 따라 금 정벌에 참가하였으며 바투의 西征에도 참여하였다. 몽케 시대에는 쿠빌라이 측에 서서 그 측위에 큰 공헌을 하였다. 남송 理宗 淳祐 12년(1252)에는 쿠빌라이를 따라 서남부의 원정에 나서 大理를 멸망시켰고, 이어 주변의 소수 민족 37부를 臣屬시켰다. 이후 大元帥로서 雲南에 進駐하며 베트남 원정에 나섰다. 이종 景定 원년(1260)에는 북상하여 鄂州의 戰役에 참여하였다

따라 나서서 대리(大理)¹⁷⁾를 복속시켰다.¹⁸⁾ 세조는 돌아온 후 올양합태를 그대로 두어 여러 오랑캐 가운데 투항하지 않은 나라들을 공략하게 하였다.¹⁹⁾ 7년 정사(丁巳, 1257) 11월 올양합태는 군대를 교지의 북쪽에 주둔시킨 채 먼저 사신 2명을 [교지에] 보내 투항을 유도하였다.²⁰⁾ [하지만 사신이] 돌아오지 않자²¹⁾ 철철도(徹徹都) 등을 파견하여 각각 1,000명을 거느리고 길을 달리하여²²⁾ 진격시켰다.²³⁾ 이들이 안남 수도의 북쪽에 있는 조강(洮江)²⁴⁾에 다다

가 쿠빌라이의 북상 즉위를 도왔다.

- 16) 元 世祖(쿠빌라이, 1215~1294; 재위 1260~1294): 몽골제국의 제5대 칸으로 칭기즈칸의 손자이자 툴루이의 둘째 아들. 세조 至元 4년(1267) 수도를 上都 카라코룸에서 大都로 옮겼으며, 지원 8년(1271)에는 國號를 元이라 칭하였다.
- 17) 大理: 10세기부터 13세기까지 약 3세기에 걸쳐 존속했던 왕조로서 雲南의 대부분을 지배하였다. 그 왕족 段氏는 白蠻 계통으로서 南詔 시기에는 蒙氏에 복속하여, 대대로 軍將과 清平官(재상) 직을 세습하는 귀족의 지위를 누렸다. 남조가 멸망하고 종래의 權臣들이 차례로 국가를 건설하자 段思平은 後晋 高祖 天福 2년(937) 왕위를 탈취하여 大理國을 세우고 大理城에 도읍하였다. 이후 段思平의 자손이 14대 150여 년 동안 이어지다가 權臣 高昇泰가 왕위를 찬탈하여 大中國을 세웠다(1094~1096). 段氏의 정권은 곧 부활되어 8대 150여 년간 계속되었다. 高昇泰의 찬탈 이후를 ‘後理國’이라 부른다. 後理國은 남송 理宗 寶祐 원년(1253) 쿠빌라이가 이끄는 몽골의 대군에게 멸망당하였다.
- 18) 쿠빌라이는 大理國의 수도 大理를 점령한 다음 大理 國王이 피신한 鄯闡까지 함락시켰다. 정복 후에는 대리 국왕이 토착 수령처럼 그 왕위를 유지하도록 허락하고, 그 감시자로 중국인 劉時中을 배치하였다. 이렇게 하여 대리국의 옛 영역이었던 雲南 전역에 구왕조는 유지되었다. 하지만 雲南의 통치는 구왕조는 물론 쿠빌라이 아들 우게치·투글루크, 그리고 우게치의 아들 에센 테무르를 비롯한 칭기즈칸 일족의 왕자들에게 분할되어 위임되었다(르네 그루쎈, 1998: 409~410).
- 19) 兀良合土, 즉 우량카다이는 먼저 티베트를 공격하여 인접한 주민 상당수에게 몽골의 주도권을 인정하도록 하였다. 이어 남송 이종 보우 5년(1257) 말 눈을 남으로 돌려 安南 공격에 착수하게 된다(르네 그루쎈, 1998: 410).
- 20) 使者 파견의 목적은 宋의 영내로 진입하기 위해 베트남의 길을 빌리는 것이었다고 추정된다. 이에 대해서는 유인선, 2012: 158 및 山本達郎, 1975: 84 참조.
- 21) 陳朝 베트남은 몽골의 요구, 즉 宋 침공을 위한 假道를 거부하고 그 使者를 拘留시켰다. 아울러 陸軍과 水軍의 변경 방어를 공고히 하고 陳國峻, 일명 陳興道(전 흥 다오)의 지휘 아래 방어태세를 강화하였다(유인선, 2012: 158 및 山本達郎, 1975: 84).
- 22) 이때의 한 갈래는 紅河를 따라 동남향으로 나아가고 다른 한 갈래는 淸(송로)江 유역을 따라 진군하는 것이었다고 추정된다(山本達郎, 1975: 84~85).
- 23) 남송 이종 보우 5년(1257) 몽골의 제1차 베트남 침공의 목적은, 베트남 정복 자체가 아니라 雲南(大理國)에서 베트남을 경유하여 군대를 廣西의 邕州와 桂州로 진격시키는 데 있었다. 즉 雲南의 주둔지에서 宋과의 대회전이 전개될 鄂州로 대군을 용이하게 진군시키기 위해 그 경유지를 개척하기 위한 것이었다(山本達郎, 1975: 84).

르자, [올양합태는] 다시 아들인 아출(阿朮)²⁵⁾을 파견하여 지원하는 동시에 교지의 허실을 정탐하도록 하였다. 교지 사람들도 대거 군대를 동원하여 방어하였다. 아출이 군사를 보내 보고하자 올양합태는 신속히 군대를 이끌고 내려가, 철철도로 하여금 선봉에 서게 하고 아출은 뒤에서 진후(殿後)²⁶⁾의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였다. 12월, 올양합태와 교지가 교전을 시작하였는데 교지 사람들은 두려워하는 기색이 역력하였다.²⁷⁾ 아출은 이 기회를 이용하여 교지의 수군을 격파하고 병선(兵船)을 노획하여 돌아왔다. 올양합태도 교지의 육군을 격파하고 이어 아출과 함께 진격하여 교지에 대승을 거두고 마침내 그 나라로 진입하였다.²⁸⁾ 진일경은 바다 속의 섬으로 도망갔다.²⁹⁾ [올양합태는] 이전에 파견하였던 사신을 옥중에서 찾아냈는데,

24) 洮江: 현재의 푸토 성 省都인 비엌 쩌 인근을 흐르는 강. 홍 강·송다 강·송로 강이 합류한다.

25) 阿朮(1227~1281): 원의 명장으로서 수부테이의 손자이자 우랑카다이의 아들인 아주. 우랑카다이를 따라 대리와 교지, 남송 원정에 참가하였다. 원 세조 지원 5년(1268) 이후에는 남송 공략의 최고 결정점과 같았던 襄陽·樊城 전투를 총괄하여 승리로 이끌었다. 襄陽·樊城 함락 이후에는 伯顏[바얀]과 함께 남송 정벌전을 지휘하였다.

26) 殿後: 行軍할 때 후방을 담당하는 부대. 퇴각하는 때에는 軍陣의 선두에서 적군의 습격을 防護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도 한다.

27) 12월 12일 紅河의 北岸에서 양측의 교전이 시작되었다. 이때 陳朝 베트남 측은 紅河에 걸쳐 있는 扶鹵橋를 절단하며 저항하였다. 하지만 몽골군이 이튿날 渡河에 성공함으로써 戰勢는 결정적으로 되었다(山本達郎, 1975: 85).

28) 이러한 阿朮 및 兀良哈스 부대와는 달리 선봉을 맡았던 徹徹都의 부대는 애초의 분담대로 작전을 수행하지 못하였다. 이로 인해 陳朝 베트남 군의 수뇌부를 포획하는 것이 불가능하였고, 徹徹都는 음독 자살하였다고 한다(山本達郎, 1975: 85).

29) 당시 陳日煚(陳朝 太宗)은 몽골 군대와와의 전투에 참전하고 있었지만 黎輔陳(黎秦)의 進言에 따라 하노이 부근의 瀘江口로 퇴각하였다가, 이후 홍 강을 따라 내려가 天幕江으로 들어갔다. 몽골군에게 首都가 함락된 직후 陳日煚은 昇龍(탕롱)을 탈출하여 太尉 陳日皎에게 어떻게 할지를 물었다. 이어 다시 陳守度에게 물으니, “臣의 머리가 아직 땅에 떨어지지 않았으니 폐하는 염려하지 마십시오”라고 하였다(유인선, 2012: 158 참조). 그런데 유인선(2012)은 당시 太尉 陳日皎가 太宗 陳日煚의 자문에 답하는 정황에 대해, “강물 위에다 송나라로 가라는 의미의 入宋이라는 두 글자를 써주었다”고 서술하며, 그 근거로 『大越史記全書』를 들고 있다. 하지만 『大越史記全書』의 이 대목에 대한 記述은, “帝御小舟, 就太尉日皎船問計. 日皎方靠船, 坐不能起, 惟以手指點水, 寫入宋二字於船舷. 帝問星置軍何在? 對曰, 徵不至矣”(『本紀全書』卷5, 『陳紀』1, 太宗 元豐 7년 12월)라 되어 있다. 太尉 陳日皎와의 이 문답 장면은, “太宗은 작은 배를 타고 太尉 陳日皎가 타고 있는 배로 다가가 대책을 물었다. 陳日皎는 당시 배에 기대고 앉아 있어 일어설 수 없는 상태였다. 그래서 다만 손가락으로 물을 찍어 배전에다가 入宋이란 두 글자를 적었다. 太宗은 ‘星置軍은 어디 있소?’라고 물었다. 이에 진일교는, ‘소집했지만 오지 않았습니’라고 대답하였다”라고 해석되어야 한다. 한편 몽골 군대가 수도인 大羅城(昇龍, 오늘날의 하노이)에

대나무 쪽으로 신체를 옮아매는 바람에 대나무가 살갓을 파고들어, 졸라맨 대나무를 벗겨냈으나 얼마 후 사신 하나는 사망하였다. 이에 그 도시를 도륙해버렸다. 원의 병사들은 9일 동안 머물렀는데 기후가 무더워 마침내 철수하였다.³⁰⁾ 이후 다시 사신 두 사람을 보내 [진]일경으로 하여금 와서 복속하라고 하였다. [진]일경은 돌아가서 수도가 모두 황폐화된 것을 보고 대단히 화가 나서 두 사자를 포박한 채 되돌려보냈다.

八年戊午二月，日昃傳國于長子光昺，改元紹隆。夏，光昺遣其壻與其國人以方物來見，兀良合台送詣行在所，別遣訥刺丁往諭之曰：「昔吾遣使通好，爾等執而不返，我是以有去年之師。以爾國主播在草野，復令二使招安還國，爾又縛還吾使。今特遣使開諭，如爾等矢心內附，則國主親來，若猶不悛，明以報我。」光昺曰：「小國誠心事上，則大國何以待之？」訥刺丁還報。時諸王花鎮雲南，兀良合台言于王，復遣訥刺丁往諭，使遣使偕來。光昺遂納款，且曰：「俟降德音，即遣子弟爲質。」王命訥刺丁乘傳入奏。

[헌종] 8년 무오(戊午, 1258) 2월에 [진]일경은 나라를 만아들 [진]광병(陳光昺)³¹⁾에게 물려주고 소용(紹隆)이라 개원하였다.³²⁾ 여름에는 [진]광병이 사위 및 다른 사람을 파견하여

진입하고 난 후 본문의 서술과 같이 陳日昃이 海島로 도망갔다는 얘기도 나돌았으나 그것은 사실인 것 같지 않다(山本達郎, 1975: 85).

30) 몽골군이 陳朝 베트남 수도인 昇龍(탕롱, 현재의 하노이)을 점령한 것은 남송 이종 보우 5년(1257) 12월 15일경이고 이로부터 9일 후인 12월 24일 철수하였다. 결국 우량카다이 주도의 제1차 베트남 침공은 보우 5년(1257) 11월과 12월에 걸쳐 전개되었던 셈이다. 몽골 군대가 철수할 때 베트남 측은 대대적인 공격에 나서 큰 피해를 입혔다. 즉 東步頭(하노이 동측으로 紅河에 접해 있는 渡河口)에서 몽골군을 격파하고, 또 현재 雲南과의 접경지대에 위치한 歸化寨의 寨主 何俸도 蠻을 모아 몽골군에 타격을 가하였다. 몽골군은 후퇴하면서 약탈을 일삼았기 때문에 베트남인들은 그들을 가리켜 佛法에 어긋나는 도둑이라는 의미로 佛賊이라 불렀다고 한다(山本達郎, 1975: 86 및 유인선, 2012: 159 참조).

31) 陳光昺: 太宗이 上皇이 되어 元에 대해 사용한 이름. 元과 通好하고 服屬하면서 특별히 만들어 사용한 이름이었을 것이라 보인다(山本達郎, 1975: 86).

32) 이후 陳朝의 太宗 陳日昃은 太上皇이 되어 중요 國事가 아닌 한 일반 정무에는 간여하지 않았다. 이후 역대 황제가 생존 중에 帝位를 후계자에게 물려주고 자신을 太上皇으로 한 후 국가의 중대사에만 조언하는 관례가 생겼다. 陳朝 특유의 이 太上皇 제도는 帝位의 계승을 둘러싼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어린 황제에게 정치 훈련을 쌓게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었다. 아울러 中國에 대한 조공을 太上皇의

토산품을 바치며 [올양합태를] 만나게 하였다.³³⁾ 올양합태는 행재소³⁴⁾로 그들을 보내고, 따로 놀랄정(訥刺丁)³⁵⁾을 [안남에] 파견하여 다음과 같이 타이르게 하였다. 즉, “예전에 내가 사자를 보내 우호관계를 맺고자 했는데 너희들은 붙잡아 두고 돌려보내지 않았다. 그래서 내가 작년에 정벌의 군대를 일으켰던 것이다. 이로 인해 너희 나라의 군주는 들관으로 도망가야 하였다. [이에] 다시 두 명의 사자를 보내 초안하며 복속하라고 권유하였지만 너는 나의 사신을 포박한 채 돌려보냈다. 지금 특별히 사신을 보내 타이르노니, 너희가 진정 복속을 원한다면 나라의 군주가 친히 이리로 오도록 하여라. 만일 아직도 뉘우치지 않겠다면 분명히 나한테 알리기 바란다.” [그러자] [진]광병은, “작은 나라가 진심을 다해 윗나라를 섬기는데 대국이 어찌 이리 대하십니까?” 라고 말하였다. 놀랄정은 돌아와 보고하였다. 당시 제왕(諸王)인 불화(不花)³⁶⁾가 운남(雲南)에 주둔하고 있었다. 올양합태는 불화에게 보고하는 한편, 다시 놀랄정을 [안남에] 파견하여 타이른 다음 [안남 측의] 사신과 함께 돌아오게 하였다. [진]광병

이름으로 하지 않음으로써 중국 황제와의 대등성을 유지한다는 의도도 있었던 것으로 평가된다(유인선, 2012: 145).

33) 두 사람의 사신이란, 御史大夫이자 陳太宗 陳日昷의 사위(昭聖公主의 夫)인 黎輔陳 및 周博覽이었다. 本文에서 陳光昺의 사위가 使者로 갔다고 적고 있는 것은 잘못이다(山本達郎, 1975: 86). 이때 陳朝 베트남은 몽골에 대해 三年一貢을 약속하였다(유인선, 2012: 159).

34) 行在所: 天子가 있는 곳, 혹은 巡行中의 天子가 머무는 장소. 行在라로도 한다. 당시 憲宗 몽케는 陝西 지방에 있었다.

35) 訥刺丁(?~1292): 나스르 앓 딘. 서아시아 출신의 色目人으로 納速刺丁·耨刺丁이라고도 적는다. 쿠빌라이 시기 재상인 中書平章政事·雲南行省平章政事 등을 역임한 바 있는 賽田赤瞻思丁(사이드 아잘 부하리)의 아들이다. 일찍이 부친을 따라가 雲南諸路宣慰使都元帥를 지냈으며, 이후 몽골군·蠻軍 등을 이끌고 서남 지역의 정벌에 나서서 300餘 寨를 항복시켰다. 至元 17년(1280)에는 雲南行省 左丞에 임용되었으며, 이후 右丞과 平章政事를 역임하였다. 재임기간에 관아의 部署를 裁減하고 冗官을 삭감하였다. 또 소수민족에 대한 인질제도를 정비하여 諸部 酋長의 아들을 京師로 보내고 千戶長 및 百戶長의 아들을 雲南王의 관서 주변에 두어 인질로 삼았다. 至元 28년(1291)에는 陝西行省의 平章으로 轉任되었다.

36) 不花(?~?): 칭기즈칸의 이복동생인 벨구테이의 次子로서 몽골어 발음으로는 구운부카. 남송 理宗 紹定 3년(몽고 태종 2년, 1230) 金의 潞州와 鳳翔府를 공격하였으며, 元 태종 우구테이 4년(1232) 봄에는 白坡(오늘날의 河南省 孟縣 인근)로부터 황허를 건너 騎兵 萬騎를 이끌고 툴루이 군대와 三峰山(오늘날의 河南省 禹縣 인근)에서 회합한 다음 金의 군대를 대파하였다. 南宋 정벌전에서도 태종 7년(1235) 襄陽과 光化軍을 점령하였으며, 태종 9년(1237)에는 河南의 光州를 포위한 다음 張柔·史天澤 등에게 명하여 공격함으로써 宋의 장수 黃彝卿 등을 투항시켰다. 군사작전을 하면서 비교적 백성에게 피해를 입히지 않았기 때문에 漢族 士大夫들로부터 몽골족 賢者라 칭송되었던 것으로 유명하다.

은 마침내 복속하며,³⁷⁾ “지침을 내려주시면 즉시 자제를 인질로 보내겠습니다”라고 말하였다. 왕(不花)은 놀랄정에게 명하여 [이 사실을] 역전 체계를 통해 [중앙에] 보고하였다.³⁸⁾

世祖中統元年十二月，以孟甲爲禮部郎中，充南諭使，李文俊爲禮部員外郎，充副使，持詔往諭之。其略曰：「祖宗以武功創業，文化未修。朕繼承丕緒，鼎新革故，務一萬方。適大理國守臣安撫聶只陌丁馳駟表聞，爾邦有嚮風慕義之誠。念卿昔在先朝已嘗臣服，遠貢方物，故頒詔旨，諭爾國官僚士庶：凡衣冠典禮風俗一依本國舊制，已戒邊將不得擅興兵甲，侵爾疆場，亂爾人民。卿國官僚士庶，各宜安治如故。」復諭甲等，如交趾遣子弟入覲，當善視之，毋致寒暑失節，重勞苦之也。

세조(世祖) 중통(中統) 원년(1260) 12월 맹갑(孟甲)을 예부낭중(禮部郎中)³⁹⁾에 임명하여 남유사(南諭使)⁴⁰⁾로 삼고 이문준(李文俊)을 예부원외랑(禮部員外郎)⁴¹⁾에 임명하여 부사(副使)로 삼아, 조서를 지니고 [안남에] 가서 타이르게 하였다.⁴²⁾ 그 대략적인 내용은 다음과

37) 『大越史記全書』에서는 陳太宗 紹隆 원년(1258) 정월의 일로 기록하고 있다(「本紀全書」卷5, 「陳紀」1).

38) 陳朝 베트남이 몽골에 복속된 다음 해, 곧 몽골 憲宗 9년(1259)에 兀良合台(우량카다이)는 北上하여 宋과 몽골 사이에 벌어진 鄂州의 전투에 참여하였다. 이때 兀良合台는 아들 阿求 등과 騎兵 3,000명, 雲南 방면의 제 민족 1만 명을 이끌고, 紅河를 따라 통킹 평야 지대로 나온 다음 북상하여 諒山(랑선) 인근 지역을 통과하였다고 보여진다. 이후 그는 廣西의 邕州에서 宋의 대군을 격파하고 貴州(오늘날 廣西省 貴縣)·象州(오늘날 廣西省 象縣)·靜江府(오늘날 廣西省 桂林市)·辰州(오늘날 湖南省 沅陵縣)·沅州(오늘날 湖南省 芷江縣)·潭州(오늘날 湖南省 長沙市)를 거쳐 鄂州(오늘날 湖北省 武漢市)에 도착하였다. 그런데 이렇게 몽골 군대가 자국 영토를 경유하는데도 陳朝 베트남은 별다른 저항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山本達郎, 1975: 87).

39) 郎中: 尙書省 및 中書省의 左右司와 各部에 설치된 관원. 尙書·侍郎 등의 지휘를 받아 업무를 처리하였다. 左右司 郎中은 각 1명이며 正5品으로서 각 부서의 업무 이외에 起居注를 기술하였다. 各部의 郎中은 1명 내지 2명으로서 從5品이었다.

40) 南諭使: 南方을 諭示하기 위해 파견되는 사신이란 의미. 베트남 측의 『大越史記全書』에도 이들이 “齋書來諭”하였다고 적고 있다(「本紀全書」卷5 「陳紀」1. 太宗 紹隆 4년 6월). 이들은 世祖 쿠빌라이의 즉위 사실을 전하고 동시에 베트남의 독립을 보증해주는 성격의 사신이었던 것으로 보인다(山本達郎, 1975: 87).

41) 員外郎: 尙書省 및 中書省 소속의 左右司와 各部에 설치된 관원, 郎中의 바로 아래 직위였다. 정원은 1명 내지 2명이었으며, 左右司 員外郎은 正6品, 六部員外郎은 從6品이었다.

같다. “우리 선조들은 무공으로 나라를 일으켜 세웠기에 문화는 아직 완비되지 못하였다. 짐은 대업을 계승하여 대대적인 개혁을 단행하고 만방을 통일하고자 한다. 대리국(大理國)의 수신(守臣)인 안무(安撫) 섭지맥정(聶只陌丁)이 역마(驛馬)를 통해 상표(上表)하여 보고한 바에 따르면, 너희 나라는 의로움을 앙모하여 귀순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고 들었다. 경(卿)이 과거에 이미 신복하며 멀리서부터 토산품을 조공했던 사실⁴³⁾을 알고 있도다. 그래서 조지(詔旨)를 내려 너희 나라의 관료 및 백성에게 고하노라. 일체의 의관(衣冠)과 의례, 풍속은 모두 옛 방식을 따르도록 하라. 또한 변경의 장수에게 일러서, 함부로 전쟁을 일으킴으로써 너희 나라 영토를 침범하거나 백성을 어지럽히지 말라고 하였다. 경의 나라 관료와 백성은 각각 예전대로 살도록 하여라.”⁴⁴⁾ 또한 맹갑 등에게 일러서, 만일 교지가 자제를 과견하여 오면 잘 돌보아서 더위와 추위로 고생하지 않도록 하고 또 무거운 부담을 지워 괴롭히지 말라고 하였다.

二年，孟甲等還。光曷遣其族人通侍大夫陳奉公·員外郎諸衛寄班阮琛·員外郎阮演詣闕獻書，乞三年一貢。帝從其請，遂封光曷爲安南國王。

[중통] 2년(1261), 맹갑 등이 돌아왔다. [진]광병은 일족인 통시대부(通侍大夫) 진봉공(陳奉公)과 원외랑제위기반(員外郎諸衛寄班) 완침(阮琛),⁴⁵⁾ 그리고 원외랑(員外郎) 완연(阮演)을 보내, 대궐에 나아와 국서를 바치고 3년에 1회의 조공을 요청하였다.⁴⁶⁾ 세조는 그 청을

42) 이들이 베트남에 도착한 것은 이듬해(1261) 6월의 일이었다. 이에 대해서는 『大越史記全書』 「本紀全書」 卷5 「陳紀」 1 참조.

43) 1258년(몽골 憲宗 8년, 陳朝 太宗 元豐 8년) 陳朝 베트남이 黎輔陳 및 周博覽을 보내 몽골에 복속하고 토산품을 進貢했던 것을 가리킨다.

44) 『安南志略』 卷2 「大元詔制」 〈中統元年十二月初三日世祖聖德神功文武皇帝旨諭安南國陳日熨詔〉에 대동소이한 내용이 실려 있다. 『大越史記全書』에서는 이때 孟甲과 李文俊이 지니고 온 諭旨의 내용에 대해, “安南官僚士庶，凡衣冠禮樂風俗百事，一依其略，本國舊例，不須更改。況高麗國比遣使來，請已下詔，悉依此例。除戒雲南邊將，不得擅與兵甲侵掠疆場，撓亂人民。爾國官僚士庶，各宜安治如故”(『本紀全書』 卷5 「陳紀」 1)라 적고 있다. 베트남 측에서는 孟甲과 李文俊을 맞아 聖慈宮에서 宴會를 베풀었는데, 聖慈宮은 上皇(太宗 陳日熨)이 거주하는 궁전이었다(『大越史記全書』 「本紀全書」 卷5 「陳紀」 1).

45) 『大越史記全書』에는 ‘諸衛寄班阮琛’이라 되어 있다(『本紀全書』 卷5, 「陳紀」 1).

들어주고 [진]광병을 안남국왕(安南國王)에 봉하였다.

三年九月，以西錦三·金熟錦六賜之，復降詔曰：「卿既委質爲臣，其自中統四年爲始，每三年一貢，可選儒士·醫人及通陰陽卜筮·諸色人匠，各三人，及蘇合油·光香·金·銀·朱砂·沉香·檀香·犀角·玳瑁·珍珠·象牙·綿·白磁蓋等物同至。」仍以訥刺丁充達魯花赤，佩虎符，往來安南國中。

[중통] 3년(1262) 9월 서금(西錦)⁴⁷⁾ 3필과 금숙금(金熟錦)⁴⁸⁾ 6필을 [진광병에게] 하사하고,⁴⁹⁾ 다시 조서를 내려 이르길,⁵⁰⁾ “경은 이미 귀순하여 신하가 되었으니 중통 4년(1263)부터 시작하여 3년마다 한 차례씩 조공을 하며, 유생·의사 및 음양(陰陽)과 점복(占卜)을 두루 잘 아는 사람, 각종 수공업 장인을 각각 3인씩, 또 소합유(蘇合油)⁵¹⁾·광향(光香)⁵²⁾·금·은·주사(朱砂)⁵³⁾·침향(沉香)⁵⁴⁾·단향(檀香)⁵⁵⁾·물소뿔·대모(玳瑁)⁵⁶⁾·진주·상아·면·백자

46) 『大越史記全書』에는 ‘齋書，如元通好’라 적혀 있다(『本紀全書』卷5, 『陳紀』1). 여기서 ‘如’란 至·往의 의미이다.

47) 西錦: 西域에서 들어온 彩色 비단.

48) 金熟錦: 金色의 熟錦. 熟錦은 정밀하게 織造된 비단이다.

49) 『元史』卷208 「高麗傳」에도 世祖 中統 3년(1262) “八月，朴倫等還，賜西錦三段·間金熟綾六段”이라는 내용이 나온다.

50) 『大越史記全書』『本紀全書』卷5 「陳紀」1에는 陳奉公·阮琛·阮演 등을 통해 安南國王에게 하사한 것으로 되어 있다.

51) 蘇合油: 여러 종의 즙을 섞어 달여서 膏形化한 것. 매우 강렬한 향기를 지니고 있었다. 『東西洋考』卷1 「西洋列國考」〈交趾〉에서는 交趾의 物産으로 蘇合油를 들고, “蘇合油，圖經曰，蘇合香與真紫檀相似，而堅實極芬香，今不復見。但用如膏油者，極芬烈耳。陶隱居以爲，是獅子屎。外國說不爾。梁書云，蘇合香，是諸香汁煎之，非自然一物也。先煎其汁爲香膏，乃賣其滓與賈人”이라 적고 있다.

52) 光香: 향나무 이름. 海南이나 베트남에서 나며 箋香이라고도 한다. 『桂海虞衡志』「志香」에서는, “箋香出海南，香如蝟皮，栗蓬及漁簑狀，蓋修治時，雕鏤費工，去木留香，棘刺森然，香之精鍾於刺端，芳氣與他處箋香復別”이라 적고 있다.

53) 朱砂: 붉은 모래. 丹砂·硃砂·辰砂라고도 불린다. 方士가 煉丹하는 데 주요 원료로 쓰였으며, 顔料와 약제로도 사용되었다.

54) 沉香: 향나무 이름. 아열대 식물로서 木質이 단단하고 무겁다. 목재는 黃色이며 향기가 있다. 특히 중심부의 목재는 중요한 熏香料로 쓰인다. 또한 黑色 樹脂를 함유한 뿌리나 껍질은 가공하여 藥材로 쓰이는데

등의 물건도 함께 바치라”고 하였다. 아울러 놀랄정을 달로화적(達魯花赤)⁵⁷⁾에 임명하여 호부(虎符)⁵⁸⁾를 차고 안남국에 가도록 하였다.⁵⁹⁾

四年十一月，訥刺丁還，光弼遣楊安養充員外郎及內令武復桓·書舍阮求·中翼郎范舉等奉表入謝，帝賜來使玉帶·繪帛·藥餌·鞍轡有差。

[중통] 4년(1263) 11월 놀랄정이 돌아왔다. [진]광병은 원외랑에 임명된 양안양(楊安養)과 내령(內令) 무복환(武復桓), 서사(書舍) 완구(阮求), 중익랑(中翼郎) 범거(范舉) 등을 파견하여 표(表)를 바치며 은혜에 감사하였다. 세조는 사신들에게 옥대(玉帶)⁶⁰⁾·증백(繪帛)⁶¹⁾·약

진통 효과가 있으며 위장의 강장 기능이 있다고 알려져 있다. 伽南香·奇南香이라 일컬어지기도 한다.

55) 檀香: 향나무 이름. 목재가 매우 향기로워 여러 용기를 제작하는 용도로 쓰인다. 藥材로도 사용되며, 佛寺에서는 태워서 향을 피워 佛菩薩에게 기원하는 용도로 애용되었다. 李時珍의 『本草綱目』 「木」 1

〈檀香〉에서는, “皮實而色黃者爲黃檀, 皮潔而色白者爲白檀, 皮腐而色紫者爲紫檀. 其木并堅重清香, 而白檀尤良. 宜以紙封收, 則不洩氣”라 소개하고 있다.

56) 玳瑁: 바다거북. 황갈색의 등딱지에 검정 반점이 있고 광택이 있어 장식용이나 약재용으로 쓰인다. 瑤瑁라고도 적는다.

57) 達魯花赤: 몽골어로서 ‘다루가치라’ 발음되며 ‘鎮守者’의 의미이다. 漢字로는 宣差라 번역된다. 몽골은 각지를 정복하고 난 다음 中原과 중앙아시아·서남아시아·동유럽 등 주요 지역·도시·비몽골족 군대 등에 모두 達魯花赤을 설치하여 감독하게 하고 실권을 부여하였다. 元朝가 건립된 후에는 路·府·州·縣의 鐵事司 및 남방 소수민족 지역의 관아에도 설치되었으며. 군사와 민정을 겸하여 관할하는 安撫司에도 대부분 설치되었다. 또한 군대 중에서는 몽골군 및 몽골 탐마치군 이외 각 민족 부대의 元首府·萬戶府·千戶府에 모두 설치되어 監軍의 역할을 하였다. 이 밖에 寶鈔庫·雲糧提舉司 등 주요 官署와 대사원 및 중앙의 관아에도 설치되었다. 世祖 至元 2년(1265)의 규정에 따르면, 各路의 達魯花赤은 반드시 몽골인이나 출신 가문이 좋은 色目人이 충원되었으며, 漢人과 南人은 담당할 수 없었다.

58) 虎符: 帝王이 신하에게 兵權을 수여하거나 혹은 군대의 통수권을 부여할 때 지급하는 증빙물. 호랑이 형상을 하고 있었다. 처음에는 玉으로 만들었으나 후에 銅으로 바뀌었다. 뒤쪽에는 銘文이 있었다. 절반을 나누어 오른쪽은 중앙에 두고 왼쪽은 지방관이나 장수에게 지급하였다. 군대의 동원이나 출정시 朝廷에서 사신을 파견하여 虎符를 맞추어 본 다음 비로소 군대의 통수를 허용하였다. 주로 先秦에서 秦漢을 거쳐 唐代까지 성행하였다.

59) 『大越史記全書』 「本紀全書」 卷5 「陳紀」 1에 따르면 元 世祖 中統 3년(陳朝 聖宗 紹隆 5년, 1262) 11월, 元의 사자 馬合都 등 10인이 와서, ‘來問慶賀禮’하였다고 한다.

60) 玉帶: 玉으로 장식한 腰帶. 고위 관료나 귀부인이 사용하였다.

이(藥餌)⁶²·안비(鞍轡)⁶³를 직급에 따라 하사하였다.

至元二年七月，使還，復優詔答之，仍賜曆及頒改元詔書。

[세조] 지원(至元) 2년(1265) 7월 [안남의] 사자가 돌아가자 우대의 조서를 내렸으며, 또 역(曆)과 개원(改元)을 반포하는 조서⁶⁴를 하사하였다.

三年十二月，光曷遣楊安養上表三通，其一進獻方物，其二免所索秀才工匠人，其三願請訥刺丁長爲本國達魯花赤。四年九月，使還，答詔許之，仍賜光曷玉帶·金縵·藥餌·鞍轡等物。未幾，復下詔諭以六事：一，君長親朝；二，子弟入質；三，編民數；四，出軍役；五，輸納稅賦；六，仍置達魯花赤統治之。十一月，又詔諭光曷，以其國有回鶻商賈，欲訪以西域事，令發遣以來。是月，詔封皇子爲雲南王，往鎮大理·鄯闐·交趾諸國。

[지원] 3년(1266) 12월 [진]광병이 양안양을 파견⁶⁵하여 표(表) 3통을 올렸다. 그 첫째는 토산품을 바치는 내용이었으며, 두 번째는 [앞서] 요구하던 수재(秀才)와 수공업 장인의 징발을 면제해달라는 것, 세 번째는 놀랄정을 안남의 달로화적으로 임명해주기를 청하는 것이었다. [지원] 4년(1267) 9월 사자가 돌아갈 때 세조는 조서를 내려 [청원을] 운허하면서, [진]광병에게 옥대·금증(金縵)⁶⁶·약이·안비 등의 물건을 하사하였다.⁶⁷ 얼마 후 다시 조서를 내

61) 縵帛: 비단 제품에 대한 統稱.

62) 藥餌: 藥物.

63) 鞍轡: 안장과 고삐.

64) 至元이라 改元한 改元의 詔書 및 至元 3년의 曆을 의미한다. 陳朝의 聖宗에게 曆을 하사한다는 것은, 陳朝 베트남에게 元의 正朔을 받들라고 지시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

65) 이 진후의 사정에 대해 『大越史記全書』 「本紀全書」 卷5 「陳紀」 1에서는, “二月，元遣耨刺丁來告曰：「吾昔遣使通好，執事迷而不反，我是以有往年之師。」帝遣梁安養·武桓，如元報聘”이라 기록하였다.

66) 金縵: 황금과 비단.

67) 베트남 측 史書에서는 楊安養 등이 元 至元 4년(陳朝 紹隆 10년, 1267) 8월 베트남에 돌아온 것으로 되어 있다(『大越史記全書』 「本紀全書」 卷5, 「陳紀」 1).

려 여섯 가지 일을 요구하였다.⁶⁸⁾ 첫째 군주가 친히 입조할 것, 둘째 자제를 인질로 보낼 것, 셋째 백성의 숫자를 파악하여 [보고할] 것, 넷째 군역(軍役)을 제공할 것, 다섯째 세금을 납입할 것, 여섯째 달로화적을 설치하여 통치할 것 등이었다.⁶⁹⁾ 11월 [진]광병에게 조서를 내려서, 안남국에 회골(回鶻) 상인이 있는데 그에게 서역의 사정을 묻고자 하니 [원 조정에] 보내라고 하였다. 11월에는 또 조서를 내려 황자(皇子)를 운남왕(雲南王)에 봉하고, 대리·선천(鄯闐)⁷⁰⁾·교지(交趾) 등의 나라를 담당하여 통치하게 하였다.⁷¹⁾

五年九月，以忽籠海牙代訥刺丁爲達魯花赤，張庭珍副之，復下詔徵商賈回鶻人。

[지원] 5년(1268) 9월 놀랄정을 대신하여 흘롱해야(忽籠海牙)⁷²⁾를 달로화적으로 임명하였으며 장정진(張庭珍)⁷³⁾을 부달로화적으로 삼았다.⁷⁴⁾ 또 조서를 내려 회골 상인을 징발하

68) 世祖 至元 4년(1267) 7월의 일이었다. 이에 대해서는 『安南志略』卷2 「大元詔制」〈至元四年七月諭安南詔〉 참조.

69) 이 6개항의 요구는 陳朝 베트남에 대해 元의 직접 지배를 받는 지역과 마찬가지로 강력한 간섭과 통제를 강요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陳朝 베트남 측에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조치였고, 이 때문에 元-陳朝 베트남 관계는 한동안 이 6개항의 수용 여부를 둘러싼 절충과 공방으로 점철되기에 이른다.

70) 鄯闐: 오늘날 雲南省의 서부와 동부에 해당하는 善闐路. 南詔와 大理의 善闐府가 몽골 憲宗 5년(1255) 萬戶府로 개편되면서 범위가 축소되었다가, 至元 7년(1270) 善闐路로 개칭되었다.

71) 至元 4년(1267) 8월 쿠빌라이의 여섯째 아들 忽哥赤(후계치, 혹은 和克齊)을 雲南王으로 봉하고 大理·鄯闐·茶罕章·赤秃哥兒·金齒·交趾 등지에 대한 鎮撫를 명한 것을 가리킨다(『元史』卷6 「世祖紀」 3). 하지만 후계치는 4년 후인 至元 8년(1271) 毒殺되고, 至元 17년(1280) 그의 아들 也先帖木兒(에센티무르)가 襲封하였다.

72) 『大越史記全書』에는 1270년(陳朝 聖宗 紹隆 12년, 元 世祖 至元 6년), 籠海牙란 사신이 ‘來諭邀事’(「本紀全書」卷5 「陳紀」 1)하였다고 기록하고 있다. 다루가치로 임명된 忽籠海牙와 이때 사신으로 파견되었다는 籠海牙는 동일 인물이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73) 張庭珍(1229~1284): 北京路(오늘날 內蒙古自治區 赤峰市) 출신으로서, 우구데이 시기 北京都轉運使를 역임한 張樞의 아들이다. 몽케의 남송 정벌에 참여하여 閩州安撫使를 지냈다. 世祖 쿠빌라이의 즉위 이후에는 아립부케와의 전투에서 군량의 조달과 운송을 책임지는 역할을 하였다. 襄樊戰鬪 시기에는 行省의 郎中 및 襄陽路總管兼府尹으로 재임하였으며, 이후 平江路達魯花赤·大司農卿 등을 역임하였다. 世祖 至元 19년(1282)에는 南京路總管兼開封府尹으로서 流民 구제에 큰 공을 세웠다. 『元史』卷167에 立傳되어 있다.

였다.

六年十一月，光昺上書陳情，言：「商旅回鶻一名伊溫，死已久，一名婆婆，尋亦病死。又據忽籠海牙謂陛下須索巨象數頭。此獸軀體甚大，步行甚遲，不如上國之馬，伏候勅旨，於後貢之年當進獻也。」又具表納貢，別奉表謝賜西錦·幣帛·藥物。

[지원] 6년(1269) 11월, [진]광병은 상서하여 [다음과 같이] 사정을 아뢰었다.⁷⁵⁾ “회골의 상인 하나는 이름이 이온(伊溫)인데 죽은 지 이미 오래되었으며, 다른 하나는 이름이 파파(婆婆)인데 얼마 후 역시 병사했습니다. 또 홀롱해야의 말에 따르면 폐하께서 거대한 코끼리 몇 마리를 찾으신다 들었습니다. 이 짐승은 체구가 대단히 크고 걸음걸이도 매우 느려서 대국의 말과는 다릅니다. 칩지를 내리시면 다음에 조공할 때 바치겠습니다.” 덧붙여 표를 올려 조공 물품을 바치고, 또 서금(西錦)·폐백(幣帛)⁷⁶⁾·약물을 하사한 것에 대해 감사하는 표도 올렸다.

七年十一月，中書省移牒光昺，言其受詔不拜，待使介不以王人之禮，遂引『春秋』之義以責之，且令以所索之象與歲貢偕來，又前所貢藥物品味未佳，所徵回鶻輩，託辭欺誑，自今已往，其審察之。

[지원] 7년(1270) 11월 중서성(中書省)⁷⁷⁾에서 [진]광병에게 공문을 보내, 그가 조서를 받을

74) 元 朝廷은 至元 6년(1269) 11월 忽籠海牙 대신 副達魯花赤인 張庭珍을 朝列大夫安南國副達魯花赤으로 임명하였다. 張庭珍은 金符를 차고 大理에서 즉시 安南으로 부임하였다. 이에 대해서는 『元史』 卷167 「張庭珍傳」 참조. 그런데 『大越史記全書』 「本紀全書」 卷5 「陳紀」 1에는 張庭珍의 전임자 忽籠海牙가 1269년 12월 베트남에 도착한 것으로 되어 있다.

75) 『大越史記全書』 「本紀全書」 卷5 「陳紀」 1에는 이해(1269) 12월 元에 사신을 파견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76) 幣帛: 繒帛, 즉 비단 제품. 또는 財物 일반을 가리키는 말로도 쓰인다.

77) 中書省: 元代 최고의 중앙 행정기구. 民政을 관장하고 百官을 통솔하며 樞密院·御史臺와 함께 행정·군사·감찰의 권한을 分掌하였다. 때로 尙書省과 並設되기도 하고 또 尙書省으로 改稱되기도 하였다.

때 절하지 않으며 사신을 접대할 때 왕인(王人)의 예의를 갖추지 않음을 지적하며, 『춘추』의 대의(大義)를 들어 책망하였다.⁷⁸⁾ 또 징발했던 코끼리를 연례적인 조공과 함께 바치게 하였던 것, 앞서 바쳤던 약품의 맛이 좋지 않았던 것, 그리고 회골 상인을 징발하고자 하였던 것에 대해 핑계를 대며 거짓말을 했던 것을 지적하고, 앞으로는 신중히 처신하라고 하였다.⁷⁹⁾

八年十二月，光昺復書言：「本國欽奉天朝，已封王爵，豈非王人乎？天朝奉使復稱，王人與之均禮，恐辱朝廷。況本國前奉詔旨，命依舊俗，凡受詔令，奉安于正殿而退避別室。此本國舊典禮也。來諭索象，前恐忤旨，故依違未敢直對，實緣象奴不忍去家，難於差發。又諭索儒·醫·工匠，而陪臣黎仲它等陛見之日，咫尺威光，不聞詔諭，況中統四年已蒙原宥，今復諭及，豈勝驚愕，惟閣下其念之。」

[지원] 8년(1271) 12월 [진]광병은 답서를 보내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우리 나라는 천조(天朝)를 받들어 이미 왕작(王爵)을 받았으니⁸⁰⁾ 어찌 왕인(王人)이 아니겠습니까? 또한 천조

皇太子로 하여금 장관인 中書丞을 겸하게 하였으나 中書丞은 常置되지는 않았다. 右丞相·左丞相·平章政事·右丞·左丞·參知政事 등의 관원이 최고 직계를 구성하였다.

78) 본문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으나 至元 6년(1269) 베트남 조정에서 陳 聖宗 陳光昺과 새로 부임한 達魯花赤 張庭珍 사이에 심각한 논쟁과 알력이 있었다. 그 알력은 聖宗 陳光昺이 선 채로 元의 詔書를 받은 것에서 비롯되었다. 이후 安南王의 地位, 朝貢 문제에 대해 얘기하다가 급기야 聖宗이 화가 나서 호위 병사에게 칼을 뽑게 하여 張庭珍을 위협하는 사태까지 발생하였다. 이 전말에 대해 『元史』 卷167 「張庭珍傳」에서는, “至元六年, 安南入貢不時. 以庭珍爲朝列大夫安南國達魯噶齊, 佩金符, 由土番大理諸蠻, 至於安南. 世子光昺, 立受詔. 庭珍責之曰: 「皇帝不欲以汝土地爲郡縣, 而聽汝稱藩, 遣使喻旨, 德至厚也. 王猶與宋爲唇齒, 妄自尊大. 今百萬之師, 圍襄陽, 拔在旦夕, 席卷渡江, 則宋亡矣, 王將何恃? 且雲南之兵, 不兩月, 可至汝境, 覆汝宗祀, 有不難者, 其審謀之. 光昺惶恐, 下拜受詔. 既而語庭珍曰: 「聖天子憐我, 而使者來, 多無禮, 汝官朝列我王也. 相與抗禮, 古有之乎?」 庭珍曰: 「有之. 王人雖微序於諸侯之上.」 光昺曰: 「汝過益州, 見雲南王拜否?」 庭珍曰: 「雲南王, 天子之子, 汝蠻夷小邦, 特假以王號, 豈得比雲南王? 況天子命我爲安南之長, 位居汝上耶!」 光昺曰: 「既稱大國, 何索吾犀象?」 庭珍曰: 「貢獻方物, 藩臣職也.」 光昺無以對, 益慚憤, 使衛兵露刃, 環立以恐庭珍. 庭珍解所佩弓刀, 坦臥室中, 曰: 「聽汝何爲?」 光昺及部下皆服”이라 적고 있다.

79) 이곳의 서술과는 달리 『元史』 卷7 「世祖紀」 4에서는, “安南國王陳光昺遣使來貢, 優詔答之”라 기술되어 있다.

80) 元 世祖 中統 2년(陳朝 聖宗 紹隆 2년, 1261) 元이 陳朝 聖宗을 安南國王에 봉한 것을 가리킨다.

의 사자가 말하기를 왕인과 그들이 의례상 평등하다 하였는데, 이는 [천조의] 조정을 욕되게 하는 것이 아닌가 우려됩니다.⁸¹⁾ 하물며 우리나라는 앞서 조지(詔旨)를 받아 예전 풍속대로 하기로 되었습니다. 조령을 받을 때 정전(正殿)⁸²⁾에 봉안하였다가 별실로 옮겨두는 것은 우리나라의 오래된 관행입니다. 코끼리를 징발했던 일과 관련해서는 앞서 폐하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 두려워 머뭇거리다 감히 사실대로 고하지 못했습니다. 실은 코끼리를 혼련시키는 노비가 도저히 집을 떠나지 못한다 하여 차출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유생·의사·장인을 징발하는 일과 관련해서는, 배신(陪臣)⁸³⁾인 여중타(黎仲它)⁸⁴⁾ 등이 폐하를 뵈올 때 지적에서 위광(威光)을 접하다가 제대로 폐하의 말씀을 듣지 못하였다 합니다. 더욱이 [이 일] 중통(中統) 4년(1263)에 이미 사면을 받았습니다.⁸⁵⁾ 그런데 지금 다시 지적하니 놀랍고 두려울 따름입니다. 합하(閣下)⁸⁶⁾께서는 잘 헤아려주십시오.”

九年，以葉式捏爲安南達魯花赤，李元副之。

[지원] 9년(1272) 엽식날(葉式捏)을 안남의 달로화적으로 삼고 이원(李元)을 부달로화적으로 삼았다.⁸⁷⁾

- 81) 安南의 國王(陳朝의 聖宗)은 天子로부터 王爵을 받아 元室의 諸王 가운데 一員이 되었으니, 官員 신분인 使者와 의례상 평등할 수 없다는 논리이다.
- 82) 正殿: 궁전 혹은 사찰, 寺廟의 중앙에 위치한 중심 殿閣.
- 83) 陪臣: 신하의 신하, 重臣이라고도 한다. 安南國王은 元朝에 복속되어 藩臣이 되었으므로, 안남국의 신하는 元 天子의 陪臣이 된다.
- 84) 元 世祖 至元 7년(陳朝 聖宗 紹隆 13년, 1270) 12월 元에 파견된 黎陀와 동일 인물인 것으로 보인다. 『大越史記全書』 『本紀全書』 卷5 「陳紀」 1 참조.
- 85) 『大越史記全書』 『本紀全書』 卷5 「陳紀」 1에는 이때의 상황과 관련하여, “癸亥六年春正月, 遣殿前指揮使范巨地·陳喬如元. 元帝優詔, 許三年一貢”이라 적고 있다.
- 86) 閣下: 존귀한 사람에 대한 敬稱. 후에는 친구 사이, 혹은 대화나 통신의 상대방을 칭할 때 汎用하는 말로 사용되었다.
- 87) 『大越史記全書』 『本紀全書』 卷5 「陳紀」 1에 따르면 이해(元 世祖 至元 9년, 陳朝 聖宗 紹隆 15년, 1272) 4월 元에서 使者를 보내, 漢代 馬援이 세웠다는 銅柱의 소재지를 확인하고자 했으나 그 종적을 찾지 못하였다고 한다. 그 顛末에 대해, “夏四月, 元使兀良來諭, 問銅柱舊界. 帝命員外郎黎敬夫會勘, 言馬援所立銅柱, 歲久埋沒, 泯無蹤跡”이라 적고 있다.

十年正月，葉式捏卒，命李元代式捏，以合撒兒海牙副之。中書省復牒光昺言：「比歲奉使還者言，王每受天子詔令，但拱立不拜，與使者相見或燕席，位加於使者之上。今覽來書，自謂既受王爵豈非王人乎？考之『春秋』叙王人於諸侯之上，『釋例』云：王人蓋下士也，夫五等邦君，外臣之貴者也。下士，內臣之微者也。以微者而加貴者之上，蓋以王命爲重也。後世列王爲爵，諸侯之尤貴者，顧豈有以王爵爲人者乎？王寧不知而爲是言耶，抑辭令之臣誤爲此言耶？至於天子之詔，人臣當拜受，此古今之通義不容有異者也。乃云前奉詔旨，並依舊俗，本國遵奉而行，凡受詔令，奉安於正殿而退避別室，此舊典禮也。讀之至此，實頗驚訝。王之爲此言，其能自安於心乎？前詔旨所言，蓋謂天壤之間不啻萬國，國各有俗，驟使變革，有所不便，故聽用本俗。豈以不拜天子之詔而爲禮俗也哉？且王之教令行於國中，臣子有受而不拜者，則王以爲何如？君子貴於改過，緬想高明，其亮察之。」

[지원] 10년(1273) 정월 엽식날이 죽어 이원에게 명하여 엽식날을 대신하도록 하고 합살아해아(合撒兒海牙)를 부달로화적으로 삼았다. 중서성에서는 다시 [진]광병에게 공문을 보내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근래 [안남에] 사자로 갔다 돌아온 사람들이 말하기를, 왕께서는 천자의 조령을 받을 때마다 팔을 맞잡고 설 뿐 절하지 않는다 합니다.⁸⁸⁾ 사자들을 만날 때나 연회 자리에서도 사자보다 뒷자리에 앉는다 합니다. 지금 보내온 국서를 보건대, 스스로 말하기를 이미 왕작(王爵)을 받았으니 어찌 왕인이 아니겠느냐고 하고 있습니다. 『춘추』를 보면 왕인은 제후의 위에 있습니다. 또 『석례(釋例)』⁸⁹⁾에서는, 왕인⁹⁰⁾은 하사(下士)라 말하고 있

88) 이러한 정황과 관련하여 『元史』 卷8 「世祖紀」 5 <至元 10년 正月>에서는, “安南使者還言，陳光昺受詔不拜，中書移文責問，光昺稱，從本俗改”라 적고 있다.

89) 『釋例』: 晉 杜預의 『春秋釋例』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春秋』의 凡例를 해석한 저작이다. 原著는 오래 전에 亡失되고 『永樂大典』에 30편이 남아 있으나 脫文이 많다. 四庫全書本은 『永樂大典』에서 錄出한 것에 孔穎達의 正義와 기타 諸書에 인용된 기록을 보태어 45편으로 재편한 것으로 原著처럼 15권으로 되어 있다.

90) 王人: 여기서 말하는 ‘王人’이란 諸侯國의 君主를 의미하는 말이 아니라 西周 王室의 微官을 지칭한다. 『春秋』 <莊公 6년>조에, “六年春正月，王人子突救衛”라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해 晉의 杜預는, “王人，王之微官也。雖官卑，而見授以大事，故稱人而又稱字”라고 注를 붙이고 있다. 王人은 王命을 받드는 존재인 까닭에 후세에는 天子의 使臣을 가리키는 용어로 사용되기도 한다.

습니다.⁹¹⁾ 무릇 5등급의 방군(邦君)⁹²⁾은 외신(外臣) 가운데 존귀한 자입니다. 하사는 내신(內臣) 가운데 미천한 자입니다. 미천한 자임에도 존귀한 자의 위에 둔 것은, 왕명의 무거움을 보이는 것입니다. 후세에 작위를 받은 왕은 제후 가운데 더욱 존귀한 존재이지만, 왕작이 있다 하여 어찌 왕인이 된 것이겠습니까? 왕께서는 이를 잘 모르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이니까, 아니면 표문(表文)⁹³⁾을 작성한 신하가 잘못 알고 이렇게 말한 것입니까? 천자의 조령과 관련해서는 신하라면 당연히 절하고 받아야 합니다. 이는 고급의 통례이고 다른 것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말하기를, 앞서 조지(詔旨)를 받아 옛 풍속대로 하기로 하여 본국에서 그대로 따르는 것이며, 조령을 받을 때 정전(正殿)에 봉안하였다가 별실로 옮겨두는 것이 오래된 관행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를 읽으면 실로 머리를 흔들며 놀라게 됩니다. 왕께서는 이 말을 하고도 마음이 편안하십니까? 이전의 조지(詔旨)⁹⁴⁾에서 말한 것은, 무릇 천자 사이에 수많은 나라가 있고 나라마다 풍속이 다르니, 갑작스레 바꾸지 말고 불편한 점이 있으면 본디 풍속대로 하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어찌 천자의 조령에 절하지 않는 것을 예속(禮俗)으로 삼으라는 얘기이겠습니까? 왕의 명령이 나라 안에서 행해질 때, 신하로서 절하지 않으며 수령하는 자가 있으면⁹⁵⁾ 왕께서는 어찌하시겠습니까? 군자는 잘못을 알면 즉각 고칩니다. 멀리서 [왕의] 고명(高明)하심을 생각하며 [흠모하고] 있습니다. 잘 헤아리시기를 바랍니다.”

十一年，光昺遣童子冶·黎文隱來貢。

91) 『春秋釋例』 卷1 「會盟朝聘例」에 나온다.

92) 諸侯에게 부여된 公·侯·伯·子·男 5등급의 爵位를 가리킨다. 이 五等爵制에 대해 郭沫若은, “西周의 爵位는 모두 後人들의 想像에서 나온 것이다. 소위 公·侯·伯·子·男 5등급의 爵位는 역사적 사실이 아니다. 商과 周 모두 五等爵 制도는 존재하지 않았다”(『中國史稿』 제2편 3장 2절)라고 말하고 있다.

93) 表文: 천자에게 바치는 문서.

94) 世祖 中統 원년(1260) 孟甲과 李文俊을 南諭使와 副使로 삼아 전달했던 詔書를 가리킨다.

95) 中華書局本은 ‘臣子有受而下拜者’로 되어 있으나, 이러한 경우 전후의 맥락이 모호하므로 北監本에 의거하여 ‘臣子有受而不拜者’로 정정하였다.

[지원] 11년(1274) [진]광병이 동자야(童子治)와 여문은(黎文隱)을 보내 조공하였다.⁹⁶⁾

十二年正月，光曷上表請罷本國達魯花赤，其文曰：「微臣僻在海隅，得霑聖化與函生，驩拊鼓舞。乞念臣自降附上國，十有餘年，雖奉三年一貢，然迭遣使臣，疲於往來，未嘗一日休息。至天朝所遣達魯花赤，辱臨臣境，安能空回！况其行人，動有所恃，凌轢小國。雖天子與日月並明，安能照及覆盆？且達魯花赤可施於邊蠻小醜，豈有臣既席王封爲一方藩屏，而反立達魯花赤以監臨之，不寧見笑於諸侯之國乎？與其畏監臨而修貢，孰若中心悅服而修貢哉！臣恭遇天朝建儲·冊后，大恩霽霽，施及四海，輒敢哀鳴，伏望聖慈特賜矜恤。今後二次發遣綱貢，一詣鄴關奉納，一詣中原拜獻，凡天朝所遣官，乞易爲引進使，庶免達魯花赤之弊，不但微臣之幸，實一國蒼生之幸也。」

[지원] 12년(1275) 정월 [진]광병이 상표(上表)하여 본국의 달로화적을 폐지해달라고 청하였다. 그 문장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미천한 신은 멀리 바다 귀퉁이에 있음에도 여러 생명체와 더불어 폐하의 교화를 받을 수 있어 기뻐 춤추고 싶을 지경입니다. 삼가 생각건대 신은 대국에 항복하여 복속한 지 10여 년이 지났습니다.⁹⁷⁾ 비록 3년에 1차례 조공을 바치나 사신을 번갈아 보내며 오가는 데 힘이 들어 일찍이 단 하루도 쉴 수 없었습니다. 또 천조(天朝)가 보낸 달로화적은 신의 영역까지 힘들게 와서 어찌 빈손으로 돌아가겠습니까? 더욱이 그 수행인들도 매사에 뒷 힘을 믿고 우리나라를 능멸하고 있습니다. 비록 천자는 해와 달처럼 빛나지만 어찌 엮어진 단지[覆盆]⁹⁸⁾ 안까지 비출 수 있겠습니까? 또한 달로화적은 변경 오랑캐의 미천한 소국에도 설치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신은 이미 왕으로 봉해져 한

96) 이 무렵 상당수의 송나라 망명자가 陳朝 베트남에 歸附하고 있다. 이에 대해 『大越史記全書』 「本紀全書」 卷5 「陳紀」 1 〈聖宗 寶符 2년〉 조에서는, “先是，宋國偏居江南，元人往往侵伐。至是，以海船三十艘，裝載財物及妻子，浮海來蘿葛原。至十二月，引赴京，安置于街端坊，自號回鷄。皆我國呼宋國爲鷄國，以宋有段子藥材等物，置賣爲市故也”라고 적고 있다. 이들 송인 망명자들은 후일 몽골의 침입 때 방어전의 주요 역량 가운데 하나로 활약하게 된다.

97) 몽골 憲宗 8년(陳朝 聖宗 紹隆 원년, 1258) 陳朝 베트남이 몽골에 遣使朝貢한 것을 가리킨다.

98) 覆盆: 햇빛조차 다다를 수 없는 곳을 가리킨다. 사회의 무질서 혹은 아무 데도 하소연할 수 없는 억울한 상황을 비유하는 용어로 사용된다.

곳의 번병(藩屏)이 되었는데 달로화적을 설치하여 감독하게 하였으니, 어찌 제후국들로부터 웃음거리가 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감독이 두려워 조공을 바치는 것과 마음속으로 신복하며 조공을 바치는 것 가운데 무엇이 낫겠습니까? 신은 삼가 천조에서 태자를 책봉하고 황후를 책립한⁹⁹⁾ 다음 사해에 두터운 은혜를 내리는 것에 즈음하여, 불쌍히 여겨 성스러운 은혜를 내려주실 것을 슬피 울며 엎드려 바랍니다. 앞으로 두 차례에 걸쳐 조공 물품을 보낼 텐데, 한 차례는 선천(鄆闡)에 가서 받들어 바치고, 또 한 차례는 중원에 가서 바치겠습니다. 천조에서 파견한 관료는 인진사(引進使)¹⁰⁰⁾로 바꿈으로써 달로화적의 폐해를 없애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비단 미천한 신의 행복이 될 뿐만 아니라 실로 한 나라 창생(蒼生)의 행복이 될 것입니다.”

二月，復降詔，以所貢之物無補於用，諭以六事，且遣合撒兒海牙充達魯花赤，仍令子弟入侍。十三年二月，光曷遣黎克復·文粹入貢，以所奏就鄆闡納貢物，事屬不敬，上表謝罪，并乞免六事。

[지원 12년] 2월 다시 조령을 내려, [안남에서] 조공하는 물건이 아무런 쓸모없다고 하며 여섯 가지 일에 대해 상기시켰다. 또 합살아해아(合撒兒海牙)를 보내 달로화적으로 임명하였으며, 자제를 보내 [천자를] 모시게 하라고 명하였다.¹⁰¹⁾ [지원] 13년(1276) 2월 [진]광병은 여극복(黎克復)과 여문수(黎文粹)를 보내 조공을 바쳤다.¹⁰²⁾ 이때 앞서 상주하였던 선천에 가서 조공 물품을 바치겠다는 것이 불경스러웠으므로 상표(上表)하여 사죄하였으며, 또 여섯 가지 일을 면제해달라고 요청하였다.¹⁰³⁾

99) 世祖 至元 10년(1273) 2월 皇后와 皇太子를 冊立하고 이해 7월 受冊禮가 成了되었던 것을 가리킨다.

『元史』 卷8 「世祖紀」 5 참조.

100) 引進使: 禮物의 進奉을 주관하는 관료. 五代 시기에 처음 설치되어 宋 이후에도 계속되었다.

101) 元 世祖 至元 4년(1267) 陳朝 베트남에 제시한 여섯 가지 요구 가운데 두 번째, 즉 子弟를 元側에 人質로 보내는 것을 의미한다.

102) 이들은 元 至元 12년(陳朝 聖宗 寶符 3년, 1275) 말에 파견되어 이듬해인 지원 13년(1276) 2월 元 大都의 朝廷에 도착한 것으로 보인다. 또 이때의 사신 가운데 黎文粹는 베트남 즉 史書에는 黎粹라 기록되어 있다. 『大越史記全書』 「本紀全書」 卷5 「陳紀」 1 참조.

103) 여섯 가지 일의 면제 요청에 대해 元은, “詔安南國王陳光昞, 仍以舊制六事諭之”(『元史』 卷8 「世祖紀」

十四年，光昺卒。國人立其世子日烜，遣中侍大夫周仲彥·中亮大夫吳德邵來朝。

[지원] 14년(1277) [진]광병이 죽었다.¹⁰⁴⁾ 그 나라 사람들이 세자¹⁰⁵⁾인 [진]일훤(陳日烜)¹⁰⁶⁾을 [왕으로] 세우고, 중시대부(中侍大夫) 주중언(周仲彥)과 중량대부(中亮大夫) 오덕소(吳德邵)를 보내 조공하였다.¹⁰⁷⁾

十五年八月，遣禮部尚書柴椿·會同館使哈刺脫因·工部郎中李克忠·工部員外郎董端，同黎克復等持詔往諭日烜入朝受命。初，使傳之通也，止由鄴關·黎化往來，帝命柴椿自江陵直抵邕州，以達交趾。閏十一月，柴椿等至邕州永平寨，日烜遣人進書，謂：「今聞國公辱臨敝境，邊民無不駭愕，不知何國人使而至於斯，乞回軍舊路以進。」椿回牒云：「禮部尚書等官奉上命與本國黎克復等由江陵抵邕州入安南，所有導護軍兵，合乘

5 <世祖 至元 12년 2월>라 하여 분명하게 거절 의사를 밝히고 있다.

104) 陳朝 太宗의 崩御와 관련하여 『大越史記全書』 「本紀全書」卷5 「陳紀」1에는, “上皇占曰, 是初一日晏駕也. 前年上皇忽一日謂左右曰, 明年四月予必死, 至是果然”이라는 흥미로운 기사가 실려 있다.

105) 세자: 元朝가 陳朝 베트남의 君主를 칭하는 용어. 元朝는 시종일관 陳朝의 황제를 安南國王으로 인정하지 않고 國書 등의 공식 문서에서는 世子라 칭하였다. 오히려 元은 베트남의 실제 군주가 아닌 인물을 계속하여 安南國王으로 봉하였다. 후술하듯 지원 18년(1281) 世祖 쿠빌라이가 베트남 국내 사정을 무시하고 陳遺愛를 安南國王으로 봉한 것이라든가, 지원 22년(1285)에는 元에 항복한 陳益植을, 그리고 陳益植의 사후에는 그 아들 陳端午를 다시 安南國王에 봉하는 것 등이 그러한 사례이다.

106) 陳日烜(?~1278; 재위 1258~1278): 陳朝의 제2대 황제인 聖宗으로, 태종 陳煚(중국 사서에 등장하는 陳日煚)의 長子이다. 본명은 陳晃이었다. 그 治世 대부분 몽골과의 교섭이 주요 현안문제였다. 몽골은 제1차 침공 이후 베트남 皇帝의 親朝, 皇子의 인질, 軍役의 差出 등 강경한 요구를 거듭하였다. 聖宗은 이러한 몽골과의 교섭에 유교적 文士를 이용함으로써 조정 내 文士의 지위가 점차 높아지기에 이른다. 따라서 불교는 陳朝의 멸망 시점까지 비록 국가의 이념으로 남아 있기는 하였으나 서서히 정치적 힘을 상실해 갔다. 그 결과 陳朝 말기에 이르면 불교는 오히려 권력의 수호자인 유교에 대항하는 사회 불만세력의 온상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된다. 陳朝 聖宗의 통치기 黎文休가 역사서인 『大越史記』를 편찬하고, 또 민간의 설화를 모은 李濟川의 『越甸幽靈集』도 저술되었다.

107) 『大越史記全書』에는 周仲彥과 吳德邵의 파견 사실이 실려 있지 않다. 『安南志略』卷14 「陳氏遣使」에는 大夫 周仲彥과 吳德劬를 파견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驛馬，宜來界首遠迓。」日烜差御史中贊兼知審刑院事杜國計先至，其太尉率百官自富良江岸奉迎入館。

[지원] 15년(1278) 8월 예부상서¹⁰⁸⁾ 시춘(柴椿)· 회동관사(會同館使)¹⁰⁹⁾ 합자탈인(哈刺脫因)· 공부낭중(工部郎中) 이극충(李克忠)· 공부원의랑 동단(董端)을 파견하여, 여극복(黎克復) 등과 함께 조서를 갖고 가서 [진]일훤으로 하여금 입조하여 책명(冊命)을 받도록 타이르게 하였다.¹¹⁰⁾ 처음에 사자들의 통행은 다만 선천(鄞闡)과 여화(黎化)를 경유하여 왕래하였는데, 세조는 시춘 등에게 강릉(江陵)¹¹¹⁾에서 곧바로 옹주(邕州)¹¹²⁾로 내려가 교지에 이르라고 명하였다.¹¹³⁾ 윤 11월에 시춘 등이 옹주의 영평채(永平寨)¹¹⁴⁾에 이르자, [진]일훤은 사람을 보내 서신을 올려 말하길, “지금 국공(國公)¹¹⁵⁾께서 몸소 우리 국경에 오셨다고 들었습니다. 변경의 백성들이 모두 놀라서, 어느 나라의 사신이 여기에 왔는지 몰라 당황하고 있습니다.

108) 尙書: 각 部의 장관. 世祖 中統 원년(1260) 中書省 아래 左三部와 右三部를 설치하고 各部마다 장관으로 尙書 2명을 두었다. 至元 7년(1270)에 비로소 六部를 分置하였다. 각부에는 상서가 3명씩 있었으며 品位는 正三品이었다.

109) 會同館使: 會同館의 업무를 사실상 총괄하는 관료로 品位는 從四品. 會同館은 각지 諸族의 官員 및 外國의 使臣을 접대하고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世祖 至元 13년(1276) 會同館이 처음 개설되어 禮部에 소속되었다. 成宗 元貞 원년(1295) 이후 禮部尙書 1명이 會同館의 업무를 지휘하는 것으로 되었다.

110) 『元史』 卷10 「世祖紀」 7 <至元 15년 8월> 조에서는 이때의 사신 파견과 관련하여, “遣禮部尙書柴椿等使安南國，詔切責之，仍俾其來朝”라 적고 있다. 반면 『大越史記全書』 「本紀全書」 卷5 「陳紀」 1에는 이때의 元 使臣 파견에 대해, “元帝聞太宗崩，意欲圖我，遣禮部尙書柴椿來。時我國使黎克復回，遇元兵平宋，道由湖廣還國，椿與之偕來，托以帝不請命而自立爲辭，諭使入朝，帝不聽”이라 하고 있다.

111) 江陵: 南宋의 荊湖北路 북부에 위치, 오늘날 湖北省 江陵市.

112) 邕州: 南宋의 廣南西路의 서부에 위치한 지역으로 남으로는 安南과 접경하였으며, 북으로는 夔州路和 접하였다. 오늘날의 南寧市 및 崇左市 일대에 해당한다.

113) 종래 몽골과 베트남 사이의 왕래는 雲南을 경유하였지만, 그것을 바꾸어 廣西를 경유하는 것으로 하였다는 의미이다.

114) 永平寨: 南宋의 廣南西路 邕州의 西南端 국경지대에 위치, 베트남의 諒山(랑선)과 접경하고 있다. 오늘날 廣西省 凭祥市 서남부의 友誼關 일대.

115) 國公: 封爵, 즉 爵位의 명칭. 隋代에 시작되어 明代까지 존속하였다. 王(國王)·郡王·國公·郡公·縣公·侯·伯·子·男 등의 爵位 系列 가운데 上層에 속한다. 본문에서는 使者에 대한 美稱 내지 敬稱으로 사용되고 있다.

바라건대 발걸음을 돌려 옛길로 오십시오”라고 하였다. [시]춘이 답장을 하여 이르길, “예부상서 등의 관원이 폐하의 명을 받들고 안남국의 여극복 등과 함께 강릉에서 옹주를 거쳐 안남에 들어가려 한다. 길을 인도하고 호위하는 병사들은 모두 역마(驛馬)를 타고 국경지대로 나와 영접하도록 하라”고 하였다. [진]일훤은 어사중찬(御史中贊) 겸 지심형원사(知審刑院事) 두국계(杜國計)를 뽑아 먼저 맞도록 하고, 이어 태위(太尉)¹¹⁶⁾가 백관을 거느리고 부량강(富良江)¹¹⁷⁾ 기슭에 나와 [시]춘 등을 맞아 객관(客館)에 들어가게 하였다.

十二月二日，日烜就館見使者。四日，日烜拜讀詔書。椿等傳旨曰：「汝國內附二十餘年，向者六事猶未見從。汝若弗朝，則修爾城，整爾軍，以待我師。」又云：「爾父受命爲王，汝不請命而自立，今復不朝，異曰朝廷加罪，將何以逃其責？請熟慮之。」日烜仍舊例設宴于廊下，椿等弗就宴。旣歸館，日烜遣范明字致書謝罪，改宴于集賢殿。日烜言：「先君棄世，予初嗣位。天使之來，開諭詔書，使予喜懼交戰于胷中。竊聞宋主幼小，天子憐之，尚封公爵，於小國亦必加憐。昔諭六事，已蒙赦免。若親朝之禮，予生長深宮，不習乘騎，不諳風土，恐死於道路。子弟太尉以下亦皆然。天使回，謹上表達誠，兼獻異物。」椿曰：「宋主年未十歲，亦生長深宮，如何亦至京師？但詔旨之外，不敢聞命。且我四人實來召汝，非取物也。」椿等還。

[지원 15년] 12월 2일, [진]일훤이 객관에 와서 사자를 만났다. 4일에는 [진]일훤이 조서를 받들어 읽었다. [시]춘 등은 [황제의] 성지(聖旨)를 전하였는데 [성지에서] 말하길, “너희 나라

116) 太尉: 陳朝의 太尉는 丞相이라 불리며 ‘天下事를 총괄하는 직위에 있었다. 이에 대해서는 『大越史記全書』 「本紀全書」 卷5 「陳紀」 1 〈聖宗 紹隆 4년〉 및 〈紹隆 14년〉 참조. 이때의 太尉는 聖宗 紹隆 4년(1261) 6월 太尉에 임명된 昭明大王 陳光啓였다. 이후 陳光啓는 紹隆 14년(1271)에 相國太尉로 승진하여 仁宗 紹寶 4년(1282)까지 太尉로 재직하다가 이해 10월 上相太師가 된다(『大越史記全書』 「本紀全書」 卷5).

117) 富良江: 오늘날의 紅河, 富梁江이라고도 적는다. 中華書局本의 『元史』 「校勘記」에서는, “원문에는 富梁江으로 되어 있던 것을 清代의 道光本에 따라 고쳤다. 『元史』 卷13 및 14의 「世祖紀」 〈至元 22년 정월 임오〉조, 〈을유〉조, 〈至元 24년 12월 을유〉조, 또한 『嶺外代答』 卷2 「安南國」과 『安南志略』 卷1 「郡邑」 등에서도 모두 ‘富良江’이라 되어 있다”고 적고 있다.

는 우리에게 귀부(歸附)한 지 20여 년이 되었지만 지난번의 여섯 가지 일도 아직 따르지 않고 있다. 만일 네가 입조하지 않겠다면, 너희 성채를 보수하고 너희 군대를 정비하여 장차 우리 대군이 진군하는 것에 대비하도록 하여라"라고 하였다. 또 이르길, "너희 아버지는 책명을 받아 왕이 되었거늘 너는 책명을 칭하지 않고 스스로 왕을 칭하였다.¹¹⁸⁾ 이제 다시 입조하지 않는다면 훗날 우리 조정에서 죄를 물을 터이니 장차 어떻게 그 책임을 면할 수 있겠느냐? 잘 판단해보도록 하여라"라고 하였다.¹¹⁹⁾ [진]일훤은 그냥 옛 관례대로 복도 아래서 잔치를 열어, [시]춘 등은 잔치에 참여하지 않았다. [시]춘 등이 객관에 돌아오자 [진]일훤은 범명자(范明字)를 통해 서신을 보내 사죄하고, 집현전(集賢殿)에서 다시 잔치를 열기로 하였다. [진]일훤이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선왕이 돌아가시고 내가 막 뒤를 이었소. 천사(天使)¹²⁰⁾가 와서 조서로 깨우치는데, 내 가슴속에서는 기쁨과 두려움이 뒤엉키고 있소이다. 삼가 듣건대 송의 군주는 나이가 어리기에 천자가 불쌍히 여겨 공작(公爵)에 봉하였다 합니다.¹²¹⁾ 작은 우리나라도 반드시 불쌍히 여길 것이오. 예전에 이르신 여섯 가지 일은 이미 사면을 받았소. 친히 입조하여 예의를 갖추는 것에 관해서는, 내가 깊은 궁정에서 자라 말을 탈 줄 모르고 다른 나라의 풍토에 익숙지 않아 도중에 죽기라도 할까 두렵소이다. 일족의 자제와 태위 이하의 관료들이 모두 그렇게 생각합니다. 천사가 돌아가시는 길에 삼가 상표(上表)하여 성의를 보이겠습니다. 또 기이한 물건을 바치겠소이다." [시]춘이 말하길, "송의 군주는 나이가 채 10살이 되지 않았고 그 또한 깊은 궁정에서 자랐는데 어찌 우리 수도에 갖겠소?¹²²⁾ 조서에

118) 『安南志略』에 수록되어 있는 至元 15년(1278)의 詔諭文에는 이러한 내용이 나오지 않는다. 陳朝 安南國王의 親朝를 요구하며, “至謂地遠不克入覲, 黎克復等安能至哉?”라거나, 혹은 “向以爾父衰老, 不任跋涉, 猶云可也. 今爾年方強仕, 入朝受命, 此正其時”라 말하고 있을 뿐이다(卷2 「大元詔制」〈至元十五年八月詔諭安南世子陳〉 참조).

119) 이때 元이 陳朝 베트남에 사신을 파견하여 요구한 사항 중 가장 중요한 것은 安南國王의 親朝였다. 그러기에 『安南志略』 卷14 「陳氏遣使」에서는 이때의 사신 파견에 대해, “世祖皇帝, 命禮部尚書柴椿, 召世子入見. 以疾不行”이라고 간결히 정리하고 있다.

120) 天使: 天子의 使者.

121) 南宋의 마지막 황제 恭帝(1271~?)가 宋의 멸망 직후인 元 世祖 至元 13년(1276) 5월 瀛國公(정식 직함은 開府儀同三司檢校大司徒瀛國公)에 封해진 것을 가리킨다(『元史』 卷9 「世祖紀」 6). 南宋이 元 側에 항복을 선언하는 것은 南송 德祐 2년(1276) 정월이었으며, 당시 恭帝의 나이는 여섯 살이었다.

122) 南宋의 마지막 황제 恭帝는 南송 멸망 이후 國都 臨安을 떠나 德祐 2년(1276) 5월 元의 上都에 도착하였다(『元史』 卷9 「世祖紀」 6 참조).

있는 성지(聖旨) 이외의 일은 내 듣지 않겠소. 더욱이 우리 네 사람이 와서 그대를 부른 것은 물건을 취하고자 함이 아니요”라고 하였다. [시]춘 등은 돌아왔다.

日烜遣范明字·鄭國瓚·中贊杜國計奉表陳情，言：「孤臣稟氣軟弱，且道路艱難，徒暴白骨，致陛下哀傷而無益天朝之萬一。伏望陛下憐小國之遼遠，令臣得與鰥寡孤獨保其性命，以終事陛下。此孤臣之至幸，小國生靈之大福也。」兼貢方物及二馴象。

[진]일훤은 범명자·정국찬(鄭國贊)¹²³과 중찬(中贊) 두국계를 파견¹²⁴하여 표를 올리고 사정을 피력하여 말하였다. “소신은 본디 체질이 연약하여 노상에서 어려움을 당해 덧없이 죽기라고 할까 두렵습니다. 그렇게 되면 폐하게 슬픔을 안기고 또 천조(天朝)에도 아무런 보탬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앞드려 바라건대 폐하께서는 작은 우리나라가 아득히 멀리 있을 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리하여 신으로 하여금 환과고독(鰥寡孤獨)¹²⁵과 함께 성명(性命)을 보전하여 끝까지 폐하를 섬길 수 있게 해주십시오.¹²⁶ 이것이야말로 소신에게 지극한 행복이 될 것이요, 작은 우리나라 백성들에게도 큰 복이 될 것입니다.” 이와 함께 토산품과 두 마리 길들여진 코끼리를 바쳤다.¹²⁷

- 123) 中華書局本の『元史』「校勘記」에서는, “鄭國瓚에 대해 『安南志略』卷3 「大元奉使」와 卷14 「歷代遣使」에서는 鄭庭瓚이라 하였으며, 『大越史記』「本紀」5 「陳聖宗紀」〈戊寅6年〉조에서는 鄭廷瓚이라고 하였다. 이곳의 鄭國瓚은 鄭庭瓚이나 鄭廷瓚의 잘못된 것으로 보인다”라고 적고 있다.
- 124) 『大越史記全書』「本紀全書」卷5 「陳紀」1에서는 鄭廷瓚·杜國計를 파견하였는데 元은 이 가운데 鄭廷瓚을 拘留하고 돌려보내지 않았다고 기록하고 있다. 『安南志略』卷14 「陳氏遣使」에도, “遣其大夫鄭廷瓚·杜國計入貢，留廷瓚於京師”라 하여 유사하게 기술되어 있다.
- 125) 鰥寡孤獨: 홀아비(鰥), 과부(寡), 고아(孤), 자식 없는 늙은이(獨)의 汎稱. 노동력도 없고 의지할 데 없는 가련한 사람을 통칭하는 용어이다. 고래로 불쌍한 窮民을 가리키는 대명사와 같이 쓰였다. 그리하여 仁政을 펼칠 때라든가 窮民 수양시설을 개설할 때, 혹은 각종 구제 사업을 진행할 때 등의 경우 언제나 우선적인 고려 대상으로 여겨졌다.
- 126) 『安南志略』卷6 「表章」〈至元十五年安南世子孤臣陳〉에서는 그 구체적 내용에 대해, “陛下施仁行政，必先於鰥寡孤獨之人，至於昆蟲草木之微，各遂其性。臣獲罪於天，惟不克荷是懼。陛下政遠於周，仁深於漢，伏望陛下哀孤臣之單弱，憐小國之遼遠，令臣得與鰥寡孤獨，保其性命，以終事陛下”라고 하였다.
- 127) 코끼리의 獻上은 오랫동안 베트남 측이 거부해온 일이었다. 따라서 이를 貢納한다는 것은 元의 강경책에 대해 陳朝 베트남이 가능한 한 충돌을 피하고자 하는 의사가 담긴 표현이라고 이해된다.

十六年三月，椿等先達京師，留鄭國瓚待於邕州。樞密院奏：「以日烜不朝，但遣使臣報命，飾辭託故，延引歲時。巧佞雖多，終違詔旨，可進兵境上，遣官問罪。」帝不從，命來使入覲。十一月，留其使鄭國瓚于會同館，復遣柴椿等四人與杜國計持詔再諭日烜來朝：「若果不能自覲，則積金以待其身，兩珠以代其目。副以賢士·方技·子女·工匠各二，以代其土民。不然，修爾城池，以待其審處焉。」

[지원] 16년(1279) 3월, [시]춘 등은 먼저 경사(京師)에 도착하고 정국찬은 옹주에 머물며 기다리게 하였다. 추밀원(樞密院)¹²⁸이 [다음과 같이] 상주하였다. “[진]일훤이 입조하지 않고 다만 사신을 보내 아뢰는 것은 교묘히 언사를 수식하여 거절하며 시간을 끌자는 것입니다. 비록 번드레한 말이 많으나 결국은 조서의 성지를 어기는 것이니 군대를 국경에 진군시키고 관원을 보내 죄를 물어야 합니다.” 황제(세조)는 이를 듣지 않고 사신에게 명하여 수도로 와서 알현하도록 하였다. 11월에 그 사신 정국찬을 회동관(會同館)¹²⁹에 머물게 하였다. 그리고 다시 시춘 등 4인을 파견하여 조서를 지니고 두국계와 함께 가서, [진]일훤으로 하여금 입조하도록 다시 다음과 같이 타이르게 하였다.

“만일 끝내 직접 조근(朝覲)¹³⁰하지 못하겠다면, 많은 황금으로 그 몸을 대신하여 올리고 커다란 두 개의 구슬로 그 눈을 대신토록 하여라. 또 지식인과 예능인·어린이·기술자 각각 2명으로 그 백성을 대신토록 하여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 성벽과 해사[城池]를 보수하여 조심하며 처벌을 기다리도록 하여라.”¹³¹

128) 樞密院: 군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기구. 世祖 中統 4년(1263)에 설립되어 皇太子 眞金으로 하여금 樞密使를 겸하게 하였다. 이후 몇 차례 폐지와 재개설을 반복하였는데, 長官인 樞密使는 모두 皇太子로 하여금 兼領시켰다. 사실상 虛銜이었던 樞密使를 제외하고, 실권을 장악하는 직위로 知樞密院事·同知樞密院事·樞密院判官 등의 관직이 설치되었다.

129) 會同館: 各處 諸族의 官員 및 外國 使臣을 접대하고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官署.

130) 朝覲: 신하가 天子를 朝見하는 것.

131) 이러한 위협에도 진조의 陳日烜은 入朝하지 않고, 대신 叔父인 陳遣愛를 이듬해 元朝에 파견하였다(『元史』 卷178 『梁會傳』). 또 安南은 元 世祖 至元 16년(陳朝 仁宗 紹寶 원년, 1279) 元에 대해 두 차례 조공하고 있다. 즉 7월에는 馴象(길들인 코끼리)을, 그리고 12월에는 藥材를 貢納하였다. 이러한 1년 2회의 조공은 陳朝 太宗 시대에는 없던 것으로, 이 무렵 元의 강경한 압박을 인지하고 그것을 완화시키려 하는 노력의 일환이었을 것이라 여겨진다(山本達郎, 1975: 87).

十八年十月，立安南宣慰司，以卜顏鐵木兒爲參知政事·行宣慰使都元帥，別設僚佐有差。是月，詔以光曷旣歿，其子日烜不請命而自立，遣使往召，又以疾爲辭，止令其叔遺愛入覲，故立遺愛代爲安南國王。

[지원] 18년(1281) 10월, 안남선위사(安南宣慰司)¹³²⁾를 설치하고 복안철목아(卜顏鐵木兒)를 참지정사 겸 행선위사도원수(行宣慰使都元帥)로 삼았다. 그 밖에 휘하 관료들을 직급별로 배속시켰다.¹³³⁾ 같은 달에, [진]광명이 이미 죽고 그 아들 [진]일훤이 책명을 청하지 않고 스스로 왕이 되었다. [우리 조정에서] 사신을 파견하여 소환하였으나 병을 핑계로 거절하고, 다만 그 숙부 [진]유애(陳遺愛)로 하여금 입조하여 조근하게 하였다. 이런 까닭에 [진]유애를 대신 안남국왕으로 세우노라.'라는 조령¹³⁴⁾을 내렸다.¹³⁵⁾

二十年七月，日烜致書于平章阿里海牙，請還所留來使，帝卽遣還國。是時，阿里海牙爲荆湖占城行省平章政事，帝欲交趾助兵糧以討占城，令以己意諭之。行省遣鄂州達魯花赤趙翥以書諭日烜。十月，朝廷復遣陶秉直持璽書往諭之。十一月，趙翥抵安南。

[지원] 20년(1283) 7월 [진]일훤이 평장(平章) 아리해아(阿里海牙)¹³⁶⁾에게 서신을 보내,

132) 宣慰司: 元代에 설치된 기관으로 行省과 郡縣 사이 업무 연락을 담당하였다. 관내 郡縣을 통괄하며 軍政과 民政 업무를 수행하였다. 宣慰란 大臣이 皇帝를 대신하여 일정 지역을 관할하며 政令을 宣布하고 백성을 安撫한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安南宣慰司의 설치는 陳朝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베트남을 직접 지배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이다.

133) 北京路 다루가치인 卜顏鐵木兒를 參知政事行安南國宣慰使都元帥로 삼아 虎符를 차게 했으며, 柴椿과 鴻和爾를 副元帥로 삼았다. 이에 대해서는, 『元史』 卷11 「世祖紀」 8 〈至元 18년 10월〉조 참조.

134) 『安南志略』 卷2 「大元詔制」 〈至元十八年詔〉에 이 조령의 原文이 수록되어 있다.

135) 元朝는 元 世祖 至元 18년(陳朝 仁宗 紹寶 3년, 1281) 10월 陳朝의 上皇과 仁宗을 대신하여 새로이 安南王으로 冊封한 陳遺愛를 베트남에 귀환시키려 시도하였다. 이때 남중국 출신의 新附軍 1,000명으로 하여금 護衛시켰다(『元史』 卷11 「世祖紀」 8). 하지만 베트남 접경지역에 이르러 陳有愛가 야간에 탈출하여 먼저 陳朝 베트남으로 들어가버렸다고 한다. 이때의 정황에 대해 『安南志略』 卷3 「大元奉使」에서는, “至元十八年，加授柴椿行安南宣慰使都元帥，李振副之，領兵送遺愛就國。命布延特穆爾爲達魯花赤，至永界，國人弗納，遺愛懼，夜先逃歸”라 하고 있다.

구류되어 있는 사신을 돌려보내 달라고 청하였다.¹³⁷⁾ 황제(세조)는 즉시 [안남으로] 돌려보냈다. 이때에 아리해아는 형호(荊湖)·점성(占城) 행성(行省)¹³⁸⁾의 평장정사(平章政事)¹³⁹⁾가 되었다. 황제(세조)는 점성(占城)을 토벌할 때¹⁴⁰⁾ 교지(交趾)로부터 군대와 군량미를 공출하

136) 阿里海牙(1227~1286): 몽골어 발음으로는 아릭카야인데 阿力海涯, 혹은 阿魯海牙라고도 번역된다. 처음에 쿠빌라이의 宿衛가 되었다가 中統 3년(1262) 中書省郎中이 되었으며, 至元 원년(1264)에는 參議中書省事로 승진하였다. 至元 5년(1270)에는 阿朮(아주)과 劉整을 따라 襄樊 전투에 참여하였으며, 至元 11년(1276)에는 伯顏[바얀]·阿朮과 함께 南宋 공벌전에 출정하였다. 남송 공벌전 당시 荊南과 淮西·江西·廣西·海南 등지로 진군하며 총 58個州를 점령하였다. 至元 20년(1283)에는 荊南占城行省의 平章政事가 되었으며, 至元 23년(1286)에는 湖廣行省의 左丞相이 되었다. 후에 楚國公·江陵王에 追封되었다.

137) 이와 함께 元 世祖 至元 20년(陳朝 仁宗 紹寶 5년, 1283) 7월에 陳朝 베트남에서는 中品 黃於令과 內書家 阮章을 元에 파견하여, 太子 阿合 및 荊南占城行省의 阿里海牙와 접촉하고 있다. 이를 통해 元側이 각처에서 50만 군대를 모아 베트남에 대한 침공을 계획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한다. 이에 대해서는 『大越史記全書』 「本紀全書」 卷5 「陳紀」 1 참조.

138) 荊湖占城行省: 世祖 至元 20년(1283) 9월 荊湖行省과 占城行省을 竝合하여 설치한 지방행정 기구. 점성행성은 이에 앞서 至元 18년(1281) 10월에 설치되어, 唆都(소게투)를 右丞, 劉深을 左丞으로 하고 兵部侍郎인 也里迷失(이그미시)을 參知政事로 삼았다. 점성행성은 占城 현지에 설립된 것은 아니고 점성의 공략과 정복을 전제로 한 것이었으며 行省官 역시 정벌전에 참여할 諸將으로 구성되었다. 형호행성과 점성행성의 병합은 唆都(소게투) 중심의 점성 공벌전이 한창 진행되고 있던 시점에서 단행된 것으로, 唆都의 점성 정벌전쟁이 원활하지 않아, 형호행성의 역할을 투여하기 위한 조치였던 것으로 보인다(山本達郎, 1975: 103 참조).

139) 平章政事: 平章이라 略稱된다. 中書省과 尙書省에 두었으며 品位는 종1품으로서 부승상에 해당하였다. 승상을 보좌하며 민정과 군사를 총괄하였다. 世祖 中統 원년(1260)에 처음 설치되어 1명에서 6명으로 증원되었다가, 寧宗 至順 원년(1330) 4명으로 고정되었다. 行中書省(行省)에는 2명을 두었으며, 승상이 없을 때는 行省의 장관 역할을 하였다.

140) 占城(참과)는 오늘날의 베트남 중부에 위치한 국가로서 元朝에게는 南海 항로의 요충지였다. 世祖 쿠빌라이는 점성을 경유지로 하여 남해 일대의 諸國을 지배할 목적으로 至元 18년(1281) 占城行省을 설치하였다. 하지만 元이 占城行省의 설치로 占城 지배의 의도를 드러내고 나아가 남해 정벌에 필요한 식량까지 강요하자, 占城에서는 왕자 하리진(Harijit)을 중심으로 한 세력이 元에 반기를 들었다. 이에 元은 占城行省의 右丞 唆都를 중심으로 한 소규모 원정군을 편성하여 占城 정벌전에 나서게 된다. 唆都의 占城 원정군은 지원 19년(1282) 11월 廣東을 출발하여 지원 20년(1283) 초에는 점성의 수도 비자야를 함락시켰다. 하지만 점성 국왕이 산지로 도피하여 저항을 계속하자 元軍은 고전하게 되었다. 이에 쿠빌라이는 海路로 원병을 파견하였지만 지원 21년(1284) 3월 말경 폭풍우를 만나 커다란 타격을 받았다. 그리하여 점성 정벌전은 결국 실패로 돌아갔고, 元朝는 육로를 통한 점성 정벌을 피하여 陳朝 베트남에 대해 점성 정벌을 위한 길을 빌려달라고(假道) 요구하였다(유인선, 2002: 148~149 및 山本達

고자 하여,¹⁴¹⁾ 그 뜻을 아리해아로 하여금 교지에 전하게 하였다. 행성에서는 악주(鄂州)의 달로화적(達魯花赤) 조저(趙翥)를 보내 서신을 갖고 가서 [진]일훤을 타이르게 하였다.¹⁴²⁾ 이해 10월에 조정에서는 다시 도병직(陶秉直)을 파견하여 새서(璽書)¹⁴³⁾를 지니고 가서 타이르게 하였다. 11월, 조저는 안남에 도착하였다.

日烜尋遣中亮大夫丁克紹·中大夫阮道學等持方物從翥入覲，又遣中奉大夫范至清·朝請郎杜抱直等赴省計事，且致書于平章。言：「添軍一件：占城服事小國日久，老父惟務以德懷之，迨于孤子之身，亦繼承父志。自老父歸順天朝，三十年于茲，干戈示不復用，軍卒毀爲民丁，一資天朝貢獻，一示心無二圖，幸閣下矜察。助糧一件：小國地勢瀕海，五穀所產不多，一自大軍去後百姓流亡，加以水旱，朝飽暮饑，食不暇給。然閣下之命，所不敢違，擬於欽州界上永安州地所，俟候輸納。續諭孤子親身赴闕，面奉聖訓，老父在時，天朝矜憫，置之度外。今老父亡歿，孤子居憂，感病至今，尚未復常，況孤子生長遐陬，不耐寒暑，不習水土，艱難道塗，徒暴白骨。以小國陪臣往來，尚爲沴氣所侵，或十之五六，或死者過半，閣下亦已素知。惟望曲爲愛護，敷奏天朝，庶知孤子宗族官吏一一畏死貪生之意。豈但孤子受賜，抑一國生靈賴以安全，共祝閣下享此長久自天之大福也。」

郎, 1975, 98~106 참조).

141) 元朝는 애초부터 占城에 대해 베트남을 경유한 陸路 원정을 계획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남방의 해안에 위치한 占城의 통치기구인 占城行城을 내륙의 荊湖行城과 병합하는 것이 그러한 의도를 잘 보여준다. 元이 陳朝 베트남에 元軍의 영내 통과와 군량미 공출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그것이 관철되지 않는 것을 이유로 마침내 두 차례나 베트남 원정을 단행하는 것 역시 그러한 연장선상에 위치한 것이라 여겨진다(山本達郎, 1975: 104~105).

142) 이 무렵 元의 占城 정벌전은 난관에 봉착한 상태였다. 元朝는 최초 占城의 정복을 간단한 일로 여겨 至元 19년(1282) 11월 불과 5,000여 명의 水軍으로 편성된 원정군을 파견하였다. 하지만 수도 大州(비자야)의 함락까지는 순조로웠지만, 占城의 지속적인 저항으로 이듬해 5월에는 漢軍과 남중국에서 징발한 新附軍 1만 5,000명을 증파하였다(山本達郎, 1975: 101~104).

143) 璽書: 밀봉하고 표면에 인장(璽)을 찍은 문서. 秦代 이후에는 황제의 詔書를 가리키는 용어로 專用되었다.

[진]일훤은 즉시 중량대부(中亮大夫) 정극소(丁克紹)와 중대부(中大夫) 완도학(阮道學) 등을 파견하여, 토산품을 지니고 [조]저를 따라 입조하여 조근하게 하였다. 또 중봉대부(中奉大夫) 범지청(范至淸)과 조청랑(朝淸郎) 두포직(杜抱直) 등을 파견하여 중서성(中書省)에 가서 하소연하게 하였다. 그러면서 평장에게 서신을 올려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먼저 원군을 파견하는 일에 대해 얘기하겠습니다. 점성은 우리나라[小國, 안남]를 섬겨온 지 오래되었습니다.¹⁴⁴⁾ 그래서 제 부친은 덕으로 그들을 끌어안으려 노력하였으며, 고자(孤子)¹⁴⁵⁾인 저 역시 부친의 뜻을 계승하고자 하였습니다. [더욱이] 제 부친이 천조(天朝, 元)에 귀순한 이래 지금까지 30년 동안 병장기는 다시 사용되지 않아 군졸들은 농민이 되었습니다. [군졸을 농민화한 것은] 첫째로 천조에 대한 공납의 진헌(進獻)에 보태기 위함이고, 또 하나는 마음속에 다른 뜻이 없음을 보이기 위함입니다. 합하(閣下)께서는 불쌍히 여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군량미를 제공하는 문제입니다. 우리나라는 지세가 바다를 끼고 있어 오곡이 그다지 많이 나지 않습니다. 또 [천조의] 대군이 떠난 후 백성이 유망하고 여기에 더해 물난리와 가뭄까지 겹쳐, 아침에 배불리 먹으면 저녁에 주릴 정도로 식량에 여유가 없습니다. 하지만 합하께서 명령하시니 감히 어길 수 없어 흙주(欽州) 접경 지역의 영안주(永安州)에 두었다가 수납(輸納)을 기다리겠습니다. 또 고자(孤子)인 저한테 직접 궁궐에 와서 면대하고 폐하의 가르침을 받으라 이르셨습니다. 제 부친이 살아 있을 때는 천조에서 불쌍히 여겨 이를 거론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제 부친이 작고하여 고자(孤子)인 제가 복상(服喪)하면서 슬픔이 지금껏 가시지 않아 아직 정상적인 생활을 못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저는 멀리 궁벽진 곳에서 자라 추위와 더위를 견디지 못하고 다른 환경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험난한 여정을 견디지 못하여 노상에서 갑작스레 죽을까 걱정스럽습니다. 우리나라의 신하들이 왕래할 때도 나쁜 기운에 감염되어, 때로는 10명 중 5, 6명이 병들고 때로는 죽는 자가 반을 넘기기도 합니다. 이는 합하께서도 잘 아실 것입니다. 바라건대 굵어 살피서 천조에 잘 말씀해주십시오. 그리하여 [조정에서] 저와 우리 종족 및 관리들이 다 같이 죽음을 두려워하고 또 살아나고자 하고 있음을 알게 해주십시오.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그것이 어찌 저 혼자만 누리는 것이겠습니까? 우리나라 온 백성이 그것으로 안전해질 것입니다. [그리하면] 아울러 합하께서도 오래토

144) 占城은 前黎의 黎桓(레 호안)이 송 太平興國 7년(982) 원정군을 파견하여 수도 인드라푸라에 대해 대대적인 약탈과 파괴를 가한 이래 베트남 제 왕조에 대해 조공을 바쳤다(송정남, 2010: 92).

145) 孤子: 父母의 喪中에 있는 자. 즉 부모상에 服喪하고 있는 사람의 自稱.

록 하늘이 내리는 복을 누리게 되실 것입니다.”¹⁴⁶⁾

二十一年三月，陶秉直使還，日烜復上表陳情，又致書于荊湖占城行省，大意與前書略同。又以瓊州安撫使陳仲達聽鄭天祐言，‘交趾通謀占城，遣兵二萬及船五百以爲應援’，又致書行省。其略曰：「占城乃小國內屬，大軍致討，所當哀籲，然未嘗敢出一言，蓋天時人事小國亦知之矣。今占城遂爲叛逆，執迷不復，是所謂不能知天知人者也。知天知人，而反與不能知天知人者同謀，雖三尺兒童亦知其弗與，況小國乎？幸貴省裁之。」

[지원] 21년(1284) 3월 도병직이 사신으로 왔다가 돌아가자 [진]일훤은 다시 상표하여 하소연하고 또 형호점성행성에도 서신을 보냈다. 그 대의는 대략 이전의 서신과 동일하였다. 또한 경주(瓊州) 안무사 진중달(陳仲達)이, ‘교지가 점성과 통모하여 군대 2만 명과 전선 500척을 보내 응원하고 있다’는 청천우(鄭天祐)의 말을 들었다는 사실을 알고, 다시 행성에 서신을 보냈다. 그 대략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점성은 우리나라에 내속(內屬)한 나라입니다. [천조의] 대군이 토벌한다면 마땅히 그들을 위해 그 가련함을 호소해야 하겠지만 감히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무릇 천명과 사람 된 도리를 우리나라 역시 알기 때문입니다. 지금 점성이 마침내 반역하고도 잘못을 고치지 않고 있습니다.”¹⁴⁷⁾ 이는 이른바 하늘을 모르고 사람을

146) 陳朝 베트남에서는 元 世祖 至元 20년(陳朝 仁宗 紹寶 5년, 1283), 이렇게 元에 대해 使臣을 연달아 파견함으로써 자신들의 입장을 전달하며 또 元軍의 進軍 猶豫를 위해 노력하는 한편, 방어를 위한 준비에도 착수하였다. 이러한 정황에 대해 『大越史記全書』 「本紀全書」 卷5 「陳紀」 1에서는, “(紹寶五年) 冬十月，帝親率王侯，調水步軍習戰。進封興道王國竣爲國公，節制統領天下諸軍，使擇軍校有將才者，分統部伍”라 기술하고 있다.

147) 본문에서 占城이 元에 대해 반역하였다는 것은 元을 의식한 陳朝 베트남 측의 외교적 표현에 불과하다. 世祖 至元 18년(1281)까지 占城은 元에 대해 빈번히 사자를 보내며 稱臣하고 朝貢을 바쳤다. 그런데 至元 18년(1281)에 들어 元의 대외 정책, 특히 南海 정책이 일변하여 적극적으로 선회하며 占城의 元에 대한 태도가 변하는 것이다. 至元 18년(1281) 10월 元은 占城行省을 설치하고 占城에 대한 직접 지배의 의도를 드러냈다. 이렇게 자국의 독립을 무시하자 占城은 反元的인 자세를 보이게 된다. 이에 元은 지원 19년(1282) 11월, 暹國에 파견한 萬戶 何子志·千戶 皇甫傑, 馬八兒에 파견한 宣慰使 尤永賢·亞蘭 등의 배가 占城을 경유하다가 拿捕되었다는 것을 명분으로 점성정벌군을 파견하는 것이다(山本達郎, 1975: 97~101).

모르는 것입니다. 하늘을 알고 사람을 알면서도 도리어 하늘을 모르고 사람을 모르는 자와 함께 모의한다면, 비록 삼척동자라 할지라도 또한 그 잘못을 알 것입니다. 하물며 우리나라가 모르겠습니까? 바라건대 귀 행성에서 잘 판단해주십시오.”

八月，日烜弟昭德王陳璨致書於荊湖占城行省，自願納款歸降。十一月，行省右丞唆都言：「交趾與真臘·占城·雲南·暹·緬諸國接壤，可即其地立省。及於越里·潮州·毗蘭三道屯軍鎮戍，因其糧餉以給士卒，庶免海道轉輸之勞。」

[지원 21년] 8월 [진]일훤의 동생 소덕왕(昭德王) 진찬(陳璨)이 형호점성행성에 서신을 보내서 항복을 자원하였다.¹⁴⁸⁾ 11월, 행성의 우승(右丞)¹⁴⁹⁾인 사도(唆都)¹⁵⁰⁾가 말하길, “교지와 진랍(真臘)·점성·운남(雲南)¹⁵¹⁾·섬(暹)·면(緬) 등의 여러 나라는 [우리]와 국경을 맞대고 있어 그 땅에 성(省)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율리(越里)·조주(潮州)·비란(毗蘭)의 3도에

148) 당시(8월) 陳朝 베트남의 興道王 陳國峻은 元의 남침에 대비하여 방어태세를 정비하고 요충지에 군사를 배치하고 있다. 이러한 정황에 대해 『大越史記全書』 『本紀全書』 卷5 「陳紀」 1에서는, “秋八月，興道王調王侯諸軍，大閱於東步頭，分軍就平灘等處，屯守要衝”이라 적고 있다.

149) 右丞: 中書省과 尙書省에 부제상으로 右丞·左丞을 두어 庶務를 결재하였다. 品位는 正二品으로서 右轄·左轄이라 불렀다. 元制에서는 右를 높여, 右丞이 左丞보다 上位였다.

150) 唆都(?~1285): 몽골어 발음으로는 소계투. 처음에 쿠빌라이의 宿衛가 되었다가 中統 3년(1262) 千戶長이 되어 蔡州(현재의 河南省 汝南市)에 배치되었다. 이후 襄樊 전투에서 공을 세워 總管으로 승진하였으며, 至元 11년(1274)에는 鄂·福等處招討使가 되었다. 남송이 멸망한 후에는 參政인 董文炳과 함께 체류하며 衢州·婺州·徽州 등지의 反元 활동을 진압하였다. 至元 14년(1277)에는 福建道宣慰使로 승진하였으며 이어 參知政事·左丞 등을 역임하였다. 至元 18년(1281)에는 占城行省의 右丞이 되었고, 이듬해 군대를 이끌고 占城 원정에 나서서 木城(오늘날 꾸이 년 西岸)을 점령하고 이어 수도인 大州(비자야)를 점령하였다. 하지만 占城 國王이 山林으로 도망가 저항을 계속했기 때문에 占城에 1년여에 걸쳐 주둔하였다. 그러다 至元 21년(1284) 鎮南王의 명령에 따라 安南으로 갔다가 이듬해 퇴각할 때 安南 군대의 습격으로 전사하였다.

151) 雲南: 世祖 至元 10년(1273)에 설치된 雲南行省을 가리킨다. 雲南行省은 본디 大理國이 지배하던 지역으로서, 몽골 憲宗 3년(1253) 쿠빌라이와 우랑카다이의 정벌에 따라 大理國이 멸망하고 몽골에 복속되었다. 雲南 일대는 大理國 복속 이후에도 國王 중심의 구 지배체제가 그대로 온존되었다. 하지만 世祖 至元 8년(1271) 雲南王으로 봉해진 쿠빌라이의 친자 忽哥赤(후계치)가 반란 세력에게 독살되자, 元 조정은 그 반란을 평정한 이후 雲南行省을 건립하였다.

군대를 주둔시킬 때 그 땅의 양식으로 군대를 먹이면, 해상으로 운송하는 수고를 덜 수 있을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二十二年三月，荊湖占城行省言：「鎮南王昨奉旨統軍征占城，遣左丞唐兀解馳驛赴占城，約右丞唆都將兵會合。又遣理問官曲烈·宣使塔海薩里同安南國使阮道學等，持行省公文，責日烜運糧送至占城助軍。鎮南王路經近境，令其就見。」比官軍至衡山縣，聞日烜從兄興道王陳峻提兵界上。既而曲烈及塔海撒里引安南中亮大夫陳德鈞·朝散郎陳嗣宗以日烜書至，言其國至占城水陸非便，願隨力奉獻軍糧。及官軍至永州，日烜移牒邕州。言：「貢期擬取十月，請前塗預備丁力，若鎮南王下車之日，希文垂報。」行省命萬戶趙修已以己意復書，復移公文，令開路備糧·親迎鎮南王。

[지원] 22년(1285) 3월 형호점성행성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진남왕(鎮南王)¹⁵²이 지난번 성지(聖旨)를 받들고 군대를 통솔하여 점성을 정벌할 때의 일입니다. 좌승(左丞)¹⁵³ 당올래(唐兀解)를 보내 역전(驛傳)을 이용하여 먼저 점성에 가서, 우승 사도와 [연락하여] 군대를 거느리고 [안남에서] 만나기로 약속한 바 있습니다. 또 이문관(里問官) 곡렬(曲烈)과 선사(宣使) 탑해살리(塔海薩里)를 안남국의 사자 완도학(阮道學) 등과 함께 파견하여, 행성의 공문을 지니고 가서 [진]일훤에게 ‘우리 군대를 돕기 위해 군량을 점성으로 보내라’고 명하였습니다. 또 진남왕은 국경지대가 가까워지자 [진]일훤으로 하여금 오라고 명령하였습니다.” 관군¹⁵⁴은 형산현(衡山縣)¹⁵⁵에 이르렀을 때 [진]일훤의 종형(從兄) 흥도왕(興道王) 진준(陳

152) 鎮南王: 世祖 쿠빌라이의 11번째 아들인 토곤(?~1301)으로 바야우진 카툰의 所生이다. 漢字로는 脫歡, 혹은 托歡이라고 번역된다. 至元 21년(1284) 鎮南王에 봉해져서 鄂州(오늘날 湖北省 武漢市)에 주둔하였다. 이해 7월 大將 李恒과 함께 安南 정벌에 나섰다가 이듬해 패전하고 되돌아왔다. 至元 24년(1287) 재차 군대를 이끌고 安南을 공격하였지만 다시 패하였다. 이에 쿠빌라이가 격노하여 종신 토록 入朝를 허락하지 않았다. 至元 28년(1291) 揚州로 任地가 옮겨졌다. 死後에 아들인 老章(라우장)이 襲封하였다.

153) 雲南行省의 左丞을 의미한다.

154) 至元 19년(1282)에 시작된 元의 占城 원정이 원활하게 전개되지 않자, 육로를 통해 남하하여 占城을 공략하고자 했던 부대이다. 世祖 쿠빌라이는 唆都 등의 占城 정벌군을 지원하기 위해 至元 20년(1283) 증원군을 파견하였지만 역시 占城의 정복에 실패하자, 親子인 鎮南王 토곤을 내세워 육상 원정을

峻)¹⁵⁶)이 군대를 거느리고 국경에 와 있다는 것을 들었다. 얼마 후 곡렬과 탐해살리는 안남의 중랑대부(中亮大夫) 진덕균(陳德鈞) 및 조산랑(朝散郎) 진사종(陳嗣宗)과 함께 [진]일훤의 서신을 가지고 왔다. 그 내용은, ‘자기 나라로부터 점성에 갈 때 육지와 바다 모두 불편하므로 역량에 따라 군량을 봉헌하기를 원한다’는 것이었다. 관군이 영주(永州)¹⁵⁷)에 이르자¹⁵⁸) [진]일훤은 응주에 공문을 보내 말하기를, “[군량미의] 공납 기일은 10월로 되어 있지만 미리 백성들의 동원을 준비해두겠습니다. 진남왕이 도착하는 날짜가 되면 공문으로 통지해주시십시오”라고 하였다. 행성에서는 만호(萬戶) 조수기(趙修己)로 하여금 마음대로 답장을 하라고 명하였다. [조수기는 답장의] 공문을 보내, 도로를 개설하고 군량을 준비한 다음 친히 진남왕을 영접하라고 명하였다.

감행하였다. 元軍이 육상으로 占城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陳朝 베트남 영역의 통과가 필수적이었고, 이로 인해 元朝와 陳朝 베트남 사이에 영역 통과(假道)를 둘러싼 외교적 공방이 전개되었다. 世祖 시기 몽골의 제2차 베트남 침공은 이처럼 베트남의 정복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占城 정벌을 위한 남하 과정에서 베트남이 저지함으로써 발생하였던 것이다.

155) 衡山縣: 오늘날 湖南省 衡山縣.

156) 興道王 陳峻(?~1300): 13세기 후반 몽골의 침입을 물리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베트남의 민족 영웅인 陳興道(전 흥 다오). 본명은 陳國峻이지만 陳朝 太宗의 조카로 興道王에 봉해졌기 때문에 흔히 陳興道라 부른다. 陳朝 제3대 황제인 仁宗의 國舅이다(황후가 그의 장녀). 중국 측 사서에는 『元史』 「安南傳」뿐만 아니라 『安南志略』 卷4 「征討運餉」에서도 이처럼 陳峻이라 기록하고 있다. 몽골 헌종 7년(1257) 몽골의 제1차 침입 때 베트남의 북방을 견고히 방어하여 우랑카다이 군의 격퇴에 크게 공헌하였다. 지원 21년(1284)~지원 22년(1285)과 지원 24년(1287)~지원 25년(1288)의 두 차례에 걸친 몽골의 제2차·제3차 침입 때 그의 역할은 훨씬 더 결정적이었다. 몽골의 제2차 침입으로 수도 昇龍이 함락되고 황제까지 항복을 고려하자, 그는 「檄將士」라는 유명한 글을 써서 장수와 병졸들에게 왕조의 위급을 호소하였다. 그 결과 병사들의 사기가 크게 진작되어 몽골군을 격퇴할 수 있었다. 몽골이 세 번째 침입하자, 미리 白藤江(바익당 강, 오늘날의 紅河)에 말뚝을 박은 후 滿潮 때 몽골의 수군을 상류로 유인하였다. 그리고는 干潮 때 이들을 공격하여 대파함으로써 물러가게 하였다. 천부적인 전략가로서 정공법과 계릴라 전술을 적절히 구사하여 소수의 병력을 가지고 몽골의 대군을 물리쳤다. 전쟁이 끝난 후 그 공으로 大王에 봉해졌으며, 사후에는 興道大王으로 신격화되어 悤日에는 대대적인 제사가 행해졌다. 저서에 『兵書要略』·『萬劫宗秘傳書』 등이 있다.

157) 永州: 오늘날 湖南省 零陵縣.

158) 鎮南王 脫歡(토곤)의 군대가 永州에 이른 것은 至元 21년(1284) 10월의 일이었다(山本達郎, 1975: 107).

及官軍至邕州，安南殿前范海崖領兵屯可蘭韋大助等處。至思明州，鎮南王復令移文與之。至祿州，復聞日烜調兵拒守丘溫·丘急嶺隘路，行省遂分軍兩道以進。日烜復遣其善忠大夫阮德興·朝請郎阮文翰奉書與鎮南王。言：「不能親見末光，然中心欣幸。以往者欽蒙聖詔云‘別勅我軍不入爾境。’今見邕州營站橋梁，往往相接，實深驚懼，幸昭勿忠誠，少加矜恤。」又以書抵平章政事，乞保護本國生靈，庶免逃竄之患。鎮南王命行省遣總把阿里持書與德興同往諭日烜以興兵之故實爲占城，非爲安南也。至急保縣地，安南管軍官阮蓋屯兵七源州，又村李縣短萬劫等處，俱有興道王兵，阿里不能進。行省再命倪閔往覘虛實，斟酌調軍，然不得殺掠其民。

관군이 응주에 이르자 안남의 전전(殿前) 범해애(范海崖)가 군대를 거느리고 가란위대조(可蘭韋大助) 등지에 주둔하였다. 사명주(思明州)¹⁵⁹에 이르자 진남왕은 다시 공문을 [진일훤에게] 보내라고 명령하였다. 녹주(祿州)¹⁶⁰에 이르자,¹⁶¹ [진]일훤이 군대를 징발하여 구온령(丘溫嶺)¹⁶²·구급령(丘急嶺)¹⁶³ 등의 험준한 길목을 지키고 있다는 것이 들려왔다. 행성은 이에 군대를 나누어 두 길로 진군하였다.¹⁶⁴ [진]일훤은 다시 선충대부(善忠大夫) 완덕여(阮德興)와 조청랑(朝請郎) 완문한(阮文翰)을 파견하여 진남왕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서신

159) 思明州: 오늘날 광서성 寧明縣.

160) 祿州: 오늘날 랑선성 록빈(綠平).

161) 지원 21년(1284) 12월의 일이었다(유인선, 2012: 163). 베트남 측 史書에서는 당시 南征에 나선 鎮南王 토곤의 군대는 50만 명이라고 적고 있다(『大越史記全書』「本紀全書」卷5「陳紀」1 仁宗 紹寶 5년). 반면 이에 맞서 陳朝 베트남이 동원한 군대는 20만 명이었다(『大越史記全書』「本紀全書」卷5「陳紀」1 仁宗 紹寶 6년). 鎮南王의 정벌, 즉 몽골의 제2차 침공이라는 國難을 당하여 太上皇 太宗은, 전국의 덕망 있는 父老들을 궁궐 내 延洪 섬돌(塔)에 모아 회의를 열었다. 이들에게 저항과 항복 중 택일할 것을 묻자 모두 싸우겠다는 결의를 보였다. 이를 延洪會議라 부른다. 이후 延洪會議는 베트남 역사를 통해 外勢의 침공에 당하여 민족의 단결을 고취하는 자극제로 자주 인용된다. 延洪會議에 대해서는 『大越史記全書』「本紀全書」卷5「陳紀」1〈仁宗 紹寶 6년〉 참조.

162) 丘溫嶺: 오늘날의 랑선 시 인근.

163) 丘急嶺: 오늘날의 랑선 시의 북쪽 외곽으로서 끼공 강의 對岸에 위치한 끼 루아.

164) 東路와 西路로 兩分하였다. 東路는 록빈에서 남하하여 北江(박장)省的 북동부에 이르는 다음 록남 강을 따라 남서행하여 萬劫(반옌) 방면으로 향하는 노선이었다. 반면 西路는 록빈에서 투옹 강을 따라 서남행하는 노선이었다(山本達郎, 1975: 109).

을 바쳤다. “제가 직접 합하의 빛난 모습을 뵙지는 못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오신 것을] 매우 기뻐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따로 칙령을 내려 우리 군대가 너희 영내로 들어가지 않도록 하겠다’는 천자의 조서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지금 옹주를 보니 군용 연락망과 다리가 왕왕 이어져 있어 심히 놀라고 두렵습니다. [저희] 충성을 잘 헤아려주셔서 조금만이라도 공훈을 베풀어 주십시오.” 또한 평장정사에게 사신을 보내 자기 나라의 백성을 보호하고 또 도망하여 유랑하는 난리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하였다. 진남왕은 행성에 명하여 총파(總把) 아리(阿里)를 파견하게 하였다. 그로 하여금 [완]덕여와 함께 서신을 갖고 가서 [진]일훤에게, 군대를 일으킨 것이 실은 점성 때문이지 안남 때문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리게 하였다. 급보현(急保縣)의 땅에 이르자, 안남의 관군관(管軍官) 완록(阮鏞)이 칠원주(七源州)에 군대를 주둔시키고 있었고 또 촌리현(村李縣)과 단만겁(短萬劫) 등지에는 모두 흥도왕의 군대가 있어서, 아리는 더 나아갈 수 없었다. 행성에서는 다시 예윤(倪閏)에게 명하여 가서 그 허실을 엿보게 하고, 그 연후에 군대의 진군을 조절하도록 하였다. 하지만 그 백성들을 살해하거나 약탈하지는 못하게 하였다.

동북아역사재단

未幾，撒答兒解·李邦憲·孫祐等言：「至可離隘，遇交兵拒敵，祐與之戰，擒其管軍奉御杜尾·杜祐，始知興道王果領兵迎敵。」官軍過可離隘，至洞板隘，又遇其兵，與戰敗之，其首將秦岑中傷死。聞興道王在內傍隘，又進兵至變往村，諭其收兵開路，迎拜鎮南王，不從。至內傍隘，奉令旨令人招之，又不從。官軍遂分六道進攻，執其將大僚班段台。興道王逃去，追至萬劫，攻諸隘，皆破之。興道王尚有兵船千餘艘，距萬劫十里。遂遣兵士於沿江求船，及聚板木釘灰，置場創造，選各翼水軍，令烏馬兒拔都部領，數與戰，皆敗之。得其江岸遺棄文字二紙，乃日烜與鎮南王及行省平章書，復稱：「前詔別勅我軍不入爾境，今以占城既臣復叛之故，因發大軍，經由本國。殘害百姓，是太子所行違悞，非本國違悞也。伏望勿外前詔，勒回大軍，本國當具貢物馳獻，復有異於前者。」

얼마 후 살답아래(撒答兒解)·이방헌(李邦憲)·손우(孫祐) 등이 [다음과 같이] 상언하였다. “가리에(可離隘)에 이르러 교지의 병사가 가로막고 나서서, 손우 등이 그들과 싸웠습니다.

그 관군봉어(管軍奉御) 두미(杜尾)와 두우(杜祐) 등을 사로잡고서야, 비로소 홍도왕이 진짜로 군대를 거느리고 [관군에] 대적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송군이 가리애를 지나 동판애(洞板隘)¹⁶⁵⁾에 이르렀을 때 또 그 군대와 만났다. 이들과 싸워 패퇴시켰으며 그 지휘관인 진잠(秦岑)은 중상을 입고 죽었다. 홍도왕이 내방애(內傍隘)¹⁶⁶⁾에 있다는 것을 알고 다시 군대를 전진시켜 변왕촌(變往村)에 이르렀다. [그리고 홍도왕에게] 군대를 거두고 길을 열어 진남왕을 받들어 맞으라고 일렀지만 듣지 않았다. 송군은 드디어 여섯 갈래로 나누어 진군하면서 그 장수인 대료반(大僚班) 단태(段台)를 사로잡았다.¹⁶⁷⁾ 이에 홍도왕이 도망가 만겁(萬劫)¹⁶⁸⁾까지 쫓아가면서 여러 보루를 공격하여 모두 파괴하였다. 홍도왕은 여전히 병선(兵船) 1,000여 척을 보유하고 만겁에서 10리쯤 떨어진 곳에 있었습니다.¹⁶⁹⁾ [송군은] 병사를 보내 강 연안에서 선박을 구하고 또 한편으로 판자와 못 등을 모아 선박 제조장을 설치하여 배를 만들었다. [이렇게 선박을 확보한 다음] 각 부대에서 수군을 선발하여 오마아(烏馬兒)와 발도(拔都)로 하여금 지휘하게 하고 [홍도왕의 부대와] 여러 차례 싸워 모두 이겼다.¹⁷⁰⁾ 그 후 강기슭에 떨어뜨리고 간 편지 두 장을 입수하였는데, [진]일훤이 진남왕과 행성의 평장에게 보내는 편지였다. 그 내용은 “이전의 조칙에서는, ‘따로 칙령을 내려 우리 군대가 너희 영내로 들어가지 않도록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접성이 신복(信服)하였다가 다시 반란을 일으켰다는 이유로¹⁷¹⁾ 대군을 일으켜, 우리나라[本國]를 경유하면서 백성들에게 심대한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이는 태자께서¹⁷²⁾ 잘못하신 것이지 우리나라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165) 洞板隘: 비엔 동.

166) 內傍隘: 비엔 동의 서쪽 혹은 서남쪽에 위치한 곳.

167) 內傍隘의 전투는 지원 21년(1284) 12월의 26일에 있었다. 이 전투에서 패한 興道王은 萬劫(萬劫津)으로 후퇴하여 이곳에 각처로부터 결집한 20만의 군대를 배치하였다. 이에 대해서는 『大越史記全書』 「本紀全書」 卷5 「陳紀」 1 〈仁宗 紹寶 6년〉 참조.

168) 萬劫: 룡남 강과 투영 강의 합류 지점에서 남방 3km 정도에 있는 곳, 오늘날의 반 엔(萬安).

169) 당시 萬劫 일대에 방어선을 구축하고 있던 베트남의 興道王 군대는 끼우 강을 따라 투영 강의 합류하는 지점까지 軍陣을 펼치고 있었다(山本達郎, 1975: 109~110).

170) 萬劫의 전투는 元 世祖 至元 22년(陳朝 仁宗 紹寶 7년, 1285) 정월 6일에 벌어졌다. 『大越史記全書』 「本紀全書」 卷5 「陳紀」 1 참조.

171) 占城은 世祖 至元 15년(1278) 元에 歸附하여 國王이 占城郡王에 봉해졌으며 그 2년 후인 至元 17년(1280)에는 元에 사신을 파견하여 조공하였다(『元史』 卷210 「占城傳」). 그런데 至元 18년(1281) 元이 占城行省을 설치하여 직접 지배하려는 자세를 보이면서 反元으로 선회하였다.

172) 太子: 世祖 쿠빌라이의 親子인 鎮南王 脫歡을 높여 부르는 지칭이다.

앞드려 바라건대 이전의 조칙을 저버리지 말고 칙령을 내려 대군을 되돌려주십시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는 서둘러 조공 물품을 갖추어 바치되 이전과 훨씬 다르게 하겠습니다.”

行省復以書抵之，以爲：「朝廷調兵討占城，屢移文與世子俾開路備糧，不意故違朝命，俾興道王輩提兵迎敵，射傷我軍，與安南生靈爲禍者，爾國所行也。今大軍經爾國討占城，乃上命。世子可詳思爾國歸附已久，宜體皇帝涵洪慈憫之德，卽令退兵開道，安諭百姓，各務生理。我軍所過，秋毫無擾，世子宜出迎鎮南王，共議軍事。不然，大軍止於安南開府。」因令其使阮文翰達之。

행성에서는 다시 다음과 같은 내용의 답장을 보냈다. “조정에서는 군대를 동원하여 점성을 토벌하면서 여러 차례 문서를 보내 세자¹⁷³⁾로 하여금 길을 열고 군량을 준비하라고 하였다. 그런데 뜻밖에도 우리 조정의 명령을 일부러 어기고, 홍도왕 무리로 하여금 군대를 이끌고 대적하게 하여 우리 군대에 상해를 입혔다.¹⁷⁴⁾ 안남국의 백성에 재앙을 초래한 것은 너희 나라의 소행이다. 지금 우리의 대군이 너희 나라를 경유하여 점성을 토벌하고자 하노니 이는 천자의 명령이다. 세자는 너희 나라가 오래전부터 [우리 조정에] 귀순했던 사실을 잘 헤아리도록 하라. 또 황제께서 커다란 자비의 미덕을 지니고 있음을 잘 되돌아보아야 할 것이다. 즉시 군대를 퇴각시키고 길을 열어라. 또 백성에게 일러 각자 생업에 힘쓰도록 하라. 우리 군대가

173)世子: 陳의 太上皇 陳日烜, 즉 聖宗을 의미한다.

174) 몽골의 제2차 침입을 앞두고 陳朝 베트남에서는 議論이 紛紛하였다. 太上皇인 聖宗조차 興道王 陳國峻에게, “賊의 기세가 이러하니 항복하는 것이 좋겠소”라고 말할 정도였다. 이에 대해 興道王 陳國峻은, “먼저 臣의 머리를 벤 다음에 항복하십시오”라고 답하였다고 한다(『大越史記全書』「本紀全書」卷6 『陳紀』2 <英宗 興隆 8년 8월>). 그리고 諸家 兵法의 要諦를 간추려 『兵書要略』 한 권을 엮어 휘하의 장수들에게 읽기를 권하였다. 이것이 바로 유명한 「檄將士文」이다. 첫머리에는 宗廟社稷을 구한 충신들의 사례를 열거하였다. 이어 몽골에 꺾박당하는 현실, 일신의 안전과 안일을 위해 투쟁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려는 태도에 대한 경계, 몽골에 패했을 때 닥칠 일들, 몽골과 맞서 싸워야 하는 이유, 싸움을 준비하기 위해 필요한 일 등이 서술되어 있다. 후반부에서는 몽골에 패했을 경우 닥칠 일들이 실감나게 서술되어 있다. 俸祿이 박탈당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처자식이 포로가 되며 조상의 묘도 파헤쳐질 것이지만, 투쟁의 의지를 굳건히 하여 승리를 하게 되면 아름다운 이름이 역사에 길이 남게 될 것이라고 하였다(유인선, 2012: 164).

지나치는 곳에는 추호도 소란이 없을 것이다. 세자는 나와서 진남왕을 맞아 함께 군사 문제를 의논하도록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조정의 대군은 안남 땅에 머물며 새로운 지배 기구를 세울 것¹⁷⁵⁾이다.” 그리고 그 사자 완문한(阮文翰)으로 하여금 전달하게 하였다.

及官軍獲生口，乃稱日烜調其聖翊等軍，船千餘艘，助興道王拒戰。鎮南王遂與行省官親臨東岸，遣兵攻之，殺傷甚衆，奪船二十餘艘。興道王敗走，官軍縛筏爲橋，渡富良江北岸。日烜沿江布兵船，立木柵，見官軍至岸，卽發炮大呼求戰。至晚，又遣其阮奉御奉鎮南王及行省官書，請小却大軍。行省復移文責之，遂復進兵。日烜乃棄城遁去，仍令阮效銳奉書謝罪，并獻方物，且請班師。行省復移文招諭，遂調兵渡江，壁於安南城下。

관군이 포로를 잡아 물어보니, “[진]일훤이 성익군(聖翊軍) 등을 동원하여 배 1,000여 척으로 흥도왕의 항전을 도우라”고 하였다고 대답하였다. 진남왕은 마침내 행성의 관료와 함께 친히 강의 동쪽 기슭에 나아가 군대를 보내 공격하였다. 무수히 많은 자들을 살상하고 배 20여 척을 빼앗았다.¹⁷⁶⁾ 흥도왕은 패하여 달아났다.¹⁷⁷⁾ 관군은 뗏목을 엮어 다리를 만들고

175) 원문은 開府. 安南을 직접 지배하는 官署를 설치할 것이라는 의미이다.

176) 지원 22년(1285) 정월 12일에 있었던 전투이다. 당시 陳朝 베트남 병사들은 팔에 ‘殺韃’이란 글자를 문신하고 있었고 이를 보고 격노한 원측이 살육을 자행하였다고 한다. 이에 대해서는 『大越史記全書』 「本紀全書」 卷5 「陳紀」 1 참조.

177) 이 직후 陳朝 베트남 측에서는 元軍의 虛實을 엿보고 아울러 元側과의 交涉을 위해 祇候局首 杜克終을 파견하였다. 杜克終은 元軍의 陣營에 가서도 당당한 자세를 보여 元將 烏馬兒를 탄복시켰다고 한다. 그 顛末에 대해 『大越史記全書』 「本紀全書」 卷5 「陳紀」 1 〈陳 仁宗 紹寶 7년 정월 12일〉조에서는, “帝欲使人覘賊虛實，而未得其人。祇候局首杜克終趨進曰：「臣卑賤不才，請行。」帝善之曰：「安識鹽車有此麒麟？」遣奉書請行成。烏馬兒問曰：「國王無禮，令人墨刺殺韃字，欺侮天兵，其過大矣。」克終應曰：「家狗吠人，非其主也，忠憤之心彼自刺耳，國王不之知。我是近臣，何事獨無？」乃攘其臂示之。馬兒曰：「大軍遠來，爾國何不倒戈偕來相見？却乃拒命，螳臂當輻，將知之何？」克終曰：「賢將不蹈韓信平燕之策，駐軍界首，先達信書，如不通好，是其過也。今乃相逼，所謂獸突則搏，鳥突則啄，況於人乎？」馬兒曰：「大軍假道，以征占城，國王若來相見，則境內晏然，秋毫無犯。苟或執迷，則頃刻之間，山川將爲平地，君臣將爲腐草矣。」克終既回，馬兒謂諸將曰：「此人當威制之際，辭氣自若，不卑主爲跖，不諂我爲堯，但曰，家犬吠人。善於應對，可謂不辱君命。彼國有人，未易圖也。」使人追之，不及”이라 전하고 있다.

부랑강(富良江)을 건너 북쪽 기슭에 다다랐다. [진]일훤은 강기슭에 병선을 배치하고 목책(木柵)을 세우고 있었다. 그들은 관군이 강기슭에 이르자 즉시 대포를 쏘아대고 크게 소리를 지르며 싸움을 걸어왔다. 저녁 무렵 다시 완봉(阮奉)을 파견하여 진남왕 및 행성의 관료에게 서신을 보내, 대군을 조금 퇴각시켜 달라고 청하였다. 행성에서는 한번 더 문서를 보내 질책하고 드디어 군대를 다시 진격시켰다. [진]일훤은 성을 버리고 달아나면서 완효예(阮效銳)로 하여금 서신을 바치며 사죄하게 하였다. 동시에 토산품을 바치며 군대의 철수를 요청하였다. 행성에서는 다시 문서를 보내 타이르고 마침내 군대를 진군시켜 강을 건너 다음 안남성¹⁷⁸⁾ 아래 진을 쳤다.

明日，鎮南王入其國，宮室盡空，惟留屢降詔勅及中書牒文，盡行毀抹。外有文字，皆其南北邊將報官軍消息及拒敵事情。日烜僭稱大越國主憲天體道大明光孝皇帝陳威晃，禪位于皇太子，立太子妃爲皇后，上顯慈順天皇太后表章，於上行使「昊天成命之寶」。

이튿날 진남왕은 안남국의 도성에 진입하였다.¹⁷⁹⁾ 궁전은 모두 텅 비어 있었고, 오직 여러 차례 내려보낸 바 있는 조칙과 중서(中書)¹⁸⁰⁾의 공문만 남아 있었는데 모두 심하게 훼손되어 있는 상태였다. 그 밖에 다른 문서는 모두 남북 변경 지대의 장수들이 [우리] 관군의 소식 및 항전의 사정 등에 관해 보고한 것이었다. [진]일훤은 대월국(大越國)의 군주 헌천체도대명 광효황제(憲天體道大明光孝皇帝) 진위황(陳威晃)이라 참칭(僭稱)하며,¹⁸¹⁾ 이미 황태자에게 [황제 자리를] 물려주고 태자비를 황후로 삼고 있었다.¹⁸²⁾ 또 [황후를] 현자순천황태후(顯慈順天皇太后)¹⁸³⁾로 올리는 표장(表章)¹⁸⁴⁾에서는 그 윗면에 ‘호천성명지보(昊天成命之寶)’¹⁸⁵⁾

178) 安南城: 安南國의 都城인 昇龍.

179) 정월 14일의 일이다(山本達郎, 1975: 110).

180) 中書: 최고 政무기관인 中書省의 약칭.

181) 陳朝 聖宗의 본명은 陳晃이며, 陳日烜은 元과의 교섭에만 사용한 別名으로 보인다.

182) 陳 聖宗은 太宗의 先例에 따라 元 世祖 至元 15년(陳 寶符 6년, 1278) 10월 長子(仁宗)에게 讓位하고 上皇을 칭하였다.

183) 顯慈順天皇太后: 陳 太宗의 皇后이자 聖宗의 母后, 姓은 李氏였다. 『大越史記全書』 「本紀全書」 卷5 「陳紀」 1 〈聖宗 紹隆 元年〉 참조.

184) 表章: 上奏文 혹은 奏章을 의미한다.

라는 것을 사용하고 있었다.

日烜即居太上皇之位，見立安南國王係日烜之子，行紹寶年號。所居宮室五門，額書大興之門，左·右掖門；正殿九間書天安御殿；正南門書朝天閣。又諸處張榜云：「凡國內郡縣，假有外寇至，當死戰。或力不敵，許於山澤逃竄，不得迎降。」其險隘拒守處，俱有庫屋以貯兵甲。其棄船登岸之軍猶衆，日烜引宗族官吏於天長·長安屯聚，興道王·范殿前領兵船復聚萬劫江口，阮盞駐西路永平。

[진]일훤은 태상황의 자리에 있고 현재 세워져 있는 안남국왕은 [진]일훤의 아들로써 소보(紹寶)라는 연호를 사용하였다. 거주하는 궁전에는 5개의 문이 있는데, 문 위로 대흥지문(大興之門), 좌·우액문(左·右掖門) 등의 명칭이 쓰여 있었다. 정전(正殿)은 9칸으로 천안어전(天安御殿)이라 쓰여 있었으며 정남문(正南門)은 조천각(朝天閣)이라 쓰여 있었다. 또 이곳 저곳에 방문이 걸려 있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국내의 군현(郡縣)에 만일 바깥의 적이 침입해오면 마땅히 사력을 다해 싸워야 한다. 혹시 힘이 부족하여 적을 당해낼 수 없으면 산간이나 늪지로 도망가도록 한다. 항복해서는 안 된다.” 험준하고 협소하여 방어할 만한 곳에는 모두 창고와 집을 짓고 여러 가지 병기와 갑주를 저장하였다. 병선을 버리고 기슭으로 올라간 군대는 아직 많았다. [진]일훤은 종족과 관리를 천장(天長)¹⁸⁶과 장안(長安)¹⁸⁷에 끌어모아 웅거하고 있었고, 홍도왕과 전전(殿前) 범해애(范海崖)는 병선을 거느리고 다시 만겁강(萬劫江)¹⁸⁸ 어귀에 진치고 있었다. 또한 완록(阮盞)은 서로(西路)¹⁸⁹의 영평(永平)¹⁹⁰에 주둔하고 있었다.¹⁹¹⁾

185) 昊天成命之寶: ‘昊天的 命(天命)을 받아 성립된 왕조(昊天成命)’라는 寶璽, 즉 인장을 말한다.

186) 天長: 오늘날 南定(남딘)省의 東半部 지구. 陳朝의 선조는 원래 天長의 卽墨鄉 出身이었다. 『大越史記全書』 「本紀全書」 卷5 「陳紀」 1 참조.

187) 長安: 오늘날 寧平(닌빈)省의 동부 및 동남부 지구 甞 안.

188) 萬劫江: 오늘날의 룡남 강.

189) 西路: 元軍이 祿州에 다다른 다음 양분한 두 부대(동로군과 서로군) 가운데 西路軍.

190) 永平: 끼공 강을 사이에 두고 랑선 시와 마주 보고 있는 지역.

191) 阮盞은 북방에서 元軍의 退路를 차단하는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山本達郎, 1975: 111).

行省整軍以備追襲，而唐兀解與唆都等兵至自占城與大軍會合。自入其境，大小七戰，取地二千餘里·王宮四所。初，敗其昭明王兵，擊其昭孝王·大僚護皆死，昭明王遠遁不敢復出。又於安濱州·清化·長安獲亡宋陳尚書壻·交趾梁奉御及趙孟信·葉郎將等四百餘人。

행성에서는 군대를 정비하여 추격하였다.¹⁹²⁾ 그리고 당올래와 사도 등의 군대도 점성에서 와서 대군과 합류하였다.¹⁹³⁾ [우리 관군은] 안남의 국경에 진입한 이래 크고 작은 전투를 7차례 치러 땅 2,000여 리와 왕궁 4곳을 빼앗았다. 처음에 안남의 소명왕(昭明王) 군대를 패배시킬 때, 소효왕(昭孝王)과 대료호(大僚護)를 공격하여 모두 전사시켰다. 소명왕은 멀리 도망가 감히 다시 나오지 못하였다. 또 안연주(安濱州)·청화(清化)¹⁹⁴⁾·장안(長安)에서는 도망한 송 나라 진상서(陳尙書)¹⁹⁵⁾의 사위 및 교지의 양봉어(梁奉御)·조맹신(趙孟信)·엽랑장(葉郎將) 등 400여 명을 포로로 잡았다.¹⁹⁶⁾

192) 대략 元 世祖 至元 22년(陳朝 仁宗 紹寶 7년, 1285) 1월 말부터 2월까지의 일이다. 『安南志略』 卷4 「征討運餉」 참조.

193) 이들 군대는 늦어도 지원 22년(1285) 1월 하순까지는 陳朝 베트남의 영역 내로 들어와 전투에 참여하고 있었다. 『安南志略』 卷4 「征討運餉」 참조.

194) 清化: 오늘날의 타인 호아.

195) 陳尙書: 南宋 말년 재상을 지낸 바 있는 陳宜中을 가리킨다. 그는 理宗 寶祐 연간(1253~1258) 太學에 제학 중 黃鏞 등과 함께 上書하여 丁大全을 공박하였다. 이로써 六君子의 하나로 稱해졌다. 理宗 景定 3년(1262) 榜眼으로 과거에 급제하고, 승진을 계속하여 監察御使·禮部侍郎·中書舍人·刑部尙書 등을 역임하였다. 또 權臣 賈似道에 附庸하여 度宗 咸淳 10년(1274)에는 簽書樞密院事 겸 權參知政事가 되었다. 恭帝 德祐 元年(1275)에는 賈似道가 蕪湖에서 敗戰하자 賈似道가 이미 죽은 것으로 여기고, 上奏하여 賈似道에 대해 治罪할 것을 주장하였다. 이후 右相 겸 樞密使가 되었으나, 京師 學生들이 그 誤國의 罪가 賈似道보다 심하다고 탄핵하여 落職하였다. 元의 정벌군이 到來했을 때에는 家鄉으로 도망하였다가 陸秀夫의 호소에 따라 福建으로 갔다. 이곳의 益王 정권에서 다시 左丞相이 되었다가, 정권 붕괴 후 占城으로 도망갔다. 元 世祖 至元 19년(1282) 元軍이 占城을 공격하자 다시 暹國(타이)으로 도망가서 그곳에서 죽었다.

196) 이때 원에 투항한 인물 가운데 하나인 黎崩은 몽골인들을 위해 베트남 안내서인 『安南志略』을 저술하였다. 黎崩이 항복한 것은 지원 22년(1285) 2월 1일이었다(山本達郎, 1975: 112).

萬戶李邦憲·劉世英領軍開道自永平入安南，每三十里立一寨，六十里置一驛，每一寨一驛屯軍三百鎮安巡邏。復令世英立堡，專提督寨驛公事。

만호 이방헌(李邦憲)·유세영(劉世英)은 군대를 거느리고 영평에서 안남에 이르는 길을 개설하며, 30리마다 채(寨)를 하나씩 세우고 60리마다 역(驛)을 하나씩 두었다. 또 매 채와 역마다 군대 300명을 주둔시켜 그곳을 지키며 순찰을 돌게 하였다.¹⁹⁷⁾ 또한 유세영에게 명하여 보(堡)¹⁹⁸⁾를 세우게 하고 채와 역의 공적인 업무를 전담하여 관할하도록 하였다.

右丞寬徹引萬戶忙古解·李羅哈答兒由陸路，李左丞引烏馬兒拔都由水路，敗日烜兵船，禽其建德侯陳仲。日烜逃去，追至膠海口，不知所往。其宗族文義侯·父武道侯及子明智侯·壻彰懷侯并彰憲侯·亡宋官曾參政·蘇少保子蘇寶章·陳尚書子陳丁孫，相繼率衆來降。唐兀解·劉珪皆言占城無糧，軍難久駐。鎮南王令唆都引元軍於長安等處就糧。日烜至安邦海口，棄其舟楫甲仗，走匿山林。官軍獲船一萬艘，擇善者乘之，餘皆焚棄，復於陸路追三晝夜。

우승(右丞) 관철(寬徹)이 만호 망고래(忙古解)와 페라합답아(李羅哈答兒)를 이끌고 육로로, 그리고 이좌승(李左丞)¹⁹⁹⁾이 오마아(烏馬兒)와 발도(拔都)를 이끌고 수로로 진격하여, [진]일훤의 병선을 격파하고 건덕후(建德侯) 진중(陳仲)을 사로잡았다.²⁰⁰⁾ [진]일훤이 도망가서 교해구(膠海口)²⁰¹⁾까지 추격하였으나²⁰²⁾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없었다.²⁰³⁾ 그 종족인

197) 이러한 寨·驛의 건설은 元 내지에 설치된 驛站制(站赤)를 베트남까지 연장시킨 조치였던 것으로 보인다. 또 이 驛站은, 元軍이 南進할 때 祿州에 이르러 양분한 두 노선 가운데 西路를 따라 건설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山本達郎, 1975: 114).

198) 堡: 흙과 돌로 쌓은 작은 성, 堡壘라고도 한다.

199) 李左丞: 荊湖占城行省의 左丞 李恒.

200) 이 무렵, 즉 지원 22년(1285) 2월 陳朝 베트남 측에서는 元軍과의 타협과 절충을 위해 陳朝 聖宗의 만수이인 安姿公主를 鎮南王 脫歡에게 보내고 있다. 『大越史記全書』 「本紀全書」 卷5 「陳紀」 1 참조.

201) 膠海口: 오늘날의 南定(남딘)省 동부 해안에 있는 膠水縣(자 투이)의 紅河 河口 일대.

202) 陳朝의 聖宗과 仁宗은 3월 9일, 바다로 나갔다가 元軍에 포위되어 거의 사로잡힐 뻔한 위기를 맞은

문의후(文義侯)와 그 아버지 무도후(武道侯), 아들인 명지후(明智侯)와 사위인 창희후(彰懷侯)와 창헌후(彰憲侯),²⁰⁴⁾ 그리고 망명한 송의 관료 증참정(曾參政)과 소소보(蘇少保)의 아들 소보장(蘇寶章), 진상서(陳尙書)의 아들 진정손(陳丁孫) 등은 잇따라 무리를 이끌고 투항하여왔다. 당을래(唐兀朮)·유규(劉珪)는 모두 “점성에는 양식이 없어 군대가 오래 주둔하기 어렵다”고 말하였다. 진남왕은 사도에게 명하여 원(元)의 군대를 이끌고 장안(長安) 등지로 가서 양식을 입수하도록 하였다. [한편] [진]일훤은 안방(安邦)²⁰⁵⁾의 바닷가로 가서 그 선박과 무기를 버리고 산림 속으로 숨어들었다. 관군은 1만 척의 선박을 노획하여 좋은 것만 골라 타고 나머지는 모두 불살라버렸다. 다시 육로로 사흘 밤낮을 추격하였다.

獲生口稱上皇·世子止有船四艘，興道王及其子三艘，太師八十艘，走清化府。唆都亦報：「日烜·太師走清化。」烏馬兒拔都以軍一千三百人·戰船六十艘，助唆都襲擊其太史等兵。復令唐兀解沿海追日烜，亦不知所往。

사로잡힌 포로가, ‘상황(上皇)과 세자(世子)가 오직 배 4척, 흥도왕 및 그 아들이 3척, 태사(太師)가 80척을 지니고 청화부(淸化府)로 달아났다’²⁰⁶⁾고 말하였다. 사도 역시, [진]일훤과 태사가 청화로 달아났다’고 보고하였다. [이에] 오마아와 발도로 하여금 군사 1,300명과 병선

적이 있다. 이에 대해 『安南志略』卷4 「征討運餉」에서는, “三月九日壬午, 唆都·唐古戴舟師, 入海圍世子於三峙, 幾獲之, 勁率阮强等與世子免, 獲其金帛子女”라 하였다.

203) 이때 陳朝 聖宗과 仁宗의 避身 정황에 대해 『大越史記全書』 「本紀全書」 卷5 「陳紀」 1 〈仁宗 紹寶 7년 2월〉조에서는, “賊兵勢逼, 二帝潛御小舟, 行三峙源, 命引御舶出玉山, 以疑賊情. 時乘輿播遷, 而國峻素負奇才, 又有安生王夙, 衆多猜疑. 國峻扈從, 手持木杖, 未有鎗, 人皆側目睨之, 國峻抽其鎗投之, 但持空杖而行, 又凡事多類此”라 전하고 있다.

204) 中華書局本의 『元史』 「校勘記」에서는, “원문은 張懷侯와 張憲侯로 되어 있지만, 淸代의 道光本 및 『元文類』 卷41 「經世大典序錄」 〈征伐〉에 의거하여 彰懷侯와 彰憲侯로 고쳤다”라고 하였다.

205) 安邦: 오늘날 廣安(광안)省의 중동부 해안 지대.

206) 『大越史記全書』 「本紀全書」 卷5 「陳紀」 1 〈陳 仁宗 紹寶 7년 3월〉에서는 이때 聖宗·仁宗의 行路에 대해, “二帝捨舟而徒步, 至水注取舟, 出南趙江, 逾大旁海, 行淸化”라 적고 있다. 이들은 廣安(광안)省의 해안에서 상륙하여 山林을 따라 西行하다가, 廣安市 인근에서 배를 타고 南趙江(오늘날 광안 성과 끼엔안 성의 경계를 이루는 바익당 강)을 내려와 바다로 나와서, 大旁海(끼엔안 성의 바닷가인 끄어반 옥)를 통해 海路로 淸化(타인 호아)로 들어간 것이다(山本達郎, 1975: 114).

60척을 이끌고 사도를 도와 안남의 태사 등이 이끄는 군대를 습격하게 하였다. 동시에 당을래에게 명하여 바닷가를 따라 [진]일회를 추격하도록 하였으나, 그 또한 [진]일회가 어디에 있는지 알지 못하였다.

日烜弟昭國王陳益稷率其本宗與其妻子官吏來降。乃遣明里·昔班等送彰憲侯·文義侯及其子明誠侯·昭國王子義國侯入朝。文義侯得北上，彰憲侯·義國侯皆爲興道王所劫，彰憲侯死，義國侯脫身還軍中。

[진]일회의 동생인 소국왕(昭國王) 진익직(陳益稷)이 그 종친 및 처자와 관리를 이끌고 투항하여 왔다.²⁰⁷⁾ 이에 명리(明里)와 석반(昔班) 등을 파견하여, 창헌후(彰憲侯)와 문의후(文義侯) 및 그 동생인 명성후(明誠侯), 그리고 소국왕의 아들인 의국후(義國侯) 등을 이끌고 입조하도록 하였다. 이 가운데 문의후는 복상하였지만 창헌후와 의국후는 모두 홍도왕의 공격을 받아²⁰⁸⁾ 창헌후는 죽고 의국후는 간신히 몸을 빼내 군중(軍中)으로 되돌아왔다.²⁰⁹⁾

官軍聚諸將議：「交人拒敵官軍，雖數敗散，然增兵轉多；官軍困乏，死傷亦衆，蒙古軍

207) 지원 22년(1285) 3월의 일이다(『大越史記全書』「本紀全書」卷5「陳紀」1). 몽골의 제2차 베트남 침공 과정에서 陳朝 側의 많은 유력자들이 元軍에 투항하였지만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이 聖宗의 동생인 昭國王 陳益稷이었다. 『大越史記全書』「本紀全書」卷5「陳紀」1〈진 인종 紹寶 7년 3월〉조에 따르면, 그는 學識이 풍부하였으며 군주의 자리를 노리는 야욕을 지니고 있었다고 한다. 나아가 商客을 통해 元朝에 南下를 요청하였으며 투항한 후에는 지원 22년(1285) 겨울 大都로 갔다가(『安南志略』卷4「征討運餉」참조) 이듬해에 安南國王에 봉해졌다. 그리고 元의 정벌전이 최종적으로 실패로 귀결된 후 중국에서 죽었다.

208) 中華書局本の 校勘記에서는, “원문은 ‘창헌후와 의국후는 모두 홍도왕에게 죽임을 당하고(彰憲侯·義國侯皆爲興道王所殺)’라고 되어 있다. 하지만 아래 문장에 ‘창헌후는 죽고 의국후는 간신히 몸을 빼내 군중으로 되돌아왔다(彰憲侯死，義國侯脫身還軍中)’라고 적고 있는 것에 비추어, 이곳의 ‘죽임을 당하고(所殺)’란 말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원문에 잘못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청대의 道光本에서도 ‘殺’을 ‘劫’으로 고치고 있다”라고 적고 있다.

209) 대략 지원 22년(1285) 5월에서 7월까지에 있었던 일이다.

馬亦不能施其技。」遂棄其京城，渡江北岸，決議退兵屯思明州。鎮南王然之，乃領軍還。是日劉世英與興道王·興寧王兵二萬餘人力戰。

[우리] 관군에서는 여러 장수들을 모아 다음과 같이 의논하였다. “교[지]인들이 관군에 대적하여, 비록 [우리가] 여러 차례 패퇴시켜 흩어졌지만 [저들의] 군대는 오히려 많아지고 있다.²¹⁰⁾ 관군은 곤경에 처해 있고 식량이 부족하며 사상자 또한 많다.²¹¹⁾ 몽골의 군마(軍馬)도 이곳에서는 그 장기를 발휘할 수 없다.”²¹²⁾ 마침내 그 수도를 버리고 강을 건너 북쪽 기슭으로 간 다음, 군대를 철수시켜 사명주(思明州)에 주둔시키기로 결정하였다.²¹³⁾ 진남왕 또한 그것에 동의하여, 마침내 군대를 이끌고 철수하였다. 이날 유세영은 흥도왕 및 흥녕왕(興寧王)의 군대 2만여 명과 힘을 다해 싸웠다.

又官軍至如月江，日烜遣懷文侯來戰，行至冊江，擊浮橋渡江，左丞唐兀解等軍未及渡而林內伏發，官軍多溺死，力戰始得出境。唐兀解等馳驛上奏。七月，樞密院請調兵以今年十月會潭州，聽鎮南王及阿里海牙擇帥總之。

- 210) 元軍과 陳朝 베트남 군대 사이의 戰勢가 역전되는 것은 대략 지원 22년(1285) 4월경의 일이었으며, 그 결정적 계기가 鹹子關 전투였다. 鹹子關은 수도 昇龍에서 동남방으로 20km 정도 떨어진 지점(오늘날의 함투)이다. 이곳에서 陳朝 베트남 측은 諸軍을 모아 역량을 결집하여 元軍에 큰 타격을 가하였다. 특히 宋의 망명자들이 전투에 참여함으로써 元軍을 크게 당황하게 만들었다고 한다. 이에 대해 『大越史記全書』 『本紀全書』 卷5 「陳紀」 1 〈陳 仁宗 紹寶 7년 4월〉조에서는, “官軍與元人，交戰于鹹子關，諸軍咸在。有昭文王日燾軍，有宋人衣宋衣，執弓矢以戰，上皇恐諸軍或不能辨，使人諭之曰：「此昭文韃也，當審識之。」蓋宋與韃聲音衣服相似，元人見之，皆驚曰：「有宋人來助。」因此敗北。初宋亡，其人婦我，日燾納之，有趙忠者，爲家將，故敗元之功，日燾居多”라 적고 있다.
- 211) 鹹子關 전투 이후 베트남 측은 공세로 돌아서서, 上相 陳光啓·懷文侯 國瓚·陳聰·阮可臘 등이 諸路의 民兵을 모아 元軍을 昇龍과 章陽에서 격파했으며, 5월 3일에는 聖宗·仁宗의 군대가 長安府에서 元軍에 큰 승리를 거두었다. 이에 대해서는, 『大越史記全書』 『本紀全書』 卷5 「陳紀」 1 〈陳 仁宗 紹寶 7년 5월〉조 참조.
- 212) 이때의 정황에 대해 『元史』 卷129 〈李恒傳〉에서는, “會盛夏，軍中疾作，霖潦暴漲，浸濯營地。議者謂，交趾且降，請班師”라 전하고 있다.
- 213) 5월 6일의 일이었다. 이에 대해서는 『安南志略』 卷4 「征討運餉」 참조.

또 관군이 여월강(如月江)²¹⁴에 이르렀을 때, [진]일훤이 회문후(懷文侯)를 파견하여 공격하여왔다. [관군은] 행군하여 책강(冊江)²¹⁵에 이르러 부교(浮橋)²¹⁶를 부설하고 강을 건너기 시작하였다. 그런데 좌승(左丞) 당올래 등의 군대가 채 강을 건너기 전 수풀 속에서 [안남의] 복병이 들고일어나 관군의 많은 숫자가 익사하였다.²¹⁷ [관군은] 힘을 다해 싸워서 가까스로 그 영역을 벗어날 수 있었다.²¹⁸ 당올래 등은 역참을 경유하여 [전황을] 상주하였다. [지원 22년] 7월, 추밀원에서는 군대를 동원하여 금년 10월 담주(潭州)에 집결시키자고 청하였다. 진남왕 및 아리해아(阿里海牙)로 하여금 장수를 선발하여 통솔하도록 하였다.²¹⁹

二十三年正月，詔省臣共議，遂大舉南伐。二月，詔諭安南官吏百姓，數日烜罪惡，言其戕害叔父陳遺愛及弗納達魯花赤不顏鐵木兒等事。以陳益稷等自拔來歸，封益稷爲安南國王，賜符印，秀峻爲輔義公，以奉陳祀。申命鎮南王脫歡·左丞相阿里海牙平定其國，以兵納益稷。

[지원] 23년(1286) 정월, [각] 성(省)의 신하들이 함께 논의하도록 조서를 내려서 드디어 대대적으로 남벌(南伐)하기로 하였다. 2월에, [진]일훤의 죄악을 열거하고, 그가 숙부인 진유애(陳遺愛)를 참혹하게 살해한 것과 다루가치(達魯花赤)인 불안철목아(不顏鐵木兒)를 받

214) 如月江: 오늘날의 끼우 강.

215) 冊江: 海陽(하이두영)省的 南策(남 사익) 지역으로 흘러가는 긴 타이 강. 『安南志略』 卷4 「征討運餉」에는 南冊江이라 되어 있다.

216) 浮橋: 강 위에 배나 뗏목, 상자 등을 연결하여 늘어놓거나, 혹은 새끼줄 위에 판자를 얹어 부설한 임시 다리.

217) 5월 6일의 일이었다. 이에 대해서는 『安南志略』 卷4 「征討運餉」 참조.

218) 이때의 전투 상황에 대해 『大越史記全書』에서는, “興道王又與脫驩·李恒，戰于萬劫破之，溺死甚衆。李恒以兵衛脫驩，還思明。我軍以藥矢射中恒左膝，死。裨將李瓘收餘卒五萬人，以銅器匿脫驩其中，北遁至思明。興道王追之，以藥矢射中李瓘，死。元兵大潰”(『本紀全書』 卷5 「陳紀」 1 〈陳 仁宗 紹寶 7년 5월〉)라 기록하고 있다.

219) 世祖 쿠빌라이는 이처럼 곧바로 陳朝 베트남에 대한 재원정을 준비하였지만 얼마 후 정벌 계획을 중단시켰다. 그리고 至元 22년(1285) 8월 베트남 재원정을 위해 소집한 군대 가운데 몽골군 100명과 漢軍 400명만을 鎮南王 脫歡의 宿衛로 남기고 나머지는 모두 歸鄉시켰다(『元史』 卷13 「世祖紀」 10).

아들이지 않은 등 일을 알려서 안남의 관리와 백성들을 깨우치라는 조서를 내렸다. 진익직(陳益稷) 등이 자원하여 백성들을 이끌고 와서 귀순하였으므로, [진]익직을 안남국왕(安南國王)으로 봉하고, 부인(符印)²²⁰⁾을 하사하였으며, [진]수완(陳秀煥)을 보의공(輔義公)으로 봉하여 진씨의 제사를 받들도록 하였다.²²¹⁾ 거듭 진남왕(鎭南王) 탈환(脫權)·우승상(左丞相) 아리해아(阿里海牙)에게 안남을 평정하고 군대를 써서 [진]익직을 돌려보내라는 명령을 내렸다.²²²⁾

五月，發忙古臺麾下士卒合鄂州行省軍同征之。官兵入其境，日烜復棄城遁。

[지원 23년(1286)] 5월, 망고대(忙古臺) 휘하의 사병들을 출동시켜서 악주행성(鄂州行省)²²³⁾의 군대와 함께 안남국을 정벌하였다. 관군들이 그 경내로 들어가자 [진]일훤은 다시 성을 포기하고 도주하였다.²²⁴⁾

220) 符印: 符節과 印信 등 증거물의 統稱. 『新唐書』 「百官志」 1에는 “禮部郎中·員外郎, 掌禮樂·學校·衣冠·符印·表疏·圖書·冊命·祥瑞·鋪設, 及百官·宮人喪葬贈賻之數, 爲尙書侍郎之貳”라 하였고, 『新五代史』 「雜傳」 3 〈盧光稠譚全播〉에는 “光稠病, 以符印屬全播, 全播不受”라고 기록되어 있다.

221) 『安南志略』 卷4 「征討運餉」에서는 이러한 조치가 至元 23년(1286) 3월에 취해졌다고 기록하고 있다. 이러한 元朝의 陳翼稷에 대한 安南國王 책봉은 본문에 등장하듯 그 5년 전인 至元 18년(1281) 10월 陳有愛를 安南國王에 봉했던 것을 연상시키는 조치로서, 元朝가 당시 실질적으로 베트남을 지배하고 있는 陳朝 황제의 지위를 전혀 인정하지 않는 고압적 자세를 보이는 것이라 하겠다.

222) 『元史』 卷14 「世祖紀」 11에서는 이때의 명령에 대해, “以阿里海牙仍安南行中書省左丞相, 奧魯赤平章政事, 都元帥烏馬兒亦黑迷失阿里答順樊楫並叅知政事. 遣使諭皇子也先鐵木兒額, 調合刺章軍千人或二三千, 付阿里海牙從征交趾, 仍具將士姓名以聞”이라 적고 있다. 한편 『大越史記全書』 「本紀全書」 卷5 「陳紀」에서는, “元帝勅尙書省奧魯赤平章政事烏馬兒大將張文虎, 調兵五十萬, 令湖廣造解船三百艘, 期以八月會欽廉州, 仍命江浙湖廣江西三行省竝南侵. 假宋降人陳益稷還國, 立爲安南國王”이라 하여 이러한 침공의 준비가 元 世祖 至元 23년(陳 仁宗 重興 2년, 1286) 3월에 취해졌다고 기록하고 있다.

223) 鄂州行省: 荊湖安南行省의 別稱으로서 安南行中書省·湖廣行省·荊湖占城行省·荊湖行省 등으로 불리기도 하였다. 荊湖行省은 원래 宋을 토벌할 때 설치된 특별 行省이었는데 占城行省과 병합되어 荊湖占城行省으로 개편된 후 베트남 정벌을 실질적으로 담당하였다. 베트남 정벌 준비는 본문에도 등장하듯 湖廣 일대에서 진행되었으며 그 중심지가 鄂州였기 때문에 이렇게 다양하게 불렸던 것이라 여겨진다. 이에 대해서는 山本達郎, 1975: 120~121 참조.

六月，湖南宣慰司上言：「連歲征日本及用兵占城，百姓罷於轉輸，賦役煩重，士卒觸瘴癘多死傷者，群生愁嘆，四民廢業，貧者棄子以偷生，富者鬻產而應役，倒懸之苦日甚一日。今復有事交趾，動百萬之衆，虛千金之費，非所以恤士民也。且舉動之間，利害非一，又兼交趾已嘗遣使納表稱藩，若從其請以甦民力，計之上也。無已，則宜寬百姓之賦，積糧餉，繕甲兵，俟來歲天時稍利，然後大舉，亦未爲晚。」湖廣行省臣線哥是其議，遣使入奏，且言：「本省鎮戍凡七十餘所，連歲征戰，士卒精銳者罷於外，所存者皆老弱，每一城邑，多不過二百人。竊恐姦人得以窺伺虛實。往年平章阿里海牙出征，輸糧三萬石，民且告病，今復倍其數。官無儲蓄，和糴於民間，百姓將不勝其困。宜如宣慰司所言，乞緩師南伐。」樞密院以聞，帝卽日下詔止軍，縱士卒還各營。益稷從師還鄂。

[지원 23년(1286)] 6월에 호남(湖南)²²⁵⁾ 선위사(宣慰司)는 [다음과 같이] 상언하였다. “해마다 일본을 정벌하고 점성과 전쟁을 하느라 백성들은 물자를 대느라 너무 힘들고, 부세와

224) 이 부분의 기술은 전후와 문맥이 잘 연결되지 않는다. 이 기술에 의거하면 이때(1286년 5월) 원의 남征軍이 베트남의 수도까지 진격하여 베트남 군주인 진일훤이 도주한 것으로 되어 있다. 하지만 『元史』의 世祖 本紀나 『安南志略』 등 元側의 기록은 물론, 『大越史記全書』에도 이때 元軍이 베트남 영내로 진격하였다는 사실은 기록되어 있지 않다. 『元史』의 本紀에는 至元 23년(1286) 6월 荊湖行省의 阿里海牙가 要東木이란 관원의 貪贓을 상주하고 특별감찰을 요청하였다는 내용이 실려 있다(卷14 「世祖紀」 11). 긴박한 베트남 정벌의 진행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정황이다. 또한 『大越史記全書』 「本紀全書」 卷5 「陳紀」에는 陳 仁宗 重興 2년(1286) 6월조에, 仁宗과 興道王 陳國峻 사이의 문답이 기록되어 있다. 이때 仁宗이 賊勢의 실태를 묻자 陳國峻은, “我國太平日久, 民不知兵. 是以前年元人入寇, 或有降避, 賴祖宗威靈陛下神武, 克清胡塵. 彼若又來, 我士習於攻戰, 彼軍憚於遠行, 且懲恒羅之敗, 無有關心. 以臣觀之破彼必矣. 乃命興道王總督帝王侯宗室造兵器及舟船”이라 대답하고 있다. 지원 23년(1286) 5월 당시 元과 베트남 사이에는 交戰이 전개되고 있는 상황은 결코 아니었다. 따라서 이 부분의 기술은 심대한 착오나 오류인 것으로 보인다.

225) 湖南: 揚子江 중류의 남부 지역. 대부분洞庭湖 남쪽에 위치하고 있어서 湖南이라고 칭한다. 그 안에서는 湘江이 남북으로 흐르기 때문에 湘이라고 약칭하기도 한다. 이 외에 송대에는 荊湖南路의 약칭으로도 사용되었다. 北宋 至道 3년(997)에 荊湖路 남부를 분할하여 설치하며, 약칭으로 湖南路라고 일컫는다. 治所는 潭州(현재 湖南省 長沙市)이고 관할 범위는 현재 호남성의 淚羅·益陽·安化·洞口·綏寧縣 이남 지역과 廣西省 越城嶺 이남의 湘水·灌水 유역에 해당된다.

요역이 번잡하고 무거워졌습니다. 사졸들은 풍토병[瘴癘]²²⁶⁾에 걸려서 사상자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탄식하며, 사민(四民)²²⁷⁾이 자신들의 일을 팽개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는 자식을 팔아서 구차하게 살길을 도모하고, 부자들은 가산을 팔아서 역(役)을 감당하니, 끔찍한[倒懸]²²⁸⁾ 고통이 나날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다시 교지와 일을 벌이면, 백만 대군을 동원해야 하고 천금의 비용을 허비해야 하니 사민(士民)들을 걱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게다가 일을 벌이는 사이에 이해관계가 일치하지 않고, 또한 교지는 이미 사신을 보내어 표장을 바치고 번(藩)이라 칭하였는데²²⁹⁾ 만약 그 칭을 따라서 민력(民力)을 다시 살아나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이렇게 못한다면 마땅히 백성의 부세를 경감해주며 군량을 비축하고 무기를 손본 다음 내년에 기회가 유리해지기를 기다려서 크게 일어난다면 역시 늦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하였다.²³⁰⁾ 호광행성(湖廣行省)²³¹⁾ 대신인 선가(線哥)는 그 건의가 옳다고 보아 사자(使者)를 보내어 상주를 올렸다. 또한 말하기를, “본성(本省)에서 진수(鎭戍)²³²⁾하는 곳이 70여 개소인데 해마다 정복전쟁을 하느라 정예사졸은

226) 瘴癘: 瘴厲라고도 한다. 습하고 더운 지역에서 생기는 독기인 瘴氣. 혹은 瘴氣를 받아서 생기는 疾病으로 악성 瘧疾 등의 風土病이다. 『北史』 「柳述傳」에 “述在龍川數年, 復徙寧越, 遇瘴癘死”라는 용례가 보인다.

227) 四民: 우선 선비(士)·농부(農)·匠人(工)·장사치(商)의 네 가지 身分이나 階級을 뜻한다. 또는 일반 국민을 의미하기도 한다.

228) 倒懸: 우선 거꾸로 매달리는 것으로 매우 힘들거나 어려운 상태를 표현하는 것이다. 이 외에도 尊卑와 貴賤의 위치가 거꾸로 되는 것이나 위험이 절박해지는 상태를 의미하기도 한다.

229) 至元 23년(1268) 陳朝 베트남에서는 大夫阮義全·阮德榮을 元朝에 파견하여 조공을 바쳤다. 하지만 元 조정에서는 世子の 入朝를 요구하며 阮義全 등을 수도 大都에 구류시키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安南志略』 卷14 「歷代遣使」 참조.

230) 『元史』 卷168 「劉宣傳」에 따르면 이 상주문은, 湖南宣慰司의 上言으로 되어 있는 본문의 기술과는 달리 당시 吏部尙書로 재직 중이던 劉宣이 올린 것이라 한다.

231) 湖廣行省: 원래 명칭은 湖廣等處行中書省이고, 약칭으로 湖廣이라고 한다. 元 至元 연간(1264~1294)에 두었는데 치소는 武昌路(현재 湖北省 武漢市 武昌)에 있었다. 관할 영역이 송대의 荊湖北路·荊湖南路 및 廣南西路를 포함하고 있어서 湖廣이라고 부른다. 관할 영역은 오늘날 湖北省 長江 이북의 小部分·長江 이남의 大部分·湖南 全省·廣西省 全區·廣東省 電白과 茂名 이서 및 貴州省의 北盤江 유역 이외의 地區에 해당한다. 明 洪武 9년(1376)에 湖廣布政使司(습관상 行省이라고도 칭함)로 바뀌면서 관할 지역도 북쪽은 지금 湖北省界로 확대되고, 남쪽은 원래 廣南西路 地區에서 별도로 廣西省으로 구분되었다. 湖廣은 처음에 오늘날 兩湖 지역이었으나 淸 康熙 3년(1664)에 湖北·湖南 兩省으로 나뉘어 兩湖總督 管轄로 들어가게 되었는데 습관상 兩湖總督을 湖廣總督이라고 부른 것이다.

밖에서 죽었고 여기에 남아 있는 자들은 모두 노약한데다 한 성읍(城邑)마다 많아야 200명을 넘지 못합니다. 나쁜 사람들이 허실(虛實)을 엿보아 이익을 챙길까 슬그머니 걱정이 됩니다. 지난번에 평장(平章) 아리해아(阿里海牙)가 출정했을 때 실어간 군량이 3만 석이었는데도 백성들은 건디기 힘들었습니다. 지금은 다시 그 수량의 배가 되는 것입니다. 관부에는 저축이 없으니 민간에서 구매(和糴)²³³해야 할 터인데 백성들이 앞으로 그 곤궁함을 견딜 수 없을 것입니다. 마땅히 선위사에서 말한 대로 제발 남벌(南伐)의 군대 출동을 늦추어주십시오.” 추밀원(樞密院)은 이것을 [황제에게] 말하니 황제는 당일엔 진군을 멈추라는 조서를 내리고 사졸들을 각자의 병영으로 돌려보냈다.²³⁴ [진]익직은 군대를 따라서 악(鄂)으로 돌아갔다.

二十四年正月，發新附軍千人從阿八赤討安南。又詔發江淮·江西·湖廣三省蒙古·漢·券軍七萬人，船五百艘，雲南兵六千人，海外四州黎兵萬五千，海道運糧萬戶張文虎·費拱辰·陶大明運糧十七萬石，分道以進。置征交趾行尚書省，奧魯赤平章政事，烏馬兒·樊楫參知政事總之，並受鎮南王節制。五月，命右丞程鵬飛還荊湖行省治兵。六月，樞密院復奏，令烏馬兒與樊參政率軍士水陸並進。九月，以瓊州路安撫使陳仲達·南寧軍民總管謝有奎·延欄軍民總管符庇成出兵船助征交趾，並令從征。日烜遣其中大夫阮文通等入貢。

[지원] 24년(1287) 정월, 신부군(新附軍)²³⁵ 천 명을 아팔적(阿八赤)을 따라서 안남을 토벌 하도록 출동시켰다. 또한 조서를 내리기를, 강회(江淮)²³⁶·강서(江西)²³⁷·호광(湖廣) 3성

232) 鎮戍: 군사상 군대를 駐在시켜 요처를 든든히 지키는 것이다.

233) 和糴: 옛날에 官府에서 형식상으로는 가격을 흥정하여 교역을 한다고 하면서 民間에게 강제로 糧食을 구매하던 것을 말한다. 北魏에서 시작되었다. 『魏書』「食貨志」에 “又收內郡兵資與民和糴，積爲邊備”라고 하였고 『新唐書』「宦者傳」上 〈高力士〉에는 “和糴不止，則私藏竭，逐末者衆”이라는 내용이 있으며 『中州集』 卷7에 金 李節의 시를 인용하여 “梧頭打出和糴米，丁口簽來自願軍”이라고 하였다.

234) 이때의 정황에 대해 『元史』 卷14 「世祖紀」 11에서는, “癸丑，湖廣行省線哥言。‘今用兵交趾，分本省戍兵三萬八千七百人，期以七月悉會靜江，今已發精銳啓行，餘萬七千八百人，皆羸病屯田等軍，不可用。’敕今歲姑罷之”라 적고 있다.

235) 新附軍: 남송의 정복 과정에서 투항한 부대. 주로 江淮 이남지역, 즉 종래의 南宋 영역에 배치되었다.

236) 江淮: 江淮等處行中書省의 약칭이다. 元 至元 13년(1276)에 설치하였고, 치소는 揚州(후에 揚州路로

의 몽고(蒙古)·한(漢)·권군(券軍)²³⁸ 7만 명과 배 500척[艘], 운남(雲南) 병사 6,000명, 해외 4주(州)의 여병(黎兵) 15,000을 징발하고,海道(海道) 운량만호(運糧萬戶) 장문호(張文虎)·비공신(費拱辰)·도대명(陶大明)의 운량 17만 석을 길을 나누어서 내보내라고 하였다. 정교지행상서성(征交趾行尙書省)²³⁹을 설치하고, 오노적(奧魯赤)을 평장정사(平章政事), 오마아(烏馬兒)·번즙(樊楫)²⁴⁰을 참지정사(參知政事)로 하여 총괄하게 하고, 모두 진남왕(鎮南王)의 지휘를 받도록 하였다.²⁴¹ 5월에는 우승(右丞) 정봉비(程鵬飛)에게 형호 행성으로 돌아가 군대를 훈련시키라고 명령하였다. 6월, 추밀원(樞密院)에서 다시 상주하기를, 오마아와 번[즙] 참정(參政)에게 군사를 이끌고 수륙(水陸) 양쪽으로 진격하라고 명령하였다. 9월, 경주로(瓊州路) 안무사 진중달(陳仲達)·남녕(南寧) 군민총관(軍民總管) 사유규(謝有

개칭, 현재 江蘇省 揚州市). 관할 영역은 오늘날 江蘇省 長江 이북 지구(邳州·宿遷 이서 제외) 및 安徽省 泗縣·五河·滁州·來安·全椒 등 縣市 지역이다. 지원 15년(1278)에 淮東道宣慰司로 바꾸었다가 지원 23년(1286)에 회복하였고, 지원 28년(1291)에 다시 淮東道宣慰司로 바꾸었다.

237) 江西: 江西等處行中書省의 약칭이다. 元 至元 14년(1277)에 설치하였는데, 치소는 隆興府(현재 江西省 南昌市). 관할 영역은 오늘날 江西省과 廣東省 대부분 지역이다. 明 洪武 2년(1369)에 廣東道宣慰司에 소속시켜 廣東等處行中書省에 편입시켰다. 홍무 9년(1376)에 江西布政使司로 바꾸었다.

238) 券軍: 남송 말 및 元代에 존재하던 군사조직으로서 劄子(券)의 軍餉을 지급받는 군대라는 의미이다. 元代에는 生券軍과 熟券軍으로 구분되었다. 生券軍은 남송 시대부터 존재하다가 元軍에 편입된 것으로 外地에서 징발되어 변경에 배치된 군대, 즉 鎮戍 부대에 속하였다. 반면 熟權軍은 元代에 새로 편성된 것으로 출신지에 그대로 배치되어 전투나 屯田 등의 임무를 담당하는 부대였다. 生券軍과 熟券軍 공히 新附軍에 속하였다(艾萌, 2013 참조).

239) 征交趾行尙書省: 湖廣等處行尙書省이라고도 불리는 기구로 사실상 이전의 安南行中書省·荊湖占城行省을 개편한 것이었으며 조직도 동일했던 것으로 보인다(山本達郎, 1975: 123~124).

240) 樊楫(?~1288): 冠州 출신으로 처음에는 軍吏로 출발하였다. 참전하여 下鄂·江陵에서 공을 세워서 行省에서 都事로 임명되었다. 宋이 멸망한 다음 원 조정에 들어가 員外郎이 된 이후 승진하였다. 至元 21년(1284)에 阿里海牙를 따라서 交趾를 정벌하는 데 참가하였지만 공을 세우지 못하고 돌아왔다. 지원 24년(1287)에 다시 交趾 정벌에 行中書省 參知政事로 참전하였다. 처음에는 원문에서 서술된 바와 같이 승리를 거두고 陳日烜을 쫓아 보냈지만 지원 25년(1288) 2월에 기후가 덥고 식량이 떨어진 상황에서 회군하라는 명령을 받고 돌아가다가 白藤江에서 적의 배에 포위되었다. 화살이 빗발치는 가운데 역전했으나 창에 맞아서 물에 빠져 죽었다. 至順 원년(1330)에 忠宣力效節功臣·資德大夫·江浙行省右丞·上黨郡公으로 추증되었고, 시호는 忠定이다.

241) 베트남 측의 사료에는 이때 元側 정벌군의 총규모가 50만이었다고 기록되어 있다(『大越史記全書』「本紀全書」卷5「陳紀」〈仁宗 重興 2년 3월〉). 元側 정벌군의 출정은 지원 24년(1287) 2월 베트남 측에도 인지되고 있다(『大越史記全書』「本紀全書」卷5「陳紀」〈仁宗 重興 3년 2월〉).

奎)·연난(延欄) 군민총관 부비성(符庇成)이 병선(兵船)을 내어 교지 정벌을 돕겠다고 하여 함께 정벌하라는 명령을 내렸다.²⁴²⁾ [진]일훤은 그 중대부(中大夫) 완문통(阮文通)²⁴³⁾ 등을 보내어 입공(入貢)하였다.²⁴⁴⁾

十一月，鎮南王次思明，留兵二千五百人命萬戶賀社統之，以守輜重。程鵬飛·李羅合答兒以漢·券兵萬人由西道永平，奧魯赤以萬人從鎮南王由東道女兒關以進。阿八赤以萬人爲前鋒，烏馬兒·樊楫以兵由海道，經玉山·雙門·安邦口，遇交趾船四百餘艘，擊之，斬首四千餘級，生擒百餘人，奪其舟百艘，遂趨交趾。程鵬飛·李羅合答兒經老鼠·陷沙·茨竹三關，凡十七戰，皆捷。

[지원 24년(1287)] 11월, 진남왕은 사명(思明)[주]에 도착하여²⁴⁵⁾ 병사 2,500명을 남겨 두고 만호 하지(賀社)에게 그들을 통솔하여 군용물자[輜重]을 지키라고 명령하였다. 정봉비(程鵬飛)·패라합답아(李羅合答兒)는 한(漢)·권병(券兵) 만 명을 데리고 서쪽 길 영평(永平)²⁴⁶⁾으로, 오로적(奧魯赤)도 만 명을 데리고 진남왕을 따라서 동쪽 길 여아관(女兒關)으로 진군하였다.²⁴⁷⁾ 아팔적(阿八赤)은 만 명을 이끌고 선봉이 되었고, 오마아·변즙은 군대를 이끌고 해로로²⁴⁸⁾ 옥산(玉山)²⁴⁹⁾·쌍문(雙門)²⁵⁰⁾·안방구(安邦口)²⁵¹⁾를 경유하다가 교지의 배

242) 당시 이들이 제공한 군대의 규모는 私船 120척, 黎兵 1,700명이었다(山本達郎, 1975: 123).

243) 『元史』「校勘記」에 따르면 ‘阮文通’은 『宋史』卷14「世祖紀」〈至元 24년 9월 丁未〉條 및 『安南志略』卷14〈歷代遣使〉에는 ‘阮文彥’으로 되어 있다. 아마도 ‘通’이 아니라 ‘彥’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244) 이들이 元의 大都에 당도한 것은 至元 24년(1287) 9월의 일이었다(『元史』卷14「世祖紀」11). 베트남의 使者 阮文彥 등은 이후 한동안 大都에 구류되었다가 元의 베트남 정벌이 실패로 끝난 후에야 귀국하게 된다(『安南志略』卷14「歷代遣使」).

245) 鎮南王 脫歡은 9월 초 鄂州를 출발하여, 10월 28일 廣西 武江 인근의 來賓縣에 도착하였다. 이 來賓에서 전열을 정비한 다음 鎮南王 및 阿八赤이 이끄는 陸軍은 진군을 계속하여 11월 국경지대의 思明州에 도착하였다(『安南志略』卷4「征討運餉」참조).

246) 永平: 북송대에 두었고, 邕州에 속하였다. 치소는 오늘날 越南 諒山省 南祿平이었다. 元 이후에 폐지하였다.

247) 元軍은 지원 21년(1284)의 침공 때와 마찬가지로 祿州, 즉 오늘날의 랑선 1省 綠平(록 빈)에 이르러 군대를 東路軍과 西路軍으로 나누어, 程鵬飛·李羅合答兒로 하여금 西路軍을 담당하게 하고 阿八赤 및 鎮南王의 本隊가 東路軍이 되어 두 갈래로 진격하기 시작하였다(『安南志略』卷4「征討運餉」참조).

400여 척을 만나자 그들을 공격하였다. 4천여 명을 참수하였고 백여 명을 생포하였으며 그들의 배 100척을 빼앗고서 재빨리 교지에 이르렀다. 정봉비·패나합답야는 노서(老鼠)²⁵²⁾·함사(陷沙)·자죽(茨竹) 삼관(三關)²⁵³⁾을 지나면서 도합 17차례 싸웠는데 모두 승리하였다.

十二月，鎮南王次茅羅港，交趾興道王遁，因攻浮山寨，破之。又命程鵬飛·阿里以兵二萬人守萬劫，且修普賴山及至靈山木柵。命烏馬兒將水兵，阿八赤將陸兵，徑趨交趾城。鎮南王以諸軍渡富良江，次城下，敗其守兵。日烜與其子棄城走敢喃堡，諸軍攻下之。

[지원 24년(1287)] 12월, 진남왕이 모나항(茅羅港)에 도착하였는데 교지의 흥도왕(興道王)이 도주하였기 때문에 부산채(浮山寨)를 공격하여 함락시켰다. 또한 정봉비·아리에게 병사 2만 명을 데리고 가 만겁(萬劫)을 지키고,²⁵⁴⁾ 또한 보뢰산(普賴山) 및 지령산(至靈山)의 목책(木柵)을 수리하라고 명령하였다.²⁵⁵⁾ 오마아(烏馬兒)에게는 수군을 통솔하고, 아팔

248) 烏馬兒·樊楫은 이때의 베트남 침공에서 수군을 통솔하고 있었다. 烏馬兒·樊楫이 이끄는 수군은 1만 8,000명을 이끌고 廣西路의 남단 欽州로 가서 이곳에서 諸軍을 결집한 다음, 11월 11일 欽州를 출발하여 본격적으로 베트남을 향해 진군하기 시작하였다(山本達郎, 1975: 123).

249) 玉山: 통킹 지방 東端에 있는 반 닌(Van-ninh) 인근의 응옥 썸(Ngoc-son).

250) 雙門: 玉山 내에 위치한 해안.

251) 安邦口: 安邦海口라고도 칭하는 곳으로 오늘날 廣安省(Quang-yen)의 중동부 해안 지대의 항구.

252) 老鼠關: 오늘날 越南 북부 諒山의 북쪽에 위치한다. 『方輿紀要』卷112 「安南」〈諒山府〉에는 “在府北。『南使錄』: 邱溫東南行十數里至陡關，度嶺西南行兩山間。初所見黃茅修竹，既而深林茂樹，水濶不數尺，然周遭百折，或百步涉，或半里一涉，凡六七十處，復度一嶺，夾道皆古木蒼藤，有巨石挺立，篁竹薄叢，最爲扼要，名老鼠關”이라 기록하고 있다.

253) 三關: 베트남 측은 老鼠關, 즉 支凌隘(후일 鷄陵關·鎮夷關 등으로 불리기도 한다)로부터 남방으로 수도 堂隴를 향하는 연변에 수 개의 關塞를 개설해두고 있었다. 당시 元의 西路軍은 오늘날 諒山(랑 썸) 남부의 투 옹(Thuong) 강에서 서남방을 향해 나 있는 길을 따라 남진하였다. 본문에 등장하는 沙·茨·竹의 三關은 老鼠關의 남방에 위치하였는데, 가장 남부의 竹關은 刺竹關이라 불리기도 했던 것으로서 老鼠關에서 약 30리 정도 떨어진 곳에 있었다고 한다(山本達郎, 1975: 109, 124).

254) 『大越史記全書』「本紀全書」卷5 (仁宗 重興 3년)조에 따르면 元軍이 萬劫(만 끼엵)을 점령한 것은 12월 30일이었으며, 당시 萬劫을 공격한 元軍은 30만에 달하였다고 한다.

255) 이러한 조치는 군량 보급선을 확보함으로써, 이전의 지원 21년(1284) 침공 당시 군량 供給船이 베트

적에게는 육군을 통솔하여, 바로 교지성에 진격하라고 명령하였다. 진남왕은 대군을 이끌고 부양강(富良江)²⁵⁶을 건너서 성 아래에 도착하여 그 수비군을 패배시켰다. [진]일훤은 그의 아들과 성을 포기하고 감남보(敢喃堡)로 달아났는데 각 로의 군대는 그를 공격하여 함락시켰다.

二十五年正月，日烜及其子復走入海。鎮南王以諸軍追之，次天長海口，不知其所之，引兵還交趾城。命烏馬兒將水兵由大滂口逐張文虎等糧船，奧魯赤·阿八赤等分道入山求糧。聞交趾集兵箇沉·箇黎·磨山·魏寨，發兵皆破之，斬萬餘級。

[지원] 25년(1288) 정월, [진]일훤은 그의 아들과 다시 도망가서 바다로 들어갔다. 진남왕은 각 로의 군대에게 그들을 추격하도록 하였는데 천장(天長)의 해구(海口)²⁵⁷에 당도하였다. 그들이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없자 군대를 이끌고 교지성으로 돌아갔다. 오마아에게 수군을 이끌고 대방구(大滂口)²⁵⁸에서 장문호 등의 양선(糧船)²⁵⁹을 맞이하고,²⁶⁰ 오로적·아팔적

남 측에게 탈취되어 심대한 곤경에 처했던 진철을 밟지 않기 위한 조치였다. 『安南志略』卷4 「征討運餉」에서는 당시 鎮南王의 명령에 대해, “王以糧陷，令烏馬兒督其兵掠安南糧餉之，右丞程鵬飛·左丞阿里·劉江築木城于保賴·支靈二山，儲糧贍兵”이라 전하고 있다.

256) 富良江: 洮江이라고도 한다. 오늘날 越南 河內市 일대의 紅河이다. 『宋史』 「郭遼傳」에 “北宋熙寧八年(1075), 交陸李乾德陷邕管, 召爲安南行營經略招討使兼荊湖·廣南宣撫使……又拔決里隘, 乘勝取桃榔·門州, 大戰富良江, 斬僞王子洪眞. 乾德窮蹙, 奉表歸命”이라고 하였다.

257) 天長海口: 天長(티엔 쟁)府에 위치한 海口로서 膠海口라고도 불렀다. 南定(난딘)省 동부 해안에 위치한 膠水(지아오 투이)縣에서 바다로 들어가는 紅河의 하구이다.

258) 大滂口: 大滂海口, 즉 오늘날의 建安(키엔 안)省에 있는 꾸아 반 읍.

259) 당시 張文虎는 廣東에서 海道를 통해 運糧하는 임무를 담당하고 있었다. 이에 대해서는 『安南志略』卷4 「征討運餉」 참조.

260) 이때 즉 지원 25년(1288) 정월 8일, 元軍과 베트남 군대 사이에 전투가 벌어져, 베트남 측은 哨船 300척을 노획하고 首級 10을 획득하였으며 元軍 다수가 溺死하였다고 한다(『大越史記全書』 「本紀全書」卷5 〈仁宗 重興 4년〉). 결국 烏馬兒는 張文虎의 糧船을 호위하여 招來하는 데 실패하고, 張文虎는 勢不利하여 欽州로 돌아가버렸다(『安南志略』卷4 「征討運餉」). 元朝는 張文虎뿐만 아니라 費拱辰 부대 및 徐慶의 부대로 하여금 糧船을 이끌고 鎮南王 脫歡의 부대를 지원하도록 하였지만, 모두 실패하여 버렸다. 그리하여 元軍은 이렇게 본국에서의 군량 입수에 실패함으로써 심각한 위기에 봉착하고, 이것이 마침내 원정의 실패를 야기하는 결정적 요인이 되기에 이른다(山本達郎, 1975: 129).

등에게는 길을 나누어 산으로 들어가 양식을 구하라고 명령하였다. 교지가 개침(箇沉)·개려(箇黎)·마산(磨山)·위채(魏寨)에 군대를 집합시켰다는 것을 듣고는 군대를 출동하여 그들을 모두 함락시키고, 1만여 급(級)을 참수하였다.

二月，鎮南王引兵還萬劫。阿八赤將前鋒，奪關繫橋，破三江口，攻下堡三十二，斬數萬餘級，得船二百艘·米十一萬三千餘石。烏馬兒由大滂口趨塔山，遇賊船千餘，擊破之；至安邦口，不見張文虎船，復還萬劫，得米四萬餘石。普賴·至靈山木柵成，命諸軍居之。諸將因言：「交趾無城池可守·倉庾可食，張文虎等糧船不至，且天時已熱，恐糧盡師老，無以支久，爲朝廷羞，宜全師而還。」鎮南王從之。命烏馬兒·樊楫將水兵先還，程鵬飛·塔出將兵護送之。三月，鎮南王以諸軍還。

[지원 25년(1288)] 2월, 진남왕은 군대를 이끌고 만겁(萬劫)으로 돌아갔다.²⁶¹⁾ 아팔적은 선봉을 이끌고 관구에 놓은 부교[繫橋]를 빼앗고, 삼강구(三江口)²⁶²⁾를 격파하고, 32개의 토성[堡]을 함락시켰다. 수만여 급을 참수하고, 배 200척과 쌀 11만 3천여 석을 얻었다. 오마아는 대방구를 거쳐 탑산(塔山)까지 추격하다가 적병의 선박 천여 척을 만나 적병을 격파하였다. 안방구에 이르러 장문호의 선박이 보이지 않자 다시 만겁으로 돌아와서 쌀 4만여 석을 얻었다. 보뢰산과 지령산의 목책이 수리되어 각 군에게 그곳에 주둔하라고 명령하였다. 그러자 제장(諸將)들이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즉, “교지는 지킬 만한 성지(城池)이나 식량을 공급할 만한 창고[倉庾]가 없는데 장문호 등의 운량 선박이 오지 않고, 또한 날이 너무 뜨거워서 식량이 바닥나고 군대가 지치면 오래 견딜 수가 없어 조정의 수치가 될지 모르니 마땅히 군대를 보전하여 회군해야 할 것입니다.” 진남왕이 그 말을 따랐다.²⁶³⁾ 오마아·번즙에게 수군을 이끌고 먼저 돌아가고, 정봉비·탑출(塔出)이 군사를 이끌고 그들을 호송하라고 명령하였

261) 軍糧의 부족으로 수도 河內(하노이)로부터 북방으로 후퇴한 조치로서 2월 초의 일이었다. 이에 대해서는 『元史』 卷15 「世祖紀」 12 참조.

262) 三江口: 萬劫(반 끼엵) 인근에 위치한 지역으로 끼우 강·투엵 강·룩남 강이 합류하는 곳.

263) 이처럼 全軍 철수의 결정이 내려진 것은 지원 25년(1288) 2월 19일 이후 27일 사이의 시점이었다(山本 達郎, 1975: 130).

다.²⁶⁴) 3월에 진남왕은 제군(諸軍)을 이끌고 돌아왔다.²⁶⁵)

張文虎糧船以去年十二月次屯山，遇交趾船三十艘，文虎擊之，所殺略相當。至綠水洋，賊船益多，度不能敵，又船重不可行，乃沉米於海，趨瓊州。費拱辰糧船以十一月次惠州，風不得進，漂至瓊州，與張文虎合。徐慶糧船漂至占城，亦至瓊州。凡亡士卒二百二十人·船十一艘·糧萬四千三百石有奇。

장문호의 운량 선박은 지난해 12월에 둔산(屯山)²⁶⁶)에 도착하였는데, 교지의 배 30척을 만났다. [장]문호가 그들을 습격하여 서로 죽은 자가 대체로 비슷하였다. 녹수양(綠水洋)²⁶⁷)에 이르자 적의 선박이 더욱 많아져서 대적할 수가 없다고 판단되었고 또한 배가 무거워서 빨리 갈 수가 없자 쌀을 바다에 빠뜨려버리고 경주(瓊州)로 도망갔다.²⁶⁸) 비공신의 운량선박은 11월에 혜주(惠州)에 도착하였지만 바람 때문에 전진하지 못하고 표류하다가 경주에 닿아서 장문호와 만났다. 서경(徐慶)의 운량 선박은 표류하여 점성(占城)에 갔다가 역시 경주에 이르렀다. 모두 사졸 220명·배 11척·양식 1만 4,300석 정도가 손실되었다.

鎮南王次內傍關，賊兵大集，王擊破之。命萬戶張均以精銳三千人殿，力戰出關。諜知

264) 전군 철수의 결정을 내릴 당시 水軍側에서는, “糧艦兩入俱陷，不若毀舟從陸，爲上計”라 주장하여 鎮南王 토곤이 이에 따르려 하였으나, 주위의 반대로 水軍과 陸軍의 분할 철군 방침을 취하였다고 한다(『安南志略』卷4 「征討運餉」).

265) 『安南志略』卷4 「征討運餉」에 따르면 철수가 개시된 것은 3월 3일의 일이었다고 한다.

266) 屯山: 당시 중요 무역항의 하나였던 雲屯山으로 오늘날의 雲海道(Il des Sangliers).

267) 綠水洋: 오늘날의 파이 짜 롱 만.

268) 屯山の 전투 정황 및 그 전후 사정에 대해 『大越史記全書』 「本紀全書」卷5 〈仁宗 重興 3년 12월〉에서는, “時元舟師犯雲屯，興道王一以邊務委雲屯副將仁惠王慶餘。慶餘戰失利，上皇聞之，遣中使，鎖慶餘回關。慶餘謂中使曰，以軍憲譴，甘受罪譴，願假二三日，以圖後效，歸伏斧鑕未晚，中使從其請。慶餘料知虜師已過，運船必在後，乃收集殘卒待之。少傾，運船果至，擊破之，獲虜軍糧器械，不可勝計，俘虜亦甚多，即馳書以聞。上皇釋前罪不問，曰。元兵所資者，糧草器械，今既爲我獲，恐彼未知，猶或陸梁，乃縱其所獲人，至元營具告，元人果退”라 하고 있다.

日烜及世子·興道王等，分兵三十餘萬，守女兒關及丘急嶺，連亘百餘里，以遏歸師。鎮南王遂由單己縣趨蓋州，間道以出，次思明州。命愛魯引兵還雲南，奧魯赤以諸軍北還。日烜尋遣使來謝，進金人代己罪。十一月，以劉庭直·李思衍·萬奴等使安南，持詔諭日烜來朝。

진남왕이 내방관(內傍關)²⁶⁹에 도착하자 적병이 대규모로 집합하여 [진남]왕은 그들을 격파하였다.²⁷⁰ 만호(萬戶)인 장균(張均)에게 정예병사 3천 명을 전군[殿軍, 후미의 군대]으로 이끌고 힘써 싸워 출관(出關)하라고 명령하였다. 첩보에 따라 [진]일훤과 세자(世子)·흥도왕 등이 병사 30여만을 나누어 여아관(女兒關) 및 구급령(丘急嶺)²⁷¹을 지키면서 백여 리에 길게 늘어선 퇴군하는 대군을 막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²⁷² 진남왕은 이에 단기현(單己縣)으로 해서 녹주(蓋州)로 도망하다가 셋길로 나와서 사명주(思明州)에 도착하였다.²⁷³ 애노(愛魯)에게 군대를 이끌고 운남으로 돌아가고, 오노적(奧魯赤)은 각 로의 군대를 이끌고 북쪽으로 돌아가라고 명령하였다.²⁷⁴ [진]일훤은 사신을 보내어 사례하면서 금인(金人)²⁷⁵을

269) 內傍關: 룡남 강 연안에 위치한 關隘.

270) 內傍關의 전투는 3월 6일에 벌어졌다. 이에 대해서는 山本達郎, 1975: 131 참조.

271) 丘急嶺: 오늘날의 랑 썬 인근에 위치한 깎아.

272) 당시 실제로 女兒關 등지를 지키고 있던 베트남 군대는 약 4만여 명이었다고 한다. 이에 대해서는 山本達郎, 1975: 131 참조.

273) 이 밖에 水軍은 철수 도중 3월 8일 베트남군의 유인책에 말려 白藤江에서 참패를 당하였다. 白藤江 전투의 顛末에 대해 『大越史記全書』에서는, “元軍會白藤江, 迎張文虎等糧船不遇, 興道王擊敗之. 先是, 王已植樁於白藤, 覆叢草其上. 是日乘潮漲時, 挑戰伴北, 敵衆來追, 我軍力戰, 水落, 敵船盡膠, 阮蒯領聖翊勇義軍, 與敵戰, 擒平章奧魯赤. 二帝將軍繼至, 縱兵大戰, 元人溺死, 不可勝計, 江水爲之盡赤. 及文虎至, 兩岸伏兵奮擊又破之, 潮退甚急, 文虎糧船閣樁上, 傾覆殆盡, 元人溺死甚衆, 獲哨船四百餘艘, 內明字杜衡獲奧馬兒昔戾基玉獻于上皇”(『本紀全書』卷5, 仁宗 重興 4년 3월)이라 전하고 있다.

274) 撤軍 도중 元의 諸將들도 다수가 베트남의 공격으로 말미암아 살해되고 혹은 포로가 되었다. 阿八赤은 베트남의 毒矢에 맞아 전사하였으며, 白藤江 전투 당시 樊楫·烏馬兒·李天祐·昔戾基玉·唐兀碍 등이 포로로 잡혔다. 포로 가운데 樊楫은 毒殺되었던 듯하며, 烏馬兒는 이듬해 元으로 송환 도중 계략에 의해 溺死하고, 李天祐는 탈주하여 귀환하였으며, 昔戾基玉과 唐兀碍는 이듬해 원에 송환되었다. 이에 대해서는, 山本達郎, 1975: 132 참조.

275) 金人: 첫째, 銅으로 주조한 사람의 像이다. 『孔子家語』「觀周」에 “孔子觀周, 遂入太祖后稷之廟, 堂右階之前, 有金人焉. 三緘其口而銘其背曰: 古之慎言人也”라고 하였고, 『史記』「秦始皇本紀」에는 “收天下兵,

진상하여 자신의 죄를 대신하고자 하였다.²⁷⁶⁾ 11월에 [황제는] 유정직(劉庭直)·이사연(李思衍)·만노(萬奴) 등을 사신으로 삼아 [진]일훤을 내조하라는 조서²⁷⁷⁾를 가지고 안남으로 보냈다.²⁷⁸⁾

二十六年二月，中書省臣奏既罷征交趾，宜拘收行省符印。四月，日烜遣其中大夫陳克用等來貢方物。

[지원] 26년(1289) 2월, 중서성(中書省)의 대신들은 벌써부터 교지 정벌을 그만두고 마땅히 행성의 병부와 인신[符印]을 회수해야 한다고 주청하였다. 4월에 [진]일훤은 그 중대부(中大夫) 진극용(陳克用) 등을 보내와 토산품을 진상하였다.

二十七年，日烜卒，子日燾遣使來貢。

聚之咸陽，銷以爲鍾鐻，金人十二，重各千石，置廷宮中”이라고 하였는데 張守節의 『正義』에는 唐 袁郊의 『三輔舊事』를 인용하여 “聚天下兵器，鑄銅人十二，各重二十四萬斤”이라고 설명하였다. 두 번째로 佛像을 가리킨다. 『史記』 「匈奴列傳」에 “漢使驃騎將軍去病將萬騎出隴西 …… 破得休屠王祭天金人”이라고 하였는데, 張守節의 『正義』에는 “金人卽今佛像”이라고 해석하였다. 唐 楊衡의 〈遊峽山寺〉라는 詩에 “照耀芙蓉壺，金人居上頭”라고 한 구절이 있다. 셋째, 金箔이나 綵紙로 꾸민 사람을 뜻한다. 宋 蘇軾 〈雅安人日次舊韻〉 2에 “屏間帶日金人活，頭上迎風綵勝翻”이라고 되어 있다. 본문에서는 공물로 바친 것이므로 佛像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276) 元軍이 철수한 직후인 1288년 3월에 있었던 일이다. 당시 베트남은 近侍官인 李脩와 段可容을 파견하여 方物을 조공하며 謝罪하였다. 『安南志略』 卷14, 「歷代遣使」 참조. 이 밖에도 본문에는 등장하지 않으나 1288년 4월에는 中大夫 陳克用과 泛義郎 阮孟聰 등이 파견되어 入貢하고 있으며, 10월에는 앞서 元에 사자로 파견되었던 杜克終의 동생인 杜天戲가 使臣으로 파견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元史』 卷15 「世祖紀」 12 및 『大越史記全書』 「本紀全書」 卷5 〈仁宗 重興 4년 10월〉조 참조.

277) 原文이 『安南志略』 卷2, 「大元詔制」〈至元二十五年十二月諭安南世子詔〉에 수록되어 있다.

278) 이 가운데 李思衍에게는 禮部侍郎, 萬奴에게는 檢校兵部郎中의 직위를 부여하여 각각 國信使와 國信副使로 삼아 베트남에 파견하였다. 아울러 이들과 함께 至元 23년(1287) 元에 사자로 파견되어 元류 상태로 있던 阮義全 등 베트남의 사자 24명도 귀국시켰다. 이에 대해서는, 『元史』 卷15 「世祖紀」 13 참조.

[지원] 27년(1290), [진]일훤이 죽고 아들 [진]일준(陳日燾)²⁷⁹이 사신을 보내와 진공하였다.

二十八年十一月，鎮守永州兩淮萬戶府上千戶蔡榮上書，言軍事大要，以朝廷賞罰不明，士不用命，將帥不和，坐失事機，其弊有不可勝言者。書上，不報。

[지원] 28년(1291) 11월, 영주(永州)²⁸⁰를 진수(鎮守)하는 양회(兩淮) 만호부(萬戶府)의 상천호(上千戶) 채영(蔡榮)이 상서하여 군사의 대요를 말하였다. 즉 조정의 상벌이 분명하지 않고, 사병이 명령을 듣지 않으며 장수들이 불화하여 앉아서 기회를 잃었고, 그 폐단이 말할 수 없이 많다고 하였다. 상주가 올라갔으나 [황제는] 답이 없었다.

二十九年九月，遣吏部尚書梁曾·禮部郎中陳孚持詔再諭日燾來朝。詔曰：「省表具悉。去歲禮部尚書張立道言，曾到安南，識彼事體，請往開諭使之來朝。因遣立道往彼。今汝國罪愆既已自陳，朕復何言。若曰孤在制，及畏死道路不敢來朝，且有生之類寧有長久安全者乎。天下亦復有不死之地乎。朕所未喻，汝當具聞。徒以虛文歲幣，巧飾見欺，於義安在。」

279) 陳日燾(1257~1308; 재위 1278~1293): 陳朝의 제3대 황제인 仁宗(년똥). 본명은 陳吟이지만 『元史』에는 陳日燾으로 기록되어 있다. 23세이던 지원 15년(1278)에 부친 聖宗에게서 讓位를 받아 즉위하였다. 그 5년 후인 지원 19년(1282)에 원 세조로부터 복속 요구를 강요받았으나 거절하여 지원 21년(1284)과 지원 24년(1287) 두 차례에 걸친 침공을 받았다. 그는 上皇인 聖宗 및 명장 陳興道와 함께 맞서 항전하며, 한때는 元軍의 압도적인 군세로 말미암아 위기상황에 빠진 적도 있었고, 또 이로 인해 仁宗은 元朝에 항복하는 것도 고려하였다. 하지만 陳興道 등의 강경한 반대로 이에 번복하고 철저한 항전을 계속하여 격퇴시켰다. 그는 재위 16년 만인 지원 30년(1293) 관례에 따라 아들인 英宗에게 양위하고 太上皇이 되었다. 하지만 그 직후 출가하여 佛道에 전념하면서 竹林派라는 새로운 禪宗의 종파를 개창하였다.

280) 永州: 隋 開皇 9년(589)에 설치하였고, 치소는 零陵縣(湖南省 永州市)이었다. 大業 연간(606~616) 초에 零陵郡으로 바꾸었다가 唐 武德 4년(621)에 다시 永州라 하였다. 天寶 원년(742)에 또 零陵郡으로 바꾸었고 乾元 원년(758)에 永州라고 불렀다. 관할 영역은 오늘날 湖南省 永州·東安·祁陽과 廣西省 全州·灌陽 등 市縣 지역이다. 五代 시대에 全州와 나누어서 두었고 元代에 永州路로 개편하였다.

[지원] 29년(1292) 9월에 이부상서(吏部尙書) 양증(梁曾)·예부낭중(禮部郎中) 진부(陳孚)에게 조서를 가지고 가서 다시 [진]일존이 내조하라고 타이르게 하였다.²⁸¹⁾ 조서에 이르기를, “표를 살피어 온전히 깨닫도록 하라. 지난해에 예부상서(禮部尙書) 장립도(張立道)²⁸²⁾가 일찍이 안남에 도착하여 그곳의 사정을 알아보고, [안남의 국왕으로 하여금] 내조하도록 하는 개유(開諭)의 사자로 가겠다고 자청했었다. 그래서 [장]립도를 보내어 거기에 가도록 한 것이다.²⁸³⁾ 오늘날 너희 나라의 죄과를 이미 스스로 진술했으니 짐이 다시 무슨 말을 하겠는가? 만약 부모의 상을 당하였다거나,²⁸⁴⁾ 노상에서 죽을까 두려워서 감히 내조할 수 없다고 말할 것인가?²⁸⁵⁾ 그렇다면 살아 있는 온갖 것에 어찌 오래오래 안전한 것이 있겠는가? 천하에 또한 죽지 않을 수 있는 곳이 있단 말인가? 짐이 아직 모르는 바가 있다면 네가 당연히 구체적으로 말하라. 단지 쓸데없는 문서나 세폐(歲幣)만 가지고 교묘하게 꾸며서 속이려 한다면 도의상 어떻게 되겠는가?”²⁸⁶⁾라고 하였다.

三十年，梁曾等使還，日燭遣陪臣陶子奇等來貢。廷臣以日燭終不入朝，又議征之。遂拘留子奇於江陵，命劉國傑與諸侯王亦(里吉)[吉里]解等同征安南，敕至鄂州與陳益稷議。八月，平章不忽木等奏立湖廣安南行省，給二印，市蜚船百斛者千艘，用軍五萬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 281) 베트남에 出使하기 전 梁曾의 직위는 湖南道宣慰副使였으며 陳孚는 翰林國史院編修官이었다. 그들은 이듬해인 至元 30년(1293) 정월 베트남에 당도하였다. 『元史』 卷178 「梁曾傳」 참조.
- 282) 張立道(?~?): 世祖 至元 28년(1291) 12월 베트남에 使者로 파견된 인물. 張立道를 파견하기 전 世祖는 베트남에 대한 또 한 차례의 정벌 준비에 착수하였으나 丞相 完澤 및 平章 不忽木 등의 간언으로 出兵을 단념하였다. 그 대신 張立道 등을 사신으로 베트남에 파견하여 베트남 군주(仁宗)의 親朝를 강력하게 요구하였다. 하지만 베트남은 이를 거부하고 阮大泛·何維巖 등을 사신으로 파견하고 6년분에 상당하는 貢物을 바쳤다(山本達郎, 1975: 134).
- 283) 張立道의 使行 道程과 行적은 『安南志略』 卷3 「大元遣使」「附張尙書行錄」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 284) 元側 사자 張立道의 仁宗 親朝 요구에 대해 거부하면서 베트남이 내세운 명분의 핵심은, 仁宗이 부친 聖宗의 服喪 중에 있다는 점이었다. 『大越史記全書』 「本紀全書」 卷5 〈仁宗 重興 7년〉 참조.
- 285) 陳朝側은 지원 29년(1292)에 올린 上表에서 親朝가 不可한 것의 하나로, “又可知臣生長遐陬, 水土不服, 寒暑不諧. 小國諸使往來, 爲瘴死者六七. 設不能自量, 徒死於道路, 終無益於事”(『安南志略』 卷6, 「表章」 〈至元二十九年安南世子陳上表言〉)라는 사정을 들고 있다.
- 286) 이 原文이 『安南志略』 卷2 「大元詔制」 〈至元二十九年諭安南詔〉에 수록되어 있다.

六千五百七十人·糧三十五萬石·馬料二萬石·鹽二十一萬斤，預給軍官俸津·遣軍人水手人鈔二錠，器仗凡七十餘萬事。國傑設幕官十一人，水陸分道並進。又以江西行樞密院副使徹里蠻爲右丞，從征安南，陳巖·趙修己·雲從龍·張文虎·岑雄等亦令共事。益稷隨軍至長沙，會寢兵而止。

[지원] 30년(1293), 양증 등이 사신으로 갔다 돌아올 때 [진]일존은 배신(陪臣) 도자기(陶子奇) 등을 보내어 내공하였다. 조정의 대신들은 [진]일존이 끝내 입조(入朝)하지 않았기 때문에²⁸⁷⁾ 다시 논의하여 정벌하기로 결정하였다.²⁸⁸⁾ 이때에 [도]자기를 강릉(江陵)에 구류시키고, 유국걸(劉國傑)에게 제후왕(諸侯王) 역(리길)[길리]래(亦(里吉)[吉里]解) 등과 더불어 안남을 정벌하라고 명령을 내렸다. 칙령이 악주(鄂州)에 도착하자 진익직(陳益稷)과 더불어 상의하였다.²⁸⁹⁾ 8월, 평장(平章) 불홀목(不忽木) 등이 호광안남행성(湖廣安南行省)을 설립하자고 상주하여 2개의 [관]인(官印)을 주고, [용량]이 100곡(斛) 단선(蠶船)²⁹⁰⁾ 1,000척을

287) 이때 陳朝 베트남은 仁宗의 질병을 이유로 들어 親朝를 거절하였다. 이에 대해서는, 『大越史記全書』 「本紀全書」 卷5 〈仁宗 重興 9년〉 참조.

288) 베트남에 대한 재정벌의 방침이 결정된 것은 지원 30년(1293) 8월경의 일이다. 당시 元 조정에서 베트남에 대한 정벌을 결의하게 된 배경에는 陳朝 仁宗의 親朝 거부뿐만 아니라 다른 문제도 介在해 있었다. 즉 지원 28년(1291) 무렵부터 베트남의 변경지대인 上思州의 土官 黃聖許가 陳朝側과 결탁하여 元에 반항하는 동란을 일으켰기 때문이다. 元側은 수차에 걸쳐 黃聖許를 토벌하였지만 베트남이 은닉하며 비호함으로써 원의 경계를 유발하였다. 여기에서 자바에 대한 원정군이 성공을 거두지 못하고 지원 30년(1293) 7월 귀환하였던 것도 世祖로 하여금 동남아 일대에 대한 전반적 정책의 조정과 재고를 촉구하는 계기가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배경에서 世祖의 제3차 베트남 출병이 결정되었던 것이다(山本達郎, 1975: 135~136).

289) 陳益稷은 元朝의 세 차례에 걸친 베트남 원정이 실패로 끝난 이후 중국에 머물며 鄂州와 漢陽府 등에서 거주하였다. 元朝는 그에게 鈔와 土地를 지급하고 官職을 주며 國王으로 대우하였다. 陳益稷도 元에 새로운 天子가 즉위하거나 혹은 元旦節 등이 되면 그때마다 國王으로서 表文을 바쳤다. 그가 文宗 天曆 2년(1329)에 사망하자 그 수년 후인 順帝 至元 원년(1335) 아들인 陳端午가 다시 安南國王에 책봉되었다. 반면 元 조정은 陳朝 베트남의 실제 군주에 대해서는 國書 등에서 시종 '世子'라 지칭하였다(山本達郎, 1975: 142).

290) 蠶船: 蠶人들이 집으로 사용하던 배이다. 蠶船을 '蠶'으로 쓰는 용례도 있는데 宋 蘇軾의 『東坡志林』 「記過合浦」에서는 “自興廉村淨行院下，乘小舟至官寨，聞自此西皆漲水，無復橋船。或勸乘蠶并海即白石”이라 하였다. 蠶은 蠃이라고도 부르며 고대 남방에서 水上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가리킨다. 宋 周去

구매하고, 군사 56,570명·양식 35만 석·말사료 2만 석·소금 21만 근을 쓸 수 있게 하였다. 군관의 봉진(俸津)·파견한 군인과 수수(水手)에게 사람당 2정(錠)의 [전]초(錢鈔)를 미리 지급하고, 병장기는 모두 70여만 건이 되었다. [유]국결은 막부관원[幕官] 11명을 두고, 수륙(水陸)으로 길을 나누어 함께 진군하였다. 또한 강서(江西) 행추밀원(行樞密院) 부사(副使) 철리만(徹里蠻)을 우승(右丞)으로 삼아서, 안남 정벌을 따라서 진암(陳巖)·조수기(趙修己)·운종룡(雲從龍)·장문호(張文虎)·잠웅(岑雄) 등이 역시 공동으로 참여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진]익직이 군대를 따라서 장사(長沙)²⁹¹⁾에 도착하면서 때마침 군사행동이 멎게 되었다.²⁹²⁾

三十一年五月，成宗即位，命罷征，遣陶子奇歸國。日燻遣使上表慰國哀，并獻方物。六月，遣禮部侍郎李衍·兵部郎中蕭泰登持詔往撫綏之，其略曰：「先皇帝新棄天下，朕嗣守大統，踐祚之始，大肆赦宥，無間遠近。惟爾安南，亦從寬宥，已敕有司罷兵，遣陪臣陶子奇歸國。自今以往，所以畏天事(天)[大]者，[八]其審思之。」

[지원] 31년(1294) 5월, 성종(成宗)²⁹³⁾이 즉위하여 정벌을 중지할 것을 명령하고 도자기를 귀국하도록 보냈다. [진]일존은 사신을 보내어 국상을 위문하는 표를 올리고 아울러 토산품을 진상하였다.²⁹⁴⁾ 6월에는 예부시랑(禮部侍郎) 이간(李衍)·병부낭중(兵部郎中) 소태등(蕭泰登)을 보내어 그들을 안무하는 조서를 보냈다.²⁹⁵⁾ 조서에는 대략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선

非의 『嶺外代答』 「蠻蠻」에는 “以舟爲室，視水如陸，浮生江海者，蠻也”라고 지적하고 있다.

291) 長沙: 隋 開皇 9년(589)에 臨湘縣을 바꾸어 두었는데 치소는 오늘날 湖南省 長沙市에 있었다.

292) 베트남 재정벌 계획은 至元 31년(1294) 정월 世祖 쿠빌라이의 死去와 함께 중도 폐기되고 만다.

293) 成宗(1265~1307, 재위 1294~1307): 世祖 쿠빌라이의 뒤를 이은 6대 칸 테무르. 쿠빌라이의 장자인 진김의 아들로써, 즉위 이후 諸王의 投下를 삭감하고 江南 일대의 상대적으로 과중한 조세를 경감시키는 등 국가 질서의 안정에 노력하였다. 재위 기간 동안 하이두의 난을 종식시켜 제국의 통합에도 기여하였다. 한편으로 賞賜를 남발함으로써 재정 부족을 심화시켰고 이로 인해 交鈔 가치 저하의 단초를 제공하였다는 평가를 받기도 한다.

294) 陳朝 베트남 측이 元朝에 사신을 보낸 것은 元 成宗 元貞 원년(陳朝 英宗 興隆 3, 1295) 2월의 일이다. 이 사신들은 大藏經을 입수하여 돌아와서, 그 原本은 天長府에 보관하고 副本을 간행하였다고 한다(『大越史記全書』 「本紀全書」 卷5 <英宗 興隆 3년>).

황제께서 세상을 떠나시고, 짐이 대통(大統)을 이어받아 통치하게 되었다. 즉위[踐祚]²⁹⁶하면서 원근을 따지지 않고 크게 천하에 사면을 실시한다. 너희 안남에 대해서도 역시 관용을 베풀어 이미 유사(有司)에 파병하라는 칙령을 내리고, 배신(陪臣) 도자기도 귀국하도록 하였다. 지금부터 하늘을 경외하고 대[국]을 섬기는 태도를²⁹⁷ 잘 생각해보도록 하여라.”²⁹⁸)

大德五年二月，太傅完澤等奏安南來使鄧汝霖竊畫宮苑圖本，私買輿地圖及禁書等物，又抄寫陳言征收交趾文書，及私記北邊軍情及山陵等事宜，遣使持詔責以大義。三月，遣禮部尚書馬合馬·禮部侍郎喬宗亮持詔諭日燾，大意以「汝霖等所爲不法，所宜窮治，朕以天下爲度，敕有司放還。自今使价必須選擇；有所陳請，必盡情悃。向以虛文見給，曾何益於事哉，勿憚改圖以貽後悔」。中書省復移牒取萬戶張榮實等二人，與去使偕還。

※ [성종(成宗)] 대덕(大德) 5년 2월, 태부(太傅)²⁹⁹完택(完澤) 등이 상주하기를, “안남에서 온 사신 등여림(鄧汝霖)³⁰⁰ 등이 몰래 궁원(宮苑, 궁전과 원림)의 도본(圖本)을 그리고, 사사로이 여지도(輿地圖) 및 금서(禁書) 등의 물품을 구입합니다. 뿐만 아니라 교지를 정벌하여 접수한 문서를 초록하며 북변(北邊)의 군정 및 산릉(山陵) 등의 사정을 사적으로 기록한다

295) 『安南志略』에 따르면 베트남 측의 使者 陶子奇의 송환과 禮部侍郎 李衍·兵部郎中 蕭泰登의 파견이 至元 31년(1294) 4월 동시에 진행되었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卷2「大元詔制」〈至元三十一年四月成宗皇帝聖旨諭安南國陳日燾詔〉). 禮部侍郎 李衍·兵部郎中 蕭泰登 일행이 陳朝 베트남에 당도한 것은 1295년 2월의 일이었다(『大越史記全書』「本紀全書」卷5〈英宗 興隆 3년〉).

296) 踐祚: 임금의 자리를 繼承하는 것.

297) 畏天事大: 『元史』「校勘記」에 따르면 『安南志略』卷2「大元詔制」至元 31년〈成宗皇帝聖旨〉에 의거하여 天을 大로 바꾼 것이다.

298) 『安南志略』卷2「大元詔制」〈至元三十一年四月成宗皇帝聖旨諭安南國陳日燾詔〉에 원문이 수록되어 있다.

299) 太傅: 古代 官職名. 春秋時期的 晉國에서 시작. 국왕을 보좌하는 大臣으로 특히 국왕이 어리거나 혹은 缺位하였을 때 대신하여 국가를 관리하였다. 또한 禮法을 제정하고 시행하는 것을 관장하였다.三公의 하나이자 正一品으로 전제 통치자의 핵심적인 위치에 있었다. 이후 변화를 거치면서 역대 왕조에 설치되었으나 후대에는 實職은 없이 大官에 대한 加銜으로 사용하였다.

300) 『安南志略』卷14「歷代遣使」에는 大夫 鄧霖으로 되어 있다.

하니 사신을 보내어 대의로써 문책하는 조서를 내려야 합니다”고 하였다. 3월에 예부상서 마합마(馬合馬)·예부시랑 교종량(喬宗亮)을 보내어 [진]일추를 깨우치는 조서를 보냈다. 그 대강의 뜻은 다음과 같다. “[등]여림 등이 저지른 불법은 마땅히 철저히 [죄를] 다스려야 하나, 짐은 천하를 생각하여 유사(有司)에 석방하여 돌려보내라는 칙령을 내렸다. 지금부터 사신(使价)들은 반드시 선택해야 할 것이다. 즉 진술하거나 청구할 것이 있으면 반드시 거짓 없는 정성을 다해야 할 것이다. 예전처럼 허문(虛文)³⁰¹⁾이나 보이고 속이는 것은 일을 처리하는 데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 개선할 것을 꺼리지 말아야 후회가 남지 않을 것이다.”³⁰²⁾ 중서성은 다시 만호 장영실(張榮實) 등 2명을 데려다가 전번에 온 사신 일행과 함께 돌려보내라고 공문을 보냈다.

武宗即位，下詔諭之，屢遣使來貢。至大四年八月，世子陳日峯遣使奉表來朝。

무종(武宗)이 즉위하면서 그들을 타이르라는 조서를 내리니 [안남에서는] 거둬 사신을 파견하여 내공하였다.³⁰³⁾ 지대(至大) 4년(1311) 8월에 세자 진일추(陳日峯)³⁰⁴⁾가 사신을 보내어 표장을 받들고 내조하였다.

301) 虛文: 걸만 꾸미는 쓸데없는 禮儀나 법제를 뜻한다.

302) 『安南志略』卷3 「大元奉使」에서는 이때의 사신 파견에 대해, “大德五年，遣尙書麻合麻·禮部侍郎喬宗亮，齎詔諭安南，依前三歲一貢，及其自來朝廷，不復遣使，仍引其來使鄧汝霖等還國”이라 기술하고 있다.

303) 武宗의 즉위(1308) 이후 至大 4년(1311)까지 陳朝 베트남에서, 至大 원년(1308)에는 阮克遵·范鼓資를, 이어 至大 2년(1309)에는 童應韶·謝大薰을, 至大 4년(1311)에는 黎仁傑·武子班을 파견하여 朝貢하고 있다. 『安南志略』卷14 「歷代遣使」 참조.

304) 陳日峯(?~?; 재위 1293~1314): 陳朝 베트남의 제4대 황제인 英宗(아인 쩡). 仁宗의 장자이며 본명은 陳焜이다. 원조와의 전쟁이 종료된 이후 즉위하여 그 치세를 통해 내정의 안정을 바탕으로 점차 儒學이 보급되고 儒者 계층이 세력을 확대해갔다. 전쟁으로 중단되었던 과거 시험도 재개되었다. 하지만 불교에 대해서도 우호적이어서 원 成宗 元貞 원년(1295)에는 원에 사신을 보내 대장경을 구해오게 하여 간행시켰다. 이러한 불교 숭배를 배경으로 『禪苑集英』과 같은 불교 서적도 간행되기에 이른다. 대외적으로는 남방의 참파로부터 烏州와 里州를 획득하여 영역을 확장하였으며 元 仁宗 皇慶 원년(1312)에는 대군을 이끌고 친정하여 참파의 수도 비자야를 점령하기도 하였다. 원 인종 延祐 원년(1314) 관례에 따라 아들 명종(민똥)에게 양위하고 상황이 되었다.

仁宗皇慶二年正月，交趾軍約三萬餘衆，馬軍二千餘騎，犯鎮安州雲洞，殺掠居民，焚燒倉廩廬舍，又陷祿洞·知洞等處，虜生口孳畜及居民貲產而還，復分兵三道犯歸順州，屯兵未退。廷議俾湖廣行省發兵討之。四月，復得報：交趾世子親領兵焚養利州官舍民居，殺掠二千餘人，且聲言，「昔右江歸順州五次劫我大源路，掠我生口五千餘人；知養利州事趙珏禽我思浪州商人，取金一碾，侵田一千餘頃，故來讎殺」。

인종(仁宗) 황경(皇慶) 2년(1313) 정월, 교지 군대 약 3만여 명과 마군 2천여 기(騎)가 진안주(鎮安州)의 운동(雲洞)을 침범하여 거주민들을 살해하고 약탈하며, 창고[倉廩]와 가옥[廬舍]을 불태웠다. 또한 녹동(祿洞)³⁰⁵·지동(知洞) 등을 공격하여 생구(生口)와 가축[孳畜]을 사로잡고 거주민의 재산을 빼앗고 돌아갔다. 다시 군대를 3로 나누어 귀순주(歸順州)³⁰⁶를 침범하더니 군대를 주둔시키고 돌아가지 않았다. 조정에서는 호광행성(湖廣行省)으로 하여금 군대를 출동해서 그들을 토벌하라고 논의하였다. 4월에 다시 보고가 있었는데 즉, “교지의 세자가 친히 군대를 이끌고 양리주(養利州)의 관아와 민간 거주 지역을 불태우고 2천여 명을 살해하고 약탈해갔다”고 하였다. 또한 말하기를, “예전에 우강(右江)³⁰⁷의 귀순주에서 5차례나 우리의 대원로(大源路)를 습격하여 우리의 포로 5천여 명을 약탈해갔다. 양리주(養利州)의 지사(知事) 조각(趙珏)이 우리 사랑주(思浪州)의 상인을 사로잡아서 금 1연(碾)을 빼앗고 전지 1천여 경을 침탈해갔기 때문에 와서 원수를 죽인 것이다”라고 하였다.

305) 祿峒: 潯峒이라고도 한다. 북송대에 두었으며 邕州 左江道에 속하였다. 치소는 오늘날 廣西省 靖西縣 서쪽 35리 祿洞鄉이었다. 원대에는 鎮安路에 속하였다.

306) 歸順州: 元初에 歸化州를 바꾸어 두었는데 鎮安路에 속하였다. 치소는 현재 廣西省 靖西縣 남쪽 10리 舊州村이었다. 明 郭子章의 『郡縣釋名』 廣西卷에는 “遠人歸順之義”에서 그 명칭을 따온 것이라 하였다. 明初에 폐지하여 歸順峒으로 하였다가 弘治 9년(1496)에 다시 歸順州를 두고 鎮安府에 속하게 하였다. 天啟 연간(1621~1627)에 오늘날 靖西縣으로 치소를 옮겼다. 淸 光緒 12년(1886)에 歸順直隸州로 승격되었고, 1912년에는 歸順府로 되었다.

307) 右江: 右溪라고도 부른다. 현재 廣西省 서부의 鬱江 상류의 하나이다. 『寰宇記』 卷166 <邕川>에 “右水源出西北田州, 流入鬱江”이라고 하였고, 『明一統志』 卷85 <田州府>에는 右江이 “在府城東南. 源出雲南富州, 歷上林洞, 至本府流入”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六月，中書省俾兵部員外郎阿里溫沙，樞密院俾千戶劉元亨，同赴湖廣行省詢察之。元亨等親詣上·中·下由村，相視地所，詢之居民農五，又遣下思明知州黃嵩壽往詰之，謂是阮盞世子太史之奴，然亦未知是否。於是牒諭安南國，其略曰：「昔漢置九郡，唐立五管，安南實聲教所及之地。況獻圖奉貢，上下之分素明；厚往薄來，懷撫之惠亦至。聖朝果何負於貴國，今胡自作不靖，禍焉斯啓。雖由村之地所係至微，而國家輿圖所關甚大。兼之所殺所虜，皆朝廷係籍編戶，省院未敢奏聞。然未審不軌之謀誰實主之？」

[황경 2년(1313)] 6월, 중서성에서는 병부원외랑(兵部員外郎) 아리온사(阿里溫沙)를 파견하고, 추밀원에서는 천호(千戶) 유원형(劉元亨)을 파견하여 함께 호광행성으로 가서 그들을 순찰하도록 하였다. [유]원형 등은 직접 상·중·하유촌(下由村)으로 가서, [사건이 발생한] 곳을 자세히 보고, 거주민 농오(農五)에게 물어보았다. 또한 하사명(下思明)의 지주 황송수(黃嵩壽)를 보내서 그에게 힐문하였다. [그는] 완록(阮盞) 세자 태사(太史)³⁰⁸의 노복이라 하였는데 역시 확실한 정황을 모르고 있었다. 그래서 안남국에 깨우치는 공문을 보냈는데 그 내용은 대략 다음과 같다. “예전에 한(漢)에서는 9군(九郡)을 설치하고, 당(唐)에서는 5관(五管)³⁰⁹을 세웠으니, 안남은 실로 [중화의] 성위와 교화[聲教]가 미치는 곳이다. 하물며 판도를 바치고 공물을 납부하는데 상하의 명분이 분명히 드러나는 것이다. 많이 보내고 적게 오는 것도 회유와 안무의 은혜를 역시 베풀 것이다. 본조[聖朝]가 과연 어찌 귀국(貴國)에 부담을 주겠는가? 오늘날 무엇 때문에 스스로 안정을 해치고 여기에서 화근을 만드는가? 비록 유촌(由村)에 딸린 지역들이 매우 자질구레하지만 국가의 판도와 매우 큰 관련이 있다.

308) 太史: 官名. 西周와 春秋 시대에 太史는 史事를 기록하거나 史書를 편찬하고, 文書를 기초하는 일을 담당하였다. 아울러 국가의 典籍과 天文·曆法 등도 관장하였다. 秦漢에서는 太史令이라 하였는데 漢에서는 太常에 속하여 天時와 星曆을 담당하였다. 魏晉 이후가 되면 修史의 직책을 著作郎으로 귀속시키고, 太史는 曆法을 전적으로 담당하게 된다. 隋에서는 太史監, 唐에서는 太史局으로 바꾸었다. 宋에는 太史局·司天監·天文院 등의 名稱이 있었다. 元에서는 太史院으로 개칭하였다. 明清에서는 欽天監으로 칭하고, 修史의 직무는 翰林院에 귀속시켰기 때문에 翰林을 太史라고 부르기도 한다(『通典』「職官」 8 및 『續通典』「職官」 8 참조).

309) 五管: 唐代 ‘嶺南五管’의 簡稱. 관할 영역은 오늘날 廣東省과 廣西省 지역 및 越南의 북부에 해당한다. 『舊唐書』「地理志」에는 “永徽後, 以廣·桂·容·邕·安南府, 皆隸廣府都督統攝, 謂之五府節度使, 名嶺南五管”이라 하였는데 그 후에 廣州都督府로 명칭이 바뀌면서도 五管이라는 명칭도 병존하였다.

그와 더불어 [너희들이] 죽이고 사로잡아간 사람들은 모두 조정의 호적에 들어 있는 편호(編戶)라서 성의 성원(省院)에서는 아직 감히 [황제에게] 아뢰지도 못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상도에 벗어난 일을 도대체 누가 주동한 것인지 알 수가 없다.”

安南回牒云：「邊鄙鼠竊狗偷輩，自作不靖，本國安得而知？」且以貨賂偕至。元亨復牒責安南飾辭不實，卻其貨賂，且曰：「南金·象齒，貴國以爲寶，而使者以不貪爲寶。來物就付回使，請審察事情，明以告我。」而道里遼遠，情辭虛誕，終莫得其要領。元亨等推原其由：因交人向嘗侵永平邊境，今復倣效成風。兼聞阮蓋世子乃交趾跋扈之人。爲今之計，莫若遣使諭安南，歸我土田，返我人民，仍令當國之人正其疆界，究其主謀，開費之人戮於境上，申飭邊吏毋令侵越。卻於永平置寨募兵，設官統領，給田土牛具，令自耕食，編立部伍，明立賞罰，令其緩急首尾相應，如此則邊境安靜，永保無虞。事聞，有旨，俟安南使至，卽以諭之。

안남은 회답 문서에서 “변경[邊鄙]의 좀도둑 같은[鼠竊狗偷]³¹⁰⁾ 무리들이 스스로 소요를 일으키는데 본국에서 어떻게 알겠습니까?”라고 말하면서 또한 재물을 함께 보냈다. [유]원형은 다시 안남이 꾸미는 말로 [회답이] 불성실하다고 책망하는 문서를 보내고 그 재물을 거절하였다. 또한 말하기를, “남금(南金)³¹¹⁾과 상아(象齒)는 귀국이 보물이라고 여기나 사자(使者, 유원형)는 보물을 탐하지 않는다. 보낸 물건은 돌아가는 사신에게 줄 테니 사정을 자세히 살펴서 분명히 나에게 말하라”고 하였다. 그런데 길이 아주 멀고 사정을 말하는 언사가 거짓되고 근거가 없어서 끝내 그 요령을 알 수 없었다. [유]원형 등은 일이 생긴 연유를 추측해보니 즉, “교[지]인은 일찍부터 영평(永平)의 변경을 침범했는데, 오늘날 다시 따라 하다보

310) 鼠竊狗偷: 쥐나 개처럼 몰래 물건을 훔친다는 뜻으로, 좀도둑을 이르는 말.

311) 南金: 南方에서 산출되는 銅을 가리키는데 후에는 귀중한 물건을 뜻하게 되었다. 『詩』 「魯頌」 〈泮水〉에 “元龜象齒，大賂南金”이라는 구절이 있다. 이에 대해 『毛傳』에서 “南謂荊揚也”라고 하였고, 鄭玄의 箋에서 “荊揚之州，貢金三品”이라 하였으며, 孔穎達의 疏에는 “金卽銅也”라고 설명하였다. 『後漢書』 「宦者傳」 序에 “南金·和寶·冰紈·霧縠之積，盈仞珍藏”이라는 용례도 보이며 唐 白居易의 〈酬張太祝晚秋臥病見寄〉 詩에는 “何以報珍重，慙無雙南金”이라고 되어 있다. 전하여 南方의 우수한 人才를 비유하는 말로도 사용되었다.

니 풍조가 되어버린 것이다. 아울러 듣자 하니 완록 세자는 교지에서 발호(跋扈)하는 인물이다. 오늘날 좋은 방법은 안남에 사자를 보내어, 우리의 전토를 돌려주고 우리 인민들을 돌려 보내주라고 깨우치는 것이다. 또한 정권을 잡은 사람에게 강토의 경계를 확정하도록 하고 그 주모자를 찾아서 사단을 일으킨 자는 변경 상에서 사형에 처하고 변경의 관리들은 [사람들이] 침월(侵越)³¹²하지 못하도록 단단히 타일러 경계해야 한다”고 하였다. 다시 영평에서는 채(寨)를 설치하고 사병을 모집하였다. 관원을 두고 일체를 통할하여 다스리면서 전토와 경우(耕牛)·농기구를 지급하여 스스로 경작하여 먹도록 하였고 부대로 편성하여 상벌을 분명히 세워서 정하였다. 그들로 하여금 유사시에 앞뒤가 서로 호응하게 하였더니 이렇게 하니 변경이 안정되었고, 영원히 걱정이 필요 없다는 것이 보증되었다. 이 사정을 상주하고 나서 [성]지(聖旨)가 내려와 안남의 사신이 도착한 후에 [상주한 바대로] 즉시 안남을 깨우쳤다.

自延祐初元以及至治之末，疆場寧謐，貢獻不絕。泰定元年，世子陳日曠遣陪臣莫節夫等來貢。

[인종] 연우(延祐) 연간(1314~1320) 초부터 [영종(英宗)] 지치(至治) 연간(1321~1323) 말에 이르기까지, 변경[疆場]이 편안하게 안정되고 진공이 그치지 않았다. [진종(晉宗)] 태정(泰定) 원년(1324), 세자 진일광(陳日曠)³¹³은 배신(陪臣) 막절부(莫節夫) 등을 보내와 진공하였다.

益稷久居於鄂，遂授湖廣行省平章政事；當成宗朝，賜田二百頃；武宗朝，進銀青榮祿大夫，加金紫光祿大夫，復加儀同三司。文宗天曆二年夏，益稷卒，壽七十有六，詔賜

312) 侵越: 地境을 넘어서 侵擄하여 들어가거나 들어오는 것.

313) 陳日曠(?~?): 재위 1314~1329): 陳朝 베트남의 제5대 황제인 明宗(민똥)으로서 英宗의 넷째 아들이었다. 그는 대대적인 개혁을 시도하여 文武의 官等を 조정하고 병사들에 대한 문신 관습을 전면 금지시켰다. 이러한 조치는 중국 제도를 수용한 것으로, 베트남 고유 전통에서의 이탈을 의미하였다. 이로 인해 그 치세를 통해 중국화하는 지배계층과 토착의 관습을 고수하는 농민 대중 사이에 점차 간극이 벌어지기 시작하였다.

錢五千緡。至順元年，諡忠懿王。

[진]익직은 오랫동안 악[주](鄂州)에 거주했는데 명목상으로 호광행성 평장정사(平章政事)를 제수하였다. 성종조에 전토(田土) 200경을 내려주었고, 무종조 때에는 은청영록대부(銀靑榮祿大夫)로 높여주고, 금자광록대부(金紫光祿大夫)³¹⁴를 더하여주었으며,³¹⁵ 다시 의동삼사(儀同三司)를 더하였다. 문종(文宗) 천력(天曆) 2년(1329) 여름에 [진]익직이 죽었는데 나이는 76세였다. [황제는] 사전(賜錢) 5천 민(緡)을 주라는 조를 내렸다. [문종] 지순(至順) 원년(1330), 충의왕(忠懿王)이라는 시호를 주었다.

三年夏四月，世子陳日煒遣其臣鄧世延等二十四人來貢方物。

[지순] 3년(1332) 여름 4월에 세자(世子) 진일부(陳日煒)³¹⁶가 그의 신하 등세연(鄧世延) 등 24인을 보내와 토산품을 진공하였다.

314) 金紫光祿大夫: 文官으로 官階는 唐代는 正三品, 宋代에는 正二品, 元代는 從一品이었다. 그 관장 업무를 보면 戰國時代에는 中大夫였고, 漢武帝 때에 처음으로 光祿大夫라고 바꾸어 官秩이 2,000石에 해당하였다. 업무는 顧問과 應對를 맡았는데 光祿勳에 속하였다. 魏晉 이후에는 定員이 없이 모두 加官이나 褒贈의 관직이 되었다. 金章紫綬를 더하면 金紫光祿大夫라 하고, 銀章靑綬를 더하면 銀靑光祿大夫라고 하였다. 明清 兩代에는 이 官銜을 두지 않았다.

315) 武宗朝進銀靑榮祿大夫加金紫光祿大夫: 『元史』 「校勘記」에 따르면 『安南志略』 卷13 「內附侯王」에는, 陳益稷이 銀靑榮祿大夫가 된 것은 武宗 至大 원년(1308)이고, 金紫光祿大夫를 더한 것은 仁宗 皇慶 원년(1312)으로 되어 있다. 아마도 저본의 '加金紫光祿大夫' 위에 '仁宗朝'가 빠진 것 같다.

316) 陳日煒(?~?; 재위 1329~1341): 陳朝 베트남의 제6대 황제인 憲宗(히엔 쩡)으로서 明宗의 次子였다. 9세의 어린 나이로 황제가 되었으나 그의 治世 12년 동안 陳(쩐) 왕조는 上皇 明宗의 존재로 인해 그런대로 평온을 유지하였다. 明宗은 黑江(다 강) 중부 유역에 거주하던 므엥 족이 자주 소요를 일으키자 元 順帝 至元 3년(1337) 이를 평정했고, 이보다 앞선 元 統 2년(1334)에는 응에 안 지방을 침범한 라오 족을 정벌하였다. 元 順帝 至正 원년(1341) 憲宗이 사거한 이후에도 上皇 明宗이 政事를 주도하며 비교적 안정적인 통치를 유지하였으나, 지정 17년(1357) 明宗이 세상을 떠나며 陳 왕조는 급속히 동요되기 시작한다.

| 참고문헌 |

- 동북아역사재단 편, 『譯註 中國 正史 外國傳』 1~13, 동북아역사재단, 2009~2013
- 『二十五史』, 北京: 中華書局, 1959~1977
- 『大越史記全書』, 東洋文化研究所 東洋學文獻센터 간행본, 1986
- 『宋史全文』, 哈爾濱: 黑龍江人民出版社, 2005
- 『宋會要輯稿』, 北京: 中華書局 影印本, 1957
- 『越史略』, 守山閣叢書本
- 馬端臨, 『文獻通考』, 北京: 中華書局 影印本, 1986
- 范成大, 『桂海虞衡志』, 成都: 四川民族出版社, 1986
- 楊仲良, 『皇宋通鑑長編紀事本末』, 哈爾濱: 黑龍江人民出版社, 2006
- 黎崱, 『安南志略』, 北京: 中華書局, 2000
- 汪大淵, 『島夷志略』, 北京: 中華書局, 1981
- 熊克, 『中興小紀』, 福州: 福建人民出版社, 1984
- 李燾, 『續資治通鑑長編』, 北京: 中華書局, 1979~1995
- 李心傳, 『建炎以來繫年要錄』, 北京: 中華書局, 1988
- 趙汝适, 『諸蕃志』, 北京: 中華書局, 2000
- 周去非, 『嶺外代答』, 北京: 中華書局, 1999
- 김한규, 『고대중국적세계질서연구』, 일조각, 1982
- 김한규 外, 『中國의 天下思想』, 민음사, 1988
- 송정남, 『베트남의 역사』, 부산대학교출판부, 2000
- 송정남, 『베트남 역사 읽기』, 한국외국어대학교출판부, 2012
- 유인선, 『새로 쓴 베트남의 역사』, 이산, 2002
- 유인선, 『베트남과 그 이웃 중국』, 창비, 2012
- 최귀묵, 『베트남 문학의 이해』, 창비, 2010
- 王枷 지음, 김정희 역, 『민족과 국가—중국 다민족통일국가 사상의 계보』, 동북아역사재단, 2005

- 方國瑜, 『中國西南歷史地理考釋』, 北京: 中華書局, 1987
- 閻明恕, 『中國古代和親史』, 貴陽: 貴州民族出版社, 2003
- 王文光·龍曉燕·陳斌, 『中國西南民族關係史』, 北京: 中國社會科學出版社, 2005
- 李雲泉, 『朝貢制度史論—中國古代對外關係體制研究』, 北京: 新華出版社, 2004
- 蔡鴻生, 『中外交流史史考述』, 鄭州: 大象出版社, 2007
- 松本信廣, 『ベトナム民族小史』, 東京: 岩波書店, 1969
- 片倉穰, 『ベトナムの歴史と東アジア』, 東京: 杉山書店, 1977
- 後藤均平, 『ベトナム救國抗爭史』, 東京: 新人物往來社, 1975
- 山本達郎 編, 『ベトナム中國關係史』, 東京: 山川出版社, 1975
- 石井迷雄 等 編, 『東南アジア史 I, 大陸部』, 東京: 山川出版社, 1999
- 池端雪浦 編, 『東南アジア史 II, 島嶼部』, 東京: 山川出版社, 1999
- Franke, Herbert and Twitchet, Denis ed., *The Cambridge History of China, Volume 6: Alien Regimes and Border States, 710-1368*,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4
- Taylor, K. W., *The Birth of Vietnam*,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83
- 고명수, 「쿠빌라이 정부의 남해 정책과 해외무역의 변영—몽골의 전통적 세계관과 관련하여」, 『사충』 72, 2011
- 송정남, 「중세 베트남의 외교—대몽항쟁을 소재로」, 『국제지역연구』 10-1, 2006
- 유인선, 「中國關係와 朝貢關係—假想과 實像」, 『역사학보』 114, 1987
- 유인선, 「베트남의 전통적 왕권개념」, 동양사학회 편, 『東亞史上的 王權』, 한울, 1993
- 유인선, 「秦漢時代の 越南—중국문화의 침윤도와 관련하여」, 『사충』 15·16합집, 1971
- 유인선, 「전근대 베트남 사회의 양계적 성격과 여성의 지위」, 『역사학보』 150, 1996
- 유인선, 「전근대 베트남인의 역사인식—黎文休와 吳士連을 중심으로」, 『동양사학연구』 73, 2001
- 유인선, 「베트남인의 남진과 남부문화의 형성」, 『동방학지』 105, 1999
- 유인선, 「전근대 베트남인의 대중국인식—조공과 대등의식의 양면성」, 『동북아역사논총』 23, 2009
- 戴可來, 「宋代越南對中國的朝貢」, 『世界史研究動態』, 1980-11
- 戴可來, 「宋代早期的中越關係」, 『中外關係史論叢』 2, 1987
- 戴可來, 「略論宋代越南對中國的朝貢—宋代中越關係史論之一」, 『印度支那研究』, 1980年 增刊
- 杜玉亭, 「兀良合台出師安南考」, 『蒙古史研究』, 1985-3
- 馬強, 「論唐宋西南史志及其西部地理認識價值」, 『史學史研究』, 2005-3
- 馬明達, 「元代出使安南考」, 『明清之際中国和西方国家的文化交流—中国中外關係史学会第六次学

- 術討論會論文集』, 1997
- 馬新, 「古代中外關係史研究中的史料問題」, 『山東大學學報』(哲學社會科學版), 1990-4
- 方鐵, 「唐宋元明清的治邊方略與雲南通道變遷」, 『中國邊疆史地研究』, 2009-1
- 方鐵, 「蒙元對貴州·廣西與海南地區的統治和經營」, 『蒙古史研究』, 2003-4
- 方鐵, 「元代雲南至中南半島北部的通道和驛站」, 『思想戰線』, 1987-2
- 聶靜洁, 「2004年中外關係史百年學術回顧與展望—國際學術研討會簡報」, 『中國史研究動態』, 2005-2
- 粟冠昌·魏火賢, 「宋王朝與交趾關係敘論」, 『中國邊疆史地研究』, 1991-2
- 楊毓驥, 「蒙元軍隊征戰東南亞屬地考」, 『雲南民族大學學報』(哲學社會科學版), 2007-3
- 楊宗亮, 「唐宋時期滇東南桂西南的民族關係」, 『雲南大學民族學報』, 1998-1
- 艾萌, 「宋元時期生券軍與熟券軍考」, 『河南科技大學學報』(社會科學版), 2013-1
- 呂士朋, 「宋代之中越關係」, 『宋史研究集』16, 臺北: 國立編譯館, 1986
- 王繼東, 「北宋對越南從‘郡縣其地’到宗藩關係確立的轉變—從與丁黎李朝的關係看宋朝對越南政策」, 『鄭州大學學報』, 2008-3
- 王祥春, 「兩宋時期的中越邊境貿易」, 『廣西地方志』, 2007-5
- 王頌·湯開建, 「元“僑安南國”與陳益稷」, 『海交史研究』, 2002-4
- 牛凱軍, 「安南莫氏高平政權初探」, 『東南亞』, 2000-4
- 于愛華, 「論北宋王朝的地緣政治形勢及其西南應對方略」, 『思想戰線』, 2009-1
- 李富森·董利江, 「宋朝與交趾的朝貢貿易」, 『新鄉教育學報』, 2005-1
- 李雲泉, 「略論宋代中外朝貢關係與朝貢制度」, 『山東師範大學學報』, 2003-2
- 張金蓮, 「略論元代的中越交通」, 『蘭州學刊』, 2006-1
- 張金蓮, 「宋朝與安南通道試探」, 『東南亞縱橫』, 2005-10
- 張文, 「兩宋時期西南地區的民族衝突與社會控制」, 『西南師範大學學報』(人文社會科學版), 2004-6
- 曹江紅, 「中國與周邊國家關係學術研討會綜述」, 『中國史研究動態』, 2010-4
- 竹天, 「元朝與安南陳朝關係的幾個方面」, 『東南亞縱橫』, 1995-3
- 陳文源, 「元明時期安南貢物“化身金人”考述」, 『社會科學』, 2006-2
- 竺天, 「十三世紀末安南與元帝國之間的若干歷史問題」, 『周口師專學報』, 1995-4
- 黃純艷, 「藩服自有格式: 外交文書所見宋朝與周邊諸國的雙向認識」, 『學術月刊』, 2008-8
- 黃純艷, 「宋朝與交趾的貿易」, 『中國社會經濟社史研究』, 2009-2
- 黃純艷·王小寧, 「熙寧戰爭與宋越關係」, 『廈門大學學報』(哲學社會科學版), 2006-6
- 桃木至朗, 「一家的事業としての李朝」, 『東洋學報』79-4, 1998
- 藤原利一郎, 「トヴェトナム諸王朝の變遷」, 『岩波講座 世界歷史』12, 東京: 岩波書店, 1971

- 山本達郎, 「安南の貿易港雲屯」, 『東方學報』 9, 1939
- 山本達郎, 「越史略と大越史記」, 『東洋學報』 32-4, 1959
- 櫻井由躬雄, 「異朝期紅河デルタ開拓試論」, 『東南アジア研究』 18-2, 1980
- 河原正搏, 「宋初における中越關係」, 『法政大學文學部紀要』 18, 1973
- 河原正搏, 「前黎朝と宋朝との關係」, 『法政史學』 29, 1977
- 河原正搏, 「丁部領の即位年代について」, 『法政大學文學部紀要』 15, 1965
- Taylor, K. W., "The Twelve Lords' in Tenth Century Vietnam," *Journal of Southeast Asian Studies* 14-1, 1983
- Taylor, K. W., "Authority and Legitimacy in 11th Century Vietnam", *Southeast Asia in the 9th to 14th Centuries*, eds. David Marr and A. C. Milner, Singapore: Institute of Southeast Asian Studies, 1986
- Whitmore, John K., "Elephants San Actually Swim", *Southeast Asia in the 9th to 14th Centuries*, eds. David Marr and A. C. Milner, Singapore: Institute of Southeast Asian Studies, 1986
- 羅竹風 主編, 『漢語大詞典』, 上海: 漢語大詞典出版社, 1990~1993
- 譚其驥 主編, 『中國歷史地圖集』, 第5冊: 隋·唐·五代十國時代, 北京: 中國地圖出版社, 1982
- 臧勵蘇 等 編, 『中國古今地名大辭典』, 臺灣: 商務印書館, 1972, 原刊 1931
- 諸橋徹次, 『大漢和辭典』, 東京: 大修館書店, 1966
- 陳佳榮·謝方·陸峻嶺 編, 『古代南海地名匯釋』, 北京: 中華書局, 1986
- 『アジア歴史事典』 全10卷, 東京: 平凡社, 1962

면·점성·섬·조왜·유구·삼서·
 마팔아등국전(緬·占城·暹·
 원사(元史) 권210 외이(外夷) 3 爪哇·瑠求·三嶼·馬八兒等國傳)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면·점성·섬·조왜·유구·삼서·마팔아등 국전(緬·占城·暹·爪哇·瑠求·三嶼·馬八 兒等國傳)」 해제

『원사』 권210 「외이전」 3에서는 면·점성·섬·조왜·유구·삼서·마팔아 등의 국가를 소개하고 있다. 「외이전」 2에서 베트남 북부의 안남을 별도로 다룬 반면 그 외의 동남아 지역 즉 현재 미얀마, 베트남 남부의 참파, 태국, 자바, 오키나와, 필리핀 군도 및 인도 남서부까지 넓은 영역에 존재하던 주요 국가들을 여기에 묶었다. 역대 정사 외국전의 내용은 외국의 현황이나 특징의 소개보다는 중국 조정과의 관계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원사』 「외이전」 3의 경우는 그 특징이 더욱 두드러지며 특히 원의 각 지역에 대한 지배 정책과 정복전쟁에 관한 기사가 내용의 거의 전부를 차지하고 있다.

〈면전(緬傳)〉은 현재 미얀마 지역에서 9세기 이후 융성했던 포감(蒲甘, Bagan) 왕조를 다루고 있는데 이 나라의 지리·자연·사회 등의 설명은 거의 없이 원 세조와 성종 초기까지 벌어진 원의 면 정벌전쟁과 면의 항복 과정이 전체의 내용을 이루고 있다. 원의 면 정복전쟁은 대략 3단계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우선 지원(至元) 14년(1277) 전쟁이다. 면과 원의 첫 군사충돌은 그해 3월에 원이 계획하지 않은 상황에서 발생하였다. 원은 이미 지원 8년(1271)과 지원 10년(1273)에 사절을 면에 보내서 평화적으로 귀부할 것을 위협조로 요구하였으나, 면에서는 처음 방면 사절은 왕이 만나지도 않고 보냈으며 그 다음에는 아예 돌려보내지 않았다. 운남행성(雲南行省)의 면 토벌 건의에도 원 정부가 면과의 전쟁을 결정하지 못하고 있던 중, 운남과 면 사이의 종족들이 원에 항복하여 원의 면 침략에 협조하자, 이에 불만을 가진 면이 지원 14년(1277) 3월에 4~5만의 대군을 이끌고 이들 지역을 침공하였다. 원군은 700명의 군대로 면국의 대군을 맞아 승리하였고, 여세를 몰아 10월에 운남 선위사 납속랄정(納速剌丁)이 이끄는 원의 군대가

면의 요지 강두성(江頭城)까지 침입하여 300여 목책과 35,200호를 초무하는 전과를 올리고 더위로 인해 곧 철수하였다.

2차 면 정벌전쟁은 지원 20년(1283)에 종왕(宗王) 상오답아(相吾答兒)의 지휘 하에 수행되고 결국 면국을 함락시키는 데 성공하였다. 이번에는 1차 전쟁의 경험으로 면에 대한 정보가 충실해지고 더욱이 사천 지역 등이 평정된 후였기 때문에 중앙정부 차원에서 치밀하게 준비한 전쟁이었다. 면으로서는 강두성·태공성(太公城) 등을 격파당하고 또 이전에 면에 신속하던 12개 부락이 원에 귀순하는 등 큰 타격을 입자, 남쪽으로 피신하여 지원 22년(1285)까지 버티던 면왕이 결국 투항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면 정권에 내분이 생겨 왕의 서자가 왕을 구급하고 원의 관원을 살해하는 사태가 발생하자 원에서는 지원 24년(1287)에 다시 원정군을 보내 많은 전사자를 내고 겨우 면의 항복을 받아냈다. 이로써 포감 왕조의 세력은 거의 끝나고 사실상 원조의 행성에 불과한 처지가 되었다.

성종(成宗) 대덕(大德) 4년(1300) 원의 3차 면 정복전쟁은 포감 왕조 종식 후 새롭게 대두한 권력자들 간의 내분에 개입하여 원의 간섭을 확고히 하기 위한 것이었다. 대덕 2년(1298) 실권을 잡은 세력이 원에서 책봉한 왕을 살해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죄를 묻는다는 이유로 대덕 4년 10월에 원정군을 보내 결국 그들의 자복을 받아냈다. 대덕 7년(1303)에 운남 정면분성(征緬分省)을 폐지함으로써 면에 대한 정벌전쟁은 공식적으로 끝났다.

『원사』 본문은 주로 전쟁 준비 과정에서 군사 책임자 임명이나 전투 성과 등이 강조되어, 면과의 갈등 정황이나 면 내부의 사정, 전쟁의 전후 맥락 등은 이해하기가 어려우므로 1차 자료로서 지니는 가치가 제한적이다.

〈점성전(占城傳)〉은 지원 20년(1283)에 벌어진 원의 점성 침략전쟁이 내용의 거의 전부라고 할 수 있다. 현재 베트남 남부에 있던 참파 정권인 점성은 남송 가태(嘉泰) 3년(1203)에 그간 지속적으로 경쟁관계에 있던 그 남쪽 크메르족의 진랍(真臘)에 복속되어 지배를 받다가 남송 가정(嘉定) 13년(1220)에 독립하여 점성 왕조를 회복하였다. 원조의 세력이 확대되어오자, 원 지원 15년(1278) 점성왕은 원조에 순순히 귀부하여 점성군왕에 책봉되고 원에서는 행정 설치를 진행하는 등 원의 점성 지배가 수월한 듯하였다. 그러나 곧 점성의 왕자가 불복하고, 점성을 거쳐 섬국(暹國)으로 가는 원의 사절들을 구류하는 등 원에 저항하면서 원의 점성 정벌전쟁이 시작되었다. 『원사』 〈점성전〉은 바로 이때의 전쟁, 즉 지원 19년(1282) 11월 우승(右丞) 사도(唆都)가 이끄는 원정군이 해로를 통해 출발한 때로부터 지원 21년(1284) 3월

6일에 사도의 군대가 점성에서 철수하기까지의 상황을 기록하고 있다. 그중에도 지원 20년(1283) 정월과 2월의 격전 상황은 일자별로 열거되어 있을 정도로 상세하다.

원은 이 전쟁에서 크게 손실을 입었으며 점성왕이 산으로 피신하여 완전한 복속을 얻어내지도 못하였다. 원조에서는 황자 탈환(脫歡)이 육로를 통해 면에 진군하고자 교지(交趾)에 가도(假道)를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의 교지 침공이 시작되었다. 그러나 원은 교지와 전쟁에서 실패하고 따라서 점성 정복도 포기한 채 지원 26년(1289) 점성행성을 폐지하였다. <점성전>은 점성 재침공 계획이 무산된 사정을 간략히 언급함으로써 마무리하고 있다.

<섬전(暹傳)> 이하의 각국 열전은 대원제국의 자와 원정을 묘사한 <조왜전(爪哇傳)>을 제외하고는, 주로 원조(元朝)와 각국 간의 수교와 조공외교의 전개상황을 기술하고 있다. 그 가운데 <섬전>은 수코타이(Sukhothai, 1238~15세기) 왕조 시기 원과 태국의 관계를 다루고 있다. 섬국(暹國)은 '수코타이'의 음역으로, 왕조의 전성기로 불리는 람캄행(Ramkhamhaeng, 1279~1298) 시기인 원정(元貞) 원년(1295)에 처음으로 금자표(金字表)를 진헌하며 조공단을 파견해왔다. 원조는 종전까지 경쟁관계에 있던 섬국과 말레이반도의 멀라유(麻里予兒, Melayu)가 모두 귀부하였으므로, 섬국에 양국관계의 개선을 요구하였다. 대덕 3년(1299)에는 람캄행의 아들이 조공단을 파견하여 상격(上格)의 하사품을 요구하자, 원조는 조공국 가운데 인도[忻都]와 같은 대국과의 국격을 비교해서 하사품을 제한하는 최종 결정을 내렸다. 길지 않은 내용이지만, 원조가 번국(蕃國) 간의 외교관계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려고 했던 사실과 귀부(歸附)를 표명한 번국들을 국력에 따라 분류하여 대우한 사실이 반영되어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가치가 있다.

<조왜전>에서는 주로 싱오사리 왕국(1222~1292)과 마자파히트 왕국(1293~1582) 교체기에 전개된 대원제국의 자와(조왜) 원정을 다루고 있다. 싱오사리(Singosari) 왕국의 마지막 왕인 커르타나가라(Kertanagara) 시기에 인도네시아 역사는 자와를 초월하여 현재 인도네시아를 구성하는 공간으로 확대되기 시작한다. 당시 커르타나가라는 몽골의 위협에 직면하여 주변국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동맹관계를 구축하였는데, 쿠빌라이가 사신을 보내 왕이 직접 조정에 알현할 것을 요청하자, 사신의 얼굴을 심하게 훼손하여 돌려보냈다. 결국 이 사건이 지원 29년(1292) 쿠빌라이가 자와 대원정을 결심하는 결정적인 요인이 되었다. 원조는 복건·강서·호광 3성의 군대를 동원하여 자와 침략을 감행하였다. 그런데 1293년 몽골 원정군이

자와에 도착했을 때, 자와의 정치적 상황은 복잡하게 전개되고 있었다. 당시 커르타나가라 왕의 주력함대는 멀라유 원정에 파견되었는데, 이런 상황에 몽골 원정군까지 들이닥치자 싱오 사리 왕조에 불만을 갖고 있던 커디리(Kediri) 가문이 반란을 일으켜 왕을 살해한 것이다. 몽골 원정군에게 정복과 협상의 대상이 사라진 것인데, 이때 커르타나가라의 사위이자 후계자였던 비자야(Raden Wijaya, 土罕必闍耶)가 투항해왔다. 비자야는 몽골 원정군을 이용해 반란군을 진압했고, 멀라유에 갔던 원정군이 돌아오자 이를 이용해서 원조를 배반하고 다시 역습을 가해 원정군에 결정적인 타격을 주었다. 결국 몽골의 자와 원정군은 결국 퇴각을 결정하였고, 비자야는 마자파히트 왕국을 세우게 되는데, <조왜전>에는 이러한 과정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유구전(瑠求傳)>에는 근거리임에도 불구하고 지형적인 요인으로 당시까지 미답의 도서로 남아 있었던 유구(타이완)에 대한 원정기록이 담겨져 있다. 유구 원정은 두 차례에 걸쳐 이루어지는데, 지원 28년(1291)에 해선부만호 양상(楊祥)과 서생 오지두(吳志斗)의 상주로 시작되었다. 양상은 군사적인 원정을 주장했지만, 조정의 결정에 따라 다음 해인 지원 29년(1291)에 양생과 오지두, 원감(阮鑿)이 소규모의 병력과 사신을 이끌고 타이완을 방문하게 된다. 그러나 분견대가 상륙을 시도하다가 언어가 통하지 않아서 원주민들에게 살해되었고, 사절단을 이끌었던 양생과 오지두, 원감 사이에도 분쟁이 발생하여 첫 번째 원정은 실패를 고한다. 두 번째 원정은 성종(成宗) 원정 3년(1297)에 복건성평장정사(福建省平章政事) 고흥(高興)의 건의로 시작되었는데, 그해 9월 고흥이 파견한 장호(張浩)와 장진(張進)이 유구국에서 130여 명을 생포해왔다. 그러나 조공이나 교역뿐 아니라 당시 타이완 사정을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보아 지속적인 교류는 이루어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

<삼서전(三嶼傳)>에 등장하는 '삼서'는 필리핀 일대로 추정되는데, 그 내용은 매우 소략하다. 지원 30년(1293)에 삼서에 대한 사신파견 문제가 제기되자 국가의 규모가 워낙 작아서 백안(伯顏)을 위시한 중신들이 반대했다는 내용이다. <마팔아등국전(馬八兒等國傳)>은 인도 동남부 벵골만 부근에 위치했던 마팔아(馬八兒, Malabar)국과 인도 서부 킬론(Quilon) 부근의 구람(俱藍, Kulam)국을 중심으로, 인근 번국에 대한 초무와 복속 과정을 다루고 있다. 쿠빌라이는 지원 15년(1278)에 남송을 멸망시킨 이래로 동남아와 인도의 여러 번국들을 초무하기 위해서 체계적으로 계획을 추진하였다. 쿠빌라이의 최종 목적은 원조에서 일칸국에 이르는 남해지역을 평정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해로 상에 위치한 강국인 마팔아와 구람을 복속시

키는 것이 중요하였다. 그만큼 쿠빌라이는 두 나라와의 관계개선을 위하여 노력을 기울였는데, 우선 지원 16년(1279) 12월에 양정벽(楊庭璧)을 파견하여 다음 해에 사신을 입조시키겠다는 약조를 받아낸다. 두 번째 방문은 지원 18년(1281)에 이루어지는데, 마팔아국의 방해로 구람국에 도달하는 데 실패한다. 세 번째 방문은 다음 해인 지원 19년(1282) 2월에 이뤄지는데, 구람 국왕과 재상 마합마(馬合麻) 등이 새서(璽書)를 영접하고 경의를 표했으며, 3월에는 신하를 파견하여 입공(入貢)하게 된다. <마팔아등국전>에는 당시 구람국에 에르케운(也里可溫) 기독교도인 올찰아살리마(兀咱兒撒里馬)와 목속만(木速蠻) 군주 마합마(馬合麻) 등이 방문 중이었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 지역에 구람국을 중심으로 한 동맹관계가 존재했을 가능성을 시사해준다. 이러한 원조의 지속적인 노력의 결과로, 지원 23년(1286)에는 마팔아국과 구람국 외에도 수문나(須門那)·승급리(僧急里)·남무력(南無力)·마란단(馬蘭丹)·나왕(那旺)·정가아(丁呵兒)·내래(來來)·급란역득(急蘭亦斛)·소목도랄(蘇木都剌) 등 10개국이 사절을 파견하고 방물(方物)을 진공하였다. 쿠빌라이의 외교적 노력을 통해서 조공 권역이 동남아를 넘어서 남아시아로 확대되었음이 반영되어 있다는 점에서 당해 시기의 중국과 남아시아 관계를 연구하는 데 유용한 사료로 판단된다.



「면·점성·섬·조왜·유구·삼서·마팔아등
국전(緬·占城·暹·爪哇·瑠求·三嶼·馬八
兒等國傳)」 역주

緬
면

緬國爲西南夷，不知何種。其地有接大理及去成都不遠者，又不知其方幾里也。其人有城郭屋廬以居，有象馬以乘，舟筏以濟。其文字進上者，用金葉寫之，次用紙，又次用檳榔葉，蓋騰譯而後通也。

면국(緬國)¹⁾은 서남이(西南夷)²⁾인데 어떤 종족인지는 알지 못한다. 그 땅은 대리(大理)³⁾

1) 緬國: 현재 미얀마(Myanmar, 緬甸)에 존재했던 국가·민족 등에 대하여 중국인들이 사용하는 포괄적인 명칭이다. 9세기경에 緬人(Burmese)이 미얀마의 선주민인 티베트-버마(Tibeto-Burman) 계통의 언어를 사용하는 쉐(Pyu)족과 몬-크메르어 계통의 민족을 몰아내고 바간(Bagan) 왕국을 세웠다. 특히 송·원대에 융성했던 바간 왕조(1044-1287)에 대하여 『宋史』·『嶺外代答』 등의 宋代 자료에서는 蒲甘으로, 그리고 元代 기록에는 緬國으로 기록하였다. 唐 肅宗 6년(846)에 파인비아(Pyinbya)가 蒲甘 왕국을 세우고 그 수도를 현재 푸아사(Poisat)에서 蒲甘(현재 미얀마 만달레이 남서쪽 이라와디 강 동쪽 연변의 민잔현 서부)으로 옮겼다. 北宋 慶曆 4년(1044) 즉위한 아나우라타(Anawrahta) 국왕 때 크게 발전하여 남쪽으로 眞臘·羅斛 등, 서쪽으로 아라칸, 북쪽으로는 운남의 大理國을 공격하기도 하는 등 사방으로 세력이 확장되었다. 이때부터 조공을 시작하며 송과의 우호관계를 이어갔다. 3대 국왕 쟌지타(Kyanziththa) 왕 이후로는 국세가 날로 약해지고 남송 寶祐 2년(1254)에 즉위한 나라티하파테(Narathihapate) 왕의 폭정으로 반란이 빈번한 중에 포감국 북부에서 흥기한 撣族(Shan) 세력의 계속된 침입에 시달렸다. 元朝를 건립한 쿠빌라이의 귀부 요구를 거부하였으나, 元 至元 14년(1277) 이후 여러 차례 원군의 침공을 받아

와 접하며 성도(成都)⁴)에서 멀지 않으나, 또한 그 주변의 크기가 몇 리(里)인지는 알 수가 없다. 그곳 사람들은 성곽의 주택[屋廬]에서 살고 코끼리와 말을 타며 배와 뗏목으로 물을 건넌다. [중국에] 문서를 진상할 때에는 금엽(金葉)을 이용하여 거기에 적고, 그 다음에 종이 를 사용하며 또 그다음에는 빈랑(檳榔)⁵) 잎을 썼는데 모두 번역을 거친 후에야 소통이 되었다.

결국 지원 16년(1279)에 항복하여 원조의 번속이 되었다. 이후로 영토가 여러 세력으로 분열되다가, 揮族 세력이 明 洪武 원년(1368)에 미얀마 동부 阿瓦(Ara)에 阿瓦 왕국을 건립하고 한편 孟族(Mon)도 미얀마 남부에 勃固(Bago) 왕국을 세워 남북으로 두 왕국이 교전하였다.

- 2) 西南夷: 원래는 漢代 蜀郡의 서부와 남부, 즉 현재의 四川省 남서부에서 雲南·貴州의 두 省과 廣西省 서부에 걸친 지역에 거주하는 민족들을 칭하였으나, 역사의 변천에 따라 융통성 있게 중국 서남지역의 다양한 민족들을 포괄하는 統稱으로 쓰였다. 예를 들어 宋代 ‘西南夷’는 漢·唐 시대의 南寧州(광서로 서부)와 牂牁郡을 비롯하여 동북으로는 黔·涪州(夔州 중부)에 달하고, 서북으로는 嘉·敘(成都府路 동남; 敘州는 戎州)에 접하고, 동으로는 荊楚(荊湖路 남부)와 연결하고 남으로는 宜·桂 방면에 미치는 범위에 산재한 종족들을 가리켰으나, 반드시 羈縻 지배 영역 내의 종족뿐 아니라 그 너머에 존재한 외국의 민족들도 지칭하였다.
- 3) 大理: 後晉 高祖 天福 2년(938) 雲南 지방에 段思平이 南詔를 계승하여 세운 정권으로 22대에 걸쳐 300여 년 지속되다가 南宋 理宗 寶祐 원년(1253) 몽골 쿠빌라이 침략으로 멸망하였다. 段思平은 白蠻으로 불리던 부족 출신이었으며 남조보다 왕권이 강화되었으나 부족 연합의 성격은 여전하였다. 남조의 체제를 그대로 계승하였고 세력 범위도 남조의 최강성 시기와 비슷하여 북으로 四川 서부, 남으로 베트남 북부, 서로 인도 미얀마, 동으로 귀주와 광서 일부까지 지배하였다. 토번보다 송과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였다. 송 紹聖 2년(1095)에 高升泰가 국호를 大中國이라고 고친 바 있으나 소성 3년(1096)에 그가 죽은 후 정권이 段正淳에게 돌아갔다. 역사에서는 이를 後大理라고 칭하는데, 사실 멸망 때까지 高氏가 세대를 이어 相國을 지내며 中國公이라 칭하며 실권을 장악하였다. 송 淳祐 4년(1244) 段祥興의 재위 기간(1239~1251)에 몽골의 남침을 당하여 크게 패하였다. 오고타이 칸의 사망으로 몽골군이 잠시 물러났으나, 순우 11년(1251)에 몽골의 재공격을 받아 왕 段興智가 鄯闡으로 달아났다가 몽골 대장 우량하타이가 鄯闡을 공격했을 때 생포되어 大理의 總管이 되고, 대리국은 멸망하였다.
- 4) 成都: 唐 至德 2년(757) 蜀郡을 玄宗이 ‘駐蹕’한 곳이라 하여 成都府로 승격시키고 南京으로 칭하였다. 上元 원년(760)에 京號는 철회하고 劍南四川節度使 치소가 되어 成都縣·蜀縣을 다스렸다. 송대에는 成都府路의 치소가 되고, 몽골이 들어와 成都路로 바꾸었다. 明代에 다시 成都府가 되어 四川省會가 되었다가 1913년에 폐지되었다.
- 5) 檳榔: 종려과에 속하는 열대 상록 교목으로 가지 없이 줄기만 곧게 자라며, 높이는 25미터 정도이다. 열매는 둥글거나 타원형으로 염료로 쓰이며, 어린잎은 식용으로 사용한다. 일찍부터 한약재로 사용되었으며, 구충약·설사약·피부약·두통약 등으로 쓰인다. 약간의 흥분작용이 있어 동남아 일대에서는 기호품으로 껌처럼 씹기도 한다. 오래전부터 빈랑즙을 발효해 술을 담갔던 것으로 추정되는데, 『舊唐書』 권197 「南蠻傳」〈西南蠻 林邑〉조에서도 “以檳榔汁爲酒”라고 언급하고 있다.

世祖至元八年，大理·鄯闡等路宣慰司都元帥府遣乞解脫因等使緬國，招諭其主內附。四月，乞解脫因等導其使价博來，以聞。

[원(元)] 세조(世祖)⁶⁾ 지원(至元) 8년(1271)에 대리·선선등로선위사(大理·鄯闡⁷⁾等路宣慰司⁸⁾ 도원수부(都元帥府)⁹⁾에서 걸태탈인(乞解脫因) 등을 먼국에 사절로 보내어 그 국왕에게 귀부하라고 일렀다. [지원 8년] 4월에 걸태탈인 등이 먼국의 사절 개박(价博)을 이끌고 와서 [황제에게] 보고하였다.

6) 世祖: 元の 창건자 쿠빌라이(忽必烈, 1215~1294; 재위 1240~1294)를 가리킨다. 칭기즈칸의 4자 툴루이(托雷)의 둘째 아들이며 몽골 4대 칸 몽케(蒙哥)의 동생이다. 몽케 칸 때에 漠南漢地軍國庶事에 임명되었고, 어머니 소르카타니의 영향으로 上都(본래 開平)의 건설 등 친중국적인 정책을 폈다. 송 淳祐 12년(1252) 몽케의 명령을 받아 雲南과 大理國 원정에 나가 대승을 거두었다. 송 寶祐 6년(1258)에 시작된 南宋 정복전에 나섰을 때 몽케가 사망하였다. 그는 막내 동생 아릭보케와의 계승 전쟁을 치르고 승리하여 5대 대칸에 올랐으나 다시 아릭보케와 이를 지지하는 킵차크, 오고타이, 차가타이한국 등의 저항으로 4년 동안의 내전을 겪고 결국 승리하였다. 원 至元 8년(1271) 국호를 大元이라 하고 현재 북경을 大都로 고쳐 수도로 정하였다. 중국 왕조로서의 면모를 갖추고 지원 16년(1279) 남송을 멸망시켜 전 중국을 지배하에 두었다.

7) 鄯闡: 현재 雲南省 昆明의 옛 이름 중 하나이다. 9세기 중엽 南詔에서 이곳의 拓東城을 鄯闡城으로 바꾸고, 白蠻 段思平이 大理國을 건립한 후 설치한 광역 행정구역 8府 중 하나로 鄯闡府가 설치되고 통상 東京으로 불리었다. 府治는 현재 雲南省 昆明市 舊城 南關 밖에 있었다.

8) 宣慰司: 元 세조 쿠빌라이 때 行中書省을 16개의 宣慰司로 나누어 한 宣慰司마다 대략 180개 路(州)를 관할하게 하였다. 宣慰司는 省과 州 중간에 軍事를 위주로 하되 民事까지 관장하는 監司 기관이었다. 그 장관인 宣慰使(從2品)는 해당 지방단위의 군정 최고 장관이었다. 宣慰司라는 기구는 金朝 때에 처음 출현했고 元朝 때에 전국 범위로 설립되었다. 明清代에는 소수민족 취거지역에만 설립되어 宣慰司의 수도 크게 줄었다.

9) 都元帥府: 金 太宗 天會 3년(1125)에 설치된 都元帥府는 金朝 최고의 군사기구였다. 도원수부에는 장관 都元帥와 그 아래 左右副元帥·元帥左右監軍·左右都監 등 군사 관원을 두었다. 태종이나 金 熙宗이 도원수를 겸할 정도로 도원수의 등급이 높았다. 海陵王 天德 2년(1150)에 도원수부를 과하여 추밀원에 병입하였다가 章宗 泰和 6년(1206)에 송과의 교전으로 다시 설치했으며 2년 후 추밀원으로 고쳤다. 元代에는 沿邊 지역에 도원수부·원수부를 설치하고 도원수·원수 등의 관원을 두어 지방의 군사장관을 맡게 하였다.

十年二月，遣勸馬刺失里·乞解脫因等使其國，持詔諭之曰：「聞者大理·鄯闐等路宣慰司都元帥府差乞解脫因導王國使价博詣京師，且言嚮至王國，但見其臣下，未嘗見王，又欲觀吾大國舍利。朕矜憫遠來，即使來使覲見，又令縱觀舍利。益詢其所來，乃知王有內附意。國雖云遠，一視同仁。今再遣勸馬刺失里及禮部郎中國信使乞解脫因·工部郎中國信副使小云失往諭王國。誠能謹事大之禮，遣其子弟若貴近臣僚一來，以彰我國家無外之義，用敦永好，時乃之休。至若用兵，夫誰所好。王其思之。」

[지원] 10년(1273) 2월에 감마랄실리(勸馬刺失里)·걸태탈인 등을 파견하여 면국에 사절로 가게 하였는데 갖고 가는 조서에서 그 국왕을 타일러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즉, “지난번 대리·선선등로선위사 도원수부에서 파견했던 걸태탈인이 [면]왕국의 사절 개박을 이끌고 경사에 오더니, 또 [걸태탈인]이 상언하여 지난번 왕의 나라에 가서 그 신하들만 보았을 뿐 왕을 만나지 못하였다고 하고,¹⁰⁾ 또한 [그들이] 우리 대국에 있는 사리(舍利)를 보고 싶어 한다고 말하였다. 짐은 [개박]이 멀리서 온 것을 불쌍하게 생각하여 즉시 오게 하고 알현하도록 하였으며, 또한 사리도 마음대로 보라고 명령하였다. 차츰 [알현하러] 온 자들에게 물어 [면국] 왕이 내부(內附)할 뜻을 가지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나라가 비록 멀다고 하여도 [나는] 차별 없이 평등하게 여기고 동일하게 사랑하노라. 이제 다시 감마랄실리, 예부랑(禮部郎)¹¹⁾ 중국사신[信使] 걸태탈인, 공부랑(工部郎)¹²⁾ 중국 부사[信副使] 소운실(小云失)을 왕의 나라에 보내어 타이르노라. 성실하게 삼가 사대(事大)의 예(禮)를 다하며 자제와 고위 근신을 파견하여 한번 오게 함으로써 모든 나라를 차별 없이 대하는 내 국가의 도의를 밝히 드러내고 영구한 우호관계를 촉진한다면, 이는 때맞추어 편안함을 얻는 것이다. 만약 전쟁[用兵]에 이르게 된다면 누구에게 좋은 일이겠는가. [면국] 왕은 마땅히 이것을 고려하기 바라노라.”

10) 원 至元 8년(1271)에 원에서 사절을 보내 귀부할 것을 권하였으나 면국왕 那羅提訶波特(Narathihapate, 1256?~1287)은 원의 사절을 만나기를 거부하였고 다만 장관이 원의 사절을 대접하였다.

11) 禮部郎: 部郎은 중앙정부 六部 내의 郎中과 員外郎이므로 禮部郎은 禮部의 낭중과 원외랑이다. 『醒世恒言』 「黃秀才徵靈玉馬墜」의 “金榜開時 高高挂一個黃損名字，除授部郎之職”에 대해 顧學頤는 注에서 “部郎 部指吏·戶·禮·兵·刑·工等六部，郎泛指部裏的中下級的官員”이라고 하였다.

12) 工部郎: 工部の 郎中과 員外郎이다.

十二年四月，建寧路安撫使賀天爵言得金齒頭目阿郭之言曰：「乞脫因之使緬，乃故父阿必所指也。至元九年三月，緬王恨父阿必，故領兵數萬來侵，執父阿必而去。不得已厚獻其國，乃得釋之。因知緬中部落之人猶群狗耳。比者緬遣阿的八等九人至，乃候視國家動靜也。今白衣頭目是阿郭親戚，與緬爲鄰。嘗謂入緬有三道，一由天部馬，一由驃甸，一由阿郭地界，俱會緬之江頭城。又阿郭親戚阿提犯在緬掌五甸，戶各萬餘，欲內附。阿郭願先招阿提犯及金齒之未降者，以爲引道。」雲南省因言緬王無降心，去使不返，必須征討。六月，樞密院以聞。帝曰：「姑緩之。」十一月，雲南省始報：「差人探伺國使消息，而蒲賊阻道，今蒲人多降，道已通，遣金齒千額總管阿禾探得國使達緬俱安。」

[지원] 12년(1275) 4월에, 건녕로(建寧路)¹³⁾ 안무사(安撫使)¹⁴⁾ 하천작(賀天爵)¹⁵⁾이 금치(金齒)¹⁶⁾의 두목인 아곽(阿郭)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며 [다음과 같이] 아뢰었다. 즉,

13) 建寧路: 현재 福建省 建甌市 일대 지역에 해당하는 지명이다. 송대에는 福建路에 속한 建寧府였다가 元 至元 16년(1279) 건녕로로 승격되어 福建等處行中書省에 속하였다. 치소는 현재 建甌市에 해당하는 建安·甌寧 2縣에 있었고 관할 영역은 현재 建甌市 위쪽 建溪 유역 및 壽寧縣·周寧縣 등의 지역이었다. 明代에는 다시 건녕부로 되었다.

14) 安撫使: 대개 역대 왕조의 지방 軍事 장관의 관명이었다. 隋대에 安撫大使를 두어 行軍主帥를 겸하게 하였다. 唐代 전기에 大臣을 파견하여 전쟁과정이나 受災 지역을 순시하게 하면서 이들을 按撫使라고 칭하였다. 宋代에도 諸路의 재난이나 전쟁 문제를 위해 전담 특사를 파견하였는데 후에 점차 각로에서 군무와 치안을 책임지는 장관으로 정착하여 知州나 知府를 겸하였으며 그의 관서를 安撫使司, 또는 帥司라고 불렀다. 元代에는 초기에 일부 지역에 임시로 安撫司를 설치하였다가 후에는 단지 雲南·四川·湖廣行省의 소수민족 지역에만 설치하고 安撫使 1명을 土官으로 두고 별도로 다루가치와 약간의 속관을 두었다. 明清代에도 그대로 이어져 안무사는 세습하는 武職 土官이 되었다.

15) 賀天爵: 元 中統 2년(1261)에 金齒 지역 按撫司가 설치될 때 按撫使가 되어 그 관할을 맡은 바 있다. 『元史』 卷4 「本紀」 4 〈世祖 中統 2년 8월〉조에, “戊戌 勅賀天爵 爲金齒等國按撫使, 忽林伯副之, 仍招諭使安其民”이라고 하였다.

16) 金齒: 여기서는 옛 種族의 이름이지만 원대 이후 地名으로 쓰이기도 하였다. 金齒族은 고대 滇越族의 후예이자 傣族의 선조인데 차이에 금을 상감해 넣고 문신을 하는 습속이 있었다. 라시드 앳 딘의 『集史』와 마르코 폴로의 『東方見聞錄』에서는 이들을 ‘자르단단(zardandan)’이라고 불렀는데 이는 페르시아어로 ‘금어금나’의 뜻이다. 마르코폴로의 『동방견문록』의 기록에 따르면 그 주민들이 모두 금이빨을 갖고 있었다. 금으로 이빨 모양을 만들어 윗니와 아랫니를 덮어씌웠다. 단 남자들만 그렇게 하고 여자들은

“결[태]탈인이 먼국에 사절로 갈 때 [아곽의] 작고한 아버지 아필(阿必)이 안내하였습니다. 지원 9년(1272) 3월에 면왕이 [아곽의] 아버지 아필에게 원한을 가지고 병력 수만을 거느려 침입해와서 아버지 아필을 잡아갔습니다. 어쩔 수 없이 그 나라에 후한 [물자를] 헌납하고서야 아버지를 석방하게 할 수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먼국 안의 부락에 사는 사람들이 마치 개 무리와 같을 뿐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근래에 먼국에서 아적팔(阿的八) 등 9명의 사람을 보내왔는데 이는 단지 [우리] 국가의 동정을 엿보려는 것이었습니다. 현재 백의(白衣)¹⁷⁾의 두목은 아곽의 친척이고 먼국과 인접하고 있습니다. [백의 두목이] 전에 말하기를 먼국에 들어가려면 세 갈래 길이 있는데 하나는 천부마(天部馬)를 거쳐가고, 또 하나는 표전(驃甸)¹⁸⁾을 지나며, 또 다른 하나는 아곽의 지역을 경유하는데 세 길이 모두 먼국의 강두성(江頭城)¹⁹⁾에서 만난다고 하였습니다. 또 아곽의 친척인 아제범(阿提犯)이 먼국에서 다섯 구역

하지 않았다고 하였다. 그러나 金齒라는 명칭은 이들이 檳榔 열매 등을 습관적으로 씹어 치아가 흑색 또는 붉은색으로 물들어진 것에서 유래하였다고도 한다. 金齒가 지명으로도 쓰일 때는 『元史』 卷61 「地理志」에는 이곳의 위치를 大理의 서남, 蘭滄江(중국 경내에 있는 메콩 강 상류)의 서, 緬地의 동이라고 했는데, 대개 금치인이 많은 운남성 서남부 즉 현재 雲南省 德宏傣族景頗族自治州와 保山·臨滄 등 지역의 일부를 가리켰다. 世祖 中統 원년(1260)에 元朝에 예속되었고 中統 2년(1261)에는 金齒安撫司가 설치되었으며 至元 15년(1278)에는 宣撫司로 바뀌었다가 지원 23년(1286)에 大理金齒等處宣撫使에게로 통합되었다(김호동, 2000: 324). 또 明 太祖 洪武 18년(1385)에는 金齒衛指揮使司가 永昌에 설치되어 이곳을 가리켜 金齒라고 하게 되었다.

- 17) 白衣: 중국에서 南蠻으로 통칭하던 수많은 종족으로, 金齒와 더불어 현대 傣族의 다양한 선조 지파 중 하나였다. 현재 雲南省 文山·紅河·德宏·西雙版納 등 自治州 일대에 분포한 傣族은 漢·晉 때부터 南詔·大理 시기까지 ‘鳩僚’라고 불리었고 그중 동부쪽에 있던 부류는 ‘白衣’·‘棠魔蠻’이라고 하였다. ‘白衣’라는 이름은 그들의 백색 의복에서 유래한 것이라는 설과 고대 ‘百越’의 음이 바뀐 것이라는 설이 있다.
- 18) 驃甸: 현재 雲南省 龍川縣에 해당하는 지역이다. 元代 초 金齒와 緬 사이에 표전을 비롯한 지역 세력들이 차례로 항복해오자 이곳에 驃甸軍民府를 설치하여 雲南行省에 속하게 하였다. 치소는 현재 瑞麗江(龍川江)의 北岸 미얀마 馬貝英에 두었다가 후에 폐지하였다. 원래 운남과 미얀마 일대의 다양한 종족 중 驃族은 당대 이전에 驃國을 건립하고 현재 미얀마 중부 綠鄴江 東岸의 卑濤에 도성을 두고 있었다. 『大唐西域記』에서는 室利差咀羅國이라고 칭하였다. 표국은 당 太和 6년(832)에 南詔에게 패하고 이후 점차 쇠락하여 蒲甘 왕조에 들어갔으며 그 종족도 緬人에게 차츰 동화되어갔다.
- 19) 江頭城: 현재 미얀마의 바모(八莫, Bhamo)에 있던 蒲甘 왕조의 주요 도시로 수륙교통의 요충이어서 雲南에서 미얀마로 들어갈 때 이곳을 경유하였다. 『新元史』 「外國傳」 〈緬國〉에 따르면 강두성은 太公城·馬來城·安正國城 그리고 蒲甘緬王城과 함께 ‘緬中五城’이라고 불리었다. 또 淸 王芝의 『漁瀛臚志』에서는 “新街卽新開營, 當檳榔·大金沙二江之沖, 故名江頭”라고 江頭城이라는 이름의 연원을 설

을 관장하고 있는데 세대 수가 각각 1만여 호이며 [중국에] 귀부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아곽은 먼저 아제범과 금치 중에서 항복해오지 않은 자들을 초무하여 [그들로 하여금] 길을 안내하게 하기를 원합니다.” 운남성에서 알리기를 면왕이 항복할 마음이 없으며 [거기] 간 사절이 돌아오지 않으니 반드시 정벌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에 대하여] [지원 12년] 6월에 추밀원(樞密院)²⁰⁾에서 건의를 올렸으나 황제가 “잠시 늦추도록 하라”고 말하였다.²¹⁾ [지원 12년] 11월에야 운남성에서 비로소 보고를 하였다. 즉, “사람을 보내어 국사(國使)들의 소식을 정탐하려는데 포인(蒲人)²²⁾ 역적들 때문에 길이 막혔었습니다. 이제 포인들이 대부분 항복하여서 길이 통하게 되었기에 금치부 천액(千額)²³⁾의 총관(總管)²⁴⁾인 아화(阿禾)를 파견하여, 국사들이 면국에 도달하였고 모두가 안전하다는 것을 알아내었습니다.”

十四年三月，緬人以阿禾內附，怨之，攻其地，欲立寨騰越·永昌之間。時大理路蒙古千戶忽都·大理路總管信苴日·總把千戶脫羅脫孩奉命伐永昌之西騰越·蒲·驃·阿昌·金齒未降部族，駐筍南甸。阿禾告急，忽都等晝夜行，與緬軍遇一河邊，其衆約四五萬，象八百，馬萬匹。忽都等軍僅七百人。緬人前乘馬，次象，次步卒；象被甲，背負戰樓，兩旁挾大竹筍，置短槍數十於其中，乘象者取以擊刺。忽都下令：「賊衆我寡，當先衝河

명한다.

- 20) 樞密院: 唐代부터 元代까지, 역대 왕조별로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중앙정부 최고의 군사 담당 관서의 명칭이었다. 元代에도 樞密院은 군사기밀사무, 변경방위를 주관하고 아울러 禁衛를 겸하였고, 戰時에는 추밀원의 파출기구인 行樞密院을 두었다.
- 21) 至元 10년(1273)에 쿠빌라이가 면에 사절을 보내 면왕에게 왕실자제와 대신을 보내 조공하라고 하였으나 이루어지지 않고 원의 사절도 돌아오지 않았다. 미얀마의 史籍 기록에 따르면 원의 사절들은 면왕을 알현할 때 馬靴를 벗지 않으려 하여 처형되었다고 한다.
- 22) 蒲人: 元代와 明代 史籍에서 소수민족 布朗族·德昂族에 대하여 쓰던 범칭이며, 말하자면 古代의 百濮이다. 淸 顧炎武의 『天下郡國利病書』 「雲貴交趾」에서 “蒲人, 卽古百濮”이라고 하였다.
- 23) 千額: 현재 雲南省 盈江의 동북부이다.
- 24) 總管: 北周 武成 원년(559)에 지방의 군사장관 都督을 總管으로 개칭하였으나, 그 후로는 왕조에 따라 지방의 고급 軍政長官, 軍事長官, 또는 전문사무 행정장관 등으로 총관의 직무에 차이가 있었다. 元代에는 조정과 각 지방에 都總管府와 總管府를 설치하고 達魯花赤, 總管 등의 장관이 관리하도록 하였다. 가령 全國諸色人匠을 관리하는 都總管府, 江淮地區財賦를 관리하는 都總管府, 行宮과 황제의 사냥 다니는 일을 맡는 尙供總管府, 屯田을 관리하는 總管府 등이 있었다.

北軍。」親率二百八十一騎爲一隊，信苴日以二百三十三騎傍河爲一隊，脫羅脫孩以一百八十七人依山爲一隊。交戰良久，賊敗走。信苴日追之三里，抵寨門，旋濼而退。忽南面賊兵萬餘，繞出官軍後。信苴日馳報，忽都復列爲三陣，進至河岸，擊之，又敗走。追破其十七寨，逐北至窄山口，轉戰三十餘里，賊及象馬自相蹂死者盈三巨溝。日暮，忽都中傷，遂收兵。明日，追之，至千額，不及而還。捕虜甚衆，軍中以一帽或一兩靴一氊衣易一生口。其脫者又爲阿禾·阿昌邀殺，歸者無幾。官軍負傷者雖多，惟一蒙古軍獲一象不得其性被擊而斃，餘無死者。

[지원] 14년(1277) 3월에 면국 사람들이 아화가 내부한 것²⁵⁾을 원망하여 그의 지역을 공격하고 등월(騰越)²⁶⁾과 영창(永昌)²⁷⁾ 사이에 목책을 건립하고자 하였다. 이때에 대리로(大理路)²⁸⁾의 몽고 천호(千戶)²⁹⁾ 홀도(忽都)·대리로 총관 신저일(信苴日)·총파(總把)³⁰⁾천호 탈

25) 운남과 면국 사이의 여러 종족들이 원에 속속 항복하던 시기인데, 金齒는 좀 더 일찍 귀부하였으나 千額의 阿禾는 바로 이 시기에 새로 귀부하였다.

26) 騰越: 元 至元 11년(1274)에 騰冲府를 고쳐 騰越州를 설치하여 치소는 등월현(현재 雲南省 騰冲縣)에 두었다. 大理路에 속하고 그 관할 지역은 현재 雲南省 高黎貢山, 怒山의 이서, 尖高山의 남동지역에 해당하였다. 至元 25년(1288)에 폐지하였다. 明 嘉靖 3년(1524)에 다시 설치되어 永昌府에 속하였다.

27) 永昌: 元 至元 11년(1274)에 永昌州로 설치되어 大理路에 속하였고 치소는 현재 운남성 保山市였다. 至元 15년(1278)에 永昌府로 승격되고 大理·金齒等處宣慰使의 체류지였다. 마르코 폴로의 『東方見聞錄』에는 차르단단 즉 金齒의 수도를 운찬(Uncian)이라고 하였는데 이곳이 다시 大理·金齒等處宣撫司의 치소가 있던 永昌府를 의미하였다(김호동, 2000: 324)

28) 大理路: 元 至元 7년(1270)에 설치되어 雲南行省에 소속되었으며 치소는 太相縣(현재 雲南省 大理市 북쪽 26리에 있는 大理古城)에 두었다. 관할 영역은 대략 현재 雲南省 大理白族自治州的 대부분과 保山·騰冲·瀘水·施甸 등의 市縣 지역이었다. 明 洪武 15년(1382)에 폐지, 府로 바뀌었다.

29) 千戶: 金朝에서 처음으로 설치한 세습 軍職의 官名이다. 처음에는 투항한 漢人 신하에게만 주었다가 후에는 여진족의 군사조직인 猛安을 칭하는 용어가 되었다. 몽골 칭기즈칸이 건국 후 공신들에게 분봉할 때에도 千戶 또는 千夫長이라고 칭하였는데 모두 95명이었다. 元朝에서는 각 路에 천호소를 설치하고 천호를 장관으로 하였다. 위로 萬戶에 예속되며 아래로 百戶를 다스렸다. 거느리는 병사 수에 따라 등급이 있었는데, 700명 이상은 上千戶所, 500명 이상은 中千戶所, 300명 이상은 下千戶所였다. 明에서도 천호를 천호소 장관으로 두었으며 정5품이었다. 위로 衛에 속하고 아래로 百戶를 두었다.

30) 總把: 元代 軍制 상의 관원 명칭이다. 元 世祖 때 군사제도를 정비하면서 五衛를 설치하고 衛에는 五都指揮를 두어 다스리게 하여 侍衛親軍制度를 갖추게 되었다. 그리고 萬戶 아래에 總管을 두고 千戶 아래에

라탈해(脫羅脫孩) 등이 영창의 서쪽 등월·포(蒲)·표(驃)³¹⁾·아창(阿昌)³²⁾·금치 등 [지역]에서 아직 항복해오지 않은 부족을 정벌하라는 명령을 받들어 남甸(南甸)³³⁾에 주재[駐劄]³⁴⁾하고 있었다. 아화가 위급함을 보고하니 홀도 등이 밤낮으로 행진하여 어느 강변³⁵⁾에서 면국군대와 맞닥뜨렸는데 그 무리가 약 4, 5만이며 코끼리 800마리와 말[馬] 1만 필이 있었다. 홀도 등의 군대는 겨우 700명이었다. 면군의 맨 앞에 있는 자들은 말을 타고, 그 다음은 코끼리를 [타고 있고], 그 뒤에 보병대가 있었다. 코끼리는 갑옷을 입고 등에는 전투용 누각[戰樓]³⁶⁾을 지고 있는데 [그 누각의] 양측에 커다란 대나무 통[竹筩]이 붙어 있고 [죽통 안에] 단창 수십 자루가 들어 있어서 코끼리를 탄 사람들은 그것을 꺼내어 치고 찢러댔다. 홀도가 명령을 내려 “적군은 많고 우리는 적으니 마땅히 먼저 강 북쪽의 군대를 쳐야 한다”고 하였다. [홀도가] 직접 281명의 기병(騎兵)을 인솔하여 한 부대로 삼고, 신저일은 233명의 기병으로 강 옆에서 한 부대를 이루었으며 탈라탈해는 187명으로 산을 따라 한 부대를 이루었다. 교전이 꽤 오래 지속되고 적이 패하여 달아났다. 신저일이 그들을 추격하여 3리를 가서 목책 문까지 다다랐으나 [길이] 진창이어서 곧 물러났다. 갑자기 [강] 남쪽의 적병 1만여 명이 관군의 뒷면을 둘러싸며 나타났다. 신저일이 빠른 말을 달려 [사람을] 보내어 알렸고 [이에] 홀도가 다시 3개의 진영으로 배열하여 하안(河岸)으로 전진하여 적병을 습격하자 [적병이] 또다시 패배하여 달아났다. 추격하여 그들의 목책 17곳을 무너뜨리고 패주하는 적군을 좁은 산 어귀로 몰아넣기까지, 30여 리에 달하는 지역 여기저기에서 전투가 벌어졌는데, 적병과 코끼리와

總把, 百戶 아래에 彈壓을 두고 樞密院에서 모두 총괄하였다. 元朝는 관원에 대해서 뒤에 ‘使’를 붙이는 칭호법이 있어서 總把도 “總把使”라 불리었다.

31) 驃: 驃甸軍民府를 말한다.

32) 阿昌: 현재 德宏傣族景頗族自治州와 騰冲 일대에 거주한 阿昌 또는 ‘俄昌’ 종족 또는 그들의 지역을 가리킨다. 아창족은 운남성 영역에서 가장 일찍 世居한 종족 중 하나였다.

33) 南甸: 元 至元 26년(1289)에 南甸路軍民總管府를 설치하여 雲南行省에 속하게 하였다. 치소는 현재 雲南省 德宏傣族景頗族自治州 梁河縣의 동북쪽 20리 거리에 있었다. 관할 영역은 대략 현재 雲南省 梁河縣 지역이었다. 명대 초에 폐지되었다.

34) 駐劄: 외교 대표로서 관리가 외국에 주재함을 뜻한다.

35) 원문에서 말하는 至元 14년의 이 전투는 ‘芒市河의 전투’라고 부른다. 芒市河는 오늘날 雲南省 龍陵의 서남에서 발원하여 龍川江으로 유입하였다.

36) 戰樓: 마르코 폴로의 설명에 따르면 이 전투용 누각 하나에는 최소한 12명의 전사들이 들어갔고 어떤 것은 16명이나 그 이상이 들어가기도 하였다(김호동, 2000: 328).

말이 자기들끼리 서로 짓밟아 죽인 [사체들이] 커다란 도랑 세 곳에 가득하였다. 날이 저물었을 때 홀도가 부상을 입어서 마침내 전투를 중지하였다. 다음날 적군을 쫓아 천액(千額)에 이르렀으나 따라잡지는 못하고 돌아왔다. 잡은 포로가 심히 많아 군사들 사이에 모자 하나 또는 신발 한 켤레, 모직 옷 한 벌과 포로 한 명의 목숨을 바꾸어주기도 하였다. [그러나] 탈주한 사람은 다시 아화·아창에게 살해당했기 때문에 도망하여 돌아간 자는 얼마 안 되었다. 관군의 경우는 부상당한 자가 많았고, 오로지 단 한 명의 몽고군 사병이 코끼리 한 마리를 포획하였다가 그 습성을 몰라 공격을 당하여 죽었을 뿐이고 그 외에 다른 사망자는 없었다.³⁷⁾

十月，雲南省遣雲南諸路宣慰使元帥納速刺丁率蒙古·爨·僂·摩些軍三千八百四十餘人征緬，至江頭，深蹂酋首細安立寨之所，招降其磨欲等三百餘寨土官曲蠟蒲折戶四千·孟磨愛呂戶一千·磨柰蒙匡里答八刺戶二萬·蒙忙甸土官甫祿堡戶一萬·木都彈禿戶二百，凡三萬五千二百戶，以天熱還師。

[지원 14년(1277)] 10월, 운남성에서 운남제로선위사 원수(元帥) 납속랄정(納速刺丁)³⁸⁾을 파견하여 몽고·찬(爨)³⁹⁾·북(僂)⁴⁰⁾·마사(摩些)⁴¹⁾ 등 종족의 군사 3,840여 명을 통솔하여

- 37) 中華書局 本『元史』「校勘記」에 따르면, “惟一蒙古軍……”에서 본래는 ‘一’이 없었으나 『元文類』 卷41 「經世大典序錄·征伐」에 의거하여 보충하였다. 『新元史』는 이미 교정하였다.
- 38) 納速刺丁(?~1292): 나스르 웃 딘(Nasr ad-Din)의 漢譯이다. 마르코 폴로의 『동방견문록』에는 네스라딘(Nesradin)이라고 하였다. 운남지역 책임자이던 샴스 웃 딘 우마르 사이드 아잘(Shams ad-Din Umar Sayyid Ajjal, 賽典赤瞻思丁)의 長子이며 元朝의 저명한 정치가였다. 元 세조 中統 원년(1260), 兀良哈台를 따라 雲南에 진입하여, 安南다루가치(達魯花赤)·雲南諸路宣慰使都元帥를 지냈다. 지원 11년(1274)에 아버지 賽典赤瞻思丁이 雲南行省首任平章政事를 맡은 후에 納速刺丁이 아버지의 중요한 조수 역할을 하면서 원대 초기 雲南 안정화에 공헌하였다. 아버지가 사망한 후 납속랄정이 명령을 받아 운남행중서성 左丞 그리고 곧 右丞을 맡았다. 至元 16년(1279) 납속랄정이 소수민족의 목책 300여 곳을 招撫하고 12만 200호의 민호를 얻었다. 여기에 租賦를 정하고 역참과 衛兵을 설치하였다. 지원 21년(1284)에 雲南行省平章政事를, 그리고 지원 28년(1291)에 陝西行省平章政事를 맡았으나 같은 해에 사망하였다. 그의 略傳은 『元史』 卷125, 『蒙兀兒史記』 卷80 등에 보인다(김호동, 2000: 329).
- 39) 爨: 현재 雲南省 滇池를 중심으로 광대한 지역에 분포했던 爨族은 원래 彝族 중에서 세력이 강한 하나의 성씨였는데 점차 종족을 가리키는 범칭이 되었다. 東晉시대에 雲貴 지역에서 지방정권을 이루어 남중국 지역 통치집단의 통칭이 되었다. 수대에는 爨蠻이 동서로 분열되어 東爨는 ‘烏蠻’이라고도 불렸고 수대

면국을 정벌하게 하였다. 강두[성]에 이르러 추장 세안(細安)이 목책을 세운 곳으로 깊숙이 들어가서 마욕(磨欲) 등 300여 개 목책에 있는 토관(土官)⁴²⁾ 곡랍(曲臘)과 포절(蒲折) [관할의] 4,000호(戶)·맹마(孟磨) 애려(愛呂) [관할]의 1,000호·마내(磨柰) 몽광(蒙匡) 이답팔랄(里答八剌)[관할]의 2만 호·몽망진(蒙忙甸)의 토관 포록보(甫祿堡)의 1만 호·목도탄독(木都彈禿)의 200호 등 전부 합하여 35,200호를 타일러 항복시켰는데, 날씨가 너무 더워서 [더 들어가지 않고] 군대를 철수하였다.

十七年二月，納速刺丁等上言：「緬國與地形勢皆在臣目中矣。先奉旨，若重慶諸郡平，然後有事緬國。今四川已底寧，請益兵征之。」帝以問丞相脫里奪海，脫里奪海曰：「陛下初命發合刺章及四川與阿里海牙麾下士卒六萬人征緬，今納速刺丁止欲得萬人。」帝曰：「是矣。」即命樞密繕甲兵，修武備，議選將出師。五月，詔雲南行省發四川軍萬人，命藥刺海領之，與前所遣將同征緬。十九年二月，詔思·播·敘諸郡及亦奚不薛諸蠻夷等處發士卒征緬。

말부터 쇠퇴하고, 西蠻은 '白蠻'로 불리고 점차 6개 부락으로 분열되었다. 원조 당시에도 운남의 토착민은 크게 두 종류였다. 하나는 烏蠻·羅羅斯 혹은 爨이라 불리던 티베트-버마어를 말하는 집단이고, 다른 하나는 白蠻·茶罕章 혹은 爨이라 불리던 타이(Thai)어를 말하던 집단이다(김호동, 2000: 318).

- 40) 爨: 爨族은 先秦 시대부터 오랫동안 발전하여 서남 소수민족의 최고를 이루며 雲南·貴州·四川 3省 경계의 요충지대에 웅거하며 중국 정권에 쉽게 굴복되지 않았다. 明朝에서 추장 제도를 폐지하고 漢官으로 대체하려는 정책에 항거하였다. 명의 정벌전쟁을 여러 차례 당하였으나 끈질기고 완강하게 저항하였다.
- 41) 磨些: 納西族의 先民이다. 『華陽國志』에서는 '摩沙夷'라고 썼다. 南詔부터 大理 시대까지 麗江을 중심으로 모여 살았다.
- 42) 土官: 중국 고대부터 帝王에게서 지위와 토지·재물 등을 하사받고 독점적으로 세습하는 권한을 부여받은 관원 또는 통치자를 의미하였다. 송대에 처음으로 소수민족을 통치하는 관직과 관원의 명칭이 되기 시작하였다. 즉 송조가 儂智高의 反亂을 평정한 후에 狄靑을 파견하여 많은 부하들을 桂西의 토관으로 삼았는데, 이때 해당 지역의 토착 추장들을 토관에 봉한 경우도 적지 않았다. 明代에는 서북·서남의 각 소수민족 聚居 지역에 土司를 설치하여 해당 종족의 지배층에게 이를 담당하게 하고 등급에 따라 宣慰使·宣撫使·按撫使 등의 武職과 土知府·土知縣 등의 文職으로 나누어 자손들에게 세습하게 하였다. 明清代에 四川省·雲南省·廣西省 등 지역의 소수민족 집거지역에 일정한 임기를 정하여 파견된 지방관을 '流官'이라고 칭하였는데, 土官은 그와 대비되는 개념이었다.

[지원] 17년(1280) 2월, 납속랄정 등이 [다음과 같이] 상언하였다. “면국의 지리형세는 모두 소신이 훤히 내다보고 있습니다. 전에는 성지(聖旨)를 받들어 만약 중경(重慶)의 여러 군(郡)들을 평정하면 그 다음에 면국을 정벌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제 사천이 이미 안정 되었으니 병력을 추가하여서 면국을 정벌할 것을 청합니다.” 황제가 승상 탈리탈해(脫里奪海)에게 물으니 탈리탈해가 답하여 “폐하께서 애당초 합랄장(合剌章)과 사천 및 아리해아(阿里海牙) 수하의 사병 6만을 발동하여 면국을 정벌하라고 명령하셨는데 현재 납속랄정은 단지 1만 명만 원합니다”라고 하였다. 황제가 “좋다!”고 하였다. 즉시 추밀원에 명령하여 무기를 수선하고 군비를 정돈하여 군대를 이끌고 출정할 장령을 의논하여 뽑도록 하였다. [지원

43) 重慶: 南宋 淳熙 16년(1189)에 恭州를 승격시켜 重慶府를 설치하고 치소는 巴縣(현재 四川省 重慶市)에 두었다. 元 至元 16년(1279)에 重慶路로 고치고 四川南道宣慰司에 속하게 하였으며 치소를 巴縣에 두었다. 그 관할 영역은 四川 江安縣 이동, 武勝縣 이남, 忠縣 이서, 南川縣 이북 지역이었다. 至正 연간(1341~1367) 말에 明玉珍의 ‘蜀夏’가 이곳에 建都하였다. 明 洪武 4년(1371)에 다시 重慶府로 하여 四川布政使司에 속하고 清代에는 四川省에 속하였다.

44) 合剌章: 元代 雲南 지방을 가리키는 몽골어 카라장(Qarajang)을 옮긴 것으로 『元史』에서 哈刺章, 阿刺章, 哈刺張 등으로도 썼다. 또 라시드 왓 딘의 『集史』에서는 카라장(Qarajang), 마르코 폴로의 『東方見聞錄』에서는 카라잔(Caragian)으로 썼다. 몽골군은 1253~1257년 이 지방에 있던 大理國을 정복했고 후일 雲南行省을 설치하였다. 행성의 치소인 雲南府가 그 동반부에 있는 야치(Yachi, 鴨赤, 鴨池) 즉 현재의 昆明에 두어졌기 때문에, 서반부에 있던 대리국의 수도인 대리가 카라장이라고 불리게 되었다. 카라장이라는 말은 이 지방 전체의 명칭이자 동시에 대리시를 부르는 이름으로도 사용된 것이다. ‘카라’ 즉 ‘合剌’은 몽골어로 ‘검다[黑]’는 뜻인데 아마 그곳 주민들의 의복이 검은색이었기 때문인 듯하다. 외모를 두고 죽명을 붙인 경우는 운남지방의 ‘자르단단(Zardandan, 金齒)’, ‘예케부세(Yekebuse, 亦奚不薛, 즉 ‘큰 벨트’) 등의 이름에서도 보인다. 한편 장(jang)이라는 말의 어원은 분명치 않으나 티베트어의 잔(jan) 혹은 그곳에 살던 고대 南詔國의 성씨인 ‘爨’과 관련이 있다는 가설이 있다(김호동, 2000: 318).

45) 阿里海牙(아리카이 AriqQaya, 1227~1286): 위구르인으로 아버지 阿散合徹은 농업을 하였는데 阿里海牙가 聰敏하고 말을 잘하며 공을 세우는 것에 뜻을 두자 경작을 버리고 학문의 길로 나가 위구르 서책을 익혔다. 후에 蒙古 대장 不憐吉帶 휘하에 들어가 대장의 아들에게 위구르문을 가르치게 되었고, 그가 宗王 忽必烈(쿠빌라이)에게 추천해주어 王府의 宿衛士가 된 이후, 남송 정복과 점성 침공 등 전쟁에도 공을 세우고 승진을 거듭하였다. 至元 15년(1278)에 湖廣 각지에서 일어난 반란을 진압한 후에 宣慰司 설치를 청하고는 자신이 통치하였다. 荆湖南北路를 정복하는 전쟁 중에 항복한 3,800호의 민을 私奴로 삼는 등 그 휘하의 세력이 증강하게 되자 중앙정부와의 갈등을 겪었다. 본문에서 緬國 정벌에 阿里海牙 휘하의 士卒을 징발하는 것도 그러한 맥락 안에서 이해할 수 있다. 至元 23년(1286) 초, 入朝하여 베트남 정벌 문제를 논의하고 安南行省左丞相에 임명되었으나 부임하기 전 5월에 上都에서 병사하였다. 후에 楚國公에 추봉되고 至正 8년(1348)에 다시 江陵王으로 진봉되었다.

17년] 5월에 운남행성에서 사천군 1만 명을 파견하라는 조서를 내리고 약랄해(藥刺海)⁴⁶⁾에게 명하여 이 군대를 통솔하여 이전에 파견된 장수와 함께 면국을 정벌하게 하였다. [지원] 19년(1282) 2월, 조서를 내려 사군(思郡)⁴⁷⁾·파군(播郡)⁴⁸⁾·서군(敘郡)⁴⁹⁾과 역혜부설(亦奚不薛)⁵⁰⁾ 등 여러 만이들로부터 병사를 징발하여 면국을 정벌하게 하였다.

二十年十一月，官軍伐緬，克之。先是，詔宗王相吾答兒·右丞太卜·參知政事也罕的斤將兵征緬。是年九月，大軍發中慶。十月，至南甸，太卜由羅必甸進軍。十一月，相吾

46) 藥刺海: 『元史』 卷11 「世祖本紀」에 따르면 약랄해는 당시 西川, 즉 현재 四川의 일부 지역의 군을 이끌고 있었으며 緬國 정벌에 앞서 그해 3월에는 원의 貴州 지역 정벌전쟁에 동원된 바 있었다.

47) 思郡: 현재 貴州省에 있던 思州를 말한다. 唐 太宗 貞觀 4년(630)에 務州를 思州로 바꾸어 설치하고 그 치소는 務川縣(현재 貴州省 沿河土家族自治縣 동북지역)에 두었다. 玄宗 天寶 원년(742)에 安夷郡으로 고쳤다가 肅宗 乾元 원년(758)에 다시 思州로 하였다. 관할 영역은 현재 貴州省의 務川仡佬族苗族自治縣·印江土家族苗族自治縣·沿河土家族自治縣·四川西陽土家族苗族自治縣 지역이었다. 五代 때에 폐지하였다가 北宋 徽宗 政和 8년(1118)에 재설치하고 치소를 貴州省 務川仡佬族苗族自治縣으로 옮겼다. 宣和 연간(1119~1125) 중에 폐지하고 南宋 高宗 紹興(1131~1162) 초기에 다시 설치하였다. 元至元 연간(1264~1294)에 思州安撫司로 바꾸어 湖廣行省에 부속시켰으며 치소는 水特姜長官司(현재 貴州省 思南縣)에 두었다. 明代에는 洪武 5년(1372)에 思南宣慰司를 설치하였다가 곧 思州府로 다시 고쳤다.

48) 播郡: 현재 貴州省 遵義 지역에 해당하던 播州를 말한다. 唐 太宗 貞觀 13년(639)에 설치하고 치소는 恭水縣(羅蒙縣, 遵義縣으로 바꾸었으며 오늘날 貴州省 遵義市에 해당하는데 일설에는 현재 綏陽縣城 부근이라고 함)이었다. 『太平寰宇記』 卷121 〈播州〉에 “以其地有播川爲名”이라고 하였다. 관할 구역은 현재 귀주성 준의시·준의현·동재현 지역이었다. 宋代 徽宗 宣和 3년(1121)에 폐지되었다가 理宗 嘉熙 3년(1239)에 播州安撫司를 이곳에 설치하였고 元代 至元 28년(1291)에 播州宣撫使로 고쳐 四川行省에 속하게 하였다. 明 洪武 5년(1377)에 播州宣慰司로 바뀌었다.

49) 敘郡: 사천 지역에 있던 본래 敘州를 말한다. 北宋 徽宗 政和 4년(1114)에 戎州를 고쳐서 설치하고 치소는 宜賓縣(현재 四川省 宜賓市 犇北六里舊州壩)에 두었다. 明 正德 『四川志』 卷16 〈敘州府〉에 “取西戎卽敘之義”라고 하였다. 그 관할 영역은 현재 四川省 宜賓·南溪·馬邊 이남, 雲南省 동북 그리고 貴州省 서북부 지역이었다. 南宋 度宗 咸淳 3년(1267)에 치소를 登高出(현재 宜賓市 동쪽 東山)로 옮겼다. 元 世祖 至元 13년(1276)에 三江口(현재 宜賓市)로 치소를 옮기고 지원 18년(1281)에 敘州路로 고쳐 四川行省 敘南等處蠻夷宣撫司에 속하게 하였다. 明 洪武 6년(1373)에 敘州府로 고쳤다.

50) 亦奚不薛: 元代 貴州 서북부 지역에 대한 명칭이었다. 원래 사람 이름에서 씨족 이름으로 변하고 또한 부락 칭호와 지명이 되었다.

答兒命也罕的斤取道於阿昔江，達鎮西阿禾江，造舟二百，下流至江頭城，斷緬人水路；自將一軍從驃甸徑抵其國，與太卜軍會。令諸將分地攻取，破其江頭城，擊殺萬餘人。別令都元帥(玄)[袁]世安以兵守其地，積糧餉以給軍士，遣使持輿地圖奏上。

[지원] 20년(1283) 11월 관군이 면국을 정벌하여 함락시켰다. 이에 앞서⁵¹⁾ 조서를 내려 종왕(宗王)⁵²⁾ 상오답아(相吾答兒)⁵³⁾·우승(右丞)⁵⁴⁾ 태복(太卜)⁵⁵⁾·참지정사(參知政事)⁵⁶⁾

51) 『新元史』卷11「本紀」11〈世祖〉5에 따르면, 황제의 면국 정벌 명령 시기는 至元 19년(1282) 2월로 보인다. 甲午일 기사로 “諸王相吾答兒·行中書省右丞太卜·參知政事也罕的斤征緬國”이라는 내용이 있다.

52) 宗王: 元朝와 그 이후 몽골지역 各部의 수령봉호 중 하나로 親王爵位와 유사하였다. 『元史』卷108「諸王表」의 기록에 따르면, 몽골·원 시대 칭기즈칸 황금씨족과 관련 있는 몽골 귀족남자는 宗王의 책봉을 받았다. 종왕의 종류는 우선, 조정에서 頒發하는 王印을 획득하는 종왕인 이른바 ‘大大王’과, 王印을 받지 못한 ‘小大王’이라는 종왕으로 크게 분류할 수 있다. 그리고 대대왕의 王印에는 다시 6개 등급이 있었다. 1等 왕인은 金印獸紐로 漢子 1개의 王號로 ‘一字王’이라고 하였다. 가령 燕王眞金(世祖太子), 秦王忙哥刺(世祖皇子) 등으로 칭하였던 ‘一字王’은 원조 왕위 중에서 최고였다. ‘一字王’의 아래로는 ‘二字王’들로서 예를 들어 ‘平西王 奧魯赤’ 등과 같았다. 그들이 받는 王印의 다섯 가지 종류는 등급의 차례로 金印螭紐, 金印駝紐, 金鍍銀駝紐, 金鍍銀龜紐, 銀印龜紐였다.

53) 相吾答兒: 元 世祖 때 緬國 정벌군의 統帥를 맡았다. 『元史』卷12「世祖本紀」9〈至元 20년(1283) 5월 戊午〉에는 “丞相伯顏·諸王相吾答兒等言, ‘征緬國軍宜參用蒙古·新附軍’ 從之”라고 하였다. 먼 정벌군에 蒙固軍과 探馬赤 軍隊 외에 새롭게 귀부한 南宋의 사병을 선발하여 쓰자고 건의하여 세조의 수락을 받았다는 내용이다. 이어서 『元史』卷13「世祖本紀」10〈至元 21년 정월 辛未〉 기사에는 相吾答兒가 使者를 보내서 緬國에서 공납한 珍珠·珊瑚·異彩及七寶束帶를 바쳤다는 기록이 있다.

54) 行省右丞: 『元史』卷13「世祖本紀」10〈至元 21년 정월 丁卯〉조에서는 “時諸王相吾答兒及行省右丞太蔔·參知政事也罕的斤分道征緬”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여기의 右丞은 行中書省右丞을 말한다. 行中書省은 元朝 최고의 지방행정기구로 中統(1260~1263)·至元(1264~1294) 연간에 처음 설치되었으며 민간에서 ‘行省’ 또는 ‘省’으로 약칭되었다. 원조는 中書省을 두어 전국의 정부를 總理하도록 하여 都省이라고 칭하였다. 그러나 점차 그 업무범위가 복잡하고 광활하게 되자 수도 부근의 중심지역을 中書省에 직접 예속시키고 吐蕃지역을 宣政院의 관할로 둔 것을 제외하고, 諸路의 주요 도시지역에 모두 10개의 行中書省을 설립하여 각 지역을 나누어 관장하게 하였다. 錢穆의 해석에 따르면 行中書省의 의미는 “움직이는 中書省”인데 말하자면 중앙정부가 지방행정상의 통치유지를 위하여 설립한 전권기관으로 차치 권력을 지닌 지방정부와는 권력의 내원이 달랐다. 원은 行中書省 아래에, 송의 路를 道로, 송의 州를 路로, 일부 縣을 州로 승격시켜 縣과 州를 같이하여 行省·도·로·주(현)의 4급 지방행정제를 실행하였다. 行中書省의 관직은 대체로 중앙 中書省과 같아서, 行省마다 丞相 1員 從1品, 平章 2員 從1品, 右丞

야한적근(也罕的斤)⁵⁷에게 군대를 지휘하여 면국을 정벌하라는 명령이 있었다. [지원 20년] 이해 9월에 대규모 군대가 중경(中慶)⁵⁸에서 출발하였다. 10월 남전에 도달하였을 때 태복은 나필전(羅必甸)⁵⁹에서 진군하였다. 11월에는 상오답아가 야한적근에게 명령하여 아석강(阿昔江)⁶⁰으로 길을 택하여 진서[로](鎭西路)⁶¹ 아화강(阿禾江)⁶²까지 이른 다음, 배 200척을 만들어 타고 아래로 강두성까지 내려가서 면국 사람들의 수로를 끊으라고 하였다. [상오답아] 자신은 한 부대를 이끌고 표전(驃甸)에서 출발하여 곧바로 면국으로 가서 태복의 군대와 합류하였다. 모든 장수에게 명령하여 지역을 나누어 점령하게 하고, 강두성을 돌파하여 1만여 명을 쳐서 죽였다. 별도로 도원수 원세안(袁世安)⁶³에게 명령을 내려, 군대를 거느려 그 지역

1員·左丞1員 正2品, 參知政事 2員 從2品 등을 두었다.

55) 太卜: 앞의 주 54)에서 본 바와 같이, 『元史』卷13 「世祖本紀」 10, <至元 21년 정월 丁卯>조에서는 “時諸王相吾答兒及行省右丞太蔔”이라고 하여 太卜이 아니라 太蔔으로 음譯되어 있다.

56) 參知政事: 앞의 주 54)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여기서의 참지정사도 행정서성, 정확히는 운남행성의 참지정사를 말한다.

57) 也罕的斤: 윈대 장군이다. 哈刺魯(투르크계 카를룩)인이고 密立火者의 아들로 현재 烏茲根 지역에서 世居, 中統 2년(1261)에 千戶長을 세습하였다. 본문의 緬國 정벌에 앞서 일찍부터 남송 정복전쟁, 重慶 평정에도 전공이 탁월하여 지원 17년(1280) 즈음에는 四川宣慰使都元帥에 진급되고, 이어 雲南行省參知政事를 받았다. 『元史』卷133 列傳 20에 입전되어 있는데, 至元 21년(1284) 緬國 원정에서의 공적이 강조되어 있다.

58) 中慶: 元 世祖 至元 13년(1276) 善闡府를 中慶路로 변경하였다. 雲南行中書省의 치소이며 昆明縣(현재 雲南省 昆明市)을 다스렸다. 관할 영역은 현재 雲南省 昆明市·祿豐縣·安寧縣·晉寧縣·易門縣·宜良縣·嵩明縣 등 지역이었다. 明 太祖 洪武 15년(1382)에 雲南府로 변경되었다.

59) 羅必甸: 현재 雲南省 중남부 元江 중상류의 元江哈尼族彝族自治州의 因遠鎮에 해당하는 지역이다. 元江은 고대에 西南夷 지역에 속하여 ‘西南荒裔’라고 불렸다. 蜀과 西晉 때의 지명은 羅槃甸으로 興古郡에 속하였다. 隋唐 시대의 명칭은 步頭로 黎州에 속했으며 宋·大理 시기 지명은 因遠部·羅必甸이었다. 元朝 초기에 因遠部를 필두로 각부 종족의 저항이 있었으나 결국 “至元 21년(1284), 都元帥蒙古歹征羅必甸, 步魯合答率游兵先行, …… 居七日, 諸軍會城下, 乃進攻之, 步魯合答先登, 拔其城, 遂屠之”(『元史』卷132 「步魯合答傳」)의 상황이 되었다. 羅槃部라고 칭하게 되고 元江路에 속하였다.

60) 阿昔江: 雲南省 騰沖·盈江縣境의 檳榔江인데 元대에 阿昔江이라고 칭하였다. 『元書』 「寰宇志」에는 “鎭西路, 蠻曰干額, 有阿昔江自騰沖來, 下流合阿禾江, 南至緬入海”라고 기록하고 있다.

61) 鎭西: 元 至元 13년(1276)에 鎭西路軍民總管府를 설치하여 雲南行省에 예속시켰다. 치소는 崖甸(현재 雲南省 盈江縣 동쪽 30리 舊城)이며 진서로의 관할 지역은 대략 현재의 雲南省 盈江縣 동북부 지역에 해당하였다. 明 洪武 15년(1382)에 鎭西府로 바뀌었다.

62) 阿禾江: 雲南省 騰沖·梁河·盈江縣 지역의 大盈江이다. 元대에는 阿禾江이라고 불렸다. 『元書』 「寰宇志」에는 “鎭西路, 蠻曰干額, 有阿昔江, 自騰沖來, 下流合阿禾江, 南至緬入海”라고 하였다.

을 수비하고, 비축했던 식량을 풀어 군사를 먹이며, 사자를 보내 지도를 가지고 가서 조정에 보고하도록 하였다.⁶⁴⁾

二十二年十一月，緬王遣其鹽井大官阿必立相至太公城，欲來納款，爲孟乃甸白衣頭目解塞阻道，不得行，遣騰馬宅者持信搭一片來告，驃甸土官匿俗乞報上司免軍馬入境，匿俗給榜遣騰馬宅回江頭城招阿必立相赴省，且報鎮西·平緬·麗川等路宣慰司·宣撫司，差三摻持榜至江頭城付阿必立相·忙直卜算二人，期以兩月領軍來江頭城，宣撫司率蒙古軍至驃甸相見議事。阿必立相乞言於朝廷，降旨許其悔過，然後差大官赴闕。朝廷尋遣鎮西平緬宣撫司達魯花赤兼招討使怯烈使其國。

[지원] 22년(1285) 11월 먼국의 왕⁶⁵⁾이 염정(鹽井) 대관(大官) 아필립상(阿必立相)을 파견하여 태공성(太公城)⁶⁶⁾에 와서 복종하고자[納款] 하는데 맹내전(孟乃甸)⁶⁷⁾ 백의[족](白衣族) 두목인 태새(解塞)가 도로를 막아서 갈 수가 없게 되자 등마택(騰馬宅)이라는 자를 시켜 신표[信搭] 한 조각을 갖고 와서 보고하였다. 표진(驃甸)의 토관(土官) 익속(匿俗)은 상급부서에 보고하여 군대의 입경을 면제시켜 달라고 요청하였다. [또] 익속은 방[문](榜文)을 발급하여 등마택으로 하여금 강두성으로 돌아가서 아필립상을 불러 행정(行省)으로 가게 하고 또 진서·평면·여천⁶⁸⁾등로(鎮西·平緬·麗川等路)의 선위사·선무사에 보고하였으며, 삼참

63) 袁世安: 中華書局本『元史』「校勘記」에 따르면, 玄世安이라고 되어 있던 것을 道光本과 『元文類』 卷41 「經世大典序錄」〈征伐〉이 합치되어 이에 따라 고쳤다. 『元史』 卷133 「也罕的斤傳」에도 “命都元帥袁世安守之”로 되어 있다.

64) 『元史』 卷133 「也罕的斤傳」에 “[至元]二十一年 …… 且圖其地形勢，遣使詣闕，具陳所以攻守之方”이라고 하였다.

65) 江頭城이 元軍에게 함락되었을 때 먼국의 왕은 蒲甘에서 남쪽 勃生(Bassein)으로 도주하여 있었다.

66) 太公城: 현재 미얀마 중부, 抹谷(Wogok) 서북면의 唐崗(Tagang)으로 미얀마의 最古 도성이라고 전해진다. 『新元史』 「外國列傳」〈緬國〉조의 서술에 따르면 江頭城·馬來城·安正國城·蒲甘緬王城과 더불어 緬中五城으로 칭해졌다. 『新唐書』 「南蠻列傳」 下에서 驃國의 ‘悉利移’城도 이곳에 있었다.

67) 孟乃甸: 孟乃 지역은 현재 雲南省 瀾滄拉祜族自治縣의 서북쪽으로 44리 떨어진 募乃에 있었다. 明代에는 孟連宣撫司에 속하였다. 明 謝肇淛의 『滇略』 卷3에 “孟連所屬內有孟乃場礦出銀，世專其利，以致殷富”라는 기록이 있다. 현재 운남성 騰沖 동부의 龍川江을 孟乃河라고도 하였다.

(三摻)에게 방문을 가지고 강두성에 가서 아필립상과 망직복산(忙直卜算) 두 사람에게 주어, 2개월 안에 [면왕이] 군대를 이끌고 강두성으로 오며 선무사는 몽고군을 이끌고 표전으로 가서 서로 만나서 의논하기로 기약하였다. 아필립상이 조정에 상언하기를 요청하자 칙지를 내려서 그들이 잘못을 뉘우친 후에 관리를 황궁에 보낼 수 있도록 허락하였다. 조정에서는 곧 진서평면선무사 달로화적(達魯花赤)⁶⁹ 겸 초토사(招討使)⁷⁰ 겁열(怯烈)⁷¹을 면국에 사절로 파견하였다.

二十三年十月，以招討使張萬爲征緬副都元帥，也先鐵木兒征緬招討司達魯花赤，千戶張成征緬招討使，並虎符。敕造戰船，將兵六千人征緬，俾禿滿帶爲都元帥總之。雲南王以行省右丞愛魯奉旨征收金齒·察罕迭吉連地，撥軍一千人。是月，發中慶府，繼至永昌府，與征緬省官會，經阿昔甸，差軍五百人護送招緬使怯烈至太公城。二十四年正

68) 中華書局本 『元史』 「校勘記」에 따르면, 鎮西·平緬·麓川等路宣慰司·宣撫司 중의 ‘麓川’은, 『宋史』 卷61 「地理志」에서 “鎮西·平緬·麓川等路隸金齒等處宣撫司”라고 하고, 卷133 「怯烈傳」에 “鎮西·[平]緬·麓川等路宣撫司”라고 한 것을 살펴볼 때 麓川을 잘못 쓴 것으로 의심된다고 하였다.

69) 達魯花赤: 元에서 지방의 총독이나 지사를 지칭했던 관직명이다. 이는 다루가치를 음차한 것으로 達魯噶齊로도 쓰이며, 『몽골비사』에는 다루가친(答魯合臣, Darughachin)으로 기록되어 있다. 몽고가 원으로 국명을 바꾸기 전 太祖·太宗 시기의 『黑韃事略』에는 주로 民政 업무를 관장하는 관청의 책임자를 지칭했는데, 世祖 때에 이르러 국명이 원으로 바뀌고 행정업무가 세분화되면서 지방행정을 총괄하는 책임자를 지칭하게 되었다. 『元史』 「百官志」에 따르면, 諸路總管部和 예하 州·縣에 다루가치를 두고 통치했으며, 諸王과 駙馬, 功臣에게 나누어주는 投下州에도 반드시 다루가치를 두었다.

70) 招討使: 唐 德宗 貞元 연간(785~804)에 설치한 관직명이다. 후에는 전시에 임시로 설치하여 대개 대신, 장수, 절도사 등 지방군정장관이 겸임하였다. 五代와 宋代에도 상설직은 아니고 반란 등을 진압하거나 군대 내의 위급한 일을 보고하였다. 遼代의 북면 변방관과 金代 변경 제로에도 초토사를 상설하였고 장관은 招討使로 하여 변경지역 각 족의 통치를 관장하였다. 원대에도 변경지역에 초토사를 상설하였고, 명대에는 서남 소수민족 지역에 초토사를 설치하여 토관의 함호가 되었다.

71) 怯烈: 『元史』 「怯悅傳」에 따르면 겁열은 西域人이며 太原에 世居하였다. 至元 12년(1275)에 雲南行省을 세울 때 諸洞蠻夷 酋長이 귀부하는 과정에서 怯烈의 공적이 많았다. 지원 15년(1278)에 緬人의 침입 때에도 怯烈이 즉각 무기를 대어 토벌하고, 行中書省左右司員外郎을 제수받았다. 지원 18년(1281)에 鎮西平緬麓川等路宣撫司達魯花赤 兼管軍招討使에 올랐다. 諸王相吾答兒, 右丞太卜의 緬 정벌 때, 怯烈은 兵船을 이끌고 향도하라는 명을 받고 江頭城 공략에 공을 세웠다.

月，至忙乃甸。緬王爲其庶子不速速古里所執，囚於昔里怯答刺之地，又害其嫡子三人，與大官木浪周等四人爲逆，雲南王所命官阿難答等亦受害。二月，怯烈自忙乃甸登舟，留元送軍五百人于彼。雲南省請今秋進討，不聽。旣而雲南王與諸王進征，至蒲甘，喪師七千餘，緬始平，乃定歲貢方物。

[지원] 23년(1286) 10월, 초토사 장만(張萬)을 정면(征緬) 부도원수로, 야선철목아(也先鐵木兒)⁷²⁾를 정면 초토사 달로화적으로, 그리고 천호 장성(張成)을 정면 초토사로 임명하였고, 이들 모두에게 호부(虎符)⁷³⁾를 주었다. 칙명을 내려 전투 선박을 건조하고 6천 명 군대로 면국을 정벌하라 하고 독만대(禿滿帶)를 도원수로 임명하여 군대를 총관하도록 하였다. 행성의 우승(右丞) 애로(愛魯)⁷⁴⁾가 칙지를 받들어 금치·찰한질길련(察罕迭吉連) 지역을

72) 也先鐵木兒(?~1332): 元世祖 忽必烈的 제5자인 忽哥赤의 아들인 에센테무르를 가리키는데 주로 也先帖木兒로 쓴다. 至元 4년(1267)에 雲南王으로 봉해진 忽哥赤이 至元 8년(1271)에 사망한 후에 원 태종 오고타이의 손자인 禾忽의 아들인 南平王禿魯가 雲南을 진정하여 야선철목아가 襲封하지 못하였다. 張立道가 중경로 총관이 되어 지원 17년(1280)에 입조하여 세조에게 요청하였고 10월에 야선철목아가 雲南王印을 하사받았다. 지원 24년(1287)에 원군이 면국을 정벌할 때 야선철목아에게 大理 등 지역의 진무를 명령받았다. 4월 칙령으로 면중행성의 군대가 운남왕에게 속하게 되었다. 원 무종이 즉위하자 營王으로 進封되었다. 후에 원 문종이 대도에서 자립하자 야선철목아는 상도의 명령을 받들었으나 패하고 결국 문종에게 왕인을 빼앗겼다가 至順 원년(1330) 다시 왕인을 받았다.

73) 虎符: 중국 고대로부터 황제가 군대를 이동시키고 장수를 파견할 때 증거로 쓰인 兵符로 청동 등의 금속으로 호랑이 모양으로 만든 표였다. 고대에는 절반으로 쪼개어 반쪽은 장수에게 주고 다른 반쪽은 황제가 보존하다가 군장을 파견할 때에 양쪽 호부가 맞는지 확인해야 군대 이동과 장수 파견이 가능하였다. 역사상 호부의 모양, 수량, 새겨진 문구, 또 등급에서 많은 변화가 있었다. 漢代에서 隋代까지는 동·은·금, 심지어 옥제 호부도 있었다. 수대에는 麟符로 바꾸고 당조에서는 선조 李虎 이름을 피하여 魚符 또는 兔符를 썼으며 후에 다시 龜符 또는 牛符가 쓰이기도 하였다. 남송 때 호부 사용을 회복하는 한편 金牌을 쓰기도 하였다. 원조에서 호두패를 사용하고 후대로는 계속하여 銅牌를 사용하였다.

74) 愛魯(1226~1288): 元의 장군. 唐兀人 昔里氏이며 昔里鈐部の 아들이다. 일찍이 大名路 達魯花赤 직무를 세습하였다. 至元 5년(1268)에 雲南王을 따라 金齒諸部 원정에 나섰다. 1만 명의 蠻兵이 縹甸道를 끊자 이들을 공격하여 1천여 명을 참수하여 諸部를 전율하게 만들고, 지원 6년(1269)에 다시 침입하여 그들의 租賦를 정하고 24개 寨를 평정하였으며 7마리의 馴象을 끌고 왔다. 이때의 전공으로 그 후 廣西·雲南 등 지역으로 옮기며 宣撫使·招討使·副都元帥·參知政事 등을 역임하였다. 至元 24년(1287)에 行尙書 右丞이 되어 雲南王을 따라 交趾 원정에 나섰다. 18차례의 크고 작은 전투를 치르고 王城을 포위하는

쳐서 빼앗기로 하였기 때문에 운남왕(雲南王)⁷⁵⁾이 군사 1,000명을 떼어주었다. 이달에 중경부(中慶府)⁷⁶⁾를 떠나 계속 가서 영창부에 도착하여 정면 성관(省官)⁷⁷⁾과 회합하였고, 아석전(阿昔甸)⁷⁸⁾을 지나갈 때에 군사 500명을 보내 정면초토사[招緬使] 겁열을 태공성까지 호송하게 하였다. [지원] 24년(1287) 정월에 망내전(忙乃甸)에 도착하였다. [그런데 이때] 면국의 왕⁷⁹⁾은 자신의 서자 불속속고리(不速速古里)에게 잡혀 석리법답라(昔里怯答刺)의 땅에 수감되고 또 그의 적자 3명도 살해당하였다. [불속속고리가] 대관인 목랑주(木浪周) 등 4명과 반역을 일으켜 운남왕이 임명한 관원 아난답(阿難答) 등까지 역시 해를 당하였다.⁸⁰⁾ [지원 24년] 2월 겁열이 망내전에서 배를 타고 원래 호송군으로 왔던 500명은 거기에 머물게 하였다. 운남성에서는 이해 가을에 군대를 보내 토벌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조정의] 허락이 오지 않았다. [그러나] 얼마 안 있어서 운남왕과 여러 왕들이 원정에 나서서 포감(蒲甘)⁸¹⁾에 도달하였다. 군대 7,000여 명을 잃은 뒤에야 면국을 겨우 평정하고 또 매년 진공할 방물을

데에 공이 가장 컸으나 이듬해 풍토전염병으로 죽고 平章政事로 추증받았다. 『元史』 卷122에 昔里鈐部に 이어 입전되어 있다.

75) 雲南王: 원조의 封號이며 封地는 현재 雲南省 경내이며 봉왕의 등급은 金印駝紐王에 해당하였다. 쿠빌라이의 제5자인 忽哥赤(후계치)를 至元 4년(1267)에 운남왕에 봉하고 지원 17년(1280)에 賜印하였다. 也先鐵木兒(에센테무르)가 같은 해(1280)에 襲封하고 營王이 되었다. 武宗 至大 2년(1309)에는 老的이 운남왕에 봉해졌다.

76) 中慶府: 至元 23년(1286) 당시로 말하면 中慶路라고 해야 한다. 元 至元 13년(1276)에 善闡路를 고쳐 설치하여 雲南行省의 省會로 삼았고, 중경로의 치소는 昆明縣(현재 운남성 곤명시)에 있었다. 滇池 주변 지역 및 현재 雲南省의 綠豊·易門·宜良·嵩明 등 현 지역을 관할하였다. 明 洪武 15년(1382)에 폐지하여 雲南府로 하였다.

77) 省官: 行中書省에 속한 관원을 포괄적으로 칭한다.

78) 阿昔甸: 아석전의 위치는 분명하게 알 수 없으나, 현재 운남성 騰冲과 盈江縣 경계의 檳榔江이 원대에 阿昔江이라고 불리었다.

79) 이때 사망한 면국 왕은 那羅提訶波蒂였다.

80) 不速速古리는 자신의 어린 아들 咩菴을 왕위에 오르게 하였다. 이후 면국 전역은 혼란에 빠지고 각지에는 봉건주들이 외환내란의 기회를 틈타 독립하였는데 그중에 면국 북부 이라와디 강 유역에서 세력이 가장 강하던 撣族이 크게 흥기하였다.

81) 蒲甘: 현재 미얀마(Myanmar) 지역에 최초의 통일왕조로 수립된 바간(Bagan) 왕조(1044~1287)를 송·원대 중국에서는 蒲甘 또는 緬이라고 불렀다. 또한 8세기 이래 미얀마의 도읍 이름이기도 한데, 그 국왕은 至元 11년(1274)에 금으로 도금된 화려한 탑(Mangala Chatiya)을 완성시켜 그 안에 불교의 갖가지 聖物과 자신과 자기 조상들의 초상을 안치하였다(김호동, 2000: 333). 현재 미얀마 이라와디 강 西岸과 친드윈 강이 만나는 곳, 현재 미얀마 만다레이(Mandalay)의 서남쪽 145km 거리에 있었다.

약정하였다.⁸²⁾

大德元年二月，以緬王的立普哇拿阿迪提牙嘗遣其子信合八的奉表入朝，請歲輸銀二千五百兩·帛千匹·馴象二十·糧萬石，詔封的立普哇拿阿迪提牙爲緬王，賜銀印，子信合八的爲緬國世子，賜以虎符。

[성종(成宗)] 대덕(大德) 원년(1297) 2월, 이전에 면왕 적립보왜나아적제아(的立普哇拿阿迪提牙)가 그의 아들 신헌팔적(信合八的)을 파견하여 표문을 올리고 천자를 알현하면서 해마다 은 2,500냥·비단 1,000필·훈련된 코끼리 20마리·양식 1만 석을 헌납하겠다고 요청한 바가 있었는데, [이때에] 조서를 내려 적립보왜나아적제아를 면왕에 책봉하고 은제 인장[銀印]을 하사하고 또 신헌팔적을 면국 세자로 삼아 호부를 하사하였다.

三年三月，緬復遣其世子奉表入謝，自陳部民爲金齒殺掠，率皆貧乏，以致上供金幣不能如期輸納。帝憫之，止命間歲貢象，仍賜衣遣還。四年四月，遣使進白象。

[대덕] 3년(1299) 3월에 면국에서 다시 세자를 파견하여서 표문을 올려 입조하며 사과를 표하고, 부락의 백성이 금치에게 살해와 약탈을 당하여 거의 모두가 가난하게 되어 [중국에] 상공해야 할 금폐(金幣)를 기한에 맞추어 납부할 수가 없다고 말하였다. 황제[성종]가 이를 불쌍히 여겨 다만 격년으로 코끼리를 공납하라고 명령하고 오히려 의복을 하사하여 돌려보냈다. [대덕] 4년(1300) 4월에 사절을 보내와 흰 코끼리를 진공하였다.

五月，的立普哇拿阿迪提牙爲其弟阿散哥也等所殺，其子窟麻刺哥撒八逃詣京師。令忙

82) 같은 해 즉 지원 24년(1287)에 원조는 緬中行省을 설치하여 면국의 동북지역을 관리하게 되었다. 이는 특수한 군사행중서성으로서 원조의 다른 행중서성과는 달리 꽤 강한 독립성을 유지하였다. 행성의 승상은 면국의 왕이 겸임하고 그가 관속을 뽑고 재부를 도성으로 보내지 않았다. 지원 27년(1290)에 철폐되어 운남행성에 편입되었고, 緬國은 그대로 원조의 괴뢰국으로 있었다.

完秃魯迷失率師往問其罪。蠻賊與八百媳婦國通，其勢張甚。忙完秃魯迷失請益兵，又命薛超兀而等將兵萬二千人征之，仍令諸王闊闊節制其軍。六月，詔立窟麻刺哥撒八爲王，賜以銀印。秋七月，緬賊阿散哥也弟者蘇等九十一人各奉方物入朝，命餘人置中慶，遣者蘇等來上都。八月，緬國阿散吉牙等昆弟赴闕，自言殺主之罪，罷征緬兵。

[대덕 4년(1300)] 5월에 적립보왜나아적제아가 그의 동생 아산가야(阿散哥也)⁸³⁾ 등에게 살해되고 그의 아들 굴마랄가살팔(窟麻刺哥撒八)은 [중국의] 수도로 도피하였다.⁸⁴⁾ [조정에서는] 망완독노미실(忙完秃魯迷失)에게 명하여 군대를 이끌고 가서 아산가야의 죄를 묻도록 하였다. 이 오랑캐[蠻賊]들이 팔백식부국(八百媳婦國)⁸⁵⁾과 내통하여 세력이 아주 커졌다. 망완독노미실이 군대 증원을 청구하자, 다시 설초올이(薛超兀而) 등에게 명하여 병사 1만 2천 명을 이끌고 정벌하게 하고, 또 제왕(諸王) 활활(濶濶)에게 전체 군대를 통관하게 하였다. [대덕 4년] 6월에 조서를 내려 굴마랄가살팔을 왕으로 세우고 은제 인장을 하사하였다. [대덕 4년] 7월에는 면국의 역적 아산가야의 동생인 자소(者蘇) 등 91명이 각각 방물을 가지고 입조하니 명령을 내려 다른 사람들은 중경(中慶)에 안치시키고 자소 등을 상도(上都)⁸⁶⁾로 오게 하였다. [대덕 4년] 8월에 면국의 아산길아(阿散吉牙) 등의 형제가 황궁에 와서 국주를 살해한 죄를 스스로 인정하자 [조정에서는] 면국 정벌전쟁을 중지하였다.

83) 阿散哥也: 원조의 침입과 포감 왕조의 쇠망으로 면국 내부 정국에 중대한 변화가 일어났다. 즉 撣族(Shan) 세력이 점차 일어나 당시에 소위 ‘撣族三兄弟’가 조정의 대권을 조종하고 정치 중심은 그중에서도 阿散哥也(Athinkkaya)의 근거지 목련성(현재 敏象, Myinsaing)으로 옮겨졌다. 『元史』 「成宗本紀」에서 大德 원년(1297) 면왕 책봉 때에 “賜酋領阿散三珠虎符”의 내용이 있는데 여기 아산이 바로 아산가야였다.

84) 이때 阿散哥也는 왕의 서자 鄒聶(Sawhnit, 1298~1324)을 왕으로 세웠다.

85) 八百媳婦國: 泰國의 랑나타이[蘭那泰] 왕국인데 중국의 史籍에서는 八百媳婦國으로 칭하였다. 타이어 랑나타이는 ‘百萬稻田 국가’라는 뜻인데, 중국에서는 랑나타이의 왕이 처를 800명 두고 처마다 하나의寨를 다스리게 하였다는 이야기가 있어 그렇게 불렀다고 한다. 8세기에 태국 북부에서 흥기했고, 孟萊王의 통치시기(1259~1317)에 강성하여서 치앙마이에 도성을 정하였다. 明 嘉靖 35년(1556) 미얀마의 洞浬 왕조에게 멸망한 때까지 약 300년 존립하였다.

86) 上都: 현재 內蒙古自治區 錫林郭勒盟 正藍旗 영역 내, 多倫縣 서북 閃電河 주변에 위치하였다. 이 지역은 金代에 金蓮川 또는 涼溼이라고 칭하고 景明宮을 수축하여 金朝 황제의 피서 지역으로 삼았고, 元朝에는 여름 都城이었다.

五年九月，雲南參知政事高慶·宣撫使察罕不花伏誅。初，慶等從薛超兀而圍緬兩月，城中薪食俱盡，勢將出降，慶等受其重賂，以炎暑瘴疫爲辭，輒引兵還。故誅之。十月，緬遣使入貢。

[대덕] 5년(1301) 9월, 운남의 참지정사 고경(高慶)·선무사 찰한불화(察罕不花)가 사형에 처해졌다. 이전에 [고]경 등이 설초올이를 따라가 먼국의 도성을 2개월 동안 포위하였을 때에 성안에 쌀감과 식량이 모두 고갈되어 형세로 보면 [그들이] 곧 성에서 나와 항복할 뻔하였는데 [고]경 등이 그들에게서 상당한 뇌물을 받고는 더위와 풍토전염병[瘴疫]을 핑계로 제멋대로 군대를 인솔하여 철수하였다. 이 때문에 그들을 처형한 것이다. [대덕 5년] 10월에 먼국에서 사절을 보내 입공하였다.⁸⁷⁾

占城

점성 역사재단

占城近瓊州，順風舟行一日可抵其國。世祖至元間廣南西道宣慰使馬成旺嘗請兵三千人·馬三百匹征之。十五年，左丞唆都以宋平遣人至占城，還言其王失里咱牙信合八刺[麻]哈迭瓦有內附意，詔降虎符，授榮祿大夫，封占城郡王。十六年十二月，遣兵部侍郎教化的·總管孟慶元·萬戶孫勝夫與唆都等使占城，諭其王入朝。

점성⁸⁸⁾은 경주(瓊州)⁸⁹⁾에서 가깝다. 순풍을 타면 배로 하루 만에 그 나라에 이를 수 있

87) 大德 연간(1297~1307)의 원정 이후 원조는 먼국에 대해 더 이상 무력 침범을 하지 않았고 먼국도 그 후로는 연이어 사신을 보내어 入貢하였다[至大 원년(1308) 1월과 5월, 皇慶 원년(1312), 延祐 2년(1315)과 6년(1319), 至治 6년(1321), 至順 3년(1332)]. 元이 탄족 삼형제의 통치를 실제상 승인하였으며, 그중 막내 僧哥速(Thihathu)이 후에 대권을 독차지하여 皇慶 원년(1312)에 邦牙(Pinya)에 건도하고 그 후예가 별도로 阿瓦王朝(1364~1555)를 세우기도 하였다. 원은 순제 지원 4년(1338)에 邦牙宣慰司를 설립하고 현재 미얀마 중남부까지 세력을 확장하였다.

88) 占城: 참족[Cham, 占族]이 현재 베트남 중남부 지역에 건립했던 옛 국가인데 나라이다. 언제 세워졌는지

다. [원] 세조 지원 연간(1264~1294)에 광남서도(廣南西道)⁹⁰⁾ 선위사 마성왕(馬成旺)이 정예병 3,000명, 말 300필을 가지고 이곳을 정벌할 것을 요청한 적이 있었다. [지원] 15년(1278)에 좌승⁹¹⁾ 사도(唆都)⁹²⁾가 송조를 평정하는 문제로 인하여 사람을 점성에 파견하였

알 수 없으나, 2세기 말 區達이라는 사람이 세웠다는 기록이 있다. 그 주민은 말레이-폴리네시아어계로 특히 항해술이 뛰어났으며, 베트남인들과는 대조적으로 인도 문화를 수용하여 인도식 국가를 건설하고 인도의 종교를 신봉하였다. 중국 문헌에는 林邑·環王·占不勞·占婆·占波 등으로 기록되었다. 『舊唐書』 「南蠻·西南蠻」 전에는 〈林邑〉, 『新唐書』 「南蠻」 전에는 〈環王〉으로 입전되었으나 『구오대사』와 『신오대사』·『송사』에는 〈占城傳〉을 두고 있다. 중국에서의 기록이 당 乾元 원년(758) 이후 임읍 등 이름의 사용을 중지하였고, 당 乾符 2년(875)부터 占城(Chanch'eng)이라는 이름을 사용하였다고 하는데 梵文 Campapura(占婆補羅)와 Campanagara(占婆那囉羅)의 簡譯이다. '푸라(pura)'나 '나가라(nagara)'는 '邑', '城'의 뜻을 나타내는 梵語로 점과 국왕의 처소라는 뜻인데 9세기 이후 중국과 베트남에서 참파국의 통상적인 칭호가 되었다(『新唐書』 卷222 「열전」 147, “王所居曰占城, 別居曰齊國·曰蓬皮勢.”). 송대에는 참파의 수도가 인드라푸라(Indrapura)에 있다가 북쪽 베트남 黎(례) 왕조의 침공을 받은 뒤에 훨씬 남쪽인 비자야(Vijaya, 閩槃)로 옮겼다(유인선, 2002: 115).

89) 瓊州: 당 貞觀 5년(631)에 崖州를 나누어 설치하고 치소를 瓊山縣(현재 海南省 瓊山市 동남 舊州鎮)에 두었다. 貞觀 13년(639)에 폐지하였다가 天寶 원년(742)에 瓊山郡으로 하였고, 乾元 원년(758)에 瓊州로 복귀되었다. 北宋 熙寧 4년(1071)에 치소가 현재 瓊山市로 옮겨지고 관할 영역은 오늘날 海南省 海口·瓊山·瓊海 3개 市와 定安·澄邁·臨高 등 縣의 지역까지였다. 원대 天曆 2년(1329)에 乾寧軍民安撫司로 바뀌었다. 明代에는 洪武 원년(1368)에 瓊州府로 되었다.

90) 廣南西道: 唐代의 嶺南道 지역에 宋朝가 廣南路를 설치하였고 다시 廣南東·西路로 나누어졌다.

91) 저본 『元史』 「校勘記」에 따르면 『元史』 卷10 「世祖紀」 〈至元 15년 8월 辛巳〉조와 卷129 「唆都傳」에 의거하여 右丞에서 左丞으로 고쳤다. 『元史類編』에는 이미 고쳐져 있다.

92) 唆都(?~1285): 몽골 札剌兒 씨족으로 원조 초기 南宋과 占城의 정벌에서 크게 활약한 장군이였다. 至元 5년(1268) 襄陽을 공격할 즈음 唆都가 歸州 일대 험준한 곳을 탈취하고, 灌子灘에 주둔하여 송의 장군 范文虎 지휘하의 수군을 물리친 뒤 總管으로 승진하였다. 지원 9년(1272)에 樊城을 공격할 때 출선하여 성에 올라가는 등 용맹을 떨쳤다. 양양성을 함락한 후 병졸 5천과 함께 弓矢·襲衣·金鞍·白金 등을 하사받고 황제를 알현하여 郢復 등 지역의 招討使로 승진되었다. 지원 12년(1275) 建康이 항복했을 때 사도가 入城招集하여 建康安撫使가 되고 平江·嘉興을 침공하였다. 송의 수도가 평정된 다음 董文炳을 도와 부관으로 臨安에 남아 衢·婺州에서 다시 일어난 송군을 진압하는 데 크게 공을 세웠다. 지원 14년(1277)에 福建道宣慰使로 승진한 뒤에도 송의 抗元 세력들을 진압하는 중에 특히 송의 수비가 강했던 潮州의 평정에도 성공하여 參知政事에 올랐다. 황제를 알현하고 강남 평정 후 해외의 일을 계획하여 左丞으로 승진하였다. 泉州行省으로 나가 南夷 諸國을 招諭하고, 지원 18년(1281)에는 右丞이 되었으며 占城行省으로 점성 정벌에 나섰다. 점성 평정이 쉽지 않자 원조에서는 交趾를 통과하여 육로로 침공하고자 했으나 교지에서 이에 항거하여 지원 21년(1284) 鎮南王 脫歡이 交趾를 정벌하러 나서고 唆都 역시 이듬해 安南行省 右丞으로 50만 병력을 이끌고 협력하였으나, 결국

는데 [그 자가] 돌아와 말하기를 점성국왕 실리찰야신합팔랄마합질와(失里咱牙信合八刺麻哈迭瓦)가⁹³⁾ [원조에] 귀부할 뜻이 있다고 하였다. 조서를 내려서, [점성국왕에게] 호부(虎符)를 내려주고 영록대부(榮祿大夫)⁹⁴⁾를 제수하고 점성군왕(占城郡王)에 책봉하였다.⁹⁵⁾ [지원] 16년(1279) 12월에 병부시랑(兵部侍郎) 교화적(教化的)·총관 맹경원(孟慶元)·만호(萬戶)⁹⁶⁾ 손승부(孫勝夫)와 사도 등을 점성에 사절로 보내어 그 왕에게 입조할 것을 권유하였다.

十七年二月，占城國王保寶旦擎囉耶邛南謁占把地囉耶遣使貢方物，奉表降。十九年十月，朝廷以占城國主孛由補刺者吾曩歲遣使來朝，稱臣內屬，遂命(左)[右]丞唆都等即其地立省以撫安之。既而其子補的專國，負固弗服，萬戶何子志·千戶皇甫傑使暹國，宣慰使尤永賢·亞闌等使馬八兒國，舟經占城，皆被執，故遣兵征之。帝曰：「老王無罪，

이때 전사하였다.

93) 『元史』 「校勘記」에 따르면 失里咱牙信合八刺[麻]哈迭瓦라는 이름은 『元史』 卷11 「世祖紀」 〈至元 18년 10월 己酉〉 조와 『元文類』 卷41 「經世大典序錄 征伐」에 의거하여 보충하였다. 『元史類編』에는 이미 고쳐져 있다.

94) 榮祿大夫: 金에서 銀青榮祿大夫를 두어 從二品 文散官으로 하였다. 元代에 從一品으로 승격하고 明代에는 문무관 종일품이 모두 영록대부를 칭하고, 청대에는 다만 文職從一品散官封階에 한정하였다. 대응하는 官職은 少師·少傅·少保·太子太師·太子太傅·太子太保·各部院尙書·都察院左·右都御史 등이었다.

95) 占城郡王: 지원 15년(1278) 점성왕이 원조에 귀부하고 원 세조 쿠빌라이가 그를 점성군왕에 책봉하고 점성을 행정으로 세웠다. 후에 점성 왕자가 불복하자 쿠빌라이가 唆都를 보내 해상으로 공격하게 하였다. 원군이 계속 승리했으나 손실도 많았고 점성왕이 산속으로 숨어 다시 평정할 수가 없었다. 쿠빌라이는 황자 脫歡을 육로로 가서 정벌하게 하고 대월국 즉 베트남(安南)을 거쳐 가게 하였으나 대월국왕 陳仁宗이 저항하여 탈환이 월국 국도를 공격하고 사도와 함께 전투를 치렀으나 진 인종의 반격에 패전하였다. 이 전역으로 점성은 국가를 보존할 수 있었고 원은 침공을 방지하였으며 지원 26년(1289)에 점성행성은 폐지되었다.

96) 萬戶: 金대에 처음으로 설치된 世襲 軍職으로 都統에 예속되어 있고 千戶(猛安)와 百戶(謀克)를 지휘한다. 원대에도 이를 계승하여 '萬夫의 將軍'이라는 의미로 만호를 설치하였는데, 중앙의 樞密院에 예속되었지만, 각 路에 주둔하는 만호는 각 行省에 분속시켰다. 원대에는 萬戶府가 千戶所를 統領했으며, 병력이 7천 이상이면 上萬戶府, 5천 이상이면 中萬戶府, 3천 이상이면 下萬戶府로 지칭하였다. 각 로의 만호부에는 다루가치(達魯花赤) 1인과 萬戶 1인을 두었다.

逆命者乃其子與一蠻人耳。苟獲此兩人，當依曹彬故事，百姓不戮一人。」

[지원] 17년(1280) 2월, 점성국왕 보보단나라야공남발점과지라야(保寶且拏囉耶耶南談占把地囉耶)가 사절을 보내 특산물을 진공하고 표문을 올려 항복하였다. [지원] 19년(1282) 10월 조정에서는 점성국의 군주 패유보랄자오(孝由補剌者忒⁹⁷)가 그 이전에 사절을 보내 조공하며 신하를 칭하고 내속(內屬)한 것을 이유로 우승(右丞)⁹⁸ 사도(唆都) 등에게 명하여 그 땅에 행정⁹⁹을 설립하고 안무하도록 하였다. 얼마 안 있어 그의 아들 보적(補的)¹⁰⁰이 국정을 전담하며 지세가 험하고 수비가 단단하다[險固]는 것을 믿고 귀복하지 않으며, 만호하자지(何子志)·천호(千戶) 황보걸(皇甫傑)이 섬국(暹國)¹⁰¹에 출사하고 선위사(宣慰使) 우영현(尤永賢)·아란(亞蘭) 등이 마팔아국(馬八兒國)¹⁰²에 출사할 때 배로 점성을 거쳐 가다가 모두 구류당한 것 때문에 [원조는] 군대를 보내 점성을 정벌하기로 하였다. 황제(세조)가

97) 孝由補剌者忒: 당시 점성국왕 인드라跋摩 6세(Indravarman VI)를 말한다.

98) 저본 『元史』 「校勘記」에 따르면, (左)[右]丞唆都 이 부분은 본서 즉 『元史』 卷11 「世祖紀」 〈至元 17년 8월 己酉〉조와 卷129 「唆都傳」에 의거하여 左丞이 아니라 右丞으로 고쳤다. 『元史類編』은 이미 교정하였다.

99) 至元 19년(1282) 占城國王이 사신을 보내 朝貢하자 荊湖占城行中書省을 설치하고 위구르인 阿里海牙를 行省의 平章政事로 삼고 占城을 명의상 元朝의 관할 하에 두었다.

100) 補的: 당시 점성의 왕자 闍耶僧伽跋摩 3세(Jayasimhavarman III)에 대한 중국에서의 명칭이다.

101) 暹國: 현재 태국 사완칼록(Sawankhalok) 일대 지역에 있던 국가의 이름으로 暹邏라고도 칭하였는데 샴(Siam)의 음역이다. 暹이라는 이름은 『宋史』 「陳宜中傳」에 처음 보인다. 『원사』 기록에 따르면 원 至元 29년(1292)부터 至治 3년(1323)까지 중국과 通使하며 우호관계를 유지하였다. 원대 항해가 汪大淵이 쓴 『島夷志略』에 〈暹〉 항목이 있다. 일찍부터 인도 문화와 종교의 영향을 받고 1세기에 왕국이 출현하기 시작하였다. 남송 理宗 嘉熙 2년(1238)에 건립된 수고타이 왕국(1238~1438)이 태국 역사상 정통 왕조로 꼽히고 특히 제3대 람캄행왕(재위 1277~1317) 때에 황금기를 맞았다. 수고타이 왕조에 이어 아유타야 왕국(1350~1767) 때에는 강력한 중앙집권체제를 구축하고 17세기에는 무역항으로 번창하고 서양과 중국·일본 등과 교역하였다. 16세기 후반 미얀마군에 점령당하였으나 나레수엔 왕이 왕조를 부흥시켰다.

102) 馬八兒國: 『大唐西域記』에서는 'Chola'의 음역으로 '珠利耶'로 썼고 송대에는 『宋史』, 『諸蕃志』, 『嶺外代笈』 등에서는 '注輦國'이라고 썼으나 '馬八二'라는 명칭도 있었다. 대략 9세기 초부터 남인도 지역에서 흥기하였는데 『송사』 「주련전」에서는 그 서쪽으로 天竺과 1,500리 떨어져 있다고 하였다. 송대 초부터 중국에 조공단을 파견하였고 13세기경에는 남인도의 대국으로 성장하였다.

말하기를 “연로한 국왕은 죄가 없고 명령을 거스른 자는 그 아들과 한 명의 만인(蠻人)뿐이다. 이 두 사람만 잡는다면 마땅히 조빈(曹彬)¹⁰³의 선례¹⁰⁴에 따라서 백성은 한 명도 죽이지 않아야 한다”라고 하였다.

十一月，占城行省官率兵自廣州航海至占城港。港口北連海，海旁有小港五，通其國大州，東南止山，西旁木城。官軍依海岸屯駐。占城兵治木城，四面約二十餘里，起樓棚，立回回三梢砲百餘座。又木城西十里建行宮，宇由補刺者吾親率重兵屯守應援。行省遣都鎮撫李天祐·總把賈甫招之，七往，終不服。十二月，招真臘國使速魯蠻請往招諭，復與天祐·甫偕行，得其回書云：「已修木城，備甲兵，刻期請戰。」

[지원 19년(1282)] 11월, 점성행성(占城行省)¹⁰⁵ 휘하의 관군이 광주에서 항해하여 점성항¹⁰⁶에 도달하였다. 항구 북변이 바다에 연이어 있는데 그 부근에는 다섯 개의 작은 항구가 있어서 점성국의 대주(大州)¹⁰⁷로 통하고 [점성항]의 동남쪽은 다만 산지뿐이며 서쪽에는

103) 曹彬(931~999): 字는 國華, 眞定靈壽(현재 河北省) 출신으로 後漢, 後周의 장령을 지내고 송 초에 客省使가 되었다가 후에 左神武將軍兼樞密都承旨에 발탁되었다. 송의 통일 전쟁에서 공이 컸으나 공로를 자랑하지 않고 겸손하여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다. 太祖 乾德 2년(964)에 後蜀을 멸하고 또 開寶 7년(974) 南唐을 멸망시킬 때에도 함부로 살인하지 않는 것으로 이름이 났다.

104) 曹彬이 開寶 7년(974) 황제의 명을 받고 南唐을 멸하려 갈 때 성을 공격할 때에 평민백성을 살육하면 안 된다는 태조의 당부를 받았다. 조빈은 성을 공격하기에 앞서 병이 났다고 하여 많은 장병들이 문병을 오게 하였다. 그는 “자신의 병은 어떤 약도 치료할 수 없고 다만 전투에서 한 사람도 살해하지 않겠다고 맹서를 한다면 병이 나을 수 있다”고 말하여 그들의 맹서를 받아냈다. 과연 다음날 성을 공격할 때 병사들의 칼끝에 피 한 방울도 묻히지 않고 南唐의 군주 李煜의 항복을 받았으며 조빈은 그를 빈객의 예로 대하였다고 전하였다.

105) 占城行省: 荊湖占城中書省의 약칭이다. 元 世祖 至元 19년(1282)에 설치하고 이듬해 위구르인 阿里海牙를 荊湖占城行省平章政事로 삼았다. 세조가 交趾에서 兵糧을 받아 占城을 치고자 하였으며, 일거에 베트남, 점성을 정복하고 형호, 점성 두 성을 합병하여 하나의 군사행정기구로 만들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교지와와의 전쟁에서 실패한 후에 이 행성은 철폐되었다.

106) 현재 베트남 東南岸의 퀴논(Qui Nhon)이다.

107) 大州: 당시 점성국의 도성인 佛逝(Vijaya)를 말하며 그 위치는 현재 빈딘의 도시 안농(An Nhon, 安仁) 北面의 차반(Cha Ban, 閩盤) 遺址이다. 중국 사적에서 新州라고도 칭하였다.

가까이 목성(木城)이 있었다. 관군은 해안을 따라 주둔하였다. 점성의 군대는 목성을 수리하고 서면 약 20여 리 되는 곳에 망루[樓棚]¹⁰⁸⁾를 우뚝 세우고 회회(回回)¹⁰⁹⁾ 삼초포(三梢砲)¹¹⁰⁾ 1백여 좌(座)를 세웠다. 또 목성의 서쪽으로 10리 떨어진 곳에 행궁을 건립하고 [군주] 패유보랄자오가 친히 중병(重兵)¹¹¹⁾을 지휘하여 주둔하면서 응원하였다. [점성]행성에서 도진무(都鎮撫)¹¹²⁾ 이천우(李天祐)·총과 가보(賈甫)를 파견하여 투항을 권유하였는데 일곱 차례나 갔지만 [점성군은] 끝내 항복하지 않았다. 12월에는 진랍국(眞臘國)¹¹³⁾의 투항 권유를 맡은 사신 속노만(速魯蠻)이 [자신이] 가서 초유(招諭)하겠다고 요청하여 다시 이천우·가

108) 樓棚: 城 위의 棚閣으로 防守에 사용하였다. 宋 范成大的 詩 〈京城〉 중에도 “倚天櫺櫺萬樓棚, 聖代規模若化成. 如許金湯尙資盜, 古來李勣勝長城”이라고 하였다.

109) 回回: 원대에 이슬람교를 회회교라고 칭하면서 회회는 주로 아라비아인을 지칭하였다. 회회라는 단어는 원래 西域의 상인이 중국에 정거하다가 날씨가 따뜻해지면 回國하는데 1년에 두 번 왕복하기 때문에 그렇게 불렀다고 한다. 南宋 周密의 『癸辛雜識』과 元代에 수찬된 『遼史』에 南蕃回回, 回回蕃客, 回回國, 回回大食部 등의 표현이 보인다. 『元史』와 『元典章』에서는 回回法, 回回寺, 回回令史, 回回人 등에 대한 설명이 있다. 원대에 회회는 기본적으로는 이슬람교도와 마니교도, 景教徒들을 가리켰으나 일반적으로 중국에 분포한 서역 출신의 소수민족들을 포괄하였다. 가령 유대인을 術忽回回라고 칭하거나 심지어 그리스, 로마인도 회회라고 하였다. 이들이 후대 회족의 先民이었다. 이미 당송대부터 중국의 연해도시와 수도에 정거한 페르시아, 아랍인과 13세기 몽골의 서정에 따라 대거 중국으로 이주한 중앙아시아인들이 중심을 이루고 후에 한, 몽골, 위구르 등의 민족이 흡수되어 점차 하나의 통일적인 민족 回族이 형성되었다.

110) 三梢砲: 원거리 발사 병기인 砲는 砲杆의 조성구조 즉 ‘梢’에 따라 單梢砲, 雙梢砲, 五梢砲, 七梢砲 등으로 불렀다. 三梢砲는 3개의 砲杆이 있는 砲라는 것이다.

111) 重兵: 역량이 든든한 병력.

112) 都鎮撫: 『元史』 卷98 「兵志」 1에서 “遇方面有警, 則置行樞密院, 事已則廢, 而移都鎮撫司屬行省”이라고 설명하였다. 예를 들어 高麗에 설치한 征東行省의 경우에도 屬官으로 都鎮撫司가 설치되었고 여기에 都鎮撫·副都鎮撫가 각각 1명씩 있었다.

113) 眞臘國: 현재 캄보디아에 있던 나라에 대한 중국에서의 명칭이었다. 진한대에는 扶南의 속국으로 있다가 『隋書』에 처음 진랍으로 칭했는데 캄보디아 지명 씨엠립(Siem Reap)의 음역이며, 『唐書』에서는 크메르의 음역으로 吉蔑 또는 闍蔑로 칭하기도 했으나 7세기에서 17세기까지 크메르 왕국에 대한 중국 史籍 상의 통칭은 진랍이었다. 9세기 초의 자야바르만 2세(재위 802~850) 이후 통일이 진척되어 중앙집권적인 체제가 수립된 이후 9세기 후반~13세기 전반까지의 약 400년간이 이 나라의 황금기였다. 이 시기에 북방의 라오스와 서쪽의 타이, 동쪽의 참파 방면에 지배권을 확대시켰다. 이 시대의 수도는 주로 톤레사프湖 북서안의 앙코르 지역에 두고 있었다. 元人 周達觀의 『眞臘風土記』에서는 13세기 그들이 자칭 甘孛智라 하였다 하고, 『明史』 「眞臘傳」에는 萬曆 연간(1573~1619) 후에 이 나라가 柬埔寨로 개칭하였다고 전한다.

보와 함께 [점성에] 갔으나, 반아온 점성의 회신에는, “이미 목성을 수리하고 무기도 준비하였으니 시기를 정하여 전쟁할 것을 청한다”라고 하였다.

二十年正月，行省傳令軍中，以十五日夜半發船攻城。至期，分遣瓊州安撫使陳仲達·總管劉金·總把栗全以兵千六百人由水路攻木城北面；總把張斌·百戶趙達以三百人攻東面沙觜；省官三千人分三道攻南面。舟行至天明泊岸，爲風濤所碎者十七八。賊開木城南門，建旗鼓，出萬餘人，乘象者數十，亦分三隊迎敵，矢石交下。自卯至午，賊敗北，官軍入木城，復與東北二軍合擊之，殺溺死者數千人。守城供餽餽者數萬人悉潰散。國主棄行宮，燒倉廩，殺永賢·亞闌等，與其臣逃入山。十七日，整兵攻大州。十九日，國主使報答者來求降。二十日，兵至大州東南，遣報答者回，許其降，免罪。二十一日，入大州。又遣博思兀魯班者來言：「奉王命，國主·太子後當自來。」行省傳檄召之，官軍復駐城外。二十三日，遣其舅寶脫禿花等三十餘人，奉國王信物雜布二百匹·大銀三錠·小銀五十七錠·碎銀一甕爲質，來歸款。又獻金葉九節標槍曰：「國主欲來，病未能進，先使持其槍來，以見誠意。長子補的期三日請見。」省官卻其物。寶脫禿花曰：「不受，是薄之也。」行省度不可卻，姑令收置，乃以上聞。

[지원] 20년(1283) 정월 [형호점성] 행성에서 군중에 명령을 전하기를 15일 한밤중에 배를 띄워 성을 공격하라고 하였다. 때가 되었을 때 군대를 나누어 파견하였다. 즉, 경주안무사(瓊州安撫使) 진중달(陳仲達)·총관 유금(劉金)·총파 울전(栗全)이 지휘하는 1,600명 병사는 수로를 통해 목성의 북면을 공격하고, 총파 장빈(張斌)·백호 조달(趙達)이 인솔하는 300명은 동면의 모래부리[沙觜]¹¹⁴⁾를 공격하며, 성관(省官) 군사 3,000명은 세 갈래의 길로 나누어 남면을 공격하였다. 배가 항행하여 날이 밝아 물가에 다다르기까지 바람과 파도에 부서진 것이 10에 7, 8은 되었다. 적들이 목성의 남문을 열고 깃발과 북을 세우더니 1만여 명이 출격하는데 코끼리에 올라탄 자도 수십 명이나 되었으나, 다시 3개 대열로 나누어 적을 맞아 싸울 때에 화살과 돌맹이가 뒤섞여 쏟아져내렸다. 묘시(卯時)부터 오시(午時)까지 싸워서 적군이 패하자, 관군(官軍)이 목성에 들어가고 또한 동면과 북면의 양 군대가 합하여 공격하

114) 沙觜: 모래가 해안을 따라 운반되다가 바다 쪽으로 계속 밀려나가 쌓여 형성되는 해안의 퇴적 지형이다.

니 살해당하거나 물에 빠져 죽은 적병이 수천 명이었다. 성을 지키며 군량을 공급하던 자들 수만 명이 모두 무너져 흩어졌다. 점성국 국주는 행궁을 버리고 창름(倉廩)을 불태우고 [구류되어 있던 원의 사절] [우]영현(尤永賢)·아란(亞蘭) 등을 죽인 뒤 자기 신하들과 함께 도주하여 산으로 들어갔다. 17일에 [관군은] 병력을 정돈하여 대주를 공격하였다. 19일에는 점성국 국주가 보답자(報答者)를 보내 투항하겠다고 요청하였다. 20일에 [관군이] 대주 동남쪽에 이르러 보답자를 돌려보내며 그들의 투항을 허락하고 죄를 면하여주었다. 21일에 [관군이] 대주에 들어갔다. [점성에서] 또다시 박사올노반자(博思兀魯班者)를 보내와 말하기를, “왕의 명령을 받들어¹¹⁵⁾ 항복하러왔으며, 국주와 태자는 이후에 스스로 올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형호점성] 행성에서 격문을 보내 그들을 불러들이고[召見] 관군은 다시 성 밖에 주둔하였다. 23일에 점성 국주가 그 외숙[舅] 보탈독화(寶脫禿花) 등 30여 명을 파견하여 국왕의 신물(信物)¹¹⁶⁾로서 잡포(雜布) 200필, 커다란 은괴 3덩이[錠], 작은 은괴 57덩이, 자잘한 은[碎銀] 1항아리를 바쳐 보증으로 삼고 귀순하였다. 또한 금엽(金葉)으로 꾸민 구절표창(九節標槍)을 바치면서 “국주가 오려고 하였으나 병 때문에 떠날 수가 없어서 우선 우리에게 그의 창을 가지고 오게 하는 것으로 성의를 표합니다. [왕의] 장자 보적은 사흘 후에 될 것을 기억합니다”라고 말하였다. 행성의 관원은 그 물품을 사절하였다. 보탈독화가 말하기를, “[물품을] 받지 않으시니 물건이 너무 적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라고 하였다. 행성에서도 사절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잠시 받아두라고 명령하고 조정에 보고하였다.

寶脫禿花復令其主第四子利世麻八都八德刺·第五子世利印德刺來見，且言：「先有兵十萬，故求戰。今皆敗散。聞敗兵言，補的被傷已死。國主頗中箭，今小愈，愧懼未能見也，故先遣二子來議赴闕進見事。」省官疑其非真子，聽其還。諭國主早降，且以問疾爲辭，遣千戶林子全·總把栗全·李德堅偕往覘之。二子在途先歸。子全等入山兩程，國主遣人來拒，不果見。寶脫禿花謂子全曰：「國主遷延不肯出降，今反揚言欲殺我，可歸告省官，來則來，不來，我當執以往。」子全等回營。是日，又殺何子志·皇甫傑等百

115) 『元史』「校勘記」에서는 奉王命과 관련하여, 『元文類』卷41「經世大典序錄 征伐」에는 ‘奉王命來降’이라고 썼는데 道光本補에서는 ‘來降’ 두 자가 빠져 있다고 밝히고 있다.

116) 信物: 뒷날에 보고 증거가 되게 하기 위하여 서로 주고받는 물건, 즉 信標.

餘人.

보탈독화가 다시 점성 국주의 넷째 아들 이세마팔도팔덕랄(利世麻八都八德刺)과 다섯째 아들 세리인덕랄(世利印德刺)로 하여금 내건하도록 하였고, 또 이렇게 상언하였다. 즉, “원래는 10만 군대가 있었기 때문에 전쟁을 하려고 하였습니다. 지금은 모두 패하여 흩어졌습니다. 패잔병들이 하는 말을 듣자니 [장자] 보적은 부상을 입어 이미 사망하였다고 합니다. 국주는 뺨에 화살을 맞았는데 지금은 조금 나았지만 부끄럽고 두려워 와서 뵈 수가 없으므로 먼저 두 아들을 보내서 황궁에 가서 알현하는 일을 상의하도록 하였습니다.” 행성의 관원이 그들이 국주의 진짜 아들이 아닐 거라고 의심하며 그들이 돌아가는 것을 허락하였다. 국주에게 빨리 투항할 것을 설득하고 또 문병을 하겠다면서 천호 임자전(林子全)·총과 울전(栗全)·이덕견(李德堅) 일등을 파견하여 함께 가서 [상황을] 엿보도록 하였다. [국주의] 두 아들은 도중에 먼저 돌아갔다. [임]자전 등은 산으로 들어가 두 길로 갔는데 국주가 사람을 파견하여 막는 바람에 [국주를] 볼 수 없었다. 보탈독화가 [임]자전에게 말하였다. 즉, “국주가 시간을 끌며 나와 항복하기를 꺼려하더니 이제는 도리어 나를 죽이겠다고 당당하게 말을 하니, 돌아가 행성 관원에게 국주가 [그리로] 오면 오는 것이고, 만약 오지 않으면 내가 그를 잡아서 갈 것이라고 알리시오.” [임]자전 등은 군영으로 돌아갔다. 이날 또 [점성에 구류되어 있던] 하자지·황보걸 등 100여 명을 죽였다.

二月八日，寶脫禿花又至，自言：「吾祖父·伯·叔，前皆爲國主，至吾兄，今孛由補刺者吾殺而奪其位，斬我左右二大指。我實怨之。願禽孛由補刺者吾·補的父子，及大拔撒機兒以獻。請給大元服色。」行省賜衣冠，撫諭以行。十三日，居占城唐人曾延等來言：「國主逃於大州西北鴉候山，聚兵三千餘，并招集他郡兵未至，不日將與官軍交戰。懼唐人泄其事，將盡殺之。延等覺而逃來。」十五日，寶脫禿花偕宰相報孫達兒及撮及大師等五人來降。行省官引曾延等見，寶脫禿花詰之，曰：「延等姦細人也，請繫縲之。國主軍皆潰散，安敢復戰。」又言：「今未附州郡凡十二處，每州遣一人招之。舊州水路，乞行省與陳安撫及寶脫禿花各遣一人乘舟招諭攻取。陸路則乞行省官陳安撫與已往禽

國主·補的及攻其城。」行省猶信其言，調兵一千屯半山塔，遣子全·德堅等領軍百人，與寶脫禿花同赴大州進討，約有急則報半山軍。

[지원 20년] 2월 8일, 보탈독화가 다시 와서 스스로 말하였다. 즉, “나의 조부, 백부, 숙부는 이전에 모두 국주였는데 나의 형에 이르러 현재의 패유보랄자오가 [형을] 살해하고 왕위를 찬탈하고 나의 좌우 엄지손가락을 잘랐기 때문에 나는 참으로 그를 원망합니다. 패유보랄자오·보적 부자 및 대발살기아(大拔撒機兒)를 붙잡아 바치고자 원합니다. 대원의 복식을 받고 자 요청합니다”라고 하였다. 행성에서 의관(衣冠)을 하사하여 위로하고 타일러 돌아가게 하였다. 13일에 접성에 거주하는 중국인[唐人] 증연(曾延) 등이 와서 말하였다. 즉, “국주가 대주의 서북쪽 아후산(鴉候山)으로 도피하여 병사 3,000여 명을 모았으며 또한 다른 지방의 병력을 소집하였는데 아직 도착하지 않았으니 머지않아 관군과 교전할 것입니다. 중국인이 이 일을 누설하였으니 반드시 중국인을 전부 죽일까봐 두려웠습니다. [이에 나] [증연 등이 이 일을 알고 도망쳐 왔습니다.” 15일에 보탈독화가 재상 보손달아(報孫達兒) 및 활급대사(掇及大師) 등 5명과 함께 와서 투항하였다. 행성의 관원이 증연 등을 끌고 와서 보이니 보탈독화가 따져묻고 말하기를, “[증연 등은 간사하고 천한[姦細] 사람들이니 청하건대 그들을 체포하십시오. 국주의 군대는 모두 흩어졌는데 어떻게 감히 다시 교전을 하겠습니까?”라고 하였다. 또 말하기를, “현재 귀부하지 않은 주군(州郡)이 모두 열두 곳이니 그 주마다 한 사람씩 파견하여 초무하십시오. 구주(舊州)¹¹⁷⁾의 수로(水路)는 행성과 진안무(陳安撫) 및 [저] 보탈독화가 각각 한 사람을 배에 태워 보내 초유하고 공격하여 취하기를 청합니다. 육로 쪽으로는 행성의 관원, 진안무, 그리고 제가 가서 국주와 보적을 사로잡고 그 성을 공격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였다. 행성에서는 여전히 그의 말을 믿고 병사 1,000명을 옮겨 반산탑(半山塔)에 주둔시키고 [임]자전·[이]덕견 등을 보내 군사 100명을 인솔하여 보탈독화와 함께 대주로 가서 토벌하게 하고 긴급한 사정이 있으면 반산[탑]의 군대에 보고하기로 약속하였다.

117) 舊州: 舊所, 舊縣, 舊都, 阿木喇補라고도 하며, 현재 베트남 중부 廣南一峴港省 영역에 해당한다. 南宋 趙汝适, 『諸蕃志』 卷上 〈占城國〉에서 “舊州, 烏麗, 日麗·越里, …… 皆其屬國也”라고 하였다.

子全等比至城西，寶脫秃花背約間行，自北門乘象遁入山。官軍獲諜者曰：「國主實在鴉候山立寨，聚兵約二萬餘，遣使交趾·眞臘·闍婆等國借兵，及徵賓多龍·舊州等軍未至。」十六日，遣萬戶張顛等領兵赴國主所棲之境。十九日，顛兵近木城二十里。賊浚濠塹，拒以大木，官軍斬刈超距奮擊，破其二千餘衆。轉戰至木城下，山林阻隘不能進，賊旁出截歸路，軍皆殊死戰，遂得解還營。行省遂整軍聚糧，創木城，遣總管劉金，千戶劉涓·岳榮守禦。

[임]자전 등이 겨우 성의 서편에 도착하였는데 보탈독화가 약속을 배신하고 기회를 타서 몰래 달아나서는 북문에서 코끼리를 타고 산으로 들어가버렸다. 관군이 붙잡은 첩자가 말하기를, “국주가 실제로 아후산에 성채를 세우고 병사를 약 2만여 명을 모았으며 교지(交趾)¹¹⁸⁾·진랍·사과(闍婆)¹¹⁹⁾ 등의 국가에 사신을 보내어 군사를 빌렸으며 또 빈다룡(賓多龍)¹²⁰⁾·구

118) 交趾: 베트남 고대왕국을 일컫는 명칭. 중국 사서에는 『尙書』, 『堯典』에 처음으로 등장하는데 ‘南交’라고 지칭하고 있다. 향후 『墨子』, 『淮南子』, 『史記』 등에서 ‘交趾’ 혹은 ‘交趾’를 언급하기 시작한다. 前漢 때 南越王 趙佗가 처음으로 交趾郡을 설치하였다. 漢 武帝 元鼎 6년(전111)에는 무제의 팽창정책으로 漢나라로 완전 귀속되었다. 관할 지역은 지금의 베트남 북부 일대였다. 後漢 獻帝 建安 8년(203) 交州 刺史가 설치되었는데 치소는 廣信縣(지금의 廣西省 梧州市)이었다. 삼국시대에는 뭇가 이 지역을 交州와 廣州로 나누어 통치했는데, 관할 지역은 지금의 廣西省 欽州 지구·廣東省 雷州半島 일대와 베트남의 북부와 중부 지역이다. 隋代에 잠시 폐지하였다가 唐 高祖 武德 5년(622) 다시 설치되는데, 치소는 交趾縣(베트남 하노이시 서북부)이었다(史爲樂, 2005). 당대 후반기 이래 당의 지배체제가 이완되면서 중국에서 독립하려는 움직임이 본격화되는데, 오대시기에 홍강 유역의 토착세력이었던 응오꾸옌(NgoQuyen)이 南漢의 침략을 저지하고 後晉 天福 4년(939) 마침내 새로운 왕조를 세워 중국의 지배에서 벗어나게 된다. 약 반세기 간의 혼란기를 거쳐서 마침내 최초의 장기왕조인 리(Ly 李) 왕조(1009~1225)가 건립되었는데, 중국 측의 책봉을 받고 주로 ‘安南’이나 ‘交趾’로 불리었지만, 베트남의 왕들은 스스로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하고 다이비엣(大越)이라는 국명을 통해 인도차이나반도의 강자로 군림하며 독자적인 조공체제를 유지하려 하였다.

119) 闍婆: 사과는 자바의 음역으로 8세기부터 자바를 중심으로 급부상한 사일렌드라(Sailendras) 왕국과 9세기 이후 새로운 패자로 등장한 마타람(Mataram) 왕국을 가리켰다. 사일렌드라는 풍부한 농업생산력을 기반으로 발전하였다. 한때 참파(점성)와 베트남(교지) 일부 지역까지 공격하여 도서부와 대륙부 동남아시아를 아우르는 제국을 건설할 만큼 강성하였으며 당 大曆 13년(778)부터는 세계 최대 종교 건축물로 꼽히는 보로부두르 사원을 건설하였다. 10세기에 스리비자야의 공격으로 중심지를 옮겨 발전하면서 인도 문화의 영향이 줄고 산스크리트어 경전과 문학작품들을 자와어로 번역하는 등 자와문

주 등 지역에서 징발한 군대는 아직 도착하지 않았습니다”라고 하였다. 16일에 만호 장용(張顥) 등을 보내 병력을 통솔하여 국주가 피해 숨은 곳에 가게 하였다. 19일 [장]용의 군대가 목성(木城)¹²¹에서 20리 떨어진 곳까지 근접하였다. 적병이 해자를 깊이 파놓고 거대한 목재로 방어하였으나 관군은 [적을] 베어 죽이고 뛰어오르며 분격하여 적병 2천 명의 무리를 무찔렀다. 여기저기 자리를 옮겨가며 싸우다가 목성 아래까지 이르렀는데 산림에 가로막혀 전진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적병이 옆쪽에서 나와 퇴로를 끊어버리니 병사들이 모두 죽음을 각오하고 싸워서 겨우 풀려나 군영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 행성에서는 이에 군대를 정돈하고 군량을 모아놓고 목성을 창건하였으며 총관 유금(劉金)과 천호 유연(劉涓)·악영(岳榮)을 보내 수비하도록 하였다.

二十一年三月六日，唆都領軍回。十五日，江淮省所遣助唆都軍萬戶忽都虎等至占城唆都舊制行省舒眉蓮港，見營舍燒盡，始知官軍已回。二十日，忽都虎令百戶陳奎招其國主來降。二十七日，占城主遣王通事者來稱納降。忽都虎等諭令其父子奉表進獻。國主遣文勞邛大巴南等來稱，唆都除蕩其國，貧無以獻，來年當備禮物，令嫡子入朝。四月十二日，國主令其孫濟目理勒蟄·文勞邛大巴南等奉表歸款。

[지원] 21년(1284) 3월 6일에 사도(唆都)가 군대를 철수하여 돌아갔다. [그런데] 15일에 강희성(江淮省)¹²²에서 파견하여 사도를 돕기로 한 군대가 만호 홀도호(忽都虎) 등의 통솔을 받아, 점성에 사도가 이전에 설립한 행성이 있던 서미연항(舒眉蓮港)¹²³에 도착하였는데,

화가 흥기하였다.

120) 賓多龍: 현재 베트남의 판랑(Phan Rang, 藩朗)을 중심으로 하는 판두랑가(Panduranga) 지역을 중국 문헌에서 賓童龍·賓多龍 등으로 기록하였다. 본문에서 補的이라고 한 점성의 왕자 闍耶僧伽跋摩 3세의 재위 기간에 빈동룽에 婆克朗加萊塔를 개축하였다.

121) 『元史』 「校勘記」에 따르면 본래 水城이었으나 道光本에 따라 고쳤다.

122) 江淮省: 江淮等處行中書省의 약칭이다. 江淮等處行中書省은 元 至元 13년(1276)에 설치하여 치소를 揚州(후에 揚州路로 바뀌고 그 치소는 현재 江蘇省 揚州市)에 두었으며, 관할 영역은 邳州·宿遷 以西를 제외한 현재 江蘇省 長江 이북지역과 安徽省 泗縣, 五河, 滁州, 來安, 全椒 등의 縣市 지역에 해당하였다. 至元 15년(1278)에 淮東道宣慰司로 변경되었다가 지원 23년(1286)에는 다시 강희성이 설치되고 지원 28년(1291)에 또다시 淮東道宣慰司로 바뀌었다.

군영의 건물들이 모두 불타 무너진 것을 보고야 비로소 관군이 이미 돌아간 것을 알았다. 20일에 홀도호가 백호 진규(陳奎)를 통해 점성의 국주에게 투항하라고 명령하였다. 27일에 점성 국주가 왕통사(王通事)라는 자를 보내와 항복을 받아들일겠다고 말하였다. 홀도아 등이 [국주] 부자(父子)에게 표문을 올려 바치라고 타일렀다. 국주가 문영공대파남(文勞耶大巴南) 등을 보내어 와서 말하기를 사도가 자기들의 나라를 소탕한 탓에 빈궁하여 바칠 것이 없으니 내년에 반드시 예물을 준비하여 적자(嫡子)를 시켜 입조하게 할 것이라고 하였다. 4월 12일에 국주가 손자인 제목리능침(濟目理勒蝨)과 문영공대파남 등에게 명하여 표문을 받들어 귀부하였다.

是年，命平章政事阿里海牙奉鎮南王脫歡發兵，假道交趾伐占城，不果行。

이해에 조정에서는 평장정사(平章政事)¹²⁴ 아리해아(阿里海牙)에게 명령하여 진남왕(鎮南王)¹²⁵ 탈환(脫歡)¹²⁶을 받들어 군대를 출동시켜 교지의 길을 빌려 점성을 정벌하라 하였으나 결국 성공하지 못하였다.¹²⁷

123) 舒眉蓮港: 현재 베트남의 퀴논 항구(歸仁港)로, 호치민시 북동쪽 430km로 남중국해의 퀴논만에 면한다. 이곳에 점성의 유적이 있다.

124) 平章政事: 고대 관직의 명칭이다. 당대에는 尙書·中書·門下 三省의 長官을 宰相으로 삼았는데, 관직이 높고 권력이 집중되어 항시 설치되지는 못하여, 기타관원들에게 同中書門下平章事의 명칭을 더해주고 국사에 동참하게 했는데, 약칭이 '同平章事'이다. 이 제도는 송대에 그대로 계승되었고, 주로 경험이 풍부한 대신들이 담당했으며, 위상이 오히려 재상보다 높았다. 金·元代 平章政事의 위상은 승상에 못 미쳤다. 원대에는 행중서성에도 平章政事를 설치하였는데, 본문의 아리해아는 행중서성의 평장정사였다.

125) 鎮南王: 元朝의 진남왕은 지원 21년(1284) 세조 쿠빌라이의 第9子 脫歡에게 처음으로 봉해졌다. 그 封地는 현재 雲南省 境內에 있었고 등급은 金印蟒紐王이었다. 탈환이 大德 5년(1301)에 죽자 그의 장자 老章이 襲封하였다. 그 후 老章의 弟 脫不花, 그리고 脫不花의 弟 帖木兒不花 등에게로 승봉되었다.

126) 脫歡(토곤, ?~1301): 元 世祖 쿠빌라이의 아홉째 아들이다. 至元 21년(1284) 6월에 鎮南王에 봉하여지고 蟒紐金印을 하사받았다. 황제의 명을 받고 그해 점성 정벌에 나섰다. 베트남에서 假道를 거절하고 원에 저항하여 베트남으로 進攻하여 전공을 올리기도 하였다. 그러나 원의 베트남 정벌이 실패로 끝나자 쿠빌라이는 탈환이 종신토록 入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暹 섭

暹國，當成宗元貞元年，進金字表，欲朝廷遣使至其國。比其表至，已先遣使，蓋彼未之知也。賜來使素金符佩之，使急追詔使同往。以暹人與麻里予兒舊相讎殺，至是皆歸順，有旨諭暹人「勿傷麻里予兒，以踐爾言」。大德三年，暹國主上言，其父在位時，朝廷嘗賜鞍轡·白馬及金縷衣，乞循舊例以賜。帝以丞相完澤答剌罕言「彼小國而賜以馬，恐其鄰忻都輩譏議朝廷」，仍賜金縷衣，不賜以馬。

섭국(暹國)¹²⁸은 성종 원정(元貞) 원년(1295)에 금자표(金字表)를 바치면서 조정에서 자기 나라로 사신을 파견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금자표가 막 도착했을 때, 이미 사신을 파견했는데 그들은 아직 모르고 있었다. 방문한 사신들에게 금부(金符)¹²⁹를 하사하여 패용하게 하고,

127) 元은 처음 점성 원정군을 보낼 때에도 交趾에 假道와 군량 제공을 요구했으나 陳(진)王朝 聖宗(타인똥)에게서 거절당하여 사도의 군대가 해로로 점성에 이르렀던 것이다. 본문에서 본 바와 같이 점성왕이 산지로 도피하여 게릴라전을 전개하자 원은 古城에서 구류하고 있던 원의 사절들을 살해한 것을 빌미로 점성 재침을 계획하고 交趾에 다시 군대의 통과와 진 왕조 군대의 출병을 요구하였으나 교지에서 재차 거절하였다. 토곤이 이끄는 원의 50만 대군이 교지로 임박해올 때 교지의 仁宗(년 똥)은 전국적인 단결력을 바탕으로 원군에 맞서기로 결의하여 교지와 원의 전쟁이 시작되었고, 베트남은 막대한 피해에도 불구하고 몽골과의 전쟁에서 결국 승리하였다.

128) 暹國: 태국의 고대 명칭으로 '시암(Syam)'을 음역한 것이다. 시암은 산스크리트어 'Syama'에서 연원하는데, '갈색' 혹은 '황금'이라는 의미이다. 『嶺外代答』卷2 〈眞臘國〉조의 '三泊'과 『諸蕃志』〈眞臘國〉조의 '三灤' 역시 '暹'을 음역한 것이고, 『明史』에는 '暹羅'로 표기하였다. 13세기 몽골 침입으로 南詔가 멸망하면서 타이족이 현재의 태국 지역으로 대거 이동함에 따라, 타이족의 독립 소국들이 등장하였다. 중부 지역에서는 수코타이(Sukhothai) 왕국이 1238년에 설립되었고, 치앙마이 지역에는 란나타이(Lannathai) 왕국이 1296년에 등장하였으며, 북서부의 파야오(Phayao) 왕국, 남부 해안지역의 롱부리(Lopburi) 왕국이 출현하였다. 수코타이 왕국은 3대 왕인 람캄행(Ramkhamhaeng)이 재위하던 시기인 1277~1317년 사이에 최대의 번영을 구가하였다. 수코타이 왕국은 당시 중국에 조공하였으며, 라오스·미얀마·말레이 북부 등 주변 국가를 복속시켰다. 1350년 라마 티보디(Rama Thibodi)가 전염병을 피해 차오프라야 강 하류의 롱부리(Lopburi) 지역에 정착하여 아유타야(Ayutthaya, 1350~1767) 왕국을 건설했다. 아유타야 시대에 태국은 불교를 공인하고, 법전을 공포하였으며, 14세기 말에는 수코타이 왕국 등을 복속시키고 말레이반도와 벵골만까지 영토를 확대하였다(陳佳榮等, 1986: 1037).

그들로 하여금 조서(詔書)를 받고 가는 사신단¹³⁰을 재빨리 쫓아서 함께 돌아가도록 하였다. 섬국인과 마리어아(麻里予兒)¹³¹는 예전부터 원수를 갚겠다며 서로 죽이곤 하였는데, 이때 이르러 모두 [조정]에 귀순하였으므로, 성지(聖旨)를 통해서 섬국 사람들에게 “마리어아를 살상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실천하라”고 타일렀다. 대덕(大德) 3년(1299)에는 섬국의 군주가 상언하여, 그의 부친이 재위할 때 조정에서 말안장과 고삐[鞍轡], 백마(白馬), 금루의(金縷衣)¹³² 등을 하사한 바 있으니, 종전의 사례대로 하사해주실 것을 청하였다. 승상(丞相) 완택(完澤)¹³³ 답랄한(答剌罕)¹³⁴이 “저런 소국에게까지 말을 하사하신다면, 인근의 혼도(忻都)¹³⁵와 같은 나라가 조정을 비방할까봐 우려됩니다”라고 건의하여, 황제는 금루의는 종진과 같이 하사해주고, 말은 하사하지 않았다.

129) 金符: 古代에 황제가 臣屬들에게 수여하던 信物로서, 銅虎符·金魚符·金符牌 등이 있다. 『元史』 「百官志」 3에는 “大都尙飲局, 秩從六品. 中統四年始置. 設大使·副使各一員, 俱帶金符. 掌醞造上用細酒”라는 기록이 보이며, 『元史』 「伯顏傳」에도 “(至元)五年十月, 詔爲大丞相, 加號元德上輔, 賜七寶玉書龍虎金符, 鐫刻如前”이라는 내용이 언급된다.

130) 詔使: 詔書를 받들고 가는 공식적인 사신단을 일컫는다.

131) 麻里予兒: 말레이인들이 스스로를 가리킬 때 사용하는 ‘Malayu’의 역음으로 알려져 있다. 마르코 폴로의 『동방견문록』에는 ‘Malajur’로 표기되어 있다(陳佳榮等, 1986: 992).

132) 金縷衣: 금실(金絲)로 편직한 의복으로, 워낙 귀중하다보니 공신들이나 주변국가의 군주들에게 하사품으로 애용되었다. 위진남북조 이후 문학작품에도 금루의가 등장하는데, 梁의 劉孝威가 지은 〈擬古應教〉詩에서도 “青鋪綠瑣琉璃扉, 瓊筵玉筍金縷衣”라는 내용이 보인다.

133) 完澤(1246~1303): 土別燕氏로 몽골 명문가문의 후예이다. 祖父는 칭기즈칸을 도와 여러 부족을 평정하였고, 우구데이칸이 금을 정복할 때에도 戰功을 세운 바 있다. 부친 역시 쿠빌라이칸의 北征에 참가하였으며, 中書右丞相을 역임한 바 있다. 완택은 裕宗王府의 속료로 관리생활을 시작하여 태자의 총애를 받다가, 至元 28년(1291)에는 中書右丞相에 임명되었다. 成宗이 즉위한 후에도 황제를 잘 보필하여 賢相으로 칭송되었으며, 사후에는 興元王에 추봉되었고, 諡號는 忠憲이다. 『元史』 卷130에 열전이 입전되어 있다.

134) 答剌罕: 돌궐이나 몽골족들이 사용하던 官號이다. 돌궐인들은 達干(darqan)이라고 지칭했는데, “兵馬 관련 업무를 총괄하던 직책”이라는 의미이다. 1206년 몽골제국이 수립된 후, 칭기즈칸은 창업공신들에게 萬戶·千戶 등의 실질적인 관호를 수여해주었고, 칭기즈칸 본인과 자식들의 목숨을 구해준 은인들에게는 ‘答剌罕’의 관호를 하사해주었는데, 다양한 특권을 보장하고 세습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었다.

135) 忻都: 인도 중북부지역을 지칭하는 Hindustan의 음역으로 ‘忻都思’로도 표기한다. 『史記』 「大宛傳」에는 ‘身毒’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漢書』·『後漢書』 등에서도 그대로 따르다가, 唐 초기에 인도를 지칭하는 용어로 주로 ‘天竺’이 통칭되었다. 이 시기의 사료인 『元史』와 『島夷志略』에는 ‘忻都’로 기록되어 있지만, 『元秘史』에서는 ‘欣都’로 음역하고 있다.

爪哇

조와

爪哇在海外，視占城益遠。自泉南登舟海行者，先至占城而後至其國。其風俗土產不可考，大率海外諸蕃國多出奇寶，取貴於中國，而其人則醜怪，情性語言與中國不能相通。世祖撫有四夷，其出師海外諸蕃者，惟爪哇之役爲大。

조와[爪哇]¹³⁶⁾는 해외에 있는데, 점성국¹³⁷⁾보다도 더욱 멀었다. 천주(泉州)¹³⁸⁾ 남쪽에서

136) 爪哇: 자와(jawa)를 음역한 것으로 송대까지는 ‘闍婆’로 음역하다가 원대 이후에는 ‘爪哇’로 지칭하였다. ‘闍婆’는 8세기부터 자와를 중심으로 급부상했던 사일렌드라(Sailendras) 왕국과 9세기 이후 새로운 패자로 등장하는 마타람(Mataram) 왕국을 가리킨다. 스리비자야가 해상제국이었던 데 반해 사일렌드라는 풍부한 농업생산력을 기반으로 발전하였다. 한때 참파와 베트남 일부 지역까지 공격하여 도서부와 대륙부 동남아시아를 아우르는 제국을 건설할 정도로 강성했으며, 778년부터는 세계 최대의 종교 건축물로 일컬어지는 보로부두르 사원을 건설하였다. 대략 이 시기부터 산자야 가계의 마타람 왕국이 부활하면서 사일렌드라를 대체하는데, 『新唐書』에는 訶陵으로 표기되며 세 차례에 걸쳐 사신을 파견한 바 있다. 이후 10세기에는 스리비자야의 공격으로 중심지를 옮기는데, 인도 문화의 영향이 줄어들면서 산스크리트어 경전과 문학작품들을 자와어로 번역하는 등 자와 본토문화가 흥기한다. 11세기 초에는 스리비자야가 인도 注釐國(Colas)과의 전투에서 대패하며 쇠약해졌고, 12세기에 이르러 꺼디리(Kediri) 왕조가 성장하면서 동부 인도네시아의 여러 섬들을 정복하였다. 13세기 중엽에는 꺼디리가 멸망하고 싱오사리(Singosari) 왕조가 부상하였는데, 마지막 왕인 커르타나가라(Kertanagara) 시대에는 수마트라를 비롯하여 발리·순다·마두라 섬 등을 정복하였다. 그가 죽은 뒤 몽골군이 침입해오는데, 사위인 라덴 비자야(Vijaya)가 몽골 세력을 이용해 자신의 政敵을 제거한 뒤 몽골군의 허점을 엿보고 있다가 기습하여 큰 손해를 입혔다. 1293년 라덴 비자야는 마자파히트(Majapahit) 왕국을 개창하였는데 동남아 해상제국으로 성장하게 된다(최병욱, 2006: 60~61/152~53).

137) 占城: 참파(Champa)의 중국식 명칭으로 2세기 말에서 17세기 말까지, 인도네시아계인 참족이 베트남 중부에서 남부에 걸쳐 세웠던 나라이다. 참족은 일찍부터 인도 문화의 영향을 받았으며, 192년경에는 後漢의 지배에서 벗어나 중국 사서에 ‘林邑’이라고 기록된 참파국을 건립하였다. 참파국은 임읍 제2왕조 시대에 매우 번성하였으나 劉宋과 隋의 침략을 받아 국력이 크게 위축되었다. 제4왕조가 멸망한 후, 주로 남방 부족들이 지배하게 되었고, 이후 중국의 문헌에는 環王·占婆·占城 등의 국명으로 기록되었다. 10세기 이후부터는 중국에서 독립한 베트남 왕조들과 격렬한 항쟁을 되풀이하였다. 17세기 말에는 베트남인들이 남진정책을 통해 메콩델타로 진격해오면서 참파는 완전히 멸망하였다. 현재 참족들은 베트남의 소수민족을 형성하고 있다.

배를 타고 바다로 항행하는 사람들은 먼저 점성국에 도달한 연후에 다음으로 이 나라로 갔다. 이 나라의 풍속과 토산물은 잘 알 수가 없으나, 대체로 해외의 번국(蕃國)들은 진기한 보화가 많이 산출되어 중국에서는 귀하게 취급되었다. 이곳 사람들은 못생기고 기괴했으며, 성정(性情)과 언어도 중국과 통하지 않았다. 세조[쿠빌라이]가 사방의 오랑캐들[四夷]들을 위무하기 위해 해외 제번에 군사를 파견하였을 때, 조왜 원정이 [그 규모가] 가장 컸다.

至元二十九年二月，詔福建行省除史弼·亦黑迷失·高興平章政事，征爪哇；會福建·江西·湖廣三行省兵凡二萬，設左右軍都元帥府二·征行上萬戶四，發舟千艘，給糧一年·鈔四萬錠，降虎符十·金符四十·銀符百·金衣段百端，用備功賞。亦黑迷失等陞辭。帝曰：「卿等至爪哇，明告其國軍民，朝廷初與爪哇通使往來交好，後刺詔使孟右丞之面，以此進討。」九月，軍會慶元。弼·亦黑迷失領省事，赴泉州；興率輜重自慶元登舟涉海。十一月，福建·江西·湖廣三省軍會泉州。十二月，自後渚啟行。

동북아시아역사재단

지원(至元) 29년(1292) 2월 복건행성(福建行省)¹³⁹에 조서를 내려 사필(史弼)¹⁴⁰과 역흑미실(亦黑迷失)¹⁴¹·고흥(高興)¹⁴²을 평장정사(平章政事)에 임명하고 조왜를 정벌하게 하

- 138) 泉南: 泉州의 별칭이다. 송대에는 泉州城의 남쪽에 통상 항구가 위치하였고, 이곳에 蕃坊이 설치되어 아라비아인을 위시한 외국 상인들이 다수 거주하였기 때문에 천주항을 '泉南'으로 일컬었다. 南宋 王十朋의 시에도 "閩偏泉南舊守臣"이라는 시구가 보이며, 明代에 陳懋仁은 『泉南雜志』를 저술한 바 있다.
- 139) 福建行省: 福建行中書省의 약칭으로 元 至元 15년(1278)에 설치하였다. 治所는 福州에 두었으며 관할 범위는 현재 복건성과 비슷하다. 至元 22년(1285)에 江浙行省으로 편입하였다가 至正 16년(1356)에 회복되었으나, 지정 26년(1366)에 다시 폐지되었다.
- 140) 史弼(1233~1318): 원대 장군이자 정치가로 일명 塔刺渾이며, 字는 君佐, 號는 紫微老人이다. 蠡州 博野(현재 허북성 博野) 출신으로 中統 연간(1260~1263) 말에 授金符管軍總管을 지냈으며, 江淮行中書省參政, 淮東·浙東宣慰使 등을 역임한 후 至元 29년(1292)에 福建行省平章으로 자와 공격에 참여하였다. 귀국 후 元貞 원년(1295)에 同知樞密院事로, 원정 3년(1297)에는 平章政事로 승진하였다. 86세에 서거하는데, 鄂國公에 분봉되었다. 저서로 『景行錄』이 있으며, 『元史』에 열전이 입전되어 있다.
- 141) 亦黑迷失: 원대 위구르족 출신의 정치가이자 외교가이다. 1265년에 쿠빌라이의 시종관으로 정치 활동을 시작하였으며, 1272년과 1275년 두 차례에 걸쳐 쿠빌라이의 명령을 받들어 인도 서해안 Malabar 일대의 八羅勃國을 방문한 바 있다. 1277년에는 兵部侍郎으로 승진하였고, 4년 후인 1281년에는 荆湖 占城等處行中書省參知政事로 점성 일대의 행정을 총괄하였다. 1284년에는 스리랑카에 出使하여 佛鉢

였다. 복건(福建)·강서(江西)¹⁴³·호광(湖廣)¹⁴⁴ 세 행정의 병력 2만 명을 모아서, 2개의 좌우군 도원수부(左右軍都元帥府)와 4개의 정행상만호(征行上萬戶)를 설립하였다. 전함 1천 척을 동원하였고, 양식 1년 치와 지폐 4만 정(錠)을 제공하였으며, 10매의 호부(虎符), 40매의 금부(金符), 100매의 은부(銀符), 100단(端)의 금의단(金衣段)을 수여하여 농공행상에 사용하도록 하였다. 역혹미실 등이 황제[세조]에게 작별인사를 올리자, 황제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경(卿) 등이 조왜에 도달하면, 그 나라의 군민(軍民)들에게 조정에서는 당초 조왜와 사신을 왕래하며 우호적으로 교류하려고 했으나, 후에 황제의 조서를 받은 사신 맹우승(孟右丞)의 얼굴에 [감히] 문신을 새겨, 이에 토벌에 나서게 되었음을 분명하게 밝히시오.”¹⁴⁵ 9월,

舍利를 참배하였으며, 귀국 후 안남 원정을 주도하였다. 안남 원정에 실패한 뒤 작위가 박탈되었는데, 1287년에 다시 馬八兒國에 파견되어 쿠빌라이를 위해 진귀한 목재와 보화를 헌상하여 관직과 작위를 회복하였다고 한다. 1293년 1월에는 쿠빌라이의 명을 받들어 수군 통수로 자와 원정에 참전하였다. 1293년 10월, 자와에 상륙하여 몇몇 지역을 정복했으나 후에 강력한 저항에 직면하게 되자 史彌과 高興이 철병할 것을 주장했으나 亦黑迷失은 이에 반대하다가 결국 전세가 더욱 악화되자 귀국하게 된다.

142) 高興(?~?): 원대 장군이자 정치가로서 蔡州 출신이다. 지원 12년(1275) 伯顔의 군대가 黃州를 침공할 때 황주자사와 함께 투항한 뒤, 伯顔에 기용되어 많은 전공을 세웠다. 지원 21년(1284)에는 淮東道宣慰使, 23년(1286)에는 江淮行中書省參知政事와 浙東道宣慰使 등을 역임하였다. 지원 29년(1292) 福建行省이 다시 설치되며 右丞에 배수되었고, 자와에서 사신 孟琪가 얼굴에 문신을 새기는 굴욕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하자 平章政事에 임명되어 史彌·亦黑迷失과 함께 자와 원정을 주도하였다. 成宗(大德 8년(1304)에 樞密副使에 임명되었고, 대덕 10년(1306)에는 同知樞密院事를 역임하였다. 皇慶 2년(1313)에 69세의 나이로 사망하자 太師·開府儀同三司·上柱國이 수여되었고 梁國公에 추증되었다. 至元 1년(1335)에 다시 南陽王으로 加封되었다.

143) 江西: 본문에서는 江西等處行中書省을 지칭하는 것으로 至元 14년(1277)에 설치되며 治所는 隆興府(현재 江西省 南昌市)에 두었다. 관할 범위는 대략 현재의 강서성과 광둥성 두 성을 포함하는 지역이다. 明 洪武 2년(1369)에 예하에 속해 있던 廣東道宣慰司를 廣東等處行中書省에 편입시켰으며, 강서성은 洪무 9년(1376)에 江西布政使司로 개정되었다.

144) 湖廣: 湖廣等處行中書省의 약칭으로 일반적으로 湖廣行省으로 지칭한다. 원 世祖 至元 연간(1264~1294)에 설치되었으며, 치소는 武昌路(현재 湖北省 武漢市 武昌)에 두었다. 관할 범위는 송대 荆湖北路·荆湖南路和 廣南西路를 포함하는 지역이다. 明 洪武 9년(1376)에 湖廣布政使司로 개칭하지만 여전히 습관적으로 行省으로 일컬었다. 淸 康熙 3년(1664)에 湖北과 湖南 두 성으로 분리하게 된다.

145) 싱오사리(Singosari) 왕국의 마지막 왕인 커르타나가라(Kertanagara) 시기에 인도네시아 역사는 자와를 초월하여 현재 인도네시아를 구성하는 공간으로 확대되기 시작한다. 커르타나가라는 몽골의 위협에 직면했던 시기에 각국과의 영적인 연계를 통해 인도네시아 국가들 사이의 신성동맹을 구축하고 있었다(Hall, 1958: 66, 68-69). 쿠빌라이가 자와에 사신을 보내 왕으로 하여금 직접 중국 조정에 알현하라고

[원정]군이 경원(慶元)¹⁴⁶에 집결하였다. [사]필과 역흑미실이 행성의 업무를 받고 천주(泉州)로 갔다. [고]흥은 군용물자를 총괄하였으며 경원에서 함선에 승선하여 바다를 건넜다. 11월, 복건·강서·호광 3성의 군대가 모두 천주에 집결하였다. 12월 [마침내] 후저(後渚)¹⁴⁷로부터 출항하였다.

三十年正月，至構欄山議方略。二月，亦黑迷失·孫參政先領本省幕官并招諭爪哇等處宣慰司官曲出海牙·楊梓·全忠祖，萬戶張塔刺赤等五百餘人，船十艘，先往招諭之。大軍繼進於吉利門。弼·興進至爪哇之杜並足，與亦黑迷失等議，分軍下岸，水陸並進。弼(興) [與] 孫參政帥都元帥那海·萬戶竊居仁等水軍，自杜並足由戎牙路港口至八節澗。興與亦黑迷失帥都元帥鄭鎮國·萬戶脫歡等馬步軍，自杜並足陸行。以萬戶申元爲前鋒。遣副元帥土虎登哥，萬戶褚懷遠·李忠等乘鑽鋒船，由戎牙路，於麻喏巴歇浮梁前進，赴八節澗期會。

[지원] 30년(1293) 정월, 구란산(構欄山)¹⁴⁸에 도착하여 책략을 논의하였다. 2월에는 역흑

요구한 것은(1289), 신성한 채국 건설을 주도하고 있었던 커티타나기라의 자존심을 건드렸고, 사신의 얼굴을 심하게 훼손하여 돌려보냈다(최병욱, 2007: 156~157). 결국 이 사건은 1292년 몽골의 자와 대원정을 야기한 결정적인 요인이 되었다.

146) 慶元府: 南宋 紹熙 5년(1194)에 明州를 개칭하여 경원부를 설치하며, 治所는 鄞縣에 두었다. 당시의 延호를 府의 명칭으로 삼은 것으로, 관할 범위는 현재 浙江省의 寧波·鄞縣·慈溪·奉化·象山 등 市·縣과 舟山群島를 포함한다. 元 至元 14년(1277)에 慶元路로 개명한다. 송·원 시대 모두 市舶司를 설치했던 중요한 무역항이다.

147) 後渚: 宋·元 시기 泉州의 중심무역항으로 천주만 서쪽의 洛陽江과 晉江 사이에 위치하였다. 背山面海의 지형에 수심이 깊은 양항이다. 송대에는 臨江里로 불리었고 원대에는 渚鋪로도 칭해졌다. 위의 내용은 『新元史』에서도 확인된다(“發海船千艘，齎糧一年……自後渚啓行”). 厦門大學 발굴 팀이 이곳에서 송·원 시기에 축조된 부두와 출항 시에 海神에게 제사를 올리는 風水塔을 발굴했는데, 塔石에 “至元癸未仲夏廿年(1283), 後山楊應祥刻”이라고 새겨져 있었다. 이곳은 宋末에 泉州市舶司를 지낸 蒲壽庚의 대본영이기도 한데, 포수경은 당시 후저 해안에 ‘望雲樓’를 축조한 바 있다.

148) 構欄山: 인도네시아 갈리만탄 서남부에 있는 섬으로 泉州에서 자와로 항해할 때 통과하는 해로 상에 위치하였다. 元 汪大淵의 『島夷志略』에 관련기사가 보이며, 『元史』 「史弼傳」에는 勾欄山으로, 明 費信的 『星槎勝覽』에서는 交欄山으로 기록하였다.

미실과 손참정(孫參政)이 우선 본성(本省)의 막관(幕官)들과 초유조왜등처선위사(招諭爪哇等處宣慰司)의 관원 곡출해야(曲出海牙)·양재(楊梓)·전충조(全忠祖)·만호(萬戶) 장탑략적(張塔刺赤) 등 500여 명 그리고 전함 10척을 이끌고 먼저 가서 그들을 초유(招諭)하였다. 대군은 계속해서 길리문(吉利門)¹⁴⁹으로 진격하였다. [사]필(史弼)과 [고]흥(高興)은 조왜의 두병족(杜並足)¹⁵⁰까지 나아갔는데, 역혹미실 등과 상의해서, 병력을 나누어 해안에 내린 뒤에 수륙 양방향으로 진격하기로 하였다. [사]필은 손참정(孫參政)과 도원수(都元帥) 나해(那海)·만호(萬戶)¹⁵¹ 영거인(寧居仁) 등 수군을 이끌고, 두병족에서 용아로(戎牙路)¹⁵² 항구를 통해 팔절간(八節澗)¹⁵³에 도착하였다. [고]흥은 역혹미실과 도원수 정진국(鄭鎭國)·만호 탈환(脫歡) 등 기병·보병군(馬步軍)을 이끌고 두병족에서 육로로 행군하였다. 만호(萬戶) 신원(申元)이 선봉장이 되었다. 부원수(副元帥) 토호등가(土虎登哥)·만호 저회원(褚懷遠)·이충(李忠) 등은 찬봉선(鑽鋒船)에 승선하여, 용아로를 출발하여 마야파헛(麻喏巴歇)¹⁵⁴에서 부교[浮梁]를 가설한 뒤 전진하여 팔절간에서 예정대로 회합하였다.

149) 吉利門: 현재 인도네시아 자와 섬 북서쪽에 위치한 Karimunjawa 군도를 가리킨다. 『東西洋考』 卷3에도 관련내용이 보이며, 吉利門: 吉里門山·吉里門·吉理悶山 등 다양한 명칭으로 음역되었다.

150) 杜並足: 현재 인도네시아 동부 자와 섬 북쪽의 Tuban에 위치했던 고대 항구도시로서 당시 동·서양의 무역상들이 집결하던 곳이었다. 송대 趙汝适의 『諸蕃志』 〈蘇吉丹〉條에서는 ‘打板’으로, 元 汪大淵의 『島夷志略』 〈重迦羅〉條에서는 ‘杜楸’으로, 명대 馬歡의 『瀛涯勝覽』에서는 ‘杜板’으로 음역하고 있어서, 杜並足의 ‘足’字는 잘못 부침된 것으로 추정된다.

151) 萬戶: 金代에 처음으로 설치된 世襲軍職으로 都統에 편제되어 千戶(猛安)와 百戶(謀克)를 지휘하였다. 원대에도 이를 계승하여 ‘萬夫의 將軍’이라는 의미로 만호를 설치하였는데, 중앙의 樞密院에 예속되었지만, 各路에 주둔하는 만호는 각 行省에 분속시켰다. 원대에는 萬戶府가 千戶所를 統領하였으며, 병력이 7천 이상이면 上萬戶府, 5천 이상이면 中萬戶府, 3천 이상이면 下萬戶府로 지칭하였다. 각로의 만호부에는 達魯花赤(다루가치) 1인과 萬戶 1인을 두었다.

152) 戎牙路: 현재 인도네시아 자와 섬 동부의 Surabaya 일대에 위치했던 고대국가이다. 趙汝适의 『諸蕃志』 〈蘇吉丹〉條에는 “打板國東連大閣婆, 號戎牙路, 或作重迦盧”라는 기록이 보인다.

153) 八節澗: 현재 인도네시아 자와에 있는 Surabaya시 동북부 혹은 남부 Bakachak하구에 위치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고대 항구이다.

154) 麻喏巴歇: 자와에 위치한 촌락의 지명으로, 후에 1293년부터 1451년까지 자와를 중심으로 해상제국을 건설한 마자파헛(Majapahit) 왕국의 국명으로도 사용된다. 『元史』 「外國傳」 〈爪哇〉條에서는 ‘麻喏巴歇’로 표기하지만, 『史弼傳』에서는 ‘麻喏八歇’로, 『島夷志略』에서는 ‘門遮把逸’로, 『瀛涯勝覽』에서는 ‘滿者伯夷’로 각각 표기하였다. 『四夷廣記』와 『東西洋考』 卷3에도 관련기사가 출현한다(陳佳榮等, 1986: 747).

招諭爪哇宣撫司官言：爪哇主壻土罕必闌耶舉國納降，土罕必闌耶不能離軍，先令楊梓·甘州不花·全忠祖引其宰相昔刺難答吒耶等五十餘人來迎。三月一日，會軍八節澗。澗上接杜馬班王府，下通莆奔大海，乃爪哇咽喉必爭之地。又其謀臣希寧官沿河泊舟，觀望成敗，再三招諭不降。行省於澗邊設偃月營，留萬戶王天祥守河津，土虎登哥·李忠等領水軍，鄭鎮國·省都鎮撫倫信等領馬步軍水陸並進。希寧官懼，棄船宵遁，獲鬼頭大船百餘艘。令都元帥那海·萬戶窩居仁·鄭珪·高德誠·張受等鎮八節澗海口。

초유조왜선무사(招諭爪哇宣撫司)의 관원이 말하였다. 조왜국왕의 사위 토한필사야(土罕必闌耶)¹⁵⁵)가 나라를 바치겠다고 투항해 왔는데, 토한필사야는 군대를 떠날 수 없기 때문에, 우선 양재(楊梓)·감주불화(甘州不花)·전충조(全忠祖)에게 명하여 이 나라의 재상 석랄난답타야(昔刺難答吒耶) 등 50여 명을 데리고 와서 영접해주게 하였다. [지원 30년] 3월 1일, 군대가 팔절간(八節澗)에 집결하였다. [팔절]간은 위쪽으로는 두마반(杜馬班)¹⁵⁶) 왕부(王府)와 인접해 있고, 아래쪽으로는 보분대해(莆奔大海)¹⁵⁷)로 통하여, 조왜에서는 반드시 쟁취해야 하는 목구멍 같은 요지이다. 한편 [조왜국의] 모신(謀臣) 희녕관(希寧官)이 강을 따라 배를 정박시키고 승패를 관망하였는데, 여러 차례 초유했지만 항복하지 않았다. 행성(行省)에서 계곡[팔절간] 연변에 언월영(偃月營)¹⁵⁸)을 설치하고, 만호(萬戶) 왕천상(王天祥)을 남겨 강의 나루터를 지키게 했으며, 토호등가(土虎登哥)와 이충(李忠) 등은 수군(水軍)을 이끌게 했으며, 정진국(鄭鎮國)과 성도진무(省都鎮撫) 윤신(倫信) 등은 기병과 보병을 이끌고 수륙

155) 土罕必闌耶: 라덴 비자야(Raden Vijaya)를 음역한 것이다. 비자야는 몽골 침략을 교묘하게 이용하여 Kediri의 반란세력을 진압하고 몽골 세력까지 물리친 뒤, 마자파히트(Majapahit) 왕국을 세워 첫 번째 왕으로 즉위한다. 그의 정식 왕명은 커르타라자사 자야와르다나(Kertarajasa Jayawardhana)이며 1293년부터 1309년까지 마자파히트 왕국을 통치하였다.

156) 杜馬班: 인도네시아 자와 섬 마랑 일대의 고지명으로 투마펠(Tumapel)을 음차한 것으로 추정된다. 13세기 싱오사리 왕국의 도성이 소재했던 곳이다.

157) 莆奔大海: 현재 인도네시아 자와 해의 동해 일대를 일컫는 지명. 일설에는 마두라(Madura) 섬과 자와 섬 사이의 해역이라고도 한다. 『明一統志』卷90과 『四夷廣記』, 『東西洋考』卷2, 『清一統志』卷424, 『嘉慶志』卷560에서도 관련지명이 언급된다.

158) 偃月營: 옆으로 누운 반달 형태로 진을 치는 營陣의 명칭. 『新唐書』「突厥傳」上에 “大將將兵，柄不得專，一曰爲偃月，一曰爲魚麗，三軍萬夫，環旋翔伴，愧駭之間，虜騎乘之”라는 기록이 있다.

양방향으로 진격하게 하였다. 희녕관(希寧官)이 두려움에 밤을 틈타서 배를 버리고 도망쳐버린지라 귀신머리를 장식한 대선(大船) 백여 척을 획득하였다. 도원수(都元帥)¹⁵⁹⁾ 나해(那海)·만호 영거인(寧居仁)·정규(鄭珪)·고덕성(高德誠)·장수(張受) 등에게 명하여 팔절간의 해구(海口)를 지키게 하였다.

大軍方進，土罕必闍耶遣使來告，葛郎王追殺至麻喏巴歇，請官軍救之。亦黑迷失·張參政先往安慰土罕必闍耶，鄭鎮國引軍赴章孤接援。興進至麻喏巴歇，却稱葛郎兵未知遠近，興回八節澗。亦黑迷失尋報賊兵今夜當至，召興赴麻喏巴歇。七日，葛郎兵三路攻土罕必闍耶。八日黎明，亦黑迷失·孫參政率萬戶李明迎賊於西南，不遇。興與脫歡由東南路與賊戰，殺數百人，餘奔潰山谷。日中，西南路賊又至，興再戰至晡，又敗之。十五日，分軍爲三道伐葛郎，期十九日會答哈，聽砲聲接戰。土虎登哥等水軍泝流而上，亦黑迷失等由西道，興等由東道進，土罕必闍耶軍繼其後。十九日，至答哈。葛郎國主以兵十餘萬交戰，自卯至未，連三戰，賊敗奔潰，擁入河死者數萬人，殺五千餘人。國主入內城拒守，官軍圍之，且招其降。是夕，國主哈只葛當出降，撫諭令還。

대군이 진격하기 시작하자, 토한필사야가 사신을 보내서 알리기를, 갈랑왕(葛郎王)¹⁶⁰⁾이

159) 都元帥: 遼·金 시대부터 설치되는 관직명이다. 요대에는 군사기구로 北面軍 官署를 설립하였고 兵馬 都元帥·副元帥·同知元帥府事 등을 책임자로 삼았다. 金朝는 天會 2년(1124)에 宋을 공격하기 위한 최고 군사기구로 都元帥府를 설치하였는데, 都元帥·左右副元帥·元帥左右監軍·左右都監 등이 운영을 담당하였다. 원대에는 변경지역의 상설 군사기구로 都元帥府와 元帥府를 설치하였고 都元帥가 지방군사장관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160) 葛郎王: ‘칼랑(Kalang)국의 국왕’이라는 의미로 커디리(Kediri) 친왕 가운데 한 명으로 반란을 주도했던 자야카트왕(Jayakatwang)을 가리킨다. 당시 중국 문헌에는 爪哇로 기록된 싱오사리(Singosari) 왕국이 칼랑 지역 커디리 왕조의 후손들과 원한관계를 가지고 있었는데, 『元史』 卷162에도 “時爪哇與隣國葛郎構怨……”이라고 기술하고 있다. 싱오사리 왕국의 마지막 왕이었던 커르타나가라(Kertanagara)는 주 136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적극적인 영토 확장정책을 통해 스리비자야(Srivijaya)를 멸망시키고 인도네시아의 역사가 자와를 넘어서서 수마트라를 위시한 각지로 확대되는 계기를 마련했지만, 대원제국의 자와 원정은 출발 전부터 이미 압력으로 작용하여 번속관계에 균열을 가져오고 있었다. 특히 커르타나가라의 주력함대가 멀라유(Melayu)의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 출병하자, 전부터 싱오사리 왕국과 원한관계를 가지고 있었던 커디리의 왕손인 자야카트왕이 자와에서 반란을 일으켜 커르타나가라 왕을

마야과혈(麻喏巴歇)까지 추격하며 살해하려고 하니 관군을 보내 구해달라고 청하였다. 역혹미실과 장참정(張參政)이 먼저 가서 토한필사야를 안위해주고, 정진국(鄭鎭國)이 군대를 이끌고 장고(章孤)¹⁶¹⁾로 가서 응접하고 구원하였다. [고]흥은 마야과혈까지 진격해갔는데, [그 곳에서는] 도리어 갈랑(葛郎)¹⁶²⁾의 병사들이 어디에 있는지 모른다고 하여, [고]흥은 팔절간으로 돌아왔다. 얼마 후 역혹미실은 오늘 밤에 적병이 반드시 올 것이라고 통보하고 고흥을 불러 마야과혈로 가게 하였다. [지원 30년 3월] 7일, 갈랑의 군대가 세 길을 통해서 토한필사야를 공격하였다. 8일 여명 무렵, 역혹미실과 손참정(孫參政)이 만호 이명(李明)을 거느리고, 서남쪽에서 적을 기다렸지만, 마주치지 않았다. [고]흥과 탈환은 동남로에서 적병과 전투를 벌여, 수백 명을 살해했는데, 나머지는 산의 계곡 쪽으로 뿔뿔이 흩어져 달아났다. 해가 중천에 떴을 때, 서남로에서 또다시 적병이 몰려와 [고]흥이 황혼 무렵까지 싸워 다시 격퇴하였다. 15일에는 군사를 세 방향으로 나누어 갈랑을 정벌했는데, 19일에 답합(答哈)¹⁶³⁾에서 회합하기로 약속하고, 포성을 들으며 접전을 치렀다. 토호등가 등 수군은 물길을 거슬러 올라왔고, 역혹미실 등은 서도(西道)에서, [고]흥 등은 동도에서 진격했고, 토한필사야의 군사는 그들의 후미를 따랐다. 19일에 답합에 도착하였다. 갈랑국왕이 10여만의 병력을 이끌고 응전하였다. 묘시(卯時)에서 미시(未時)까지¹⁶⁴⁾ 연속해서 세 차례 교전을 치렀는데, 적병들은 대패하자 도망치며 흩어졌고, 밀려 강에 빠져 죽은 사람도 수만 명에 달하였으며, 5천여 명이 살해되었다. 국왕은 내성(內城)으로 들어가 항거하였는데, 관군이 둘러 포위하고 투항하도록 타일렀다. 그날 밤, 국왕 합지갈당(哈只葛當)¹⁶⁵⁾이 나와서 투항하자 안무하여 깨닫게 한 뒤 돌려보내

살해하고 싱오사리 왕국을 점령하였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葛郎王은 칼랑(Kalang)의 왕, 즉 커디리의 왕손인 자야카트왕(Jayakatwang)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Sardesai, D. R., 1997).

161) 章孤: 자와 섬에 위치한 고대항구의 명칭으로 현재 인도네시아 자와 섬 동부 Brantas강 하류의 Surabaya와 Modjo Kerto시 사이에 위치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章姑·漳沽·漳估 등으로도 음역되었다(陳佳榮等, 1986: 718).

162) 葛郎: Kalang을 음역한 것으로 현재 인도네시아 자와의 Kediri 일대로 추정된다. 관련 내용은 『元史』 卷131·卷210, 『四夷廣記』, 『象胥錄』 卷4 등에도 기록되어 있다(陳佳榮等, 1986: 764).

163) 答哈: Daha의 음역으로 현재 인도네시아 Kediri 인근지역 혹은 그 북쪽 지역으로 추정하고 있다(陳佳榮等, 1986: 779).

164) 卯時에서 未時까지: 卯時가 5시에서 7시, 未時가 13시에서 15시이므로, 오전 5시부터 오후 3시까지를 가리킨다.

165) 哈只葛當: 哈只是 Haji, 葛當은 Katwang을 음역한 것으로 추정된다. 반란을 주도한 커디리 왕족의

주었다.

四月二日，遣土罕必闐耶還其地，具入貢禮，以萬戶捏只不丁·甘州不花率兵二百護送。十九日，土罕必闐耶背叛逃去，留軍拒戰。捏只不丁·甘州不花·省掾馮祥皆遇害。二十四日，軍還。得哈只葛當妻子官屬百餘人，及地圖戶籍·所上金字表以還。事見史弼·高興傳。

[지원 30년] 4월 2일, 토한필사야를 그의 속지로 파견하여 돌려보내서, 입공(入貢)할 예물을 준비하게 했는데, 만호 날지불정(捏只不丁)과 감주불화(甘州不花)가 병력 200명을 이끌고 호송하였다. 19일, 토한필사야가 배반하고 도망쳤는데, 남은 군사들이 이를 막으려고 교전을 치렀다. 날지불정·감주불화와 성연(省掾) 풍상(馮祥) 등이 모두 살해당하였다. 24일에 대군이 귀환했는데, 합지갈당의 처자와 관속(官屬) 백여 명, 그리고 지도(地圖)와 호적(戶籍), 헌상한 금자표(金字表) 등을 가지고 돌아갔다. 이런 사실은 사필(史弼)과 고흥(高興) 열전에 보인다.

瑠求

유구

瑠求，在南海之東。漳·泉·興·福四州界內彭湖諸島，與瑠求相對，亦素不通。天氣清明時，望之隱約若煙若霧，其遠不知幾千里也。西南北岸皆水，至彭湖漸低，近瑠求則謂之落滌，滌者水趨下而不回也。凡西岸漁舟到彭湖已下，遇颶風發作，漂流落滌，回者百一。瑠求，在外夷最小而險者也。漢·唐以來，史所不載，近代諸蕃市舶不聞至其國。

유구(瑠求)¹⁶⁶는 남해의 동쪽에 있다. 장[주](漳州)¹⁶⁷·천[주](泉州)¹⁶⁸·흥[화군](興化

친왕 Jayakatwang을 지칭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166) 瑠求: 流求로도 표기하며, 『隋書』〈流求國傳〉과 〈陳稜傳〉에 처음으로 등장한다. 大業 연간(605~617)에

軍)¹⁶⁹·복[주](福州)¹⁷⁰ [등] 4주 경계 내의 팽호(澎湖)¹⁷¹ 제도(諸島)가 유구와 마주보고 있는데도 왕래가 전혀 없었다. 날씨가 맑을 때 바라보면 어렵듯하게 마치 연무 같아서, 요원함이 몇천 리나 되는지 알 수 없다. 서남북안 모두 바다인데 팽호에 이르면 [파도가] 점차 낮아지며, 유구(瑠求) 근처를 낙제(落澌)라고 불렀는데, 제(澌)는 물이 아래로 떨어져서 다시 돌아오지 못한다는 의미이다. 서안의 어선이 팽호 아래쪽으로 왔다가, 몰아치는 폭풍을 만나 낙제로 표류하게 되면 돌아온 자가 백분의 일도 못 미쳤다. 유구는 외이(外夷) 가운데 가장 작지만 위험한 곳이다. 한당(漢唐) 이래로 사서에 기록되지 않았으며, 근래에도 여러 번국의 상선들

場帝는 두 명의 武將으로 하여금 군대를 거느리고 流求國을 공격하게 하였는데, 두 장군은 수천 명의 남녀를 포획하여 돌아왔다. 1874년 프랑스 사학자 Marie Jean-Léon 등은 위에 보이는 『元史』의 내용에 의거하여, 여기서 언급하는 유구국이 바로 타이완임을 밝혀냈다.

167) 漳州: 唐 垂拱 3년(686)에 泉州를 분할하여 처음 설치되며, 치소는 漳浦縣에 두었다. 開元 4년(716)에 치소를 李澳川으로 옮긴다. 天寶 원년(742)에 漳滌郡으로 개칭하였다가, 乾元 원년(758)에 다시 漳州로 복원되었다. 『元和郡縣志』 卷29 <漳州>條에서 “因漳水爲名”이라고 지명의 연원을 밝히고 있다. 五代 南唐 保大 3년(945)에 南州로 개명하였다가 北宋 乾德 4년(966) 다시 漳州로 복원하였다. 元至元 16년(1279)에 漳州路로 승격된다.

168) 泉州: 隋 開皇 9년(589)에 처음으로 泉州가 설치되었다가 大業 연간(605~617) 초에는 閩州로 바뀌었다. 唐 武德 연간(618~626) 초에는 다시 建州로 개명하고, 무덕 6년(623)에는 泉州로 개명하였다. 하지만 당시까지는 ‘천주’라는 지명이 복건 전역을 가리켰다. 景雲 2년(711)에 武營州를 泉州로 개명하는데, 開元 8년(720)에 현재 淸江縣에 처음으로 치소가 마련되었다. 『太平寰宇記』 卷102에 따르면, 州 북쪽 5리 지점에 있는 泉山에서 泉州의 지명이 유래되었다고 한다. 北宋 太平興國 연간(976~983)에는 일부 지역이 興化軍으로 떨어져나가고, 서남부 지역은 漳州로 독립된다. 宋 元祐 2년(1087)에 泉州城에 처음으로 市舶司가 설치되는데, 남송과 원대를 거치면서 천주성은 전국에서 가장 흥성한 무역기지로 부상하였다. 특히 천주성 南郊 지역은 항구 근처여서 많은 외국인들이 집거하였다. 『宋史』 「天竺傳」에도 “蕃僧等留居泉南”이라는 기사가 확인된다.

169) 興化軍: 北宋 太平興國 4년(979)에 太平軍의 명칭을 바꿔서 설치되며, 치소는 처음에는 興化縣(현재 福建省 仙游縣 동북 古邑)에 두었다가, 태평흥국 8년(983)에 莆田縣(현재 莆田市)으로 옮긴다. 관할 범위는 현재 복건성의 莆田과 仙游의 市縣 지역으로 원 至元 14년(1277)에 興化路로 승격된다.

170) 福州: 唐 開元 13년(725)에 閩州를 개명하여 설치하며, 치소는 閩縣에 두었다. 『元和郡縣志』 卷29 <福州>조에서 “因州西北福山爲名”이라고 지명의 유래를 밝히고 있다. 天寶 원년(742)에 長樂郡으로 개명하였다가 乾元 원년(758)에 다시 福州로 복원하며, 五代에는 閩國의 도성이 되었다. 송대에 복건로의 치소가 세워지며, 南宋 景炎 원년(1276)에는 端宗이 이곳에서 즉위하고, 福安府로 개명한 바 있다. 元 至元 14년(1277)에 다시 福州로 개명하며, 다음 해에 福州路로 승격된다.

171) 澎湖: 현재 타이완 서부에 위치한 澎湖群島를 가리키며, ‘澎湖’로도 표기한다. 唐代에 施肩吾가 族人들을 이끌고 들어와 처음으로 은거하였다는 기록이 전하며, <題澎湖> 詩가 전한다.

이 그 나라에 갔다는 것을 듣지 못하였다.

世祖至元二十八年九月，海船副萬戶楊祥請以六千軍往降之，不聽命則遂伐之，朝廷從其請。繼有書生吳志斗者上言生長福建，熟知海道利病，以爲若欲收附，且就彭湖發船往諭，相水勢地利，然後興兵未晚也。冬十月，乃命楊祥充宣撫使，給金符，吳志斗禮部員外郎，阮鑿兵部員外郎，並給銀符，往使瑠求。詔曰：「收撫江南已十七年，海外諸蕃罔不臣屬。惟瑠求邇閩境，未曾歸附。議者請卽加兵。朕惟祖宗立法，凡不庭之國，先遣使招諭，來則按堵如故，否則必致征討。今止其兵，命楊祥·阮鑿往諭汝國。果能慕義來朝，存爾國祀，保爾黎庶；若不效順，自恃險阻，舟師奄及，恐貽後悔。爾其慎擇之。」

세조 지원(至元) 28년(1291) 9월, 해선(海船) 부만호(副萬戶) 양상(楊祥)이 6천 병력을 이끌고 가서 그들을 항복시키고, 명령을 듣지 않을 때에는 바로 정벌하겠다고 요청하였는데, 조정에서 그의 청을 들어주었다. 이어 서생(書生) 오지두(吳志斗)라는 자가 상서를 올려서, 자신이 복건(福建)에서 태어나고 성장하여 바닷길의 편리함과 위험함을 잘 알고 있는데, 만약에 그들을 복종시켜 귀부하게 하려면 먼저 팽호에서 선박을 파견하여 그곳에 가서 알아듣게 이해시키고 수세(水勢)와 지형을 살핀 뒤, 그런 연후에 군사를 동원해도 늦지 않다고 아뢰었다. 그해 겨울 10월에 명령을 내려서 양상을 선무사(宣撫使)에 임명하고 금부(金符)를 주었으며, 오지두는 예부원외랑(禮部員外郎)에, 원감(阮鑿)은 병부원외랑(兵部員外郎)에 임명하고 은부(銀符)¹⁷²⁾를 주어 유구에 사신으로 가게 하였다. 조서를 내려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강남(江南)을 수복하고 안무한 지 이미 17년, 해외 모든 번국들 가운데 신속(臣屬)하지 않은 곳이 없다. 오직 복건 경계에 가까운 유구만이 아직까지 한번도 귀부하지 않았다. 어떤 사람들은 즉각 군대를 파병할 것을 요청하였다. 짐은 조상들께서 세우신 법도를 충분히 고려하여 무릇 내부하지 않은 국가에 대해서는 먼저 사신을 파견하여 초유(招諭)하고, [그런 연후에] 내조하면 종전과 마찬가지로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게 하며, 그렇지 않을 때에는 반드시 토벌하여 정복하게 하였다. 지금 짐은 병사를 파견하는 것을 제지하고, 양상과 원감에게 명하

172) 銀符: 銀을 주재료로 만든 符牌로서 金符보다 한 등급 낮은 신물이다. 송대 蘇舜欽의 〈乞發兵用銀牌狀〉에는 “臣竊見方今外郡兵馬，只是三班使臣齋宣起發，而無銀符之制”라는 내용이 언급된다.

여 너희 나라에 가서 잘 이해시키도록 하였다. 만약 인의(仁義)를 흠모하여 내조할 수 있다면, 너희 나라의 제사(종묘사직)를 존속시키고, 너희 백성들도 보호할 수 있다. 만약에 성실하게 귀순하지 않고 스스로 지형의 험준함에 기대고자 한다면, 전함들이 바로 들이닥칠 것이고 반드시 후회를 남기게 될 것이다. 너희는 신중하게 선택해야 할 것이다.”

二十九年三月二十九日，自汀路尾澳舟行，至是日巳時，海洋中正東望見有山長而低者，約去五十里。祥稱是瑠求國，鑿稱不知的否。祥乘小舟至低山下，以其人眾，不親上，令軍官劉閏等二百餘人以小舟十一艘，載軍器，領三嶼人陳輝者登岸。岸上人眾不曉三嶼人語，爲其殺死者三人，遂還。四月二日，至彭湖。祥責鑿·志斗「已到瑠求」文字，二人不從。明日，不見志斗蹤跡，覓之無有也。先，志斗嘗斥言祥生事要功，欲取富貴，其言誕妄難信，至是，疑祥害之。祥顧稱志斗初言瑠求不可往，今祥已至瑠求而還，志斗懼罪逃去。志斗妻子訴于官。有旨，發祥·鑿還福建置對。後遇赦，不竟其事。

[지원] 29년(1292) 3월 29일, 정[주](汀州)¹⁷³ 노미오(路尾澳)¹⁷⁴에서 함선이 출항하였다. 이날 사시(巳時)가 되었을 때, 바다 한가운데 정동(正東) 방향으로 산이 길고 나지막하게 보였는데, 약 50리 정도 떨어져 있었다. [양]상이 유구국(瑠求國)이라고 말하자, [원]감은 확실히 맞는지는 모르겠다고 하였다. [양]상이 작은 배에 올라타고 나지막한 산 아래쪽에 접근했는데, 그곳에 사람들이 많아서 직접 상륙하지는 않고, 군관(軍官) 유윤(劉閏) 등 200 여 명에게 작은 배 11척에 무기를 싣고 삼서(三嶼) 사람 진휘(陳輝)를 데리고 해안에 상륙하도록 명령하였다. 해안 위의 사람들은 삼서 사람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였고, 3명을 살해하여

173)汀州: 唐 開元 24년(736)에 福州과 撫州를 분할하여 처음 설치되며, 치소는 長汀縣(현재 복건성 長汀縣)에 위치하였다. 『元和郡縣志』 卷29 〈汀州〉조에서는 “因長汀溪以爲名”이라며 지명의 유래를 밝히고 있다. 天寶 원년(742)에 臨汀郡으로 개명하였다가, 乾元 원년(758)에 복원된다. 원대에는 福建行省에 속했으며, 至元 15년(1278)에 汀州路로 승격되었다.

174) 路尾澳: 彭湖에 있는 항구 가운데 하나이다. 汪大淵의 『島夷志略』 〈彭湖〉條에는 “島分三十六，巨細相間，坡隴相望，乃有七澳居其間，各得其名”이라는 구문이 보이는데, 광둥이나 복건 지역에서 연해에 배를 정박하기 쉬운 장소를 ‘澳’라고 불렀던 점을 감안할 때, 路尾澳도 彭湖 七澳 가운데 하나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결국 돌아왔다. 4월 2일, 팽호(澎湖)로 돌아왔다. [양]상이 [원]감과 [오]지두가 [문서에] “이미 유구에 도달하였다(已到瑠求)”라고 적은 것을 책망했으나 두 사람은 뜻을 굽히지 않았다. 다음 날 [오]지두의 종적이 보이지 않아서 그를 찾아보았으나 어디에도 없었다. 전에 [오]지두가 [양]상이 일을 꾸며 자신의 공로를 드러내고 부귀를 탐할 뿐 아니라 말이 황당해서 믿기 어렵다고 비판한 적이 있어서, 이런 상황에 이르자 [양]상이 그를 해친 것이라고 의심하였다. [양]상은 도리어 [오]지두가 처음부터 유구는 갈 수 없다고 말했는데, 지금 [양]상이 이미 유구에 도착하였다가 돌아오자 [오]지두가 죄가 될까 겁을 먹고 도망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오]지두의 처자는 관아에 소송을 제기하였다. 성지(聖旨)를 내려, [양]상과 [원]감을 복건으로 돌려보내 심문(審訊)을 받게 하였다. 후에 사면(赦免)이 내려져 이 일을 철저히 조사할 수 없었다.

成宗元貞三年，福建省平章政事高興言，今立省泉州，距瑠求爲近，可伺其消息，或宜招宜伐，不必它調兵力，興請就近試之。九月，高興遣省都鎮撫張浩·福州新軍萬戶張進赴瑠求國，禽生口一百三十餘人。

성종(成宗) 원정(元貞) 3년(1297), 복건성평장정사(福建省平章政事) 고흥(高興)이 상언하기를, 현재 천주(泉州)에 행성아문을 설립하여 유구(瑠求)와의 거리가 가까워져서 그 정황을 엿볼 수 있으니, 초유(招諭)를 하든 정벌을 하든 별도로 병력을 움직일 필요가 없으므로 [고]흥이 가까운 시일 내에 바로 시도해보겠다고 청하였다. 9월, 고흥은 성도진무(省都鎮撫) 장호(張浩)와 복주신군만호(福州新軍萬戶) 장진(張進)을 파견하여 유구국에 보냈는데, 포로 130여 명을 생포해왔다.

三嶼

삼서

三嶼國，近瑠求。世祖至元三十年，命選人招誘之。平章政事伯顏等言：「臣等與識者

議，此國之民不及二百戶，時有至泉州爲商賈者。去年入瑠求，軍船過其國，國人餉以糧食，館我將校，無它志也。乞不遣使。」帝從之。

삼서국(三嶼國)¹⁷⁵은 유구(瑠求)와 가깝다. 세조 지원 30년(1293), 사람을 뽑아 그들을 초유하도록 명령하였다. 평장정사(平章政事)¹⁷⁶ 백안(伯顔)¹⁷⁷ 등이 말하였다. “신(臣) 등이 [정황을] 잘 아는 사람들과 상의해보았는데, 이 나라의 백성은 200호에 미치지 못하며, 때때로 천주(泉州)에 와서 무역을 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작년에 유구(瑠求)에 가느라고 군선(軍船)이 이 나라를 통과한 적이 있는데, 국인(國人)들이 양식을 제공해주고, 우리 장병들에게 숙소도 제공해주었는데 아무런 다른 뜻을 품지 않습니다. 사신을 보내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황제가 이를 들어주었다.

馬八兒 等國

마팔아 등국

海外諸蕃國，惟馬八兒與俱藍足以綱領諸國，而俱藍又爲馬八兒後障，自泉州至其國約

- 175) 三嶼: 삼서는 '三島'로도 일컬어지며, 현재 필리핀군도로 추정된다. 『諸蕃志』卷上에, “三嶼乃麻逸之屬, 日加麻延, 巴姥西, 巴吉弄等, 各有種落, 散居島嶼. 船舶至則出而貿易, 總謂之三嶼”라는 내용이 보인다.
- 176) 平章政事: 고대 관직의 명칭이다. 당대에는 尙書·中書·門下 三省의 長官을 宰相으로 삼았는데, 관직이 높고 권력이 집중되어 항시 설치되지는 못하여, 기타관원들에게 同中書門下平章事의 명칭을 더해주고 국사에 동참하게 했는데, 약칭이 '同平章事'이다. 이 제도는 송대에 그대로 계승되었고, 주로 경험이 풍부한 대신들이 담당했으며, 위상이 오히려 재상보다 높았다. 金·元代 平章政事의 위상은 승상에 못 미친다. 원대에는 행중서성에도 平章政事를 설치했는데, 地方의 고급 장관이라 할 수 있다.
- 177) 伯顔(1236~1295): 몽골 八鄰部 출신으로 일칸국에서 출생하였다. 에르케운(也里可溫教) 기독교도이며 지략이 풍부하고 판단력이 뛰어나 쿠빌라이의 신망이 두터웠다. 至元 2년(1265), 中書左丞相과 中書右丞相을 역임하고, 지원 7년(1270)에는 同知樞密院事에 임명된다. 지원 10년(1273)에는 쿠빌라이칸이 그를 승군 정벌 최고통수에 임명하였다. 향후 다시 中書左丞相과 右丞相을 잇달아 역임하며, 송나라 정복을 진두지휘하여 지원 13년(1276)에는 임안을 함락시켰다. 지원 24년(1287), 王乃顔의 반란을 진압하고, 지원 26년(1289)에는 知樞密院事를 역임하였다. 쿠빌라이가 사망하는 지원 31년(1294) 12월에 사망하며, 大德 8년(1304)에 淮安王으로 追封되었다.

十萬里。其國至阿不合大王城，水路得便風，約十五日可到，比餘國最大。

해외의 제번국(諸蕃國) 가운데 오직 마팔아(馬八兒)¹⁷⁸와 구람(俱藍)¹⁷⁹만이 충분히 여러 국가들을 영도할 수 있었는데, 구람은 특히 마팔아 후면에 병풍처럼 둘러져 있었으며, 천주(泉州)에서 그 나라까지는 약 10만 리에 달하였다. 그 나라에서 아불합대왕성(阿不合大王城)¹⁸⁰까지는 해로로 순풍을 만나면 약 14일이면 도착할 수 있는데 다른 여러 나라들과 비교할 때 가장 컸다.

世祖至元間，行中書省左丞唆都等奉璽書十通，招諭諸蕃。未幾，占城·馬八兒國俱奉表稱藩，餘俱藍諸國未下。行省議遣使十五人往諭之。帝曰：「非唆都等所可專也，若無朕命，不得擅遣使。」

세조 지원 연간(1264~1294)에 행중서성(行中書省) 좌승(左丞) 사도(唆都) 등이 새서(璽書) 10통을 받들어 여러 번국을 초유하였다. 얼마 지나지 않아, 점성국(占城國)과 마팔아국(馬八兒國)에서 모두 표장을 올려 신하를 칭하고 번국(藩國)이 되었는데, 구람 등 나머지 여러 나라는 아직 귀부(歸附)하지 않았다. 행성(行省)에서 논의하여 사절 15인을 파견하여 그들을 초유하려고 하였다. 황제가 이르기를, “이것은 사도(唆都) 등이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만약 짐의 명령이 없으면 함부로 사신을 파견할 수 없다”고 하였다.

178) 馬八兒: 고대 페르시아나 아라비아 사람들은 인도 서남해안을 Malaya-bar로 지칭했는데, 馬八兒는 그 약칭인 Ma'bar을 음역한 것이다. 인도 서남부의 Malabar 해안 일대를 가리키는 것으로 추정된다(陳佳榮 等, 1986: 166).

179) 俱藍: 아라비아어 Kulam의 음역으로 인도 서부의 Quilon 일대를 중심으로 번성했던 국가를 가리킨다. 『諸蕃志』 卷上에서는 故臨國으로 음역했으며, 『嶺外代答』과 『島夷志略』 등에도 구람국 관련 내용이 보인다.

180) 阿不合大王城: 남인도의 고성으로 현재는 정확한 위치를 비정할 수 없다. 『元史』 외에도 『明續通考』 卷236과 『集事淵海』 卷47에서도 이 성을 언급한 바 있다.

十六年十二月，遣廣東招討司達魯花赤楊庭璧招俱藍。十七年三月，至其國。國主必納的令其弟肯那却不刺木省書回回字降表，附庭璧以進，言來歲遣使入貢。十月，授哈撒兒海牙俱藍國宣慰使，偕庭璧再往招諭。十八年正月，自泉州入海，行三月，抵僧伽耶山，舟人鄭震等以阻風乏糧，勸往馬八兒國，或可假陸路以達俱藍國，從之。四月，至馬八兒國新村馬頭，登岸。其國宰相馬因的謂：「官人此來甚善，本國船到泉州時官司亦嘗慰勞，無以為報。今以何事至此？」庭璧等告其故，因及假道之事，馬因的乃託以不通為辭。與其宰相不阿里相見，又言假道。不阿里亦以它事辭。

[지원] 16년(1279) 12월, 광동초토사(廣東招討司)의 달로화적(達魯花赤)¹⁸¹⁾ 양정벽(楊庭璧)을 파견하여 구람을 초유하게 하였다. [지원] 17년(1280) 3월, 그 나라에 도착하였다. 국왕[國主] 필납적(必納的)은 동생 긍나각불랄목성(肯那却不刺木省)에게 명하여 회회(回回) 문자로 투항하는 표(表)를 작성하게 했는데, [양]정벽 편에 올리면서, 이듬해에 사신을 파견해 입공하겠다고 말하였다. 10월, 합살아해아(哈撒兒海牙)에게 구람국선위사(俱藍國宣慰使)를 수여하고 [양]정벽과 함께 다시 가서 초유하게 하였다. [지원] 18년(1281) 정월, 천주로부터 바다로 출항하여 3개월을 항해하여 승가야산(僧伽耶山)¹⁸²⁾에 도착하였다. 선원[舟人] 정진(鄭震) 등이 역풍에 양식이 떨어져, 마팔아국으로 가든지 아니면 육로를 통해서 구람국에 가야 한다고 권하여 이에 따랐다. 4월, 마팔아국의 신촌(新村)¹⁸³⁾ 부두에 도착하여, 해안에

181) 達魯花赤: 元에서 지방의 총독이나 지사를 지칭했던 관직명이다. 達魯花赤은 다루가치를 음차한 것으로 達嚕噶齊로도 쓰이며, 『몽골비사』에는 다루가친(答嚕合臣, Darughachin)으로 기록되어 있다. 몽고의 원으로 국명을 바꾸기 전인, 太祖와 太宗 시기의 『黑韃事略』에는 주로 民政 업무를 관장하는 관청의 책임자를 지칭했는데, 世祖 때에 이르러 국명이 元으로 바뀌고 행정업무가 세분화되면서 지방행정을 총괄하는 책임자를 지칭하게 되었다. 『元史』 『百官志』에 따르면 諸路總管部와 예하 州·縣에 다루가치를 두고 통치했으며, 諸王과 駙馬, 功臣에게 나누어주는 投下州에도 반드시 다루가치를 두었다.

182) 僧伽耶(山): 산스크리트어 Sinhala의 음역으로 “사자를 잡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獅子國’ 혹은 ‘執獅子國’으로도 일컬으며, 현재 스리랑카(Sri Lanka)를 가리킨다. 僧伽耶 외에 僧伽刺·僧伽那·僧伽羅 등으로도 음역하였다(陳佳榮 等, 1986: 833).

183) 新村: 일반적으로 신촌은 현재 인도네시아 자와 섬 Gresik 일대를 지칭한다. 『瀛涯勝覽』 〈爪哇國〉條에 따르면 원래 토착어를 그대로 음역하면 ‘革兒昔’(혹은 吉力石·碣烈石·竭力石 등으로도 음역함)인데, 해안가 모래밭에 중국인들이 거주하기 시작하면서 ‘新村’으로 지칭하게 되었다고 한다(“新村, 蕃名曰革

상륙하였다. 그 나라의 재상 마인적(馬因的)이 “관인(官人)들께서 이곳에 오시니 매우 기쁘니 다. 본국의 선박이 천주에 가면 관청에서 위로를 해주곤 했는데, 보답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어떤 일로 이곳에 오셨는지요?”라고 말하였다. [양]정벌 등이 그 이유를 알려주면서, 길을 빌리는 문제를 언급하자, 마인적은 길이 통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양하였다. 그 나라 재상 불아리(不阿里)와 상견(相見)할 때에도 다시 길을 빌려달라고 요청하였다. 불아리 역시 다른 이유를 대면서 사양하였다.

五月，二人蚤至館，屏人，令其官者爲通情實：「乞爲達朝廷，我一心願爲皇帝奴。我使札馬里丁入朝，我大必闍赤赴算彈華言國主也。告變，算彈籍我金銀田產妻孥，又欲殺我，我詭辭得免。今算彈兄弟五人皆聚加一之地，議與俱藍交兵；及聞天使來，對衆稱本國貧陋。此是妄言。凡回回國金珠寶貝盡出本國，其餘回回盡來商賈。此間諸國皆有降心，若馬八兒旣下，我使人持書招之，可使盡降。」時哈撒兒海牙與庭壁以阻風不至俱藍，遂還。哈撒兒海牙入朝計事，期以十一月俟北風再舉。至期，朝廷遣使令庭壁獨往。

[지원 18년] 5월 [그들] 두 사람이 일찌감치 객관(客館)에 와서 사람들이 못 들어오게 막고, 그들 [원나라] 관리들에게 실정(實情)을 통고해달라고 하였다. “조정에 전달해주시기를 청하오니, 우리는 일심으로 황제의 노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원나라에] 찰마리정(札馬里丁)을 파견해 입조하면, 우리 대필사적(大必闍赤)이 술탄(算彈)¹⁸⁴에게 갈 것입니다. [그가] 사실을 알리면 술탄은 우리의 금·은·토지자산과 처자를 몰수하고 또한 우리를 죽이려고 해서 우리는 교묘하게 말을 꾸며대야 죄를 면할 수 있습니다. 현재 술탄의 형제 5명이 모두 가일(加一)¹⁸⁵이라는 지역에 모여서 구랍과의 교전에 대해 논의하고 있습니다. 천조(天朝, 元)의 사신이 왔다는 말을 듣고는, 모든 사람에게 본국은 가난하고 누추하다고 말하게

兒昔，原系沙灘之地，蓋因中國之人來此翊居，遂名新村.”). 그런데 본문에서는 “마팔아국 신촌부두”라고 언급하고 있어서 인도 연안의 항구도시로 추정된다.

184) 算彈: Sultan을 음차한 것으로, 중국어로는 국왕의 의미이다.

185) 加一: 현재 인도 남동부의 Cail 지역을 가리킨다. 고대에는 Kayal로 지칭했고, 加異勒·加益 등으로 음역하였다.

하고 있습니다. 이는 망언입니다. 무릇 회회국(回回國)의 금과 보석들은 모두가 본국에서 나오는 것이고, 나머지 회회(回回)¹⁸⁶들도 본국에 와서 무역을 합니다. 이곳의 여러 소국들은 모두 투항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만약에 마팔아가 다시 귀부하고, 우리가 조서를 가진 사람을 보내서 초치한다면, 전체를 투항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당시 합살아해아(哈撒兒海牙)와 [양]정벽(楊庭璧)은 역풍으로 구람에 도착하지 못하고 귀환하였다. 합살아해아는 입조(入朝)하여 이 일을 계획하면서, 11월에 북풍을 기다려서 다시 움직이기로 정하였다. 기일이 되었을 때, 조정에서는 사신을 보내면서 [양]정벽 혼자 단독으로 가라고 명령하였다.

十九年二月，抵俱藍國。國主及其相馬合麻等迎拜璽書。三月，遣其臣祝阿里沙忙里八的入貢。時也里可溫兀咱兒撒里馬及木速蠻主馬合麻等亦在其國，聞詔使至，皆相率來告願納歲幣，遣使入覲。會蘇木達國亦遣人因俱藍主乞降，庭璧皆從其請。四月，還至那旺國。庭璧復說下其主忙昂比。至蘇木都刺國，國主土漢八的迎使者。庭璧因喻以大意，土漢八的即日納款稱藩，遣其臣哈散·速里蠻二人入朝。

[지원] 19년(1282) 2월, 구람국에 도착하였다. [구람] 국왕과 재상 마합마(馬合麻) 등이 새서(璽書)를 영접하였다. 3월에는 그 신하 축아리사망리팔적(祝阿里沙忙里八的)을 파견하여 입공하였다. 당시 야리가온(也里可溫)¹⁸⁷인 올찰아살리마(兀咱兒撒里馬)와 목속만(木速

186) 회회: 송대까지 회회는 주로 위구르[回鶻]를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되었는데, 『夢溪筆談』과 『黑韃事略』에도 이러한 용례가 발견된다. 하지만 『癸辛雜識』과 『遼史』에서는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이나 국가를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되었으며, 『元史』와 『元典章』에서도 이슬람교도를 가리키는 용어로 사용되었다.

187) 也里可溫(erkegün): 원대에 기독교 성직자, 특히 네스토리우스派 景教 성직자인 에르케운을 일컫던 말이다. 也里可溫·也里克溫·也里喬 등으로도 음사하였다. 그 교도까지 포함시킨 호칭이었다고는 하나 확실한 근거는 없으며, 그 어원도 시리아어의 arku에서 왔다는 설 등이 있으나 명확하지 않다. 처음 13세기에는 서아시아에서 네스토리우스 교도에 대해서만 사용하였는데, 13세기의 몽골제국의 西征 결과로 몽골인도 사용하였으며, 그리스도교 전반에 확대 적용되었다. 몽골제국 내에서는 옹구트·나이만·위글·케레이트 부족 등 적어도 지배층에서는 이 경교를 신봉한 자도 있었다. 또 로마 가톨릭의 선교사가 초빙되자 그리스도교는 다른 종교와 함께 보호되었는데, 에르케운들은 불교의 승려나 도교의 도사 등과 마찬가지로 免稅 특권이 주어졌다. 당시 도시에는 崇福司, 지방에는 掌教所를 두어 신도를

蠻)의 군주 마합마(馬合麻) 등도 역시 구람국에 와 있었는데, 황제의 조서를 가진 사신이 도착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모두 잇따라 와서 세폐(歲幣)를 바치고 사신을 보내 입조하여 조근(朝覲)하기를 원한다고 밝혔다. 마침 소목달국(蘇木達國)¹⁸⁸⁾ 역시 사람을 보내 구람국주를 통해서 항복을 청하여, [양]정벽은 그들의 청을 모두 들어주었다. 4월에는 돌아오면서 나왕국(那旺國)¹⁸⁹⁾에 도착하였다. [양]정벽은 그 군주 망양비(忙昂比)를 다시 설복시켰다. 소목도랄국(蘇木都剌國)¹⁹⁰⁾에 도착했을 때는 국주(國主) 토한팔적(土漢八的)이 사신을 영접해주었다. [양]정벽이 여기에 오게 된 대략의 의도를 알려주자, 토한팔적은 그날 바로 귀부하며 세폐를 바쳤고 그의 신하 합산(哈散)과 속리만(速里蠻) 두 명을 보내 입조하였다.

二十年，馬八兒國遣僧撮及班入朝；五月，將至上京，帝即遣使迓諸途。二十三年，海外諸蕃國以楊庭璧奉詔招諭至是皆來降。諸國凡十：曰馬八兒，曰須門那，曰僧急里，曰南無力，曰馬蘭丹，曰那旺，曰丁呵兒，曰來來，曰急蘭亦解，曰蘇木都剌，皆遣使貢方物。

[지문] 20년(1283), 마팔아국에서 승려 찰급반(撮及班)을 보내 입조하였다. 5월에 상경(上京)에 도착할 즈음에 황제는 사신을 보내 노상에서 영접하게 하였다. [지문] 23년(1286), 양정벽(楊庭璧)이 조서를 받들고 초유한 까닭에, 이때에 이르러 해외의 모든 번국(蕃國)들이 와서 항복하였다. 이들 나라들이 총 10국에 달했는데, 마팔아(馬八兒)·수문나(須門那)¹⁹¹⁾·

관리하였다.

188) 蘇木達(國): 인도 서안에 위치했던 국가로 추정되며, 현재 정확한 위치는 비정할 수 없다. 혹자는 남인도의 Dvora Samudra를 지칭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陳佳榮 等, 1986: 604).

189) 那旺(國):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섬에 위치했던 고대국가의 명칭이다. 일부는 수마트라 섬의 소국인 那孤兒(Nagur)를 오기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혹자는 수마트라 서해안의 Nias 섬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190) 蘇木都剌(國): 인도네시아의 수마트라 섬은 원래 산스크리트어 Samudra에서 연원하는데 ‘큰 바다’를 의미한다. 중국 사료에는 蘇門答剌·須文答剌·速木都剌·蘇木都剌 등 다양하게 음역되었는데, 15세기 중반 이전까지는 주로 수마트라 섬 북부에 위치했던 국가만을 지칭하다가, 15세기 중반 이후에는 수마트라 섬 전체를 가리키는 용어로 사용된다.

191) 須門那: 현재 인도 서북 구저라트(Gujarat) 州 Somnath를 가리키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혹자는

승급리(僧急里)¹⁹²·남무력(南無力)¹⁹³·마란단(馬蘭丹)¹⁹⁴·나왕(那旺)·정가아(丁呵兒)¹⁹⁵·내래(來來)¹⁹⁶·급란역태(急蘭亦斛)¹⁹⁷·소목도랄(蘇木都剌) 등으로 모두 사절을 파견하여 방물(方物)을 진공하였다.



뭍바이 남쪽의 Chau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續通典』 卷148과 『明續通考』 卷236, 『集事淵海』 卷47에도 관련 내용이 보인다.

- 192) 僧急里: 인도 서안 코친(Cochin) 북쪽에 있었던 Cranganore의 옛 지명인 'Singili'를 음역한 것이다.
- 193) 南無力: 수마트라 섬의 고대국가인 Lamuri를 음역한 지명으로, 현재의 Banda-Aceh 일대로 추정하고 있다. 藍里·藍無里·南無里·南巫里 등 다양한 명칭으로 음역되었다.
- 194) 馬蘭丹: 현재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섬 일대나 갈리만탄 서북쪽의 섬으로 추정하고 있다. 『元史』 卷14에도 출현한다.
- 195) 丁呵兒: 현재 말레이반도 동안의 항구도시 Kuala Trengganu 부근으로 추정된다. 丁家盧·丁加下路·登牙儂 등 다양하게 음역되고 있으며, 『元史』 卷14에도 “(至元23年 9月 乙丑朔) 丁呵兒 …… 貢方物”이라는 기록이 보인다.
- 196) 來來: 인도 서부 고대국가의 명칭이다. 산스크리트어 Lala를 음역한 것으로, 羅囉國으로도 표기한다. 胡茶辣(Gujarat)의 별명으로, 현재 구저라트 주의 Mahi 강과 Kim 강 사이에 위치했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續通典』 卷148과 『明續通考』 卷236, 『裔乘』 卷2 등에도 관련내용이 출현한다.
- 197) 急蘭亦斛: 현재 말레이시아의 Kelantan 주에 있었던 고대국가를 지칭한다. 急蘭亦帶로도 표기되었는데, 『元史』 卷14에는 “(至元23年 9月 乙丑朔) 急蘭亦帶 …… 貢方物”이라는 기록이 보인다. 『續通典』 卷148과 『明續通考』 卷236, 『裔乘』 卷2, 『集事淵海』 卷47에도 관련내용이 출현한다.

| 참고문헌 |

동북아역사재단 편, 『역주 중국정사 외국전』 1~13, 동북아역사재단, 2009~2013
『二十五史』, 北京: 中華書局, 1959~1977

鞏珍 等, 向達 校釋, 『西洋番國志·鄭和航海圖·兩種海圖針經』(中外交通史籍叢刊), 北京: 中華書局, 2000

大汕·武尚清 點校, 『安南志略』(中外交通史籍叢刊), 北京: 中華書局, 2000

馬端臨, 『文獻通考』, 北京: 中華書局, 1999

孟元老, 伊永文 箋注, 『東京夢華錄箋注』, 北京: 中華書局, 2006

徐松, 『宋會要輯稿』, 北京: 中華書局, 1957

汪大淵, 蘇繼庠 校釋, 『島夷誌略』(中外交通史籍叢刊), 北京: 中華書局, 1981

義淨, 王邦雄 校注, 『大唐西域求法高僧傳』(中外交通史籍叢刊), 北京: 中華書局, 1988

義淨, 王邦雄 校注, 『南海寄歸內法傳』(中外交通史籍叢刊), 北京: 中華書局, 1995

李燾, 『續資治通鑑長編』, 北京: 中華書局, 1980

林春勝·林信篤, 『華夷變態』, 徳川幕府檔案, 1732(浦廉一 校勘, 1958)

趙汝适, 楊博文 校釋, 『諸蕃志校釋』(中外交通史籍叢刊), 北京: 中華書局, 2000

周去非, 楊武泉 校注, 『嶺外代答校注』(中外交通史籍叢刊), 北京: 中華書局, 1999

周達觀, 夏鼐 校注, 『眞腊風土記校注』(中外交通史籍叢刊), 北京: 中華書局, 2000

朱彧, 『萍州可談』, 北京: 中華書局, 1985

玄奘, 季羨林 等 校注, 『大唐西域記校注』(中外交通史籍叢刊), 北京: 中華書局, 1994

慧超, 張毅 箋釋, 『往五天竺國傳箋釋』(中外交通史籍叢刊), 北京: 中華書局, 1994

黃省曾, 謝方 校注, 『西洋朝貢典錄』(中外交通史籍叢刊), 北京: 中華書局, 1994

石澤良昭, 「漢籍占婆寫本分類」, 『鹿兒島大學史學科報告—歷史學』 29號, 1980

無名氏(元), 錢熙祚(清) 校, 『元朝征緬錄』, 台北: 藝文印書館, 1968

송정남, 『베트남의 역사』, 부산대학교출판부, 2000

송정남, 『베트남 역사 읽기』, 한국외국어대학교출판부, 2010

오구라 사다오, 박경희 역, 『한 권으로 읽는 베트남사』, 일빛, 1999

양승윤, 『인도네시아사』, 한국외국어대학교출판부, 2010
 유인선, 『베트남사』, 민음사, 1984
 유인선, 『새로 쓴 베트남의 역사』, 이산, 2002
 조재현, 『베트남 들여다보기』, 한국외국어대학교출판부, 2004
 최병욱, 『최병욱 교수와 함께 읽는 베트남 근현대사』, 창비, 2008
 최병욱, 『동남아시아사- 전통시대』, 대한교과서주식회사, 2006
 최해운, 『베트남을 간다』, 민서출판사, 1992
 황귀연 외, 『베트남의 이해』, 부산외국어대학교출판부, 2000
 후루타 모토오, 박홍영 옮김, 『베트남의 세계사』, 개신, 2008
 다독 자이날 아비딘 빈 압둘와히드 편저, 소병국 편역, 『말레이시아사』, 오름, 1998
 밀턴오스본, 조홍국 외 번역, 『한권에 담은 동남아시아 역사』, 오름, 2000

顧潤清 等, 『廣東海上絲綢之路研究』, 廣州: 廣東人民出版社, 2008
 喬治·馬司培羅(Georges Maspero), 馮承鈞 譯, 『占婆史』, 臺北: 臺灣商務印書館, 1973
 費琅, 馮承鈞 譯, 『蘇門答刺古國考』, 臺北: 商務印書館, 1962
 榮新江, 『中古中國與外來文明』, 北京: 生活·讀書·新知三聯書店, 2001
 王賡武, 『東南亞與華人』, 北京: 中國友誼出版公司, 1986
 王賡武, 姚楠編 譯, 『南海貿易與南洋華人』, 香港: 中華書局, 1988
 李東華, 『泉州與我國中古的海上交通-9世紀末-15世紀初』, 臺北: 學生書局, 1986
 李金明·寥大珂, 『中國古代海外貿易史』, 廣西人民出版社, 1995
 林金水 等, 『福建對外文化交流史』, 福州: 福建教育文化出版社, 1997
 張星烺 編注, 『中西交通史料匯編』, 北京: 中華書局, 2003
 陳佳榮 等, 『古代南海地名匯釋』, 北京: 中華書局, 1986
 陳序經, 『東南亞史研究論文集』, 海天出版社, 1998
 馮承鈞, 『中國南洋交通史』, 臺北: 商務印書館, 1937
 馮承鈞, 『西域南海史地考證譯叢』 甲集~戊集, 臺北: 商務印書館, 1972
 向達, 『唐代長安與西域文明』, 臺北: 明文書局, 1981
 藤田豊八 遺著, 池内宏 編, 『東西交涉史の研究-南海篇』, 東京: 岡書院, 1974
 三杉隆敏, 『海のシルクロードを調べる事典』, 芙蓉書房出版, 2006
 石井米雄 等 編, 『東南アジア史 I: 大陸部』, 東京: 山川出版社, 1999
 石澤良昭·生田滋 著, 『東南アジアの傳統と發展』, 東京: 中央公論社, 1998

池端雪浦 編, 『東南アジア史Ⅱ: 島嶼部』, 東京: 山川出版社, 1999

Andaya, Babara Wastan & Leonard Y., *A History of Malaysia*, University of Hawaii Press, 2001

Coedès, George, *The Indianized States of Southeast Asia* (translated from the French by Susan Brown Cowing), Honolulu: East West Center Press, 1968

Doanh, Ngô Văn, *Mỹ Sơn Relics*, Hanoi: Thế Giới Publishers, 2005

Doanh, Ngô Văn, *Champa: Ancient Towers*, Hanoi: Thế Giới Publishers, 2006

Gungwu, Wang, *China and Chinese Overseas*, Singapore: Times Academic Press, 1991

Gungwu, Wang, *The Nanhai Trade: A Study on the Early History of Chinese Trade in the South China Sea*, TMBRAS, Vol. XXXI, Part 2, No. 182, 1958

Hall, D. G. E., *History of Southeast Asia*, London: Macmillan, 1958

Howard, J. Wechsler, *Jade and Silk: Ritual and Symbol in the Legitimation of the Tang dynasty*,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1985

Hubert, Jean-François, *The Art of Champa*, Parkstone Press, 2005

Kam Hing, Lee and Chee-Beng, Tan ed., *The Chinese in Malaysia*, Kuala Lumpur: Oxford University Press, 2000

Maspero, Georges, *Le Royaume de Champa*, 1928

Sardesai, D. R., *Southeast Asia, Past and Present*, Chiang Mai: Silkworm Books, 1997

Scott, William Henry, *Filipinos in China before 1500, China Studies Program*, Manila: De La Salle University, 1989

Taylor, K. W., *The Birth of Vietnam*,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83

Wheatley, Paul, *Geographical Notes on some Commodities involved in Sung Maritime Trade*, 1961

寥寅, 「漢唐時期中國與南海諸國之關係」, 『學術論壇』, 2007-11

白壽彝, 「宋時大食商人在中國的活動」, 『中國伊斯蘭史存稿』, 銀川: 寧夏人民出版社, 1982

史富強, 「論柬埔寨民族起源及扶南王國的產生與發展」, 『河南大學學報』, 2002-11

石堅軍, 「納速刺丁征緬考」, 『青海社會科學』, 2007-5

聶德寧, 「隋唐時期中國與東南亞的佛教文化交流」, 『南洋問題研究』, 2002-3

楊國禎, 「宋元泉州與亞洲海洋經濟世界的互動」, 『泉州港與海上絲綢之路(二)』, 北京: 中國社會科學出版社, 2003

楊海軍, 「試論10~13世紀的東占戰爭」, 『河南大學學報』, 1995-11

- 黎道綱, 「扶南民族族屬探討」, 『東南亞研究』, 2007-5
- 黎道綱, 「《宋史》地華伽羅身分的爭議」, 『南洋問題研究』, 2004-2
- 劉真倫, 「婆利即驃國考—海上絲綢之路研究」, 『中國邊疆史地研究』, 1996(3)
- 李雲泉, 「略論宋代中外朝貢關係與朝貢制度」, 『山東師範大學學報』(人文社會科學版) 48-2(總187), 2003
- 張廣達, 「海舶來天方絲路通大食—中國與阿拉伯世界的力士連繫的回顧」, 『西域史地叢稿初編』,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95
- 全漢昇, 「明清中外交通與貿易」, 『明清經濟史研究』, 臺北: 聯經, 1987
- 周偉洲, 「西漢長安與南海諸國的交通及往來」, 『中國歷史地理論叢』, 2003-12
- 周偉洲, 「隋唐長安與南海諸國的佛教文化交流」, 『西北民族論叢』, 2003
- 陳學軍, 「宋代廣州的蕃姓海商」, 蔡鴻生 主編, 『廣州與海洋文明』, 廣州: 中山大學出版社, 1997
- 韓振華, 「唐代訶陵(閩婆)新考」, 『中國與東南亞關係研究』, 廣西人民出版社, 1992
- 許永璋, 「古代洛陽與南海絲綢之路」, 『史學月刊』, 2000-1
- [法]克洛德 雅克 著, 楊保筠 譯, 「扶南”真腊”辯」, 『東南亞縱橫』, 1994-1
- 藤田豊八, 「狼牙脩國考」, 『東西交流史の研究—南海編』, 藤田豊八 遺著, 池内宏 編, 『東西交涉史の研究—南海篇』, 東京: 岡書院, 1974
- 藤田豊八, 「棉花棉布に關する古代支那人の知識」, 藤田豊八 遺著, 池内宏 編, 『東西交涉史の研究—南海篇』, 東京: 岡書院, 1974
- Dupont, P., “Le Sud indochinois aux VIe et VIIe siècles. Tchen-La et Pānduranga,” *Bulletin de la Sociétés Etudes Indochinois*, XXIV-1, 1949
- GungWu, Wang, “The Nanhai Trade: A Study of the Early History of Chinese Trade in the South China Sea,” *The Journal of the Malayan Branch of the Royal Asiatic Society*, 31(2), 1958
- GungWu, Wang, “Southeast Asian hua-chiao in Chinese History Writing,” *Journal of Southeast Studies*, 1981
- Hall, Kenneth R., “Economic History of Early Southeast Asia,” Tarling, Nicholas, *The Cambridge History of Southeast Asia*, Vol. 1,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2
- Pelliot, Paul, “Textes chinois sur le Pānduranga” in BEFEO, *Tome III*, 1903
- Taylor, Keith W., “The Early Kingdoms,” Nicholas Tarling, *The Cambridge History of Southeast Asia*, Vol. 1,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2
- Wade, Geoff, “Champa in the Song hui-yao: A draft translation,” *Asia Research Institute Working*

Paper Series, No. 53, Asia Research Institute, National University of Singapore, 2005

譚其驥, 『中國歷史大辭典—歷史地理』, 上海辭書出版社, 1996

史爲樂, 『中國歷史地名大辭典』, 中國社會科學出版社, 20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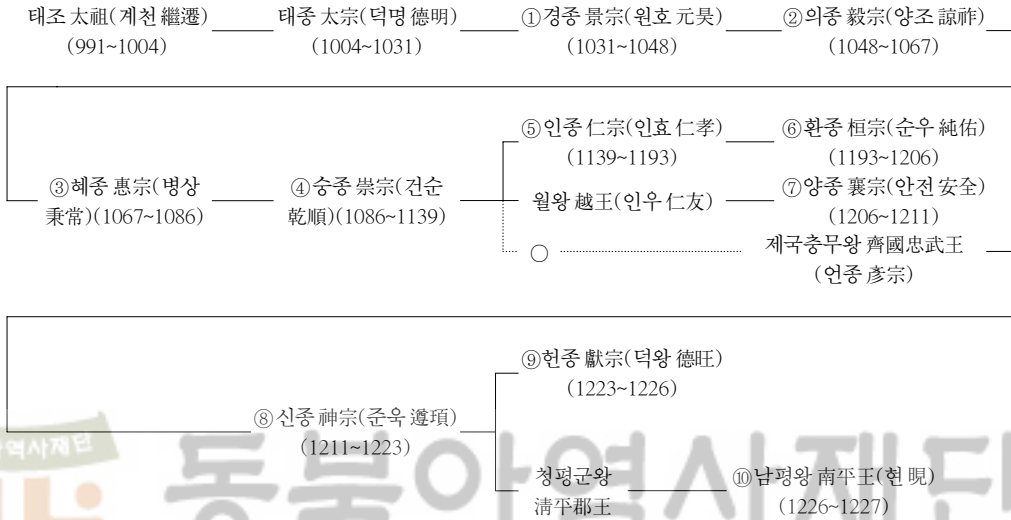
三杉隆敏, 『海のシルクロードを調べる事典』, 芙蓉書房出版, 20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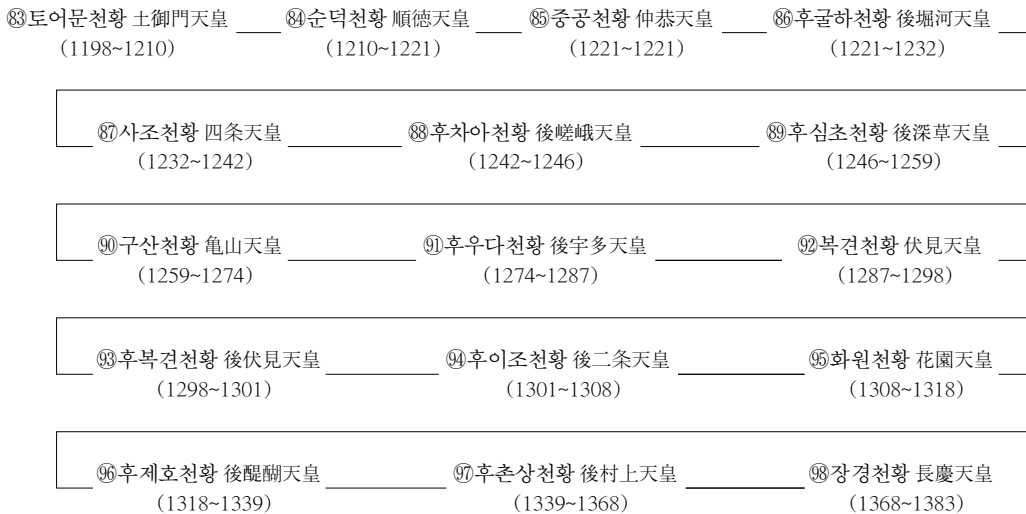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세계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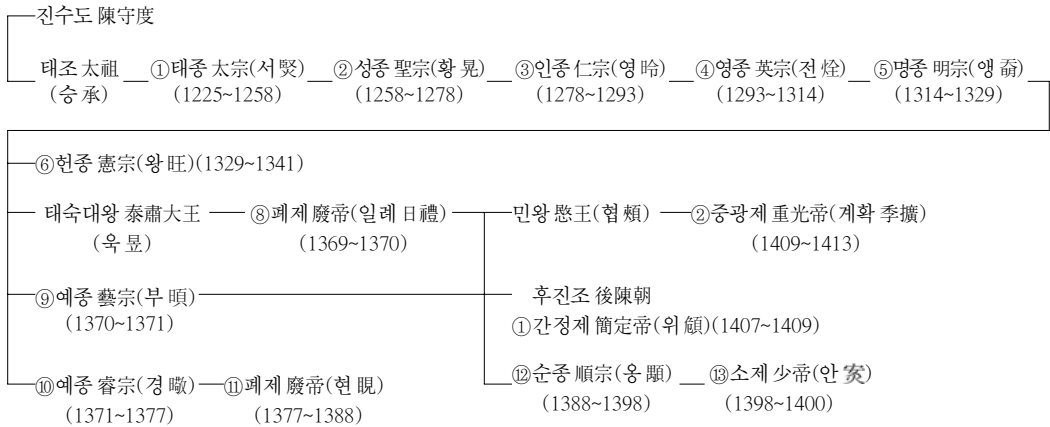
• 서하 세계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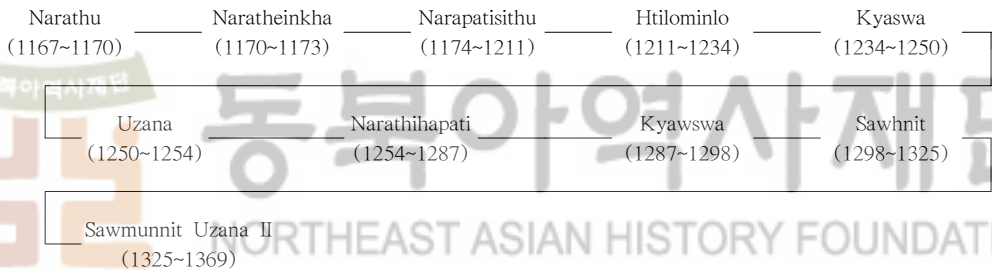
• 원대 일본 천황 세계표



• 원대 안남 세계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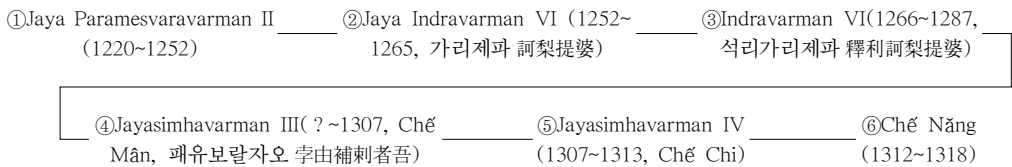


• 원대 면(바간 왕조) 세계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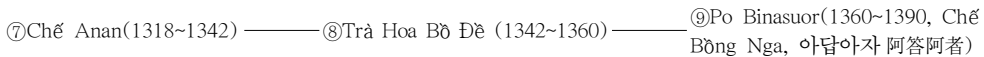


• 원대 점성 세계표

점성 제12왕조



점성 제13왕조



연표

• 『요사』 「외국이기」 〈서하전〉

연도	사 건
986	요 이계천(李繼遷)에게 특진(特進) 검교태사(檢校太師)·도독(都督) 하주제군사(夏州諸軍事)를 수여하고 이씨 성을 회복시켜줌
	서하 요에 공물을 바침
988	서하 요에 입공
989	서하 이계천이 요에 공물을 바침
	요 왕자(王子) 야율양(耶律襄)의 딸을 의성공주(義成公主)에 책봉하여 이계천에게 시집보냄
990	서하 요에 입공. 12월, 송의 인주(麟州)와 부주(鄜州)를 함락시켰다고 보고
	요 사신을 보내어 이계천을 하국왕(夏國王)으로 책봉
991	요 정난군(定難軍) 절도사(節度使) 이계봉(李繼捧)이 내부(來附)하여, 개부의동삼사(開府儀同三司)·검교태사(檢校太師) 및 시중(侍中)을 제수하고, 서평왕에 책봉. 거듭 추충효순계성정난공신(推忠效順啟聖定難功臣)이라는 칭호를 내림
995	서하 송의 군대를 패배시키고 나서 사신을 보내어 보고
996	서하 요에 진공(進貢)
997	요 서하가 송의 군대를 패배시켰다고 와서 보고하여, 이계천을 서평왕으로 책봉
	서하 이계천이 사신을 보내서 책봉에 대해 사례
998	서하 요에 진공
1000	요 이계천의 아들 이덕명(李德明)에게 삭방군(朔方軍) 절도사 수여
1001	서하 이문기(李文冀)를 보내어 공물을 바침
1002	서하 요에 말과 낙타를 진상. 6월, 유인옥(劉仁勗)을 보내어 영주(靈州)를 함락시켰다고 보고
1003	서하 이계천이 사망. 그 아들 이덕소(李德昭, 즉 李德明)가 사신을 보내어 보고
	요 이계천을 상서령(尙書令)으로 추증하고, 서상합문사(西上關門使) 정진(丁振)을 보내어 조문하고 위로
1004	요 이덕소를 서평왕으로 책봉
1005	서하 송의 청성(青城)을 함락시켰다고 보고
1007	요 이덕소의 모친이 죽자 사신을 파견하여 조제(弔祭)를 보내고 기복(起復)시켜줌
1009	요 승천황태후(承天皇太后)가 사망. 서하에 사신을 보내어 상을 알림

1010	요 이덕소를 하국왕으로 책봉
1012	서하 이덕소는 사신을 보내어 좋은 말을 진상
1013	요 인진사(引進使) 이연홍(李延弘)을 파견하여 하국왕 이덕소 및 의성공주에게 거마(車馬)를 하사
1021	서하 요에 내공
1031	요 성종이 붕어하자 서하에 상(喪)을 알림. 흥종(興宗)이 즉위하면서 흥평공주(興平公主)를 이원호(李元昊)에게 시집보내고 이원호를 부마도위(駙馬都尉)로 삼음
	서하 이덕소는 사신을 보내와 부의 예물을 헌상
1032	서하 이덕소가 죽자 그의 아들 하국공(夏國公) 이원호가 즉위
	요 하국 사신들이 개인적으로 금이나 철을 거래하는 것을 금지
1038	서하 요에 내공. 이원호는 흥평공주와 사이가 나빴는데 공주가 죽자 북원승지(北院承旨) 야율서성(耶律庶成)을 파견하여 문책함
1041	서하 사로잡은 송의 장령과 포로를 요에 바침
1042	요 사신을 파견하여 송이 군대를 일으켜 서하를 토벌한 이유를 물음. 12월, 토욕혼(吐谷渾)이 서하에게 말을 파는 것을 금지하고 연변에 보루를 쌓아서 막음
1043	요 동지석진부사(同知析津府事)인 야율적렬(耶律敵烈)·추밀도승지(樞密都承旨) 왕유길(王惟吉)를 파견하여 서하가 송과 강화하라고 권유. 7월, 이원호가 송을 토벌하자고 청하는 표문을 올렸으나 따르지 않음
1044	요 당항 및 산서부족(山西部族) 절도사인 굴열(屈烈)이 5부(部)를 데리고 요를 배반하여 서하에게 들어가자 그들을 토벌하라는 조서를 내림
	서하 이원호는 직접 당항의 3부족을 이끌고 와서 항복. 12월, 이원호는 다시 사신을 보내어 내공
1048	서하 이원호가 죽자 그의 아들 이양조(李諒祚)가 사신을 보내어 보고
1049	요 서하를 정벌하자는 논의가 있어 흥종이 친정(親征). 9월, 소혜(蕭惠)가 서하인들에게 패배당함. 10월, 초토사(招討使) 야율적고(耶律敵古)는 하란산(賀蘭山)에 가서 이원호의 부인과 관료, 가족들을 사로잡음. 서하의 군대 3천 명이 와서 대항하였으나 패배시킴
1050	요 서하 장수 와보(沓普) 등이 금숙성(金肅城)을 공격하여 야율고가노(耶律高家奴) 등이 그들을 패배시킴. 3월, 전전도점검(殿前都點檢) 소질리득(蕭迭里得)이 서하 군대와 삼각천(三角川)에서 싸워서 패배시킴. 초토사(招討使) 소포노(蕭蒲奴)·북원대왕(北院大王) 의신(宜新) 등이 군대를 이끌고 서하 토벌
	서하 10월, 이양조의 모친이 예전대로 칭신하겠다고 요청
1051	요 사신을 보내어 당항의 반역자들을 찾아내라고 요청. 6월, 이원호의 처자와 사로잡은 서하인들을 소주(蘇州)에 안치
1053	서하 이양조가 항복하는 표문을 올림
	요 조서를 내려 서하를 안무하고 회유
1054	서하 정월, 방물을 진공. 7월, 이양조가 사신을 파견하여 구혼(求婚)

1054	[요] 5월, 서하에서 말과 낙타를 진상한다고 요구하여 매해 진상하라는 조서를 내림
1055	[요] 홍종이 죽자 서하에 사신을 보내 알림. 9월, 홍종의 유물을 서하에 하사
	[서하] 요의 도종(道宗)이 즉위하자 사신을 보내어 축하
1058	[서하] 사신을 파견하여 홍종의 장례에 참석
1063	[요] 민간에서 서하에 구리를 파는 것을 금지
1067	[서하] 11월, 사신을 파견하여 회골(回鶻)의 승려·금불상·『범각경(梵覺經)』을 진상. 12월, 이양조 사망
1068	[서하] 2월, 이양조의 아들 이병상(李秉常)이 사신을 보내 상사를 보고
	[요] 10월, 이병상을 하국왕으로 책봉
1069	[서하] 요에 사신을 보내 책봉에 감사
1076	[요] 인의황후(仁懿皇后)가 죽자 서하에 사신을 보내어 알려주고 황태후의 유물 하사
	[서하] 요에 사신을 보내어 조문
1085	[서하] 이병상은 사신을 보내어 모친의 상사를 알림
1086	[요] 이병상이 죽자 요는 사신을 파견하여 그 아들 이건순(李乾順)이 국사를 맡으라는 조서를 내림
1088	[요] 이건순을 하국왕으로 책봉
1089	[서하] 사신을 파견하여 책봉에 대해 감사함
1092	[서하] 송의 침략을 받자 사신을 파견하여 구원 요청
	[서하] 구원을 요청
1098	[요] 추밀직학사(樞密直學士) 야율엄(耶律儼)을 송에 사신으로 파견하여 서하와 강화를 맺으라고 설득
1099	[요] 이건순에게 발사모(拔思母) 등 부족을 토벌하라는 조서를 내림
1100	[서하] 사신을 파견하여 요의 공주와 혼인을 요청
1101	[요] 도종이 붕어하여 서하에 사신을 보내 상사를 알림
	[서하] 사신을 요에 보내와 위전(慰奠)함
1101	[서하] 천조제(天祚帝) 즉위를 서하는 사신을 보내어 축하
1102	[서하] 요의 공주와 혼인을 거듭 요청. 송의 침략을 받자 이조복(李造福)·전약수(田若水)를 파견하여 구원 요청
1103	[서하] 사신을 파견하여 요의 공주와 혼인 및 구원을 거듭 요청
1104	[서하] 이조복 등이 요에 와서 구원을 요청
	[요] 종실의 딸인 남선(南仙)을 성안공주(成安公主)로 봉하여 이건순에게 시집보냄
1106	[요] 우온서(牛溫舒)를 송에 사신으로 보내 침범한 서하 영토를 돌려주라고 함

1108	[서하] 이견순은 성안공주(成安公主)와 아들을 낳았다고 보고
1122	[서하] 요의 천조제가 도성을 떠나 피난하자 이견순은 군대를 이끌고 도우러 왔지만 금의 군대에게 패배당함
	[요] 사신을 보내서 이견순을 하국 황제로 책봉. 요 천조제는 사로잡혀 금으로 끌려감

• 『금사』 「외국전」 〈서하전〉

연도	사 건
1124	[서하] 3월, 이견순이 금(金)에 파리공량(把里公亮) 등을 파견하여 서표(誓表) 올림
	[금] 윤3월, 태종이 왕아해(王阿海)·양천길(楊天吉)을 사신으로 보내어 서조(誓詔)를 내려줌
1139	[금] 서하의 국왕인 이견순이 사망하고 이인효가 즉위하자 사신을 파견하여 책명하고 개부의동삼사상주국(開府儀同三司上柱國)을 더해줌
1141	[금] 각장(樵場)을 설치할 것을 청하자 허락함
1164	[서하] 2월, 유와문충(紐臥文忠) 등을 파견하여 만춘절(萬春節)을 축하하러 입견
1168	[금] 서하의 국왕인 이인효가 재상 임득경의 병을 치료하기 위해 양의(良醫)를 청했지만 거절
1171	[금] 이인효가 서남로(西南路) 및 영주(靈州)의 나방령(羅龐嶺) 지역을 임득경에게 주고 표문을 올려 임득경을 봉해줄 것을 청했지만 거절
1173	[금] 세종이 명하여 보안(保安)과 난주(蘭州)의 각장(樵場)을 감축
1178	[서하] 금 세종에게 백두장(百頭帳)을 헌납
1193	[서하] 이인효가 죽고 아들인 이순우(李純佑)가 뒤를 이음
1197	[금] 보안(保安)과 난주(蘭州)의 각장(樵場)을 다시 설치
1200	[금] 이순우의 모친이 풍(風)으로 의사를 청하자 태의판관(太醫判官)인 시덕원(時德元)과 왕리정(王利貞)을 파견하고 약(藥)을 보내줌
1206	[서하] 3월, 이안전(李安全)이 이순우를 폐하고 자립. 이순우의 모친이 이안전을 왕으로 한다는 표문(表文)을 올리자 이안전을 하국왕(夏國王)으로 봉해줌
1211	[서하] 이안전이 사망하고 일족의 아들인 이준옥(李遵頊)이 즉위
1212	[서하] 3월, 가주(葭州)를 공격
1213	[서하] 6월, 보안주(保安州)를 공격
	[금] 11월, 회주(會州)를 공격하자 도통(都統) 도단추아(徒單醜兒)가 물리침. 12월, 경주(涇州)가 함락됨
1214	[금] 8월, 귀국인(歸國人)인 교성(喬成)이 전쟁을 그만두자는 서하의 국서(國書)를 가지고 왔으나 응답하지 않음

1214	서하 경원(慶原)·연안(延安)·적석주(積石州)를 공격
	금 11월, 통역인 정진승(程陳僧)이 하인(夏人)들과 결탁하여 난주(蘭州)에서 반란을 일으키자 변방 장수가 병사 3천 명을 격파
1215	금 정월, 서하의 군대가 무연천과 환주·적석주·안향관을 공격해오자 도통(都統)인 강백통(姜伯通)·조기승(曹記僧), 만호(萬戶)인 홀삼십(忽三十) 등이 물리침. 2월에 환주를 공격해오자 환주자사인 오고론연수(烏古論延壽)가 물리침. 3월에 하의 정벌을 논의함. 제공(提控)인 조기승(曹記僧), 통원군절도사(通遠軍節度使)인 완안구아(完顏狗兒)가 정진승(程陳僧)을 토벌하자 하인(夏人)들이 구원. 서하가 제오장성(第五將城)을 공격하자 만호(萬戶)인 양재흥(楊再興)이 격파. 10월에는 보안(保安)과 연안(延安)을 공격해오자 도통(都統)인 완안국가노(完顏國家奴)가 격파. 임조(臨洮)를 공격해오자 섬서선무부사(陝西宣撫副使)인 완안호실래(完顏胡失來)가 구원하려 갔지만 위원보(渭源堡)에서 크게 패하고 완안호실래가 사로잡힘. 11월, 서하의 군대를 극용채(克戎寨)와 숙양채(熟羊寨)에서 물리침
	서하 4월, 서하에서 파아족(葩俄族) 총관(總管)인 왕삼랑(汪三郎)이 무리를 이끌고 투항하고 양 천 마리를 바침
1216	금 서하가 내강성(來羌城) 경계가 있는 강에 교량을 놓자 원수우도감(元帥右都監)인 완안새불(完顏賽不)이 불태워버림. 6월, 서하가 공문서를 보내어 광정(光定) 연호를 사용한다고 하자 공문서를 봉해서 돌려보냄. 8월에 금의 좌감군(左監軍)인 오고론경수(烏古論慶壽)가 안새보(安塞堡)에서 하의 부대를 패도시키고, 우도감(右都監)인 완안새불(完顏賽不)이 결야자천(結耶嗒川)에서 하의 부대를 격파하고 거아보(車兒堡)에서도 승리를 거둔. 12월, 금의 좌감군(左監軍) 타만호토문(陀滿胡土門), 연안부(延安府)의 총관(總管)고리갑석륜(古里甲石倫)이 염주(鹽州)·유주(宥州)·하주(夏州)를, 경양부(慶陽府)의 총관인 경산노(慶山奴)·지평량부(知平涼府)인 이랄답불야(移刺答不也)가 위주(威州)·영주(靈州)·안주(安州)·회주(會州) 등을 공격함
	금 정월, 서하의 병사 3만 명이 영주(寧州)에서 돌아오니 경산노(慶山奴)가 부대를 데리고 맞이하여 싸워서 패배시킴. 하인(夏人)인 복산(福山)이 포로로 붙잡혔던 민호(民戶)를 데리고 항복해오자 동지택주군주사(同知澤州軍州事)를 제수해줌. 5월, 하의 병사들이 대북차(大北岔)로 들어오자 도통(都統)인 석렬저구(紇石烈豬狗)가 기습하여 패배시킴
1218	금 5월, 하인(夏人)들이 가주(葭州)로 들어오자 경산노(慶山奴)가 마길봉(馬吉峰)에서 격파. 7월, 감곡(龔谷)·협곡서(夾谷瑞)를 침공하자 조방(趙防)이 격파하고 질과보(質孤堡)까지 추격
1219	금 서하 사람들이 통진채(通秦寨)를 공격하여 제공(提控)인 납함매주(納合買住)가 격파하자 가로천(葭盧川)으로 달아남. 화주(華州)의 원수(元帥)인 완안합달(完顏合達)이 안새보(安塞堡)에서 용주(隆州)까지 서하의 병사 2천 명을 격파
1220	금 서하의 공문이 불손하자 초첩(草牒)을 잘라버림. 4월, 하가 변방을 침범하자 녹아원(鹿兒原)·신천성(新泉城)에서 물리침. 8월, 하인들이 회주(會州)를 함락하자 회주자사인 오고론세현(烏古論世顯)이 투항. 서하가 감곡(龔谷)을 침범하자 협곡서(夾谷瑞)가 격파
1221	금 2월, 영원군절도사(寧遠軍節度使)인 협곡해도(夾谷海壽)가 서하의 군대를 수위보(搜鬼堡)에서 격파. 3월, 서하가 내강성(來羌城)을 차지함. 10월, 서하가 감곡(龔谷)을

1221	공격하자 백철(白撒)이 격파
1222	서하 정월에 대통성(大通城)을 함락함. 8월, 영안채(寧安寨)를 공격. 10월, 신림보(神林堡)를 공격. 금 12월, 하인들이 질과보(質孤堡)로 들어오자 제공(提控)인 당괄방(唐括昉)이 패주시킴
1223	서하 이존욱이 태자 이덕임(李德任)을 보내어 금을 정벌하려 했지만 반대하자 태자를 영주(靈州)에 유폐시킴 금 몽골이 서하를 침공한 틈을 타서 서하를 정벌하려 했지만 백철(白撒)·합달(合達)이 불가하다 하여 그만둠. 농안군절도사(隴安軍節度使)인 완안아린(完顏阿鄰)이 군대를 잘 다스리지 않자 하인들이 백성 5천여 명과 소·양 등 가축 수만 마리를 노략질함 서하 이존욱이 이덕왕(李德旺)에게 임금의 자리를 물려줌
1224	금·서하 금·서하 화의 달성함. 형제의 나라로 칭함
1226	서하 2월, 이존욱 사망. 7월, 이덕왕 사망함
1227	서하 서하 멸망

• 『원사』 「외이전」

연도	안남 · 동남아시아제국	일 본
1221		일본 승구(承久)의 난 발발
1232		일본 「어성패식목(御成敗式目)」 제정, 반포
1253	안남 을양합태(兀良合沓, 우량카다이), 안남에 침입(제1차침공)	
1258	안남 소용(紹隆)으로 개원, 몽골에서는 진조 태종이 퇴위한 것으로 파악	
1260	안남 몽골, 맹갑(孟甲)과 이문준(李文俊)을 남유사(南諭使)로 파견	
1261	안남 원에 사신 파견하여 3년 1회 조공하기로 함	
1262	안남 놀랄정(訥刺丁)을 다루가치로 파견	
1263	안남 원에 사신 파견	
1264 ~94	원 사도(唆都) 등이 새서(璽書)를 가지고 동남아 번국을 초유	
1265	안남 원에서 역(曆)과 개원(開元)의 조서를 하사	
1266	안남 진광병이 원에 표(表) 3통을 올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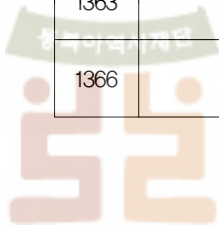
1267		일본 고려 사신 반부(潘阜) 등이 일본에 파견됨
1268	안남 홀룡해아(忽籠海牙)를 다루가치로 파견	일본 몽골·고려 사신이 대마도에서 일본인 2인을 사로잡아 돌아옴
1269	안남 원에 사신 파견하여 조공	일본 고려 사신 김유성(金有成) 등이 일본에 파견됨
1270	안남 증서성에서 진조 태종에게 공문을 보내 질책	일본 몽골 사신 조양필(趙良弼)이 일본에 파견됨
1271	면(緬) 걸태탈인(乞解脫因), 면에 사절로서 귀부 설득. 걸태탈인, 면국에 출사할 때 금치(金齒)의 안내를 받음. 4월, 걸태탈인이 면국 사절 개박(价博)과 함께 귀국 안남 진조 태종, 원에 답서를 보내 항의	
1272	면 면 왕이 금치 침입, 금치 두목 아필(阿必)을 생포해감 안남 엽식날(葉式捏)을 다루가치로 파견	일본 고려에서 일본으로 서한을 보내 통호를 요구함. 몽골 사신 조양필이 다시 일본에 파견됨
1273	면 2월, 감마랄실리(勘馬刺失里) 등 조사가지고 면에 감 안남 엽식날이 죽어 이원(李元)을 다루가치로 삼음. 진조 태종, 사신을 파견하여 조공	
1274	안남 진조 태종, 다루가치의 폐지를 요청	일본 몽골·고려 연합군의 1차 일본 원정
1275	면 4월, 하천작(賀天爵)이 금치에게서 들은 면국 사정을 상주함	일본 몽골 사신 두세충(杜世忠) 등이 일본에 파견됨
1275	면 면에 간 사절이 귀환하지 않자 면 정벌을 운남성에서 요청하고 원 조정에서는 불허. 11월에야 금치를 통해 사신들의 안전을 정탐했음을 상주함	
1277	면 3월, 금치에서 면국의 침입 사실을 알려오니 대리로 몽고천호 홀도(忽都) 군대가 출정, 700명의 군대로 4~5만 면군에 대승을 거둠. 10월, 납속랄정(納速刺丁)의 군대가 면국으로 출정. 강두성까지 들어가 총 35,200호 복속하고 더위로 인해 철군 안남 진조 태종이 죽고 성종이 즉위	일본 일본 상인이 몽골에 와서 교역함
1278	안남 원, 예부상서 등을 파견하여 진조 태종의 입조(入朝) 요구	

1278	<p>점성 남송 평정 협조 문제로 점성에 파견되었던 사절 사도(唆都)를 통해 점성의 귀부할 뜻을 알리니, 그 왕을 점성군 왕에 책봉함</p>	<p>일본 몽골 정부가 연해 관부에 명하여 일본 상인과 통교하도록 허가함</p>
1279	<p>안남 진조 태종, 사신을 파견하여 조공</p>	<p>일본 일본 상선이 경원(慶元)에 와서 교역함</p>
1280	<p>면 5월에 납속탈정의 요청에 따라 면의 정벌이 결정됨</p> <p>구람 원의 양정벽(楊庭璧)이 구람(俱藍)에 도착. 구람 국왕이 입공을 약속</p> <p>점성 2월, 점성에서 사절 보내 방물 진공, 항복</p>	
1281	<p>안남 원, 안남선위사(安南宣慰司) 설치</p> <p>마팔아 원의 양정벽이 마팔아국(馬八兒國)에 도착</p>	<p>일본 고려 충렬왕(忠烈王)이 몽골에 왜적의 변경 침입을 보고하고 군대를 보내 그들을 격퇴해달라고 청함. 몽골·고려 연합군의 2차 일본 원정. 일본의 침입을 방어하기 위해 고려의 금주(金州)·합포(合浦) 등지에 진변만호부(鎭邊萬戶府)를 설치함</p>
1282	<p>구람 양정벽이 구람국(俱藍國)을 재차 방문. 국왕과 재상이 새서(璽書)를 배수. 3월, 신하를 파견해 입공</p> <p>면 2월, 여러 만이들의 병사 징발하여 면국을 정벌하라는 원 황제의 조서 내려짐</p> <p>소목도랄 양정벽이 소목도랄국(蘇木都剌國)에 도착. 사신 2명이 함께 입조</p> <p>점성 점성이 귀복하지 않고 섬국(暹國)으로 가던 원의 사절을 점성에서 구류한 일의 이유로 점성에 출정함</p>	<p>일본 복건선위사(福建宣慰司)가 일본 첩자를 잡아 가둔. 일본에 사로잡혀 첩자로 몽골에 파견되었다가 투항한 신부군(新附軍)가우(賈祐)에게 의복과 식량을 지급함</p>
1283	<p>마팔아 등 마팔아(馬八兒), 수문나(須門那) 등 10개 번국이 입조</p> <p>면 9월, 원의 중왕 상오답아(相吾答兒) 등의 군대 중경에서 출발. 10월, 우승(右丞)·태복(太卜)이 나필전에서 진군. 11월, 면국 함락시킴</p> <p>안남 원, 점성 토벌에 필요한 군대와 군량미를 요구</p> <p>점성 정월, 대대적인 전투 끝에 점성 왕이 투항을 약속만 하고 격전이 계속됨</p>	

1284	<p>[안남] 점성 정벌을 위한 육상군 파견, 제2차 침공 시작</p>	<p>[일본] 몽골 사신 왕적옹(王積翁)과 여지(如智)가 일본에 파견되었다가 배 위에서 선원들에게 살해당함. 호조토키무네(北條時宗) 사망</p>
	<p>[점성] 3월, 사도의 군대가 철수. 4월, 점성국 왕이 손자들을 보내 귀부함. 교지(交趾)에 가서 가도(假道)하여 점성을 정벌하기로 하였으나 이루지 못함</p>	
1285	<p>[면] 11월, 면왕이 귀부할 뜻을 알리고, 조정에서 겁열(怯烈)을 사절로 보냄</p>	
	<p>[안남] 원의 정벌군, 수도 탕룡(昇龍)을 점령했으나 결국 철수</p>	
1286	<p>[면] 10월, 독만대(禿滿帶) 도원수 군대, 면에 출정. 겁열이 태공성까지 진입</p>	<p>[일본] 고려가 해안에 정박한 왜인 19명을 붙잡아 몽골로 압송함</p>
	<p>[안남] 망고대(忙古臺) 휘하의 군대가 안남을 공격</p>	
1287	<p>[면] 정월, 면왕의 서자가 반역하여 수감되는 등 면 왕실이 분열됨. 원 운남왕 등 제왕이 면국 원정에 나가 겨우 평정, 매년 입공을 약속받음</p>	
	<p>[안남] 원, 제3차 정벌군 파견하여 수도 점령</p>	
1288	<p>[안남] 원의 정벌군 철수</p>	
1289	<p>[안남] 진조 태종, 사신을 파견하여 조공</p>	
1290	<p>[안남] 진조 태종이 죽고 아들 진일존(陳日燾)이 원에 사신 파견</p>	<p>[일본] 고려가 왜적의 변경 침입을 몽골에 보고함</p>
1291	<p>[유구(瑠求)] 9월, 원의 해선(海船) 부만호(副萬戶) 양상(楊祥)이 유구 정벌을 요청. 10월, 양상(楊祥)과 오지두(吳志斗), 원감(阮鑑)을 유구에 사신으로 파견</p>	
1292	<p>[안남] 원, 이부상서 등을 파견하여 안남을 회유</p>	<p>[일본] 일본 상선 한 척이 경원로(慶元路)에 표착함. 일본 상선이 사명(四明)에 와서 교역을 요구함. 고려 사신 김유성(金有成)·곽린(郭麟)이 일본에 도래하여 국서를 전함</p>
	<p>[자와(爪哇)] 2월, 사필(史弼)과 역흑미실(亦黑米失), 고흥(高興)을 평장정사(平章政事)에 임명하고 복건행성에 자와 정벌을 명령. 9월, 자와 원정군이 경원(慶元)에 집결. 11월, 복건·강서·호광 3성 군대가 천주에 집결. 12월, 자와 원정군이 천주 후저(後渚)항에서 출항</p>	
	<p>[유구] 3월 29일, 정주(汀州)에서 원의 유구행 사신선 출항. 4월, 유구 상륙을 시도하다가 세 명이 살해당하고 팽호로 귀환</p>	

1293	<p>자와 원정군이 자와의 두병족(杜並足, Tuban)을 거쳐 수라바야(Surabaya)에 도착. 2월, 자와 국왕의 사위 비자야(Vijaya, 土罕必闍耶) 왕자 투항. 3월 19일, 원정군 답합(答哈, Kediri 지역) 도착. 갈랑국왕이 10만 대군을 이끌고 항진. 4월 19일, 비자야 왕자 배반. 날지불정(捏只不丁) 등이 사망하고 원정군 대패</p> <p>삼서 원에서 삼서국(三嶼國) 초유(招諭)를 논의</p>	<p>일본 일본에서 『몽고습래회사(蒙古襲來繪詞)』 완성</p>
1295	<p>섬국 금자표(金字表)를 진헌하며 원의 사신 파견을 요청</p>	
1297	<p>면 면 왕이 세자 파견해 은 2,500냥 등 세공 요청, 면왕 책봉과 은인 하사</p> <p>유구 9월, 고흥(高興)이 장호(張浩)와 장진(張進)을 유구에 파견</p>	
1299	<p>면 면 왕이 세자 파견해 입조, 세공 납부 연기 요청하여 격년입공 허가함</p> <p>섬국 말안장·안비(鞍轡)·백마(白馬)·금루의(金縷衣) 하사를 요청</p>	<p>일본 몽골 사신 일산일녕(一山一寧) 등이 일본에 파견됨</p>
1300	<p>면 4월, 사절을 보내 흰 코끼리 바침. 5월, 면 왕이 동생 아산가야에게 시해당하고 왕자는 중국으로 도피하니, 반역 문죄를 이유로 출정. 6월, 중국에 있던 왕자를 면 왕으로 책봉하고 은 인장을 하사함. 7월, 아산가야의 동생 자소 등이 입조. 8월, 입조하여 면 왕 살해한 죄를 인정하니 면국 정벌전쟁을 중지함</p>	
1301	<p>면 9월, 면 정벌 때의 실책 책임자들을 처형함. 10월, 면의 사절이 와서 입공</p>	
1306		<p>일본 일본 상인이 경원(慶元)에 와서 교역하고 금개갑(金鎧甲)을 바침</p>
1317		<p>일본 일산일녕(一山一寧) 사망</p>
1321		<p>일본 원정(院政)을 정지하고 고다이교 천황(後醍醐天皇)이 친정 개시</p>
1325		<p>일본 일본 상선이 몽골에 와서 교역</p>
1328		<p>일본 일본 상인이 복건(福建)에 와서 교역</p>
1333		<p>일본 가마쿠라막부(鎌倉幕府) 멸망</p>

1334		일본 고다이코 천황이 겐무신정(建武新政) 개시
1336		일본 남북조시대 개막
1338		일본 아시카가 다카우지(足利尊氏)가 정이 대장군(征夷大將軍)이 되어 무로마치막부(室町幕府) 개창
1339		일본 고다이코 천황 사망. 기타바타케 지카우사(北畠親房)가 『신황정통기(神皇正統記)』 완성
1341		일본 아시카가 다다요시(足利直義)가 천룡사선(天龍寺船)을 몽골에 파견
1342		일본 일본 상인 100여 명이 고려에 표류하자 고려가 재물을 약탈하고 그들을 노예로 삼을 것을 몽골에 청함
1352		일본 일본이 고려 도적이 와서 약탈했다고 보고함
1363		일본 왜구가 봉주(蓬州)를 약탈했으나 격퇴당함
1366		일본 고려의 사신이 일본에 와서 왜구의 단속을 요청



Ⅰ 요대 서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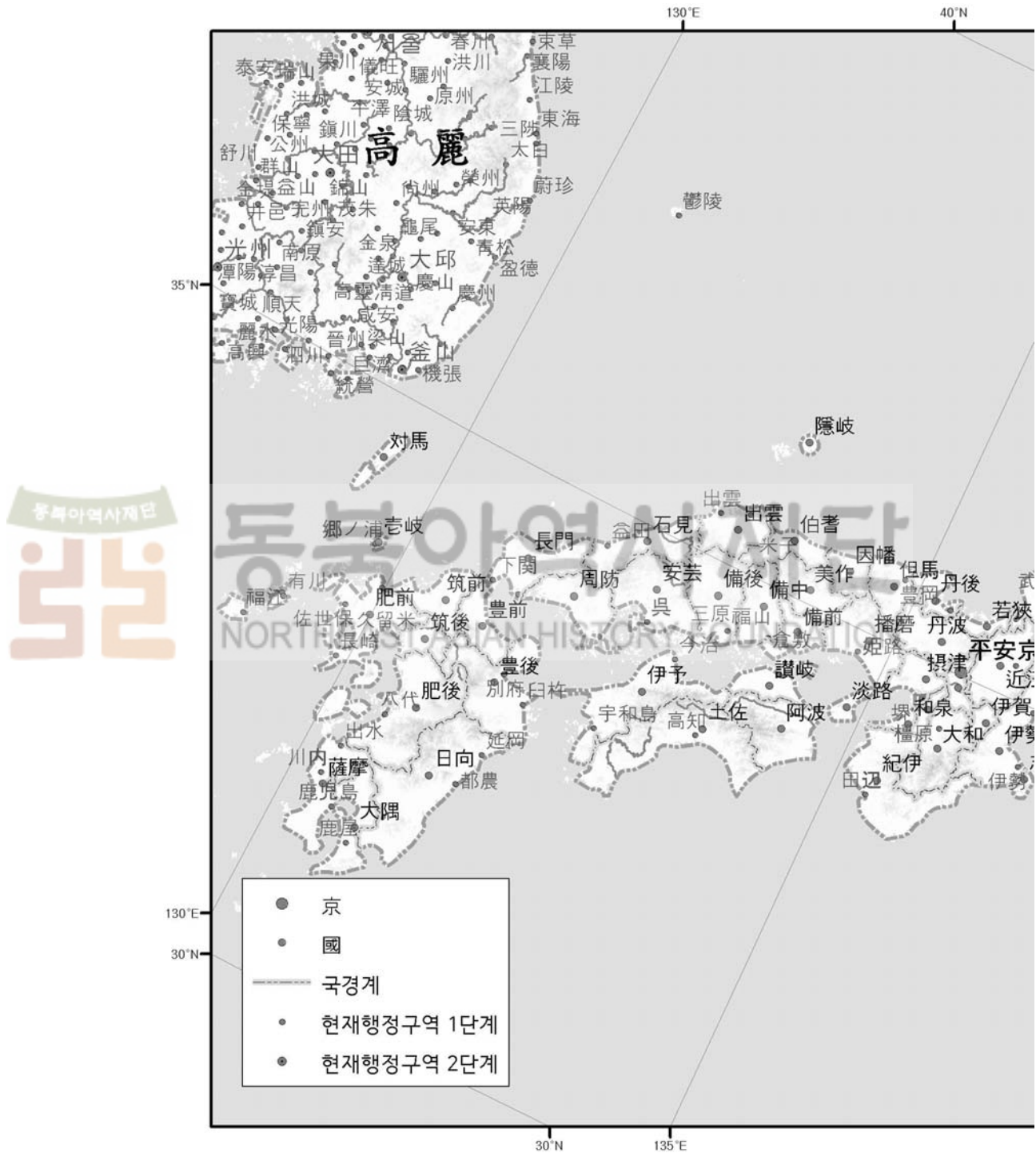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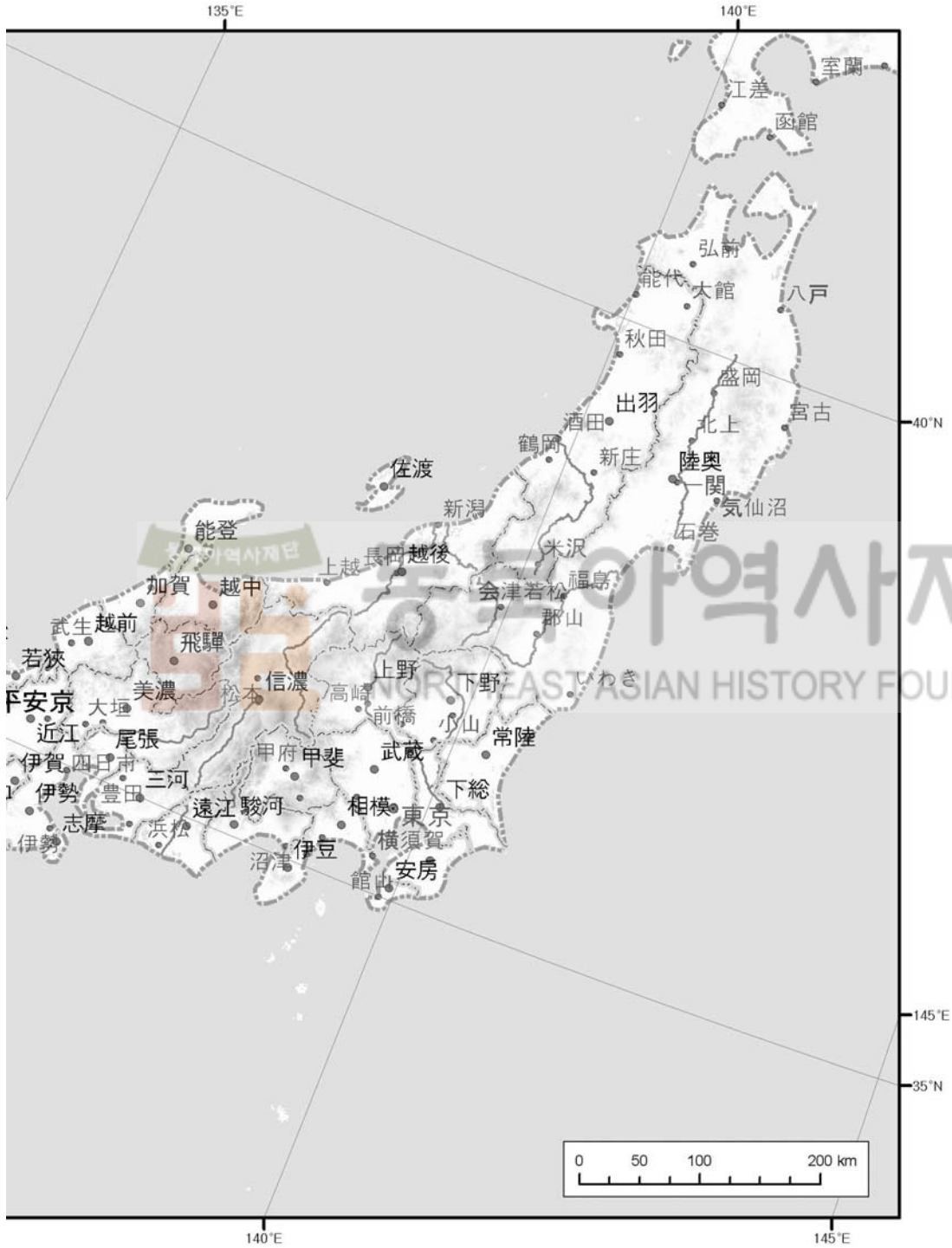


Ⅰ 금대 서하



Ⅰ 원대 일본





원대 안남



원대 면·점성·섬·조왜·유구·삼서 등 지역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 색 인 ❖

【ㄱ】

가주(葭州) 95, 103, 104, 322, 323
 감곡(龕谷) 103~106, 323
 강두성(江頭城) 252, 261, 266, 270, 272, 325
 강백통(姜伯通) 96, 323
 경(慶) 40
 경산노(慶山奴) 99, 100, 105, 323
 경원(慶原) 95, 107, 323
 경원로(涇原路) 80
 경주(慶州) 97
 고리갑석륜(古里甲石倫) 100, 323

곡씨(曲氏) 170
 공주(鞏州) 95, 100, 105
 교지(交趾) 158, 169, 175, 202, 224, 228, 230,
 231, 233, 238, 240, 243
 교지군(交趾郡) 158, 169, 176
 교지군왕(交趾郡王) 169, 176
 구성원(九星原) 80
 극용채(克戎寨) 98, 103, 323
 금주(金州) 143
 금치(金齒) 260, 325
 김유성(金有成) 139, 325, 327
 김찬(金贊) 136

【ㄴ】

나방령(囉龐嶺) 88, 322
 나세창(羅世昌) 109
 나세휘(羅世暉) 103
 난주(蘭州) 90, 91, 93, 96, 97, 100, 322, 323

난천보(暖泉堡) 80
 남월(南越) 7, 9, 170, 175
 남속랄정(納速刺丁) 251, 265, 267, 325, 326
 남합매주(納合買住) 104, 323
 납환(蠟丸) 89
 내강성(來羌城) 99, 106, 323
 내원진(來遠鎭) 99
 녹주(祿州) 209
 녹주(蠡州) 232
 누승채(累勝寨) 80
 눌랄정(訥刺丁) 181, 182, 185~187, 324

【ㄷ】

다루가치(達魯花赤) 134, 148, 153, 185, 221, 260,
 272, 279, 307, 324, 325
 달로화적(達魯花赤) 185~187, 190, 193, 194, 203,
 272, 273, 307
 당세창(党世昌) 103
 당올래(唐兀解) 207, 216, 218, 219, 221
 당주(唐州) 109
 당항(党項) 21, 25, 26, 44~46, 49, 109
 대리(大理) 9, 178, 256
 대리국(大理國) 183
 대리로(大理路) 263
 대마도(對馬島) 138, 325
 대북차(大北岔) 102, 323
 대월사기전서(大越史記全書) 174
 대통성(大通城) 106, 324
 도단추아(徒單醜兒) 95, 322
 도종(道宗) 27, 50, 52, 53, 321

동승주(東勝州) 91
 동주(東州) 113
 동주(銅柱) 170
 두세충(杜世忠) 149, 325
 등목길(滕木吉) 132
 등주(鄧州) 109

부주(鄜州) 37, 319
 북곡천(北谷川) 80
 불화(不花) 181, 182
 빈다룡(賓多龍) 287

【人】

【口】

마가평(馬家平) 103
 마원(馬援) 170, 176
 막청(莫靑) 155
 만겁(萬劫) 211, 228, 230
 모유(慕洵) 84
 무연천(武延川) 96, 323
 미사랑(彌四郎) 144, 145
 미이랑(彌二郎) 138, 139
 미지곡(米脂谷) 80

사도(唆都) 206, 207, 216, 218, 252, 278, 280, 288, 306, 324, 326
 사명주(思明州) 209, 220, 232
 살도로정(撒都魯丁) 149
 살리갈(撒離喝) 84
 상도(上都) 276
 상오답아(相吾答兒) 252, 269, 270, 326
 서관보(西關堡) 98, 100
 서남로(西南路) 88, 322
 서녕주(西寧州) 105
 서여립(徐餘立) 92
 서주(西州) 113
 서칭(徐稱) 144
 서하(西河) 112

【戶】

반부(潘阜) 137, 325
 발도(拔都) 211, 217, 218
 배국좌(裴國佐) 151
 백등강(白藤江) 172, 208, 226, 232
 백철(白撒) 103, 106, 107, 324
 범문호(范文虎) 149, 150, 151
 보안(保安) 90, 91, 93, 98, 322, 323
 보안주(保安州) 95, 103, 322
 복산(福山) 102, 323
 복상(卜祥) 92
 봉주(鳳州) 147, 149
 부량강(富良江) 197, 214
 부연로(鄜延路) 80, 99, 106

석잔합희(石盞合喜) 100, 105
 섬국(暹國) 123, 252, 253, 280, 290, 291, 326
 성안공주(成安公主) 27, 53, 321, 322
 성종(成宗) 158, 173, 237, 238, 252, 254, 275, 304
 성종(聖宗) 26, 36
 세자(世子) 173, 174, 195, 212, 213, 218, 232, 241, 243, 244
 소관(蕭關) 80
 송군비(宋君斐) 136
 송주(松州) 109
 수덕주(綏德州) 91, 103
 수외보(搜鬼堡) 106, 323
 수주(綏州) 29, 37, 67, 71, 111

숙양채(熟羊寨) 98, 323
 시춘(柴椿) 196~198, 200
 신릉도(信陵都) 92
 신림보(神林堡) 106, 324
 신부군(新附軍) 155, 225, 326
 신주(申州) 109

【오】

아랄한(阿剌罕) 150~152
 아로대(阿魯帶) 92
 아리해아(阿里海牙) 201~203, 221, 222, 225, 267, 289
 아출(阿朮) 150, 179
 아탑해(阿塔海) 153, 156
 악주행정(鄂州行省) 172, 222
 안남국(安南國) 175, 185, 187, 197, 207, 212, 214, 222, 241~243
 안남국왕(安南國王) 169, 173, 174, 184, 201, 215, 222
 안남도호부(安南都護府) 169, 175
 안남지략(安南志略) 169, 173, 174
 안새보(安塞堡) 100, 323
 안정보(安定堡) 103, 105
 안주(安州) 101, 323
 안향관(安鄉關) 96
 양길아(昂吉兒) 156
 야선철목아(也先鐵木兒) 273, 274
 야속답아(也速答兒) 159
 양알렬(楊幹烈) 100
 양재흥(楊再興) 98, 323
 양주(涼州) 44, 54, 112
 양천길(楊天吉) 78, 322
 양한채(羊狠寨) 103

여덕표(厲德彪) 153
 여월강(如月江) 221
 여즉(黎崩) 169
 여지(如智) 157, 327
 역도(驛道) 113
 연안(延安) 95, 98, 102, 107, 323
 염주(鹽州) 100, 111, 323
 영안채(寧安寨) 106, 324
 영일산(寧一山) 159
 영주(寧州) 101, 323
 영주(靈州) 38, 40, 88, 101, 107, 111, 319, 322, 323
 5관(管) 176
 오고론경수(烏古論慶壽) 100, 323
 오고론세현(烏古論世顯) 105, 323
 오고론장수(烏古論長壽) 105
 오룡산(五龍山) 154
 오마아(烏馬兒) 211, 217, 218, 226~230
 오만오(吳萬五) 155
 오명계(吳明契) 92
 온돈영창(溫敦永昌) 105
 울양합태(우량카다이, 兀良合臺) 177~179, 181, 324
 와보(洼普) 27, 48, 320
 완안구아(完顏狗兒) 98, 100, 103, 323
 완안국가노(完顏國家奴) 98, 323
 완안누실(完顏婁室) 74, 82
 완안달길(完顏達吉) 85
 완안려산(完顏閭山) 103
 완안새불(完顏賽不) 99, 323
 완안아린(完顏阿鄰) 107, 324
 완안알로(完顏斡魯) 74, 79
 완안종망(完顏宗望) 75, 77
 완안종한(完顏宗翰) 75, 77, 79

- 완안중원(完顔仲元) 102
- 완안합달(完顔合達) 104, 323
- 완안호로(完顔胡魯) 100
- 완안호실래(完顔胡失來) 98, 323
- 왕국좌(王國佐) 153
- 왕국창(王國昌) 142
- 왕립지(王立之) 108, 109
- 왕사도(王師道) 87
- 왕식(王禎) 135, 142, 143
- 왕아해(王阿海) 78, 79, 83, 322
- 왕적용(王積翁) 157, 158, 327
- 요추(姚樞) 145, 146
- 우창(于闐) 154
- 운남왕(雲南王) 187, 206, 274, 327
- 운내(雲內) 81, 82
- 위변채(威邊寨) 80
- 위소왕(衛紹王) 94, 95
- 위원보(渭源堡) 98, 323
- 위융성(威戎城) 82
- 위주(威州) 101, 111, 323
- 위천채(威川寨) 80
- 위포곡(委布谷) 80
- 유외문충(紐臥文忠) 86, 322
- 유이발도아(劉二拔都兒) 156
- 유주(裕州) 109
- 유주(宥州) 67, 100, 105, 111, 323
- 육문정(陸文政) 153
- 윤중(潤中) 92
- 용주(隆州) 104, 323
- 은주(銀州) 38, 71, 109, 111
- 은홍(殷弘) 133, 134
- 을실야괄부(乙室耶刮部) 75
- 의성공주(義成公主) 26, 37, 41, 73, 319, 320
- 이건순(李乾順) 27, 52~54, 67, 70, 76, 78, 79, 82, 83, 321, 322
- 이계봉(李繼捧) 26, 38, 319
- 이계천(李繼遷) 26, 29, 36~41, 110, 319
- 이공은(李公蘊) 176
- 이공직(李公直) 103
- 이극용(李克用) 72
- 이덕소(李德昭, 즉 李德明) 26, 30, 39~41, 43, 319, 320
- 이덕왕(李德旺) 108, 324
- 이덕임(李德任) 107, 324
- 이랄답불야(移剌答不也) 101
- 이량보(李良輔) 74
- 이병상(李秉常) 27, 51, 52, 321
- 이사림(李師林) 106
- 이순우(李純佑) 69, 93, 322
- 이안전(李安全) 69, 93, 322
- 이양조(李諒祚) 27, 47~49, 320, 321
- 이원호(李元昊) 26, 27, 42~44, 46~49, 72, 110, 320
- 이인우(李仁友) 93
- 이인효(李仁孝) 69, 82, 87~91, 93, 322
- 이준옥(李遵頊) 69, 94, 102, 103, 107, 108, 322
- 인부로(麟府路) 80
- 인주(麟州) 37, 319
- 일기도(一岐島) 152
- 임득경(任得敬) 87~90, 322
- 임득충(任得聰) 87
- 임연(林衍) 141, 143

【ㄱ】

- 잡랄공제(雜辣公濟) 84
- 장종(章宗) 92, 94, 258
- 장탁(張鐸) 144, 145

적석주(積石州) 95~97
 적조(寂照) 132
 점성(占城) 121, 171, 202, 204~208, 210~212, 216, 223, 231, 252, 253, 277~291, 306, 326, 327
 정단사(正旦使) 91
 정련(丁璉) 176
 정부령(丁部領) 176
 정주(靜州) 29, 30, 38, 87
 정진승(程陳僧) 96, 98, 323
 제오장성(第五將城) 98, 323
 조강(洮江) 178, 229
 조개승(曹介升) 143
 조기승(曹記僧) 96, 98, 323
 조양필(趙良弼) 140~142, 145, 147, 325
 조연(喬然) 127, 132
 조이(趙彝) 133
 조타(趙佗) 175
 진광명(陳光昺) 181~189, 191, 193~195, 201, 324
 진남왕(鎮南王) 171, 207~211, 213, 214, 218, 220~222, 226~232, 289
 진단오(陳端午) 173, 195, 236
 진랍국(眞臘國) 282
 진봉로(秦鳳路) 80, 85
 진유애(陳遺愛) 173, 201, 221
 진익직(陳益植) 173, 174, 219, 222, 225, 236, 237, 244
 진일경(陳日暹) 177, 179
 진일광(陳日曠) 243
 진일부(陳日焯) 244
 진일존(陳日樽) 173, 327
 진일추(陳日飡) 239
 진일환(陳日煊) 172, 195~197, 199~201, 203~209, 211, 213~215, 217~219, 221, 222, 227,

229, 232, 233
 진찬(陳璨) 206
 질과보(質孤堡) 104, 106, 323, 324
 집현전(集賢殿) 198
 징씨(徵氏) 자매 170
 징측(徵側) 176

【ㄸ】

창주(倉州) 81
 천덕(天德) 74, 79, 81, 82, 84
 천조제(天祚帝) 25, 27, 53, 321, 322
 철리첨목아(徹里帖木兒) 156
 철철도(徹徹都) 178, 179
 추밀원(樞密院) 102, 106, 145, 200, 221, 225, 226, 262, 267
 칠원주(七源州) 210

【ㄹ】

타만호토문(陀滿胡土門) 98, 100, 101, 323
 탁발부(托跋部) 109
 탁발사공(托跋思恭) 63, 70, 110
 탁발씨(拓跋氏) 28, 29, 71, 109
 탈환(脫歡) 253, 289, 296
 탑이랑(塔二郎) 138
 태공성(太公城) 252, 271, 272, 274, 327
 태제부(太宰府) 129, 139, 145, 147, 152, 153
 토곤(脫歡) 153, 171, 207, 208, 289
 토록락(吐祿瀼) 75
 통진채(通秦寨) 104, 323
 통회보(通懷堡) 81

【 ㅍ 】

파로화(婆盧火) 82
 파리공량(把里公亮) 76, 322
 파리창조(芭里昌祖) 87
 팔각도(八角島) 155
 평장정사(平章政事) 158, 202, 226, 244, 289, 293,
 305, 327
 평하부(平夏部) 110
 평호도(平戶島) 152
 평호도(平壺島) 154
 포감(蒲甘) 251, 252, 274

【 ㅎ 】

하문저(何文著) 149
 하주(葭州) 103
 하주(夏州) 29, 71, 72, 100, 109~111, 323
 하주(河州) 97, 98
 합포(合浦) 153, 326
 항(恒) 39
 해릉왕(海陵王) 84, 85
 허형(許衡) 145
 협곡해도(夾谷海壽) 106, 323
 형호점성행성(荊湖占城行省) 205~207
 호광안남행성(湖廣安南行省) 236

호광행성(湖廣行省) 224, 240, 241, 244
 호시(互市) 103
 호참(昊岳) 177
 홀룽해아(忽籠海牙) 187, 188, 325
 홀림실(忽林失) 142
 홍차구(洪茶丘) 142, 148, 150, 151
 화례곽손(和禮霍孫) 145
 화주(華州) 104, 323
 환(環) 39, 40
 환경로(環慶路) 80
 환주(環州) 84, 91, 96, 97, 100, 109
 황소(黃巢) 67, 72, 110
 황학차(黃鶴岔) 103
 회안채(懷安寨) 100
 회주(會州) 95, 101, 105, 106, 322, 323
 횡산(橫山) 111
 홀삼십(忽三十) 96
 흑적(黑的) 133, 135, 136, 138
 혼도(忻都) 147, 150~152, 291
 홀석열저구(紇石烈豬猡) 102
 흥도왕(興道王) 172, 207, 210~213, 215, 218~220,
 228, 232
 흥종(興宗) 26, 27, 42, 47, 49, 50, 320, 321
 흥주(興州) 110, 112
 흥평공주(興平公主) 26, 42, 43, 320
 희종(熙宗) 84



동북아역사 자료총서 34

譯註 中國 正史 外國傳 14

遼史·金史·元史 外國傳 譯註

동북아역사재단

초판 1쇄 인쇄 2014년 10월 15일

초판 1쇄 발행 2014년 10월 22일

엮은이 동북아역사재단

펴낸이 김학준

펴낸곳 동북아역사재단

등록 제312-2004-050호(2004년 10월 18일)

주소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81 임광빌딩

전화 02-2012-6065

팩스 02-2012-6189

e-mail book@nahf.or.kr

© 동북아역사재단, 2014

ISBN 978-89-6187-348-2 94910

ISBN 978-89-6187-106-8 (세트)

- * 이 책의 출판권 및 저작권은 동북아역사재단에 있습니다.
저작권법으로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어떤 형태나 어떤 방법으로도 무단전재와 무단복제를 금합니다.
- * 이 도서의 국립중앙도서관 출판예정도서목록(CIP)은 서지정보유통지원시스템 홈페이지(<http://seoji.nl.go.kr>)와 국가자료공동목록시스템(<http://www.nl.go.kr/kolisnet>)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CIP제어번호 : CIP2014029929)
- * 책값은 뒷표지에 있습니다. 잘못된 책은 바꾸어 드립니다.